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168-01
ISBN-979-11-5598-047-7

The Korean War

6·25 전쟁
주요 전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e Korean War

6·25 전쟁
주요 전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CONTENTS

Ⅱ. 전투 항목(육군편)

173. 코만도 작전 [코만도 作戰, 1951. 10. 3.~9.] • 013
174. 어은산 부근 전투 [魚隱山 附近 戰鬪, 1951. 10. 6.~28.] • 017
175. 제1차 월비산 전투 [第1次 月比山 戰鬪, 1951. 10. 12.~15.] • 022
176. 김화-금성 진격전 [金化-金城 進擊戰, 1951. 10. 13.~18.] • 025
177. 금성천-교암산 전투 [金城川-轎岩山 戰鬪, 1951. 10. 13.~21.] • 029
178. 제2차 가칠봉 부근 전투 [第2次 加七峰 戰鬪, 1951. 10. 27.~31.] • 033
179. 949고지 전투 [949高地 戰鬪, 1951. 11. 17.~18.] • 036
180. 281고지 및 395고지 전투 [281高地-395高地 戰鬪, 1951. 11. 17.~18.] • 040
181. 제2차 월비산 전투 [第2次 月比山 戰鬪, 1951. 11. 18.~24.] • 044
182.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 [白野戰戰鬪司令部 共匪討伐作戰, 1951. 12. 2.~1952. 3. 14.] • 048
183. 임진강 부근 전투 [臨津江 附近 戰鬪, 1952. 12. 11.~13.] • 053
184. 1090고지 부근 전투 [1090高地 附近 戰鬪, 1951. 12. 25.~1952. 2. 13.] • 057
185. 두매리 전투 [杜梅里 戰鬪, 1951. 12. 28.~1952. 1. 8.] • 060
186. 575고지 부근 전투 [575高地 附近 戰鬪, 1952. 4. 16.~6. 14.] • 064
187. 662고지 전투 [662高地 戰鬪, 1952. 2. 15.] • 068
188. 불모고지 전투 [不毛高地 戰鬪, 1952. 6. 6.~8. 1.] • 072
189. A고지 및 B고지 전투 [A高地-B高地 戰鬪, 1952. 6. 11.~19.] • 075
190.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 [首都高地-地形稜線 戰鬪, 1952. 7. 7.~10. 14.] • 079
191. 351고지 전투 [351高地 戰鬪, 1952. 7. 10.~11. 10.] • 084
192. 벙커고지(122고지) 부근 전투 [벙커高地 戰鬪, 1952. 8. 9.~16.] • 088
193. 피의고지 및 독수리고지 전투 [피의高地-독수리高地 戰鬪, 1952. 9. 28.~10. 2.] • 092
194. 고양대 부근 전투 [高陽垈 附近 戰鬪, 1952. 10. 6.~9.] • 095

195. 백마고지 전투 [白馬高地 戰鬪, 1952. 10. 6.~15.] • 099
196. 1090고지 부근 전투 [1090高地 附近 戰鬪, 1952. 10. 6.~14.] • 103
197. 저격능선 전투 [狙擊稜線 戰鬪, 1952. 10. 14.~11. 24.] • 106
198. 텍사스고지(689고지) 전투 [텍사스高地 戰鬪, 1953. 4. 2.~12.] • 110
199. 금성 샛별고지 전투 [金城 샛별高地 戰鬪, 1953. 5. 14.~16.] • 114
200. 854고지 및 812고지 전투 [854高地 및 812高地 戰鬪, 1953. 6. 1.~7. 17.] • 116
201. 351고지 전투 [351高地 戰鬪, 1953. 6. 2.~7. 18.] • 120
202. 미주리선 (949고지–973고지–883고지) 방어전 [미주리線 防禦戰, 1953. 6. 10.~14.] • 123
203. M1고지 전투 [M1高地 戰鬪, 1953. 6. 10.~23.] • 127
204. 1090고지 전투 [1090高地 戰鬪, 1953. 6. 14.~18.] • 131
205. 북진능선 전투 [北進稜線 戰鬪, 1953. 6. 11.~14.] • 135
206. 선우고지 전투 [鮮于高地 戰鬪, 1953. 6. 25.~7. 1.] • 139
207. 퀀고지 (250고지)–박고지 (199고지) 전투 [퀀高地–朴高地 전투, 1953. 6. 25.~29.] • 143
208. 관망산 (529고지) 전투 [觀望山 戰鬪, 1953. 6. 25.~7. 3.] • 147
209. 화살머리고지 (281고지) 전투 [화살머리高地 戰鬪, 1953. 6. 29.~7. 11.] • 151
210. 베티고지 전투 [베티高地 戰鬪, 1953. 7. 15.~16.] • 154
211. 금성지구 전투 [金城地區 戰鬪, 1953. 7. 13. ~19.] • 157
212. 425고지 및 406고지 전투 [425高地–406高地 戰鬪, 1953. 7. 20.~24.] • 168
213. 이화령 및 조령 전투 [梨花嶺 및 鳥嶺 戰鬪, 1950. 7. 13.~16.] • 172
214. 영강 전투 [嶺江 戰鬪, 1950. 7. 17.~22.] • 176
215. 유곡리 전투 [幽谷里 戰鬪, 1950. 7. 23.~30.] •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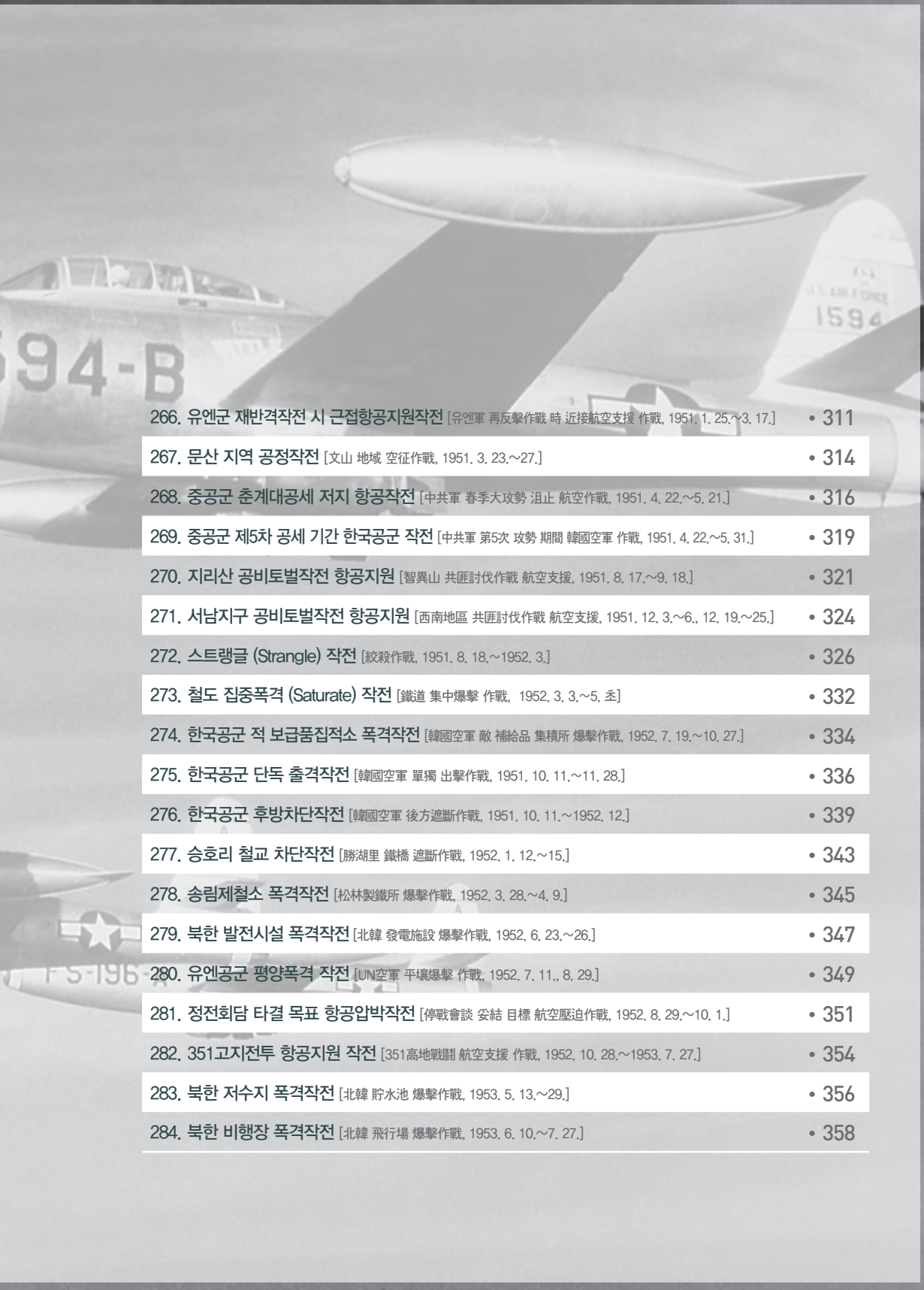
Ⅲ. 전투 항목(해군편)

216. 옹진 해상철수 지원작전 [甕津 海上撤收 支援作戰, 1950. 6. 26.] • 187
217. 옥계 해전 [玉溪 海戰, 1950. 6. 25.] • 188
218. 대한해협 해전 [大韓海峽 海戰, 1950. 6. 25.] • 190
219. 동해안 봉쇄작전 [東海岸 封鎖作戰, 1950. 6. 25.~7. 13.] • 192
220. 서해안 봉쇄작전 [西海岸 封鎖作戰, 1950. 7. 5.~14.] • 193
221. 구암산지구 전투 [九岩山地區 戰鬪, 1950. 7. 11.~17.] • 195
222. 평양 및 해주공습작전 [平壤 및 海州空襲作戰, 1950. 7. 3.~4.] • 197
223. 원산 정유공장 폭격작전 [元山精油工場 爆擊作戰, 1950. 7. 18.~19.] • 198
224. 덕적도 · 영흥도 탈환작전 [德積島 · 靈興島 奪還作戰, 1950. 8. 18.~21.] • 200
225. 장사동 상륙작전 [長沙洞 上陸作戰, 1950. 9. 14.~20.] • 201
226. X-Ray 첩보수집작전 [X-Ray 諜報收集作戰, 1950. 8. 16.~9. 14.] • 204
227. 영흥만 소해작전 [永興灣 掃海作戰, 1950. 10. 2.~31.] • 205
228. 진남포 소해작전 [鎭南浦 掃海作戰, 1950. 10. 29.~11. 7.] • 208
229. 원산 · 성진 철수작전 [元山 · 城津 撤收作戰, 1950. 12. 3.~12.] • 210
230. 흥남 철수작전 [興南 撤收作戰, 1950. 12. 12.~24.] • 211

231. 진남포 및 인천 철수작전 [鎭南浦 및 仁川 撤收作戰, 1950. 12. 4.~31.] • 215
232.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 [黃海道 避亂民 撤收作戰, 1951. 1. 5.~31.] • 219
233. 인천 재탈환작전 [仁川 再奪還作戰, 1951. 2. 10.] • 221
234.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 [鴨綠江 橋梁 爆破作戰, 1950. 11. 9.~21.] • 223
235. 도곡리 철교 폭파작전 [道谷里 鐵橋 爆破作戰, 1951. 3. 2.~4. 2.] • 224
236. 화천댐 폭파작전 [華川堤堰 爆破作戰, 1951. 4. 30.~5. 1.] • 226
237. 신미도 전투 [身彌島 戰鬪, 1951. 4. 16.] • 227
238. 한국해군 제1함대 동해안 경비작전 [韓國海軍 第1艦隊 東海岸 警備作戰, 1951. 10.~1953. 7.] • 229
239. 한국해군 제1함대 서해안 경비작전 [韓國海軍 第1艦隊 西海岸 警備作戰, 1951. 10.~1953. 3.] • 231
240. 수풍댐 폭파작전 [水豊堤堰 爆破作戰, 1952. 6. 23.~24.] • 233
241. 평양 공습작전 [平壤 空襲作戰, 1952. 7. 11.] • 235
242. 신덕 · 길주 공습작전 [新德 · 吉州 空襲作戰, 1952. 7. 27.~28.] • 236
243. 창린도 탈환작전 [昌麟島 奪還作戰, 1952. 7. 15.] • 237
244.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阿吾地 精油工場 爆破作戰, 1952. 9. 1.] • 239

Ⅳ. 전투 항목(공군편)

245. 수도권 방어 항공지원작전 [首都圈 防禦 航空支援作戰, 1950. 6. 25.~27.] • 245
246. 전쟁 초기 제공작전 [戰爭 初期 制空作戰, 1950. 6. 27.~30.] • 246
247. 한국 공군 F-51전투기 첫 출격 [韓國 空軍 F-51戰鬪機 첫 出擊, 1950. 7. 3.~11.] • 249
248. 미 제24사단 항공지원 작전 [美 第24師團 航空支援 作戰, 1950. 7. 1.~11.] • 251
249. 북한군 전격전 저지작전 [北韓軍 電擊戰 沮止作戰, 1950. 7. 10.~24.] • 253
250. 낙동강 방어작전시 후방차단작전 [洛東江 防禦作戰時 後方遮斷作戰, 1950. 8. 2.~9. 6.] • 256
251. 낙동강 방어선 근접항공지원 작전 [洛東江 防禦線 近接航空支援 作戰, 1950. 8. 5.~9. 12.] • 263
252. 한국 공군비행단의 낙동강전선 항공지원 작전 [韓國 空軍飛行團 洛東江戰線 航空支援 作戰, 1950. 8. 15.~9. 22.] • 268
253. 인천상륙작전 항공지원 [仁川上陸作戰 航空支援, 1950. 9. 9.~30.] • 272
254. 미 제8군 낙동강선 반격작전 지원 [美 第8軍 洛東江線 反擊作戰 支援, 1950. 9. 16.~24.] • 274
255. 흥남화학단지 폭격작전 [興南化學團地 爆擊作戰, 1950. 7. 30.~8. 3.] • 277
256. 북한 산업시설 전략폭격작전 [北韓 散業施設 戰略爆擊作戰, 1950. 8. 7.~9. 26.] • 279
257. 숙천 · 순천지역 공수작전 [肅川 · 順川地域 空輸作戰, 1950. 10. 20.~23.] • 283
258. 압록강 교량 폭격작전 [鴨綠江 橋梁 爆擊作戰, 1950. 11. 8.~30.] • 285
259. 한국 공군비행단 여의도기지 출격작전 [韓國 空軍飛行團 汝矣島基地 出擊作戰, 1950. 9. 23.~10. 13.] • 288
260. 한국 공군비행단 평양미림기지 출격작전 [韓國 空軍飛行團 平壤美林基地 出擊作戰, 1950. 10. 30.~11. 30.] • 291
261. 유엔 지상군 북한지역 철수작전 항공지원 [UN地上軍 北韓地域 撤收作戰 航空支援, 1950. 11. 28.~12. 24.] • 292
262. 백구부대 작전 [白鷗部隊 作戰, 1950. 12. 4.~1951. 4. 21.] • 298
263. 북한 비행장 폭격 [北韓 飛行場 爆擊, 1951. 4. 17.~7. 9.] • 300
264. 중공군 제3차~제5차 공세 시 병참선 차단작전 [中共軍 第3次~第5次 攻勢 時 兵站線 遮斷作戰, 1951. 1. 19.~5. 30.] • 303
265. 중공군 제3차~제5차 공세 시 수송수단 폭격작전 [中共軍 第3次~第5次 攻勢 時 輸送手段 爆擊作戰, 1951. 1.~6.] • 307



266. 유엔군 재반격작전 시 근접항공지원작전 [유엔軍 再反擊作戰 時 近接航空支援 作戰, 1951. 1. 25.~3. 17.] • 311

267. 문산 지역 공정작전 [文山 地域 空征作戰, 1951. 3. 23.~27.] • 314

268. 중공군 춘계대공세 저지 항공작전 [中共軍 春季大攻勢 沮止 航空作戰, 1951. 4. 22.~5. 21.] • 316

269. 중공군 제5차 공세 기간 한국공군 작전 [中共軍 第5次 攻勢 期間 韓國空軍 作戰, 1951. 4. 22.~5. 31.] • 319

270.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항공지원 [智異山 共匪討伐作戰 航空支援, 1951. 8. 17.~9. 18.] • 321

271. 서남지구 공비토벌작전 항공지원 [西南地區 共匪討伐作戰 航空支援, 1951. 12. 3.~6., 12. 19.~25.] • 324

272. 스트랭글 (Strangle) 작전 [絞殺作戰, 1951. 8. 18.~1952. 3.] • 326

273. 철도 집중폭격 (Saturate) 작전 [鐵道 集中爆擊 作戰, 1952. 3. 3.~5. 초] • 332

274. 한국공군 적 보급품집적소 폭격작전 [韓國空軍 敵 補給品 集積所 爆擊作戰, 1952. 7. 19.~10. 27.] • 334

275. 한국공군 단독 출격작전 [韓國空軍 單獨 出擊作戰, 1951. 10. 11.~11. 28.] • 336

276. 한국공군 후방차단작전 [韓國空軍 後方遮斷作戰, 1951. 10. 11.~1952. 12.] • 339

277.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勝湖里 鐵橋 遮斷作戰, 1952. 1. 12.~15.] • 343

278.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松林製鐵所 爆擊作戰, 1952. 3. 28.~4. 9.] • 345

279. 북한 발전시설 폭격작전 [北韓 發電施設 爆擊作戰, 1952. 6. 23.~26.] • 347

280. 유엔공군 평양폭격 작전 [UN空軍 平壤爆擊 作戰, 1952. 7. 11., 8. 29.] • 349

281. 정전회담 타결 목표 항공압박작전 [停戰會談 妥結 目標 航空壓迫作戰, 1952. 8. 29.~10. 1.] • 351

282. 351고지전투 항공지원 작전 [351高地戰鬪 航空支援 作戰, 1952. 10. 28.~1953. 7. 27.] • 354

283. 북한 저수지 폭격작전 [北韓 貯水池 爆擊作戰, 1953. 5. 13.~29.] • 356

284. 북한 비행장 폭격작전 [北韓 飛行場 爆擊作戰, 1953. 6. 10.~7. 27.] • 358

Ⅴ. 전투 항목(해병대편)

285. 고사리 전투 [姑舍里 戰鬪, 1950. 8. 1.~3.] • 363
286. 진동리지구 전투 [鎭東里地區 戰鬪, 1950. 8. 6.~12.] • 364
287. 통영 상륙작전 [統營 上陸作戰, 1950. 8. 16.~19.] • 366
288. 원문고개 방어전투 [轅門峙 防禦戰鬪, 1950. 8. 19.~9. 11.] • 369
289. 연희동 104고지 전투 [延禧洞 104高地 戰鬪, 1950. 9. 21.~22.] • 371
290. 연희고지 전투 [延禧高地 戰鬪, 1950. 9. 22.~25.] • 372
291. 영등포 탈환 전투 [永登浦 奪還 戰鬪, 1950. 9. 19.~22.] • 374
292. 한강도하 작전 [漢江渡河 作戰, 1950. 9. 20.~21.] • 376
293. 마전리지구 전투 [馬轉里地區 戰鬪, 1950. 11. 10.~17.] • 378
294. 동양리지구 전투 [東陽里地區 戰鬪, 1950. 11. 17.~12. 2.] • 380
295. 원산 · 함흥지구 전투 [元山 · 咸興地區 戰鬪, 1950. 12. 3.~15.] • 381
296. 장진호 전투 [長津湖 戰鬪, 1950. 12. 6.~ 11.] • 383
297. 영덕지구 전투 [盈德地區 戰鬪, 1951. 1. 29.~2. 12.] • 387

298. 원산봉쇄 도서작전 [元山封鎖 島嶼作戰, 1951. 2. 13.~25.] • 389
299. 영월지구 전투 [寧越地區 戰鬪, 1951. 2. 19.~3. 15.] • 391
300. 홍천 가리산 전투 [洪川 加里山 戰鬪, 1951. 3. 8.~4. 3.] • 393
301. 도솔산 전투 [兜率山 戰鬪, 1951. 6. 4.~20.] • 395
302. 대우산 전투 [大愚山 戰鬪, 1951. 7. 7.~30.] • 398
303. 924고지 및 1026고지 전투 [924高地 및 1026高地 戰鬪, 1951. 8. 31.~9. 3.] • 400
304. 월산령지구 방어작전 [月山嶺地區 防禦作戰, 1951. 9. 5.~18.] • 403
305. 황토도 전투 [黃土島 戰鬪, 1951. 5. 23.~11. 29.] • 405
306. 호도 전투 [胡島 戰鬪, 1952. 3. 25.~29.] • 407
307. 장단 사천강지구 전투 [長湍 泗川江地區 戰鬪, 1952. 3. 18.~1953. 7. 27.] • 408
308. 사천강 혼비고지 전투 [泗川江 魂飛高地 戰鬪, 1952. 9. 5.~20.] • 411

Ⅱ

6·25 전쟁 주요 전투

전투 항목(육군편)

코만도 작전

[코만도 作戰, 1951. 10. 3.~9.]

개요

미 제1군단이 유엔군의 추계공세작전이 진행되고 있던 1951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현재의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약 10km 북방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중공군 제42 · 제47 · 제64 · 제67군과 공방전을 실시한 진격작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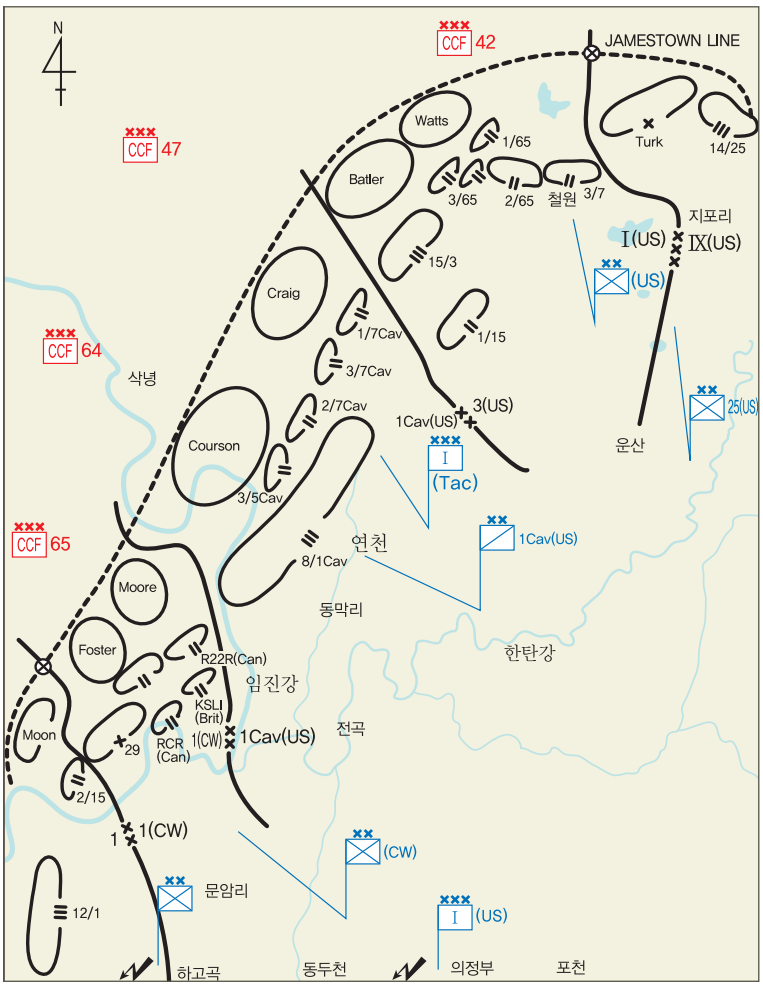
전개과정

미 제10군단이 하계 제한공세작전을 통해 방어선을 개선하고 마무리 단계로서 '단장의 능선 전투'를 전개하자, 미 제1군단장 오다니엘(John W. O'Daniel) 중장은 군단 방어선을 현재보다 약 10km 북쪽으로 전진시키는 일명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을 계획하였다. 이는 군단 방어선을 한강 하구–문산–연천–철원을 연하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부터 고랑포–사미촌–고왕산–마량산–역곡천 남안–281고지–중가산–정연리를 잇는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으로 북상시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군단장은 이 작전을 통해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추진해 현재의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천–철원계곡의 병참선을 방호하며 서울–철원 및 철원–김화간 철로를 개통시켜 보급제한을 해소하는 한편 공산군의 균형을 파괴하고 유엔군이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전략 및 전술적 이점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 제1군단 전방에는 중공군 제65군과 제64군이 임진강 연안에, 제47군이 역곡천 일대에, 제42군과 제26군이 철원–김화 전방에 그리고 북한군 제1군단이 예성강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몇 개월 동안 이어진 전선 교착기를 이용해 방어선을 강력히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의 승인을 받은 미 제1군단은 1951년 10월 3일을 기해 예하의 4개 사단으로 철원 부근–임진강 하구–김포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에 공격목표 Moon(판부리 서쪽 146고지–91고지)을, 영연방 제1사단에 공격목표 Foster(187고지, 고왕리 일대)와 Moore(마량산–고잔리 일대)를, 제1기병사단에 공격목표 Courson(346고지–덕은동 일대)과 Craig(347고지, 갈현리 일대)를 그리고 제3사단에는 공격목표 Butler(중



토동-324고지-덕산리 일대)와 Watts(281고지-266고지-중어성 일대)를 부여하였다. 이때 우측에 인접한 미 제9군단은 이번 작전으로 초래되는 전선 불균형에 대비해 예하 제25사단을 미 제1군단의 우측과 연대해 전진토록 조치하였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난 오전 6시 각 사단은 부여된 목표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측을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상의 주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사미천 서안의 91고지와 146고지를 점령하였다. 우측에서 공격을 시작한 미 제25사단은 배속된 터키여단이 372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제임스타운선의 가장 동쪽 끝인 정연리 북쪽의 430고지를 탈취하여 작전목표선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중앙 공격을 담당한 미 제1기병사단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탄약 및 보급품을 충분히 보유한 중공군 제139사단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최초로 전장에 투입된 중공군 제2포병사단의 대포병전으로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스대대와 함께 목표 크레이그를 공격한 제7기병연대는 418고지-313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중공군의 역습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일단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목표 커슨을 담당한 제5기병연대는 346고지를 중심으로 272고지-222고지를 공격하였고, 몇 차례의 뺏고 빼앗기는 백병전 끝에 222고지만을 탈취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군 제28여단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목표 무어 하단의 고잔하리-199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일부는 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 포스터와 무어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우측방에서 목표 왓츠와 버틀러의 탈취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3사단은 공격 초점을 왓츠보다는 버틀러에 집중하였다. 이는 왓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7연대가 395고지와 266고지를 이미 확보하고 281고지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65연대는 철원평야 284고지와 중가산 일대까지 일부 부대를 추진 배치해 제임스타운선을 점령하였다. 제15연대는 목표 버틀러 남쪽의 487고지를 점령한 후 천덕산(△477)을 공격하였다.

공격 이틀째인 10월 4일에 군단은 좌측과 우측의 목표선을 거의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이 완강히 저항하여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우측의 미 제3사단은 제65연대가 군단 경계선상인 중가산 일대로부터 진격을 시작해 제임스타운선 상의 진지를 점령한데 이어 제7연대가 281고지마저 탈취하여 목표를 모두 확보하였다. 그러나 목표 버틀러를 공격한 제15연대는 천덕산을 점령하였으나, 중공군의 반격으로 3시간 만에 다시 고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중앙 우측을 담당한 미 제1기병사단은 계속되는 중공군의 저항에 막혀 공격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중공군은 고지에서 밀려나면 인명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부대를 투입해 반격을 가해왔다. 이들은 중대 당 12정의 기관총을 운용하는 한편 많은 양의 수류탄을 확보해 수류탄전을 펼쳐 미 제1기병사단에 적잖은 피해를 주었다. 이날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이 큰 타격을 입은 제139사단을 증원해 제140사단마저 투입하면서 중공군 제47군 주력과 맞서게 되었다.

영연방 제1사단은 우측의 영국군 제28여단이 199고지 일대를, 중앙의 캐나다 제25여단이 187고지와 가마골 일대 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영국군 제29여단이 187고지 서단으로 진출함으로써 목표 포스터를 완전히 점령하고 무어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또한 미 제25사단은 일부가 제임스타운선에 진출하여 이번 작전에 대한 지원임무를 완수하였다.

작전개시 사흘째인 10월 5일부터는 미 제1기병사단의 정면에서 집요하게 저항하던 중

공군의 방어진도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우측 미 제3사단은 천덕산 일대에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15연대가 중공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천덕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중앙의 제1기병사단은 제8기병연대가 418고지를 탈취한데 이어 제7기병연대가 그리스대대와 함께 313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군 제28여단이 마량산(△317)을 탈취하는 등 목표인 무어마저 확보하였다.

미 제3사단은 제15연대가 10월 6일에 324고지를 점령한 후 목표 버틀러를 확보함으로써 사단에 부여된 2개의 목표탈취를 완수하였다.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 미 제1기병사단은 제8기병연대가 334고지를 점령하여 목표인 크레이그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제5기병연대는 적거리 일대 목표인 커슨 남단 346고지-250고지 일대로 수색대를 진출시켰으나,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주진지로 복귀하였다.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군 제29여단이 217고지를 탈취함으로써 부여된 모든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작전개시 5일째인 10월 7일 좌우측 사단들이 목표를 확보한 가운데 미 제1기병사단은 제7연대가 그리스대대 지원 아래 347고지를 공격 점령함으로써 부여된 2개의 목표 중 크레이그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그러나 346고지-230고지를 공격한 제5연대는 중공군의 집요한 저항으로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사단은 346고지를 중심으로 한 230고지와 272고지에서 10월 9일까지 목표탈취를 위한 전투를 계속하였으나, 군단은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작전을 일단 종결하였다.

목표 커슨에 대한 작전은 10월 15일에 시행된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속행되었다. 다음날 제5기병연대의 총공격과 함께 제8기병연대는 287고지로부터 346고지를 북동쪽에서 공격하였다. 10월 18일 완강히 저항하던 중공군은 철수를 시작하였고, 제5기병연대는 346고지와 230고지를 탈취한 후 이어서 최후 거점인 262고지마저 점령함으로써 목표 커슨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작전에서 중공군은 포로 500명을 포함한 2만 1천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고, 미 제1군단도 4,000명의 전사 및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1951년 10월 9일에 종료되었으나, 제1기병사단의 목표 Courson에 대한 공격은 10월 19일까지 계속되었다.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작전에서 중공군은 그들의 보급기지인 삭녕을 방어하기 위해 역곡천 남안에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 작전에서 미 제1군단은 계획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 방어선을 제임스타운 선까지 추진하여 방어에 보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재개된 휴전회담에서도 군사

분계선 확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역곡천 북쪽으로 물러났던 중공군은 이후에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반격을 가해왔으며, 특히 마량산과 고왕산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1997)
HQ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손규석 집필】

어은산 부근 전투

[魚隱山 附近 戰鬪, 1951. 10. 6.~28.]

개요

국군 제8사단이 유엔군의 추계공세작전 중인 1951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양구 북방의 백석산으로부터 어은산에 이르는 지역의 고지군을 점령하기 위해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12 · 제32사단, 교체부대인 중공군 제68군 제204사단과 3단계에 걸쳐 공방전을 실시한 공격전투이다.

전개과정

유엔군 추계공세작전이 시작될 무렵인 1951년 10월 초순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Clovis E. Byers) 소장은 해안분지(Punch bowl) 서벽의 진출선을 급거 북상시키기 위한 작전에 착수하였다. 이는 군단 주공인 미 제2사단이 '피의 능선'을 지나 '단장의 능선'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측방 공산군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군단 조공으로 백석산을 확보한 국군 제8사단이 군단 공격정면의 고지군을 어은산 선까지 장악해 북한강 상류를 사이에 둔 좌측 미 제9군단의 금성진출에 호응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작전의 최종공격선인 어은산(△1277)으로부터 남쪽 백석산(△1142)에 이르는 작전지역은 700~1,000m의 고산준령이 중첩되어 있고, 각 고지마다 45~70도의 급경사에 울창한 산림과 험준한 암석이 깔려 있어 공격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반면 방어자에게는 유리한 지세였다.

국군 제8사단 정면에는 제2차 백석산 전투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과 제32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중공군 제20병단 제68군(군장 陳坊仁) 예하 제204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어은산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3개 연대를 일선에 배치한 중공군 제204사단은 전략적 요지인 1220고지-1090고지-1065고지 선을 끝까지 확보하면서 국군 제8사단에 빼앗긴 백석산 일대를 탈환하여 문등리로 이어지는 주보급로를 차단, 미 제10군단의 전면적인 진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앞선 전투에서 점령한 백석산 일대에서 10월 1일을 기해 차기공격작전에 돌입하면서 예하의 제10 · 제16 · 제21연대를 사단 좌측과 중앙, 우측 전방에 배치하였다. 10월 3일 1050고지에 대한 군단의 공격명령을 받은 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은 적정을 분석한 결과, 공산군의 주저항선인 1220고지-1090고지-977고지 선까지 진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북한군 주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한 전진거점 확보를 위해 목표고지를 점령하고, 제2단계는 제1단계 진출선에서 공격을 속행하여 1090고지-977고지-1054고지-1065고지와 1065고지-920고지-748고지를 점령, 제3단계는 제2단계에서 점령한 목표선에 전초종심을 부여하기 위한 931고지-680고지-319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사단장은 제1단계 주공목표인 1050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10연대장 정강(鄭剛) 대령에게 부여하였다. 1050고지는 1220고지에서 백석산으로 뻗어 내린 능선 중간에 위치해 동서 양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정남쪽으로는 백석산까지 곧게 능선을 이룬 감제고지였다. 연대 정면에는 1220고지에 지휘소를 설치한 북한군 제12사단이 2개 연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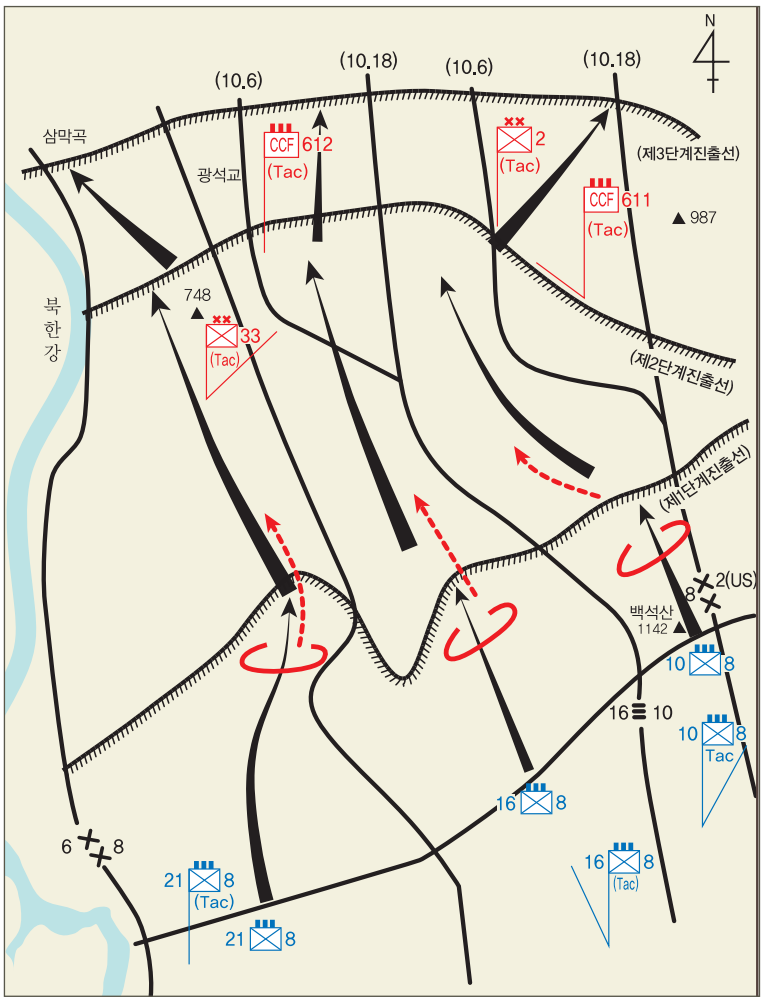
제1단계 계획에 따라 10월 6일 오전 6시에 제10연대는 1050고지를 향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4시간이 경과한 후 백석산 북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인근 고지에 위치한 북한군의 집중사격으로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려워지자 현 위치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후 작전을 개시한지 3일 만인 10월 8일에 중간지점의 1088고지를 점령한 연대는 전방 1km 지점의 105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북한군이 저항하면서 다음날까지도 고지탈취에 실패하였다.

10월 9일 오후에 정면의 북한군 제12사단이 중공군 제204사단으로 교체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사단 전 정면에서의 공격을 명령하였다. 10월 10일 아침에 공격을 개시한 제10연대는 3개 포병대대와 유엔공군의 지원 아래 1050고지의 전진거점인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10월 11일 오전 6시를 기해 사단의 전면공격이 개시되자, 우측 제10연대는 중공군

1,000여 명이 고지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자동화기와 박격포의 집중 화력으로 저항하는 목표 A를 육박전과 수류탄전을 감행한 끝에 오후 5시 20분에 완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공격정면의 중앙과 좌측을 담당한 제16연대(연대장, 李存一 대령)와 제21연대(연대장, 全富一 대령)의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은 여의치 않았다.

다음날 사단은 미 공군의 근접지원과 포병대대의 포격지원 아래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16연대는 부여된 3개 목표 중 C(△620)와 D(△650) 2개 고지를 탈취하였고, 제21연대는 부여된 목표를 모두를 점령함으로써 891고지-922고지-726고지를 잇는 능선을 확보하였다. 전날 1050고지를 점령했던 제10연대는 백석산 일대에 병력을 배



치하고 제2단계 공격임무에 대비하였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제1단계 작전을 통해 공산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10월 13일 오전 6시부로 1090고지-977고지-1065고지를 일거에 공략하는 제2단계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에 나선 각 연대의 첫날 전황은 제16연대를 제외하곤 목표 점령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제2단계 작전 이틀째인 10월 14일 각 연대는 부여된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 공격을 재개하여 제10연대가 730고지를, 제16연대가 977고지를 그리고 제21연대가 1065고지를 점령하였다. 전날에 이어 10월 15일에도 목표고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한 제10연대는 자동화기 사격과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항하는 중공군과 격전을 반복한 끝에 어은산 방어를 위한 주저항선인 1220고지-1090고지-977고지 선을 장악하였다. 제16연대는 목표고지인 1054고지를 점령하고 또 다른 목표인 931고지의 동쪽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며, 제21연대도 목표인 920고지와 748고지를 백병전과 수류탄전을 벌이며 탈취하였다.

제2단계 작전기간 중 1090고지와 748고지를 점령하면서 군단이 부여한 공격목표를 초월하여 진출선을 북상시킨 사단은 어은산을 향해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때 주저항선을 상실한 중공군 제204사단은 보급로가 위협받게 되자 1090고지-931고지-680고지-319고지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면서 군단의 중앙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좌측에서 미 제9군단의 금성진출에 호응하기 위해 제3단계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8사단은 1090고지-931고지-680고지-319고지 탈취에 목적을 두고 10월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작전 첫날인 10월 16일 각 연대의 전황은 제21연대를 제외하곤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680고지와 319고지의 공격에 나선 제21연대는 정오 무렵 목표로 한 양 고지를 점령하고 삼막곡 일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목표인 1090고지와 931고지를 각각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나,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교전 끝에 고지 아래 능선으로 철수하였다.

작전 이틀째인 10월 17일 제10연대가 현 진출선에서 공격정면에 대한 위력수색을 실시하고 탄약과 장비를 보충하고 있는 동안 제16연대는 정면 931고지에 대한 사단의 공략 중점에 따라 아침 일찍 공격을 재개하였다. 연대는 포병대대의 포격지원 아래 공격에 나섰으나, 일몰로 교전을 중단한 채 병력을 수습하였다.

작전 사흘째인 10월 18일 사단장은 931고지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는 한편 제10연대에 1090고지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였다. 제10연대는 야포대대와 미 공군의 지원을 받으

며 목표인 109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고지 일대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고 있던 중공군의 집중 화력으로 진격을 중단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931고지를 공격한 제16연대는 유엔공군의 근접지원을 받으며 고지 정상에 접근한 후 결사돌격조의 5차에 걸친 육탄돌입으로 고지의 일부를 탈취하였다.

작전 나흘째인 10월 19일 1090고지의 공격에 나선 제10연대는 중공군의 집중포화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931고지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던 제16연대는 포병대대의 제압사격과 미 공군 전폭기의 근접지원 아래 돌격을 감행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을 격퇴하고 오후 3시 30분경 고지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0연대는 10월 20일부터 악화된 기상조건으로 포병지원과 항공근접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1090고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였다. 날씨가 쾌청하게 회복된 10월 27일 오후 2시 연대는 4개 포병대대의 지원 아래 공격을 재개하여 2시간 후 1090고지에 이어져 있는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다음날인 10월 28일 오전 7시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연대는 미 포병대대의 제압사격과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돌격을 감행한 끝에 정오 무렵 1090고지를 완전 장악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공산군 1,472명을 사살하고 포로 106명을 획득하였으며, 로켓포 3문, 박격포 6문 그리고 기관총 35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사단도 245명이 전사하고 1,167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 중 제1단계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과 제32사단은 중공군 제204사단에 진지를 인계하고 원산 방면으로 철수하여 부대재편에 착수하였다. 중공군 제204사단도 사단의 연속된 공세로 어은산과 949고지로 철수하여 병력을 증강하면서 1277고지-960고지-949고지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3단계 작전기간 동안 최종목표인 1090고지를 점령하여 1090고지-931고지-암동-319고지로 이어지는 진출선에서 우측 미 제2사단과 좌측 제6사단의 진출에 호응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1997)
HQ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손규석 집필】

제1차 월비산 전투

[第1次 月比山 戰鬪, 1951. 10. 12.~15.]

개요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에서 공격작전을 실시하던 무렵, 수도사단이 195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간성 북방 월비산을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 제6군단 예하의 제19사단을 공격해 고지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전개과정

월비산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 속하며, 동해안 지역 최북단의 북방한계선 북방 1km 지점에 있는 표고 459m의 최고봉이다. 이 고지 일대에는 동쪽 약 2km 지점의 351고지를 비롯한 208고지-148고지-187고지가, 남쪽에는 339고지-345고지-203고지 등 200~350m의 고지들이 이어져 있다. 금강산과 원산에 이르는 접근로의 관문인 월비산은 동해안의 고성-통천-원산간 도로와 남강 일대를 감제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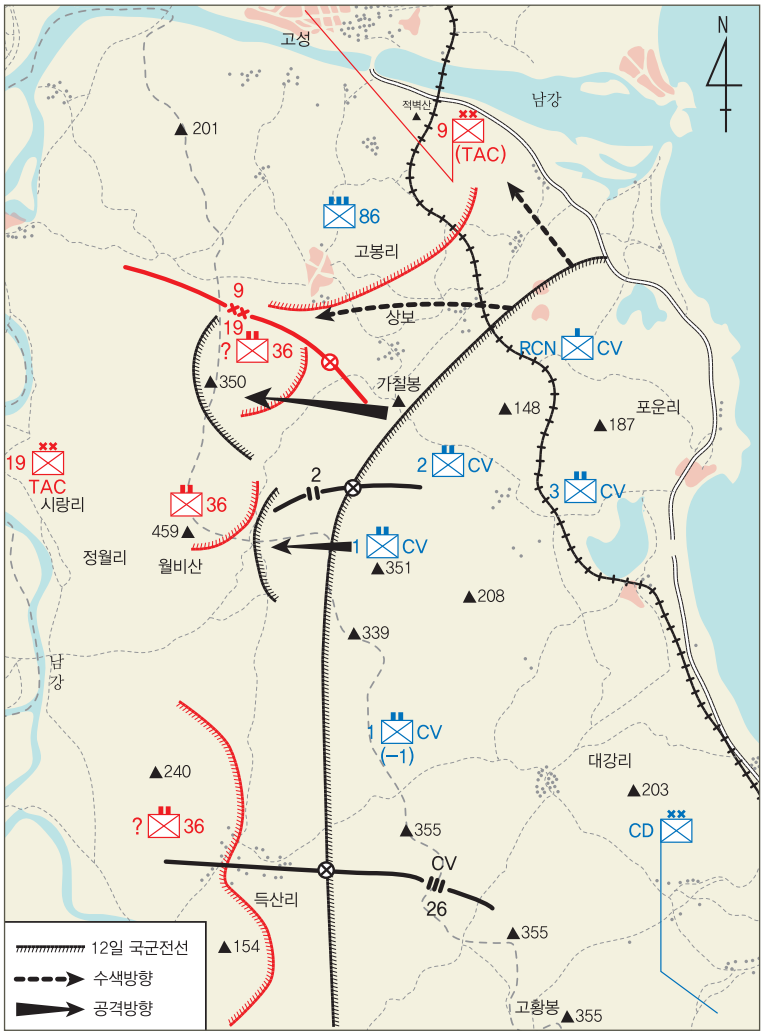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1951년 10월 초에 정체된 휴전회담을 속개하고 당시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계공세를 지시하였다. 이에 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소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선 '밀어올리기' 작전의 일환으로 월비산과 그 일대 고지들을 점령해 작전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동해안 일대 북한군을 남강 북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에게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해안분지(Punch bowl) 일대에서 큰 타격을 입은 제2군단을 동해안의 제3군단과 교대하고, 동해안에는 제6군단을 투입하였다. 북한군 제6군단장 최용진(崔勇鎭) 중장은 제19사단을 남강 동안에, 제9사단을 해안지역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국군의 수도사단과 대치하게 된 북한군 제19사단은 월비산 부근에 강력한 거점을 형성해 국군의 전진을 저지하면서 향후 공격 발판으로 삼으려 하였다.

1951년 9월 6일 전선조정에 따라 향로봉-건봉산-까치봉-송현리 선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을 동해안으로 이동시켜 제11사단과 함께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수도사단장은 목표고지인 월비산에 대한 공격임무를 전방에 배치해 놓은 2개 연대 중 하나인 제1기갑연대에 부여하였다. 그리고 목표고지에 대한 공격에 앞서 그 동쪽에 위치한 351고지와 148고지를 먼저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1951년 10월 11일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에 나선 제1기갑연대는 사단장의 명령대로 월비산 공격에 반드시 필요한 351고지와 148고지 선을 확보한 후 10월 12일 오전 6시에 월비산을 공격하였다. 연대장 이용(李龍) 대령은 공격에 앞서 제2대대와 제1대대를 주공과 조공으로 나눠 목표인 월비산을 북쪽과 정면에서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다.

공격준비사격으로 북한군 진지와 장애물을 파괴한 연대는 기동부대가 은폐할 수 있도록 고성 남쪽까지 연막탄을 투하하였다. 오후 4시경, 10시간의 격전을 벌인 제2대대는



중간목표인 350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자 계획대로 월비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의 저항도 예상 외로 완강해 제2대대는 계속된 공격에도 고지 점령에 실패하고 350고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같은 시간에 조공인 제1대대도 월비산을 동쪽으로부터 공격했으나 북한군의 포격과 방어사격으로 고지점령에 실패하고 261고지로 되돌아왔다.

다음날인 10월 13일 제2대대는 월비산에 대한 재공격에 나서 오후 2시 30분경에는 8부 능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대항하는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자 제2대대장은 공격을 일시 중단한 후 서북쪽 무명고지로 이동토록 명령하였다. 제1대대 또한 연대장의 명령대로 월비산 서쪽에서 일제히 돌격을 감행해 오후 3시경에 고지 일부를 확보했으나, 이어진 백병전에서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전투경과를 분석한 연대장은 350고지 북쪽의 201고지와 146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북한군을 격퇴하지 하고는 월비산에 대한 증원 차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공인 제2대대가 배후 위협을 받아 공격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북한군이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그 허를 찔러 일거에 격멸하는 한편 목표 점령 후에 확장될 전투정면에 따른 전선조정을 단행할 복안을 수립하였다.

공격 4일째인 1951년 10월 15일 제1기갑연대는 포병과 항공의 지원을 받으며 월비산을 삼면에서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공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지원사격을 받으며 돌격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3개 방면에서 돌격선에 도달한 공격제대는 북한군의 진내로 뛰어들며 고지 정상으로 치달아 마침내 목표인 월비산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연대는 10월 16일 자정 무렵 빼앗긴 월비산을 탈환하려는 북한군의 역습을 격퇴시켰으며, 10월 19일에는 전과확대를 위한 공격을 재개하여 남강 남쪽에 배치된 북한군을 모두 북쪽으로 격퇴시키고 남강으로 진출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수도사단은 북한군 891명을 사살하고 포로 37명, 82mm 박격포 3문과 기관총 43정, 다발총 91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70명이 전사하고 250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도사단은 제1차 월비산 전투에서 남강 이남 지역을 확보하여 방어선을 크게 개선하고 고성까지 진출해 유엔군의 전 전선 중 최북단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 전투 이후 북한군은 제9사단이 국군의 부대정비를 틈타 남강 북안 전선까지 진출한 후 11월 18일부

터 월비산을 다시 공격함으로써 제2차 월비산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후 양측은 월비산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7차에 걸쳐 공방전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월비산 · 351고지 전투』 (19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 (1997)

【손규석 집필】

김화–금성 진격전

[金化–金城 進擊戰, 1951. 10. 13.~18.]

개요

국군 제2사단이 미 제9군단의 금성진격작전에 참전하여 195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김화–금성 지역에서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200사단과 공방전을 펼친 공격작전이다.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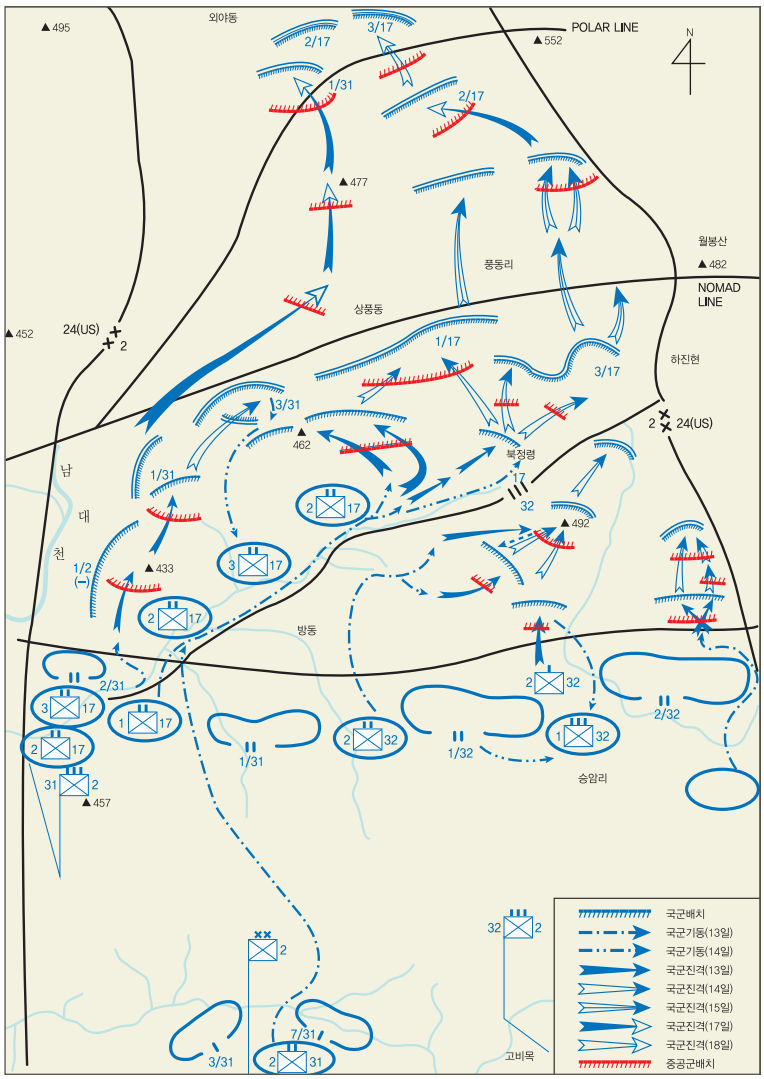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부의 하계 제한공세 전략에 따라 1951년 10월 9일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중장은 현재의 군단 방어선을 5~12km 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산군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금성진격작전을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단행된 이 작전에서 국군 제2사단은 좌측을 맡아 적근산 북쪽 기슭으로부터 진격을 개시하여 10월 18일에 금성 서남쪽 직목동까지 진출한 일명, 제2사단의 '노매드선(Nomad line) 진격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9군단의 작전목표인 금성은 강원도 김화의 금성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휴전선 북쪽에 위치한 미수복지역이다. 이곳은 통천–평강 및 원산–회양–평강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화천으로 남하하는 도로의 분기점이기도 한 교통 요지였다. 따라서 금성을 차지할 경우 병참선 상의 요충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성산(△1062)을 위협하여 철의 삼각지를 통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당시 미 제9군단 전면에는 중공군 제27군과 교대한 제67군이 예하의 제199 · 제200사단을 백암산과 적근산 북쪽에 각각 배치하고, 제201사단을 금성 부근에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약 4개월 전에 입북한 제27군은 전투경험이 부족하였으나 병력과 장비 보유

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전선을 인수한 후 기존 진지를 보강하고 수색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공군 사령관도 유엔군의 공격을 예상하고 경계강화와 진지고수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미 제9군단은 주저항선인 철원 동북 중산리–김화–적근산–백암산–북한강 선을 잇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에 미 제25사단, 국군 제2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6사단을 배치하고 미 제7사단을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1951년 6월 말 중공군의 5월 공



세를 격퇴하고 이곳에 진출한 군단은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제한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번 작전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결심한 군단장은 제1단계를 현 전선을 5km 정도 밀어 올려 금성천을 확보하는데 두고, 목표선을 하소리-풍동리-죽동-여문리-금성천 하구를 연결하는 노매드선으로 설정하였다. 군단장은 중앙의 미 제24사단이 적근산과 주파령에서 금성을 향해 공격을 실시하는 동안 국군 제2사단과 제6사단으로 좌우에서 협조된 공격을 가할 작정이었다.

1951년 10월 10일 국군 제2사단장 함병선(咸炳善) 준장은 미 제9군단장으로부터 현 전선에서 노매드선을 목표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월 중순에 현 전선으로 진출해 군단 중앙 좌측방인 적근산과 김화 사이에 주력을 배치하고 있던 국군 제2사단은 편제의 90%에 달하는 병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 734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 이때 사단 전면에는 금성에 이르는 접근로 방어에 중점을 둔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200사단이 북정령-간진현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장은 작전지역과 적정을 분석한 후 기동로를 따라 작전지대를 남북으로 양단한 후 주공인 제17연대와 전차중대는 노매드선을 향해 진격하고, 조공인 제32연대는 단절된 남쪽지역에 있는 중공군을 격멸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오전 5시 선공부대인 제32연대가 진현리 492고지와 600고지의 중공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492고지를 향한 제2대대는 중간목표인 532고지를 큰 손실 없이 점령한 후 492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과 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목표점령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600고지를 목표로 했던 제3대대는 화염방사기를 분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는 격전 끝에 목표고지를 탈취하였다.

북정령과 462고지를 점령하고 적진을 돌파, 양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제17연대는 제1대대가 미 제25사단 전차중대의 지원 아래 북정령과 462고지를 공격하였다. 대대는 북정령 일대를 감제하는 요지인 까닭에 병력을 중점배치하고 있던 중공군 진지를 화염방사기와 3.5인치 로켓포 등으로 제압하며 3시간의 교전 끝에 북정령을 점령하여 중공군을 남북으로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462고지에 대한 공격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예비 병력이 투입되고 유엔공군의 폭격지원이 실시된 후에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적진돌파와 분리에 성공한 제17연대는 다음날인 10월 14일 오전 6시를 기해 예비인 제2대대를 북정령 동북으로 투입하면서 총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날 공격에서 연대는 382고지를 제외한 노매드선 상의 목표를 탈취하여 간진현-421고지-교전리 선에서 진

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또한 조공인 제32연대는 전날 탈취에 실패했던 492고지와 600고지 서북 능선인 491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함에 따라 북정령 남쪽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공격 3일째인 10월 15일에 물러났던 중공군이 금성분지만은 고수하기 위해 노매드선 북쪽 월봉산-419고지-풍동리-향정 부근에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하자, 살구정-풍동리-419고지 선으로 추격전을 실시하였다. 제17연대는 제2대대가 419고지를 공격하여 일진일퇴 공방전 끝에 점령하였고, 제1대대도 풍동리 무명고지 선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작전개시 3일 만에 목표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단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금성을 제압할 수 있는 감제선을 확보하기 위해 현 전선을 3~5km 더 북상시킨 '폴라선(Polar line)', 즉 하소리-외야동-회고개-봉화산-교암산-금성천 하구를 연결하는 '제2목표선'을 설정한 후 이 선을 점령하면 강력한 전초진지를 편성할 것으로 보고 공세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단장은 목표지대의 기동공간이 협소한 점과 현재의 부대배치 등을 감안하여 제17연대와 제31연대의 1개 대대씩을 차출해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제17연대에 522고지를, 제31연대에 외야리 일대 고지군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제2단계 목표선으로 설정한 고지군에 저지선을 형성하고 금성분지를 최후까지 고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1951년 10월 17일 오전 6시 사단은 제2단계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서쪽에서 공격을 개시한 제31연대 1대대는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외야리의 목표를 탈취하였으나, 제17연대 2대대가 실시한 522고지에 대한 공격은 포격지원을 받는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음날인 10월 18일 제17연대는 예비인 제3대대로 초월공격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 우회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중공군 진영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고, 이 틈을 이용한 일제 돌격으로 522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및 영향

미 제9군단이 실시한 금성진공작전에서 국군 제2사단은 적근산 북쪽 기슭에서 금성 서남쪽으로 진격하는 6일 동안 적진을 제압하면서 제2단계 목표인 폴라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를 통해 사단은 금성을 고수하려던 중공군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북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작전에서 국군 제2사단은 중공군 1,305명을 사살하고 206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

며, 박격포 12문과 각종 소총 403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136명이 전사하고 574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1997)
HQ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손규석 집필】

금성천-교암산 전투

[金城川-轎岩山 戰鬪, 1951. 10. 13.~21.]

개요

국군 제6사단이 미 제9군단의 금성진격작전에 참여하여 195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김화-금성 일대에서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199사단과 공방전을 펼친 공격작전이다.

전개과정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중장은 철원-김화-적근산-백암산-북한강을 잇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 상에 형성된 현재의 군단 방어선을 5~12km 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산군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금성진격작전을 1951년 10월 13일을 기해 단행하였다. 군단의 일원으로 이 작전에 참여한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張都暎) 준장은 미 제24사단이 적근산과 주파령에서 금성을 향해 공격을 주도하는 동안 군단 우측 전방에서 '노매드선(Nomad line)'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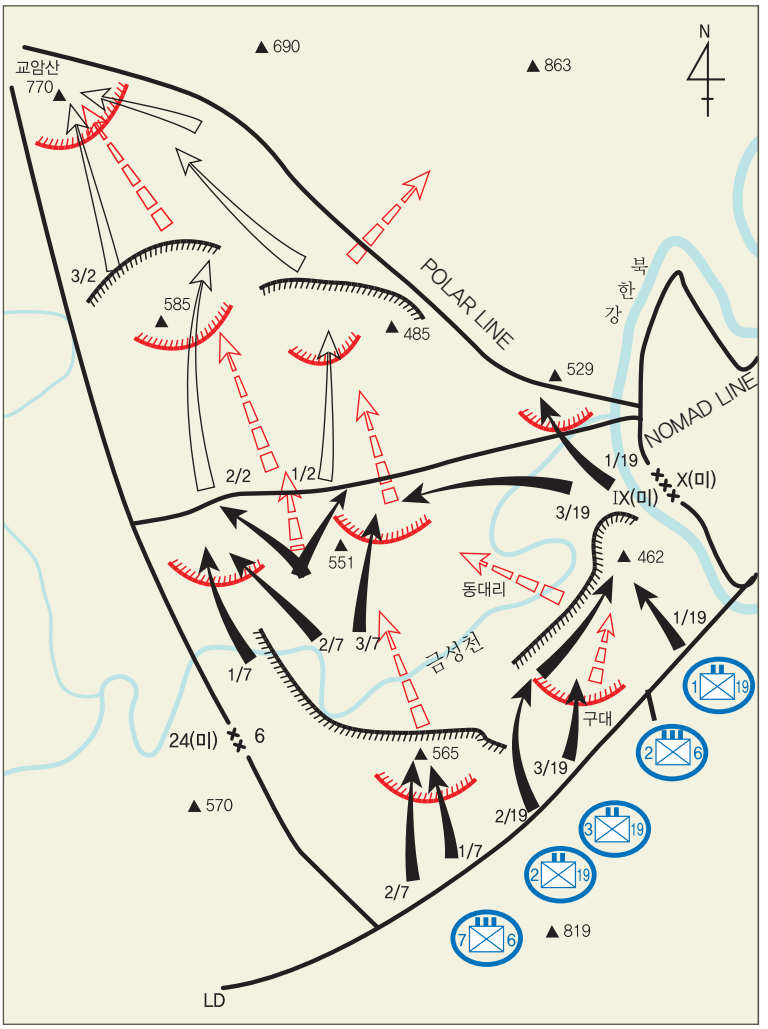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한 작전지역은 서쪽에서 금성천이 남으로 흘러 동으로 가로지르며 북한강과 합류하고, 동쪽에서는 북한강이 북으로 뻗쳐 양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또한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전차 및 포병운용이나 보급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동공간이 협소해 부대이동의 신속성도 결여된 지역이었다.

이 무렵 사단 전면에는 중공군 제67군(군장, 李湘) 예하 제199사단이 금성천 북안의 585고지-여문리-529고지에 주진지를 형성하고, 남안에는 1개 연대규모로 경계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던 10월 17일 중공군이 제67군의 예비인 제201사단을 추가로 투입하여 2개 사단 약 1만 4,000명의 병력과 포병부대가 대치하게 되었다.

반면에 중공군의 5월 공세를 격퇴하고 현 전선으로 진출했던 국군 제6사단은 백암산

(△1179)을 중심으로 제2연대(연대장, 宋大厚 대령)와 제7연대(연대장, 梁仲鎬 대령)가 백암산 후방 1057고지-782고지-수상리 선을 점령하고 있었고, 제19연대(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백암산 전방 기슭에 전진진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대체로 편제상의 85%를 유지하였고 포병대대가 지원도 가능한데다 용문산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다.

10월 10일 군단장으로부터 죽동-여문리-금성천 입구를 점령하고 군단 동측방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장은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각각 좌우측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비교적 도하가 용이한 제7연대가 565고지를 점령한 후 금성천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10월 13일 오전 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사단은 제7연대가 565고지를, 제19연대가 462고지를 향하였다. 이때 전면에는 중공군 제199사단 예하의 제597연대가 고지마다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565고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제7연대는 8부 능선에 도달하였으나, 중공군의 최후저지사격으로 공격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연대는 일시에 돌격을 단행한 후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실시하여 오전 11시 20분에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우측에서 462고지를 향해 공격에 나선 제19연대는 고지를 방어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포병의 지원 아래 강력히 저항함에 따라 목표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공격 이틀째인 10월 14일에 사단은 금성천 남안의 중공군을 모두 물리친 후 강 북안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진격을 재개하였다. 전날 565고지를 점령했던 제7연대는 광대골에서 금성천을 건넌 후 472고지를 공격하였다. 제3대대가 서북쪽 능선을 따라 배후에서 공격을 가하자, 약 1시간 정도 저항하던 중대규모 중공군은 후방에 있는 551고지로 후퇴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오후 3시에 고지를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날에 이어 462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제19연대는 제1대대가 돌격을 감행하고, 제2대대가 좌측에서 협공을 가하였다.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집요하게 저항하던 중공군은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고지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공격개시 사흘째인 10월 15일 제2연대가 북한강 서안과 금성천 남안에서 경계진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7연대와 제9연대는 노매드선을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심야를 이용해 등대리에서 금성천을 건넌 제19연대는 우측의 제2대대가 529고지를, 좌측의 제3대대가 541고지를 공격하였다. 제3대대는 인접한 제7연대의 지원을 받아 541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제2대대는 삼면이 급경사를 이룬 529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한편 10월 13일을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군단이 3일 동안 5km를 전진해 10월 16일 제1목표선인 노매드선을 점령하자, 군단장은 현 전선을 3~5km 더 북상시킨 제2목표선인 '폴라선(Polar line)'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에 송동리-교암산을 잇는 선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단장은 부여된 임무가 사실상 교암산(△770) 점령이고, 전투 정면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해 제2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10월 17일 오전 6시 공격에 나선 제2연대는 전날에 이미 작전에 나섰던 제2대대에게 585고지를 정면공격하도록 지시하고 여문리로 진출했던 제1대대에 이 고지의 동쪽 후방

에서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격을 단행한 양 대대는 육박돌격과 백병전을 거듭하였으나, 전날 밤 예비사단이 증원 투입되어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한 중공군의 저항으로 목표고지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다음날 585고지에 대한 집중공격에도 목표 탈취에 실패한 제2연대는 10월 19일 제3대대마저 투입하였다. 제2대대가 서쪽으로 우회 공격하는 동안 제3대대가 동쪽에서 돌격하자, 고지에 있던 중공군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양 대대는 고지로 돌격하여 육박전을 펼친 끝에 585고지를 점령하였다.

중간목표인 585고지를 점령한 사단장은 제2연대를 주공, 제19연대를 조공으로 교암산과 폴라선 점령에 착수하였다. 10월 20일 공격에 나선 제2연대 1대대와 3대대는 교암산 남쪽 무명고지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공격이 중단되었으나, 제2대대의 증원으로 이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10월 21일 오전 5시 전날 점령했던 무명고지를 출발해 교암산 공격에 나선 제2연대는 우측의 제1대대가 급경사인 공격축선을 우회하여 동쪽능선으로, 제3대대가 고지 정면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양 대대는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공군의 기관총 사격과 포병의 지원 포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때 제3대대가 지원사격을 요청하며 적진으로 돌진하고, 제1대대가 실시한 배후 기습이 성공하면서 중공군 진영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양 대대는 돌격을 감행하였고, 백병전을 벌인 끝에 목표인 교암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및 영향

1951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이 작전에서 국군 제6사단은 목표인 교암산을 탈취하고 폴라선을 점령하여 미 제9군단의 금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는데 기여하였다. 군단의 폴라선 점령은 유엔군이 방어선을 개선하고 공산군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1951년 7월 하순부터 실시한 하계 및 추계공세의 사실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군 제6사단은 10월말 교암산 지역을 미 제24사단에 인계하고 북한강 서안으로 이동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9 (2012)
HQ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1 October 1951)

【손규석 집필】

제2차 가칠봉 부근 전투

[第2次 加七峰 戰鬪, 1951. 10. 27.~31.]

개요

국군과 유엔군이 전선이 교착된 후 주저항선 전방의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고 있을 무렵, 국군 제3사단이 전선정리를 위해 1951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구 북방 가칠봉 부근 1052고지와 1211고지에 배치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3사단 및 제2사단을 공격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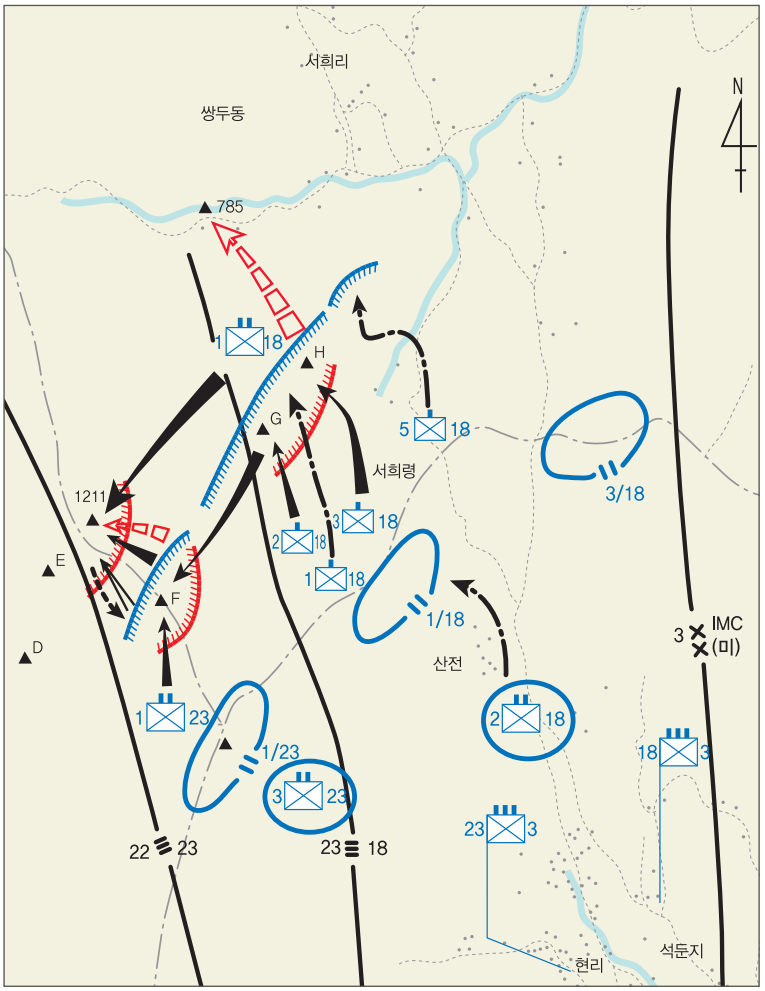
전개과정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을 에워싸고 있는 해안분지(펀치볼) 북방에 위치한 1211고지는 동쪽으로 만대리를 포함하는 소양강변의 작전로를 감제하고, 서쪽으로는 문등리 계곡까지 견제가 가능함으로써 공격과 방어에 있어 중요한 요충이다. 따라서 국군이 이 고지를 탈취할 경우 북한군을 매봉과 간무봉을 잇는 선까지 밀어 올리며 성내천 남쪽 일대를 장악하게 되어 만곡을 이룬 국군의 전선 정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중공군의 5월 공세 이래 계속적으로 타격을 입어 전면공세가 불가능해진 북한군 제2군단은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1211고지 일대의 방어에만 주력하였다. 제2군단장 최현(崔賢) 중장은 '영웅적인 투쟁'이라는 미명 아래 강력한 저항을 강요하기 위해 1211고지를 영웅고지라 바꿔 불렀다. 북한군 제2군단은 1211고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제2사단과 제13사단을 각각 배치하고 전황에 따라 일선 사단을 수시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제27사단을 예비로 두었다.

1951년 10월 20일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양구 북방으로 이동한 국군 제3사단은 제5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서희령 및 가칠봉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틀 후 미 제10군단장 바이어스(Clovis E. Byers) 소장은 국군 제3사단장 백남권(白南權) 준장에게 1052고지와 1211고지를 탈취해 만곡부를 이룬 전선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였다. 제3사단장은 북한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1052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사단 좌측 가칠봉 서남쪽에 배치된 제22연대에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10월 27일 오전 6시에 제22연대는 제1대대를 주공, 제2대대를 조공으로 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제1대대 3중대는 백병전과 돌격을 감행해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정오 무렵 1052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오후 6시경 제3중대는 증강된 1개 대대 북한군이 어둠을 타고 파상공세를 감행해오면서 2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남쪽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10월 28일 연대장 장춘권(張春權) 대령의 재공격 명령에 따라 오전 6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 3중대는 북한군의 집요한 저항을 세 방향에서 협공으로 제압하며 3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1052고지를 다시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전진진지를 확보하여 연대는 1211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북한군 서쪽을 차단하게 되었다.

한편 제3사단장은 앞서 제22연대가 1052고지 공략에 실패하자, 제23연대에 제18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시킨 다음 1211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제23연대장 김종순(金淙舜) 대령으로부터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는 10월 28일 오전 5시를 기해 공

격을 개시하였다. 목표고지의 동북쪽 능선을 따라 우회한 대대는 접근로마다 배치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다. 9시간에 걸친 전투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006고지로 철수하였다.

다음날 오전 5시, 제3대대의 가칠봉 주진지를 인수한 제1대대가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여 오전 9시 30분에 북한군 저항을 물리치고 전진거점을 점령하였다. 이어 제1대대는 최종목표인 1211고지를 탈취하는데 필요한 F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대대는 새로이 배속된 제18연대 1대대와 함께 북한군을 삼면에서 포위한 후 돌진해 백병전을 펼친 끝에 오후 2시 30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서쪽능선을 따라 1211고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으나, 화력거점을 형성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과 일진일퇴 교전을 벌이다 일몰로 인해 오후 6시에 F고지로 철수하였다.

10월 30일 제3사단장은 제23연대에 이날 중으로 1211고지를 탈취하도록 독려하면서 군단에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제23연대장은 F고지에 철수해 있던 제1대대에 1211고지 서북능선을 따라 재공격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배속중인 제18연대 1대대에는 고지의 동북쪽으로 우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른 아침 공격에 나선 제23연대 1대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완강한 북한군 저항에 막혀 F고지와 1211고지 사이 능선에서 공방전을 실시하다 날이 저물어 오후 6시에 F고지에서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무명고지인 H-G-F고지 일대를 확보한 제18연대 1대대는 오전 9시에 미 공군의 폭격지원을 받으며 1211고지 동북쪽으로 우회하여 포복과 약진으로 접근해 갔다. 그러나 대대는 고지 서북쪽에 있는 북한군에게 노출되어 위기에 처하였으나,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이를 제압하였다. 대대는 오후 4시를 기해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F고지 서쪽능선을 공격하기로 한 제23연대 1대대의 공격차질로 전날에 확보한 진지로 철수하였다.

10월 31일 이른 아침에 북한군은 예비인 제2사단 4연대마저 투입하여 H-G-F고지선을 공격해왔다. 제23연대 1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F고지를 확보한 후 제18연대 1대대를 지원하여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사단장이 공격을 중지하고 각 연대를 재배치하는 작전명령을 하면서 1211고지를 탈취하기 위한 제3사단의 전투는 종료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북한군 502명을 사살하고 포로 19명을 획득하였으며, 기관총 9정과 다발총 47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단도 132명이 전사

하고 182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미 제10군단은 유엔군의 추계공세 과정에서 가칠봉-단장의 능선-백석산 일대를 공격하여 전선 정리를 위한 요지를 확보하는 한편 휴전회담이 속개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미 제1군단 일원으로 가칠봉 부근 고지 쟁탈전에 참여한 국군 제3사단은 이 전투의 결과로 뉴미네소타선(New Minnesota Line) 상의 주진지를 조정하고 전진진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반면에 주요 거점을 상실한 북한군은 주거점인 1211고지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국군 제3사단이 탈취한 전진진지에 대한 역습을 계속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 (1997)
HQ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Command Report, October 1951
GHQ, UNC, G-3 Operation Report, No. 464 (1 October 1951)

【손규석 집필】

949고지 전투

[949高地 戰鬪, 1951. 11. 17.~18.]

개요

국군 제6사단이 배속된 제8사단 21연대와 함께 1951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선정리를 위해 강원도 양구 북방 949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8군 예하 제202사단과 제204사단과 공방전을 펼친 공격전투이다.

전개과정

유엔군이 추계공세를 통해 전선을 3~15km 북상하며 공산군을 압박하자, 공산군측은 1951년 10월 25일을 기해 휴전회담에 다시 임하는 한편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유엔군측 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은 예하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접경지대에서 심한 만곡부를 이룬 북한강 상류 지역의 전선정리에 착수하여 제10군단 좌측 1220고지로부터 석장동-903고지-949고지-용호리-교암산을 잇는 개리선(Gary Line)에 대한 제한공격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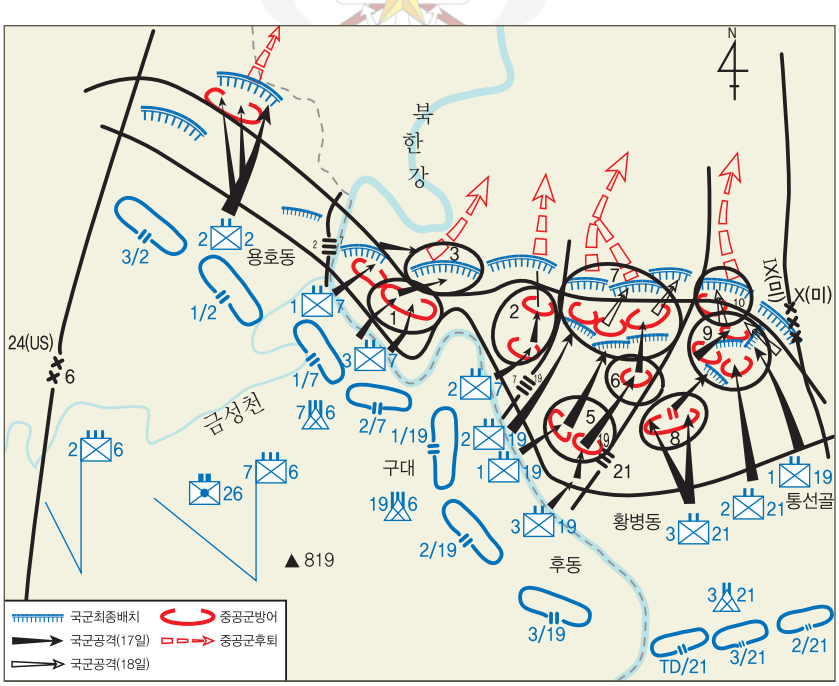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관은 양 군단 간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목표지대를 제9군단에 편입

시키고 제10군단 좌측에 있는 국군 제8사단 21연대를 제9군단에 배속시켰다.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중장은 새로 확장된 담당지역을 국군 제6사단에 맡기고 4개 연대로 목표를 공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949고지 전투 일명, '개리선 진격전'이 단행되게 되었다.

이 전투의 작전지역은 약 14km에 달하는 기동공간에 700~900m의 험준한 고지들이 금강천 입구까지 첩첩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명 우두산으로 불리는 949고지는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만곡부 중 최고봉으로 784고지-662고지-679고지와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좌측에는 강폭이 150~200m에 이르는 북한강이 목표지대를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기동이 매우 제한되는 지역이었다.

이 무렵 사단 전면에는 중공군 제68군(군장, 陳坊仁) 예하 제204사단(군장, 曹玉淸)이 제202사단 605연대를 증원받아 개리선 부근에 주력을, 북한강 동안의 주요 고지에 경계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10월 중순의 백석산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에 패해 후방으로 물러나 있었으며, 병력은 약 8천명으로 야포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추계공세 직후 교암산을 미 제24사단에 인계하고 미 제9군단 동쪽으로 이동한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張都暎) 준장은 제2연대를 좌측에, 제7연대를 중앙 좌측에, 제19



연대를 중앙 우측에 그리고 배속된 제8사단 21연대를 우측에 배치하였다. 이때 사단의 병력은 편제의 80~90%, 장비는 10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제27포병대대 등 야포대대와 2개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준비를 마친 국군 제6사단은 1951년 11월 17일 오전 4시를 기해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 우측에서 903고지를 목표로 공격에 나선 제21연대 1대대는 중간의 무명고지를 3시간여 전투 끝에 점령하고 903고지로 진격하여 6차례 돌격전을 펼쳤으나 결국 고지점령에 실패하였다.

586고지를 목표로 한 제3대대는 예비대를 서쪽으로 우회시켜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의 배후를 기습하는 한편 주력으로 정면공격을 감행해 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계속하여 883고지를 공격하던 중 강력한 저항에 막히게 되자, 현 위치에서 공격을 중단하고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중앙일선의 제19연대는 중공군의 핵심진지인 949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먼저 632고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제2대대로 북한강 서안에 엄호진지를 구축하고, 제3대대와 제1대대로 북한강 도하작전을 실시하였다. 북한강을 건너 632고지로 진격한 제3대대는 전차포와 미 공군 전폭기편대의 지원 아래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탈취에 성공한 후 여세를 몰아 949고지 남쪽의 무명고지마저 점령하였다. 이어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949고지 동남쪽에서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끝내 적진 돌파에는 실패하였다.

북한강을 도하한 제1대대도 목표인 903고지의 전방 100~150m까지 도달한 후 전차포와 81mm 박격포 지원을 받으며 2시간여 격전을 벌인 끝에 고지점령에 성공하였다. 이어 대대는 949고지 서남쪽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진돌파에 실패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교전을 계속하였다. 도하작전의 엄호를 마친 제1대대도 949고지 서북능선을 따라 공격을 실시한 후 밤이 깊도록 중공군과 교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편 북한강을 도하한 제7연대 2대대는 629고지로 진격하던 중 중간의 무명고지 인근에서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이곳은 목표인 949고지로 이어진 중공군의 방어선으로서 화력과 병력을 중점 배치한 지역이었다. 2시간의 격전을 벌인 대대는 전차포와 미 공군 전폭기편대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 투입된 예비대와 함께 적진을 돌파해 제2목표를 점령한 후 전과를 확대하여 개리선과 그 북쪽의 주요 지역을 확보하였다.

548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오전 7시 50분에 목표를 점령한 후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3목표를 공격하였으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중공군과 오전 내내 교전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전선을 장악한 연대는 제3대대에 모든 지원화력을 집중하였고, 제1대대가 서남쪽 능선으로 공격하여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함에 따라 양 대대는 제3목

표를 점령하고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제2연대장 송대후(宋大厚) 대령은 제2대대에 전차소대를 배속시켜 목표 A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대대는 공격축선을 따라 목표고지 서남쪽에서 집중공격을 실시하여 3시간 동안 격전을 펼치던 중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목표 A를 완전 점령하였다.

11월 18일 오전 3시 30분에 중공군은 제21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903고지에서 내려온 중공군을 화력지원과 근접전으로 1시간 만에 격퇴한 후 예비인 제3대대와 함께 903고지와 883고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903고지 동쪽을 포위공격한 제1대대의 주력이 고지 8부 능선에서 공방전을 되풀이하는 동안 좌측의 제3대대는 중공군의 배후를 공격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정면공격을 실시한 끝에 903고지 동북능선을 확보하였다.

883고지를 공격한 제2대대는 목표지대에 화력거점을 형성한 중공군에 대해 특공조를 투입, 근접전을 실시한 후 총 공격을 단행하여 목표를 점령하였다. 903고지 서남쪽으로 진출한 제3대대는 중공군의 배후를 기습 공격하여 그들이 혼란에 빠져든 틈을 타서 총공격으로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제1대대에 고지를 인계한 다음 973고지로 진격하여 고지를 무혈점령하였다.

한편 949고지 및 고지 서쪽능선을 탈취하기 위해 격전을 벌인 제19연대는 11월 18일 오전 6시 우측 제3대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3시간 동안 중공군과 교전을 실시하였다. 대대는 병력 일부가 우회하여 중공군의 배후를 기습하는 동안 주력이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 동남쪽 능선 일대를 장악한 후 목표고지에서 동북쪽으로 1.5km 떨어진 805고지를 점령하였다. 949고지 서쪽에서 공격을 시작한 제1대대는 목표고지 전방 150m까지 진출하여 유엔공군 전폭기의 지원 아래 돌격을 감행하였고 1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탈취하고 제2대대와 함께 949고지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목표선을 점령한 제7연대는 연대장 양중호(梁仲鎬) 대령의 지시에 따라 연대 좌우측에 대한 전선을 정리하고, 조정된 진지에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북한강 서쪽 선을 담당하고 있던 제2연대는 11월 18일 오전 3시경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2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후 연대는 사단의 조치에 따라 제7연대 좌측의 용호동–여문리 선에 주진지를 구축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21연대는 중공군 884명을 사살하고 124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박격포 18문과 기관총 33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102명이 전사하고 382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공격개시 2일 만에 목표인 개리선을 점령하고 전선정리를 단행함으로써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접경지대인 북한강 상류에서의 전선정리에 기여하였다. 반면에 이번 전투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중공군 제204사단은 금강천 입구 부근까지 철수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9 (201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5) (1987)

【손규석 집필】

281고지 및 395고지 전투

[281高地-395高地 戰鬪, 1951. 11. 17.~18.]

개요

국군 제9사단이 1951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철원 서북방 281고지 및 395고지 일대에서 전초진지 탈취를 기도하는 중공군 제42군 예하 제126사단과 공방전을 펼친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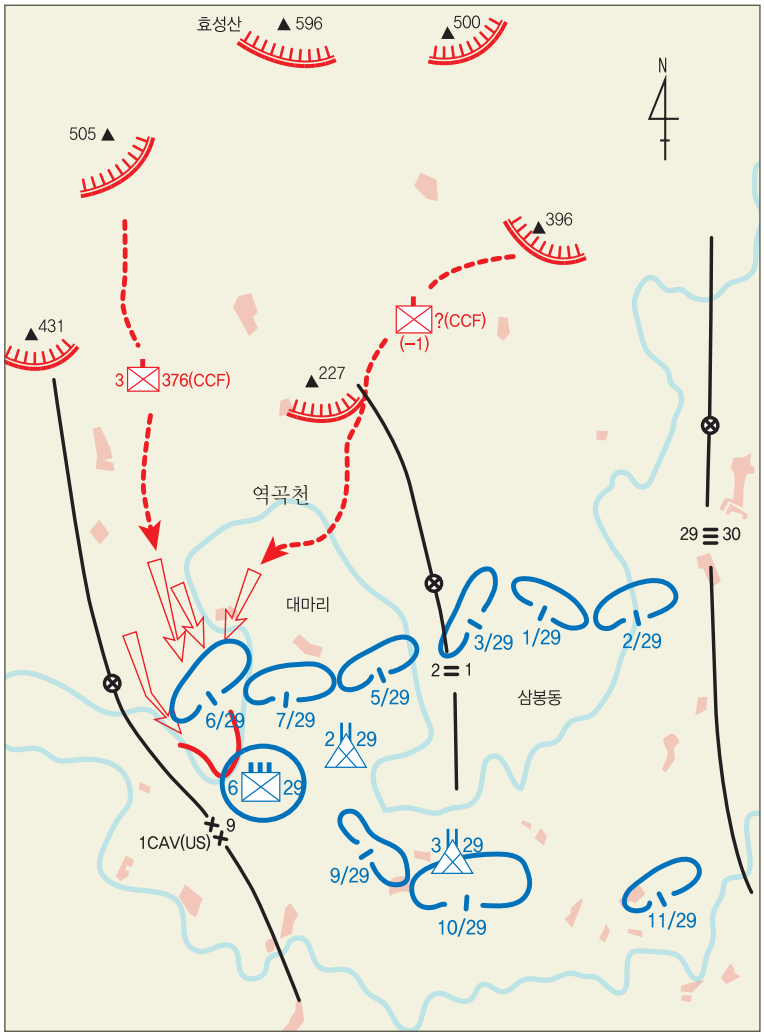
전개과정

281고지와 395고지는 중부전선 요충인 강원도 철원 서북방 10~13km 지점에 돌출된 구릉으로서, 철원 동남쪽에서 연천을 거쳐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역곡천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 281고지는 395고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으며, 생김새가 화살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화살머리(Arrow Head)고지라 불렸다. 사단 방어선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281고지와 395고지는 연천-전곡-서울을 잇는 3번 도로와 운천-서울을 연결하는 43번 도로의 엄호가 가능한데다 감제가 되는 철원 일대를 방어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주요 고지였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은 하계공세를 통해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병력이나 화력을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전선은 비교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 제9사단은 보개산-고대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새롭게 배속된 미 제1군단장 오다니엘(John W. O'Daniel) 중장의 명령에 따라 제3사단 방어정면을 인수하였다.

이 무렵 작전지역 북쪽에는 중공군 제42군(군장, 吳瑞林) 예하의 제126사단(사단장, 王振祥)이 396고지-459고지-596-고지-501고지-431고지 선에 완전 거점화된 진지를 구축하고 공수 양면에서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8천여 명의 병력과 각종 야포 및 박격포를 보유하고 122mm 야포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새롭게 방어정면을 인수한 제9사단장 박병권(朴炳權) 준장은 제30연대를 우측에, 제29연대를 좌측의 중강리-유정리-284고지-395고지-281고지를 잇는 선에 배치하면서 제28연대를 예비로 두었다. 이로써 중공군의 예상접근로를 담당하게 된 제29연대장 박



응규(朴應奎) 대령은 우측 284고지-395고지 일대에 제1대대를, 좌측 방석동-281고지 일대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3대대를 3~4km 후방에 예비로 두었다.

1951년 11월 3일 오후 10시 30분 중공군은 1시간에 걸쳐 281고지를 집중포격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장은 즉각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제2대대에 281고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손덕균(孫德均) 소령은 전투준비를 갖추고 모든 화력을 집결 사용할 것을 각 중대에 지시하면서 주봉인 281고지를 담당한 제6중대에 반드시 고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공격선을 출발한 중공군 제126사단 376연대 1대대는 281고지를 3면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고지를 방어하던 제6중대는 중공군이 소총 사격거리에 진입한 즉시 집중사격을 실시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들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중공군이 우세한 병력으로 파상공격을 가하면서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중대장이 예비 병력을 이끌고 진내로 들어가 백병전을 실시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날 밤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은 0시 15분에 물러났던 중공군은 100여 발의 포탄을 집중시킨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열세한 병력으로 진지를 지탱하고 있던 중대는 진지 정면과 좌측이 연이어 돌파된 상황에서 집중포격으로 대대와의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몰려드는 중공군과 백병전을 펼치던 중대원들은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281고지 동쪽 기슭으로 이동하였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3대대장 이대철(李大哲) 소령은 1개 소대로 증강된 제11중대를 제6중대에 급파하였다. 30분 후 제11중대는 우회 기동으로 고지 중턱에 도달하여 박격포를 비롯한 중화기로 저항하는 중공군과 공방전을 실시하였다. 좀처럼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하던 중대는 제3소대장 민혜동(閔惠東) 소위가 소대원과 함께 배후를 기습하는 동안 정면공격을 감행한 끝에 8부 능선에 도달하였다.

전황을 지켜보던 연대장은 제3대대에 281고지 탈환을 명령하였다. 이에 제11중대를 제외한 제3대대가 서쪽 능선으로 공격을 단행하여 오전 11시 35분에 281고지 서쪽을 점령하였다. 이때 고지 중턱에 머물러 있던 제11중대도 고지 정상으로 돌진하여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펼친 끝에 대대와 합류하였다. 제6중대도 전열을 정비한 후 서북쪽 능선으로 진격하여 오전 11시 50분에 고지 동쪽의 정상을 확보함으로써 281고지를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

제9사단 29연대가 실시한 281고지 전투가 종료된 지 25시간이 경과한 11월 5일 오후 9시에 중공군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공군의 공격목표는 281고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395고지로서 후에 백마고지로 불리는 전초진지였다. 이번 공격은 중공

군 제126사단 376연대 2대대가 담당하였고, 600여 명의 병력과 각종 박격포 및 기관총 등을 갖추고 있었다. 281고지 전투가 종료된 직후 제29연대장은 전선조정을 통해 우측에 제1대대, 중앙에 제2대대 그리고 좌측에 제3대대를 배치함으로써 395고지는 제1대대가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395고지와 그 일대에 100여 발의 포격을 실시한 후 미리 고지 북사면에 매복해 있던 대대규모 병력으로 고지 정상을 향해 쇄도하였다. 이들은 고지의 좌측과 중앙에서 파상적인 협공을 감행하였고, 2시간이 지날 무렵에는 고지 주봉을 담당한 제1대대 3중대 진내에서 백병전이 펼쳐졌다. 이외에도 중공군은 고지 우측방을 공격하는 한편 고지에서 동남쪽으로 700m 떨어진 대대 OP를 기습하였으며, 전차 1개 소대가 고지 동쪽 능선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전황의 위급함을 인식한 사단장은 제1대대에 철수를 지시하고, 제28연대 3대대에 차단진지를 점령해 제1대대 철수를 엄호하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견제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11월 6일 오전 7시를 기해 2개 대대로 중간목표 A와 B를 확보한 후 최종목표인 395고지를 점령하라고 제28연대장 이창정(李昌禎) 대령에게 지시하였다.

제28연대장은 제1대대와 3대대를 각각 좌우 정면에 세운 후 오전 7시 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남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목표 B를 향해 395고지 동쪽으로 진격한 제3대대는 중공군의 화력거점을 포격지원으로 제압하고, 이어 2개 중대가 협공을 통해 목표 B를 탈취하였다. 대대는 여세를 몰아 395고지를 공격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오전 10시 50분에 최종목표인 395고지의 동쪽을 장악하였다.

목표 A를 탈취하기 위해 오전 7시에 진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목표고지 하단에 도달한 후 병력을 포위대형으로 편성해 양면에서 압박을 가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대대주력이 정면을 공격하였고, 이 틈을 타 우회한 일부 병력이 배후를 기습하자 혼란에 빠진 중공군은 고지 정상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대기하고 있던 제2중대를 고지 북사면으로 보내 배후를 집중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목표 A를 탈취한 대대 주력이 정상으로 육박하고 제2중대가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오전 11시에 고지 서쪽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395고지를 탈환하고 전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246명을 사살하고 포로 57명을 획득하였으며, 기관총 33정과 무반동총 3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31명이 전사하

고 18명이 실종되었으며, 116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9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중부전선 요충인 철원 북방 일대에서 전초진지를 탈취하려던 중공군의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사단의 방어정면에 대한 밀도 증강과 종심을 강화한 방어편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전선을 재조정하여 진지를 보강하고 계속된 위력수색으로 정면의 적정수집에 주력하게 되었다. 반면에 중공군 제126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입은 상당한 타격으로 대규모 공격보다는 소대 및 중대규모의 정찰대를 출몰시켜 395고지-281고지 일대에서 정찰전을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9 (2012)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59) (1987)

【손규석 집필】

제2차 월비산 전투

[第2次 月比山 戰鬪, 1951. 11. 18.~24.]

개요

수도사단의 전선을 인수한 국군 제11사단이 195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강원도 간성 북방의 월비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6군단 예하 제9사단과 공방전을 펼친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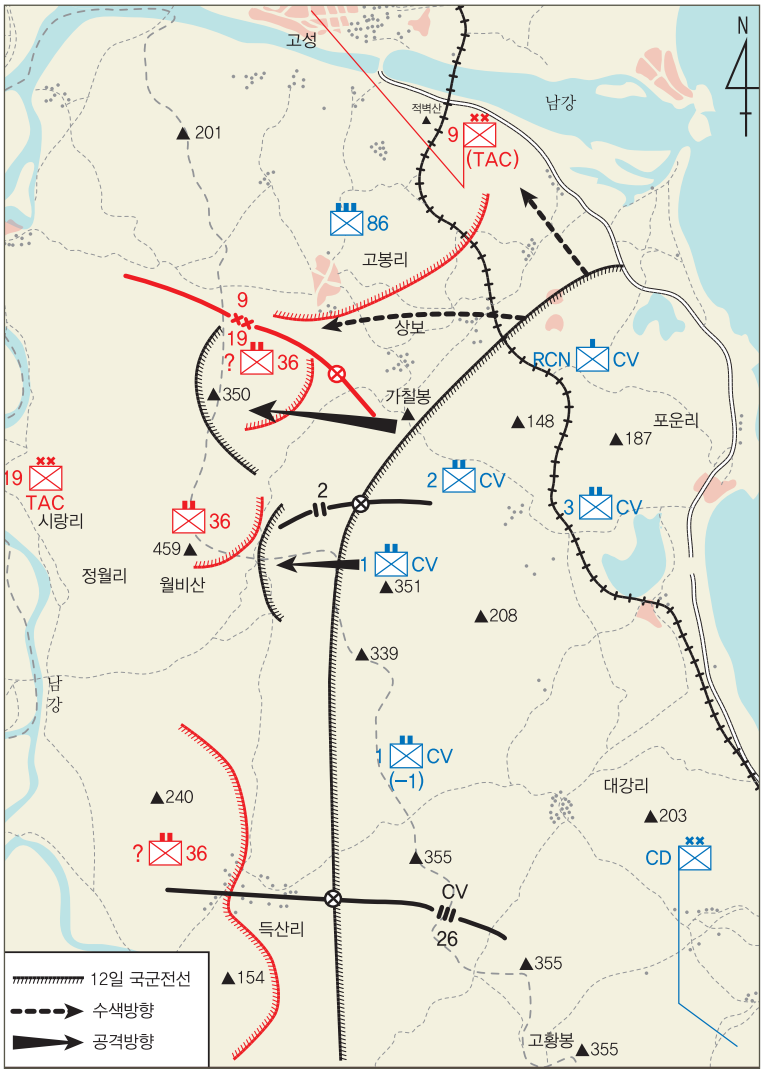
전개과정

추계공세를 통해 보다 유리한 지형을 따라 전선을 정리한 유엔군은 1951년 10월 25일 휴전회담 재개와 더불어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진격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휴전협상 기간을 지연시키면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는데 주력하며 진지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전선은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연일 수색전과 전진진지 쟁탈전이 전개되었는데, 국군 제11사단이 실시한 제2차 월비산 전투가 그 중 하나이다.

작전지역인 월비산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 속하며, 동해안 지역 최북단의 북방한계선 북방 1km 지점에 있는 표고 459m의 최고봉이다. 금강산과 원산에 이르는 접근로의 관문인 월비산은 동해안 고성-통천-원산간 도로와 남강 일대를 감제 관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였다.

국군 제11사단 전면에는 제1차 월비산 전투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재편성을 위해 후방으로 물러난 북한군 제6군단(군단장, 崔勇鎭 중장) 제19사단을 대신한 제9사단(사단장, 朴成哲 소장)이 남강 북방에 진출해 있었다. 월비산을 탈취해 고성 방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이들은 약 3,620명의 병력과 각종 포 등을 보유하였으며, 월동준비를 완료한 채 식량과 각종 보급도 무난해 비교적 사기가 양호한 편이었다.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제11사단장 오덕준(吳德俊) 준장은 국군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소장으로부터 수도사단의 전선을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장은 제9연대장 김안일(金安一) 대령에게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도록 지시하면서 대전차공격대대에는 사단수색대와 함께 월비산과 남강 이남에서 전초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제9연대와 대전차공격대대, 사단 수색중대의 병력은 약 1,140명에 장비는 편제상의 90%를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이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규전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였다. 더구나 사단장의 조치는 1개 연대가 1개 사단의 방어지역을, 1개 대대가 1개 연대의 전초진지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월비산 일대 진지를 점령한 대전차공격대대는 11월 18일 오후 10시 20분경 월비산의 방어편성을 탐색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포병의 포격지원과 수류탄 공격으로 격퇴하였다. 이처럼 탐색전을 마친 북한군은 다음날인 11월 19일 새벽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월비산에서 동북쪽으로 3.5km 떨어진 감호 북안의 구선봉을 방어하고 있던 수색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2차례 공방전 끝에 이를 물리쳤으나, 낮에 재개된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고 37고지-208고지 선으로 후퇴하여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였다.

월비산의 대전차공격대대도 5차에 걸친 북한군의 파상공격에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오전 10시경 351고지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공격을 가해온 대대규모의 북한군에게 351고지마저 빼앗기고 1km 남쪽에 위치한 339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208고지-339고지 선에 축차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군단지휘소 경계임무에서 해제된 제3중대가 새로 증원되자 351고지를 탈환하기로 작정하고 오후 1시 30분을 기해 공격개시를 명령하였다. 대대는 유엔함재기 편대의 항공지원과 사단포병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반복한 끝에 오후 3시10분에 35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대는 이날 자정 무렵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351고지를 다시 빼앗겼으나, 11월 20일 오전 5시에 역습하여 고지를 회복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대전차공격대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제3대대를 351고지로 진출시켰다. 제3대대는 351고지에 도착한 후 배속된 대전차공격대대 제3중대와 함께 351고지와 339고지의 방어를 위해 진지를 재편하였다.

11월 21일 자정 무렵 감호 남안을 방어하던 수색중대를 공격해 약 1시간 동안 교전을 벌였던 북한군은 다음날 오전 6시에 351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 3중대는 1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한편 진지를 강화하면서 전열을 정비한 제9연대장은 월비산을 탈환하기로 결심하였

다. 이날 야간에 월비산 동쪽 1km의 261고지를 먼저 탈환할 것을 351고지에 있는 제3대대에 명령하였다. 대대는 오후 7시에 목표인 261고지를 공격하여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이어진 북한군의 역습을 받고 공방전을 아침까지 계속하였다.

11월 22일 고성 해역으로 급거 출동한 미 순양함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호는 남강 일대에 8인치 함포로 91발의 제압사격을 가해 제9연대 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런 가운데 11월 24일 북한군은 351고지와 261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견제의 일환으로 감호 남안의 수색중대를 공격하면서 대전차공격대대가 확보하고 있는 208고지를 오전 3시를 기해 기습하였다. 제1선 진지가 돌파된 대대는 진지를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단 339고지로 물러난 후 오전 7시에 여명공격을 감행하여 다시 탈환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목표를 제3대대 11중대가 방어하고 있는 261고지로 바꾸고 76mm 직사포 1천여 발을 집중시킨 후 공격하였다. 중대는 사단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으나, 앞선 전투에서 입은 전력의 손실로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351고지로 철수하였다. 이후 대대는 26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특공대를 편성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고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1사단은 수도사단이 탈취한 월비산 일대의 방어에 실패하고 인수한지 8일만에 이를 북한군에게 빼앗겼다. 금강산과 원산에 이르는 접근로의 관문이자 동해안의 고성-통천-원산간 도로와 남강 일대를 감제 관측할 수 있었던 월비산을 상실함으로써 남강 일대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 내에서의 작전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월비산과 261고지를 상실한 제11사단은 11월 27일 오후 3시를 기해 37고지-208고지-339고지-351고지 선의 진지를 제5사단 제36연대에 인계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사단은 북한군 1,064명을 사살하고 7명을 포로 또는 귀순시켰으며, 기관총 7정과 각종 소총류 3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사 49명과 실종 28명, 부상 1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대진초기』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비산 · 351고지 전투』 (19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下(1997)

【손규석 집필】

백야전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

[白野戰戰鬪司令部 共匪討伐作戰, 1951. 12. 2.~1952. 3. 14.]

개요

국군 백야전전투사령부가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공산군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실시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총반격으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패잔병은 지방공비 및 남파 유격대와 합세하여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병참선 차단과 후방교란 등을 획책하였다. 이들은 국군의 토벌작전으로 대부분 소탕되었으나, 그들 중 약 4천 명은 지리산을 비롯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백아산, 화학산과 같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주하여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들은 남부군 직속부대인 제81사단과 제92사단,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전북도당 사단 등이 주축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과 육군본부는 공비토벌을 위해 설치된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토벌작전이 작전의 연속성 결여와 병력의 축차사용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판단하고 국군 2개 사단이 단시일 내에 공비들을 섬멸하여 후방 보급로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선 상황이 2개 사단의 차출이 가능할 정도이고, 산속 공비격멸에는 낙엽기가 적절하며 국군을 재편하고 실전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1951년 11월 25일 육군본부는 제1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백야전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예하에 수도사단(사단장, 宋堯讚 준장)과 제8사단(사단장, 崔榮喜 준장)을 기동타격대로,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金容培 준장) 및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편성하였다. 다음날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부터 임무를 인수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4단계 공비토벌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1951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리산지구 공비거점을 공격하고, 제2단계는 12월 30일까지 전북지역과 경남지역 공비거점을 동시에 공격하며, 제3단계는 1952년 1월 10일까지 제1, 2기 작전지역의 잔적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공비가 침투한 다른 지역에서 소탕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작전 실행에 있어 기동타격대에는 공비의 주력을 포착 섬멸하고, 저지부대에는 공비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1) 제1기 작전(1951. 12. 2. ~ 14.)

12월 1일 정부는 작전실행에 앞서 서남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의 이동통제와 마을간 전화교신을 차단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다음날인 12월 2일 백야사는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의 제1기 작전을 감행하였다.

백야사는 5일간의 전반기작전에 목표지역 내 핵심지역을 점령하고, 나머지 후반기작전기간에 목표지역을 반복 탐색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기동타격대인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지리산의 남과 북에 각각 배치하여 포위하고,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비의 근거지를 분쇄하고 반복수색으로 잔당을 색출하려 하였다.

작전 개시일까지 통제선 외곽의 공비들을 목표지역 내로 몰아넣은 후 격멸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은 12월 2일 아침 6시를 기해 제8사단과의 협조 아래 포위망 압축에 나서 예하 3개 연대가 3면에서 목표를 향해 진격하였다. 공격 첫날 목표로 한 통제선에 도달한 사단은 다음날부터 공비의 근거지를 색출하고 추격하면서 교전을 전개하였고, 12월 4일과 5일에는 통제선 일대에 대한 전면공격을 실시하였다. 수도사단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제1기 전반기작전을 종료하고 7일부터 사단 담당지역 일대에 대한 반복 수색작전에 착수하였다.

한편 지리산 북쪽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한 제8사단은 목표로 한 통제선을 점령하고 공비의 퇴로차단에 주력하였다. 다음날 공격을 재개한 사단은 포위망을 압축하여 12월 6일 최종 목표를 점령한 후 전반기작전을 종료하였다. 12월 7일 후반기작전을 개시한 사단은 분산 은거 중인 공비색출을 위해 반복수색을 실시하였다.

제1기 작전에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공비사살 1,715명, 생포 1,710명, 귀순 132명과 소총 509정, 자동화기 86정, 수류탄 676발, 백미 769석, 벼 416가마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작전 결과, 잔여 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과 근거지를 버리고 토벌부대를 피해 분산 잠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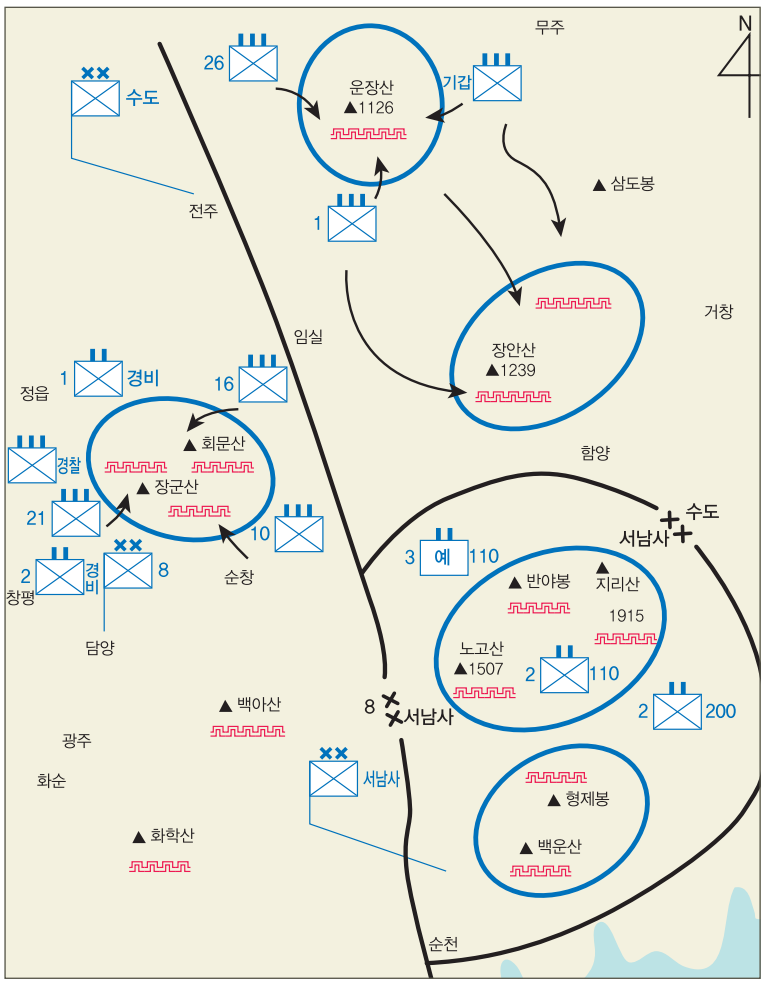
(2) 제2기 작전(1951. 12. 16. ~ 1952. 1. 4.)

백야전전투사령부는 분산된 공비를 근거지별로 각개 격파하는 제2기 작전에 앞서 거점을 포위 공격하는 전반기 작전과 분산된 공비잔당을 수색 격멸하는 후반기 작전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운장산 지구, 제8사단은 회문산 및 백아산 지구의 공비토벌을 담당하였고,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지구에 재집결하려는 잔당을 토벌하게 되었다.

12월 19일 아침 6시 3개 연대로 포위망을 형성하고 공비를 압박한 수도사단은 접전을 피해 지리산 방면으로 도주하는 공비들을 추격하였다. 공비들의 근거지를 파괴하며 23

일까지 추격전을 펼친 사단은 공비 790명을 사살하고 478명을 생포하였으며, 114정의 무기와 식량 30가마 등을 노획하였다. 이어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실시된 후반기 작전에서는 거창 서북쪽 삼도봉에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하려는 공비들을 3일에 걸쳐 추격하여 섬멸하였다.

한편 12월 19일 아침 6시를 기해 회문산과 내장산 일대에 잠복중인 공비 소탕에 나선 제8사단은 회문산 부근에서 공비 근거지 20개소를 파괴하였다. 이후 포위망 압축을 계속하던 사단은 12월 23일 공비의 주요거점인 신선봉-내장산-백양산을 집중 공격하여 공비를 소탕하고 전반기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 작전에서 사단은 공비 417명을 사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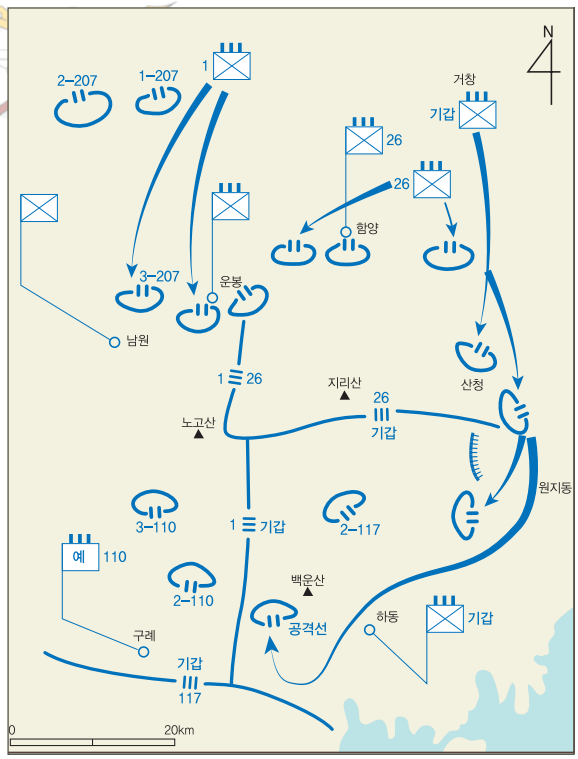


고 851명을 생포하였으며, 근거지 파괴 313개소와 다량의 무기 및 탄약을 노획하였다. 12월 30일 후반기 작전에 돌입한 사단은 1952년 1월 5일까지 백아산 지구에서 탐색전을 실시해 공비 155명을 사살하고 202명을 생포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지역으로 다시 잠입하려는 공비들을 소탕하면서 주요 거점의 수색을 병행하여 전반기작전 기간에 반야봉 부근에서 50명, 거림에서 500명, 노고단에서 33명의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수도사단 제26연대와 함께 천왕봉에서 공비 200명을 섬멸하였다. 서남지구사령부는 후반기작전 기간 중에 지리산 지구에서 저지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탐색활동을 계속하였다.

(3) 제3기 작전(1952. 1. 4. ~ 31.)

백야사의 제2기 작전으로 주요 조직과 근거지가 파괴된 공비들은 유격활동에 유리한 지리산지구로 재잠입을 기도하였다. 이에 백야사는 이들 공비의 잔당을 섬멸하기 위한 제3기 작전을 계획하고 수도사단을 지리산-백운산-장안산지구에, 제8사단을 회문산-백아산-조계산-화학산지구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를 덕유산-운장산지구에 투입하였다.



수도사단은 지리산지구의 공비 소탕을 전반기에, 백운산지구의 공비소탕을 후반기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리산을 3면에서 포위한 수도사단은 1952년 1월 12일 공격을 개시해 지리산 중심지역인 삼정리-천왕봉-거림-노고산-반야봉선 일대를 수색한 후 공비잔당을 섬멸하고 1월 22일 오후 2시에 지리산지구 작전을 종료하였다.

사단은 곧이어 후반기 작전에 돌입하여 약 350명의 공비가 집결한 백운산지구를 공격하였다. 백운산을 3면에서 포위한 사단은 1월 24일 공격을 개시하여 27일

에 목표에 도달한 후 반복정밀수색을 실통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제3기 작전에서 사단은 공비 1,867명을 사살하고 1,155명을 생포하였으며, 각종화기 95정을 노획하였으나, 사단도 68명이 전사하고 96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제8사단은 회문산–백아산–조계산–화학산 일대에서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해 예하 3개 연대와 제107예비연대 및 제205경찰연대를 5개 지구에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은 1월 4일 아침 6시를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8일까지 계속하였고, 1월 10일 백야사의 명령에 따라 사단주력이 회문산–신선봉 일대를 집중 탐색하였다.

제3기 작전에서 제8사단은 공비 1,715명을 사살하고 1,972명을 생포하였으며, 각종화기 625정을 노획하였으나, 사단도 48명이 전사하고 56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덕유산–운장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잔당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기간 중 공비 102명을 사살하고 615명을 생포하였으며, 소총 16정을 노획하였다.

(4) 제4기 작전(1952. 2. 1 ~ 3. 14)

1월 31일 자정을 기해 제3기 작전을 종료한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지리산–백운산–회문산–백아산–덕유산–운장산 일대를 반복 탐색하는 일명, '쥐잡기작전(Operation Rat Killer)'인 제4기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번 작전은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전선복귀 시까지 지휘한 후 수도사단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도중에 육본의 명령에 따라 전선 진출이 결정된 제8사단을 제외한 채 수도사단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위주로 실시하게 되었다.

백야전전투사령부는 부대 배속과 전투지경선 재조정 등으로 인해 예정일 보다 늦게 작전에 착수하였다. 백아산–모후산–조계산 지구의 공격을 담당한 수도사단은 조계산 지역을 남북으로 분할한 후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투입하여 협공을 가하기로 하였다. 2월 4일 아침 6시에 조계산을 포위한 채 공격을 개시해 최종목표를 점령한 사단은 7일까지 계속된 작전에서 조계산 일대를 반복 탐색하여 잠복중인 공비잔당을 소탕하였다. 2월 8일 아침 6시에 수도사단은 전선복귀 명령을 받은 백야전전투사령부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3월 14일까지 단독으로 제4기 작전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작전에서 국군 백야전전투사령부는 공비 1만 6,000여 명을 사살 및 생포하거나 투항시켰으며, 3천여 정이 넘는 각종 무기를 노획하였다.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수행한 공비토벌작전은 작전의 기간 및 시기, 민–군 협조체계, 효율적인 심리전 운용, 지휘관의 용맹성과 리더십 등 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성공적인 작전이었

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후방의 치안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병참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전경험의 축적을 통한 전투력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7~8권 (1974~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10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손규석 집필】

임진강 부근 전투

[臨津江 附近 戰鬪, 1952. 12. 11.~13.]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천 북방 임진강 북안 고양대 일대에서 중공군 제47군 예하 제140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미 제1군단의 중앙사단으로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 상에 주저항선을 형성한 국군 제1사단은 1952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고양대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니키(Nickie) 및 테시(Tessie) 고지를 상실하고 니키 고지 남쪽 약 500m 지점 베티(Betty) 고지에 새로운 전진진지를 편성하였다.

연천 북방 임진강 일대의 이 지역은 중공군 거점인 마량산(△315)을 제외하곤 대부분 표고 300m 이하의 야산지대로서, 임진강이 역곡천과 합류하여 S자로 흐르면서 제11연대 작전지역을 동서로 양단하였다. 또한 대안의 전초진지는 중공군과 300m 거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3면이 중공군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수의 진을 쳐야 함으로써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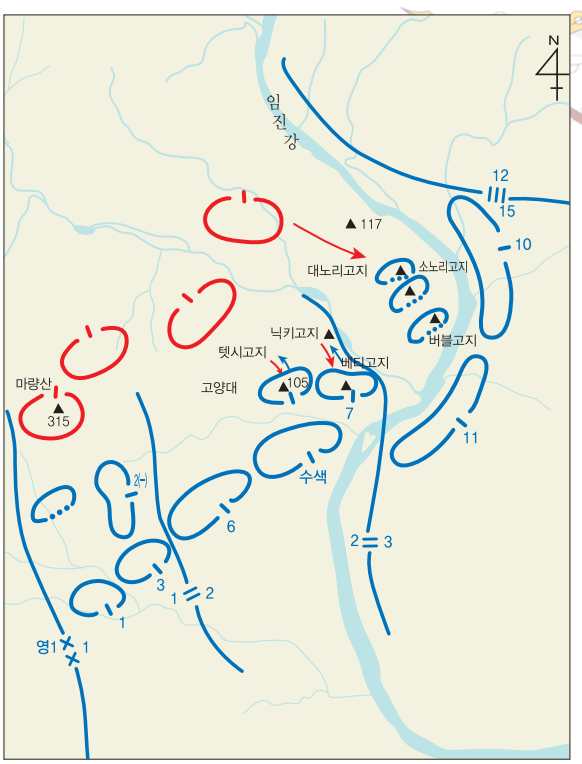
이 무렵 국군 제1사단과 대치중인 중공군은 약 1년에 걸쳐 전술훈련과 부대정비를 완료하고 제39군과 임무를 교대한 제47군(군장, 張天雲) 예하의 제140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약 1만 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이 사단은 제1, 제8포병사단의 직접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마량산-222고지를 연결하는 선상에 주력을, 그 전방에 경계부대를 배치하고 정찰활동과 국군 전초진지에 대한 기습공격을 실시하곤 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좌측과 우측에 배치하였고, 임진강 대안의 리

틀 노리(Little Nori)고지-베티고지-105고지를 잇는 선상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전초진지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사단 병력은 약 1만 2,400명으로 편제의 98%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제5포병단과 군단포병 그리고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52년 11월 11일 사단장 박임항(朴林恒) 준장의 명령에 따라 제11연대의 전선을 인수한 제15연대장 송호림(宋虎林) 대령은 우측 제3대대로 임진강 동안 중사리-88고지를, 중앙 제2대대로 임진강 서안 299고지를 각각 점령토록 하고 좌측 제1대대는 영연방 제1사단과 인접한 166고지 일대에 배치하였다. 제3대대장 문연섭(文鏈燮) 중령은 임진강 대안의 전초진지인 리틀 노리고지에 제9중대를, 빅노리(Big Nori) 고지에 근접한 무명고지에는 경계소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베티고지에는 제7중대 주력을 배치하고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105고지에 경계조를 투입하였다.

12월 11일 새벽 1시 30분 2개 대대규모 중공군이 5천 3백여 발의 포탄이 떨어진 리틀 노리고지와 베티고지를 공격해오자, 제15연대장은 제3대대에 리틀 노리고지를, 제2대대에 베티고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리틀 노리고지 전방 150m 지점의 경계진지를 탈취한 중공군은 제9중대 2소대의 리틀 노리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임진강 서안의 제방과 고장리 부근의 좌측 계곡을 따라 후방으로 파고들어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고립된 제2소대는 1시간의 백병전 끝에 진지를 피탈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제7중대를 전방의 베티고지-105고지선 상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중 기습공격을 받았다. 베티고지를 집중적으로 포격한 후 고지를 공격한 중공군은 105고지를 점령하고 베티고지의 첨단진지를 공격하였다. 제7중대 1소대는 철조망지대를 돌파하고 진지 안으로 진입한 중공군을 격전 끝에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제7

중대를 지원한 제5중대는 중공군의 저항을 제압하고 오전 7시 20분에 105고지를 탈환한 후 베티고지에서 제7중대와 합류하였다.

이때 전황을 파악한 연대장은 중공군 목표가 차기작전에 유리한 전초진지 탈취에 있기 때문에 예비 병력이 없는 제3대대가 리틀 노리고지를 탈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11연대 수색중대를 합류시켰다. 리틀 노리고지 후방의 69고지에서 혼성소대와 합류한 제11연대 수색중대는 오전 8시 30분 병진대형으로 고지 정상으로 향하였다. 중공군 자동화기를 포병 지원으로 제압한 후 수류탄을 투척하며 진지 안으로 뛰어들어 격전을 벌인 끝에 오전 11시에 고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50분 후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교전을 벌이던 중 병력 감소와 탄약 부족으로 69고지로 후퇴하였다.

한편 사단장 박임항 준장은 전황을 검토한 끝에 중공군이 리틀 노리고지를 확보하면 임진강 동안의 주저항선 후방 깊숙이 감제할 뿐만 아니라 관측까지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발판으로 사단의 주진지를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베티고지가 동측의 노출로 항상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이날 오후 1시에 1개 대대로 리틀 노리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제11연대장 최주종(崔周鍾) 대령은 지형상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리틀 노리고지 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화력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공격부대로 선정된 제2대대장 김봉건(金奉鍵) 중령은 목표에 이르는 기동공간이 협소한 탓에 대대를 종대대형으로 하여 제6중대를 선두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공중폭격과 포격이 리틀 노리고지에 실시된 후 오후 1시 30분에 제6중대는 목표로 돌진하여 30분 만에 이를 점령하였으나, 일몰 후 대대규모 중공군으로부터 반격을 받았다. 중공군은 병력을 분산시켜 삼면에서 동시에 공격하였다. 중대는 포격을 요청하고 수류탄전과 백병전까지 펼쳤으나, 끝내 고지를 내어주고 69고지로 후퇴하였다.

이후 3차례 반격에 실패한 제2대대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예비인 제5중대까지 투입하여 제7중대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한 끝에 중공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정오 무렵 고지탈환에 성공하였다. 오후 1시 30분 대대규모 중공군이 연대의 화력집중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상적인 공격을 가해오자, 오후 2시 30분 대대는 어쩔 수 없이 69고지로 후퇴하였다.

사단장은 네 차례 역습으로 세 번이나 목표를 점령했음에도 목표고지 탈취에 실패하자 새로 1개 대대를 투입하여 목표고지를 점령하라고 제11연대에 지시하였다. 이에 제11연대장은 중공군이 리틀 노리고지 확보에 주력하는 동안 빅 노리고지를 공격하는 것이 리틀 노리고지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유사지형에서 실전훈련을 마친 제3

대대를 빅 노리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2대대장 최일영(崔一嶸) 중령은 제9중대를 공격부대로 선정, 주력은 빅 노리고지를 그리고 일부 병력은 리틀 노리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오후 2시 45분 전차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목표로 전진한 제9중대 주력은 중공군의 수류탄 공격을 극복하고 오후 4시 30분에 빅 노리고지를 탈취하였다. 이날 밤 8시 30분 중대는 대대규모 중공군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백병전을 벌이던 중 대대장 명령에 따라 리틀 노리고지를 공격하던 제2소대와 함께 69고지로 철수하였다.

다음날인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제11연대 3대대는 미 공군과 각 포병대대의 포격이 실시된 후 전차중대와 협동으로 리틀 및 빅노리 고지를 공격하였다. 리틀 노리고지를 공격한 제11중대는 중공군의 측방화력에 막혀 공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4대의 전차포로 이를 제압하고 남쪽능선을 따라 배후로 우회한 일부 병력과 함께 정상으로 돌격하여 중공군 화력거점을 파괴함으로써 5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던 리틀 노리고지를 오전 10시 35분에 완전 점령하였다.

빅 노리고지를 향해 출발한 제10중대도 리틀 노리고지 전방 150m의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목표로 진격하였으나, 고지 7부 능선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사격에 더 이상의 진격을 중단하였다. 전방 CP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단장은 일몰 전에 빅 노리고지의 탈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임진강 부근의 일명, 노리 및 베티고지 전투가 종료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 388명 사살 및 407명 추정 사살, 493명 추정살상, 2명 포로와 더불어 자동화기 8정과 소총 14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230명이 전사하고 481명이 부상, 2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전투가 종료된 후 전선의 소강상태 속에서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적정 수집을 위한 정찰과 수색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전단 살포와 대남방송 등 심리전을 통해 중공군의 전의와 사기저하에 주력하였다. 중공군은 이번 전투에서 전의를 완전 상실한 제140사단 420연대를 대신하여 제139사단 416연대로 교체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1090고지 부근 전투

[1090高地 附近 戰鬪, 1951. 12. 25.~1952.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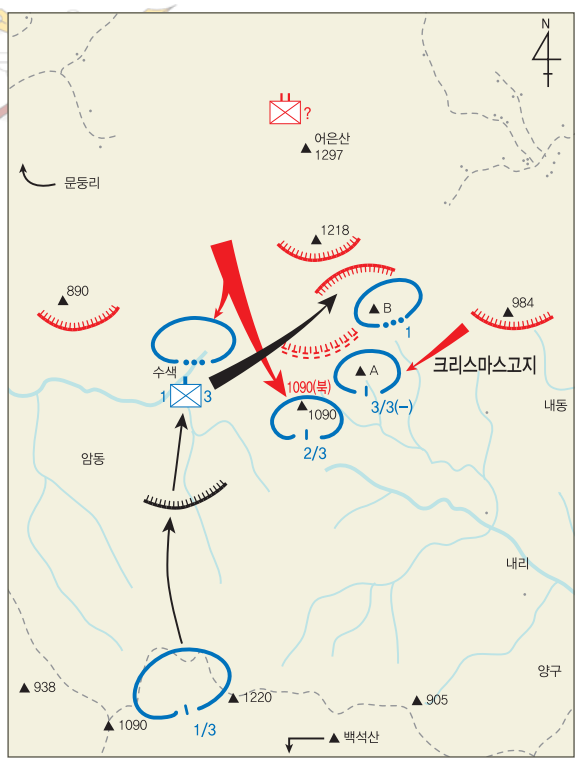
개요

국군 제7사단 3연대가 1951년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와 1952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차에 걸쳐 강원도 양구 북방 1090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3군 예하 제204사단 614연대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고지는 양구 북방 문등리 계곡 서쪽 어은산(△1250)과 백석산(△1142) 사이에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1090고지 중 북쪽 고지를 일컫는다. 어은산과 백석산을 잇는 종격실 능선상의 이 고지는 지형적으로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초진지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이었다.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1951년 11월 27일 휴전회담에서 현재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한 후 1개월 내에 휴전이 성립되면 이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한다는 조건부 휴전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남강 하구에 이르는 전선에서 현 접촉선에 대한 진지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7사단 3연대 정면에는 중공군 제63군 예하 제204사단 612연대가 어은산을 주축으로 890고지-1218고지-984고지가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10월 중순에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12, 제

32사단과 교체 투입된 후 국군 제8사단과의 백석산 전투에서 크게 패해 주요 고지를 상실하고 어은산 일대로 물러난 상태였다.

반면에 국군 제7사단은 11월 중순에 제8사단과 교체되어 어은산 남쪽의 610고지-905고지-987고지-1220고지-1090고지-통선골을 잇는 미네소타선(Minnesota Line) 상에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이후 사단장 이성가(李成佳) 준장은 12월 11일과 12일에 사단 방어정면 좌측을 담당하고 있던 제5연대를 예비인 제3연대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제3연대는 내동-암동계곡을 잇는 듀크선(Duke Line) 상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었는데, 연대장 이소동(李召東) 대령은 1220고지에 CP를 개설하고 우측에 제1대대와 중앙에 제2대대, 좌측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면서 배속된 대전차공격대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연대는 각종 지원화기로 제1대대를 중점 지원하면서 듀크선 정면에 대한 위력수색과 잠복을 통한 포로획득에 주력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고학룡(高學龍) 소령은 OP가 차려진 1090고지의 주진지를 제2중대에 맡기고, 제3중대는 300m 북쪽의 무명고지Ⓐ를 확보하되 1개 소대로 Ⓐ 북쪽 400m 지점의 무명고지Ⓑ에 경계진지를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1중대는 1090고지(북)로부터 1km 남쪽에 있는 1090고지(남)에 예비로 두었다.

1951년 12월 25일 성탄절 날, 중공군은 국군 제7사단 3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무명고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공격목표인 무명고지는 중공군 방어선 중 핵심고지인 1218고지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신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였다.

강력한 눈보라로 시계가 제한된 이날 오후 6시경 중공군은 정찰대가 무명고지Ⓑ 일대를 탐색한데 이어 400여 발의 박격포격을 고지 일대에 집중시키고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무명고지Ⓑ를 동쪽으로 우회하여 무명고지Ⓐ의 동쪽을 공격하였고, 일부는 무명고지Ⓑ의 서쪽을 통해 무명고지Ⓐ를 압박하면서 국군의 후방퇴로 및 증원 차단을 기도하였다.

이는 중공군이 일거에 무명고지Ⓐ를 점령하여 무명고지Ⓑ에 대한 포위효과를 노리면서 여세를 몰아 1090고지를 기습공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대대장은 1090고지(남)에 있던 예비대인 제1중대를 1090고지(북)에 투입하여 진지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대대화력으로 제3중대를 지원하며 진지고지를 독려하였다.

중공군은 제3중대를 좌우에서 협공하였고, 이에 따라 고지 일대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다. 고지를 둘러싸고 수차에 걸쳐 파상공격을 가하던 중공군은 1시간이 지난 무렵 무명고지Ⓑ 방향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간파한 대대장으로부터 무명고지Ⓑ의 탈환을 지시받은 제3중대는 다음날 새벽에 네 차례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실

패하였다.

이에 제1중대가 제3중대를 대신하여 오전 9시경 공격에 나서 수차에 걸친 공방전 끝에 오후 3시 30분에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1중대는 잠시 후 370여 발의 박격포격을 고지에 집중하며 반격을 가한 중공군과 2시간의 격전을 벌인 후 무명고지Ⓐ로 철수하였다. 12월 27일 오전 11시 제1대대는 제1중대와 제3중대로 무명고지Ⓑ를 공격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무명고지Ⓑ를 탈환한 중공군의 반격을 격퇴하고 제1차전을 종료하였다. 모든 전선이 거의 평온을 유지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휴무기간에 쟁탈의 대상이 되었던 이 고지는 이후 '크리스마스고지'라는 별칭이 붙었고, 따라서 이 전투도 크리스마스고지 전투라 불리게 되었다.

1952년 2월로 접어들어 미 제8군은 전선의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포로획득에 목적을 둔 '유인작전(Operation Clam Up)'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7사단장은 "현 점유선에서 적의 정찰대를 진전으로 유인하여 포획한다."는 내용의 작전을 예하에 지시하였다. 제3연대장은 제1차전 당시의 무명고지Ⓑ인 크리스마스고지에서 작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1대대를 운용하였다. 우일선을 담당한 제1중대로 1090고지(북)를, 제2중대로 그 북쪽 무명고지Ⓐ를 점령토록 하고, 제3중대를 예비로 1090고지(남)에 두었다. 대대 북쪽 첨단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고지에는 중공군을 유인하기 위해 제2중대의 1개 소대만을 배치하였다.

2월 11일 오후 3시에 2개 분대규모의 중공군이 크리스마스고지를 공격해오자, 소대는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진지인 무명고지Ⓐ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고지를 점령했던 중공군이 자진하여 철수하면서 제2중대 경계소대는 고지를 다시 점령하였다. 이날 저녁 일단의 중공군이 크리스마스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제2중대의 무명고지Ⓐ를 공격해왔다. 중대는 이들을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유인해 중대의 모든 화력과 대대의 박격포격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제2중대는 박격포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단행한 중대규모 중공군을 물리쳤다. 이때 대대장 김업(金業) 소령은 중공군을 유인하려는 작전기도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진지를 강화하기 전에 크리스마스고지를 탈환하도록 제2중대에 명령하였다. 이에 중대는 특공대를 편성해 기습공격을 가한 끝에 오전 11시 고지를 탈환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중공군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7사단 3연대는 이번 전투에서 중공군 212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로로 획득하

였으며, 기관총 14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제3연대도 31명이 전사하고 1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미 제8군은 크리스마스고지에서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중공군을 유인해 포로를 획득한다는 'Clam Up작전'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 팔머(Willston B. Palmer) 중장은 작전을 종료함과 동시에 모든 화력으로 전면의 적진에 대한 포격작전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국군 제7사단도 이에 호응하여 화력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 (55) (1987)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 전투』 (2010)

【손규석 집필】

두매리 전투

[杜梅里 戰鬪, 1951. 12. 28.~1952. 1. 8.]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1년 12월 28일부터 1952년 1월 8일까지 문산 정면 임진강 북방의 두매리 일대에서 전초진지 확보를 위해 중공군 제63군 제188사단과 공방전을 실시한 공격전투이다.

전개과정

작전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일대이며, 위치상으로는 문산 정면 임진강 북방의 대덕산 일대의 비무장지대에 속한다. 두매리 고지는 평탄지역에 유일하게 솟은 해발 140m의 요지로서 중공군의 감제고지인 대덕산(△237) 동측방과 후방을 고립화시킬 수 있고, 사단 전방에 대한 중공군의 수색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 시 전진발판이 되는 고지였다.

1951년 10월 3일 미 제1군단은 현재의 방어선을 약 10km 북상시키기 위한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을 감행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은 군단장 오다니엘(John W. O'Daniel) 중장으로부터 공격목표 Moon(판부리 서쪽 146고지-91고지)을 부여받

았는데, 이 지역은 반복된 수색과 정찰을 통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후 6시에 접적 없이 고랑포리 북쪽 4km의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을 확보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사단장 박임항(朴林恒) 준장의 지시에 따라 임진강 북안의 사천-백학산-사미천을 잇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좌측에 제11연대, 우측 두매리 남쪽에 제12연대를 배치하면서 제1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의 90% 수준을 유지하였고, 포병 및 전차부대와 미 공군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상대보다 우세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3군(군장, 傅崇鍾) 예하 제188사단(사단장, 鄧岳)이 용호산-망해산-반룡산 선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비지산과 대덕산 전면에 병력과 화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 7천 5백명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122mm · 105mm 야포대대, 전차소대 등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51년 10월 29일 제임스타운선을 확보한 제1사단 12연대장 정영홍(鄭永洪) 대령은 각종 정보를 통해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좌측에 배치된 제2대대를 제3대대로 교체하는 한편 제2대대 5중대로 제1대대 전진진지인 두매리 고지 일대 방어를 전담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28일 오후 4시 중공군 제188사단 523연대는 예비대를 투입하여 기습공격을 가해왔다. 이들은 제5중대가 확보하고 있던 104고지와 두매리 고지 일대에 6백여 발의 박격포격을 집중시킨 후 2개 중대가 좌측과 우측에서 제5중대 진지로 접근해왔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이들이 주공을 제1대대 정면의 전진거점에 집중시킬 것이라며 예하 대대에 비상경계를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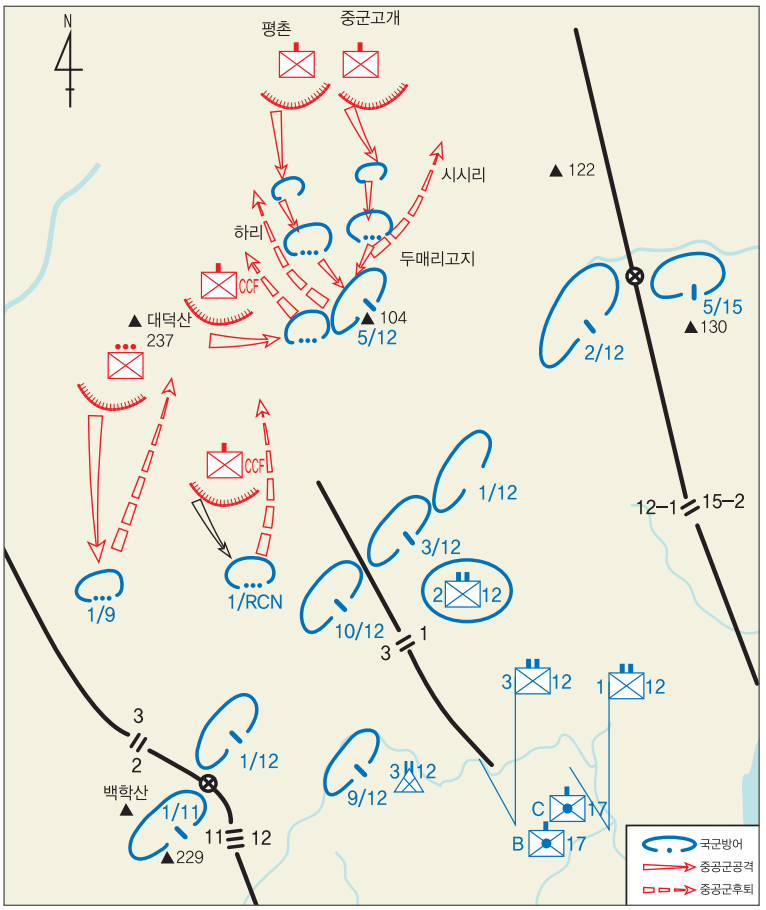
잠시 후 중공군은 두매리 고지 서북쪽 1.5km 철모고지와 89고지에 2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철모고지에 나와 있던 제5중대 분견대는 중공군에게 일격을 가한 후 300m 남쪽 무명고지로 철수하였고, 89고지의 경계조도 두매리 고지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중공군의 파상적인 공격에 밀려 중대가 위치한 104고지로 철수하였다.

정오를 막 넘긴 오후 0시 20분경 미 공군 전폭기 편대의 공중공격으로 공격을 일시 중단했던 중공군은 전차포 지원을 받으며 104고지 좌우 능선을 따라 제5중대 OP를 공격해왔다. 중대는 지원포병의 사격지원 아래 진지로 몰려드는 중공군을 수류탄 투척과 백병전으로 격퇴시키고 104고지를 중심으로 야간경계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2월 29일 제12연대장은 빼앗긴 전초고지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이 종료된 즉시 목표인 두매리 고지와 무명고

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장 장득수(張得守) 소령으로부터 두매리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7중대는 주요 지형에 화력거점을 형성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을 백병전으로 물리치고 오전 10시 10분에 목표인 두매리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고지에서 물러났던 중공군은 오전 11시에 역습을 단행하였고, 오후 2시 30분에는 이들이 중대 진지까지 밀려들어 진내에서 백병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중대는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무명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6중대는 일부 병력을 목표 우측으로 우회시켜 배후를 기습하고, 동시에 주력이 정면 돌격을 감행하여 무명고지를 회복하였다. 이후 중대는 철모고지와 대덕산 등 세 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모든 화력을 이용하여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고지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었다.



한편 전황을 살피던 연대장은 현재로서는 목표탈취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전열을 재편한 후 재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음날인 12월 30일 오전 7시 제2대대장은 제5중대를 투입하여 두매리 고지를 공격하였다. 오후 2시 중대는 화력을 동원하여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탈환에 성공하고 진지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요청한 증원 병력을 받기도 전에 전차포 100여 발을 집중하며 역습을 가한 중공군에게 다시 고지를 넘겨주고 104고지 뒤편으로 물러나면서 3일에 걸친 제1차전은 종료되었다.

제1차전에서 전진거점을 상실한 제12연대는 1952년 1월 3일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3대대를 투입하여 두매리 고지와 무명고지의 탈환에 나섰다. 포병의 강력한 포격과 미공군 전폭기의 엄호폭격이 실시되는 동안 제3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무명고지를 공격한 제10중대는 특공대가 중공군의 화기진지를 격파한데 힘입어 오후 1시 10분에 목표고지를 탈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중공군의 역습을 몇 차례 격퇴하던 중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실시한 피상공격에 고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두매리 고지를 공격한 제11중대는 전차포로 중공군의 화기를 제압한 후 1개 소대로 우회 공격을 실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중대주력이 돌격을 감행하여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곧 이은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진내에서 백병전까지 펼쳤으나, 오후 2시경 고지를 내어주고 후퇴하였다.

이처럼 제12연대의 탈환작전이 지지부진하자, 사단장은 제15연대장 김진위(金振暐) 대령에게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연대는 무명고지와 두매리 고지를 점령한 후 중군고개마저 확보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대대(장, 金明中 소령)와 제3대대대(장, 金國柱 소령)를 공격부대로 임명하였다.

1월 5일 여명에 제3대대는 두매리 고지에 대한 공격에 나서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극복하고 목표고지를 탈환한 다음 무명고지로 방향을 바꿔 중군고개(△122)와 148고지마저 점령하였다. 무명고지를 목표로 병진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도 도중에 자동화기를 발사하며 저항하는 중공군을 포격지원으로 제압한 후 적진으로 돌격하여 정오 무렵 목표로 한 무명고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지를 빼앗기고 물러났던 중공군은 오후 1시 30분에 중문고개와 두매리 고지, 148고지 일대에 집중포격을 실시하고 2개 중대규모로 반격을 가해왔다. 두매리 고지만은 고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과는 달리 중공군은 이 고지에 전력을 집중한 채 파상공격을 실시하였고, 결국 오후 6시 40분에 중대는 고지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1월 6일 제1대대가 두매리 고지 탈환에 다시 실패하자, 연대장은 대 포병 화력을 강화하고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제3대대는 오전 5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고지 중턱

까지 도달하였으나, 그곳에서 중공군의 측방공격에 막혀 진격이 중단되었다. 대대는 포병의 집중사격지원을 받아 이를 제압한 후 공격을 재개하여 오전 11시경 두매리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중공군의 역습에 또 다시 고지를 내어주고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두매리 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명고지를 탈취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제12연대 3대대에 탈취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대는 특공대를 고지 양쪽으로 투입하여 일제돌격을 감행한 끝에 오후 4시 20분에 무명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역습에 밀려 오후 5시 30분에 고지 남쪽 100m의 무명고지로 또 다시 철수하였다. 이후 전황은 제12연대와 제15연대가 무명고지와 두매리 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면 중공군의 역습으로 다시 빼앗기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 1,611명을 사살하고 포로 4명을 획득하였으며, 박격포 1문과 기관총 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129명이 전사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585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군단의 명령에 따라 1952년 1월 8일 전투를 종료한 후 제15연대를 임진강 남안의 원진지로 복귀시키는 한편 제12연대는 104고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진진지에 배치하여 견고한 축성공사와 위력수색을 실시토록 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은 대덕산을 중심으로 한 주진지를 계속 보강하면서 두매리 고지 전면에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공격기회를 수시로 탐색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 (45) (1986)

【손규석 집필】

575고지 부근 전투

[575高地 附近 戰鬪, 1952. 4. 16.~6. 14.]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2년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김화지구의 교암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12군 제35사단과 전초진지 확보를 위해 3차에 걸쳐 실시한 공방전이다.

전개과정

575고지는 금성지구의 교암산 동북방 3km에 지점에 돌출되어 있는 고지로서, 율사리-쌍령동 일대 감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포격을 유도할 수 있는 요충이었다. 중공군이 이 고지를 확보할 경우 지형능선의 서사면에 대한 감제가 가능하여 차후공격의 접근로를 장악하게 되고, 군사분계선 설정원칙에 따라 2km 후퇴하게 되면 요충인 교암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국군 제6사단은 1952년 4월 5일부로 제2군단으로 개편된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좌익사단으로 중동부전선에 투입되어 금성 정면의 돌출된 전선에 배치되었다. 이 무렵 상황은 휴전회담이 교착되며 정전양략 상의 제한으로 유엔군은 공격을 유보한 채 공군과 포병의 지원으로 공산군의 공세를 사전에 분쇄하면서 미주리선(Missouri Line)에 전진진지를 강화하고 위력수색과 야간매복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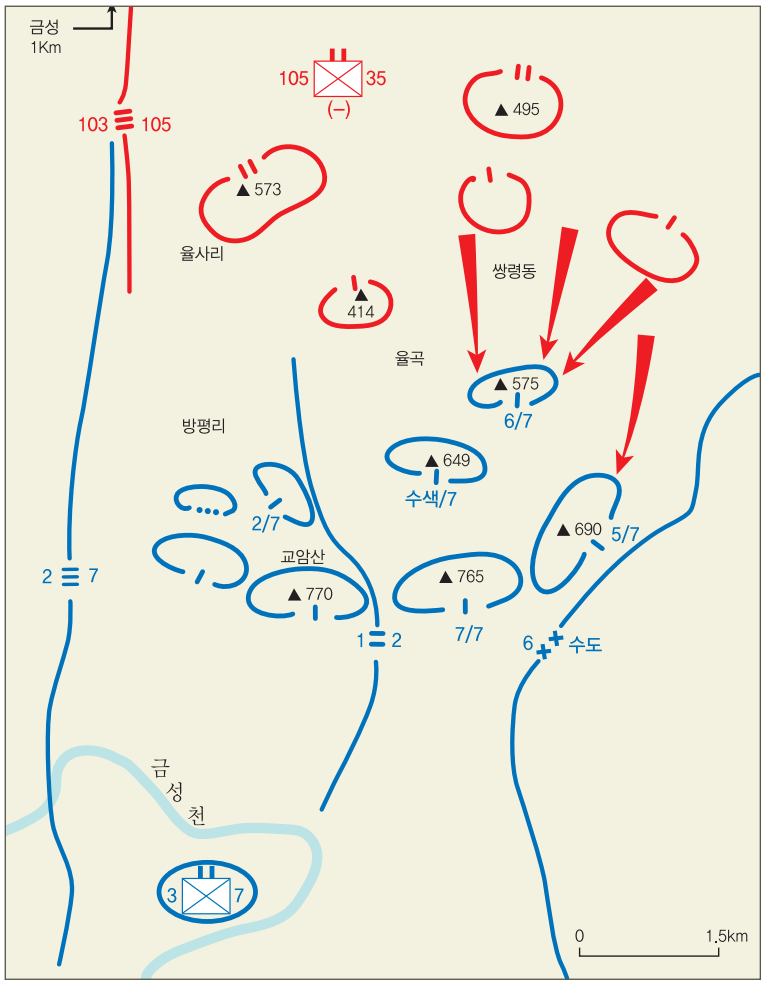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과 제35사단의 일부 병력 약 6천 명이 포병연대의 직접 지원 아래 533고지-옥녀봉-562고지-573고지-495고지 선에 주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전 전투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은데다 많은 전투경험을 축적하고 보급마저 양호하여 사기가 높은 편이었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와 제7연대를 사단 좌우측에, 제19연대는 사단예비로 죽동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봉화산-사천리-계암-442고지-교암산-765고지를 잇는 미주리선 상에 방어선을 편성하였으며, 제27포병대대와 미 제300자주포병대대, 제52전차중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4월 16일 오후 7시 교란사격을 575고지 일대에 집중한 중공군은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율곡 부근의 개활지를 건너 세 방면에서 고지로 향하였고, 1개 중대는 여호고개로부터 690고지 동북능선을 타고 접근하였다. 이는 690고지-649고지를 견제 공격하여 증원을 차단하면서 기습적으로 575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중공군이 이날 단행한 네 번의 공격 중 첫 번째 공격이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제7연대장 양중호(梁仲鎬) 대령은 지원포병에 제압 및 차단사격을 요청하면서 제2대대는 575고지-690고지를 고수하고 제1대대는 575고지 서측을 엄호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유승원(柳承源) 중령은 81mm박격포와 4.2인치 박격포를 575고지 일대에 집중시키는 한편 제5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에 575고지의 측방엄호와 증원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돌출된 부채꼴 모양의 독립고지인 575고지에 배치된 제6중대는 3개의 분초를 철수시키는 한편 각 소대를 전투 배치하였다. 양측 간에 강력한 포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오



후 7시 50분에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575고지 북사면과 동서쪽에서 돌파와 포위작전을 시도하였다. 중대는 포병대대의 포격지원 아래 네이팜지뢰를 폭파시키고 최후저지사격을 가하여 오후 11시 20분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물러났던 중공군은 오후 9시 50분에 직사포와 박격포격을 집중하면서 2번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690고지를 공격하던 일부 병력과 협공으로 진지 일부를 돌파하였으나, 중대는 포격지원과 예비대의 배후 기습으로 오후 11시에 진지를 회복하였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에 세 번째 공격을 물리친 중대는 잠시 후 피리와 나팔을 불며 포위망을 압축해오는 중공군과 네 번째로 마주하였다. 자정 무렵 중공군 일부가 진지 정

면으로 쇄도하였고, 서북 능선에서도 일부 병력이 밀어닥쳐 진지를 기습하였다. 제6중대는 복부관통상을 입은 중대장이 병사들을 독려하며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물리쳤다.

진지를 보강하며 재편성에 착수한 제6중대는 대대장으로부터 575고지 서북능선 상의 중공군을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중대는 포병지원사격을 서북능선 쪽으로 유도한 다음 반격에 나섰으나,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공방전을 펼친 후 정상 부근의 진지로 철수하였다. 4월 17일 오후 2시 40분에 제6중대와 제7중대는 진지를 인수인계하던 중 중공군의 역습을 격퇴하고 오후 7시 20분에 진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

4월 18일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장은 제5중대가 575고지 동북단 무명고지를 탈취하여 중공군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고, 연대 수색중대가 율곡 일대를 제압하는 가운데 제7중대가 575고지 동북 및 서북능선 상의 중공군을 격멸한다는 작전명령을 내렸다. 오전 5시 공격에 나선 제7중대는 소대규모의 중공군을 물리치고 무명고지 ㉮를 탈취하고 여세를 몰아 30분 후 무명고지 ㉯마저 점령하였다.

575고지 동북 능선상의 무명고지 ㉰를 공격한 제5중대는 목표고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소대규모 중공군을 2.36인치 로켓포 등으로 제압하고 오전 6시 30분에 무명고지 ㉰를 확보하였다. 중대는 정오 무렵 임의철수를 단행하여 다음날 오전에 능동에 집결함으로써 제6사단 7연대가 3일에 걸쳐 575고지 일대에서 행한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5월 22일 제7연대 진지를 인수한 제19연대는 690고지-765고지-교암산-442고지 선에 주진지를 점령하고 575고지-649고지-549고지 선에 전초진지를 확보하여 야간수색과 매복을 강화하였다. 이 무렵 575고지의 전면공격에 실패했던 중공군은 집중포격을 실시한 후 한편으론 575고지의 서북능선을 견제하면서 동북능선으로 진격하여 무명고지 ㉯와 ㉰에 전진거점을 형성하였다. 이에 제19연대장 송호림(宋虎林) 대령은 575고지 동북쪽 능선상 무명고지 ㉯와 ㉰를 탈취하도록 제3대대에 지시하였다. 제3대대장 김명익(金明益) 중령은 대대예비인 제11중대에 공격을 지시하였다.

5월 31일 공격준비사격이 약 10분 동안 실시된 후 제11중대는 무명고지 ㉯를 공격하여 견고한 화력거점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며 저항하는 중공군 1개 소대를 정면 및 측방에서의 협공과 특공조의 활약으로 물리치고 30분 만에 탈취하였다. 중대는 이어 무명고지 ㉰에 대한 공격에 나서 특공조가 중공군의 기관총을 격파하는 동안 중대 주력이 정상으로 돌진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오전 6시 5분에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오전 10시 25분에 무명고지 ㉰에서 축차적인 철수를 시작하여 606고지 부근 진지로 복귀하였다. 주간에 철수를 실시한 중대는 중공군의 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중대가 철수를 단행한 이유는 휴전회담으로 복잡한 문제가 야

기될 것을 우려한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약 2주가 지난 6월 12일 2개 소대규모의 중공군이 무명고지 ㉯와 ㉰에 전진거점을 구축하자, 사단장 백인엽(白仁燁) 준장의 명령에 따라 제19연대 3대대 10중대는 6월 14일 오전 2시에 무명고지 ㉯와 ㉰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무명고지 ㉮로 물러났던 중대는 약 1시간 후 포격지원을 받으며 3면에서 파상공격을 감행하였고 특공조가 중공군의 화력거점을 파괴하고 무명고지 ㉯를 탈환하였다. 이어 중대는 무명고지 ㉰를 공격하여 백병전을 펼친 끝에 오전 10시 20분에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5분 후 중대는 중공군의 강력한 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지 아래 계곡으로 철수하였으며, 포병의 지원 아래 고지탈환을 위한 재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무명고지 ㉯로 철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1952년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전개된 575고지 부근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 245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기관총 8정과 기관단총 5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58명이 전사하고 263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투 종료 후 국군 제6사단은 방어정면의 조정을 실시하여 좌일선의 제2연대가 교암산–봉화산 일대에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위력수색과 매복을 강화하여 적침에 대비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은 575고지 정면에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준비함과 아울러 포병을 증원하여 강력한 포격을 집중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육군본부, 『전사연구』 제9집

【손규석 집필】

662고지 전투

[662高地 戰鬪, 1952.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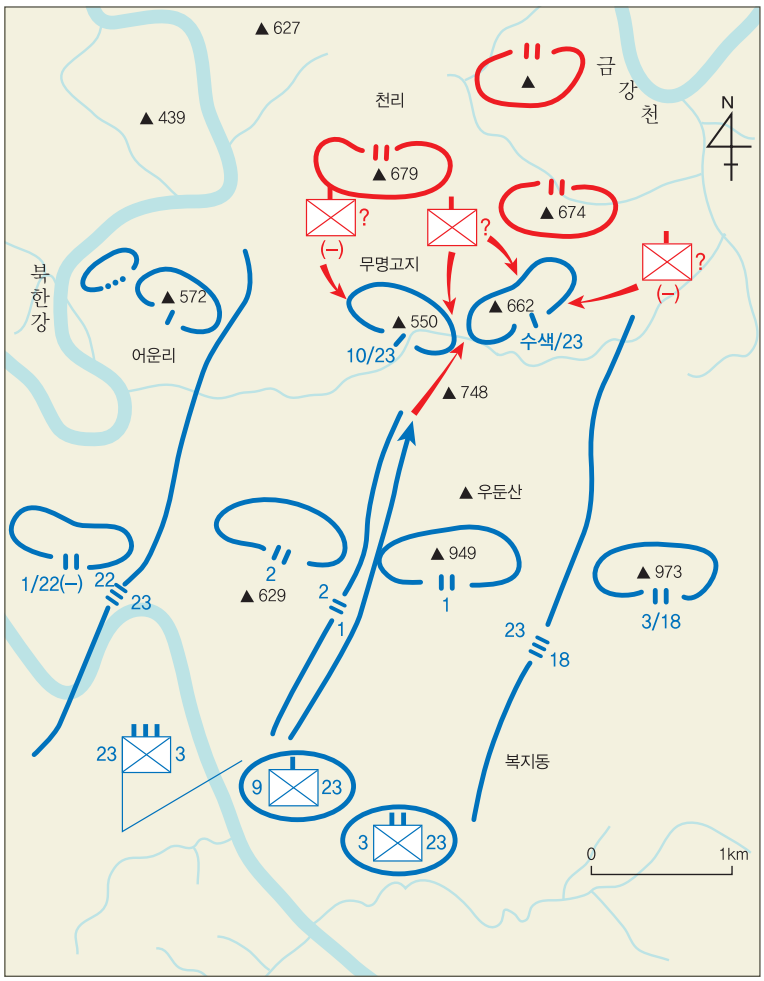
개요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1952년 2월 15일에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의 662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8군 203사단 및 제12군 35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에 위치한 작전지역은 좌측에 만곡부를 이루며 남북으로 흐르는 북한강 상류가, 우측에 송정을 지나 금강천과 합류하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양 하천 사이에는 최고봉인 우두산(△949)을 비롯한 748고지-662고지-679고지가 종적으로 연봉을 이루며 천리계곡과 이어져 있어 기동이 매우 제한되는 지역이었다.

1952년 2월 국군 제3사단장 백남권(白南權) 준장은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M. Hoge) 중장으로부터 "적을 진전으로 유인하여 타격을 주고 포로를 획득"하는 '유인작전(Operation Clam Up)'계획을 접수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3사단은 1월 12일부로 제6사



단의 전선을 인수하여 군단의 우익으로 개리선(Gary Line) 상에 주진지를 확보하고 위력수색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군장, 曾紹山) 제35사단 예하의 104연대와 제68군(군장, 邱蔚) 제203사단의 제607연대 및 제609연대가 좌패리-북한강 돌출부-679고지-674고지-송정-암리를 잇는 선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병력은 약 6,000명으로 판단되었고, 다수의 박격포와 직사포 그리고 야포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제3사단은 방어정면 우측 석장리-949고지 동쪽능선에 제18연대를, 좌측 548고지-용호동-좌수동 선에는 제22연대를 그리고 중앙에는 제23연대를 배치하였다. 이 중 중앙을 담당한 제23연대장 이관식(李寬植) 대령은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좌우로 하여 949고지-739고지 선에 배치하였다. 연대예비인 제3대대 중 2개 중대는 중공군의 방어선에 가장 가까운 949고지 북쪽 2.5km 지점의 662고지-748고지 서북능선에 전진진지를 편성하여 679고지-674고지 일대에 있는 중공군 제609연대를 견제하고 천리 계곡을 감제하게 하였다.

제23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에 주진지를 확보하고 침투하는 중공군을 포획토록 하는 한편 제3대대에는 중공군을 진지 전방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0일 오전 4시경 전초진지인 662고지-무명고지를 방어하던 제9중대는 완전 철수를 가장하면서 연대 수색중대 및 제10중대에 진지를 인계하였다.

진지를 인수한 양 중대는 철저한 침묵과 위장으로 중공군 정찰대를 유인하였으나 별다른 작전성과를 가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2월 15일 오전 1시 50분 소대규모의 중공군이 수색중대 제2소대 정면으로 접근해왔다. 이들을 가깝게 유인한 소대는 지뢰를 폭파하면서 집중사격을 실시하였고, 이에 당황한 중공군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분산 도주하였다. 포로를 획득하기 위해 추격을 시작한 소대는 고지 곳곳에 우회 침투해 있던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추격을 중단하였다.

오전 2시 5분 중대를 포위한 중공군이 집중사격을 개시하였으나, 조급한 사격으로 진지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중대장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중대원들은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10분이 지날 무렵 중공군이 3백발의 박격포와 직사포탄을 중대에 집중시켜중대는 진지가 파괴되거나 노출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틈을 타 침투한 중공군은 중대 좌측과 중앙 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2개 소대규모가 우측 수색중대 제2소대를 공격하였다.

오전 3시 25분 3면에서 협공을 받은 중대는 집중사격과 수류탄 투척, 백병전을 펼치며 대응하는 가운데 제2소대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소대장 서홍선(徐洪善) 소

위는 전사한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를 대신하여 사격을 실시하던 중 중공군의 수류탄 공격으로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호의 일부가 무너진 소대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으로 중공군의 진내 진입을 저지하던 중 우측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부득이 철수를 시작하였다.

중공군 제607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중대 서측방을 차단하고, 주력으로 동쪽을 공격하였다. 오전 5시 30분 중대는 사방에서 둘러싼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한 후 제10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748고지 일대로 철수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중공군 정찰대를 유인하여 포로를 획득하려 한 이번 작전은 중공군의 예상 밖의 강공으로 실패한 채 662고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한편 662고지 서남쪽의 무명고지에 전초진지를 편성한 제10중대는 오전 1시 50분 중공군 1개 분대가 접근한데 이어 2개 소대로부터 정면공격을 받았다. 중대는 이들을 진지 50M 앞까지 유인한 후 지뢰를 폭발시키고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후에 재개한 공격마저도 실패하자, 중대를 3면에서 포위하고 산발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

중공군의 이러한 시도는 제10중대에 대한 포위 견제로 수색중대를 고립시킨 후 주력을 집중시켜 662고지를 탈취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은 예비인 제2소대에 우측으로 침투한 중공군을 역습하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에 따라 소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오히려 3면에서 쏘아대는 중공군의 총격으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662고지에 고립된 수색중대는 오전 5시 30분경 제10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서남쪽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수색중대의 662고지 피탈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고지를 탈환하라고 제3대대에 명령하였다. 대대 공격을 담당한 제9중대는 'Clam Up'작전이 종료되는 오후 2시를 기해 단행된 포병사격의 연신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부 병력이 동쪽으로 우회하는 동안 주력은 무명고지 동북능선을 따라 662고지를 공격하였다.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2개 소대규모의 중공군은 57mm 직사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며 저항하였으나, 제11포병대대의 포격에 지원화력이 제압되고 증원마저 차단되었다. 이를 포착한 제9중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오후 5시 5분에 662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날 저녁 중대는 중공군의 역습을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중공군 34명을 사살하고 2명의 포로를 획득하였으며, 다발총 4정과 수류탄 48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28명이 전사하고 8

명이 실종되었으며, 34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3사단 23연대는 이 전투에서 피탈된 662고지를 탈환한 후 662고지와 748고지 북쪽의 무명고지에 이르는 선에 전진진지를 계속 확보하여 천리계곡에 대한 감제가 가능하였고, 이 일대에서 위력수색 및 매복, 기습전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을 진전으로 유인하여 포로를 획득한다는 'Clam Up'작전의 목적 달성은 거의 이루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7 (19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육군본부, 『전사연구』

【손규석 집필】

불모고지 전투

[不毛高地 戰鬪, 1952. 6. 6.~8. 1.]

개요

미 제45사단과 제2사단이 1952년 6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연천 북방 266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38군 제113사단, 제39군 제115 · 제116 · 제117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 쟁탈전이다.

전개과정

불모고지는 연천 서북방 역곡천 남안에 동서로 뻗은 야산 동단의 표고 266m 최고봉으로서 주변에 포크찹(Porkchop)고지, 티본(T-Bone)고지와 같은 200m 내외 고지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동쪽은 철원평야, 남쪽은 연천, 서남쪽은 임진강 방어지역으로 통하는 접근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불모고지는 서쪽, 남쪽, 북쪽의 삼면을 모두 감제관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접근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양측 간 공방의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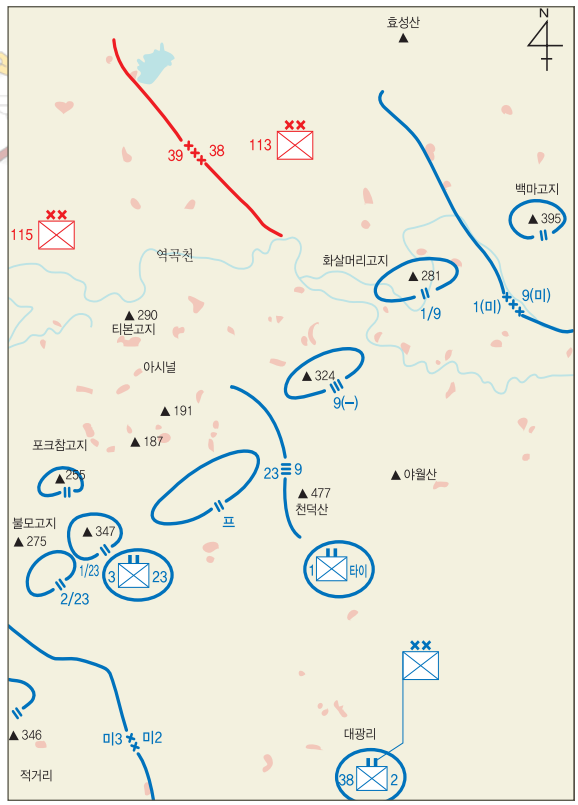
1952년 6월 6일 미 제45사단장 러프너(David L. Ruffner) 소장은 "주진지 앞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점하고 있는 적의 거점을 공격하여 아군의 전진진지를 강화한다."라는 제8군의 방침에 따라 사단 전면 11개 요충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카운터 작전(Operation Counter)'에 착수하였다. 2단계로 계획된 이 작전은 백마고지와 불모고지 등과 같이 관측과 야간기습에 유리하면서 사단 주진지에 근접해있는 11개의 고지를 예하의 제180연

대와 제279연대가 공격하여 점령하는 것이었다.

6월 6일 오후 8시 제180연대와 제279연대는 분대~중대규모의 공격대를 투입하여 9개의 고지를 거의 저항 없이 점령하였다. 그러나 포크찹 고지를 공격한 제180연대 I중대는 1시간의 사격전 끝에 점령하였고, 불모고지를 공격한 A중대는 한 차례 실패 끝에 자정을 앞둔 시점에서야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제1단계 작전에서 목표로 한 11개 고지를 모두 점령하고 진지편성에 들어갔다. 이후 사단은 진지편성을 완료하고 중공군의 역습을 격퇴하고 6월 11일 제1단계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날 사단장은 전진진지를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6월 12일부로 제2단계 작전 개시를 명령하였다. 작전을 담당한 제180연대장 리치(Ellis B. Ritchie) 중령은 목표인 이리(Eerie)고지의 공격을 제2대대에, 또 다른 목표인 복개 일대 중공군 시설에 대한 파괴는 제3대대에 부여하였다. 이들은 오전 6시를 기해 공격에 나서 중공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목표를 점령한 후 반격마저 격퇴하였다.

이처럼 중공군의 역습을 방어하던 6월 14일 연대는 191고지 일대 전진진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지교대를 실시하였다. 오후 5시에 191고지와 206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중공군의 가벼운 저항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물러났던 중공군은 다음날인 6월 15일 밤 9시 15분에 약 5천발의 포탄을 고지 일대에 집중시킨 후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오전에 제180연대 3대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했던 제179연대 3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2개 소대를 증원받아 다음날 새벽 4시 15분까지 6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중공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오후 6시를 기

해 제180연대와 진지를 교대함으로써 사단의 우일선부대가 된 제179연대는 필리핀 제19대대전투단을 우측에, 제2대대를 중앙에, 제1대대를 좌측에 배치하여 이리 고지와 포크찹 고지, 불모고지 등의 전진진지를 확보하였다.

카운터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191고지, 이리고지, 포크찹고지, 불모고지 일대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매일 반복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179연대는 6월 26일에 불모고지 서쪽 1km의 중공군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단행하였다. 미 공군과 사단포병의 지원을 받은 연대는 2개 중대로 공격을 시작한 후 1개 중대를 증원하여 세 방향에서 공격을 가하고, 여기에 전차까지 가세하여 오후 6시 45분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다음날 밤 10시경 대대규모 중공군이 불모고지 일대를 새로 인수한 제179연대 L중대를 공격하였다. L중대는 이들을 맞아 각종화기를 집중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는 격전을 펼쳐 밤 11시 45분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실시한 2차례 추가공격에 실패한 중공군은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여 6월 28일 밤 10시 30분에 2개 대대규모로 공격을 가해왔다. 4천여 발의 포탄을 집중하며 진지까지 접근한 중공군을 맞아 중대는 백병전을 실시하는 한편 연대의 사격지원을 받아 자정이 다소 지난 0시 45분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연대 전진진지에 대해 공격을 중단했던 중공군은 미 제45사단이 미 제2사단과 임무를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 7월 17일 밤 10시에 불모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79연대의 진지를 인수한 제23연대 F중대는 대대규모의 중공군을 맞아 밤새도록 격전을 벌였다. 이때 증원 병력인 제23연대 E중대가 고지에 진출했을 때 산정은 이미 중공군 일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대는 F중대와 함께 역습을 강행하여 중공군을 격퇴하고 7월 18일 새벽 3시 45분에 고지를 완전 탈환하였다. 새벽녘에 한 차례의 역습을 격퇴한 중대는 날이 밝은 후 전개된 전투에서 고지를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

7월 18일 오전 10시부로 진지교대를 완료한 제23연대는 오후에 불모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을 공격하였다. 전차의 지원을 받는 제3대대 K중대는 E 및 F중대와 합세하여 반격을 개시하였으나, 중공군의 집중 포격으로 실패하였다. 연대는 이날 야간에도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재반격을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불모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매일 공격을 실시했던 제23연대는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과 장마로 인한 보급 제한으로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히려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중공군은 연대의 전진진지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프랑스대대가 티본고지 일대에서 3시간의 격전 끝에 중공군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불모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진지교대를 실시한 후 제1대대를 공격부대로 반격을 실시하

는 '리틀 조(Little Joe)' 작전을 단행하였다. 7월 31일 오전 10시 마침내 비가 그치자 제1대대 A 및 C중대는 고지를 향해 진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다음날인 8월 1일 새벽 4시 25분에 고지정상에 이르러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을 펼친 끝에 오전 9시 10분 불모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및 영향

불모고지 전투에서 미 제45사단과 제2사단은 중공군 1,316명을 사살하고 10명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43명이 전사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406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미군과 중공군은 백병전까지 벌이는 격전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화력전을 전개하여 양측 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 결과, 중공군은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미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10 (2012)
HQS, UNC, G-3, Operation Report, Jun.-Aug. 1952
HQS, EUSAK, Command Report, Jun.-Aug. 1952

【손규석 집필】

A고지 및 B고지 전투

[A高地-B高地 戰鬪, 1952. 6. 11.~19.]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2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중부전선 금성천 부근 A고지 및 B고지에서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과 실시한 고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국군 제2군단의 좌측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6사단은 휴전회담이 포로교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격을 제한한 채 주저항선 북쪽 2km 지점에 전초진지를 확보하고 위력수색과 야간잠복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때 사단은 금성 동남쪽 765고지-교암산-계암-사천리-봉화산을 잇는 미주리선(Missouri Line) 상에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있었고, 주

저항선 좌우에는 제2연대와 제7연대를 배치하였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과 제35사단의 병력 약 6,000명이 제32포병사단과 전차 10대의 지원을 받으며 배치되어 있었다. 국군 제2연대 정면에는 금성 방어에 중점을 둔 중공군 제31사단 91연대가 상유리-533고지-옥녀봉-562고지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금성-373고지-B고지-A고지-고직목리-경파리를 연한 일대에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제35사단 103연대도 장연리-573고지-672고지-495고지 일대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율사리 일대에 전초진지를 구축해 국군 제19연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한편 1952년 5월 22일 제7연대로부터 사단의 우측 전선을 인수한 제19연대는 정면의 중공군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교암산 동북쪽 약 2km의 전초진지인 575고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공군과 격전을 계속하였다. 6월로 접어들며 중공군 제31사단 91연대는 전초진지인 A고지와 B고지를 거점으로 전차의 지원 아래 국군 제2연대의 전초진지를 공격해 금성에 대한 위협요소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사단장 백인엽(白仁燁) 준장은 중공군의 도발 거점인 A고지와 B고지를 선제공격으로 탈취하면 중공군의 공격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금성을 비롯한 동남쪽 무명고지군과 개활지, 고직목리-오리동 일대의 감제가 가능해 향후 작전을 유리하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중장의 승인을 획득한 사단장은 6월 3일 A고지와 B고지에 대한 제한공격을 제2연대장 송대후(宋大厚) 대령에게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6월 12일 새벽 4시를 기해 목표 고지를 공격하는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 이 작전명령에는 제2대대 일부 병력이 중공군의 거점인 373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제1대대 일부 및 연대 수색중대가 A고지와 B고지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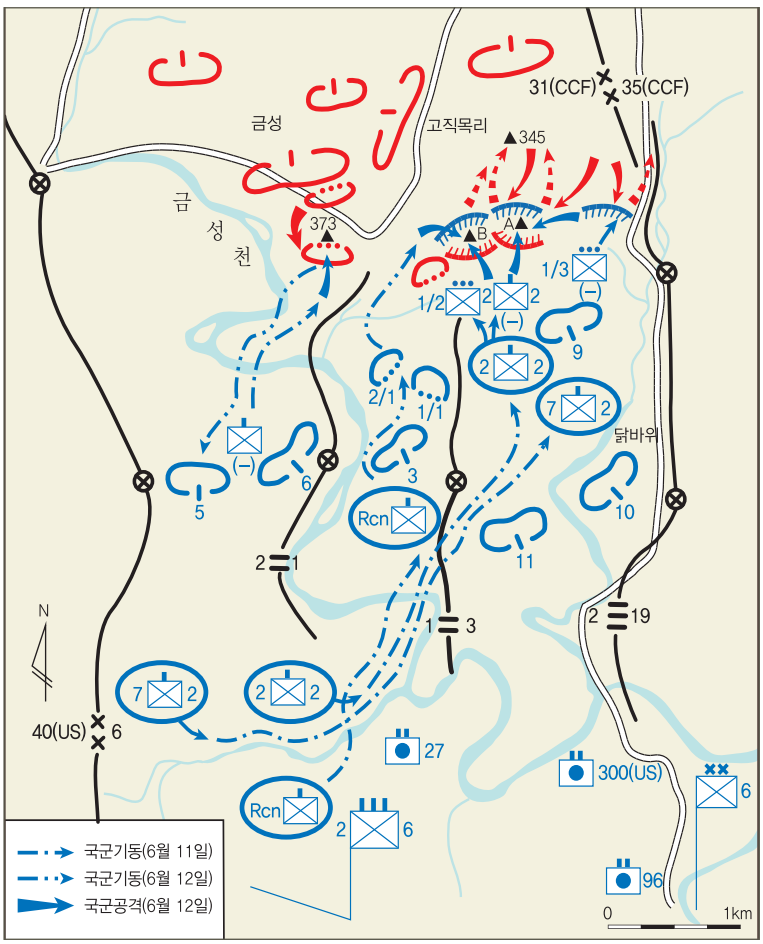
6월 12일 새벽 중공군을 기만하기 위한 373고지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이 30분간 집중된데 이어 04시를 기해 주공인 제1대대 2중대는 A고지로, 금성 동남쪽으로 우회한 연대 수색중대는 B고지를 향해 은밀하게 전진하였다. 이때 제2대대 2개 소대로 편성된 혼성중대가 373고지를 공격함으로써 연대의 양공작전이 개시되었다.

A고지 정상을 향해 진격하던 제2중대는 국군의 기만작전을 비로소 눈치 챈 중공군이 373고지로 집중했던 포격을 전환하여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중대는 포병대대와 미 전차소대의 직접지원을 받으며 고지 7부 능선까지 접근하였으나, 암벽에 구축한 화력거점에서 쏘아대는 기관총의 교차사격과 수류탄 투척 등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사격전만 실시하였다.

이때 B고지 서남쪽으로 우회한 연대 수색중대가 측방공격을 실시하고, 제7중대 1개 소

대가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였다. 정면과 서측방으로부터 협공을 받은 중공군은 고지를 버리고 345고지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로써 연대는 오전 9시 5분 B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전초진지 OP에서 작전을 지도하던 연대장은 제2중대의 A고지 공격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공중지원과 함께 포병대대에 포격을 요청하면서 제9중대의 2개 분대를 특공대로 투입하였다. 미 공군의 공중폭격과 포병의 지원포격이 A고지에 집중하는 동안 공격을 재개한 제2중대는 중공군의 진지 한편에 도달하여 백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동북쪽으로 우회한 특공대가 적진으로 돌진해 수류탄과 화염방사기 공격을 감행하자, 제2중대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정오가 막 지난 12시 25분에 A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373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혼성중대는 새벽 4시를 기해 목표고지 남쪽 능선과 서남쪽 능선으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의 양공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대는 선제사격을 가하면서 돌진하였고, 중공군의 야포와 박격포격이 중대에 집중되어 더 이상의 진격을 중단한 채 고지 6부 능선에서 사격전만을 펼치게 되었다. 이후 중대는 중공군의 포격이 A고지-B고지 정면으로 전환된 틈을 타 공격을 감행하는 등 수 차례 파상공격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실패하고 제2대대장 김두일(金斗逸) 소령의 명령에 따라 고지 남쪽 계곡으로 후퇴하였다.

이날의 공격에서 목표로 했던 A고지와 B고지를 점령한 제2연대는 이곳에 전초진지를 설치하였다. 반면에 이들 고지를 상실함으로써 작전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중공군은 3일에 걸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러던 중 제2연대장은 A고지와 B고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연대 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해 제3대대가 A고지를, 제1대대가 B고지를 담당토록 하고 제2중대와 제7중대를 연대 예비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양병환(梁炳煥) 중령은 A고지에 제9중대를, 제1대대장 이건영(李建榮) 소령은 제1중대를 B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6월 18일 오후 7시 50분 중공군 제91연대는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야포와 박격포격을 A고지-B고지-결사봉 일대에 집중시킨 후 2개 중대가 전차포와 기관총의 지원을 받으며 A고지-B고지 정면으로 쇄도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에 제7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A고지를, 제1대대에 제2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B고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중공군은 주공을 A고지에 지향하고 일부 병력을 364고지 부근으로 침투시켜 A고지 측방을 위협하고 증원을 차단하면서 돌파와 포위를 시도하였으나, 미 자주포병대대와 국군 포병대대의 포격, 중대의 수류탄전과 백병전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재공격을 감행한 끝에 A고지 정상 북반부를 점령한 후 남반부 제9중대와 사격전을 실시하였다.

A고지 정상에서의 이러한 격전은 다음날인 6월 19일까지도 계속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A고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제1대대 1중대와 사단으로부터 긴급 지원된 제7연대 제1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공군은 새벽 4시 20분 A고지 정상의 남반부에 포격을 집중한 다음 2개 소대가 남반부의 제9중대를 공격하였다. 중대는 기관총 집중사격과 수류탄 투척 그리고 백병전을 감행하여 이를 격퇴한 후 오전 7시 50분에는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북반부의 중공군을 향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수류탄을 투척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과 백병전을 펼치는 격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고지정상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한편 A고지에 대한 중공군 공격이 개시될 무렵, B고지-결사봉 일대에 전초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1대대 1중대도 2개 소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B고지 서북 및 북쪽 능선을 타고 접근하였으나, 포병의 포격지원에 이은 중대의 백병전에 의해 격퇴되었다.

6월 19일 새벽 3시 45분에 B고지로 진출해 제1중대의 작전임무를 인수한 제1대대 3중대는 얼마 후인 4시 20분에 중공군의 A고지 공격과 동시에 1개 소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중대는 60mm박격포 사격을 집중하고 최후저지사격을 감행하여 새벽 5시 30분에 이들을 격퇴하고 고지를 고수하였다. 이로써 제2연대는 금성 일대에서의 작전수행에 중요한 지형인 A고지와 B고지를 탈취하고 이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 2연대는 중공군 157명 사살 및 139명 살상(추정) 그리고 8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박격포 2문과 기관총 2정, 소총 63정과 수류탄 2천 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연대는 47명이 전사하고 159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이번 전투에서 금성방어의 최후 요충인 A고지와 B고지를 탈취함으로써 금성-고직목리-경파리-오리동 일대와 금성 동쪽의 개활지 일대에 대한 완전 통제가 가능하였으며, 탄감리-용암리-경파리-금성간 도로 및 탄감리-오리동-중화평 간 작전도로가 사단의 감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전투

[首都高地-地形稜線 戰鬪, 1952. 7. 7.~10. 14.]

개요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동부전선인 강원도 금성군 원덕면 및 임남면에 위치한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일대에서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 및 제35사단과 벌인 고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1952년 6월에 접어들며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은 휴전협상기간을 이용해 전투력을 대폭 증강시킨 공산군의 상황파악을 위해 국군 제2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중장에게 일명, '백쇼트(Back Shot)'작전의 실시를 명령하였다. 이는 1개 대대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부대 운용으로 적정을 탐지하고 전초진지를 공격하는 제한목표공격이었다.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도 그와 연계되어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공방전이 실시되었다.

작전지역은 강원도 금성군 원덕면과 임남면 일대 해발 500~700m 고지들이 연결된 산악지역으로, 용학산과 교암산 등 주변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들과 동쪽의 북한강 및 남쪽의 금성천이 이 지역을 관통해 흐르고 있다. 지역 내 주요 요충인 수도고지는 중공군의 접근로 통제와 일대의 계곡에 대한 관측이 용이하고, 주저항선 1km 전방의 손가락모양인 지형능선은 사단의 측면위협 제거와 보급로 유지에 필요하므로 사단이 확보해야 하는 중요 지형이었다.

수도사단은 1953년 6월 16일에 단행된 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에 따라 군단 중앙의 교암산 동쪽-765고지-690고지-663고지-어운리 선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575고지와 지형능선 및 수도고지 등에 전초를 운용하고 있었다. 사단은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전선의 좌우측에 각각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며, 5개 포병대대와 미 공군의 항공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군장, 曾紹山) 예하의 제35사단이 배치되어 총 7개 포병연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야전경험이 풍부하고 산악유격전에 능숙한 것으로 평가된 이들은 예하의 제103연대와 제104연대를 좌 · 우측에, 제105연대를 중앙에 두고 573고지-495고지-594고지-747고지-748고지-472고지를 연결하는 선에 주방어선을 편성하는 한편 대부분의 진지를 동굴화하고 있었다.

1953년 7월 8일 새벽 1시, 수도사단 제1연대 3대대와 제26연대 2대대는 앞서 하달된 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의 작전명령에 따라 지형능선과 621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연대장 박춘식(朴春植) 대령은 목표인 지형능선 A, B, C고지가 공격에 매우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 지형에서 예행연습까지 실시하였다. 공격을 담당한 제3대대장 박찬긍(朴贊兢) 중령은 제9중대가 목표고지를 축차공격하면 제11중대는 이를 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지형능선상의 A고지를 공격한 제9중대는 A고지에 이어 B고지까지 탈취한 후 제11중대의 지원 아래 새벽 2시 20분경 최종목표인 C고지를 점령하였으

나, 잠시 후 중공군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B고지로 철수하였다. C고지를 되찾은 중공군은 이날 오후 9시경 포탄 2,000여 발을 A고지와 B고지에 집중시키고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제9중대와 교체되어 A고지와 B고지를 방어하던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백병전까지 펼쳤으나, 끝내 양 고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새벽 3시에 실시한 A고지 역습마저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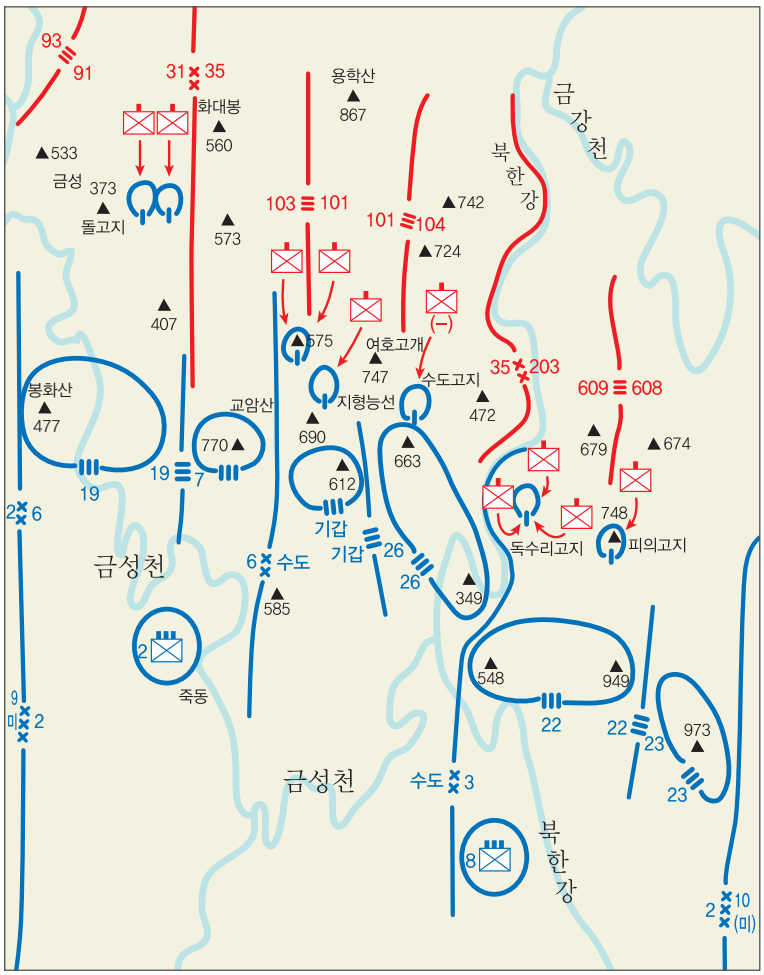
제1연대 공격에 맞춰 제26연대 2대대도 주저항선 전방의 중공군 전초인 621고지를 공격해 일시 고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곧 이은 중공군 반격에 고지를 내어주고 전열을 정비해 실시한 재공격마저 실패한 후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다음날 새벽 4시 20분에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이 실시한 '백쇼트작전'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7월 9일 신임 사단장 이용문(李龍文) 준장이 부임하면서 사단은 지형능선 공격에서 전투력이 약화된 제1연대 임무를 제1기갑연대에 인계하는 등 주저항선을 정비하였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8월 5일 중공군은 제26연대 11중대가 방어하던 전초고지인 수도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오후 8시, 연대 주저항선 일대에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고 진지 앞에 매설된 네이팜탄과 지뢰를 폭파시켜 공격로를 개척하면서 진지로 접근하였다.

약 30분이 경과한 후 중대규모 중공군이 제11중대의 수도고지를, 일부 병력이 제6중대 전초인 'ㅁ고지'를 공격하였다. 중대는 진지 전방에서 중공군을 두 번이나 격퇴시켰으나, 그들의 치열한 포격으로 인해 663고지로 철수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전종욱(田宗郁) 대위는 예비인 제10중대로 역습을 펼쳐 8월 6일 오전 6시경 수도고지를 탈환하였으며, 이후 8일까지 고지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계속하였다. 중공군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8월 10일 수도고지 공격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사단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수도고지를 놓고 3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격전을 펼친 끝에 제1연대 2대대가 고지를 확보하여 제2차전인 수도고지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1952년 9월 포로송환문제로 휴전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하자 유엔군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북한 내 주요 동력시설을 폭격하였고, 공산군은 국군의 방어지역 만을 골라 국지적인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장차 공세작전의 발판이 될 전초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는 제3차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9월 6일 오후 6시 50분, 공격준비사격을 완료한 중공군은 1개 대대로 좌우측 계곡으로부터 수도고지를 공격하였다. 제26연대 5중대는 이들의 접근을 저지하며 맞서던 중 치열한 포격과 병력의 열세로 고지를 내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1소대장 홍창원(洪



昌源) 소위를 비롯한 소대원 전원이 전사하였다. 연대장 명령에 따라 오후 8시 50분에 제2대대 10중대는 역습을 감행하였다. 총 3차에 걸쳐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제10중대의 역습은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고, 제3대대가 이날 오전까지 실시한 세 차례 역습까지도 실패하였다.

여섯 차례에 걸친 탈환전이 무위로 끝나자 연대장은 제1연대 1대대장 함용익(咸溶翼) 중령에게 수도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공격 직전에 대대장이 중공군의 포격으로 부상을 당해 제26연대 3대대장이 대대를 임시 지휘하였다. 9월 7일 오후 3시 30분부로 역습을 감행한 제1대대는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공격을 계속하였지만 고지탈환에

는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제1연대 1대대는 고지탈환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사단예비인 제1연대 2대대를 제26연대에 배속하고 9월 9일 오후 8시를 기해 수도고지의 공격재개를 명령하였다. 연대장 정진(鄭震) 대령은 그동안의 전투상황을 분석한 후 수도고지에 집중된 중공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3대대 일부 병력으로 621고지를 공격하기로 작정하였다. 정해진 시각에 공격을 개시한 제1연대 2대대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군단포병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감행한 끝에 오후 11시 20분경 목표탈환에 성공하고 이어진 중공군의 반격마저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하였다.

한편 제1기갑연대의 지형능선 상에서는 9월 6일 오후 6시 40분부터 전투가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제5중대가 배치된 지형능선과 제6중대의 575고지에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각각 중대병력으로 공격을 가해 전초를 점령하였다. 9월 6일 오후 9시 30분 제5중대 역습을 시작으로 연대가 6차에 걸쳐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사단장은 9월 8일 오후 6시부로 역습중단을 명령하였다.

제26연대의 수도고지 탈환 후 제1기갑연대는 사단장 지시로 9월 10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지형능선에 대한 공격에 나서 다음날 새벽까지 전투를 이어갔으나, 고지탈취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연대에 지형능선의 F고지 탈취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4일 새벽에 실시한 제1연대 3대대의 공격이 많은 사상자만 낸 채 고지탈취에 실패하자, 사단장은 제1연대 3대대와 제1기갑연대 1대대로 9월 18일 새벽 3시를 기해 공격을 감행한 끝에 오전 8시경 지형능선의 F고지와 H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2주에 걸친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서의 제3차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종료하였다.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전선은 겨울이 오기 전에 작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중공군이 9월 28일 야간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불이 붙었다. 중공군은 개전 이래 최대인 4만 7천여 발의 포탄을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에 집중하고 꽹과리와 피리소리를 울리며 공격을 가해왔다. 제26연대와 제1기갑연대 장병들은 다음날인 9월 29일까지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까지 펼치면서 중공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유지하였다.

9월말의 제4차전에서 참패했던 중공군은 10월 6일 수도사단 주저항선 전방의 575고지-지형능선-수도고지-277고지 등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계속된 공격에도 목표고지를 탈취하지 못하자 이들 고지에 대한 동시공격 대신 575고지와 지형능선에 전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은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0월 8일 수도사단의 전투경과를 검토한 제2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중장은 4개월간의

공방전을 수행하면서 약화된 수도사단의 전투력으론 575고지와 지형능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575고지 탈환임무를 제6사단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지형능선 탈환과 수도고지 방어에만 주력하게 된 사단은 10월 13일 제1연대 1대대가 지형능선을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10월 25일 수도사단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제8사단에 인계함으로써 약 4개월간 이어져온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전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수도사단은 중공군 2,286명(추정사살 3,083명 제외)을 사살하고 4명의 포로를 획득하였으며, 각종 기관총 19정과 다발총 68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전사 971명, 부상 3,120명, 실종 167명의 인명피해와 60mm 박격포 1문과 3.5인치 로켓포 4문, 자동소총 92정 등의 장비손실이 발생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은 1952년 7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비록 575고지는 상실하였지만, 수도고지를 고수 확보하여 주저항선 정면의 중공군 접근로에 대한 통제와 관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형능선의 확보를 통해 사단의 측방위협을 제거하고 보급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수도고지 · 지형능선전투』 (1989)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2010)

【손규석 집필】

351고지 전투

[351高地 戰鬪, 1952. 7. 10.~11. 10.]

개요

국군 제5사단이 1952년 7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동부전선 고성 북방의 351고지 일대에서 북한군 제6군단 예하 제9사단과 실시한 고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저지하고 유엔군과 함께 북진을 단행한 국군은 1951년 10월 중순부터 1953년 휴전 직전까지 고성 북방 월비산과 351고지 일대에서 북한군과 7차에 걸

쳐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실시하였다.

월비산과 351고지를 아우르는 작전지역은 서쪽 내륙방면이 표고 700~1,000m의 험준한 산악지대인데 반해, 동쪽 동해안은 표고 300~500m의 야산지대와 개활지가 동해안으로 이어져 있으며, 금강산에서 발원해 고성 부근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남강이 흐르고 있다. 도로망은 고성-통천-원산간 도로가 동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었으나, 내륙은 산간소로만이 산재해 있었다.

고지 형태가 닻처럼 생겼다 하여 '앵커힐(Anchor Hill)'이라 불린 351고지는 월비산에서 연결된 능선에 위치해 남동쪽으로는 208고지, 북동쪽으로는 148고지-187고지, 남쪽으로는 339고지-345고지-263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 고지는 동해안과 접한 저지대의 감제관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비산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인 요충이었다.

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군단장, 李亨根 중장)은 27km에 달하는 군단 정면을 제11사단만으로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 군단에 편입된 제5사단을 전선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제5사단은 군단 우측인 554고지-감호에 이르는 정면 방어를 담당하였다. 사단장 장창국(張昌國) 준장은 1952년 7월 초 제36연대와 제35연대를 방어정면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배치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351고지를 관할하게 된 제35연대장 고백규(高白圭) 대령은 주저항선에 제2대대를 배치하면서 우측의 감호-351고지 간에 제1대대를 그리고 좌측의 351고지-339고지-263고지에는 제3대대를 투입해 전초진지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연대는 사단 및 군단 포병대대와 박격포중대 1개 소대 및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상의 미 극동함대 함포 및 미 제5공군의 항공지원도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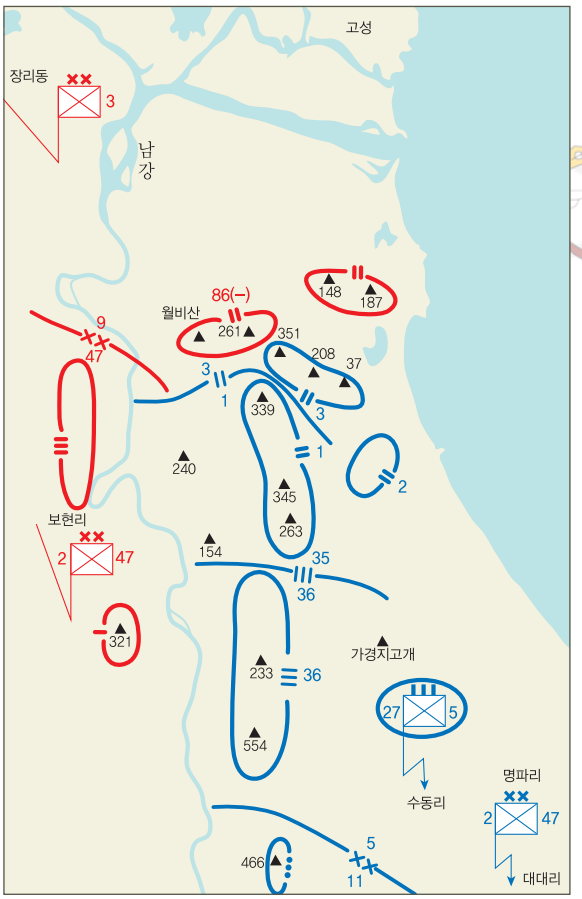
이 무렵 사단 전면에는 북한군 제6군단(군단장, 崔勇鎭 중장) 예하 제9사단(사단장, 朴成哲 소장)과 제45사단(사단장, 池炳學 소장)이 1개 연대씩을 배치, 제9사단 86연대가 국군 제35연대와, 제45사단 2연대가 국군 제36연대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 수색정찰활동과 보급품 수송을 점차 증가시키며 공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7월 10일 밤 10시, 북한군 제9사단 86연대는 2천 여발의 포탄을 351고지에 집중시킨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정찰대와 공병대가 351고지 전방에 매설된 지뢰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찰활동을 실시한 북한군은 대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3대대 9중대를 동북과 서북 양쪽 방면에서 공격하였다. 중대는 인접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끝내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7월 11일 새벽 1시에 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였다. 약 30분이 지난 후 중대는 일부 지원 병력과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고지탈환에 실패하고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오전 8시를 기해 제35연대장에게 사단 수색중대와 제27연대 제2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351고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오후 2시 15분, 동서 양쪽으로 우회하여 능선을 따라 고지로 향한 제3대대는 북한군의 보강된 측방화력과 자동화기의 집중적인 사격으로 역습에 실패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연대장은 희생이 큰 주간공격 대신 야간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밤 9시 30분 함포와 각종 포격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격에 나선 제3대대는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번에도 북한군의 측방화력으로 인해 고지탈환에 실패하고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대대는 다음날 새벽 4시에도 공격을 재개하여 일부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끝내 주봉 탈환에는 실패한 채 철수하였다.



한편 제35연대가 이틀 동안 5차례 반격을 실시하였음에도 고지탈환에 실패하자, 사단장은 7월 12일 11시를 기해 제27연대에 351고지의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27연대장 오창근(吳昌根) 대령은 제35연대에 배속된 제2대대를 원대 복귀시켜 공격부대로 편성하였다. 오후 4시 30분 대대는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는 가운데 공격에 나섰으나, 북한군의 자동화기 사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격이 중단되었다.

다음날인 7월 13일 새벽 4시 20분에 공격을 재개한 제27연대 2대대는 엄호부대의 화력지원 아래 3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으나 고지탈환에는 실패하였다. 제27연대는 20여 시간에 걸쳐 8차례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채 인명손실만 가중되었다.

이를 고려한 사단장은 이날 오후 1시부로 현재 투입된 제27연대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고지를 탈환하도록 제35연대에 명령하였다. 고지를 빼앗긴 책임을 통감하고 있던 제35연대장은 제2대대를 공격부대로 편성하고 오후 8시 30분을 공격개시 시간으로 결정하였다. 공격에 앞선 오후 8시 연대는 트럭 10대를 동원하여 고지 하단으로 들어올 때는 불을 켜고 나갈 때는 불을 끄게 하여 대병력을 투입하는 것처럼 북한군을 기만하였다.

오후 8시 30분에 접어들자 제2대대는 제5중대와 제7중대를 각각 동서로 투입하여 양공을 개시하였다. 제5중대가 지형상 불리함을 극복하며 고지를 향해 돌진하자, 사단의 지원포와 함포에 의해 진지가 파괴된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밤 11시 30분 351고지의 동쪽 진지를 점령하고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였고, 서쪽 능선을 따라 공격한 제7중대도 이에 합세하여 자정 무렵 351고지 주봉을 완전 탈환하였다. 이후 제2대대는 북한군의 역습을 몇 차례 격퇴하였고, 이에 북한군이 역습을 포기하고 오전 11시 45분에 월비산 방면으로 이동함으로써 351고지 탈환작전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사단은 김종갑(金鍾甲) 준장이 사단장으로, 최영규(崔英圭) 대령이 제27연대장으로 부임하였고, 사단 우측을 담당한 제27연대는 전초진지 경계와 화력지원태세를 갖추고 전투정찰을 강화하였다. 반면에 351고지 확보에 실패한 북한군 제9사단은 공격준비를 완료한 제85연대를 투입해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11월 9일 밤 9시 50분, 북한군은 제27연대 3대대가 배치된 351고지를 비롯한 339고지-208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공격을 감행하였다. 351고지에 배치된 제9중대는 대대규모의 북한군에게 고지를 빼앗긴 채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고, 이후 지원 병력과 합세하여 역습을 가했으나 이도 실패하였다.

이런 전황을 지켜보던 사단장의 조치로 제36연대 2대대를 배속받은 제27연대장은 이들을 주저항선에 배치하는 한편 주저항선의 제27연대 2대대를 공격부대로 편성하였다. 11월 10일 오전 7시 10분 제2대대는 함포와 지원포격이 351고지에 집중되는 동안 공격을 단행하였다. 제6중대와 제7중대는 고지를 향해 돌진하여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피탈 10시간만인 오전 10시 5분에 35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5사단은 1952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제1차전과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제2차전을 통해 북한군 사살 675명, 부상 150명, 포로 및 투항 7명과 82mm박격포 2문, 중기 및 경기관총 18정, 무반동총 1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사단도 182명이 전사하고 623명이 부상하였으며, 108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5사단은 2차례 전투에서 전술적 요충인 351고지를 최종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동해안과 접한 저지대의 감제관측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월비산에 이르는 접근로의 통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비산 · 351고지전투』 (1990)

【손규석 집필】

벙커고지(122고지) 부근 전투

[벙커高地 戰鬪, 1952. 8. 9.~16.]

개요

미 제1해병사단이 1952년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부전선 판문점 북동쪽 5km 지점의 벙커고지(122고지) 부근에서 중공군 제40군 제118사단 및 제65군 제194사단과 벌인 전초진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미 해병대의 '벙커(Bunker)고지 전투'로 알려진 122고지 전투는 미 제1군단으로 배속 변경된 미 제1해병사단이 1952년 3월 하순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 상의 국군 제1사단 진지를 인수하여 사미천-판문점-김포를 잇는 약 60km의 방어정면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이 담당한 책임지역은 중공군이 점거한 대덕산(△236) 일대의 고지군에서 대부분 감제되는 표고 150m 미만의 낮은 구릉과 협곡으로 형성되어 공격과 방어 모두 어려웠으나, 판문점 통제가 가능하여 고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이 중에서 판문점 동남쪽 5km 지점 백학산(△229)이 유일한 고봉으로 주진지 상의 요충이었다. 사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그 전방에 견고한 전초진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무렵 미 제1해병사단 전면에는 중공군 제65군(군장, 蕭應棠) 예하 제194사단 180연대와 제40군(군장, 溫玉成) 예하 제118사단 352연대와 354연대가 사미천 서쪽 207고지-망해산(△272)-대덕산(△236)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급의 전선추진이 증가하면서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고 대규모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유

지하였으며, 모든 진지는 포격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토굴로 구축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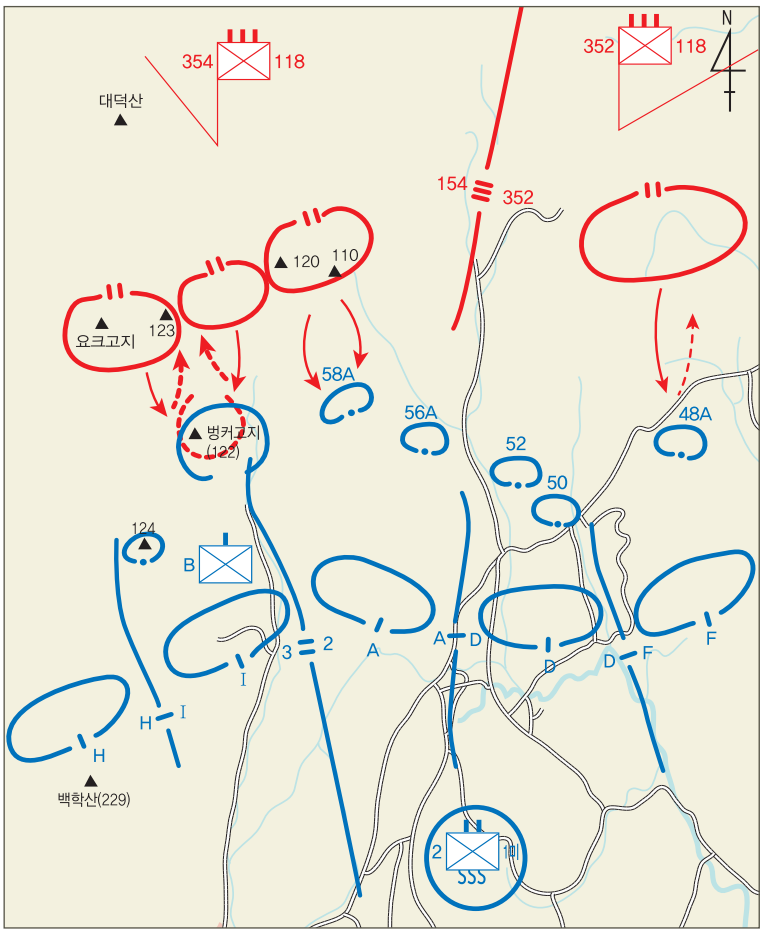
한편 4월 10일 부대 배치를 완료한 미 제1해병사단장 셀든 (John T. Selden) 소장은 현 진지를 정비하면서 강력한 위력수색과 파괴사격으로 담당지역의 주저항선을 방어하는 작전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8월까지 예하 3개 연대와 한국해병 제1연대를 주기적으로 교대하면서 주저항선 방어에 주력하였다. 8월 초 사단 배치 상황은 서쪽으로부터 한국해병 제1연대와 미 제1해병연대, 제5연대를 배치하였고, 제7연대를 예비로 두고 있었다.

8월 9일 새벽 1시를 기해 소대규모의 중공군이 미 제1해병연대 2대대 지역의 전초를 기습하여 E중대의 58A(Siberia)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대로 응전도 못한 채 진지를 빼앗긴 E중대는 역습소대를 편성하여 새벽 4시에 진지탈환을 시도하였으나, 포격을 집중한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실패하였다. 이후 연대는 미 해병 및 미 공군의 공중공격과 포병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진지를 탈환한 후 중공군의 포격에 진지를 다시 내어주는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3차에 걸쳐 실시된 진지쟁탈전에서 중공군의 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연대장 래이어(Walter F. Layer) 대령은 58A 진지가 중공군 고지에서 감제되어 포격의 표적이 되는 등 지형과 입지 조건이 전초진지로서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에 58A 진지 서남쪽 1km에 있는 122고지를 새로운 전초진지로 선정하고 이를 '벙커(Bunker)고지'라 명명하였다. 이 벙커고지는 중공군의 후방 관찰과 중요 전초진지의 중립화가 가능하였으며, 이 고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주저항선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연대장은 벙커고지 공격을 포병 및 기갑부대의 지원 아래 제2대대 B중대가 실시하고, 이를 기만하기 위해 58A 고지에 대한 양공과 적진에 대한 포사격 실시와 야간기습을 감행하도록 지시하였다. 8월 11일 밤 9시 미 M-46전차가 58A 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는 동안 화염방사기전차들이 중공군 진지에 대한 화공을 실시하며 고지 정상에 도달하였다. 이어 58A 진지를 포격하던 M-46전차가 중공군 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날 밤 10시 30분 D중대 제3소대는 전차의 엄호를 받으며 공격을 개시하여 56A 진지를 점령한 후 여세를 몰아 58A진지로 돌진하여 이마저 탈환하였다.

한편 주공인 B중대는 전차가 58A 진지에 도달한 밤 10시를 기해 제2대대장 배터튼 (Roy J. Batterton, Jr.) 중령의 지휘 아래 벙커고지에 대한 기습을 감행하였다. 전진을 거듭한 중대는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며 저항하는 중공군을 제압하고 다음날인 8월 12일 새벽 2시 30분에 벙커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대대에 배속된 노



무대원들과 함께 참호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벙커고지에서 물러났던 중공군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점에 48A 전초진지와 그 후방의 주저항선을 담당하고 있던 제2대대 F중대 정면을 동시에 기습하였다. 중대는 포병의 지원 아래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함으로써 이 공격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되었다.

8월 13일 새벽 1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벙커고지 서남쪽 경사지에 있는 제3대대 I중대 진지를 포격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I중대는 포병연대의 포격지원 아래 치열한 교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제3대대장 아미티지(Gerald T. Armitage) 중령은 벙커고지 후방에 배치된 제7연대 I중대의 2개 분대를, 사단은 사단예비인 G중대를 벙커고지로 각각 진

출시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어 정오에 제3대대장은 배속된 제7연대 3대대 H중대에 벙커고지를 인계하였다.

이날 일몰 무렵 증강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휴전회담으로 사격제한구역이었던 판문점으로부터 700~800m 동쪽에 위치한 GOP 2를 포격한 후 공격을 가해왔으나, H중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같은 시각 벙커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했던 중공군은 밤 9시에 증강된 중대규모로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대대의 포격과 H중대의 집중사격에 물러나게 되었다.

8월 14일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양측은 8월 15일 새벽 중공군의 도발로 치열한 포격전을 실시하였다. 이어 2시 30분에 중공군은 벙커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방어망 돌파에 실패하고 미 해병의 강력한 화력으로 새벽 4시 완전히 퇴각하였다. 이날 오전 제7연대 H중대는 명령에 따라 제1연대 1대대 B중대에 벙커고지를 인계하고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B중대가 진지를 인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벙커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오후 5시 50분에 완전히 격퇴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정이 지난 8월 16일 0시 40분 대대규모의 병력이 야포의 지원 아래 벙커고지를 서쪽과 북쪽에서 협공하였다. B중대는 인해전술로 파상공격을 펼치는 중공군에게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으나, 제7연대 I중대의 증원 병력과 함께 격전을 벌인 끝에 새벽 3시 15분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미 제1해병사단은 벙커고지에 대한 중공군의 7차에 걸친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 507명을 사살하고 1,500명(추정)에게 부상을 가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92명이 전사하고 529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1952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벙커고지(△122)를 확보함에 따라 제임스타운선 상의 주저항선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벙커고지 전방의 중공군에 대한 후방 관찰은 물론 중공군의 중요 전초진지에 대한 중립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피의고지 및 독수리고지 전투

[피의高地-독수리高地 戰鬪, 1952. 9. 28.~10. 2.]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2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구 북방 북한강 상류의 748고지 및 572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8군 제203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휴전회담으로 전 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소규모 전초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새로 창설된 제2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3사단은 군단 좌익인 석정리-973고지-949고지-739고지를 잇는 주저항선을 담당하였다. 주저항선 좌전방에는 '피의고지'와 '독수리고지'라 불리는 748고지와 572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고지들은 양구 북방 북한강 상류의 만곡부 우측에 위치한 전초진지였다. 사단 주저항선 중간의 949고지에서 북쪽을 향해 T자형으로 이어진 능선의 1.6km 지점에 위치한 748고지는 중공군의 주공축선을 억제할 수 있는 작전상 요충지였고, 572고지는 북한강 상류의 우측 만곡부를 제압하는 전초거점이었다. 그러나 이 고지들은 적진으로부터 감제되어 기동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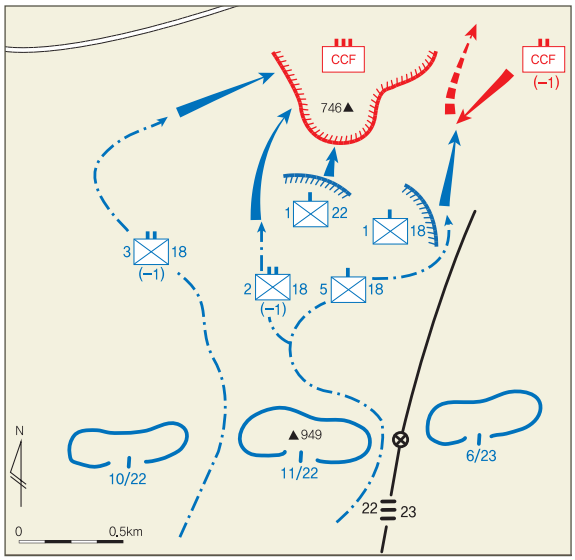
국군 제3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8군(군장, 陳坊仁) 예하 제203사단이 집결되어 있었다. 제203사단은 748고지 정면인 741고지-590고지 간에 제608연대를, 572고지 동쪽 주진지인 어운리-662고지에 제609고지를 배치하고 전초진지에 대한 위력수색과 소규모 야간공격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었다.

한편 국군 제3사단은 780고지-973고지-949고지-720고지-440고지를 연결하는 주저항선 좌우에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8연대를 사단예비로 편성하였다. 사단은 중공군 제68군이 949고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22연대 정면의 전초진지인 748고지와 572고지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제22연대장 김선규(金璿圭) 대령은 제2대대와 제1대대를 좌우에 배치하고 748고지와 572고지에 제2중대와 제7중대를 각각 주둔시켰다. 사단장 백남권(白南權) 준장은 이들 전초진지가 피탈될 경우 역습부대로 제18연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155mm 곡사포 18문과 105mm 곡사포 18문 등 포병지원화력도 이 정면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1952년 9월에 접어들며 북한강 상류 좌안의 수도고지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제3사단 정면에서도 전운이 감돌았다. 949고지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제22연

대는 진지를 강화하고 수색활동을 전개하며 중공군의 기도탐지에 주력하였다.



9월 28일 밤 10시 10분, 중공군은 748고지와 572고지를 비롯한 연대 주저항선 일대에 전례 없이 강력한 포격을 집중하였고, 약 15분 후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동북과 서북능선을 따라 748고지로 접근하였다. 이 고지의 결사고수를 지시받은 제1대대 2중대는 진지 앞 30m까지 중공군을 유인하여 집중사격으로 격퇴하였으나, 748고지와 949고지 간의 능선을 양단하기 위해 침투한 또 다른 2개 중대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들 중공군은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748고지로 출동하던 제1중대의 기습공격에 많은 피해를 입고 진격을 중단하였다.

한편 572고지에 배치된 제2대대 7중대는 이날 밤 10시 30분 증강된 중공군 1개 대대의 인해전술에 직면하였다. 중대는 화기소대로 이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자정 무렵에 감행한 제2차 공격에서 중공군은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예비인 제6중대를 572고지로 긴급 출동시켰으나, 접근로상의 유리한 지형을 장악한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748고지와 572고지의 전황은 자정을 넘기면서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중공군의 기도는 제203사단 주력을 국군 제22연대 정면에 집중해 949고지를 비롯한 주저항선상의 감제고지들을 점령, 북한강 유역 일대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공군의 1차 공격을 저지하고 2차 공격에 대비하던 제2중대장의 지원요청에 대해 제1대대장 김갑태(金甲泰) 대위는 748고지를 제2중대의 선혈이 물든 '피의 고지'라 칭하면서 병력과 화력지원을 약속하였다. 예상대로 새벽 1시 30분 집중포격을 가하던 중공군은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748고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고지를 방어하던 제2중대는 고지 정상으로 방어정면을 축소하면서까지 저항하였으나, 압도적인 병력에 밀려 새벽 6시 35분 제1중대 엄호 아래 철수를 단행하였다.

주저항선에서 멀리 떨어진 572고지에 배치된 제7중대는 협곡을 통해 진지로 돌진한 중공군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방어정면을 진내선으로 축소하면서 저항하던 중대는 전력의 한계를 감안한 연대장 명령에 따라 증원에 나선 제6중대와 함께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사단장은 현재의 전초진지 선에서 중공군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제18연대장 김덕준(金德俊) 대령에게 역습을 명령하였다. 이에 제18연대장은 새벽 5시에 제1대대를 572고지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748고지로 이동시켰다. 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중장도 주저항선의 일부가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정오를 기해 1개 전차소대를 제22연대 주저항선에 투입하였다.

6월 30일 새벽 4시 제18연대는 748고지와 572고지에 대한 역습을 개시하였다. 748고지를 공격한 제2대대는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하였으나, 중공군의 무차별포격으로 공격개시선으로 되돌아왔다. 572고지를 향해 진격한 제1대대도 목표고지와 이어진 605고지의 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중공군의 집중포격과 수류탄 투척에 막혀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역습 이틀째인 10월 1일 사단장은 역습주력을 748고지에 집중하기 위해 572고지를 공격하던 제18연대 1대대를 949고지선 상으로 이동시키고, 공격개시선에 있던 제3대대를 748고지 역습주력으로 투입하였다. 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은 사단의 차단포격에도 불구하고 고지 뒤편의 보급로를 통해 방어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날 새벽 1시 제18연대 2대대는 748고지를 공격하여 약 1시간 만에 8부 능선을 돌파한 후 주진지로 뛰어들어 20분간의 진내전 끝에 고지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후퇴했던 중공군이 강력한 진내사격과 함께 반격을 펼침에 따라 대대는 아침 6시 10분 연대장의 명령으로 949고지 뒤편의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제18연대 3대대는 새벽 4시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748고지로 향했으나, 7부 능선에서 중공군의 측방화력에 막혀 더 이상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대대는 7개의 특공조를 편성한 후 7개 화력거점을 수류탄으로 파괴하고 역습을 계속하였으나, 연대장의 철수명령으로 부득이 철수하였다. 전날의 역습에 실패했던 제18연대 1대대는 이날 0시에 재공격을 감행해 주봉 일부에서 육박전을 실시했으나, 중공군 증원 병력에 의해 대대가 포위될 것을 우려한 사단장의 역습중지명령에 따라 새로운 집결지로 철수하였다.

이처럼 제18연대의 역습마저 실패하자, 사단장은 10월 2일 새벽 4시 제18연대 3대대와 제22연대 1대대를 주공으로 투입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748고지의 9부 능선까지 돌파한 제18연대 3대대는 중공군의 집중포화에 막혀 후퇴하였고, 제22연대 1대대가 오후 5시 20분에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중공군의 집중포화를 뚫고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진출

하였다. 중공군의 자동화기거점을 수류탄으로 제압하며 일제히 돌격을 감행한 대대는 1개 소대가 진지 전방 50m까지 진출해 화력거점을 파괴하였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대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오후 7시 45분에 748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예비인 제18연대 1대대를 투입해 중공군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후 대대는 중공군의 반격을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으며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중공군 664명(161명 추정사살 제외)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109명이 전사하고 384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1952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된 이번 전투에서 748고지를 성공적으로 고수하여 중공군 제68군의 주공축선을 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전초인 572고지를 피탈함으로써 북한강 상류 우측 만곡부를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전투 이후 중공군 제68군은 담당한 전구를 제60군에 인계하고 후방 평강 일대로 이동하여 부대정리에 착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고양대 부근 전투

[高陽垈 附近 戰鬪, 1952. 10. 6.~9.]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천 북방 임진강 북안의 고양대 일대에서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6사단과 전초진지 확보를 위해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국군 제1사단은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소속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1952년 10월 1일 미 제3사단의 전선을 인수하며 미 제1군단의 중앙우익사단이 되어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 상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였다. 사단은 역곡천과 임진강을 연하는 주

진지 전방인 임진강 서안의 고양대 일대에 전진진지를 편성하였다.

연천 북방 임진강 일대를 아우르는 작전지역은 평균 200~300m 내외의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고, 니키 및 테리고지와 같은 전초진지는 물론 주저항선 일부도 마량산(△315) 보다 낮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 중공군에게 감제되고 있었다. 지역 내에는 임진강이 역곡천과 합류하여 S자로 흐르면서 제15연대 작전지역을 양단하고 있어 방어에 불리하였다.

이 일대에는 중공군 제39군(군장, 吳信泉) 제116사단이 임진강 서안의 백석동-마량산-회산동-하후동을 연결하는 일대에 주 거점을 형성하고 국군 제15연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국부군 출신 포로가 대다수인 이들은 군사훈련과 전투경험이 풍부해 전면공세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포병 제2사단과 전차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국군 제15연대의 전초진지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제15연대와 제12연대를 좌우측에 각각 배치한 국군 제1사단은 역곡천 남안 일대와 임진강 동서 양안의 200m 내외 고지에 주진지를 편성하였는데, 우측 제12연대와 달리 임진강 서안에 주진지를 점령한 제15연대는 배후가 차단되어 배수진을 치는 형세가 되었다. 따라서 사단장 박임항(朴林恒) 준장은 임진강 동안에 주저항선을, 임진강 서안 고양대 일대에 전진진지를 확보하도록 제15연대에 명령하고 사단 수색중대와 제1중박격포중대를 배속시켰다.

명령에 따라 제15연대장 김진위(金振暐) 대령은 242고지-고작동-202고지-264고지-199고지-신촌을 잇는 선에 주저항선을, 고작동 북쪽 1km의 199고지-소노리고지-니키 및 테시고지에 전진진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연대 좌측 전방에 배치된 제3대대는 임진강 서안 209고지 북쪽 능선-199고지-신촌을 연한 일대에 주진지를 점령하고 고양대의 니키 및 테시고지에 연대 수색중대 2개 소대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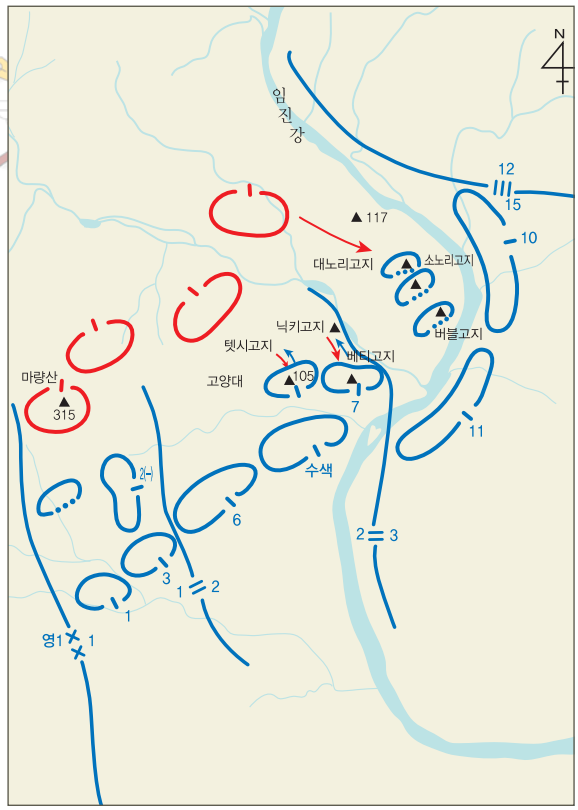
1952년 10월 6일 휴전회담이 결렬단계로 접어들자 중공군은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공세를 단행하였다. '10월 공세'로 불리는 이 공세에서 제15연대 전면의 중공군 제116사단 348연대는 1개 대대병력으로 고양대의 니키 및 테시고지를 3면에서 포위 공격함으로써 일명 '니키 및 테시고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전투는 제15연대가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니키와 테시고지를 빼앗기고 이틀 동안 반격을 실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제15연대 정면에 포격을 가하던 중공군은 오후 7시부터는 제3대대 주진지와 임진강 서안에 대한 차단사격과 함께 연대 수색중대가 방어하고 있던 니키 및 테시고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고지 전방의 철조망과 지뢰지대가 파괴되고 중대의 통신이 완전 두절되었다. 약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중단된 야포공격을 대신하여 박격포탄이 고지 일대에 작렬하는 가운데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진지로 접근해왔다.

각 고지에 1개 소대씩 모두 2개 소대병력만을 유지하고 있던 중대는 진지로 쇄도하는 중공군을 맞아 수류탄을 투척하고 백병전까지 실시하면서 고지를 방어하였다. 약 20분이 지날 무렵 중공군 후속부대가 고지를 동서로 우회하여 중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증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선임장교는 중공군 격퇴를 위한 진내사격을 대대에 요청하고 전 대원과 함께 동굴호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청한 진내사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공군이 지상진지를 완전히 장악하여 중대는 호 속에서 고립상태에 처하였다.

다음날인 10월 7일 아침 7시경 제3대대장은 니키고지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일부 대원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 니키 및 테시고지에 포격지원과 미 공군 전투기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고지의 피탈을 확인한 연대장은 사단 수색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고 고지탈환을 명령하였다.

오전 8시 20분 니키고지의 공격에 나선 사단 수색중대는 약 30분 후 목표고지 동남쪽 0.7km의 베티고지를 점령한 다음 니키고지 7부 능선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완강한 중공군의 저항에 밀려 니키고지 남쪽 0.5km의 무명고지로 후퇴하였다. 이후 대대는 6번의 재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전황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무명고지로 철수하였다.



연대 수색중대 제2소대도 오전 8시 20분에 테시고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여 목표고지 남쪽 300m지점의 105고지를 탈취한 후 북쪽 능선을 따라 테시고지 8부 능선으로 돌진하여 교통호의 중공군과 백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중공군 증원 병력이 배후에서 공격을 가하였고, 포위를 우려한 소대는 부득이 105고지로 후

퇴하였다.

이날 사단장은 사단 수색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의 역습이 실패하자 제10중대에 이들 고지의 공격을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10월 8일 새벽 3시 제10중대 주력은 포병의 제압 사격과 공군의 근접지원 및 전차 16대의 집중지원을 받으며 니키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1연대 3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시켜 역습을 명령하였다.

10월 9일 제15연대장은 제3대대의 1개 중대가 105고지-테시고지를 공격하는 동안 주력은 니키고지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새벽 1시 공격에 나선 제11중대는 105고지를 탈환하고 테시고지롤 향하였고, 대대 주력은 니키고지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중공군의 치열한 포격과 완강한 저항에 막혀 4차례 공격에 모두 실패하여 오전 10시 40분에 원진지로 복귀하였다.

제15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고지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엄명을 받고 포병의 제압 사격과 전차의 근접지원을 받으며 정오를 기해 니키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완강한 중공군의 저항에 막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던 중 사단지휘소를 방문한 미 제1군단장 캔달(Paul W. Kendall) 중장의 지시에 따라 공격을 중지하고 현 진출선에서 전진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로써 제15연대는 현 진출선인 니키고지 6부 능선-베티고지-무명고지-105고지를 연결하는 선에 전진진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1952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고양대 부근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 173명을 사살(추정)하고 2명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반면에 사단도 8명이 전사하고 14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현 진출선인 니키고지 6부 능선-베티고지-무명고지-105고지를 연결하는 선에 전진진지를 확보하였고, 제임스선상의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제15연대는 제5포병단의 화력지원 아래 매복과 기습전을 강화하며 포로획득에 주력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은 국군 제1사단의 대규모 반격을 예상하고 탈취한 니키 및 테시고지 일대에 병력을 증원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백마고지 전투

[白馬高地 戰鬪, 1952. 10. 6.~15.]

개요

국군 제9사단이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에 걸쳐 강원도 철원 북방의 395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12차례의 공방전을 통해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백마고지 전투는 사방이 2km에 불과한 지역에 양측 모두 군단급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목표 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려 한 6 · 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다. 국군 제9사단은 예하의 3개 연대로 중공군 제38군의 6개 연대와 12차례 공방전을 펼친 끝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 서북방 12km 지점 고암산(△780)과 효성산(△619)이 교차해 남동쪽으로 흐르는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 해발 395m의 돌출된 야산이다. 이 고지는 철원–평강–김화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 중 서남쪽 철원평야의 감제가 가능한 전략적 요충으로서, 병참선인 3번 도로를 비롯한 많은 통로를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력의 이합집산이 용이한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 지형이었다.

당시 백마고지 북쪽에는 중공군 제42군과 교체된 제38군(군장, 강옹휘)이 예하 제113, 제114사단을 효성산을 중심으로 각각 좌우에 배치하고, 제112사단을 예비로 편성하고 있었다. 제114사단은 효성산을 중심으로 우측에 제341연대를, 500고지를 주봉으로 좌측에 제340연대를 배치하고 제342연대를 효성산 후방에 예비로 두었다. 이들은 당원으로 편성된 정예부대로서 훈련수준과 보급상태가 양호하고 사기도 왕성한 편이었다.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10월 17일 미 제3사단과 교대하여 395고지 일대에 배치된 후 11월초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52년 4월 5일 미 제1군단에서 미 제9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군단의 좌측 전선을 맡게 된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9월 22일부로 주저항선 좌측에 제30연대(연대장, 임익순 대령), 우측에 제29연대(연대장, 김봉철 대령)를 배치하고 제28연대(연대장, 이주일 대령)를 예비로 편성하고 있었다.

사단의 주저항선은 대부분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는 개활지였으며, 좌단의 395고지 부근만 구릉으로 이어져 있었다. 또한 중공군이 효성산을 비롯한 북쪽의 유리한 고지들을

장악하고 사단 방어지역을 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취약하였다.

휴전회담이 1952년 중반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자 양측은 회담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전면공세는 자제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제한공격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규모의 정찰전, 포로획득을 위한 습격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매복작전, 유리한 전초기지 확보를 위한 고지쟁탈전 등이 모든 전선에서 일어났다.

1952년 6월에 교착된 전선에서 불붙기 시작한 고지쟁탈전은 9월에 접어들어 수도고지, 지형능선, 불모고지 등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는 철원 서북방의 '철의 삼각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9월 말에 미 제9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소장은 중서부전선의 철원-김화 지구에 국군 제9사단을 비롯한 4개 사단을 투입하여 중공군 제15군 및 제38군과 대치하였다.

국군 제9사단이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10월 3일에 중공군 제114사단 340연대 정치지도원인 곡중교가 귀순하여 머지않아 백마고지에 대한 중공군의 전면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395고지의 방어병력을 2개 대대규모로 증강하고, 예비연대에 역습에 즉시 나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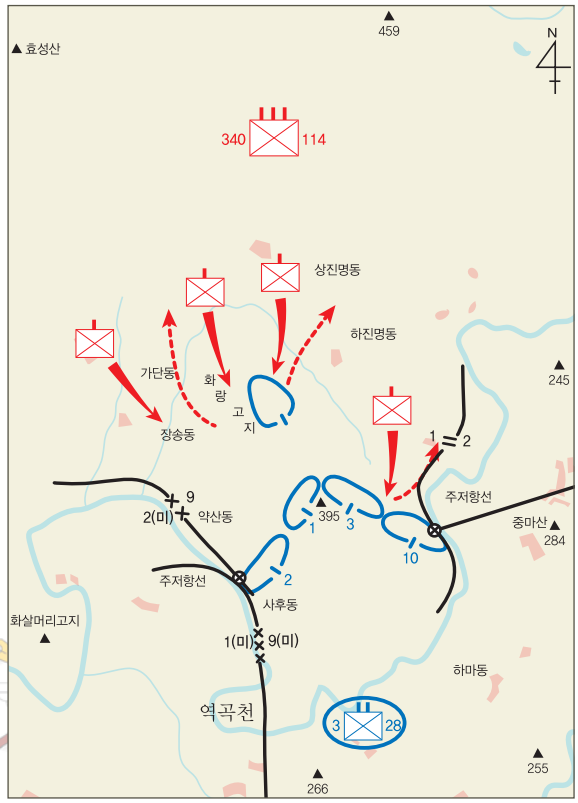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10월 6일, 중공군 제38군은 395고지를 비롯한 수도고지-지형능선-A, B고지-니키고지 등 국군의 방어정면만을 택하여 총공세를 단행하였다. 오전 6시에 중공군은 사단 전 지역에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면서 북쪽 5km 전방에 있는 봉래호의 수문을 폭파시켜 395고지와 후방을 관통하는 역곡천을 범람시켰다. 중공군은 국군 증원과 군수지원이 차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요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오후 7시경 중공군 제114사단은 395고지에 대한 정면공격을 개시하여 국군 제30연대와 2차에 걸친 공방전을 벌였으나, 고지점령에 실패하였다.

10월 7일 자정이 지난 0시 40분경 중공군 제114사단 340연대는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제3차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30연대 1대대에 공격을 집중한 이들은 고지 주봉과 낙타능선상의 전초진지인 화랑고지를 분리시킨 후 북쪽 능선에 공격거점을 확보하려는 듯 보였다. 이에 사단은 미 공군의 전술폭격과 지원포병의 포격을 요청하고, 제28연대 1대대와 제30연대 1대대가 격전을 펼친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3차 공격에서 395고지 정면의 무명고지를 확보한 중공군은 병력을 2개 중대로 증강시키고 395고지와 화랑고지를 분리시키려 하였다. 사단의 요청에 따라 미 제5공군의 2개 편대가 중공군의 포진지를 폭격하고, 전차소대의 전차포가 무명고지를 강타하는 동안 제30연대 1대대는 무명고지에 대한 역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형적 이점을 이용

하여 저항하는 중공군을 제압하는데 실패하고 철수하였으며, 오히려 화랑고지를 방어하던 제11중대는 중공군 제340연대를 대체한 제112사단 334연대의 공격을 받고 고지에서 후퇴하였다.

이처럼 전초진지인 화랑고지가 피탈됨에 따라 제1대대의 주봉 방어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화랑고지를 탈취한 중공군이 화력과 병력을 18_백마고지전투집중하여 395고지를 공격해오자, 제1대대는 약 2시간의 교전 끝에 고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395고지는 전투 개시 이래 처음으로 중공군이 장악하게 되었으나, 약 2시간 후 사단장의 명령을 받은 제28연대가 역습을 실시하여 주봉을 다시 탈환하였다.



10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395고지 전역에 안개가 짙게 깔리자 중공군은 예비인 제112사단 334연대를 투입하여 제5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28연대는 백병전을 펼치며 사력을 다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포병 및 항공지원이 어려워져 오전 8시 10분경 고지를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날 오후 5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반격을 감행한 제28연대 3대대는 8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고지를 재탈환하였다.

이로부터 국군 제9사단은 예하의 3개 연대를 교대로 투입하면서 인해전술로 파상공격을 감행하는 중공군 제38군과 10월 15일까지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395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방전이 하루에도 1~2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10월 11일 제9차 공방전의 2일차 전투가 속개되었다. 이날 사단장은 고지탈환을 위해 제29연대를 투입하였다. 이때 제2대대장 김경진 소령은 대대를 진두지휘하여 목표고지로 돌격하던 중 중공군의 박격포격으로 전사하였다. 대대는 계속된 공방전에서 고지탈환에 성공하였고, 김경진 소령은 이에 기여한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10월 12일 새벽 2시 30분, 사단장은 395고지 북쪽의 전초진지인 화랑고지 1~3봉과 장송고지의 탈환임무를 제30연대장 임익순 대령에게 부여하였다. 연대장은 예하 대대 중 병력상태가 가장 양호한 제1대대를 투입하였고, 제1대대는 오전 8시를 기해 제1중대와 제3중대를 각각 좌우측에 배치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측 능선을 공격한 제1중대가 정상공격에 실패를 거듭하자 제3소대장 강승우 소위는 오규봉 일병과 안영권 일병과 함께 수류탄을 뽑아들고 중공군의 기관총진지로 뛰어들어 폭파함으로서 중대가 고지를 탈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현장에서 전사한 이들에게는 을지무공훈장과 일계급 특진이 추서되었고, '백마고지 3용사'로 불리게 되었다.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 중공군 제335연대는 이번 전투의 마지막 공세인 제12차 공세를 감행하였다. 전날 야간공격으로 고지를 확보했던 중공군은 주간공격에서 국군 제30연대에 고지를 빼앗기자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10월 15일 오전 11시까지 계속된 이번 전투에서 국군 제30연대는 파상공세를 펼치는 중공군에게 고지를 다시 빼앗겼다.

그러나 임무를 교대한 제28연대가 밀고 밀리는 백병전을 실시하여 395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어 제29연대가 395고지 북쪽 화랑고지 선상의 전초진지마저 확보하자 중공군 제38군은 예하 사단을 전선에서 철수시켰다. 이로써 백마고지 전투는 끝까지 고지를 장악한 국군 제9사단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전투기간 동안 양측은 폭 2km, 길이 3km에 불과한 독립고지인 395고지에 9개 연대를 투입하여 대접전을 벌였다. 10일간의 전투에서 양측은 395고지를 사이에 두고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는 동안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실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양측이 사용한 포탄량은 중공군 약 5만 5,000발과 국군 약 22만발 등 총 27만 5,000발이었으며, 유엔공군은 754회의 출격횟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전투의 치열함은 395고지를 백마고지로 부르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는 전투가 끝난 직후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장병들의 발목을 덮을 정도로 돌가루와 흙더미만 남아있는 고지의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과 흡사한데서 유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과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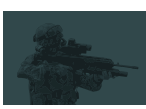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8,234명을 사살하고 57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3.5인치 로켓포 22문과 박격포 25문, 각종 기관총 약 60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사단도 505명이 전사하고 2,52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9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로 국군은 철원평야 서남부에서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철원-김화-화천에 이르는 측방도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공산군이 선제공격으로 고지를 점령하면 유엔군이 반격으로 탈환하던 고지쟁탈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저격능선 전투를 비롯한 인접 전투에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해 선제공격을 시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전투』 (1984)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 전투』 (2010)

【손규석 집필】



1090고지 부근 전투

[1090高地 附近 戰鬪, 1952. 10. 6.~14.]

개요

국군 제7사단 3연대가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강원도 양구 북방의 1090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8군 예하 제202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1951년 12월 25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두 차례 전투에서 중공군 공세를 저지했던 국군 제7사단은 1952년 8월 초 전력을 새로 강화한 제3연대를 1090고지-1220고지-봉선골을 연결하는 선상에 배치해 주저항선을 강화하였다.

1951년 12월 25일, 종교적 의미가 깃든 휴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격전을 벌여 '크리스마스고지'라는 별칭이 붙게 된 1090고지는 양구 북방 문등리 계곡 서쪽 어은산(△1250)과 백석산(△1142) 사이에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1090고지 중 북쪽 고지를 일컫는다. 어은산과 백석산을 잇는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지는 지형적으로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초진지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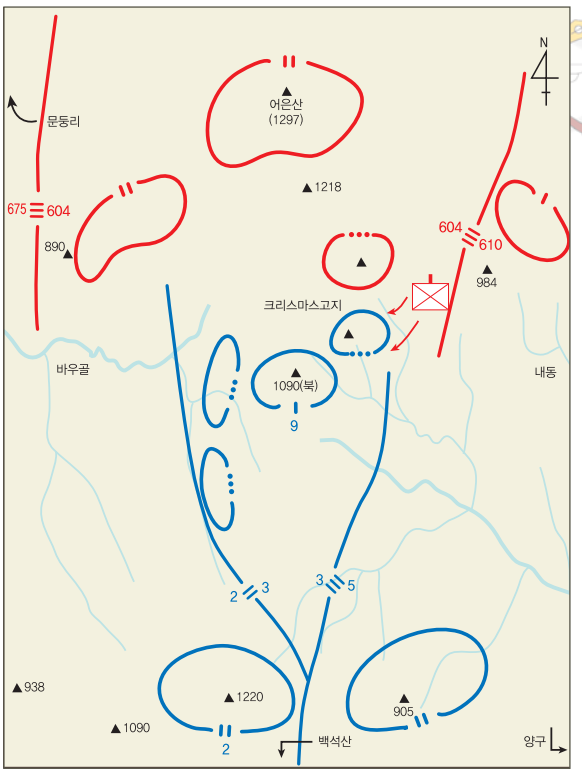
이 무렵 국군 제7사단 3연대 정면에는 중공군 제68군(군장, 陳坊仁) 예하 제202사단이 어은산을 주축으로 890고지-918고지-1218고지-984고지가 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정찰활동과 진지보강을 실시하며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때 휴전회

담이 포로교환 문제로 교착에 빠지자, 공산군은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 전선에서 국부적인 제한공격을 실시하였고, 이들도 이에 호응하여 10월 6일 크리스마스고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반면에 군단 좌측 전방을 담당하여 미네소타선(Minnesota Line) 상에 방어선을 점령한 국군 제7사단은 1952년 8월 6일 사단 방어정면의 좌측을 담당하고 있던 제5연대를 예비인 제3연대로 교체하였다. 이는 전투부대 위주로 개편을 완료한 제3연대를 배치하여 주저항선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려는 사단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제3연대장 유의준(俞義濬) 대령은 제2대대를 방어정면 우측 1220고지 일대에, 제1대대를 좌측의 도피막-널우골 전면의 무명고지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3대대에 1090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이종익(李鍾益) 소령은 제3중대를 1090고지 주봉에 배치하면서 그 전방의 무명고지에 편성된 경계진지엔 제9중대를 투입하였다.

10월 6일 일몰과 함께 제3대대와 대치하고 있던 중공군 제604연대는 예하의 병력을 투입하여 제9중대 전초진지인 크리스마스고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들은 각종 포탄 3백여 발을 고지에 집중한 후 밤 10시를 기해 전초진지에 이르는 능선 접근로를 따라 쇄도하였다. 고지에 배치된 제9중대는 중대장 지휘에 따라 이들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하여 네이팜지뢰와 수류탄 등으로 공격하였다.



잠시 전열이 흩어졌던 중공군이 대오를 수습하여 공격을 재개하자, 병력이 열세한 중대는 약 40분에 걸쳐 격전을 펼쳤으나 끝내 고지 일부가 돌파되어 남쪽능선으로 후퇴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대대장은 중공군의 공격목적이 전면공세가 아닌 크리스마스고지 확보에 있다고 보고 포병사격을 요청하면서 제9중대로 역습을 감행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다음날인 10월 7일 이른 새벽 중공군은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포격 아래 집중 돌파를 시도하며 파상공격을 가하였고, 이를 저지하는데 실패한 중대는 다시 고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 대대장은 예비대로 고지를 재탈환하기로 작정하고 제11중대의 1개 소대로 반격을 실시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연대장 명령에 따라 현 상황에서 역습을 종료하였다.

전초진지를 피탈한 제7사단 3연대장은 대치 중인 중공군 제202사단이 공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전초진지 재탈환을 당분간 보류한 채 예하에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1090고지 북방 500m의 무명고지에 연한 경계진지에 제9중대를, 1090고지 주봉에 제10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진지보강에 주력하였다.

10월 13일 저녁 중공군 제604연대는 증강된 2개 중대병력으로 1090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제9중대의 경계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제16포병대대와 미 포병대대의 강력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3면에서 중대를 압박하였고, 결국 중대는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상황에 처하였다. 이때 중대장 이순호(李順鎬) 대위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수류탄전을 펼쳐 일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반격을 실시해 제9중대 진지를 회복하라고 제11중대에 명령하였다. 제11중대가 협소하고 가파른 기동로와 중공군 포격으로 공격이 지체되는 동안 물러났던 중공군이 증원 병력과 함께 제9중대 OP로 쇄도해 중대는 다시 고립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에 중대장과 중대원은 수류탄을 투척하고 육탄전을 벌이면서 2시간 30분 동안 고지를 사수하였으나, 결국에는 사방에서 압박을 가해오는 중공군에게 중대 OP를 내어주게 되었다.

한편 제9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제11중대의 공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사단장 임충식(任忠植) 준장은 제8연대 1대대를 급거 1220고지 부근으로 이동시켜 반격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자정 무렵 공격에 실패하고 고지 중턱에 머물고 있던 제11중대는 다음날인 10월 14일 새벽 2시 20분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정면과 측면에서 협공을 개시한 중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백병전을 펼친 끝에 새벽 3시에 OP고지를 탈환하였다. 이어 중대는 어은산 방면으로 도주하는 중공군을 추격하여 아침 6시에 제9중대 진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이번 전투를 종료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7사단 3연대는 이번 전투에서 중공군 63명(추정사살 118명 제외)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기관총 1정과 다발총 5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

면에 제3연대도 24명이 전사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 결과로 국군 제7사단은 양측 주진지에 이르는 능선 중앙에 위치한 1090고지를 확보하여 중공군 제20사단의 수색 및 정찰활동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후 사단은 전선의 교착상태를 이용해 주진지와 주보급로를 정비하면서 수색활동을 강화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저격능선 전투

[狙擊稜線 戰鬪, 1952. 10. 14.~11. 24.]

개요

국군 제2사단이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대 내 오성산 인근의 무명능선을 탈취하기 위해 중공군 제15군과 실시한 고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1952년 10월에 접어들며 중공군은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엔군 전초진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대장은 전초진지 전반에 걸쳐 유엔군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소규모 공격작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대규모 병력으로 제한된 목표를 탈취하는 '쇼다운작전(Operation Show Down)'을 구상하였고, 이에 따라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공격목표인 저격능선은 철의 삼각지대 내 오성산에서 김화 방면으로 뻗어 내린 능선 중 남대천 부근에 솟아오른 해발 580m, 크기 1㎢ 정도의 장방형 돌출능선이다. 무명능선에 불과했던 이 능선이 '저격능선(Sniper Ridge)' 또는 '저격병 능선'으로 불리게 된 유래는 1951년 10월 노매드선(Nomad Line)으로 진격하던 미 제25사단이 이 능선에 배치된 중공군 제26군의 저격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데서 비롯되었다.

남측 A고지 및 돌바위고지와 북측 Y고지로 이루어진 저격능선은 중공군에게는 오성산 방어의 중요 관문이었고, 국군 제2사단에게는 주저항선을 감제하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오성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저격능선 좌측의 삼각고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고지군으로 남쪽의 제1봉인 598고지와 동북쪽의 제2봉인 제인러셀(Jane Russell)고지, 서북쪽의 제3봉인 파이크(Pikes)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사이에 상감령이 자리하고 있다.

저격능선 공격을 담당한 국군 제2사단은 1952년 6월말 김화지역에서 미 제40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여 남대천 부근의 봉미-갈골-하구정-외야동을 잇는 주저항선에 예하의 제32, 제31, 제17연대를 배치하고 제37경장비연대를 예비로 편성하고 있었다.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대체로 편제의 95%수준을 유지하였고, 16개 야포대대를 비롯한 고사포대대와 로켓포대대 그리고 2개 전차중대 및 중박격포중대의 지원이 가능하였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12군 예하의 제45사단이 삼각고지와 그 전방에 제135연대를, 저격능선과 그 전방에 제133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34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 9,000여 명의 병력과 각종 박격포 162문 및 야포 18문, 로켓포 108문과 57mm 반전차포 27문 등을 보유하였으며, 9개 포병대대와 2개 전차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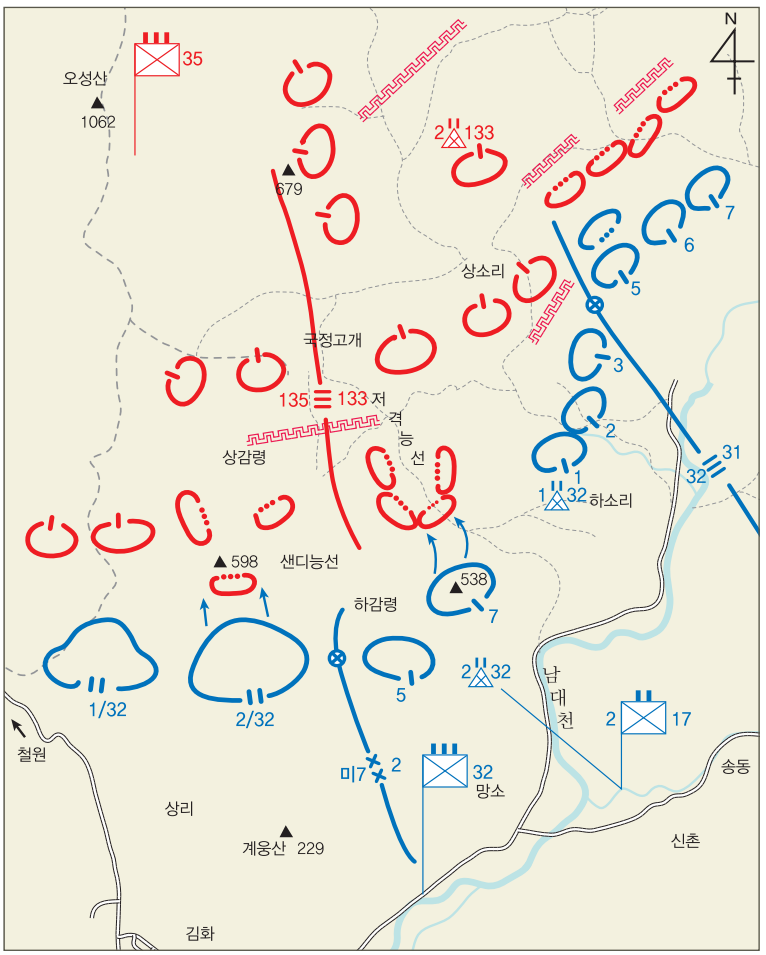
미 제8군 작전계획에 따라 미 제9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소장은 국군 제2사단이 저격능선을, 미 제7사단이 삼각고지(△598)를 공격하는 작전명령을 예하에 하달하였다. 1952년 10월 14일 새벽 5시, 군단은 공격준비사격과 유엔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아래 '쇼다운작전'의 첫발을 내딛었다. 곧이어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은 부여된 목표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2사단장 정일권(丁一權) 중장은 제32연대 3대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였다. 제3대대는 중공군의 집중사격을 극복하며 오전 6시경 매봉과 돌바위고지로 진출해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을 격퇴하고 오후 3시 20분 저격능선상의 목표인 Y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오후 8시에 중공군 제45사단 133연대가 Y고지와 A고지를 집중공격하면서 많은 병력손실을 입은 대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삼각고지를 공격한 미 제7사단 31연대도 목표탈환에 실패하고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제32연대장 유근창(柳根昌) 대령은 연대에 배속된 제17연대 2대대장 강두형(姜斗馨) 소령에게 제2차 공격을 명령하였고, 제2대대는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유엔공군의 항공근접지원을 받으며 목표로 향한 대대는 돌바위고지와 A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A고지를 빼앗긴 중공군 제133연대가 2개 대대로

야간역습을 가해옴에 따라 대대는 돌바위고지를 방어하던 제32연대 2대대와 함께 고지 남쪽으로 물러나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약 6천여 발의 포탄이 중공군 밀접지역에 집중된 후 양 대대는 10월 16일 이른 새벽에 반격으로 전환하여 제17연대 2대대가 A고지를, 제32연대 2대대가 돌바위고지를 탈환하였다. 이어 새벽 5시를 기해 2개 대대병력으로 반격을 감행한 중공군 제133연대의 제3차 공격마저 격퇴하였다. 그러나 양 대대는 중공군 제45사단 예하의 3개 연대가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펼치는 공격에 3일 동안 공방전을 반복하다 저격능선을 넘겨주고 10월 19일 오후 10시 30분에 원진지로 철수하였다. 이날 중공군은 A고지와 돌바위고지의 구조물이 형태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많은 3만 8천여 발의 포탄을 저격능선 일대에 집중시켰다.



전선의 상황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단장은 10월 20일 제32연대 대신 제17연대를 저격능선전투에 투입하였다. 이날 오전 8시 제17연대장 은석표(殷碩杓)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가 A고지를 공격하여 3차에 걸친 돌격 끝에 3시간 만에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후 저격능선에서는 10월 25일까지 중공군의 역습에 이은 A고지 상실, 제3대대의 A고지 탈환과 Y고지 공격 등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10월 25일 오전 6시를 기해 국군 제2사단은 미 제7사단의 작전지역인 삼각고지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저격능선과 삼각고지작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앞선 10월 16일 미 제7사단 32연대는 삼각고지를 공격해 주봉인 598고지를 점령하고 제3봉인 파이크봉마저 탈취하였으나, 필사적인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3일 만에 고지를 내어주었다. 미 제7사단은 삼각고지전투를 수행하면서 약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미국 내 주요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한국전선에서 명분 없는 싸움에 미군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국군 제2사단은 주저항선을 방어하던 제31연대를 삼각고지에 투입하면서 제31연대의 기존 임무를 제37경장비연대가 수행토록 조치하였다. 제31연대장 김용순(金容珣) 대령은 주봉인 598고지에 제2대대를, 제2봉인 제인러셀고지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삼각고지 방어에 임하던 제31연대는 중공군과 몇 차례의 공방전을 펼치던 중 10월 30일 대규모 공격에 삼각고지를 빼앗기고 후방의 계웅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백마고지전투 후 부대를 정비하던 제9사단 30연대를 10월 31일부로 제2사단에 배속시켜 삼각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제30연대장 임익순(林益淳) 대령은 다음날인 11월 1일 삼각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많은 병력손실만 입은 채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군단장은 11월 5일 삼각고지에 대한 작전중지명령을 국군 제2사단에 하달하였다. 이는 '쇼다운작전' 개시 이래 병력손실이 가중되고 저격능선마저 위협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제2사단은 저격능선 작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사단 정면의 중공군은 제45사단을 대신하여 제29사단을 저격능선에 투입하고 있었다. 11월 11일 국군 제2사단은 A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17연대 대신 제32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제32연대 1대대는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A고지를 상실한 후 수 차례에 걸쳐 반격을 가하였으나 끝내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 제12군단 31사단이 저격능선에 투입되어 제29사단과 합세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32연대 대신 제17연대를 저격능선에 투입하였고, 제17연대 1

대대는 A고지를 공격하여 2시간의 전투를 통해 고지를 탈환한 후 돌바위고지까지 일거에 탈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11월 13일 오후 10시에 대규모의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2개 대대가 A고지를 공격하였다. 1시간 30분이 지난 자정 무렵 진지가 돌파된 제1대대가 분산철수를 단행하자, 제3대대가 역습을 펼쳐 A고지를 다시 확보했으나 돌바위고지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11월 17일 오전 7시 제2대대는 돌바위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개시해 2시간여의 교전 끝에 목표를 탈환하였고, 다음날 제17연대는 저격능선상의 A고지와 돌바위고지를 모두 장악하였다. 사단은 11월 25일까지 계속된 중공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제9사단에 임무를 인계함으로써 사실상 국군 5개 연대가 6주간에 걸쳐 수행했던 이번 전투를 마무리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2사단은 중공군 3,772명 사살 및 11,023명 살상(추정) 그리고 72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각종 포 6문과 기관총 39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1,127명 전사 및 3,613명 부상 그리고 89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 중 삼각고지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저격능선만을 확보하고 전투를 종료하였다. 사단은 저격능선전투의 승리로 주저항선을 감제하는 위협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공군은 철의 삼각지대 내 주요 거점인 오성산 방어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저격능선전투』(19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2010)

【손규석 집필】

텍사스고지(689고지) 전투

[텍사스高地 戰鬪, 1953. 4. 2.~12.]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3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양구 북방 북한강 상류 만곡부 동안의 텍사스고지(689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80사단 및 제181사단과 실시한 고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휴전회담의 진전으로 전국(戰局)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소규모 탐색전만 실시하던 공산군은 1953년 3월 말로 접어들며 국군의 전초진지를 사전에 공격하여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규모의 기습전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중동부전선 북한강 상류 지역에 있는 중공군도 국군 제3사단의 주저항선 전방에 위치한 689고지와 M1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1개월 전부터 고지 기슭에 동굴거점을 마련하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북한강 상류 만곡부 동안에 위치한 일명 '텍사스(Texas) 고지'라 불리는 689고지는 실제 높이가 500m로 중공군의 공격거점인 590고지와 620고지보다 낮아 모든 동정이 중공군에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이 고지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중공군이 공격하기에 유리한 반면 급경사를 이룬 남쪽의 후사면은 반격이나 보급추진에 불리한 지형이었다.

국군 제3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81사단과 제180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181사단은 우측 679고지-572고지 일대에 제543연대를 배치해 국군 제22연대와 대치하였고, 좌측 674고지-송정리 간에 제542연대를 두고 국군 제18연대 2개 대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제180사단은 예하 제538연대를 689고지 일대에 배치해 국군 제18연대 3대대와 마주하고 있었다.

한편 피의 고지와 독수리고지 전투를 끝내고 석천리-973고지-949고지-738고지 선에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있던 국군 제3사단은 우측에 제18연대, 좌측에 제22연대를 배치하고 제23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우측에 배치된 제18연대는 통선곡-973고지-882고지 간에 3개 대대를 투입하였는데, 주저항선의 주봉인 973고지에 이르는 능선접근로인 590고지와 689고지 남쪽에는 제2대대의 2개 중대를 투입하고 있었다. 949고지-739고지-549고지 북쪽 1km의 무명고지를 담당한 제22연대는 제1대대를 우측에, 제3대대를 좌측에 두고 있었다. 전투시의 화력지원은 제11포병대대와 제3중박격포중대, 제52전차중대의 전차 3대로부터 직접지원과 2개 포병대대의 일반지원이 가능한 상태였다.

1953년 3월 20일 사단장 임선하(林善河) 준장은 중공군의 공세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좌우일선에 배치된 제18연대와 제22연대에 689고지와 M1고지의 진지보강을 명령하였다. 이는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 대신 전초진지 바로 앞에 동굴거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정보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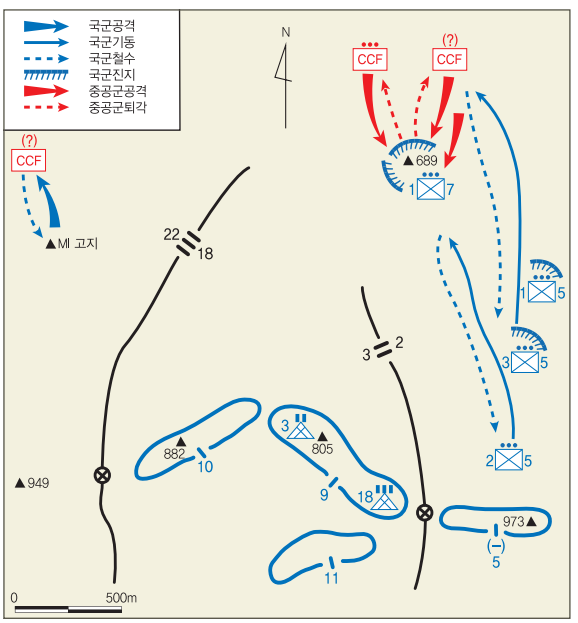
4월 2일 오후 7시,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마친 중공군은 689고지를 향해 세 방향에서 쇄도하였다. 이때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8연대 2대대 7중대 1소대는 이들로부터 협공을 받자 동굴진지로 대피한 후 진내사격을 요청해 이들을 30분 만에 격퇴하였다. 제1소대는

다음날 새벽 3시에 가해온 중공군의 2차 공격마저 격퇴하였으나, 대대 OP에서 이 전투를 지휘하던 대대장을 비롯한 정보참모 및 작전참모 등이 중공군의 포탄에 의해 전사하였다.

한편 연대장(朴敬遠) 대령은 위력수색대가 중공군의 동굴거점 확인에 실패하자, 항공정찰을 요청하여 689고지 아래에 구축된 동굴을 확인하고 이를 파괴할 것을 제3대대장에게 지시하였다. 오후 2시 30분 주저항선을 출발하여 5시간 만에 고지 기슭에 도달한 파괴조는 고지 북쪽 400m에 있는 동굴거점을 발견하고 TNT로 폭파하였다.

689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중공군은 4월 5일 새벽 3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집중된 화력의 엄호 아래 2개 소대규모의 중공군이 파상공격을 가해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동굴진지로 대피한 제1소대를 구출하기 위해 제9중대를 급파하였으나,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4월 7일 새벽 5시 40분, 제2중대와 수색중대로 편성된 공격부대가 689고지를 공격해 수류탄전과 육박전으로 빼앗겼던 689고지를 오전 7시 30분에 탈환하였으나, 강력한 포격지원을 받는 중공군 2개 중대의 역습으로 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였다. 이날 오후 1시 10분에 제3대대는 미 공군 F-84기의 강력한 네이팜탄 공격과 3개 포병대대의 포격이 종료되자 689고지에 대한 3차 공격을 단행해 오후 3시에 이를 탈환하였다. 잠시 후 고지에서 물러났던 중공군이 1개 대대병력으로 역습을 가해오자 대대는 다시 고지를 내어주고 철수하였다.



모든 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689고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689고지에 대한 재공격 명령을 받은 제3대대는 고지 서쪽과 남쪽에 1개 중대씩을 배치하여 공격에 나섰다. 이에 앞서 미 공군기는 1천 파운드 네이팜탄 112발을 목표 일대에 투하해 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오전 10시 30분 공격개시선을 출발한 대대는 전차포의 지원 아래 돌격을 감행하여 오후 1시경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병력을 증원받은 중공군의 반격에 다시 고지에서 후퇴하였다.

그동안 네 차례의 공격에서 689고지 확보에 실패한 연대는 제3대대의 3개 중대로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격은 제4차 공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제3대대장 김인걸(金仁杰) 중령의 요청을 연대장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다. 오후 5시 20분에 시작된 이번 공격에서 대대는 중공군 160명(추정)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리며 목표 고지를 차지하였다. 이후 대대는 방어임무를 제2대대 5중대에 인계하던 4월 9일 저녁에 기습을 가해온 중공군의 4차 공격을 격퇴하고 인계를 완료하였다.

중공군의 5차 공격으로 양측 모두가 689고지의 9부 능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4월 10일 새벽 5시 제5중대는 대치중인 중공군을 공격해 격퇴한 후 정오 무렵 고지를 제6중대에 인계하였다. 그러나 제6중대는 중공군 2개 중대의 공격에 고지를 내어주고 밤 9시경 후퇴하였다.

이처럼 689고지의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연대장은 대부분이 전투 유경험자로 구성된 연대수색중대를 고지탈환에 투입하였다. 4월 12일 새벽 1시 공격에 나서 목표로 진격한 이들은 백병전을 펼친 끝에 아침 6시가 조금 지날 무렵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1개 중대 병력으로 반격을 시도한 중공군의 7차 공격에 다시 고지를 넘겨주었다.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던 사단장은 병력을 축차 투입해서는 목표를 완전히 탈환할 수 없고 병력손실만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최종공격을 결정하였다. 사단장은 제18연대에 689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면서 제23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하였다. 미공군기 F-84 7개 편대가 중공군 포진지에 네이팜탄 50발을 투하하고 사단의 포격지원이 이루어진 4월 11일 밤 9시 40분에 주공인 제1대대는 목표로 향하였다. 자정이 지난 4월 12일 0시 55분, 고지를 정면에서 공격한 제1중대가 중공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마침내 689고지를 점령하여 끈질기게 이어졌던 공방전을 종료할 수 있었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3사단은 1953년 4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기간 동안 중공군 146명(추정 사살 307명 제외)을 사살하고 307명을 살상(추정)하였으며 2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사단도 78명이 전사하고 223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단은 이번 전투기간 중 7차례의 중공군 공격을 격퇴하는 한편 8차례의 반격을 통해 689고지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여 중공군의 전진거점 탈취기도를 좌절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군단의 주저항선을 방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금성 샛별고지 전투

[金城 샛별高地 戰鬪, 1953. 5. 14.~16.]

개요

국군 수도사단 기갑연대가 1953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중부전선인 금성지구 샛별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199사단 제596연대의 공격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1953년 5월 12일, 중공군 제60군 예하의 제180사단이 국군 제5사단의 텍사스고지를 공격하면서 금성돌출부 정면의 전초진지에 대한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중공군 하계 제1단계 공세'인 이 공격은 본공세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953년 4월 28일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이를 지원하는 한편 본공세의 기도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급 이하의 소규모 전초진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금성돌출부의 수도사단 전초진지인 샛별고지도 중공군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샛별고지가 포함된 금성지구는 표고 500~1,000m 고지들이 가로지르고, 이 고지들은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금성천에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샛별고지는 금성 서남쪽에 위치한 표고 470m의 고지로서 473고지와 477고지, 512고지 등에 의해 우측과 후방으로부터 자연스레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 깊은 계곡과 넓은 개활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금성지구 서남쪽 견부였던 샛별고지는 수도사단의 전초진지로서 이곳을 잃을 경우 금성지구 서측방이 노출되어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이 와해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체결을 앞두고 있던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할 고지였다.

당시 샛별고지 일대에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예하의 제3대대가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3대대장은 고지 동남쪽 1km 지점의 512고지에 대대관측소를 설치하는 한편 샛별고지에는 제11중대를 배치한 후 고지 전방에 철조망을 가설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진지보강에 주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5월 14일 새벽 1시,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한 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고,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제11중대의 우측정면으로 돌진해왔다. 중대는 각종 박격포로 중공군의 접근로 상에 차단사격을 실시하는가 하면 진내사격으로 약 3천 발의 포탄을 진지 정면에 집중시켰다.

30분이 경과할 무렵 중대는 진지 앞으로 몰려든 중공군을 맞아 수류탄전을 실시하였고, 우측에 배치된 제3소대는 중대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과 백병전을 펼치는 상황에 처하였다. 제3소대는 치열한 육박전을 펼치며 완강히 저항한 끝에 중공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새벽 3시 50분경에는 중대원들이 진지 밖으로 나가 진내사격으로 혼란에 빠진 중공군을 직목동 계곡으로 격퇴시키고 고지를 고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제3소대는 중공군 28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8정과 수류탄 80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5월 16일 자정이 지난 직후인 새벽 0시 10분, 첫 번째 공격에서 샛별고지 탈취에 실패한 중공군은 제2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약 30에 걸친 포격에 이어 3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제11중대 진지를 향해 접근하자, 새벽 0시 40분에 중대장은 포병의 진내사격을 다시 요청하였다. 진내사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중공군은 사격이 멈추자 진지 전방 50~100m까지 육박하여 양측 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1시간이 경과할 무렵 병력을 증강한 중공군은 파상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로써 제11중대는 백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중대진지 전면에 매복조를 이끌고 적정을 살피고 있던 제3소대 3분대장 백재덕 이등중사는 매복진지가 돌파되면 중대의 주진지가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하고 진지 앞으로 다가서는 중공군을 향해 소총사격과 수류탄 투척하였다. 그러나 한 무리의 중공군이 진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매복조는 이들과 백병전을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날 무렵, 중공군 제2파가 진지로 접근해 그 중 일부가 진지 안으로 진입하여 교전이 벌어졌고, 이들은 모두 매복조에 사살되었다. 그러나 잠시 후 제3파가 다시 진내로 돌격하자, 백재덕 이등중사는 분대원들과 함께 중공군을 격퇴하여 샛별고지는 국군의 수중에 남게 되었으며, 그런 공로로 백재덕 이등중사는 태극무공훈장의 주인이 되었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수도사단 기갑연대는 이번 전투에서 중공군 사살 413명, 추정사살 210명, 포로 2명과 다발총 36정 및 수류탄 205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연대도 4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수도사단 기갑연대는 1953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샛별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제199사단 제596연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하여 금성지구 서측지역의 전선 안정을 도모하고, 유엔군측이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영웅』 (2003)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1129일간의 전쟁 6.25』 (2014)

【손규석 집필】

854고지 및 812고지 전투

[854高地 및 812高地 戰鬪, 1953. 6. 1.~7. 17.]

개요

국군 제12사단이 1953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동부전선 서화계곡 부근 854고지 및 812고지 확보를 위해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1사단 및 제45사단과 2차에 걸쳐 실시한 공방전이다.

전개과정

1952년 11월 8일에 창설된 국군 제12사단은 같은 해 12월 말 미 제10군단에 편성되어 미 제45사단으로부터 작전임무를 인수하면서 854고지-812고지를 중심으로 한 미네소타선(Minnesota Line) 상의 군단 우측전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후 사단은 휴전회담 타결을 기조로 한 군의 작전개념에 따라 요충인 854고지-812고지 일대를 방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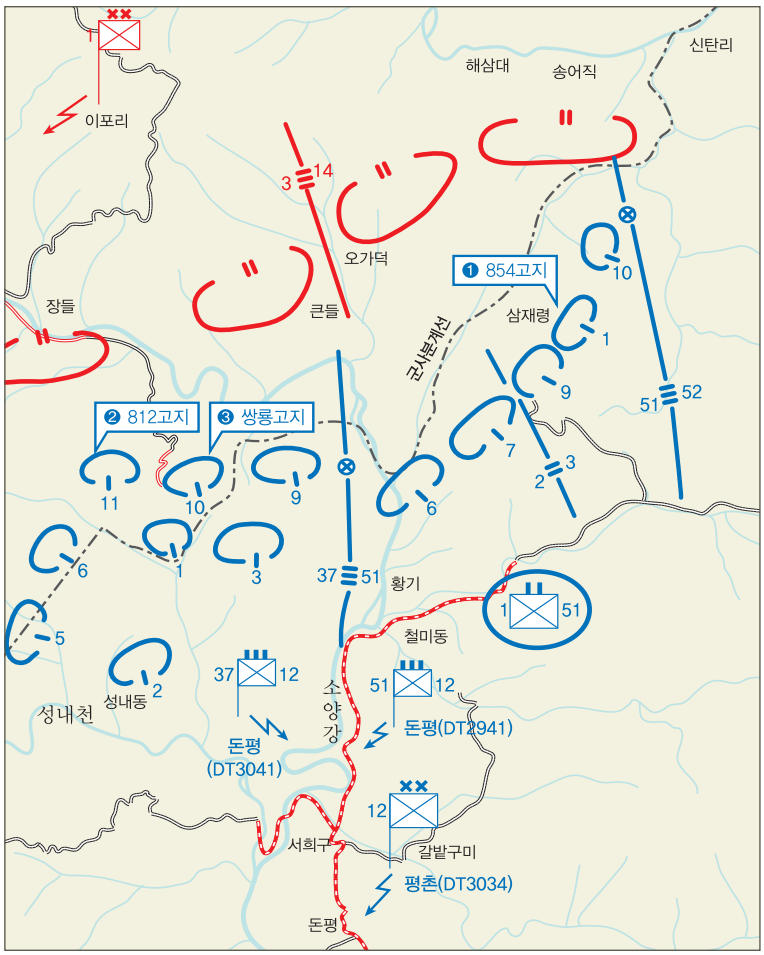
사단이 담당하게 된 작전지역은 중동부전선의 요충인 펀치볼 동북방에 인접한 표고 700~1,000m의 고봉이 즐비한 지역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소양강과 그 지류인 성내천이 동서로 흘러 소양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소양강을 따라 발달된 서화리 계곡은 인제로 이어지는 주요 접근로이고, 소양강 동안과 서안에 위치한 854고지와 812고지는 서화리 계곡을 감제하는 전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 지형이었다. 남강과 소양강 분수령인 854고지와 간무봉 동남쪽 능선상의 연봉인 812고지는 그 일대가 횡격실을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국군 제12사단은 예하의 제52연대를 우측 591고지-829고지 일대에, 제51연대를 중앙 854고지를 중심으로 한 삼재령 일대에 그리고 제37연대를 좌측 812고지를 중심으로 한 성내천 북안에 두었다. 이로써 8개 대대를 주저항선과 예비진지에 배치한 사단은 주요 거점에 동굴호와 장애물을 구축해 진지를 보강하고 위력수색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단 정면에는 약 9,730명에 달하는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1사단이 우측에 제2연대, 중앙에 제3연대 그리고 좌측에 제14연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선에 5개 대대를

배치하고 4개 대대를 예비로 둔 채 진지보강과 소규모 정찰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또한 전선교착 기간을 이용해 견고한 화력거점을 구축하고 포병진지를 동굴화하여 공중폭격과 대 포병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 1953년 6월 1일 오후 4시, 북한군 제3군단이 각종 포 200문을 동원해 국군 제12사단의 정면을 포격함으로써 7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 854고지-812고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양측 포격전에 이어 오후 10시를 전후하여 북한군 제45사단 예하의 제89연대와 제91연대는 1개 대대씩으로 국군 제37연대와 제51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812고지와 854고지를 공격하였다. 854고지를 방어하던 제51연대 3대대는 북한군의 반복된 공격에 진지를 상실하였으나, 포병 지원을 받으며 백병전을 펼친 끝



에 진지를 회복하였다.

812고지의 제37연대 3대대는 소양강을 우회한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맞아 교전을 벌였다. 북한군은 당초 812고지에서 동쪽으로 1km에 있는 그리고 후에 '쌍룡고지'로 불리게 된 무명고지와 854고지를 공격한 다음 자정 무렵 집중포격과 함께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대대는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완강히 저항한 결과 무명고지와 854고지를 방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812고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제37연대장 김재명(金在命) 대령은 연대 예비인 제1대대에 812고지 탈환을 명령하였다. 6월 2일 새벽 1시, 대대장 박정인(朴定仁) 중령은 대대병력을 이끌고 고지 정상으로 돌진해 북한군을 격퇴한 후 제3대대 11중대에 고지를 인계하였다. 그러나 새벽 2시 40분 고지에서 물러난 북한군 2개 중대가 후방차단과 함께 반격을 가하자 제11중대는 방어선이 돌파되어 다시 고지를 상실하였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에 812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대대는 약 3시간 후 제2차 역습에 나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펼쳤으나 사상자가 속출하여 고지 8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공방전은 이날 일몰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늘어나게 된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단행하였다.

전투 개시 3일째인 6월 3일 제37연대는 사단 수색중대와 제52연대 5중대를 지원받아 제3차 역습에 착수하였다.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장 김백영(金白泳) 중령은 유엔군기와 포병 지원 아래 제7중대로 야간역습을 감행하였으나 고지 탈환에 실패하였으며, 초월공격을 실시한 사단 수색중대도 3시간 만에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이날 밤 9시가 넘은 시간,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812고지를 증원하는 징후를 보이자, 사단장 윤춘근(尹春根) 준장은 제52연대 2대대를 제37연대에 배속하면서 812고지에 대한 역습계획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 역습은 휴전협정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거나 공산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군단장 화이트(Isac D. White) 중장의 지시로 보류되었다.

이와는 달리 북한군은 6월 5일 밤 10시 30분경 1개 대대로 제37연대 3대대가 배치된 812고지 우측의 무명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고지는 후일 '쌍룡고지'로 명명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제10중대장 윤길병(尹吉炳) 대위는 북한군이 진지로 밀려들자 동굴진지로 들어가 투항을 거부하고 권총 자결하였다. 6월 6일 새벽 4시경 고지가 피탈되자, 제37연대장은 배속된 제52연대 2대대에 고지를 탈환하고 제10중대를 구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이날 밤 11시 무렵까지 6차에 걸쳐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끝내 임무달성에 실패하였다.

6월 7일 제37연대장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일부 병력의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812고지 동쪽 능선상 주진지를 인수한 제52연대장 장호강(張虎崗) 대령은 제2대대장 한완수(韓完洙) 중령에게 무명고지와 A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6월 8일 오후 2시, 공격을 개시한 제2대대는 포병의 포격지원 아래 북한군을 격퇴하고 오후 3시 50분에 무명고지를 탈환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고지는 제52연대의 별칭을 따라 '쌍룡고지'라 불리어졌다.

제2대대는 여세를 몰아 소양강 남안의 A고지를 공격하였으나, 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채 다음날인 6월 9일 새벽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 결국, 제2대대를 대신한 제3대대가 목표인 A고지의 공격에 나서 오후 5시 50분에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이어졌던 제1차 전투는 종료되었다.

한편 사단의 지시로 제37연대 주진지를 인수해 소양강 서안–쌍룡고지–812고지 전면–758고지–성내천 북안에 이르는 전투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52연대는 7월로 접어들어 북한군의 공격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쌍룡고지와 812고지 정면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854고지–쌍룡고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7월 16일 오후 10시 30분, 북한군 제1사단은 포탄 약 5,000발을 국군 제52연대 정면에 집중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날까지 이어진 제2차 전투의 서막이었다. 이들은 812고지 동북쪽 능선을 공격한데 이어 쌍룡고지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쌍룡고지–812고지 능선에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1대대는 약 20분 후 북한군이 협공을 펼치며 진지 안으로 들이닥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대는 다음날까지 일진일퇴 격전을 펼쳤으나, 끝내 고지를 빼앗긴 채 제2차 전투를 종료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12사단은 북한군 368명 사살 및 524명 살상(추정)하고 10명을 생포하였으며, 각종 기관총 27정과 다발총 4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전사 323명과 부상 763명, 실종 3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12사단은 1932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서화계곡 동쪽의 854고지 방어에는 성공하였으나, 812고지와 쌍룡고지를 상실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351고지 전투

[351高地 戰鬪, 1953. 6. 2.~7. 18.]

개요

국군 제15사단이 1953년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강원도 고성 북방 351고지 일대에서 북한군 제7군단 예하 제7사단 및 제3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포로송환의 이견으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던 휴전협상이 스탈린 사망 이후 재개되어 휴전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산군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따른 점령지역을 확대하고 전쟁승리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195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전선에서도 전술적 요충인 351고지의 확보를 위해 공방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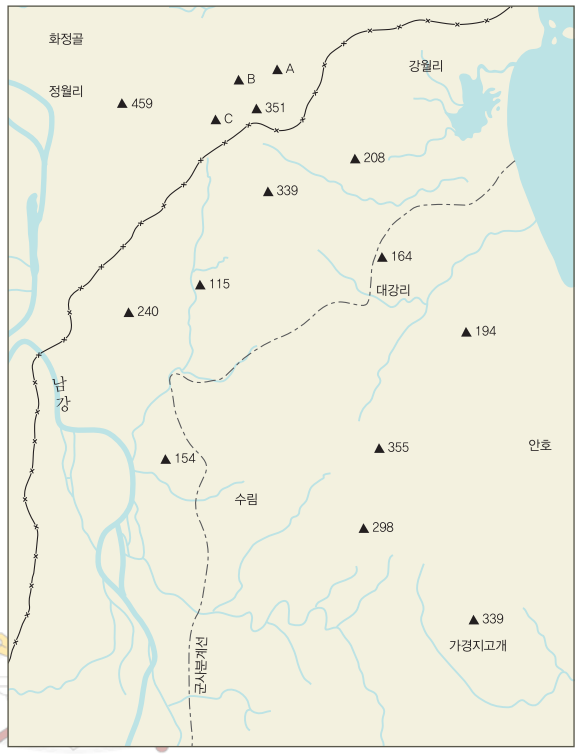
고지의 형태가 마치 닻처럼 생겼다하여 '앵커 힐(Anchor Hill)'로 불린 351고지는 강원도 고성 북방 최고봉인 월비산(△459)에서 동쪽으로 향하다가 남쪽으로 바뀌는 능선의 꼭짓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고지는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저지대를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비산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로서, 국군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초진지는 물론 주저항선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중요성으로 양측은 1951년 10월 중순부터 1953년 7월 중순의 휴전 직전까지 7차에 걸쳐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는데, 국군은 수도사단, 제11사단, 제5사단, 제15사단이 임무를 교대하며 북한군 4개 사단과 공방전을 실시하였다.

351고지 북쪽에는 북한군 제7군단(군단장, 李離法 중장)이 제3사단(사단장, 吳振宇 소장)을 남강 서안의 산악지대에, 제7사단(사단장, 李益成 소장)을 그 동쪽 구릉지에 배치하고 제9사단을 통천에 예비로 집결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 2개월에 걸쳐 예행연습을 실시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953년 1월 28일 사단교대계획에 따라 제5사단의 전선을 인수한 국군 제15사단은 좌측에 제38연대, 우측에 제50연대를 배치하고 제39연대를 예비로 두었다. 이에 따라 제38연대장 이동화(李東和) 대령은 351고지로부터 동해안 37고지까지의 방어임무를 제3대대에 부여하였고, 그 중에서 351고지는 제9중대가 전담하였다. 이때 351고지는 8~9부 능선에 터널로 된 교통호와 벙커 그리고 동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외곽을 철조

망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5월 하순에 접어들어 부대활동이 활발했던 북한군은 6월 2일을 기해 국군 제15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35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3차에 걸친 공방전의 서막이었다. 이날 자정 무렵, 포격의 지원 아래 북한군 제7사단 53연대 예하 제2대대는 351고지를 정면과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고지를 지키던 국군 제38연대 9중대는 진입을 시도하는 북한군을 진내사격을 요청해 격퇴하였다. 물러났던 북한군은 오전 8시에 2개 중대로 재공격을 시작하였고, 이후 수차례 공격을 거듭한 끝에 오후 4시경 351고지 북단을 점령하였다.



이에 앞선 새벽에 사단장 지시에 따라 제50연대 3대대를 통합 지휘했던 제38연대장은 오후 8시를 기해 새로 배속된 제50연대 1대대에 351고지의 탈환을 지시하였다. 6월 3일 새벽 3시 20분, 공격에 나선 제1대대는 고지정상까지 진출해 격전을 펼치던 중 북한군이 병력을 증원하여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오전 9시 30분, 대대는 미 제5공군의 공중폭격과 포병대대 및 전차소대의 포격지원 아래 실시한 제2차 역습이 실패한 후 오후까지 제3차와 제4차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불리한 지세와 병력의 열세로 모두 실패하였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고지 8부 능선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던 제9중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600m 남쪽의 339고지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전투 개시 3일째인 6월 4일, 재편성을 마친 제50연대 1대대가 오전 7시에 실시한 제5차 역습이 1시간 30분 만에 실패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보다 과감한 작전을 펼치기 위해 오전 10시부로 작전참모인 함성렬(咸晟烈) 중령을 제38연대장 대리로 임명해 제6차 역습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351고지에 대한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제50연대 2대대가 6월 5일 하루 동안 4차

에 걸쳐 공격을 감행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사단 예비 병력을 모두 투입해 역습을 펼쳤음에도 많은 사상자만 발생할 뿐 목표인 351고지를 탈환하는데 실패하자 6월 6일 오전 5시에 공격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6월 2일부터 시작된 제1차전은 351고지를 빼앗긴 상태에서 5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한편 6월 13일 사단장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져 미 지휘참모대학 입교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백인엽(白仁燁) 소장이 제2대 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신임 사단장의 결정에 따라 6월 15일 제39연대는 351고지를 공격하였고, 이로써 제2차전이 시작되었다.

유엔해군 함대와 유엔공군기 편대, 그리고 지원포병과 전차가 351고지의 북한군 진지를 포격한 후 오전 10시에 제39연대 1대대는 목표를 향해 진격하였다. 대대는 북한군의 저항에 막혀 공격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지원 병력인 제3대대마저 대대장이 후송되는 상황에 처하자, 사단장은 오후 8시에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날 제1대대 공격에 맞춰 A고지 탈환에 나선 제2대대와 C고지를 공격한 제38연대 2대대도 고지탈환에 실패하고 339고지로 복귀하였다.

이날의 전투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소규모 작전으로는 시간낭비와 병력소모만 초래할 뿐 휴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351고지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상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351고지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제2차전도 개전 하루 만에 종료되었다.

한편 351고지를 장악한 북한군 제7사단은 제51연대를 투입해 351고지와 주변의 고지들을 1개 대대병력으로 강화하고 351고지에 관측소를 설치해 진지를 강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7일 자정 무렵에 북한군은 제38연대 지역에 1,500여 발의 포격을 집중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5사단이 맞는 세 번째 전투의 시작이었다. 이때 제38연대장 유재성(劉載成) 대령은 새로 부임한 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소장의 지시로 북쪽 정면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339고지에 중점을 두어 351고지의 북한군을 견제하고 있었다.

제38연대장은 진지를 고수하고 접근하는 북한군을 진지 앞에서 저지하도록 각 대대장에게 명령하는 한편 제26포병대대에 대포병전을 펼치도록 지시하였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339고지를 방어하던 제1대대 3중대는 대대규모 병력을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수류탄전을 감행한 끝에 다음날인 7월 18일 새벽 3시 무렵에 물리쳤다. 이때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진지 앞으로 접근한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야간기습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18일 오후 11시 40분에 정찰활동을 실시한 후 2개 대대병력으로 제38연대 1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339고지의 제3중대 전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대대장은 제1중대의 일부 병력으로 제3중대를 지원하고 제

2중대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339고지를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고지를 상실하였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즉시 진지를 회복하도록 제1대대장에게 명령하였다. 진지 회복에 나선 제1대대는 포격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펼쳐 이날 새벽 3시 40분에 잃었던 고지를 되찾았으나, 북한군의 반격에 밀려 고지를 다시 내어주고 고지 뒤편으로 철수하면서 이틀에 걸친 제3차전을 마무리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15사단은 북한군 636명을 사살하고 1,186명을 살상(추정)하였으며, 포로 14명을 획득하였다. 또한 직사포 및 고사포 13문을 파괴하고 각종 기관총 11정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478명이 전사하고 1,4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15사단은 1953년 6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어진 이 전투에서 351고지와 339고지를 북한군 제7사단 및 제3사단에 넘겨준 채 휴전에 임하였고, 남강 일대를 포함한 고성 북방 동해안에 인접한 저지대를 잃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비산 · 351고지전투』 (1990)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2010)

【손규석 집필】

미주리선(949고지–973고지–883고지) 방어전

[미주리線 防禦戰, 1953. 6. 10.~14.]

개요

국군 제5사단이 1953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북한강 상류 만곡부 동안의 949고지–973고지–883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80사단 등과 실시한 주저항선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1953년 5월 27일 최후공세 1단계 작전에 이어 2단계 작전인 '6월 공세'로 전환한 중공군은 공격목표를 전 전선의 대대급 진지로까지 확대하여 1951년 춘계공세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번 공세의 주공부대인 중공군 제20병단은 공격준비를 완료

한 후 북한강과 금성천 합류지점의 국군 주저항선 공격에 주력을 투입하였다.

이번 공세에서 중공군 제20병단 예하 제60군의 공격목표가 된 국군 제5사단의 주저항선인 일명 '미주리선(Missouri Line)', 다시 말해 949고지-973고지-883고지를 잇는 이 일대는 북한강 상류와 금성천이 합류되는 삼각 돌출부로부터 어은산 서남쪽의 통선곡에 이르는 10km의 산악지대로서 700~900m 내외의 고지들이 깊은 계곡과 가파른 능선을 이루고 있었다. 1951년 추계공세 당시 확보한 이곳은 어은산 남쪽 도피막까지 진출한 미 제10군단 우측과 금성천 북쪽으로 돌출한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을 연계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사단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이었다.

1953년 4월 15일 국군 제2군단장 정일권(丁一權) 중장의 지시로 텍사스고지 전투에서 병력손실이 컸던 제3사단으로부터 진지를 인수한 국군 제5사단장 최홍희(崔泓熙) 준장은 제36연대를 주저항선 좌측의 548고지-949고지(우두산)에, 제27연대를 우측의 973고지-883고지에 배치하고 제35연대를 황병동 일대에 예비로 보유하였다. 주저항선 상에 배치된 연대들은 삼각봉-두경봉-748고지(피의 고지)-689고지(텍사스고지)-오봉능선-승리봉에 소대규모의 전초를 운용하고 있었다. 사단 병력은 1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계속된 전투로 신병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비는 완전한 편제를 유지하였고, 포병대대와 중포중대 및 전차중대의 화력지원이 가능하였다.

국군 제5사단 전방의 중공군 제60군(군장, 張祖諒)은 예하의 제181사단을 주공으로 하여 973고지 방향에 지향하는 한편 제180사단을 조공으로 투입하였고, 배속된 제33사단은 우측에 인접한 국군 제20사단 정면에서 견제공격으로 운용하면서 제179사단을 예비로 편성하였다. 이들의 병력은 약 2만 4천명으로 추산되었고, 2개 포병연대의 포병지원과 박격포 238문, 무반동총 89정 및 로켓포 63문 등 보병화력의 지원이 가능하였다. 공격에 앞서 예행연습까지 실시했던 이들은 공격 전날에 약 2개 대대병력을 비밀잠복지역인 '둔병동(屯兵洞)'에 잠입시키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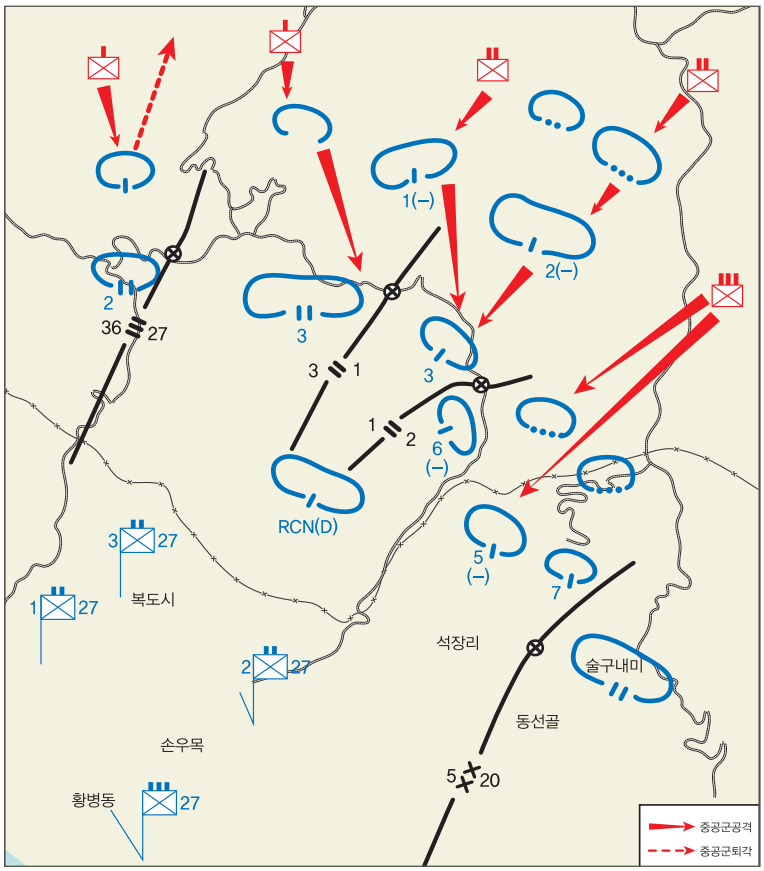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완료한 중공군 제60군은 1953년 6월 10일 일몰과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송정-가바우골 일대에 병력을 집결시켰던 중공군 제181사단은 기만작전으로 제36연대 지역의 949고지를 견제공격한 후 예하 제541연대가 오봉능선 좌우에서 973고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오후 9시경 전초중대를 공격한 중공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돌파하고 제27연대 3중대의 973고지와 제6중대의 883고지로 쇄도하였다.

사단 포병단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오후 11시경 주저항선의 핵심인 973고지와 883고지의 일부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각 고지에 배치된 1개 중대 병력으로는 각각 연대병

력으로 파상공격을 펼치는 중공군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약 40분이 지나 973고지가 돌파된 데 이어 10분 후에는 883고지마저 중공군의 수중에 넘어갔다.

전황을 검토한 사단장은 6월 11일 사단예비인 제35연대장 박창원(朴昌源) 대령에게 973고지를, 제27연대장 최영규(崔英圭) 대령에게 사단수색중대 및 제35연대 수색중대와 함께 883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날 새벽 4시 30분에 제27연대는 제2대대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중공군의 화망에 걸려 고지탈환에 실패하였다.

사단장은 군단장 정일권(丁一權) 중장 지시로 제3사단 22연대가 배속되자, 883고지에 대한 역습계획을 수정하여 제22연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973고지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제35연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중공군의 포격으로 고전하던 중 제2대대 7중대의 초월공격이 주효하자, 과감한 돌격으로 973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7시경, 제2대대는 강력한 포격을 동반한 중공군의 좌우 협공으로 30분 만에 고지에서 물러난 후 사단장 명령에 따라 야간방어에 임하였다. 883고지 공격을 위해 북한강을 건넌 제22연대도 오전 11시 30분 제3대대와 제1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중공군의 수류탄 투척과 기관총 사격으로 병력의 1/3을 상실한 채 오후 7시부로 야간방어에 들어갔다.

6월 11일에 실시한 제1차 역습에 실패한 사단은 다음날인 6월 12일 새벽 4시를 기해 제35연대와 제22연대로 두 번째 역습을 개시하였다. 제35연대는 전날과 같이 공격을 개시해 제3대대가 고지 500m 전방까지 진출하였으나, 제2대대는 진격이 도중에 저지되고 오히려 중공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남쪽으로 밀리는 상황에 처하였다. 같은 시간에 공격에 나선 제22연대장 최병순(崔炳淳) 대령은 제2대대로 973고지와 883고지 중간의 무명고지를 점령한 후 883고지를 고립시켜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제2대대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결국엔 실패하였다.

이날 오전 군단장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의 방문을 받은 사단장은 기필코 원진지를 회복하겠다는 결의 표명과 함께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제3차 역습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2연대는 제1대대가 883고지 정면을, 제3대대가 남서쪽 능선으로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중공군의 화망과 수류탄 투척으로 병력손실만 입은 채 중공군의 포위를 피해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제22연대와 제35연대에 의한 역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제36연대를 역습에 투입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개시 시간까지도 부대 재편성이 완료되지 않았던 제35연대의 973고지 역습은 자동적으로 중지되었다.

6월 13일 새벽, 제27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제36연대장 고광도(高光道) 대령은 이날 일몰 무렵에 예하 대대를 973고지와 883고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대기 지점에 투입시키고 공격준비를 지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4일 새벽 2시에 중공군은 증원 병력인 제181사단으로 제22연대 중앙과 좌측방에 대한 돌파를 시도한 끝에 오전 10시 30분경 883고지 남쪽 1~1.3km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중공군이 증원부대를 투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역습중지와 접촉선고수를 위해 제36연대를 제2선으로 이동시켰다. 중공군은 제180사단과 제203사단 609연대를 좌측 전선에 투입하여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사단 전 정면을 압박하였다. 좌측 전선을 방어하던 제27연대는 중공군 2개 연대 공격에 저지선이 와해된 채 북한강 상의 교량을 향해 밀려 내려왔다. 우측 전선의 제22연대는 5개 대대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았고, 중앙의 제35연대도 중공군 인해공격에 교전 1시간 20분 만에 진지가 완전히 돌파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36연대에 북한강 상의 교량 부근에 교두보를 구축하여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날 오후 11시경 사단 전선은 완전 와해되었고, 병력은 중공군의 야간 추격에 쫓겨 황병동 계곡으로 밀려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단장은 현 방어선인 미주리선 지탱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제5사단을 그 남쪽 금성천과 북한강이 이어지는 방어선인 '아이슬란드선(Iceland Line)'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6월 15일 0시 50분을 기해 국군 제5사단은 신방어선으로 철수를 단행하여 오전 7시에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사단은 철수작전에 이어 새벽 2~3시를 기해 북한강 상의 작전용 교량을 폭파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의 추격에 밀려 분산된 채 북한강에 도달한 병력은 교량이 이미 파괴됨에 따라 헤엄을 치거나 보조물을 이용해 강을 건너야 했고, 많은 무기와 장비를 포기해야만 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제3사단 22연대 배속)은 중공군 4,677명을 사살하고, 4,983명을 살상(추정)하였으며, 포로 20명을 획득하였다. 또한 박격포 2문 및 소총 22정 등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836명이 전사하고 1,619명이 부상, 71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5사단은 1953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주저항선인 949고지-973고지-883고지를 상실하고 금성천-북한강을 연결하는 지역에 신방어선을 편성하여 북한강 상류 만곡부 동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간의 전선연계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M1고지 전투

[M1高地 戰鬪, 1953. 6. 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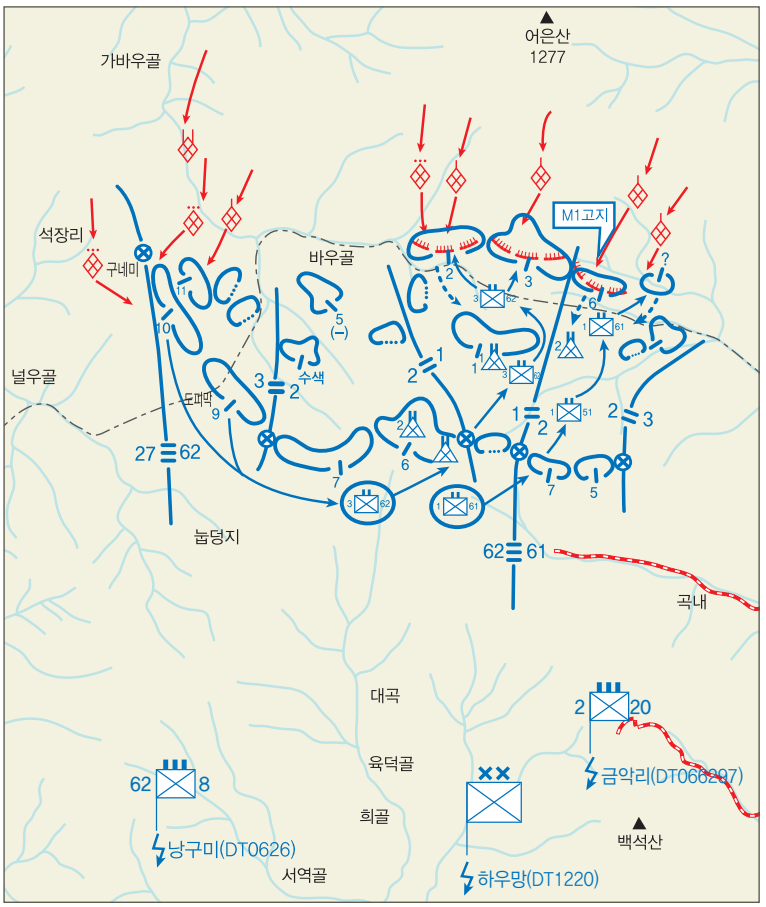
개요

국군 제20사단이 1953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양구 북방 1090고지 일대에서 전초인 M1고지를 공격한 중공군 제60군 제33사단을 격퇴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휴전협정 조인을 약 1개월 앞두고 중공군은 하계공세를 감행하였고, 그 여파는 양구 북방 1090고지(크리스마스고지) 우측에 위치한 M1고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53년 6월 10일 중공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투는 14일 동안 M1고지를 놓고 중공군이 22회를 공격해 16회를 점령하였고, 국군이 18회를 반격하여 끝까지 고지를 확보한 고지 쟁탈전으로 확대되었다.

이 전투가 실시된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 1090고지 일대는 어은산과 1218고지 등 표고 900~1,000m에 달하는 고지들이 험준한 산세를 이룬 지역이었다. 고지 모양이 흡사 M1소총과 흡사하다 하여 명명된 M1고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전투전초 진지인 1090고지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에 딸린 무명고지였다. 특히 이 고지는 양측



의 주저항선 진지보다 표고가 낮고 감제되는 지형으로 전술적으로 1개 중대 이상의 운용이 어려운 곳이었다.

이 무렵 국군 제20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 예하의 제33사단이 어은산을 중심으로 동서에 제98연대와 제99연대를 배치하고, 제97연대를 예비로 두고 있었다. 이들은 전체 병력의 60%가 3년 이상 군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선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군 제20사단은 1953년 2월 9일에 창설된 신설사단으로 5월 15일 제7사단으로부터 전선을 인수해 6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에는 예하의 제62연대와 제61연대를 전선 좌우에 각각 배치하고 제60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60군 주력이 6월 10일 금성돌출부의 우측방을 집중 공격할 무렵, 제33사단은 우측방 동쪽의 국군 제20사단 방어선인 1090고지-938고지-M1고지 일대를 공격하였다. 이날 오후 9시 30분,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중공군 제33사단은 대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제61연대 2대대 6중대가 방어하고 있던 M1고지를 공격하였다. 유무선이 두절된 채 고지 주봉을 빼앗기고 고지 일각에서 교전 중인 제6중대의 전세가 극히 불리하다는 급보에 접한 연대장 김인철(金仁哲) 대령은 사단장 송석하(宋錫夏) 준장의 승인 하에 사단 수색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하여 병력을 증원하였다.

이에 따라 주저항선을 사단 수색중대에 인계한 제5중대는 6월 11일 오전 6시를 기해 고지탈환을 위한 역습에 나서 2차례의 돌격전을 펼쳤으나, 유리한 지형에 이미 진지를 강화한 중공군을 극복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병력손실이 많은 제2대대 대신 예비인 제1대대를 투입해 다음날 새벽 3시에 역습을 감행하였다.

비가 오는 날씨를 고려해 가벼운 칼빈 소총과 수류탄 20발씩만을 휴대한 채 공격에 나선 대대는 제3중대가 중공군의 화력과 수류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홀로 적진으로 돌진한 한용택(韓龍澤) 일병이 수류탄을 투척하여 적진 일부를 허무는 순간 중대가 일거에 돌격하여 오전 7시에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반격을 개시한 중공군에게 고지를 다시 넘겨주고 서쪽 기슭으로 후퇴하였다.

전투 발발 4일째인 6월 13일 새벽 3시, 제1대대는 제1중대로 2차 역습을 실시해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10분 후 중공군의 반격에 밀려 고지 아래로 후퇴하였다. 이처럼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제2대대장 최창욱(崔昌昱) 소령은 연대장 지시에 따라 제5중대로 특공대를 편성해 고지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앞선 두 차례 반격에서 모두 실패했던 제1대대장 조재준(趙在俊) 중령이 예비인 제2중대마저 투입해 제3차 역습을 감행한 끝에 오후 3시 30분 고지를 점령했으나, 자정이 지난 새벽 1시에 취해진 중공

군의 파상공격에 고지를 넘겨주게 되었다.

이처럼 M1고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던 6월 14일, 중공군은 사단의 전 정면으로 공격을 확대하였고, 이에 사단장은 예비인 제60연대 3대대를 제61연대에, 사단 수색중대를 제62연대에 배속해 전방에 배치된 연대 전력을 강화하였다. 이후 제61연대는 예하 3개 대대 모두를 동원해 교대로 M1고지 쟁탈전을 반복하였다.

6월 15일 새벽에 펼친 제3대대 특공대의 기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1대대는 제7중대와 함께 공격을 실시해 새벽 4시, 4일에 걸친 9번의 공격 끝에 M1고지를 쟁취하였고, 이어 제7중대는 방어로 전환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제7중대는 고지 서쪽으로 기슭으로 일단 철수한 후 사단 수색중대와 합세해 오전 6시에 고지를 탈환하고 오후 8시 제3대대에 이를 인계하였다.

그동안 1주일간 지속된 전투에서 제61연대는 13차례 공격을 실시해 9번 고지를 탈환하였고, 중공군도 11차례의 역습을 시도하여 고지가 24번이나 격전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6월 17일과 18일은 한 차례의 가벼운 접전만 있었을 뿐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틀간의 소강상태를 이용해 병력보충과 전열을 정비한 중공군은 6월 19일 새벽에 M1고지를 공격하였다. 고지를 방어하던 제3대대 9중대는 동서 양 방향에서 가해오는 압력에 고지를 내어주었으나, 각종 포격지원을 받으며 반격을 실시해 고지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공군의 반격이 이어졌고, 증원된 제11중대와 함께 저지에 나섰으나 방어에 실패하였다.

고지에서 물러났던 제9중대는 다음날인 6월 20일 새벽에 반격을 개시해 이미 화력거점까지 보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중공군을 제압하고 고지를 되찾았다. 이때 제9중대는 7차례에 걸친 교전으로 전투력의 절반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대대장 이동진(李東晋) 소령은 제11중대에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M1고지 전투에 3개 대대를 모두 투입했던 제61연대가 계속된 전투로 전투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중공군의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 제10군단장 화이트(Issac D. White) 중장의 고지 고수 결의까지 감안해 제60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M1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1중대는 6월 21일 새벽에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일시 고지를 빼앗긴 후 반격으로 되찾고 이어진 몇 차례의 공방전마저 제압하고 고지를 유지하였다. 전투개시 13일째인 6월 23일, 제60연대 1대대는 연대장 채명신(蔡命新)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61연대 2대대로부터 고지를 인수함으로써 14일간 이어졌던 M1고지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20사단은 중공군 980명(추정사살 1,156명 제외)을 사살하고 포로 7명을 획득하였으며, 기관총 10정 및 다발총 10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140명이 전사하고 802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8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20사단은 1953년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이 전투에서 M1고지를 끝까지 확보하여 국군 제2군단 지역에서 시작된 전투가 그 동쪽 지역의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였고, 금성돌출부 우측방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1090고지 전투

[1090高地 戰鬪, 1953. 6. 14.~18.]

개요

국군 제20사단이 1953년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의 1090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33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 쟁탈전이다.

전개과정

1953년 5월 27일 하계공세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 일명 '6월 공세'에 돌입한 중공군은 공격대상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서 국군 위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금성돌출부의 국군 전초진지를 공격함과 동시에 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 등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의 1090고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게 되었다.

작전지역인 양구 북방 1090고지 일대는 해발 표고가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문등리 서쪽의 어은산(△1277)과 1km 남쪽의 1218고지-1090고지 등이 작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고봉은 중공군이 장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국군에 대한 감제가 가능하였다. 이들 고지 중 1090고지는 중공군 주진지인 1218고지로부터 1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초거점인 크리스마

스고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M1고지 능선과 서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고지는 지형적으로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초진지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는 1953년 2월 9일에 창설된 국군 제20사단이 제7사단으로부터 전선을 인수해 예하의 제62연대와 제61연대를 방어정면의 좌우측에 각각 배치하고 제60연대를 예비로 편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62연대는 1090고지에서 좌측 제5사단 전투지경선까지 방어를 담당하였다. 이 무렵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군장, 張祖諒) 중 가장 정예사단으로 알려진 제33사단이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국군 제62연대 우측 전선 맨 앞에 위치한 1090고지는 중공군의 주요 거점인 어은산과의 거리가 2km에 불과하였고, 전투 전초진지인 크리스마스고지와는 300~400m 떨어져 있는 요충이었다. 이로 인해 중공군은 제62연대의 주저항선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1090고지를 먼저 공격하여 점령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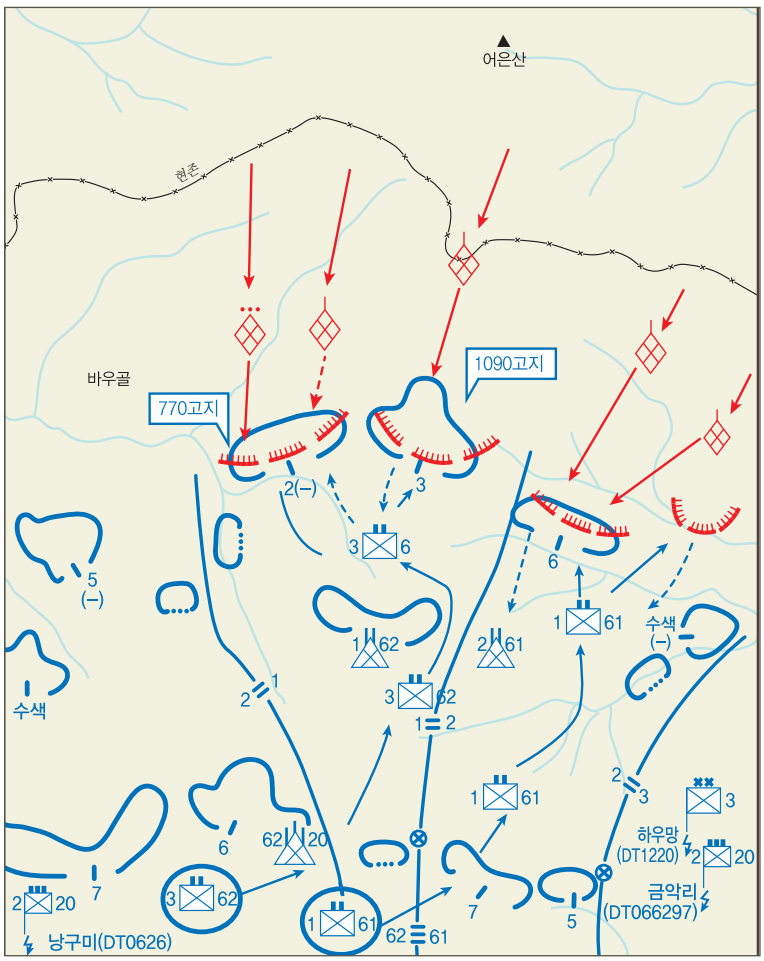
연대 전선의 우측을 맡아 1090고지의 방어를 책임지게 된 제1대대장 최희대(崔熙大) 중령은 2개 중대를 주봉과 서쪽 능선에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예비로 두었다. 이때 우측의 제3대대는 938고지와 동쪽 능선에 2개 중대를 투입하고 1개 중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6월 14일 오후 9시 30분경, 제1대대는 1090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중공군의 공격에 직면하였다. 진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2중대는 진지가 파괴되고 유선마저 단절된 상태에서 진내진입을 시도한 중공군을 맞아 진내사격을 요청하고 호 속으로 대피하였다. 진지 안으로 몰려들던 중공군은 국군 포병대대의 지원 포격으로 인해 진지에서 물러났으나, 얼마 후 후속병력과 함께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이에 중대는 진내사격을 재차 요청하였는데, 이날 야간에 중공군이 세차례에 걸쳐 공격을 하여 이런 과정이 3회나 반복되었다.

다음날인 6월 15일 새벽 제2중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에 나섰으나, 중공군의 집중포격으로 5부 능선에 머물고 있었다. 병력을 수습해 오전에 실시한 제2차 공격마저도 실패했던 중대는 병력을 양분해 제3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에서 중대는 정면공격과 함께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 중공군의 배후를 기습한 끝에 고지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날 일몰시까지 별 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던 중공군은 오후 10시를 기해 1090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2개 중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후속 병력과 합세해 진지로 쇄도한 중공군을 맞아 제2중대는 진내사격을 요청하며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결국 고지방어에 실패하고 자정 직전 고지 남쪽 기슭으로 후퇴하였다.

그로부터 4시간이 경과한 6월 16일 새벽 4시, 제3중대는 제2중대를 대신해 나선 공격에 실패하고, 오히려 중공군의 역습에 제1중대 진지를 상실하였다. 이에 사단장 송석하(宋錫夏) 준장과 연대장 홍순용(洪淳龍) 대령으로부터 고지를 일거에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제3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고지 8부 능선까지 진출한 중대는 중공군의 수류탄 투척과 자동화기 공격에 막혀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 공격을 반복한 끝에 오후 5시 40분에 1090고지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10시에 중공군의 반격이 고지 동쪽과 서쪽에서 시작되었고, 협공에 놓인 중대는 약 1시간 동안 이들의 공격을 저지한 후 고지 남쪽 기슭으로 물러남으로써 다시 고지를 내어주게 되었다.



한편 사단장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제62연대에 책임지역인 선우고지(△938)를 제7사단에 인계하고 1090고지 탈환에만 전념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선우고지를 인계하고 1090고지 공격임무를 새로 부여받은 제3대대는 6월 17일 새벽 4시를 기해 고지 동쪽과 서쪽에서 협공을 개시하였다. 동쪽에서 공격한 제9중대가 고지 정상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는 동안 서쪽으로 우회한 제11중대가 기습을 가해 공격개시 1시간 30분 만에 1090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전열을 정비한 제3대대는 2시간 후 고지 북쪽 150m 지점에 위치한 무명고지를 공격해 소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정오 무렵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대대규모 병력으로 고지 중앙을 비롯한 동쪽과 서쪽에서 반격을 단행하였다. 세 방향에서 반격을 받은 제3대대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유무선의 두절로 포격지원마저 여의치 않자, 대대장 김윤환(金允煥) 중령의 명령에 따라 오후 2시에 고지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연대장의 작전지시에 따라 6월 18일 새벽 3시 30분에 목표 A를 공격하였다. 이는 1090고지 서남쪽 능선상의 작은 무명고지로 1090고지에서 150m 지점에 위치해 감제가 가능하여 1090고지 탈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중공군은 이곳의 병력을 증강시켜 놓았으나, 공격부대인 제9중대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공격에 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오전 5시에 물러남으로써 목표 A에 대한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약 2시간이 경과한 오전 7시, 제10중대가 새롭게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고지 6부 능선에서 중공군의 집중사격에 막혀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송갑성(宋甲成) 하사를 비롯한 5명의 특공대가 편성되어 중대가 정면공격을 펼치는 동안 목표 A의 뒤편으로 잠입해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로 중공군의 화력거점을 격파하였다. 이를 신호로 총공격을 개시한 중대는 마침내 목표 A를 점령하였고, 이어 목표 B인 1090고지를 공격하여 오전 10시 50분에 이를 탈환하여 국군 제20사단이 수행한 1090고지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20사단은 중공군 615명을 사살하고 354명에게 부상(추정)을 가하였으며, 기관총 4정과 기관단총 21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53명이 전사하고 32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7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20사단은 1953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1090고지

를 고수하여 휴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두고 사단의 주저항선을 공격하려던 중공군 제60군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한편 이 일대에 대한 감제를 통해 작전운용상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북진능선 전투

[北進稜線 戰鬪, 1953. 6. 11.~14.]

개요

국군 제9사단이 1953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부전선 김화 북방 북진능선 일대에서 중공군 제24군 예하 제70사단 및 제72사단과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1953년 휴전협상의 체결을 앞둔 공산군은 하나의 고지라도 더 많이 탈취하여 군사분계선 획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대공세를 단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중공군은 중부전선상의 주요 거점도시인 김화를 공략하기 위해 저격능선, 삼각고지군, 북진능선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들 3개 능선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북진능선은 김화 북방에 우뚝 솟은 최고봉이자 천연 요새인 오성산(△1062)을 기점으로 700~900m의 고봉이 이어져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다. 이 능선은 지역 내 동쪽과 남서쪽에 형성된 개활지를 감제하고 있어 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지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북진능선의 북방에는 오랜 대일전쟁과 국공내전을 통해 전투경험을 축적한 국부군 출신이 대부분인 중공군 제24군이 율목리-어덕리 간을 점령하고 있었다. 특히 325고지-683고지 간에 제70사단과 684고지-717고지 간에 제72사단을 배치한 제24군은 이들 사단의 주력으로 국군 제9사단 정면의 3개 능선을 확보하여 휴전이 성립되기 전에 김화지구를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진능선 북쪽 A지구에는 총 병력 약 2,660명에 4개 야포진지와 1개 직사포진지, 7개 박격포진지와 13개 자동화기진지를 갖춘 제70사단 208연대가 좌측 제72사

단 214연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중공에 복종심이 강한 공산당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산악전과 유격전에 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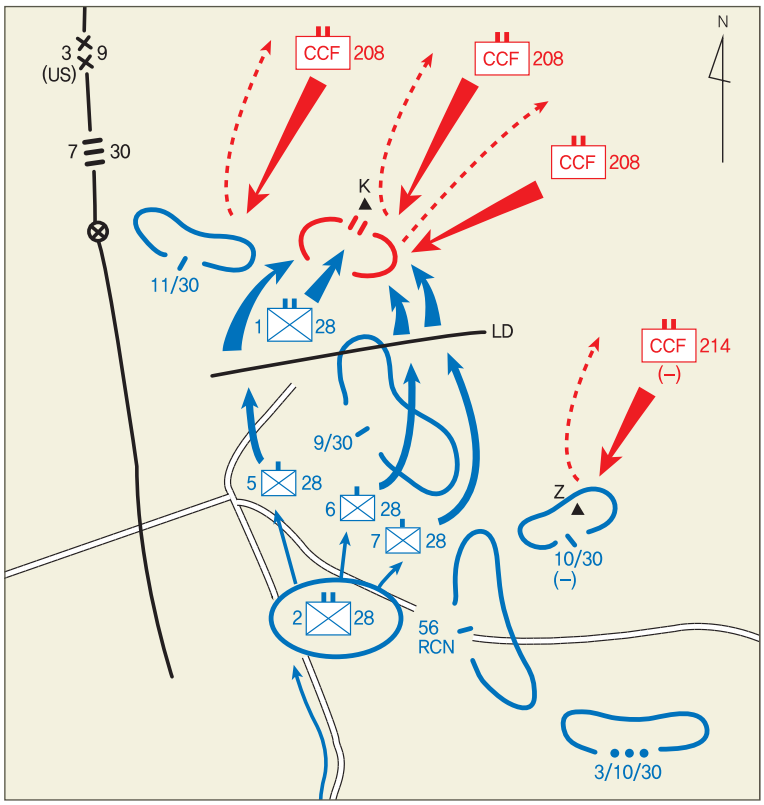
한편 1952년 10월에 있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국군 제9사단은 11월에 제2사단으로부터 전선을 인수받아 미주리선(Missoui Line)상의 회고개-상감령 사이에 주저항선을 구축한 이래 1953년 5월 7일 미 제9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중장의 명령에 따라 미 제3사단의 작전구역을 인수하여 제30연대에 북진능선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6월 10일 현재 460고지-삼각고지-하감령-510고지를 잇는 우측 전방에 제29연대를, 520고지-방아다리-탑곡리-백덕리(K고지 서남쪽) 간의 좌측 전방에 제30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사단예비로 편성하게 되었다.

휴전을 앞두고 중공군이 막바지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한 사단장 이한림(李翰林) 소장은 주저항선에 배치된 연대에게 적의 공격을 전초진지에서 격퇴하고, 사단장의 명령 없이 철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북진능선 북쪽 A지구에 배치된 중공군의 주공이 북진능선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30연대가 배치된 사단 좌측의 방어력 증강에 주력하였다.

1953년 6월 11일 오후 10시를 기해 중공군 제24군은 국군 제9사단 주저항선 전방의 4개 전초진지를 공격하였다. 제29연대와 제30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전초진지를 중공군 제70사단 208연대와 제72사단 216연대 예하 7개 소대가 동시에 공격한 것이었다. 이들 전초진지는 삼각고지(△598) 줄기에 위치해 중공군의 접근로를 가로막는 X고지(△380)와 북진능선 동쪽의 개활지를 통제하는 Z고지(△200), 그리고 저격능선 방어의 관문인 A고지(580)와 저격능선 동쪽을 감제하는 B고지(△500)로서 지형적 이점을 지닌 고지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북진능선에 대한 공격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공군의 공격이 점차 강력해지는 가운데 자정을 넘긴 6월 12일 0시 30분 제29연대장 문중섭(文重燮) 대령은 사단에 집중적인 포격지원을 요청하였다. 마침 중공군 제24군의 북진능선에 대한 압력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사단장은 즉시 B고지-A고지-X고지에 대한 포격지원을 지시하였다. 이들 고지를 방어하던 제29연대 장병들은 사단의 포병지원 아래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실시하여 B고지-A고지-X고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북진능선 북쪽 A지구에 있던 중공군 제70사단 208연대 주력은 6월 12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국군 제30연대의 방어지역인 북진능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북진능선 정면을 담당한 제3대대 11중대는 전초진지인 K고지에 제1소대를 배치하였는데, 같은 능선에 있는 중공군 제208연대의 전초거점인 400고지와의 거리는 400m에 불과하였다.



자정 무렵 2개 중대규모로 증강된 중공군에 의해 제11중대의 진지 일부가 돌파되자, 제3대대장 고병성(高炳星) 소령은 배속된 제28연대 제1중대로 중공군의 공격축선을 차단하는 역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1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이 공격을 재개하여 격전이 계속되었고, 제3대대 OP에서 이런 전황을 접한 제30연대장 조연표(趙淵表) 대령은 중공군 병력이 연대규모로 증강된 사실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연대병력으로 일거에 북진능선을 공격하는 역습작전을 제28연대장 윤태호(尹泰皓) 대령에게 명령하였다.

역습에 나선 제28연대 1대대는 제1목표이자 제3대대 OP인 365고지를 공격하여 중공군의 박격포와 자동화기 사격을 극복하고 365고지를 탈환한 다음 제2목표인 380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사이 북진능선 남단에 도달한 제2대대가 미 공군기의 항공지원 아래 380고지 측면으로 접근하여 화력지원을 하였고, 이 사이에 제1대대가 38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제28연대 주력은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에 사단 주저항선의 좌

측 전선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단장은 아직도 중공군의 통제 하에 있는 K고지를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그 임무를 제28연대에 부여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28연대장은 북진능선의 주저항선 방어와 K고지의 탈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제2대대장 최창룡(崔昌龍) 중령은 북진능선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는 동시에 추측에 배속된 제30연대 9중대를, 중앙과 좌측에는 제2대대의 제7중대와 제6중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날 자정이 지날 무렵 중공군 제70사단은 북진능선에 2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증강된 1개 대대병력으로 공격을 단행하였다. 중공군은 우측의 제30연대 9중대 정면에 1개 중대와 좌측의 제6중대 정면에 1개 중대, 그리고 중앙의 제7중대 정면에 2개 중대를 각각 투입하였다. 6월 14일 새벽 4시경, 중앙의 380고지를 공격한 중공군 주공이 증강된 1개 중대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제7중대 진지에서는 백병전이 펼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2대대장은 연대 예비를 이용한 역습을 연대장에게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제56수색중대가 역습에 감행하였다. 새벽 5시 30분 수색중대의 역습이 펼쳐진데 이어 380고지 제7중대가 백병전을 승리로 이끌자, 연대장은 제2대대에 K고지를 탈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약 2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K고지의 탈환에 성공하고 전투를 종료하였다.

김화 북방의 최고봉인 오성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이 능선이 '북진능선'이라는 별칭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이번 전투 종료 나흘 후인 1953년 6월 18일 사단장 이한림 소장이 전장정리와 진지보수를 통해 중공군의 재공격에 대비하는 장병들의 전의를 고양하고 한편으론 북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에서 이 능선을 북진능선으로 명명하도록 지시한데서 유래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2,092명을 사살하고 18명의 포로를 획득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사단도 266명이 전사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9사단은 1953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중부전선의 요충인 북진능선을 고수하여 지역 내 주요 거점인 김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선우고지 전투

[鮮于高地 戰鬪, 1953. 6. 25.~7. 1.]

개요

국군 제7사단이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양구 북방 중동부전선 938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60군 예하 제179사단과 실시한 고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938고지 전투로도 불리는 선우고지 전투의 명칭은 6.25전쟁 당시 제7사단 8연대 2대대를 지휘했던 선우 용(鮮于 容) 소령이 이 전투에서 전사한 후 사단 장병들 사이에서 불려오던 데서 기인하였다.

938고지를 아우르는 작전지역은 강원도 양구 북방 북한강 상류의 이동(以東)지역으로 700~900m의 고봉이 이어지고 깊은 계곡과 가파른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일대는 어은산 남쪽까지 진출한 미 제10군단과 금성천 북쪽으로 돌출한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을 연계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지역 내 기동로는 북한강 동안에 연한 단일로를 제외하고는 수림 사이에 이어진 협로만이 존재하여 보급도 케이블카에 의존하였다.

중공군의 6월 공세로 국군 제5사단이 미네소타선(Minnesota Line) 상의 주진지인 949고지-883고지를 빼앗긴 후 전선조정을 위해 부대를 현재의 주저항선에서 4km 후방에 재배치하자, 국군 제20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주저항선상의 또 다른 거점인 938고지가 돌출되게 되었다. 이에 미 제10군단장 화이트(Issac D. White) 중장은 이에 대한 대비와 향후 계속될 중공군의 압력을 감안해 예비인 국군 제7사단에 제20사단의 좌측 전선을 인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국군 제7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좌측전선을 담당하면서 938고지 정면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7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군장, 韋杰) 예하 제179사단의 약 6천 6백 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122mm 야포 24문, 76mm 야포 72문 그리고 120mm 박격포 36문 등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0여 대의 차량보급 추진이 이루어졌고, 전차의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단의 지시에 따라 6월 16일 제20사단 62연대로부터 전선을 인수한 국군 제7사단은 이를 분할하여 우측 1220고지-938고지 동쪽 기슭을 제5연대에, 좌측 938고지-노루곡을 제8연대에 맡겼다. 사단의 좌측 전선을 담당하게 된 제8연대장 이병형(李秉衡) 대령은 938고지를 중심으로 2개 대대로 주 거점을 편성, 통선곡-938고지를 통한 중공군의

공격을 막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제2대대가 담당한 통선곡-938고지로 이어지는 중공군 접근로에는 화력을 집중 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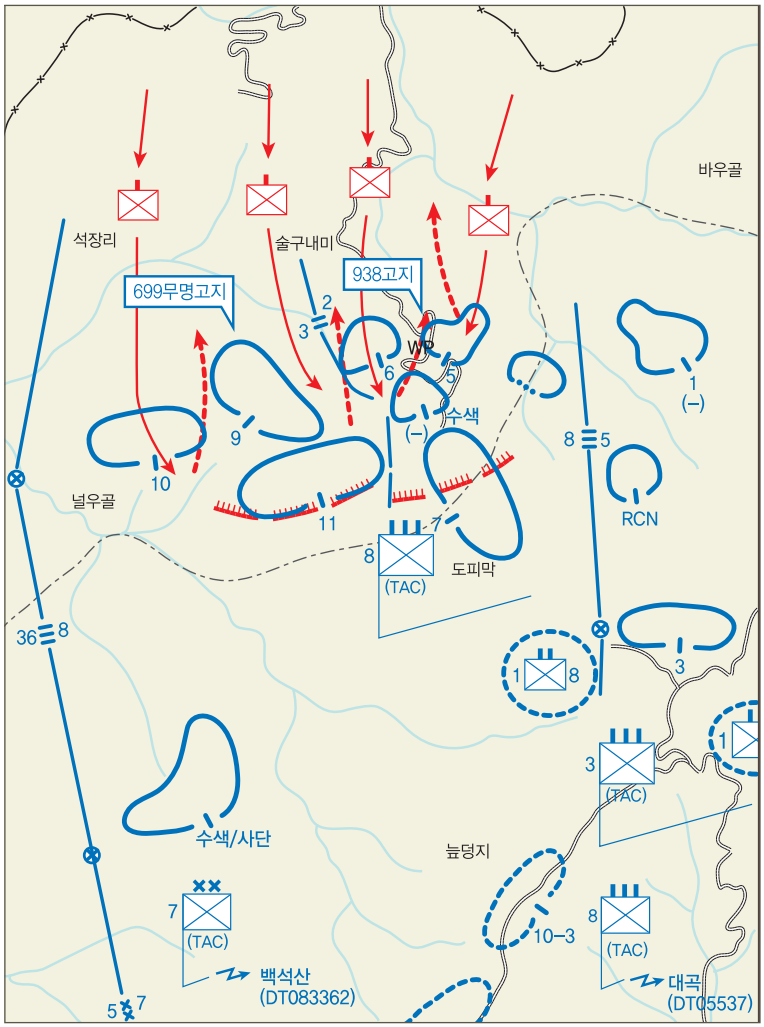
1953년 6월 26일 밤 9시 15분, 938고지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하던 중공군은 30분이 경과할 무렵 3개 대대 병력이 고지 서북쪽으로 쇄도하였다. 이때 938고지 주봉을 방어하고 있던 제2대대는 우측의 제5중대를 고지 전면에서 북쪽으로 급경사를 이룬 능선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기암이 깔린 험준한 지형으로 동쪽은 심한 경사와 절벽이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제5중대의 통제가 가능한 곳이었다. 좌측의 제6중대는 938고지 전면에서 통선곡 쪽으로 뻗은 6부 능선에 배치하였는데, 이 지역은 동쪽은 가파른 반면 고지에서 북쪽 기슭까지는 능선이 비교적 평탄하므로 대대장은 이곳을 중공군 접근로로 예상하고 방어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오후 9시 45분, 1개 대대병력을 상회하는 중공군이 제6중대를 정면과 서측에서 공격하며 쇄도하였다. 이들은 대대의 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대 진지를 향해 돌진하였다. 중대가 이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수류탄 투척과 백병전으로 막아내던 중 대대관측소를 우회한 한 무리의 중공군이 대대를 포위하였다.

위급상황을 간파한 대대장 선우용 소령은 "모든 기밀문서와 지도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후 권총만을 소지한 채 관측소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밀려나고 있던 제6중대를 독려하며 진두지휘하였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중공군이 수류탄을 집중 투척함으로써 대대장은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경 중공군이 집중포격을 가하고 이어 증원된 병력이 투입되자 대대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938고지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938고지 서쪽 능선 일대에 2개 중대를 배치하고 있던 제3대대 정면에서도 오후 10시경부터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1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대대는 화력을 집중하며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새로 투입된 중공군의 지속적인 공격과 동측으로 우회한 병력의 협공으로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대는 오후 11시 30분에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일명 '빵고지'라 불리는 938고지 서쪽의 무명고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일선에 배치된 제2대대와 제3대대가 938고지를 빼앗기자, 연대장 이병형 대령은 중공군이 증원 병력을 투입해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역습을 감행하기로 작정하고 제1대대에 6월 27일 새벽 2시 30분을 기해 938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대대장 박일(朴一) 중령은 제1중대에 938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면서 제2중대에게는 빵고지를 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예정대로 제1대대는 6월 27일 새벽 2시 30분을 기해 938고지에 대한 제1차 역습을 감행하였다.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주공을 담당한 제1중대는 고지 8부 능선의 비석고지까지 진출해 이곳에 잠복 중인 중공군과 백병전을 실시하였고, 고지의 서쪽 능선을 통해 빵고지로 돌진한 제2중대도 중공군과 격전을 펼쳤다. 양 중대는 중공군이 증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파악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새벽 5시 30분 938고지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였다.

제1차 역습이 실패하자 연대장은 제2차 역습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제3대대 10중

대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공격에 나섰다. 중대는 938고지에 이르는 능선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비석고지에 직사화기를 배치한 중공군을 격퇴한 다음 고지정상으로 향했으나, 그곳에서 중공군의 진내사격으로 고지 남쪽으로 다시 후퇴하였다. 이어 오후 3시에 제1대대 3중대가 938고지 서쪽의 빵고지를 목표로 제3차 역습을 실시하였지만, 중공군의 직사화기 사격으로 인해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제8연대의 3차에 걸친 역습에 실패한 사단장 김용배(金容培) 소장은 군단 예비에서 복귀한 제3연대를 투입해 938고지에 대한 역습을 재개하였다. 6월 29일 새벽 5시 제3연대장 유중수(柳重秀)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38고지를 좌우에서 공격하였다. 938고지 우측을 목표로 병진공격을 감행한 제2대대는 중공군의 병력 증원과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에 막혀 공격이 중단되었고, 좌측을 공격한 제1대대도 6부 능선에서 고착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현 진출선에 있는 제1대대와 제2대대로 중공군을 양쪽에서 견제하는 동안 제1대대 2중대가 중앙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제2중대는 오전 8시 30분, 모든 화력을 집중해 중공군의 중앙부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는 중공군의 집중포격에 직면하였다. 결국 제3연대는 역습을 개시한지 5시간 만에 현 진출선에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4차 역습에 착수한 제8연대장은 제3대대가 목표 A, B를 공격하고 제2대대는 제3대대를 초월해 목표 C를 공격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이는 그간의 역습 때마다 기동을 저해했던 고지 남사면에 있는 비석고지의 자동화기를 특공대로 기습하여 파괴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었다.

6월 30일 새벽 2시, 제2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비석고지 200m 전방까지 진출한 3개 분대규모 특공대는 동과 서, 중앙의 세 방향에서 돌진해 수류탄으로 중공군의 자동화기진지를 파괴한 후 일부 인원을 잔류시켰다. 목표 A와 B의 공격을 담당한 제3대대는 제10, 11중대가 세 방향에서 협공을 가한 끝에 이날 새벽 4시 15분 빼앗긴지 4일만에 938고지의 주봉을 탈환하였다.

이에 앞서 938고지 서쪽능선을 공격한 제9중대는 새벽 4시에 목표 B인 빵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로부터 30분 후 중대는 2개 중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치열한 교전을 펼친 끝에 고지 아래로 철수함으로써 빵고지를 다시 상실하였다.

목표 C를 탈환하기 위해 새벽 5시를 기해 공격에 나섰던 제2대대는 비석고지와 빵고지를 다시 점령한 중공군 공격에 진격이 중지되자, 오전 7시 30분에 현 진출선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군 1개 대대가 오전 8시를 기해 938고지의 북사면을

따라 주봉을 공격하였다. 앞선 공격에서 병력 절반을 잃은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백병전을 펼치며 저항하던 중 오전 10시경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고, 약 30분 후 제2대대가 실시한 역습마저 실패하자 군단장은 공격중지를 명령하였다.

제8연대 역습이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가자 사단장은 제3연대에 938고지 탈환을 명령하였다. 이에 제3연대장 유중수 대령은 제3대대를 공격 1선에 내세워 7월 1일 새벽 2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대대는 제10중대와 제9중대가 협공을 펼쳐 중공군을 격퇴하고 새벽 4시 30분에 938고지의 주봉을 탈환하였으나, 곧바로 이어진 대대규모의 중공군 역습에 고지를 다시 내어주고 오전 9시 원 집결지로 복귀함으로써 사단은 938고지의 탈환을 중단한 채 작전을 종료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 547명을 사살하고 1천 774명을 살상(추정)하였으며 2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179명이 전사하고 98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8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주저항선상의 요충인 938고지를 상실하여 진지 전방 및 좌우 측방에 대한 통제약화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휴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휴전협정체결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술적인 요충의 사전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경계선 획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퀀고지(250고지)–박고지(199고지) 전투

[퀀高地–朴高地 전투, 1953. 6. 25.~29.]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3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연천 북방 임진강 부근의 250고지와 199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1군 예하 제1사단 및 제7사단과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한국정부의 휴전반대 정책에 압력을 가하고 유리한 방어선 확보를 위해 1953년 5월 13일에 취해진 하계공세 중 제1단계 공세를 완료한 중공군은 5월 27일 제2단계 공세로 전환하면서 공격목표를 대대급 진지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작은 승리를 모으고, 여러 번의 승리로 대승을 거둔다"라는 중공군 군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1군이 목표로 한 250고지와 199고지, 일명 '퀸(Queen)고지'와 '박고지'는 국군 제1사단 전선 우측 정면에 있는 능선에 남북으로 연결된 고지였다. 이 고지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역곡천과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임진강 분기점 바로 남쪽의 계호동-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역곡천 남안에 배수진을 친 중공군의 진출로를 가로막는 관문이자 1km 남동쪽의 사단 주저항선을 엄호하고, 임진강 만곡부 내 중공군 주진지의 후방을 감제할 수 있는 요충이었다.

국군 제1사단 전면에는 중공군 제1군(군장, 劉轉連) 예하 제1사단 및 제7사단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서안과 동안에 각각 배치되었고, 제2사단이 예비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국공내전에서 국부군과 대전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산악전에 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의 전체 병력은 약 3만 7,800명으로서 15개 포병대대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었다.

반면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을 중앙에 두고 좌측에 제11연대(고왕산 서측-노리고지), 우측에 제15연대(중사리-어적산리)로서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제12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사단은 4개의 사단포병 및 7개 포병대대의 포격지원과 전차중대의 화력지원이 가능한 상태였다.

사단 우측 전선을 담당한 제15연대는 지역 내에 퀸고지와 박고지를 포함한 8개의 고지가 동북방으로 4km의 진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저항선인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에 2개 대대를, 아이슬란드선(Iceland Line)에 예비인 1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연대 우측을 담당한 제2대대는 주저항선에 제5, 제6중대와 사단수색중대를, 퀸고지에 제7중대를 배치하였다. 좌측의 제3대대는 주저항선에 제9, 제11중대를 배치하고 제10중대는 박고지 등 3개 진지의 방어를 전담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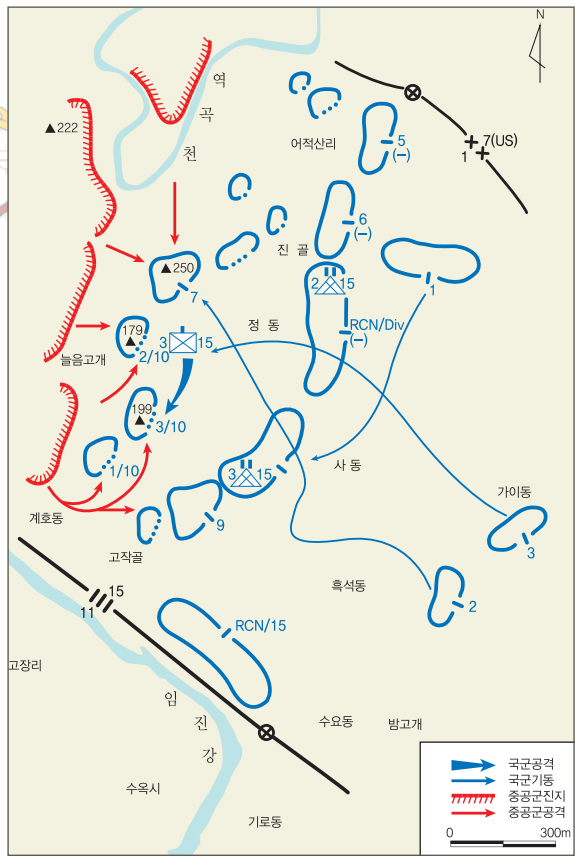
연대는 제3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병 전차중대를 주저항선에 투입하고 퀸고지와 박고지 전방에 철조망과 장애물지대를 설치하였으나, 중공군의 계속된 포격에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1953년 6월 25일 오후 8시, 중공군은 사단 전선의 오른쪽에 위치한 마이크(Mike)고지로부터 퀸고지-제3고지-박고지-제1고지에 이어 좌측의 리틀 노리(Little Nori)고지에 강력한 포격을 실시한 후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우측 전선을

담당한 제15연대는 중공군 제7사단 예하의 제19연대와 제20연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1개 대대로 마이크고지와 퀸고지를 견제하면서 1개 연대로 제3고지와 박고지, 제1고지를 공격하였다.

제2대대의 마이크고지와 퀸고지를 공격한 중공군은 사단의 포격과 제7중대의 저항에 막혀 격퇴되었다. 연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좌측의 제3대대는 제3고지와 제1고지를 상실한데 이어 박고지마저 세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피탈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연대장 송호림(宋虎林) 대령은 중공군의 의도가 박고지 일대를 탈취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퀴고지와 박고지에 제1대대 2중대와 3중대를 투입하였다.

이 무렵 사단 우측의 임진강 서안에 배치된 제11연대도 중공군의 양공으로 리틀 노리고지와 버블고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 김동빈(金東斌) 준장은 중공군의 화력과 병력규모를 감안해 제15연대의 증원에 나섰다. 예비대인 제12연대장 이길영(李吉泳) 대령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제1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 조치하였다.



전날에 이어 6월 26일에도 박고지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제1군단장 클라크(Bruce C. Clarke) 소장과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oseph L. Collins) 대장이 차례로 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전날 밤 제15연대 1대대는 연대장의 진격명령에 따라 제11중대 OP로 진출하여 그곳에 대대 OP를 개설하였다. 퀸고지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제2중대는 이미 전투가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서남쪽 제3고지 탈환에 나섰으나, 고지 8부 능선에서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제11중대 OP로 철수

하였다.

박고지 탈환을 위해 공격에 나선 제3중대는 돌격선에 도달하여 전 중대원이 일시에 돌격을 감행한 끝에 새벽 1시 20분 고지를 탈환하고 동굴 속에 머물고 있던 제10중대와 합류하였다. 그러나 물러났던 중공군이 잠시 후 박고지 정상에 포격을 집중하며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해오자, 제3중대와 제0중대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방어로 전환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한 제1중대도 백병전을 펼친 끝에 8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제1대대의 3개 중대로 박고지 회복을 도모하였음에도 중과부적으로 목적달성에 실패한 제15연대장은 제12연대 1대대로 박고지를 다시 공격하기로 작정하였다. 공격부대로 선정된 제1대대 3중대는 공격에 돌입하여 고지 정상의 동굴에 머물고 있던 제10중대와 협공을 펼친 끝에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대대규모의 중공군 반격에 다시 고지를 내어주었다.

이날 오후에 제1대대는 연대장의 중대별 축차투입 대신 대대의 모든 병력으로 박고지를 회복하라는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고지 8부 능선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 고지회복에 실패한 제15연대를 대신한 제12연대 2대대는 박고지와 제3고지를 동시에 공격하였다. 공격에 나선 대대는 제3고지에 1개 중대, 퀸고지에 2개 중대를 투입해 두 고지를 모두 탈환하였으나, 중공군의 반격에 고지를 내어주고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였다.

6월 28일 새벽 1시를 기해 사단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의 2개 대대를 좌측 전선에 배치한 후 제12연대 수색중대에 박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에 앞서 중공군 2개 대대가 퀸고지를 공격해 다음날 새벽에 고지를 점령하였고, 박고지를 공격한 수색중대는 충분한 화력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지탈환에 실패하고 복귀하였다.

6월 29일 오전 10시, 퀸고지-제3고지-박고지 탈환에 나선 제11연대는 약 1시간만에 제2대대가 제3고지를 회복하였고, 그로부터 30분 후 빼앗긴지 3일 만에 박고지마저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휴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비무장지대가 될 이들 전초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군단장의 지시로 고지에서 물러나 주저항선에서 방어에 돌입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 1,472명을 사살하고 106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로켓포 3문과 박격포 6문을 비롯하여 기관총 35정 등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245명이 전사하고 1,16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명이 실종되

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1953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200(퀀)고지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고지와 연결된 능선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중공군을 퀀고지에 억류시킴으로써 일련의 전초진지를 방어하였고, 예비 대대를 아이슬란드선(Iceland Line)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관망산(529고지) 전투

[觀望山 戰鬪, 1953. 6. 25.~7. 3.]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중부전선 북한강과 금성천의 분기점에 위치한 529고지를 방어하기 위해 중공군 제67군 예하 제201사단 및 제60군 예하 제180사단과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일명 '관망산(觀望山) 전투'로도 불리는 529고지 전투는 휴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화천저수지를 탈환하기 위해 단행한 중공군의 1953년 제2단계 하계공세(6월 공세) 당시 국군 제3사단이 국군 제2군단의 우측 전선인 속칭 배돌바우-여문리 일대에 이르는 작전지역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관망산'으로도 불리는 529고지는 북한강과 그 상류에서 갈라져 남서쪽으로 흐르는 금성천이 나뉘는 지점에 위치한 독립고지로서 중공군의 주진지인 663고지와 548고지로부터 감제되고 있었다. 주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은 완만한데 반해 그 앞쪽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국군 제2군단장 정일권(丁一權) 중장은 1953년 중공군 6월 공세 당시 와해된 미주리선(Missouri Line)의 회복작전 실패로 군단 우측 전선의 위협이 증가되자, 이를 대비하여 국군 제3사단에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의 작전지역 일부를 인수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배돌바우-여문리 일대를 점령한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우측에, 제23연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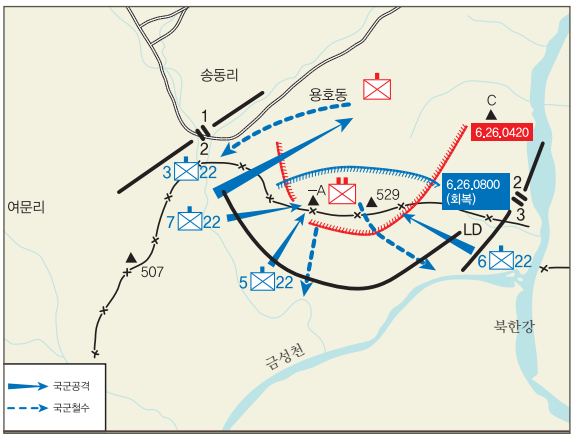
좌측에 배치하였다. 이때 양 연대의 병력은 약 4천 8백 명으로 4개 포병대대와 전차 2개 소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최종목표를 화천저수지로 정한 중공군 제67군(군장, 邱蔚)은 그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들을 점령하여 북한강의 동 · 서안을 연결한 후 등대리-화천 간 도로를 따라 국군 제2군단을 격파하고 화천으로 진격할 의도였다. 중공군은 어덕리-금성-북한강 동안의 어운리 선에 예하 3개 사단을 투입하였는데, 국군 제3사단 정면에는 제602연대와 제601연대를 좌우에 둔 제201사단과 제180사단의 일부를 배치하였다. 이들 중공군 사단은 전투경험이 풍부한 팔로군과 국부군 출신이 포함된 1만 명의 병력을 각각 보유하였고 사단 포병연대 및 독립 포병연대, 전차연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휴전을 앞두고 공산군의 동향을 주시하던 국군 제3사단은 1953년 6월 25일 야간에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529고지를 빼앗긴 후 이를 탈환하기 위해 7월 3일까지 7차례의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휴전에 돌입하였다.

6월 25일 밤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감행한 중공군은 1개 대대병력이 제23연대 2대대가 배치된 B고지 등의 전초진지를 세 방향에서 공격한 후 점차 그 방향을 529고지로 집중하였다. 사단장 임선하(林善河) 소장은 방어 대신 반격으로 이들을 격퇴하기로 결정하고 제22연대를 투입하였다. 제22연대장 최병순(崔炳淳) 대령은 제3대대를 우회시켜 중공군의 배후를 공격하고 제1대대로 507고지의 예비진지를 점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저항선 강화를 위해 제2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하였다.

제3대대와 제1대대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6월 26일 새벽 1시경 중공군은 진지 100m 전방까지 접근하였으나, 제23연대 2대대의 최후 저지사격에 밀려 A고지로 공격을 방향을 바꾸었다. 이때 제2대대는 포격으로 통신이 두절되고 연락호도 붕괴된 고립상태에서 잔존 병력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점점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대장 강흥중(姜興中) 대위는 새벽 4시 20분 병력을 고지 남쪽으로 철수시켰고, 이로 인해 529고지는 중공군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사

단장은 제2대대를 제22연대로 복귀시킨 후 529고지의 역습을 지시하였다. 529고지 남쪽 8부 능선에서 역습명령을 받은 제22연대 2대대장 권익검(權益檢) 중령은 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이 재편성을 완료하기 전에 기습을 가하기로 작정하고 중화기의 지원 아래 2개 중대로 동남쪽과 서쪽에서 협공을 개시하였다. 사단 포병과 미 야포대대의 포격지원 아래 서쪽으로 진격한 제7중대가 백병전을 펼쳐 A고지 점령하자, 동남쪽으로 진격한 제6중대도 이 여세를 몰아 오전 8시에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고지에서 물러났던 중공군의 반격이 이어져 1개 대대병력이 제2대대를 공격하였다. 약 8,000발의 중공군 포탄이 고지에 집중되어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게 된 대대는 고지 탈환 10분 만에 원위치로 철수하였다. 용호동으로 우회하여 B고지로 진격한 제3대대도 중공군의 집중포격과 저항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제2대대가 529고지 탈환에 실패하여 역포위 상황에 처함에 따라 오전 11시 철수하였다. 이로써 제22연대 2대대의 제1차 역습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529고지의 전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긴 군단장은 6월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3사단의 방어정면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529고지 탈취에만 전념하게 된 사단장은 제23연대로 529고지를 공격하고 제22연대가 이를 지원하는 제2차 역습을 명령하였다.

A고지를 중간목표로 하고 529고지를 최종목표로 설정한 제23연대장 박철(朴徹) 대령은 제1대대와 제2대대로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22연대 2대대가 남쪽에서 진격하여 제2차 역습은 세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오후 5시를 기해 공격에 나선 제23연대 1대대와 2대대는 미 공군기의 공중지원 아래 중공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A고지를 점령하였고, 최종목표인 529고지로 진격한 제22연대 2대대도 오후 8시 30분에 목표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제2차 역습은 약 9천 발에 달하는 포격에 이어 2개 대대규모가 투입된 중공군의 반격으로 인해 또 다시 실패하였고, 529고지를 방어하던 제2대대는 고지 9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6월 27일 새벽 3시에 단행된 제3차 역습은 제22연대가 수행하였다. 사단장의 구상으로 실시된 이번 역습은 증강된 1개 대대가 529고지 남쪽을, 또 다른 증강된 1개 대대가 A고지를 통해 측면을 공격하는 방안이었다. 이날 오전 8시 중단되었던 공격을 재개한 제22연대 2대대는 2시간 만에 529고지를 탈환하였으나, 다음날 새벽에 감행된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고지를 내어주었다. 이번 역습에서 제22연대장 최병순 대령이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고, 부사단장인 장호진(張好珍) 대령이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교전 나흘째인 6월 28일 오후 2시 40분, 제22연대는 제1대대가 529고지를, 배속된 제

23연대 2대대가 A고지 탈환을 목표로 제4차 역습을 개시하였다. A고지를 점령한 후 양 대대는 529고지를 3차에 걸쳐 협동 공격하였으나, 끝내 고지탈환에 실패하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오후 9시 축차철수를 실시하였다.

6월 29일 새벽, 제23연대장은 제1대대에 529고지를, 제3대대에 A고지의 탈환을 명령함으로써 제5차 역습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에 공격에 나선 양 대대는 고지 정상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오전에 529고지와 A고지를 장악하였으나, 약 1시간 후 529고지에 대해 양공을 펼친 중공군에 의해 후방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고지 남쪽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6월 30일에 단행된 제6차 역습에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1개 연대 전 병력을 투입하여 중공군의 주 연락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번 역습을 담당한 제23연대는 오후 5시를 기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서 529고지를 3면으로 포위하고 중공군을 압박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5시경에 중공군이 포위된 529고지의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3개 대대를 투입함에 따라 역포위를 우려한 연대장의 지시로 A고지 기슭에 집결하였다.

2일간의 휴식을 취한 제23연대는 7월 3일 새벽에 제7차 역습에 나서 C고지와 529고지를 공격하였다. 제3대대가 1차 목표인 C고지를 점령하자 연대장은 중공군의 퇴로차단을 위해 B고지의 탈환을 명령하였다. 제3대대는 새벽 5시 30분에 고지를 장악하여 529고지에 이르는 중공군의 통로를 봉쇄하였으나, 주봉인 529고지를 공격하던 제1대대가 4개 대대로 추산되는 중공군의 반격에 밀려 고지 남쪽으로 철수하면서 제7차 역습은 실패하였고, 9일 동안 실시된 이번 전투도 종료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중공군 2,956명을 사살하고 1,975명을 살상(추정)하였으며 6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사단도 428명이 전사하고 1,348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중공군 제67군 예하 2개 사단에 약 40%에 달하는 인명손실을 안겨주었으나, 529고지를 고수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화살머리고지(281고지) 전투

[화살머리高地 戰鬪, 1953. 6. 29.~7. 11.]

개요

국군 제2사단이 1953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부근 281고지에서 중공군 제23군 예하 제73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쟁탈전이다.

전개과정

1953년 6월 중순, 2년에 걸쳐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휴전협상 조인 전망이 짙어지자 공산군은 주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 전선에서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른바 '중공군 6월 공세 제2단계 작전'이었다. 이때 중부전선 철원평야에서도 백마고지를 점령하려는 중공군이 그 작전의 일환으로 281고지를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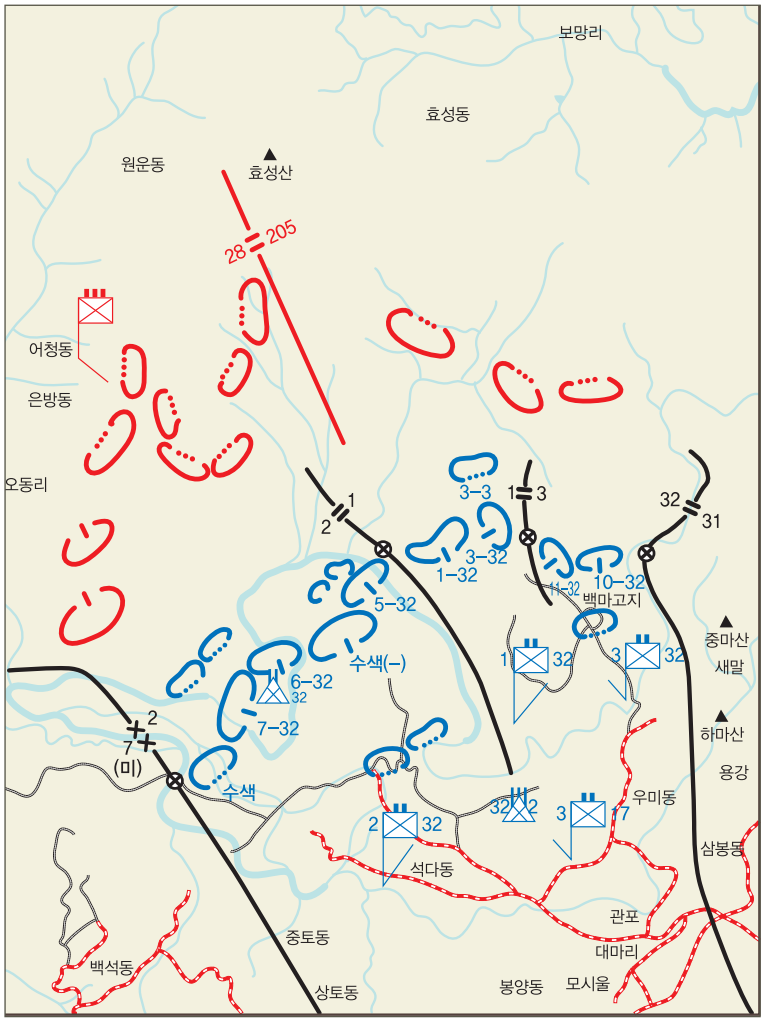
이번 전투의 주전장인 281고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 속하며, 철원에서 서북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의 양의 창자와 같이 굽이도는 역곡천 북안에 돌출한 구릉으로 철원분지 일각을 점유하고 있다. 지형이 마치 화살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화살머리고지(Arrow-head Hill)'로도 불리는 281고지는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는 279고지와 384고지로부터 감제되는 낮은 지형으로 국군의 행동에 많은 제한을 주었다.

이 무렵 철원평야 북단에는 중공군 제23군 예하 제73사단이 국군 제2사단 정면에 주력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양측 간의 거리는 1~2km에 불과하였다. 이들 병력은 편제 수준인 약 1만 명에 달하였고, 일일 평균 7,000 ~ 8,000발의 포격지원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미 제3사단의 전선을 인수해 미 제9군단의 좌측지역을 맡게 된 국군 제2사단은 약 10km의 전투정면 중 제31연대를 우측에, 제32연대를 백마고지와 281고지가 포함된 좌측에 배치하고 제17연대를 예비로 두었다. 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고, 여러 포병대대의 화력 지원과 미 제5공군의 지원이 가능하였다.

1953년 6월 12일 밤에 있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2사단 32연대에 의해 격퇴된 중공군 제23군은 6월 29일 전투에서 패한 제69사단 대신 제73사단으로 백마고지 남서쪽 3km 지점의 281고지를 공격하였다. 이는 281고지를 탈취한 후 백마고지를 측방에서 위협하여 두 고지를 동시에 점령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앞서 국군 제2사단장 김웅수(金雄洙) 준장은 담당지역 내 중공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력수색 실시를 지시하였고, 281고지 전방에 전초인 ⓐ진지와 ⓑ진지를 운용하던 제32연대장 강홍모(姜弘模) 대령은 중공군의 출몰이 잦았던 제2대대에 임무를 부



여하였다. 6월 29일 오후 6시 45분, 대대장 송순근(宋淳根) 소령의 명령에 따라 제6중대 기습조가 서북방 800m 지점에 있는 '방송고지'를 기습하였다. 이 고지는 공산군 방송반이 수시로 나타나 온갖 괴변과 욕설을 지껄여서 붙여진 명칭이었다.

기습조가 고지 일대를 수색하고 명령에 따라 원대로 복귀하던 오후 11시경, 중공군 제218연대가 역습으로 ⓐ진지와 ⓑ진지를 공격하면서 1천여 발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선 연대장은 두 진지 중 ⓐ진지는 아직 고수 중에 있으나, 또 다른 중공군이 281고지 북쪽 1.5km 지점의 ⓚ고지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은 즉

시 포격을 유도하여 중공군의 병력증원을 저지하였다.

다음날인 6월 30일 아침, 사단장은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 예비인 제17연대 3대대를 투입하였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동쪽과 서쪽 양 방향에서 협공을 감행한 제3대대는 중공군의 화력거점과 동굴을 폭파하고 오후 3시 15분에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진지와 ⓑ진지를 모두 확보하게 된 연대는 ⓐ진지를 향해 반격을 가해 온 중공군을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완전 격퇴하였다.

제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사단장은 7월 2일 배속 중인 제17연대 3대대를 원대로 복귀시키고 ⓐ–ⓑ 양 진지를 포함한 화살머리고지 부근의 전초진지를 제32연대가 맡도록 조치하였다. 반면에 중공군 제73사단은 지난 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제208연대 1대대 대신 제3대대를 투입하는 등 병력을 중강하며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였다.

7월 6일 밤 11시, 중공군은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제73사단 218연대는 1개 소대씩이 배치되어 있던 국군 제32연대의 ⓐ–ⓑ 진지를 공격하여 다음날 새벽에 모두 점령하였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예비인 제17연대 3대대를 제32연대에 배속하고 이들 진지의 탈환을 지시하였다. 명령에 따라 역곡천을 건너 ⓐ진지의 동남쪽 능선으로 전진한 제9중대는 8부 능선에서 공격이 중단되었으나, ⓑ진지로 향했던 제11중대는 육탄돌격을 감행한 끝에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 진지탈환에 성공하였다.

한편 ⓐ진지에서의 전투가 자정을 넘어 새벽녘까지 이어지자, 사단장은 제31연대 2대대를 투입해 공격력을 강화하였다. 7월 8일 새벽 4시를 기해 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을 펼친 끝에 오전 7시에 ⓐ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이날 밤 실시된 중공군의 반격에 다시 진지를 상실하였다. 이를 탈환하기 위해 제31연대장 조성래(趙成來) 대령은 7월 9일 오전 5시에 제1대대를 투입하여 늦은 밤까지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오후 9시부로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은 제31연대와 제32연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진지뿐만 아니라 그 후방의 중공군 중간거점까지 일거에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7월 11일 새벽 1시, 양 연대는 전후방의 두 진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 결과 제31연대 3대대는 새벽 4시 40분에 ⓐ진지를 장악하였고, 적진 후방의 ⓚ고지를 공격한 제32연대도 목표진지를 탈취한 후 백마고지 인근 지역으로 복귀하여 제2차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2사단은 중공군 192명을 사살하고 200명을 추정 사살하였으며, 포로 3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32명이 전사하고 44명이 부상을 입

었으며,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1953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281고지(화살머리고지)의 방어에 성공하여 이를 점령한 후 백마고지를 측방에서 위협해 두 고지를 동시에 탈취하려던 중공군 제23군의 작전에 결정적인 차질을 안겨주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 전투』 (2010)

【손규석 집필】

베티고지 전투

[베티高地 戰鬪, 1953. 7. 15.~16.]

개요

국군 제1사단 11연대 예하 2대대 6중대 2소대가 1953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임진강 서안 고양대 부근의 베티고지에서 중공군 제1군 제1사단 예하 대대규모 병력과 공방전을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휴전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전 전선에서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7.13 공세'로 불리는 이 공세의 목적은 한국정부에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휴전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데 있었다. 중공군 제1군(군장, 劉轉連)은 미 제1군단(군단장, Bruce C. Clarke 중장)이 배치된 서부전선을 공격하였는데, 베티(Betty) 고지를 아우르고 있는 서부전선은 대부분의 주저항선이 임진강 북안에 연하고 있어 방어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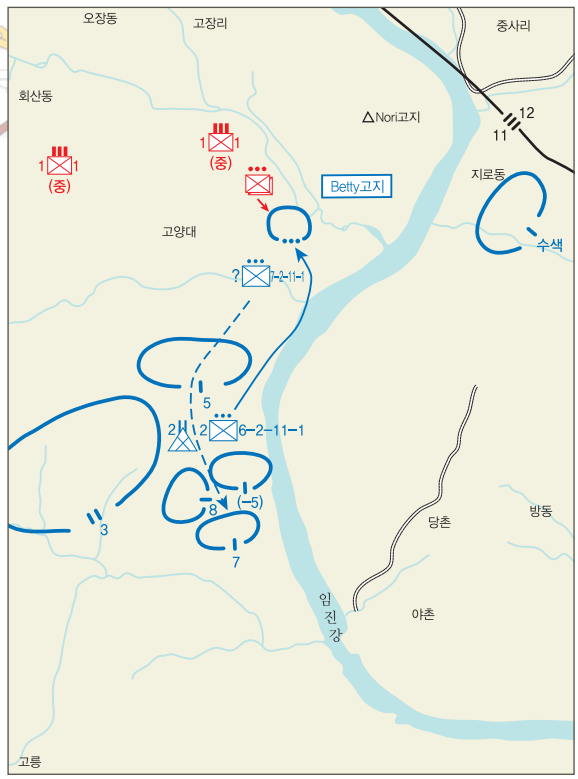
베티고지는 경기도 연천 서북방 약 13km 지점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 지류가 남북으로 흐르는 가운데 국군 주진지와는 남쪽의 지류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이어진 표고 150~200m의 봉우리 3개로 형성된 구릉지였다. 베티고지는 중대규모로 설정된 전초진지로서 큰 규모의 부대를 투입하기 보다는 소수의 병력으로 고지를 유지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형조건상 마량산(△315) 일대 중공군은 그대로 고지까지 접근할 수 있었으나, 주진지로부터 병력과 보급을 지원해야 하는 국군은 우

회 도하가 필요한 불리한 조건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의 6월 공세가 종료된 후 복귀한 제11연대를 좌측에, 제12연대를 중앙에 그리고 제15연대를 우측에 배치하여 어적산리 부근으로부터 고왕산 동쪽 기슭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단장 김동빈(金東斌) 준장은 제11연대가 다시 고양대 일대의 진지를 인수한 후 군단의 지시에 따라 중대규모인 베티고지의 경계부대를 소대규모로 축소할 것을 연대장 최주종(崔周鍾) 대령에게 명령하였다. 연대장은 이런 사실을 제2대대장 김봉건(金奉楗) 중령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베티고지의 제7중대는 1개 소대만을 남겨놓은 채 대대 OP가 위치한 209고지의 남쪽 기슭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사단포병과 배속된 전차포 및 군단포병은 베티고지 일대에 대한 포격지원이 가능토록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지에 남겨진 소대는 전투지경을 축소하여 일부 진지를 영연방 제1사단에 인계하고 포병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1953년 7월 15일 오전 2시를 기해 중공군 제1사단은 제1연대 예하의 2개 소대를 투입하여 베티고지에 대한 3일차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의 공격은 사단 포병이 약 1시간에 걸친 포격으로 격퇴시켰으나, 공격지속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소대의 사상율도 50%에 달하였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소대는 전원이 호 속으로 들어가 포격을 요청해 침투해온 중공군을 격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주진지에서 보고받은 제2대대장은 베티고지의 소대가 더 이상 고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6중대 2소대로 부대를 교체하였다. 소대장 김만술(金萬述) 소위는 소대원 33명과 함께 단정을 타고 임진강을 도하하여 오후 3시 30분경 베티고지의 중앙봉에서 제7중대 경계소대와 합세하였다. 그 직후 소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서봉을 공

격하여 8부 능선까지 도달하였으나, 중공군의 역습으로 포위되는 등 고전 끝에 중앙봉으로 복귀하였다.

중공군은 어둠을 틈타 대대규모 병력으로 중앙봉에 대한 공격에 나섰고, 소대는 대대에 포격지원을 요청하였다. 소대가 유개호 속으로 들어 들어가자마자 지원 포격이 시작되었다. 중공군은 사상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호로 몰려들어 유개호 입구의 경계병과 총격전을 실시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호 입구로 나가 소대원들과 함께 수류탄전을 펼쳐 격퇴하였다.

그러나 물러났던 중공군은 오후 10시경 중앙봉의 좌우에서 각각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소대는 다시 포격지원을 요청하고 유개호로 들어갔으나, 일부 중공군이 호 입구까지 접근하여 수류탄을 투척하여 소대는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대는 호 입구로 몰려드는 중공군을 맞아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격퇴시켰다.

대대는 무선통신기를 소지한 4명의 통신병을 베티고지로 급파하여 7월 16일 오전 2시에 대대 OP와 소대간의 통신을 개통시켰다.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오전 4시경 2개 소대규모의 중공군이 고지 서북쪽과 서쪽에서 공격을 시작하자 소대는 다시 포격지원을 요청하고 호 속으로 들어가 입구에서 수류탄전을 실시하였다. 포격을 견디지 못한 중공군은 물러갔으나 1시간 후 중대규모의 병력이 고지 북사면으로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소대장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소대원과 함께 교통호에서 수류탄전을 벌이며 고지를 방어하였으나,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소대원을 이끌고 호 속으로 들어가 포격을 유도하였다. 날이 밝으며 물러났던 중공군이 아침 무렵에 다시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소대는 다시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통해 이들을 격퇴시킨 후 오전 8시에 제3소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 이후에도 베티고지에서는 간헐적인 전투가 이어졌으나, 국군 제1사단 11연대는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서부전선의 북단에 위치한 베티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휴전이 성립될 경우, 주저항선에서 남쪽으로 2마일 이상이 비무장지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단은 그 만큼 남쪽으로 물러나게 되어 군사·지리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베티고지를 고수한 제2소대장 김만술 소위는 그 공로로 1954년 2월과 9월 미국 십자훈장과 대한민국 금성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소대는 전투과정에서 중

공군 314명을 사살하고 다발총과 수류탄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금성지구 전투

[金城地區 戰鬪, 1953. 7. 13. ~ 19.]

개요

국군 6개 사단(수도 · 제3 · 제5 · 제6 · 제8 · 제11사단)이 1953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부전선 금성돌출부 일대에서 중공군 제21 · 제54 · 제60 · 제67 · 제68군 예하 15개 사단의 공격으로 금성천 남쪽 백암산–주파령–적근산 부근으로 후퇴한 후 반격으로 전환하여 아이슬랜드선(간진현–금성천–462고지)까지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전개과정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중단되었던 휴전회담이 재개되며 정전이 임박한 1953년 7월 13일에 중공군은 마지막 대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른바 중공군 최후공세인 '7.13공세'였다. 6월 23일까지 6월 공세를 종결짓고 7월 공세를 준비했던 이들은 5개 군의 대병력을 동원해 국군 6개 사단(제2군단 4개 및 미 제9군단 2개 사단)이 방어하던 금성돌출부 전역을 공격하였다. 이는 반공포로 석방으로 6월 공세의 결과가 무색해지고 전쟁승리에 대한 선전효과가 퇴색하면서 한국 정부에 휴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공산군 측 지역으로 돌출한 금성돌출부를 제거하여 전술적인 이득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중공군의 공격목표가 된 금성돌출부는 1951년 유엔군 추계공세 당시인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 제9군단 예하 국군 제2사단, 제6사단, 미 제24사단이 금성을 향해 진격하여 노매드선(Nomad Line)을 점령한 후 금성을 감제하고 철의 삼각지대 우측방 일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폴라선(Polar Line)을 확보함으로써 전 전선 가운데 전선이 헬맷과 같이 북으로 돌출된 지역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금성돌출부'라 지칭하였다.

강원도 김화군 금성면과 원남면, 원동면 등이 포함된 폭 31km, 종심 10km의 이

지역에는 저격능선, 552고지, 교암산, 지형능선, 수도고지, 949고지 및 973고지 등 500~1,000m 고지들이 횡으로 연결되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45km에 이르는 주저항선 북쪽의 오성산, 용학산, 어은산 등과 남쪽의 대성산, 적근산, 백암산, 백석산 등이 남북으로 흐르는 북한강 및 금성천과 병행하여 종으로 능선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대 공격에 유리하였다.

중공군 지휘부는 이번 공세에서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수도 · 제6 · 제8 · 제3사단)을 섬멸하기로 하고 최종 목표를 적근산-백암산 선의 확보에 두었다. 이는 전선이 돌출되어 공격에 유리하고 앞선 두 차례 공세를 통해 이 지역의 지형과 국군 방어선에 익숙해져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공군은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으로 방어선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화천발전소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기도를 갖고 있었다.

본격적인 공세에 앞서 탐색전을 실시한 중공군은 최후공세의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주공인 제20병단(제54 · 제60 · 제67 · 제68군)에 제21군을 배속하고 전차 · 포병 · 공병 등을 지원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공격집단을 서부(제68군 203 · 제204사단, 제54군 제130사단), 중부(제67군, 제54군 135사단, 제68군 202사단), 동부(제60군, 제21군)로 나누어 동 · 서 공격집단이 견부에서 돌파공격을 실시한 다음 중앙집단과 협조하여 돌출부 중앙의 국군을 포위 섬멸할 계획이었다.

이 무렵 적정 파악을 통해 화천저수지로 지향된 중공군의 공세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은 각 군단에 방어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6월 공세 당시 와해된 국군 제2군단의 우측 방어선 강화를 위해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이로써 금성돌출부에는 미 제9군단 예하 국군 제9사단 일부와 수도사단,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6 · 제8 · 제3 · 제5사단 및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7사단 등 국군 7개 사단이 배치되었고, 제11사단이 군 예비로 화천 북쪽에 집결해 있었다.

이번 7.13공세는 금성돌출부 양 측방에서 시작되어 돌출부 정면으로 전환되었다. 중공군은 동 · 서 공격집단이 미 제9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 예하 제3사단을 돌파하여 돌파구를 확대하자, 중앙 공격집단이 국군 제2군단 제6사단과 제8사단 전면에 압력을 가하며 퇴로차단을 시도하였다.

1. 금성돌출부 좌견부 전투

금성돌출부 좌견부 방어를 담당한 수도사단장 최창언 준장은 하소리에서 회고개에 이르는 주저항선에 제26연대와 제1연대를 배치하고, 제1기갑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8군과 제54군 130사단으로 편성된 서부 공격집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야동-회고개 간을 공격하여 수도사단 제1연대를 섬멸한 후 이실동-북정령-월봉산 이북지역의 국군을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1953년 7월 13일 오후 9시를 기해 중공군 서부 공격집단은 수도사단 제26연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약 30분 후 포격방향을 전환해 사단 우측 제1연대를 강타한 중공군은 주공을 중치령과 회고개 방향에 투입하였다. 이에 제1연대장 최세인 대령은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예비인 기갑연대 제3대대를 중치령 접근로에 배치하였으나, 저지에 실패하고 부대가 완전히 분산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11시경 좌측 제26연대가 주저항선 붕괴로 남대천 남쪽으로 철수를 단행하자 사단장은 7월 14일 새벽 2시에 예비인 기갑연대 제1대대에 제59전차중대를 배속시켜 제26연대를 지원하였다. 약 2시간 후 사단장은 제26연대보다 제1연대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예비대 임무를 변경시켰다. 이 무렵 제1연대는 지휘소가 피습되고 많은 병력이 중공군에 포위되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에 제26연대는 큰 손실 없이 철수하여 방동 남쪽에서 재편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6시 미 제9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중장은 기갑연대 제1대대가 북정령에 저지선을 형성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수도사단 지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 제15연대를 수도사단 예비로 117A 도로 남쪽 신촌-간진현 일대에 투입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어 오전 10시 사단을 방문한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Maxwell D. Tayor) 대장도 117A 도로의 확보와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군단장에게 지시하였다.

수도사단은 새로운 주저항선 구축과 철수하지 못한 사단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미 제15연대가 제2저지선을 형성하던 7월 14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제26연대 및 제1연대로 117A 도로 북쪽 능선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공격은 실패하였으나, 이 공격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시켜 미 제15연대 투입을 보장하고 철수부대 병력을 일부 구출할 수 있었다.

다음날인 7월 15일 오전 8시 군단장이 미 제3사단장 리딩스(Eugene W. Ridings) 소장과 함께 사단지휘소를 방문해 정오까지 전선을 미 제3사단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단장은 철수하지 못한 병력을 수습하기 위해 계획된 공격을 실시한 후 인계하겠다고 보고하고 오후 0시 30분 양 연대로 공격을 개시하여 오후 3시경 117A 도로 북쪽 능선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중공군의 야간공격을 받고 능선에서 물러나 도로 남쪽 능선에 주저항선을 편성한 미 제3사단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수도사단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주저항선이 돌파되어 117A 도로 남쪽 능선에 저지선을 형성한 미 제3사단에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전환하였다. 전투기간 중 사단은 전방대대 OP와 제1연대지휘소가 피습되어 지휘기능이 일시 중단되고 연대장 육근수 대령이 전사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었으나, 117A 도로 북쪽 능선에서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함으로써 미 제9군단 우익과 국군 제2군단 좌익을 방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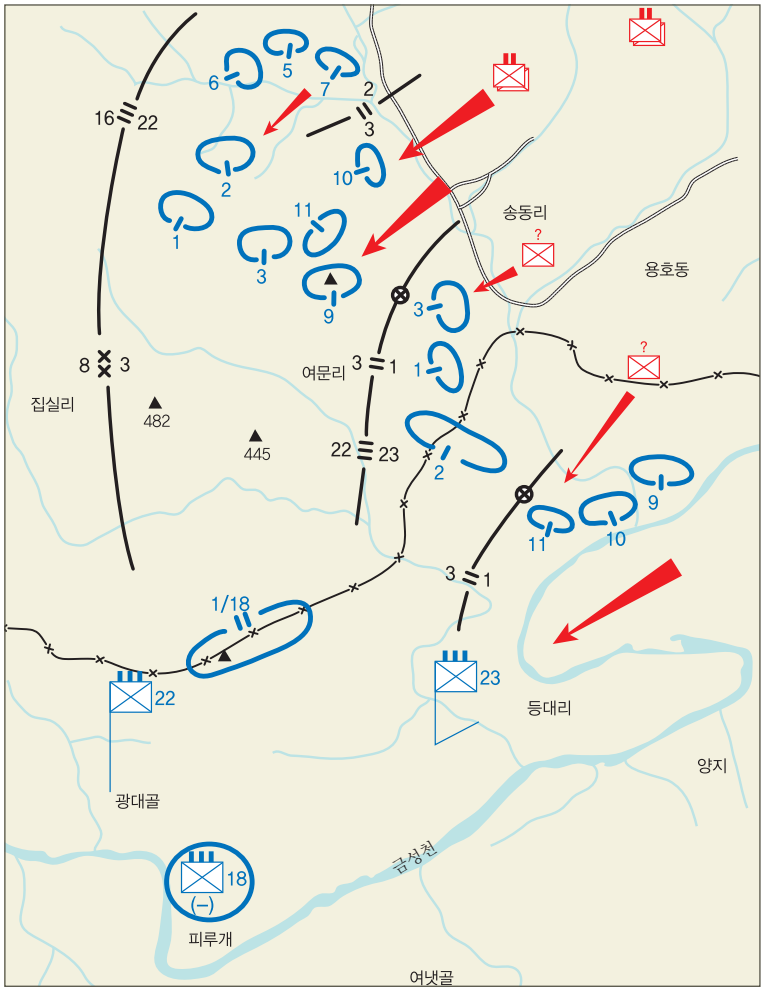
2. 금성돌출부 우견부 전투

금성돌출부 우견부에는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형능선 좌측에서 등대리까지 금성천 북쪽 방어를 담당한 제3사단장 임선하 소장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제18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양지촌-구대-후동-748고지를 잇는 북한강 서안과 동안에 방어선을 편성한 제5사단장 박병권 소장은 북한강 서안에 제35연대, 동안에 36연대를 배치하고 제27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0군과 제21군, 제68군 제605연대로 편성된 동부 공격집단이 위치해 있었다. 이들은 송실리-용호동 간을 공격하여 이 지역 서쪽의 국군을 섬멸한 후 공격을 확대하여 금성천 교량과 포구 및 금성-화천간 도로를 장악, 국군의 반격 및 증원을 차단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들은 7월 13일 오후 9시를 기해 제3사단 지역에 포격을 집중한 후 예상과는 달리 좌측 제22연대 3대대 정면을 2개 대대로 공격하는 한편 제23연대에 대해서는 중대규모 병력으로 견제공격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부 부대를 우측 제5사단 좌측방의 금성천 돌출부로 침투시켜 제23연대의 후방차단을 기도하였다. 맹렬한 포격에 이어 강력한 기습공격에 제3대대는 유무선이 두절된 상태에서 전방 중대진지가 돌파되고 주요고지인 485고지마저 빼앗겼다. 자정 무렵 제22연대는 좌측 제2대대가 고립된 상태에서 진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우측 제3대대는 통신두절로 포병지원마저 불가능해지자 연대지휘소 쪽으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23연대 지역에서도 좌측 제5사단 지역으로 침투한 중공군 일부가 연대지휘소를 습격해 연대 후방을 혼란에 빠트렸다. 동시에 전방에서는 중공군이 전초선을 통과하여 좌측 제1대대 주저항선을 공격한 후 우측의 제3대대를 압박하였다. 이에 연대장 장호진 대령은 제1대대 지역으로 진출한 제2대대의 1개 중대로 침투한 중공군을 격퇴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날 새벽 2시경 중공군은 제3대대 지역인 용호동-등대리 방면을 공격하였다. 제3대대는 주저항선에 설치한 네이팜탄을 폭파시키고 전차소대 지원 아래 방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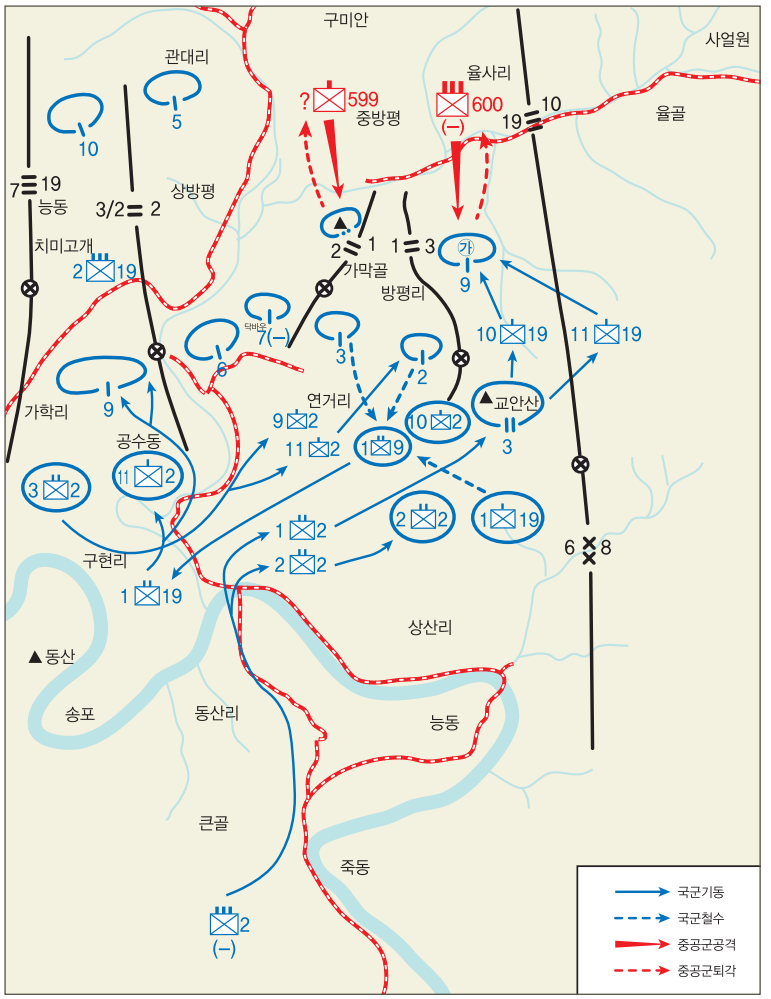
을 고수하였다.

중공군 주공이 예상과 달리 좌측 전방 지역으로 지향된 것을 확인한 사단장은 7월 14일 새벽 2시부로 제18연대장 박경원 대령에게 485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목표로 향하던 제18연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전투를 벌이던 중 중공군 대부대가 목표고지를 우회하자 포위를 우려한 사단장 명령에 따라 철수를 단행하였다.

제18연대의 역습이 좌절되자 사단장은 금성천 북안 509고지–434고지–472고지를 확보하여 제2방어선을 형성하도록 제22연대장 최병순 대령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중공군이 이 지역까지 침투해 있어 진지구축이 불가능하자 부대는 다시 분산 철수하

였다. 아울러 좌측 제18연대와 우측 제23연대도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금성천을 도하함으로써 금성천 북안에 구축하려던 제2방어선은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일부 부대를 제5사단 좌측 금성천 돌출부로 침투시켜 제23연대의 후방차단에 성공한 중공군은 그 여세를 몰아 금성천 동안의 제35연대 1대대를 공격하였다. 7월 14일 오전 8시경 중공군은 제1대대의 방어중심인 462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사단장 김종갑 소장은 이들이 금성천을 도하한 후 백암산 방면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단장 승인 하에 사단예비인 제27연대를 백암산 서쪽에 투입하고 수색중대를 백암산 동쪽에 배치하였다.



3. 금성돌출부 선단지역 전투

금성돌출부 선단지역에는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회고개-금성 남쪽-교암산 방어를 담당한 제6사단장 김점곤 준장은 회고개-사천리에 제7연대를, 사천리-교암산지역에 제19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2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교암산-690고지-612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8사단장 송요찬 소장은 제10연대를 교암산 동단 765고지-지형능선 690고지 일대에, 제16연대를 612고지 일대에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였다.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67군과 제54군, 제68군 202사단으로 편성된 중부 공격집단이 위치해 있었다. 이들은 관대리-교암산 간을 공격하여 국군 제8사단 10연대와 제6사단 19연대를 섬멸한 후 동산리-상산리 일대의 국군을 섬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7월 13일 금성돌출부 양쪽 견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은 동시에 4개 사단으로 돌출부 정면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압박하였다. 이에 앞서 제6사단은 중공군의 대공세가 임박했음을 포착하고 예비인 제2연대를 교암산 지역에 투입하는 한편 군단예비인 제11사단 예하 제9연대를 금성 남쪽 전선에 배치하여 4개 연대로 주저항선을 강화하였다.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은 교암산에 설치된 제6사단 2연대 전초를 일거에 돌파한 후 하고개-능동-교암산으로 연결된 사단 주저항선을 공격하였다. 주저항선 중앙을 담당한 제19연대는 가장 먼저 주저항선이 돌파되어 7월 14일 오전 8시 20분경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노동리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사단 중앙의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좌측 하고개 방면의 제9연대와 우측 교암산 방면의 제2연대도 중공군의 파상공격과 침투부대의 퇴로차단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제9연대장 김영하 대령과 제2연대장 고백규 대령은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오전 11시경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부대철수에 착수하였다. 제9연대는 좌측에 인접한 수도사단과 연계하여 진현리-삼현 선에 저지선을 형성하였으며, 제2연대는 배선골 일대에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7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노동리로 철수하였다.

한편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지형능선과 612고지 정면에서는 7월 13일 오후 10시경에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8사단 전초 방어부대들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도 중공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으나, 오후 11시 30분경 우회 침투한 중공군이 지형능선의 690고지를 탈취한데 이어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 사단 방어정면 중 가장 높은 지형인 765고지마저 점령하였다. 또한 사단은 우측에 인접

한 제3사단의 여문리와 집실리 지역에서 침투한 중공군에게 후방의 주요 고지들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제8사단장은 오전 11시에 군단장 정일권 중장으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성천 남안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단은 제21연대 엄호 아래 제10연대가 주파리로, 제16연대가 밤성골로 각각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금성돌출부 정면에서의 전투는 교암산과 지형능선 공방전에서 승패가 결정되었으며, 이 고지들을 상실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은 인접 사단들의 전선붕괴로 인해 금성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4. 신주저항선의 구축

중공군의 이번 공세의 목적이 양쪽 견부를 돌파해 국군 부대들을 포위하는데 있음을 간파한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대장은 돌출부지역의 국군 부대가 중공군의 양익 포위망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4일 오전 6시를 기해 돌출부지역의 수도 · 제6 · 제8 · 제3 · 제5사단에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2군단은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추격이 계속되어 조직적인 철수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제3사단을 후속한 중공군이 내성동리와 흑운토령을 넘어 백암산(△1179)을 목표로 추격을 가속함으로써 국군 제2군단은 금성천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위기로 치닫자 미 제8군사령관은 금성지구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전선조정과 부대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공수하여 국군 제9사단의 일부 전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도사단 좌측 전선을 강화하였다. 또한 7월 15일 정오를 기해 미 제3사단이 수도사단의 방어지역을 인수하는 한편 수도사단을 군단예비로 전환시켰다. 아울러 미 제8군의 예비인 국군 제11사단을 제2군단에 배속하고,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을 국군 제2군단에 배속하여 하노곡으로 추진하는 등 국군 제2군단의 전력을 강화하여 중공군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장은 제11사단을 전방에 투입하여 제6사단과 교대시키고, 제8사단과 제5사단으로 제3사단의 방어지역을 분담토록 조치하여 전방의 전선을 정비하는 한편 제6사단과 제3사단을 예비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은 제11사단이 진현리–주파리 선에서, 제8사단이 주파리–백암산 선에서, 제5사단이 백암산–소백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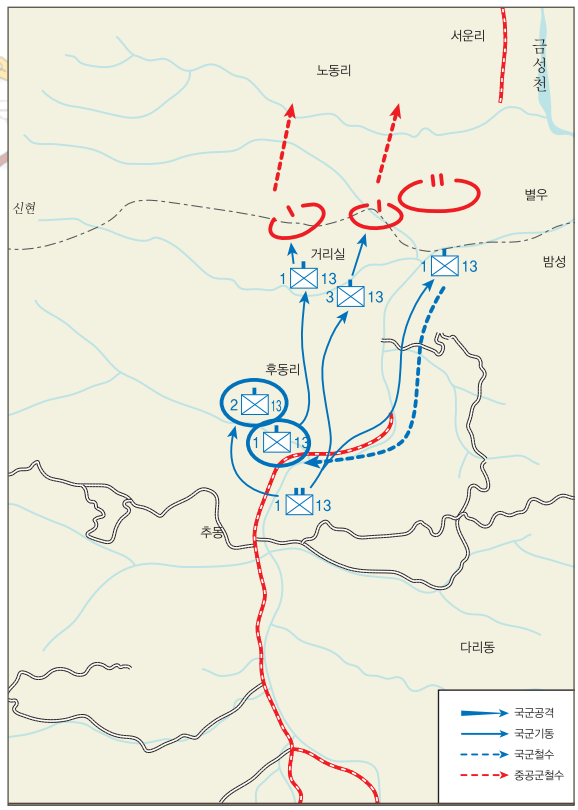
산–876고지 선에서 중공군 남하를 저지하게 되었다. 이때 예비로 전환된 제6사단과 제3사단은 와이오밍선(Wyoming Line)에 투입되어 재편성하며 방어종심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5사단이 중공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7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백암산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의 전선이 수동령–고둔골–수상리 남쪽 고지군에 형성되었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은 7월 15일 저녁에 와이오밍선 북쪽 진현리–삼현–주파리–수동령–고둔골–고비운리–전석–748고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주저항선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게 되었다.

5. 국군 제2군단의 반격과 전선정리

7월 15일 국군 제2군단이 와이오밍선 전방에 새로운 주저항선을 구축하자, 미 제8군 사령관은 금성천 확보를 위한 반격작전을 7월 16일부로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백암산을 점령한 중공군은 그 동안의 병력손실과 보급추진 부진으로 공격력이 한계에 도달한 듯 더 이상 공격을 중단한 채 점령한 진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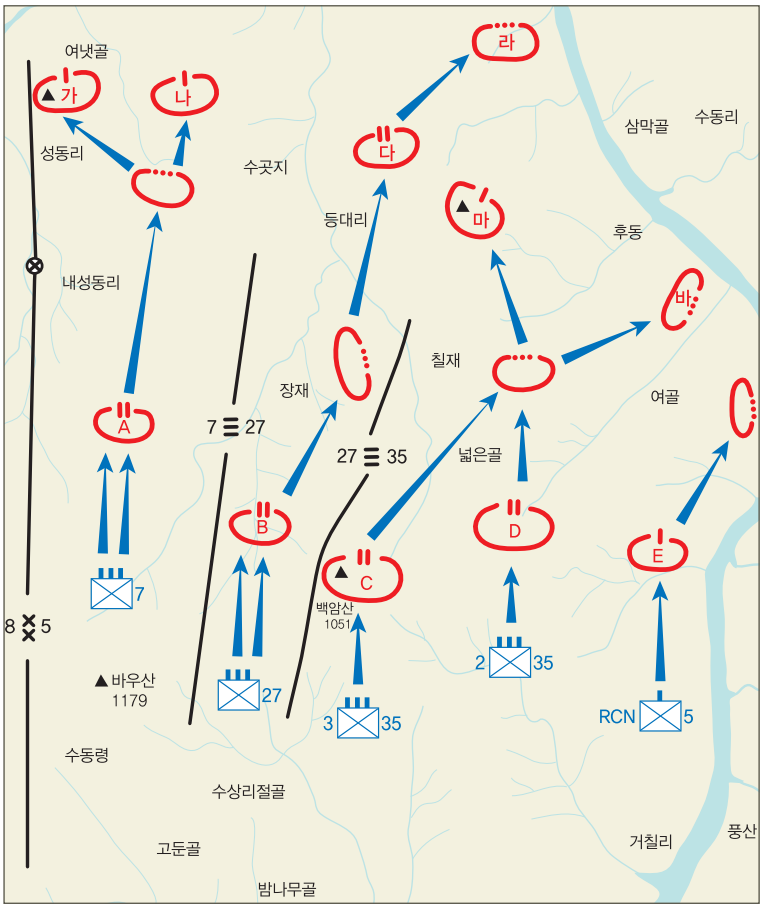
명령에 따라 국군 제2군단장은 전방 3개 사단을 반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어선 점령을 위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좌측 전방 제11사단장 임부택 준장에게는 진현리 633고지–삼현 602고지 선을, 중앙 제8사단장 송요찬 소장에게는 별우에서 성동리까지의 금성천을, 제5사단장 김종갑 소장에게는 7.13공세 이전의 북한강 서남지역을 점령하는 임무가 각각 부여되었다.



국군 제2군단 예하 각 사단들은 7월 16일 아침부터 중공군에게 빼앗긴 고지들을 탈환하기 위해 강력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군단 좌측 제11사단은 당시 진현리 633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현의 602고지를 공격목표로 설정하였다. 7월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제13연대는 602고지 동쪽 무명고지에 대한 공격에 착수하여 다음날인 7월 17일 새벽에 603고지를 점령하였으나, 고지에서 물러났던 중공군의 야간공격에 603고지를 다시 내어주었다. 이후 제11사단은 7월 20일 새벽까지 제13연대와 제20연대를 투입하여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방전을 계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빼앗긴 603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결하였다.

한편 군단 중앙에서는 제8사단이 금성천을 목표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장은 흑운토령(△851)을 점령하면 그 전방 고지들이 모두 감제 하에 놓여 점령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막골에 배치했던 제21연대를 흑운토령 공격에 투입하였다. 연대는 7월 15일 오후 7시를 기해 와이오밍선 전방진지에서 야간공격을 개시하여 제1대대가 목표 전방의 406



고지를 무난히 점령하였으나, 흑운토령을 공격한 부대가 남쪽 능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을 실시하였다.

군단의 반격개시일인 7월 16일에 제21연대는 제2대대가 흑운토령을 견제 공격하는 동안 흑운토령 서쪽과 서북쪽 695고지-682고지-596고지를 점령하여 차후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음날인 7월 17일 사단장은 흑운토령을 고립시킨 후 공격할 목적으로 제21연대장 성정모 대령에게 금성천 남안의 고지들을 점령하여 금성천을 확보하라고 명령하고, 제16연대장 안병건 대령에게는 백암산 서쪽 1118고지를 점령한 후 흑운토령을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날 양 연대는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여 제21연대가 흑운토령 북쪽 569고지-625고지를 점령하여 중공군 배후를 차단한 가운데 제16연대도 흑운토령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후 전선조정을 실시한 사단은 7월 18일과 19일에 금성천 남안으로 진출하여 반격작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군단 우측을 담당한 제5사단은 중공군의 공세에 백암산-소백암산을 상실하고 백암산 후방 수동령-고둔골-748고지-수상리 선에서 이들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반격에 나선 제5사단은 7월 16일 오전 6시 제27연대가 백암산을, 제35연대가 소백암산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날 공격에서 이들 연대는 공격에 불리한 지형과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인명손실을 입은 채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군단장은 백암산에 대한 공격력을 증강하기 위해 제6사단 7연대를 제5사단에 배속 전환시켰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 장도영 소장은 다음날인 7월 17일에 제27연대와 배속된 제7연대를 백암산 공격에, 제35연대를 소백암산과 876고지 공격에 각각 투입하였다. 백암산을 우회하여 그 북쪽으로 진격한 제27연대는 다음날 오전 항공지원을 받으며 백암산을 공격한 끝에 정상탈환에 성공하였고, 계속하여 전차 지원 아래 북한강변 662고지와 641고지마저 점령하였다. 또한 제7연대도 819고지를 점령한 후 이어서 금성천변 595고지와 689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소백암산을 목표로 공격에 나선 제35연대는 876고지와 833고지, 780고지를 차례로 탈환하고 북한강변 501고지로 진출하였으며, 소백암산도 20시간의 전투 끝에 탈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부여된 반격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금성천-북한강 선을 확보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반격작전을 실시한 지 3일 만인 7월 19일에 금성천을 확보하고 반격목표를 달성하였다. 군단장은 금성천에 도달한 사단들로 금성천 북안까지 계속 진격할 계획이었으나, 휴전을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출혈을 우려한 미 제8군사령관의 반대로 군단은 전선을 정리하고 중공군의 재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때 군단은 제11 · 제7 · 제8 ·

제6사단으로 금성천과 북한강에 연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예비로 제3사단과 제5사단을 편성하였다. 군단의 좌우측에는 미 제9군단 예하 미 제3사단과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45사단이 중공군과 마주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2군단은 금성돌출부 작전에서 백암산까지 상실하고 와이오밍선 전방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한 후 반격으로 전환하여 그 중간지역인 금성천을 확보함으로써 돌출부가 제거된 전선을 확보하였다. 이번 공세를 통해 중공군은 약 40km 정면에서 평균 4km를 남하하여 금성천 북안의 주요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국군은 아이슬랜드선(Iceland Line) 전방의 전초선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에 임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 기간 중 국군은 중공군 2만 7,216명 사살 및 3만 8,700명 살상(추정), 196명의 포로를 획득하였으나, 2,689명 전사 및 7,548명 부상 그리고 4,13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금성돌출부 전투는 6 · 25전쟁에 있어 군단급 부대가 방어 · 철수 · 반격이라는 일련의 작전형태를 보인 유일한 전투였다. 국군 제2군단이 비록 금성돌출부를 상실하였지만, 중공군 5개 군 15개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대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금성천을 회복한 의미 있는 전투였다. 국군 제2군단은 이 전투를 통해 화천과 화천발전소를 탈취하려는 중공군의 공세목표를 분쇄하였으며, 휴전선 확정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금성전투』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425고지 및 406고지 전투

[425高地-406高地 戰鬪, 1953. 7. 20.~24.]

개요

국군 제7사단이 1953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중부전선 금성천 부근 425고지와 406고지 일대에서 중공군 제54군 예하 제135사단과 제60군 예하 제180사단과 실시한 전초진지쟁탈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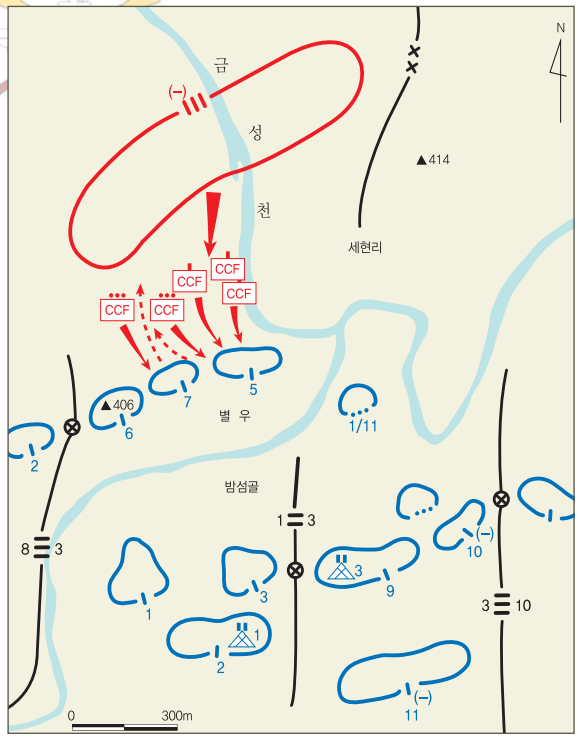
전개과정

6 · 25전쟁 전 기간 중 가장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425고지 전투 및 406고지 전투'는 중공군이 휴전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현재의 진지를 고수하는 한편 금성천 북안의 별우 지역을 확보한 후 국군의 주저항선을 압박해 금성 방어의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감행한 전투이다.

중공군의 공격목표인 425고지와 406고지를 아우르는 작전지대는 김화지구 남동부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질러 북한강에 합류하는 금성천 서쪽에 위치한 지대로서 해발표고 400m 내외의 고지들이 동서로 이어져 있다.

작전지역 북쪽에는 중공군 제54군(군장, 丁盛) 예하 제135사단이 금성돌출부 중앙지역의 방어를 위해 3개 연대를 배치하여 국군 제8연대 및 제3연대 일부와 대치하고 있었다. 또한 제60군(군장, 張祖諒) 예하 제180사단 538연대가 그 동쪽에서 국군 제3연대 3대대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들 병력은 약 7,900명에 포병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국군 및 유엔군의 계속적인 반격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

1953년 7월 17일 미 제10군단에서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국군 제7사단은 군단장 정일권(丁一權) 중장의 전선강화계획에 따라 제11사단과 제8사단이 맡고 있던 전선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이번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단은 금성천을 연대간 전투지경선으로 설정하고 제8연대를 좌측 거리실–삼현 간에, 제3연대를 우측 새말–거리실 간에 배치하면서 제5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였다. 사단은 제11포병단의 포격지원과 2개 전차소대의 화력지원을 받고 있었다.



1953년 7월 13일 '중공군 최후공세'로 미주리선(Missouri Line)에서 10km 후방 백암산–주파령 간 와이오밍선(Wyoming Line)까지 물러났던 국군 제2군단은 7

월 15일에 공세로 전환하여 금성천 남안까지 방어선을 북상시켰다. 금성천 북안으로 밀려난 중공군은 그 일대에 진지를 급편하고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7월 20일 새벽, 중공군은 국군 제8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425고지를 공격한데 이어 다음날 제3연대의 406고지마저 공격하였다. 이후 425고지에서는 7월 22일까지 3일 동안 전투가 이어지면서 세 차례 공방전이 펼쳐졌고, 406고지에서는 7월 24일까지 4일에 걸쳐 치열한 교전이 지속되었다.

국군 제11사단 13연대와 진지를 교대하던 제7사단 8연대는 7월 20일 새벽 4시경 1개 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50분 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 직후 작전 지휘권을 인수한 연대는 금성천을 연한 방어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경계에 돌입하였다. 이날 오후 10시경, 연대 우측 전선을 맡고 있던 제1대대 주진지 일대에 약 30분에 걸쳐 포격을 집중한 중공군은 1개 대대 병력으로 425고지를 3면에서 공격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박일(朴一) 중령은 대대의 전 화력을 425고지에 집중시키는 한편 미포병대대에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중공군의 진출로 일대에 각종 포탄이 떨어지고 진지에 배치된 제1중대가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격전을 펼친 끝에 대대는 1시간 30분 만에 중공군을 격퇴하고 제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자정이 지난 7월 21일 새벽 2시 30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중공군은 2개 중대를 투입해 425고지를 다시 공격하여 제2차전이 시작되었다. 제2중대 반격에 고지 아래로 물러났던 중공군은 또 다른 무리가 제1중대와의 전투지경선 사이로 침투해 주진지 전방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제1중대와 중화기중대의 집중된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새벽 4시경 고지에서 물러나면서 제2방어전도 종료되었다.

7월 22일 새벽 0시 40분, 중공군은 우측 제3연대 2대대 전초진지를 공격한데 이어 1개 대대병력으로 제1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양측 간 포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제1대대장은 중공군이 425고지에 앞서 돌출고지를 먼저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장 이병형(李秉衡) 대령에게 돌출고지에 대한 화력증원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중공군이 증원 병력과 함께 돌출고지 정상으로 몰려들었고, 진지 일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자 제1중대는 중대장 김한준(金漢俊) 대위의 명령에 따라 철수가 시작되었고, 이때 요청한 포격이 고지정상에 머물던 중공군에 집중되는 동안 대대가 반격으로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5시간에 걸쳐 이어진 제3차 방어전이 종료되고, 대대는 425고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7월 21일 새벽 4시부로 제8사단 10연대 진지를 인수해 사단의 우측 전선을 맡게 된 제3연대장 유중수(柳重秀) 대령은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주진지에 배치하고, 제2대대

에는 제21연대가 7월 20일에 탈환한 별우-406고지 간에 전초진지를 편성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날 연대는 대대별로 경계를 강화하고 전방지역에 대한 적정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공군은 7월 22일 이른 새벽에 제2대대 전초진지에 대한 강도를 시험하는 듯한 2차례의 공격을 실시한 후 새벽 3시 30분에 2개 중대규모로 제5중대 진지를 다시 공격하였다. 이때 제5중대는 60mm 박격포와 57mm 무반동총, 3.5인치 로켓포와 경기관총 등 다수의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진지 앞으로 몰려들던 중공군은 이러한 중화기의 집중공격을 받고 새벽 5시경 고지 아래로 물러났고, 약 30분 후 전열을 정비해 재개한 공격도 제7중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처럼 제2대대는 전초진지를 편성한 첫날 야간에 4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보전하였다.

다음날인 7월 23일 오후 10시 10분, 제2대대 6중대는 방어하고 있던 406고지를 공격한 소대규모 중공군을 30분 만에 격퇴하였다. 이에 대대장 장용남(張用南) 소령은 중공군이 병력을 증강해 다시 공격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예상대로 중공군은 7월 24일 새벽 3시경 대대규모 병력으로 406고지를 공격하였다. 대대장은 대대 화기를 제6중대 전면으로 전환해 지원사격을 실시하였으나, 중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나는 중공군을 저지하지 못하고 결국 새벽 4시 30분에 고지 뒤쪽으로 물러나며 406고지를 잃게 되었다.

이로부터 30분 후 제2대대장은 연대장 명령에 따라 제1대대 2중대를 이끌고 406고지 탈환을 위해 역습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인접중대 직사화기와 각종 박격포격이 406고지에 집중되자, 당황한 중공군이 고지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역습 30분만에 406고지를 되찾았다.

그 직후 연대장은 406고지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제1대대를 투입하였으나, 이날 정오경 대대규모 이상의 병력으로 밀어닥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제1대대는 고지에서 철수하였다. 이어 406고지를 상실해 후방이 노출된 제2대대도 금성천 북안 별우 지역에서 축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사단장 김용배(金容培) 소장은 전력이 과다 소모된 제3연대를 대신해 제5연대에 사단 우측전선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 1,605명을 사살하고 38명을 포로(귀순 1명 포함)로 획득하였으며, 60mm 박격포 2문을 비롯한 로켓포 7문과 기관총 30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

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도 전사 114명과 부상 433명, 실종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1953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투에서 425고지의 고수에 성공하여 휴전협상의 최종단계에서 금성천 일대의 현 접촉선을 확대하려던 중공군의 기도를 저지하였으나, 406고지의 상실로 금성천 북안 별우 지역을 중공군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9 (19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손규석 집필】

이화령 및 조령 전투

[梨花嶺 및 鳥嶺 戰鬪, 1950. 7. 13.~16.]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문경 북방의 이화령과 조령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사단의 남진을 저지시킨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수도 서울을 상실하고 한강방어선마저 와해된 국군은 차령산맥 일대에 제2차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2군단이 중동부지역에 공격을 집중하자 국군은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치며 소백산맥의 중앙지대로 후퇴하여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고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국군 제6사단은 문경지역의 방어를 담당함으로써 중부 내륙으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1사단과 대결하게 되었다.

작전지역은 충주에서 문경과 점촌을 거쳐 상주에 이르는 곳으로 만일 이곳이 돌파될 경우 낙동강까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중부의 주요 지역이었다. 삼남(충청 · 전라 · 경상도)의 경계이기도 한 이 지역은 태백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소백산맥이 주흘산–조령산–백화산 등 표고 1,000m 내외의 준봉과 죽령–조령–이화령–추풍령 등 준령으로 이어지면서 방어에 유리한 지세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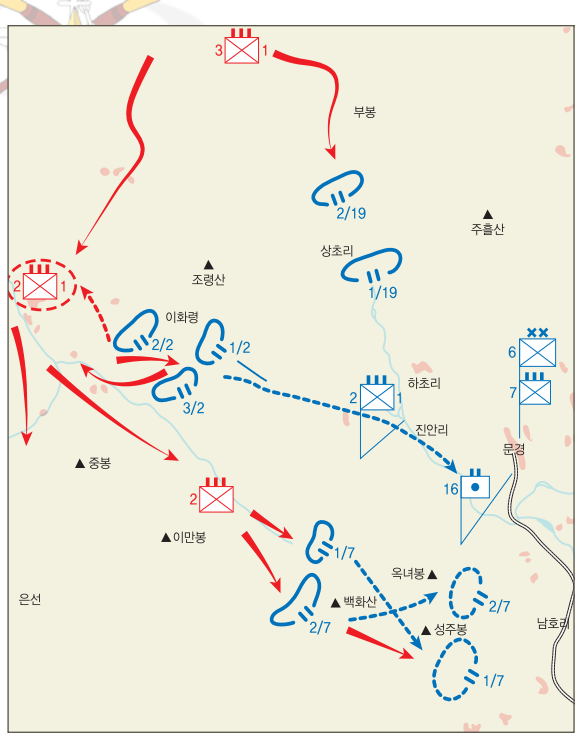
문경–점촌 일대를 방어하던 국군 제6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金武亭 중장) 제1사단(사단장, 崔洸 소장)이 예하의 제2 · 제3 · 제14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사단 포병연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의 총 병력은 약 8천 명에 달하였으나, 이들 중 약

30%가 의용군이고 15%는 비무장 병력이었다. 이들의 주요 장비는 76mm 자주포 12문을 비롯해 122mm 곡사포 7문, 76mm 곡사포 21문, 45mm 대전차포 43문, 120mm 박격포 40문, 82mm 박격포 80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12일 함창에서 창설된 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이날 문경에 집결하였다. 사단은 제2연대를 이화령에, 제19연대를 조령에 각각 배치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문경에 보유하였다. 사단의 총 병력은 6천 5백여 명이었고, 장비는 편제상의 약 70% 수준을 유지하였다. 3개 포대로 구성된 사단 예하 제16포병대대는 포대 당 105mm 곡사포 5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급은 현지 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방 추진으로 충족하였고, 탄약의 보급도 원활한 편이었다.

육군본부로부터 문경지역 방어명령을 받은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7월 12일 오전 5시 사단 주력을 문경지역에 집결시켰다. 제2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준장은 제6사단을 이화령–조령 일대에 배치해 북한군의 소백산맥 방어선 돌파를 저지한다는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에 제6사단장 김종오(金鍾五) 대령은 이화령과 조령에 방어중점을 두고 기동예비대를 보유한 거점방어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날 이화령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2연대장 함병선(咸炳善) 대령은 병력을 신진지로 이동시켰다. 오후 9시경 선두인 제3대대가 연풍삼거리에 도달했을 때, 수안보 방면으로 우회한 북한군 제1사단의 일부 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문경–함창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북한군 제1사단은 7월 10일 진격을 개시해 산악 소로와 계곡을 우회 기동한 끝에 7월 12일 이화령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제3대대가 접적을 유지하는 한편 후속대대의 철수가 이어져 다음날 새벽 2시경 연대는 이화령을 중심으로 급편진지 편성을 완료

하였다. 연대는 각 대대마다 불필요한 장비를 이화령 남쪽으로 후송하고 개인장비 및 공용화기만을 휴대시키는 한편 배속된 공병중대로 도로파괴와 장애물 부설에 주력하였다.

조령지역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19연대장 민병권(閔炳權) 대령은 제1대대를 조령 제1관문에, 제2대대를 제2관문에 그리고 제3대대를 갈평리 계곡에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은 방어정면의 측방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7연대 1대대와 3대대를 양 측방에 배치하였다.

7월 14일 새벽 4시 30분 북한군 제1사단은 이화령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주공인 제2연대로 국군 제2연대를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짙은 안개를 이용해 각 대대의 진지 진입을 시도한 끝에 제2 · 제3대대의 진지를 돌파하였다. 이에 국군 제1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역습을 개시하였다. 이때 철수하고 있던 병력과 이화령 뒷면에서 교전 중이던 제2대대가 가담하자, 북한군이 물러나기 시작하여 진지를 탈환할 수 있었다.

진지탈환에 이어 연대장은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각 대대에 연풍삼거리로 진격을 명령하였고, 정오가 지날 무렵 제1대대가 연풍 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날 오후 10시경 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노획한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이화령 진지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장갑차 3대와 트럭 10대, 개인화기 13정을 노획하고 포로 7명을 획득하였으나, 연대에서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제7연대장 임부택(林富澤) 대령에게 제2대대를 백화산으로 보내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하라고 지시하면서 사단지휘부를 문경에서 3km 남쪽에 위치한 남호리로 이동시켰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13사단(사단장, 崔勇鎭 소장) 주력이 은성 방면으로 진출해 예하의 제21연대가 백화산 쪽으로 침투하고 있었으나, 국군 제6사단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다 그들의 기습을 받고 사단지휘소를 다시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조령 제2관문을 방어하던 제19연대 2대대는 7월 15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군 제1사단 3연대 예하의 대대규모 이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진지에서 백병전을 실시하였다. 병력이 4백여 명에 불과했던 제2대대는 오전 8시경 진지가 와해되고 대대장이 부상을 입어 지휘체계가 마비된 상태에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중초리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조령 제2관문을 점령한 북한군은 오전 11시경 제1관문을 방어하던 제1대대를 공격하였다. 대대는 진지로 진입한 북한군과 백병전을 펼친 후 하초리 쪽으로 철수하였다.

이화령과 조령에 대한 북한군의 압력이 가중되고, 사단 서측방에 북한군이 출현한 상황에서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사단은 일부 진지를 재조정하여 제7연대 2대대를 백화산, 제1대대를 성주산에 각각 배치하였다.

다음날인 7월 16일 오전 6시를 기해 북한군 제1사단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제3연대를 문경 정면에 투입하고 제2연대는 이화령을 점령한 후 문경으로 진출토록 하면서 예비인 제14연대와 제13사단 21연대에 좌우측으로 우회하여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국군 제19연대 3대대 진지를 우회 침투하여 퇴로차단을 시도하였다. 제3대대장 김한덕(金漢德) 소령은 북한군의 파상공격으로 진지가 돌파되고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철수를 단행하여 오전 11시경 집결지인 팔령리에 도착하였으나 병력은 3백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날 오후 3시경 551고지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던 제19연대 제1 · 제2대대가 밀려나면서 오후 6시경 연대 방어선이 사실상 와해되었다. 이때 내려진 사단 철수명령에 따라 제19연대장은 제3대대를 봉명산에 배치한 후 제1 · 제2대대를 남호리로 철수시켰다.

한편 이화령을 고수하고 있던 제2연대는 양 측방에서 가해지는 북한군의 압력에 점차 고립상태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연대 좌측방의 위협은 물론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런 상황에 제19연대마저 철수하면서 조령 방면이 위기에 놓이자 사단장은 7월 16일 정오 무렵 제2연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고, 연대는 북한군 포격으로 상당한 병력손실을 입은 채 오후 7시 남호리에 집결하였다.

백화산에 배치된 제7연대 2대대가 북한군 공격에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7연대장은 오후 7시에 제2대대를 옥녀봉으로 철수시켜 성주산에 배치된 제1대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오후 9시경 문경을 점령한 북한군 제1사단은 성주봉과 옥녀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국군 제7연대의 방어진지가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이 전투를 통해 북한군 제2군단 주력이 상주 정면으로 침공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전선형성과 지연전을 전개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유엔군 증원부대가 도착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에 신속하게 남진하여 전쟁을 종료한다는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국방군사연구소, 『충주-점촌전투』 (1992)

【손규석 집필】

영강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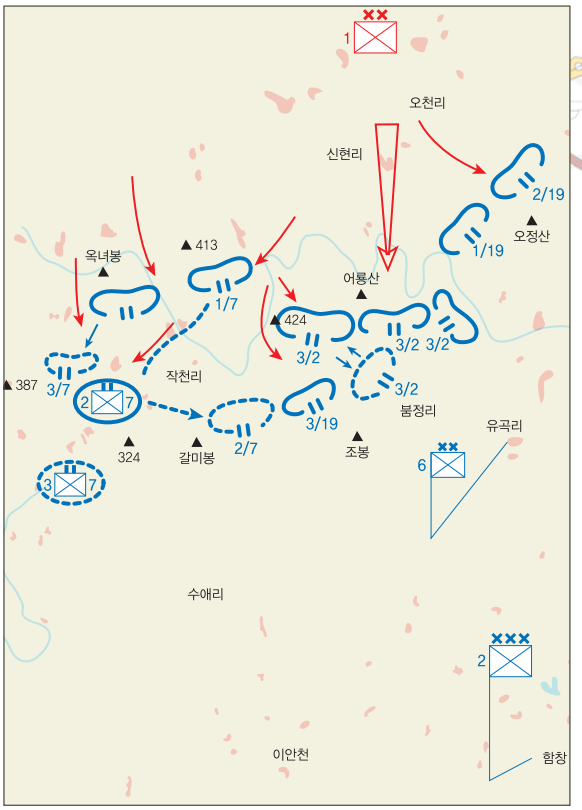
[潁江 戰鬪, 1950. 7. 17.~22.]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함창 북방 영강선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지연전을 수행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영동–함창–안동–영덕 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후 낙동강선에서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재편된 국군이 함창–예천–안동–영덕 선의 방어를 맡게 되었고, 그 중 제6사단은 문경–점촌 일대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게 되었다.



문경–점촌을 아우르는 작전지역은 소백산맥 중앙부에 속하는 험준한 지형으로 500~800m 내외의 준봉이 남서쪽으로 뻗어있고, 어룡산, 오정산, 옥녀봉, 413고지, 조봉과 같은 방어지역 내를 감제 관측할 수 있는 고지들이 솟아 있다. 또한 속리산에서 발원한 영강이 200~300m의 하폭을 이루며 점촌 남쪽에서 이안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이화령과 조령 일대에서 영강 방어선으로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의 총 병력은 경찰 병력 200명을 포함해 약 6천 5백 명이었고, 장비는 편제상의 약 70% 수준을 유지하였다. 3개 포대로 구성된 사

단 예하 제16포병대대는 포대당 105mm 곡사포 5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급은 현지 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방 추진으로 충족하였고, 탄약의 보급도 원활하였다.

국군 제6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金武亭 중장) 제1사단(사단장, 崔洸 소장)이 영강을 돌파하기 위해 3번 도로를 따라 신현리 일대에, 문경 서쪽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해 은성 방면으로 남하한 제13사단(사단장, 崔勇鎭 소장)이 상괴리 일대에 집결해 있었다.

7월 16일 오후 9시에 열린 작전회의에서 문경고수를 결의한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金鍾五) 대령은 다음날인 7월 17일 새벽 1시경 제2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준장으로부터 영강선으로 철수해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1사단이 문경에서 유곡 쪽으로, 서측방 제13사단이 상괴리에서 은성 쪽으로 쇄도하며 국군 제6사단을 압박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영강 북안의 옥녀봉-413고지-오정산을 연결하는 일자형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예하 3개 연대를 축차로 철수시켜 일선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철야로 철수를 단행한 사단은 새벽 5시경 어룡산-378고지에 제2연대, 옥녀봉-413고지에 제7연대, 628고지-오정산에 제19연대 그리고 유곡리 부근에 제16포병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진지점령이 완료되자, 사단장은 7월 18일 사단지휘소를 유곡에서 점촌으로 이동하였다.

7월 19일 오전 6시경 상괴리로 우회한 북한군 제13사단은 국군 제7연대를 공격하였다. 이들은 주공으로 413고지를 공격하면서 조공으로 어룡산 서쪽 1.5km 지점의 424고지를 공격하였다. 제7연대는 북한군이 제2연대와의 전투지경선 사이를 공격함으로써 우측 진지 일부가 돌파되었다. 이에 제7연대장 임부택(林富澤) 대령은 북한군의 영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예비인 제2대대를 갈미봉에 투입하고 제1대대를 413고지에서 철수시켰다.

413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오후 2시경 국군 제7연대 3대대가 방어하던 옥녀봉을 세 방향에서 포위 공격하였다. 977번 도로축선상의 요충인 옥녀봉이 돌파될 경우 사단의 서측방이 위험하기 때문에 제3대대는 3시간 동안 격전을 펼친 끝에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7월 20일 오전 6시,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연대규모 병력으로 무두실 계곡을 통해 옥녀봉을 다시 공격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3대대는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를 그곳에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북한군의 화망에 빠져들어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옥녀봉 서측과 그 우측에서 5시간 동안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장은 더 이상 옥녀봉 사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 대대에 324고지와 387고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제7연대는 이날 오후 5시에 387고

지-324고지-갈미봉을 연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사단지휘소를 방문한 신임 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준장으로부터 점촌-함창 축선을 사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제6사단은 다음날인 7월 20일 새벽 2시를 기해 사단 전 정면에서 북한군 총공격에 직면하였다. 북한군은 387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연대병력을 투입해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오전 9시경 제7연대 1대대와 3대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7연대는 7km 후방에 떨어진 지휘소가 화령장에서 남하한 북한군 제15사단 48연대 소속 200여 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대전차포 중대원들이 3시간의 격전 끝에 격퇴하였다.

그러나 어룡산 일대를 방어하던 제2연대는 영강을 건너 온 연대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고 고지를 내어준 채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은 어룡산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조봉을 공격하였으나, 제19연대 3대대의 저항으로 고지탈취에 실패하였다. 이날 오전 7시에 제2연대장 함병선(咸炳善) 대령은 제3대대장 이운산(李雲山) 소령에게 어룡산 탈환을 명령하였다. 역습에 나선 대대는 5시간에 걸친 공격에도 목표고지 탈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유엔공군 전폭기 편대가 어룡산의 북한군을 폭격하는 동안 역습을 감행하여 오후 1시경 어룡산을 탈환하였다.

한편 7월 21일 오전 6시경 북한군 제1사단 예하 연대규모 병력이 전차 4대를 앞세우고 진남교 부근에서 영강을 도하하였다. 이에 따라 방어정면 중앙이 돌파될 위기에 처한 국군 제6사단장은 즉각 포병 및 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군단장도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에게 전차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유엔공군 전폭기 편대가 출현하여 북한군 집결지와 전차를 폭격하고 미 야포대가 제2연대를 화력 지원하였다. 그리고 미 전차 1개 소대를 지원받은 제2연대는 역습을 실시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고 어룡산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7월 22일 새벽 4시, 북한군 제1사단은 어룡산과 오정산을 2개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였다. 2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제2연대 3대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룡산에서 물러나 후방의 고지로 후퇴하였다. 북한군은 어룡산을 점령한 후 조봉을 공격하였으나, 고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9연대 3대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어룡산과 조봉에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7연대장은 제3대대장 이남호(李南浩) 중령에게 옥녀봉 탈환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새벽 5시를 기해 공격에 나서 2시간의 전투 끝에 오전 7시 옥녀봉 탈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시간 후 북한군이 역습을 개시하여 옥녀봉 확보를 위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때 대대는 대전에서 편성된 학도의용군 180명과 함께 고지를 방어하던 중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며칠 동안 이어진 전투로 부대정비가 시급하던 제7연대는 제6사단에 배속된 수도사단 제1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함창으로 이동하였다. 진지를 인수한 제1연대장 윤춘근(尹春根) 중령은 324고지-갈미봉에 병력을 배치하고 492고지-760고지 일대에 새로운 경계진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영강 북쪽 옥녀봉과 387고지를 포기하는 대신 영강 남쪽 진지를 서남쪽으로 더욱 연장하여 편성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영강 전투에서 북한군 제13사단과 제1사단의 남진을 어룡산-오정산-옥녀봉 선에서 저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1차적인 지연작전 임무를 완수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유엔군의 증원부대가 도착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에 신속하게 남진하여 전쟁을 종료한다는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국방군사연구소, 『충주-점촌전투』 (1992)

【손규석 집필】

유곡리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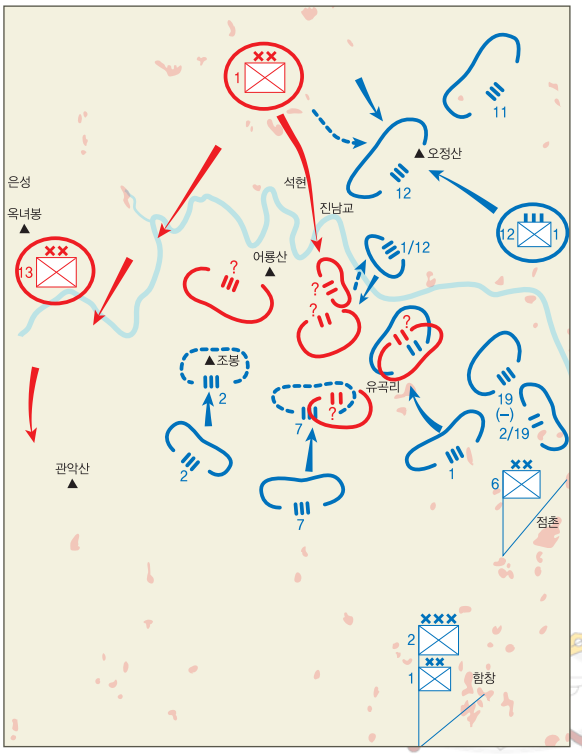
[幽谷里 戰鬪, 1950. 7. 23.~30.]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점촌 북방 유곡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사단 및 제13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축차적인 지연전을 실시하며 후퇴하던 국군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방어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창설된 국군 제2군단은 예하 전투 부대를 이화령-조령-죽령 선에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경 정면의 방어를 담당한 제6사단은 이화령-조령 일대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남하를 저지 지연시킨 후 유곡리 일대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작전지역은 소백산백이 남서쪽으로 뻗어 있고, 평균 표고 600~1,000m 내외의 준봉들이 이어져 중부와 영호남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지역 내 주요 고지로는 오정산, 어룡산, 조봉, 413고지, 옥녀봉 등을 들 수 있고, 속리산에서 발원한 영강이 동북쪽으로 반월형을 그리면서 가은과 점촌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방어에 유리한 지세이다. 도로망은 문경-점촌-상주를 연결하는 3번 국도와 문경-농암을 잇는 977번 지방도로 등이 있는데, 3번 도로는 작전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할 뿐만 아니라 기계화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였다.

유곡리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한 국군 제6사단 병력은 약 6,500명이었고, 장비는 편제상의 약 70% 수준을 유지하였다. 3개 포대로 구성된 사단 예하의 제16포병대대는 포대 당 105mm 곡사포 5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급은 현지 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방 추진으로 보충하였고, 탄약의 보급도 원활하였다. 반면에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金武亭 중장)은 예하의 제1사단(사단장, 崔洸 소장)이 3번 도로를 따라 영강 북안에서, 제13사단(사단장, 崔勇鎭 소장)은 문경 서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해 은성 방면으로 남하하여 국군 제6사단을 위협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23일 오전 5시, 북한군 제1사단은 국군 제6사단의 중앙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어 보전협동부대는 전차를 선두로 진남교 부근에서 영강을 도하한 후 문경탄광 방면으로 기동하였고 선두부대는 국군 제2연대 1대대 진지로 향하였다. 2시간이 경과할 무렵 2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제2연대 1대대 진지와 583고지의 제3대대를 공격함으로써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전 9시경 조봉의 방어를 맡고 있던 제19연대 3대대는 2개 방향에서 공격해

온 북한군과 백병전까지 벌였으나, 조봉을 빼앗기고 후방으로 후퇴하게 되어 제2연대는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2연대를 유곡리로 철수시키고 함창에 집결 중인 제7연대를 점촌 북방으로 이동시켜 제2연대의 철수엄호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토록 지시하였다.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제2대대를 358고지에, 제1대대를 267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예비인 제3대대를 공평리 부근에 집결시켰다. 이로써 연대는 3번 도로 축선으로 지향한 북한군과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때 제2연대는 조봉 남쪽 651고지로 이동하여 제19연대 3대대 진지를 인수하고 조봉탈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처럼 사단의 중앙방어를 담당한 제2연대가 3km 후방까지 물러섬에 따라 좌측 제1연대와 우측 제19연대도 후방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은 492고지-760고지-651고지-267고지-신기리-우지리를 잇는 반월형의 방어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작전회의를 개최한 사단장은 제2연대와 제7연대에 각각 조봉과 불정산에 대한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7월 24일 오전 6시를 기해 제2연대는 제3대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여 7시간의 교전 끝에 오후 1시경 조봉을 탈환하였으나, 이날 밤 북한군의 반격을 받고 공방전을 벌인 결과 정상 일부만을 확보한 채 북한군과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불정산 탈환임무를 받은 제7연대는 제1대대가 583고지를, 제3대대가 414고지를 탈환한 후 양 방향에서 불정산을 공격한다는 계획 하에 오전 6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북한군의 저항으로 공격이 지지부진하던 중 우측 제19연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밀리게 되어 오히려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제7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불정산 공격을 중단하고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유곡리 정면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을 3번 도로 축선에서 격퇴하기 위해 오후 5시경 제1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여 진지편성을 완료하였다. 이때 좌측 제7연대가 651고지-358고지 서측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고, 우측 제19연대도 진지를 돌모산 북쪽 능선까지 연장하여 유곡리 정면에서 국군 3개 연대가 북한군 제1사단과 맞서게 되었다.

7월 25일 북한군 제2군단장 김무정 중장은 국군 제6사단의 방어정면을 돌파하기 위해 제13사단을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가운데 조봉을 방어하던 국군 제2연대는 새벽 2시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고지를 상실하였으나, 예비인 제2대대의 역습으로 오전 7시에 고지를 탈환하였다. 제19연대 대전차특공대는 3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전차 4대를 돌모산 기슭에서 매복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북한군은 3번 도로를 따라 267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맞서 수도사단 제1연대는 오후 10시까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진지고수에 실패하고 유곡리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3번 도로상의 요충인 유곡리를 상실한 사단은 3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487고지와 227고지로 이동시켜 제1연대 진지와 연결시켰다.

한편 제6사단이 북한군 전차와 포화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던 7월 26일 오후 4시에 국군 제1사단 주력이 함창으로 진출하여 제6사단의 돌파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제1사단은 함창에서 해체된 제2사단 제5연대와 제20연대를 제11연대 및 제12연대에 각각 통합하여 재편성한 후 제13연대를 함창 서북쪽에 배치해 제6사단 좌측과 연계하고 즉각 제11연대 및 제12연대와 함께 반격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 일대 작전은 군단규모로 확대되었고, 제6사단의 방어선은 조봉 이동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제1사단에 영강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북한군 제1사단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영강 동쪽으로 이동한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7월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반격에 나서 제12연대가 오정산과 628고지를, 제11연대는 부운령을 탈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6사단도 유곡 남쪽에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 제19연대와 제1연대는 신기리와 유곡리 일대를 탈환하였으며, 동시에 제7연대와 제2연대도 조봉 일대 북한군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채 영강 북쪽 고지 일대로 철수하였다.

한편 반격작전 후 국군 제6사단이 유곡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동안 제1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함창으로 철수, 제6사단과의 연결을 통해 함창 서북방을 방어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군 제2군단장은 제1사단과 제13사단, 제109전차연대가 많은 손실에도 유곡리 돌파에 실패하자, 7월 28일 작전을 변경하여 제1사단을 서측 도로로 우회시켜 함창 서북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국군 제1사단장은 함창 서북방에서 적정이 확인되자 모든 지원화력을 요청하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투입하여 이안천 남안의 국사봉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7월 29일 미명, 북한군 제1사단은 제13연대 정면과 제6사단과의 접경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3연대 1대대는 제6사단 포병의 지원사격 아래 이들을 저지하였고, 제2대대는 4대의 장갑차를 선두로 접근해오는 북한군 1개 연대를 미리 계획된 화력으로 격퇴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은 결국 수차례에 걸친 공격실패와 지속적인 공습 및 포격으로

인해 전투력 중 많은 부분을 상실한 후 은척산 일대로 잠입하여 부대재편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에 많은 손실을 가하고 상주로의 진출을 차단한 국군 제2군단은 7월 31일 육군본부로부터 낙동강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지역의 작전을 종결하였다. 제6사단은 제1사단의 엄호를 받으며 성주 용기동으로 철수하였고, 이어 제1사단도 낙동리로 이동하여 진지편성에 착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유곡리 전투에서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남진을 저지하였을 뿐 아니라 병력 및 장비에 막대한 손실을 가해 부여된 지연작전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유엔군의 증원부대가 도착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에 신속하게 남진하여 전쟁을 종료한다는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한국전쟁사』 8 (19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국방군사연구소, 『충주-점촌전투』 (1992)

【손규석 집필】

Ⅲ

6·25 전쟁 주요 전투

전투 항목(해군편)

옹진 해상철수 지원작전

[甕津 海上撤收 支援作戰, 1950. 6. 26.]

개요

한국해군 제1정대 LST 801함과 소해정 JMS정이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황해 강령반도 이남의 육상 퇴로가 차단된 육군 제17연대 병력을 부포에서 인천으로 철수시키고, 연평도로 집결한 나머지 병력을 후송시킨 작전이다.

전개과정

전쟁 당시 38도선 이남 옹진반도와 강령반도는 남한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육상연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섬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더욱이 이곳은 해주에서 불과 10km 거리에 놓여 있어 북한군의 곡사포 사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형 여건 아래 북한의 기습남침은 육군 제17연대 병력의 육상 철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연대의 작전 또한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그들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힌 후 해군 지원을 받아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중순 무렵부터 옹진반도 북단의 태탄지구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25일 새벽 4시를 전후해 육군 제17연대 제1대대가 주둔한 자동 지구와 제3대대가 주둔한 작산 일대에 포격으로 기습공격을 가하자, 제17연대장은 병력을 26일 옹진반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기만을 하면서, 주력 병력은 부포항으로 향하도록 했다.

제17연대 상황을 보고받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해군 총참모장 직무대행은 당일 오후 2시 LST 1척을 황해도의 부포에 급파하여 육군 제17연대 병력을 인천으로 수송하라는 명령을 제1정대에 내렸다. 이에 따라, 제1정대사령은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천안함(LST-801)에 출동 명령을 내렸고, 801함은 오후 5시 인천항을 출항하여 오후 11시 강령반도 남단의 부포항에 도착하였다. 801함은 부포 외항에 머물다 27일 오전 10시 육군 제17연대 병력이 부포에 도착하자 부두에 접안하여 제17연대 병력 1,050명을 태워 오후 3시에 인천으로 출항하였다.

801함이 출항하였으나, 백인엽 제17연대장은 북한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40여 명의 안위를 생각해 현지에 잔류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801함에 의해 국방부에 보고되자,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제1정대장에게 연대장 구출 지시를 내렸다. 연대장은 부하의 설득으로 27일 전마선을 이용하여 연평도로 철수하였다. 제1정대사령관은 소해정 JMS-302정 및 307정을 연평도로 출동시켜 제17연대 연대장과 분산되어 연평도로 철수한 병력들

도 철수시켰으며, 외야리에서 철수 병력을 엄호한 후 이곳으로 철수한 40여 명도 307정편으로 27일 새벽 4시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해군 제1정대는 해상철수 지원으로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전멸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처지에 있었던 육군 제17연대 병력을 구출하였다. 인천으로 철수한 제17연대 병력은 주력이 집결한 수원으로 이동해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군의 대규모 작전인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38도선초기전투』(1985).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옥계 해전

[玉溪 海戰, 1950. 6. 25.]

개요

한국해군 제2정대 509정이 1950년 6월 25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옥계 해역으로 출동해 동해안에 추가로 상륙을 시도하는 북한 상륙군과 선박을 해상에서 저지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옥계는 강릉시 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묵호, 삼척, 죽변 등으로 이어지는 동해의 해안가에 있다. 특히 북한군은 옥계지구를 확보해 강릉 주둔 국군 제8사단을 고립시켜 후방을 교란하려 했다.

북한군은 남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상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상륙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의도 아래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30분 북한군은 945군부대 1,800여 명을 옥계 해안과 그 북쪽 정동진 · 금진에 상륙시켰다. 또한 766유격대 1,300여 명을 옥계 남쪽 삼척 · 임원에 상륙시켰다.

대한민국 해군은 전쟁 전 인천에 주둔한 제1정대가 서해를 담당하였고, 부산에 기지를 둔 제2정대가 동해를 담당하였으며, 목포에 기지를 두고 있었던 제3정대와 진해의 훈련정대가 남해의 경비를 맡고 있었다. 제1정대와 2정대의 함정들이 1950년 5월에 증강 배치되

었고, 묵호경비부와 포항경비부를 중심으로 주문진, 삼척, 죽변, 감포 등에 해상감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소해정 JMS-304정이 경비임무 종료 후 부산 복귀 중에 있었으며 YMS-509정은 부식 보급을 위해 묵호항에 대기 중이었다.

해군본부에서 묵호경비부로부터 옥계해안에 북한군이 침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새벽 5시 YMS-509정에 긴급 출동명령을 내리자, 509정은 오전 6시 악화된 해상 상태 속에서 묵호를 출항하였다. 509정은 북상하여 미확인 선박 1척을 발견하고 국적 응답을 요구하는 발광신호를 발신하였다. 미확인 선박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509정이 미확인 선박으로부터 1km 떨어진 해점에 접근했을 때 미확인 선박이 포격을 가해오자, 적선으로 확인된 상대 선박에 대해 37밀리 포와 중기관총으로 응사하였다.

북한 해군 포함(PGM)은 40mm 포로 무장돼 있었고 속력도 509정보다 빨랐으나, 509정이 함정 갑판에 37mm 포를 명중시킨 이후 화력과 속력이 떨어진 상태로 북으로 도주하였다. 목선인 509정은 적탄 1발을 맞고 부분 침수가 있어 오전 8시 묵호로 귀항하여 긴급 수리작업 후 다시 오전 9시 50분 옥계해역으로 출동하였다.

이후 북한군이 이미 상륙한 것이 확인된 후 오후 3시 509정이 옥계 북방 3km 지점에서 상륙 중이던 북한군 무장병력들에 대해 포격을 가하자 북한군은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산속으로 도주하였다. 15분이 경과한 후에 도주한 북한군이 509정에 박격포 사격을 가해왔으

나, 이후 509정은 오후 5시 30분 상륙정 1척을 파괴하고 발동선 1척을 나포하여 묵호항에 귀항해 나포 선박을 묵호경비부에 인계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해군 509정은 북한군 상륙부대의 후속 상륙을 해상에서 저지해 동해안 후방 깊숙이 우회 침투해 강릉 주둔 국군 제8사단을 고립시키고 후방 교란을 꾀하려던 북한군의 작전을 무산시켰다. 북한군 게릴라 병력을 해상에서 사전에 격멸하지 못하였으나, 북한해군 포함 1척에 손상을 입히고 격퇴시켰으며 상륙정 1척을 격파하였고, 발동선 1척을 나포하였다. 이러한 전과뿐만 아니라 해안 함포사격으로 이미 상륙한 북한군의 활동을 저지하였으나, 509정도 북한군 포함으로부터 함수가 피탄되어 피해를 입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2] (2005).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대한해협 해전

[大韓海峽 海戰, 1950. 6. 25.]

개요

한국해군 백두산함이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오후 8시쯤 괴선박을 발견한 이후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기습 침투하던 북한군 무장선박으로 확인되어 6월 26일 새벽 0시 30분부터 대한해협 인근 해역에서 교전 끝에 병력 약 600명을 태운 무장수송선을 부산 앞바다에서 격퇴시킨 전투이다.

전개과정

대한해협은 부산 인근 동북방 해역 및 동남방 해역이고, 부산은 한반도 동남부 해안에 자리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도시다. 이곳에 북한군 게릴라 병력의 상륙과 후방 교란은 한국군의 전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었다.

해군 자체적인 모금 운동과 정부 지원으로 미국에서 인수된 백두산함(PC-701함)은 진해항에서 1950년 6월 25일 주말을 맞아 당직자 위주의 승조원들이 함정에 대기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무렵 통제부사령관이 백두산함을 직접 방문해 당직사관에게 비상소집 및 출동 준비지시를 하였다. 해군본부로부터 진해통제부사령관에게 백두산함을 기함

으로 소해정 2척을 동해로 출동시킬 것과 2정대사령관과 협의하여 동해경비를 강화하고 북한함정 발견 시 즉각 격침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최용남 백두산함 함장은 25일 오후 3시 소해정 YMS-512정과 함께 출동하였고, YMS-518정은 보급물자 적재 지연으로 늦게 출항하였다. 백두산함은 저녁 6시 38분 부산 앞 오륙도 인근 해역에서 동북 방향으로 항진하였고, 오후 7시 30분 침로를 북쪽으로 잡고 항진을 계속하였다. 보급품을 적재하고 늦게 출항한 518정은 백두산함 7km 후방에서 항해하였다.

북상 중이던 백두산함이 검은 연기를 내뿜은 채 정남쪽으로 10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던 괴선박을 발견하였다. 백두산함은 괴선박과 3km 거리를 유지하며 출항 시간, 출항지, 목적지를 국제발광신호로 문의하였으나, 그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괴선박을 의심하고 백두산함 승조원들은 정지 신호와 조명을 보냈으나 계속적으로 응답이 없어 적선으로 확신하였다. 조명으로 괴선박을 확인 결과 괴선박은 선명도 국적도 없는 선박으로서 선미에 2정의 중기관총이 감추어진 것이 확인되고 북한군 복장을 한 병력이 확인되었다. 백두산함은 북한군 육전대로 보이는 약 600명의 병력을 태우고 항진 중인 1,000톤급의 수송선을 해군본부에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렸다.

백두산함은 북한군 선박으로 보이는 선박을 영해 6km 이내로 유인을 시도하였으나 힘들자, 해군본부로부터 격침명령을 받아 적선과 3km 거리를 두고 적선을 계속 추격하며 26일 새벽 0시 30분 3″ 포사격을 하였다. 이어서 YMS-518정도 37mm 포를 발사하자, 적선은 57mm 주포와 중기관총, 경기관총으로 응사하였다. 백두산함이 적선 1km까지 접근하여 3인치 포로 무장선박 중앙 하부에 명중시켜 적선은 화염 속에 기울기 시작하였다. 백두산함의 포가 재차 명중시켜 적선의 흘수가 더욱 낮아졌다.

이후 3″ 주포가 고장이 난 백두산함에 북한군 무장선박이 400m까지 접근하여 포를 쏘아 백두산함의 조타실에 맞았다. 그들의 공격으로 승조원 2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새벽 1시 25분 북한군 무장선박의 침몰이 확실시되자 백두산함은 새벽 5시 45분 포항으로 향하였다.

결과 및 영향

백두산함이 대한해협 해역에서 600명이 넘는 병력이 승선한 북한군 무장선박을 격퇴시킴으로써, 남한의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려던 북한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해 동·서·남해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병력을 비롯해 보급품과 군수물자가 부산항으로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2 (2005).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최영섭, 『6 · 25 바다의 전우들』 (세창미디어, 2013).

【배안석/조성훈】

동해안 봉쇄작전

[東海岸 封鎖作戰, 1950. 6. 25.~7. 13.]

개요

동해에서 한국해군 제2정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북한군의 동해안 상륙 및 해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일 평균 5~7척의 함정이 경비를 실시하며 동해를 봉쇄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백두산함이 부산 방향으로 무장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해 항해하던 북한군 무장선박을 대한해협에서 격침시킨 이후, 전쟁 초기 한국해군의 해상봉쇄와 경비활동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한국해역에서 봉쇄작전은 전쟁 초기에 한국해군 함정에 의해 연안과 연안접근 수로에서 북한군 상륙부대의 상륙저지를 위한 초계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전투를 치렀다.

한국해군 함정은 미 해군을 비롯한 유엔해군 함정이 도착한 이후에는 동 · 서해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대형함 작전이 어려운 연안초계 활동을 비롯하여, 소해 활동, 해안 인근해역의 봉쇄 등을 담당하였다.

1950년 6월 29일 제2정대 소속 함정들이 묵호경비부 인원을 호송하며 해상경비를 병행하였고, 516정, 304정, 305정이 묵호 근해에서, 506정, 509정, 510정이 임원 근해에서, 701함, 512정, 518정이 포항 근해에서, 105정, 308정은 부산 근해에서 경비를 수행하였다.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701함과 512정, 518정은 포항 근해에서 경비를 하고 있었다.

경비작전 수행 중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하여 JMS-305정이 6월 29일 새벽 3시 30분 무렵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중 30여 분 동안 미국 순양함 주노(Juneau)함의 오인사격을 받았다. 305정은 37밀리 포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고 509정에 의해 예인 중 평해 전방 5마일 해점에서 침몰해 전사 8명, 부상 4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같은 날 문산호가 묵호경비부 병력을 태우고 묵호로 향하다 주노함으로부터 오인사격을 받아 전사 및 부상 각 1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오인 사격은 해상봉쇄 초기에 미 해

군과 한국해군 사이의 통신교신 한계에 기인하였다. 주노함은 6월 29일 오후 11시 11분부터 한국해군 연락장교의 조언을 받고 묵호에 30분 동안 사격을 가하여 북한군을 제압하였다.

동해에서 506정과 516정이 경비구역이 지정되면서 38도선 근해에서, 509정, 510정, 304정은 죽변 및 임원 근해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했다. 518정은 구룡포 및 방어진 근해에서 경비 활동을 하였으나 이후 전황의 변화에 따라 7월 4일 오후 3시부터 516정과 506정이 동해상 북위 37도에서 36도 사이의 해역을 맡았고, 510정과 509정은 북위 36도에서 35도 사이의 해역을 경비하였으며, 308정은 보급선 호송을 담당하였다.

결과 및 영향

동해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13일까지 일일 평균 7척의 한국해군 함정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였고,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일일 평균 5척이 활동하였다. 한국해군은 소해정 위주로 미 해군의 대형 함정이 수행할 수 없는 연안초계, 선박 검색, 소해 활동을 통해 연안경비를 수행하며 북한군의 후속 상륙을 저지하였다. 경비함정의 축소는 유엔함정이 동해안 봉쇄작전을 개시한 이후 일부 함정이 남해와 서해로 이동 배치된 것에 기인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3 (2006).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서해안 봉쇄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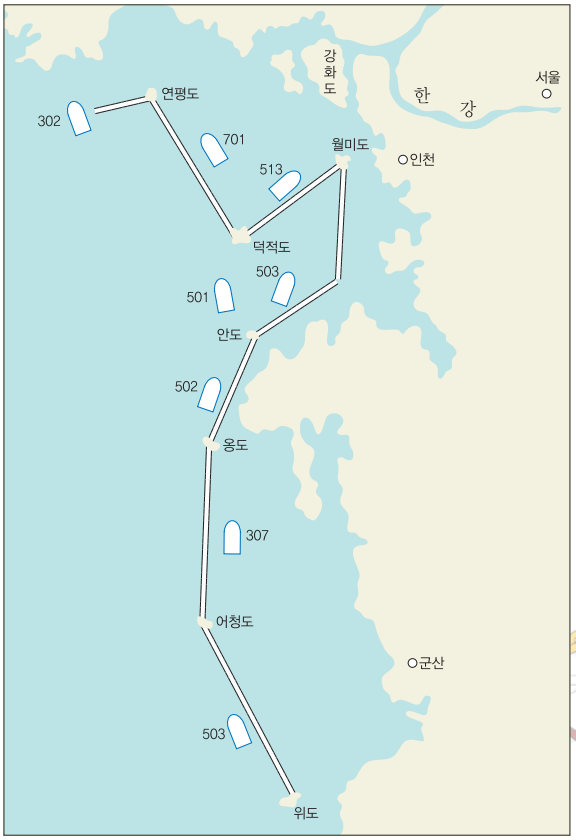
[西海岸 封鎖作戰, 1950. 7. 5.~14.]

개요

한국해군 제1정대가 1950년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해안을 봉쇄해 강화도 남단의 인천, 장항, 군산 등 해상으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려는 북한군에 타격을 주었던 작전이다.

전개과정

한국해군에 의한 서해안 봉쇄는 동해안의 봉쇄와 마찬가지로 전쟁 초기 북한군의 무



장병력 상륙을 해상과 해안에서 저지 또는 격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북한군의 남하가 계속되어 아산만 이남의 위도 인근 해역까지 한국해군의 해상봉쇄 범위가 확대되었다.

북한군의 동해안 상륙이 한국해군에 의해 저지되는 상황에서 서해안을 통한 북한군 무장병력의 원거리 상륙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서해상을 통하여 무기, 탄약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려 하였기에 한국해군은 강력한 서해봉쇄를 시행하게 되었다. 봉쇄작전 기간 중에는 한국해군 함정이 영연방해군 함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작전은 더욱 원활히 이루어졌다.

대한해협에서 북한군 무장선박을 격침시킨 백두산함은 서해경비 부대인 제1정대의 기함으로서 소형함정 및 LST-801함 등 9척과 함께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해안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서해 봉쇄작전은 7월 5일 오전 각 함정 지휘관들이 801함에서 가진 작전회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소해정인 YMS-513정과 JMS-302정은 인천 외곽에 위치한 팔미도 근해를 경비하면서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YMS-501정과 502정은 강화도 남단에서 상륙을 기도하던 북한군을 분산 저지시켰으며, 구잠함(PC-701)과 경비정(PG-313)은 팔미도와 강화도 사이의 해역을 경비하였다.

경비작전 기간에 701함은 어선과 범선을 타고 내려오는 피난민 선박62척을 검색하고 단속하였으며, 7월 5일에는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 시내를 향하여 적정 탐색을 위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인천 시내와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북한군 전차와 병력에 대한 항공공격을 해군본부에 요청하였다. 같은 날 501정과 502정이 강화도 해안경비 후에 월

미도 북쪽을 통과하던 중 북한군 전차의 선제공격을 받고 501정은 37mm 대전차 포와 20mm 포와 중기관총으로 응사하였다. 포격전에서 501정이 마스트, 기관실 입구, 해치 도어에 북한군 포탄을 맞기도 했으나 502정, 701함과 함께 외해에서 경비에 들어갔다.

결과 및 영향

한국해군 제1정대 함정들이 서해안을 봉쇄함으로써, 북한군이 육상으로 남하해 주둔한 군산, 장항 등의 해안선까지 북한군의 수송선단이 병력 상륙과 군수물자 수송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해군 함정들은 장항과 군산 등 해안지역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한국해군 제1정대 함정은 영연방 함정들과 연합하여 서해안 봉쇄작전을 수행해 북한군의 해상 활동을 차단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3 (2006).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구암산지구 전투

[九岩山地區 戰鬪, 1950. 7. 11.~17.]

개요

해군 포항경비부가 1950년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북한군의 남진 및 후방 교란을 저지하기 위해 육상전투단을 편성하여 구암산 일대, 경주, 영천 구룡산, 죽장, 비학산 등지에서 북한군 게릴라들과 전투를 치르고 합덕리와 정자리에서 미군 항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6 · 25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 게릴라가 옥계와 임원 등지에 상륙하고 이후 영덕과 영해 지역을 잇는 선까지 남하하여 경상북도 포항 북방 구암산 일대와 인근 마을에서 약탈과 후방 교란을 하자, 해군 포항경비부는 육상전투단을 편성하여 북한군 게릴라 남진 저지 및 토벌에 들어갔다.

구암산 방향으로 남하한 북한군 게릴라는 임원에 상륙한 3개 대대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1개 대대가 1950년 7월 10일 경북 영해와 영덕을 잇는 선에 이르렀고, 11일에는 2개 대대 규모의 게릴라들이 봉화군 춘양 방면으로 향하여 구암산으로 이동하였다. 포항경비

부는 이미 포항으로 철수한 묵호경비부 병력과 함께 중대급 전투단을 편성한 후 진해로부터 도착한 병력이 증원되자 대대급의 전투단을 편성하였다. 강기천 소령이 이끄는 이 전투단은 부산에서 LST로 포항에 도착하여 구암산 전투에 참가하였다

포항경비부 병력은 울진으로 남하한 북한군 선발대와 전투를 벌인 후, 포항 인근지역에서 북한군 게릴라와 구룡산(△675)과 포항 서북방 30km에 위치한 구암산(九岩山, △808)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했다.

7월 11일 구암산에서 활동하던 북한군 게릴라 일부가 포항 북쪽의 감곡, 기계 등에서 약탈을 자행한 이후 보현산 일대에서 포항경비부 병력과 대치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포항경비부가 전투대를 안강으로 출동시킨 가운데 12일 오후 4시 30분 무렵 경주를 지나 도유동에 도착하였다. 포항경비부 육전대는 도유동에서 수색대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소재를 파악한 후, 13일 새벽 4시 구룡산 중턱에서 북한군 게릴라에 공격을 가하면서 전투를 개시한 이후 2시간에 걸친 공격과 추격으로 게릴라 8명을 사살하고 6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포항으로 귀대하였다.

이어서 14일 포항경비부는 죽장으로 출동하여 남하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15일 새벽 포항 서북방 25km 지점에 위치한 비학산(飛鶴山, △762)에 도착하여 적정을 탐지한 결과 100여 명의 북한군이 잠복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육상전투단으로 편성된 3중대를 파견하여 구암산 전투단에 합류시켰고 이날 밤 기북의 용기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포항경비부가 북한군과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경찰의 적정정보 제공으로 16일 오전 포항경비부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출동하여 봉화군 가사 방면으로 북한군 게릴라를 추격하였으나 그들은 도주하였다. 도주한 북한군 게릴라는 약 500명으로 늘어났으며 17일 오전 4시 30분 무렵에는 합덕에 집결하여 잠복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포항경비부 육전대는 합덕 인근의 정자 방면에도 약 400명의 북한군이 출현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미 공군 F-51 전폭기 편대의 지원을 받으며 합덕과 정자에 집결한 북한군을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전면과 좌우측방으로 포위 공격하였다.포항경비부 제3중대 제1소대는 북한군 진지 정면을 공격하여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였고 17일 오후 9시 30분 합덕 동북방 8km 지점에 위치한 구암산을 점령하였다. 포항경비부 병력은 이 전투에서 중상 3명, 경상 2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으나 북한군 161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하였고 북한군 주둔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해군포항경비부가 구암산 전투에서 160명이 넘는 북한군을 사살하고 대병력을 격퇴시

켜 지상군 전투력이 미치지 못한 6 · 25전쟁 초기 포항 북방에서 북한군에 의한 후방 교란의 확대를 저지하였다. 그 결과 포항 북부지역에서 후방을 교란해 북한군의 남진 촉진을 도모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3 (2006).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평양 및 해주공습작전

[平壤 및 海州空襲作戰, 1950. 7. 3.~4.]

개요

해주항 근해에 도착한 미 제77기동부대 밸리포지함, 영국 해군 트라이엄프함 함재기가 1950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북한군 항공기지, 유류 저장소, 철도 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해 해주와 평양을 각각 공습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지만, 1950년 6월 27일 미 합동참모부는 극동 해 · 공군에 한국군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와 전차,포병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지시했다. 미 극동군 수뇌부는 제5공군의 항공기들이 작전 반경의 제한으로 출격하지 못하자,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통한 폭격으로 북한에 타격을 입히려 했다. 이 작전은 1950년 6월 30일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 스트러블 미 제7함대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orge E. Stratemayer) 미 극동공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미 극동해군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의 회의를 통해 계획되었다. 또한 북한군의 항공 시설과 기지를 폭격하여 그들의 제공권을 억누르는 차원에서 함재기 항공작전이 시행되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밸리 포지(Valley Forge)함을 비롯한 주력함들로 구성된 제77기동부대는 7월 1일 버크너만을 출항해 3일 새벽 해주 서남방 7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함재기들의 출격 목표를 설정하였다. 새벽 5시 45분 트라이엄프함 함재기 12대가 해주의 비행장, 철도와 교량을 폭격하고 오전 8시 15분 무사히 귀환하였다. 밸리포지함에서 프로펠러 함재기 28대가 출격하고, 20분 뒤에 제트기 8대가 처음으로 전선에 출격하였다.

한편, 평양 상공에 도착한 제트기들은 비행장을 폭격하여 북한군 수송기 1대와 전투기

2대를 파괴하고, 야크기 2대와 공중전을 벌여 격파하였다. 오후 함재기의 2차 출격으로 평양역과 철도 기관차 20대를 파괴하였으며, 다음 날 함재기들이 재차 출격하여 대동강 교량 1개를 파괴하고 강에 있던 소형 주정이 응사하자 4척을 격침시켰다. 함재기들은 출격을 통하여 1대가 경미한 피해를 입고 귀환 중 항모 선상의 항공기와의 충돌로 3대가 손상을 입기도 했으나, 이틀 동안의 공습을 통해 비행장의 북한군 항공기 12대를 파괴하였다. 이후 제77기동부대는 모항으로 귀항하여 차기 작전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결과 및 영향

육상의 항공기지가 아닌 해상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에 의한 강습은 북한군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혔다. 미군 함재기들은 이 공격을 통해 북한군의 항공 대응세력을 줄이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항모 함재기들은 공습을 하는 동안 북한 대공포의 미미한 대응 속에서 공중전을 통해 공산군 야크기 2대를 격추하고 비행장의 공군기 12대를 파괴하였으며, 해주 비행장의 다수 항공기, 유류저장소 및 기관차를 파괴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3 (2006).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원산 정유공장 폭격작전

[元山 精油工場 爆擊作戰, 1950. 7. 18.~19.]

개요

미 해군 제77기동부대 밸리포지 함모 함재기들이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상륙 작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1950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한군의 유류 물자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 정유공장을 폭격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북한군의 공세 및 개전 초기 투입된 미국 지상군의 패전 등 전황 악화로 인하여 미 제7함대 함정의 한반도 출동 논의가 있었으나, 원산 정유공장 폭격은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뒤늦게 시행되었다.

원산은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로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산업 시설이 다수 있었다. 소련

의 지원 아래 연간 170만 배럴을 생산하는 정유공장 시설 파괴는 미군에 의해 북한의 산업 시설 기반 및 전쟁 수행 동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1950년 7월 10일 미군 제77기동부대는 평양과 해주공습을 마치고 귀항하여 대기하던 중 북한군 제5사단을 비롯한 북한군 병력이 포항과 포항 주변을 압박하자 방어선을 형성하려는 미 제1기병사단의 포항상륙 지원 목적으로 16일 한반도의 동해로 북상하였다.

오키나와를 출항한 제77기동부대 함정들은 18일 포항 근해에 도착하여 상륙군의 안전한 상륙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미 극동공군사령관과 미 제7함대사령관의 합의에 의해 작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동해에서 더욱 북상하였다.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원산정유공장을 비롯해 평강, 원산, 흥남 일대의 철도, 공장, 비행장 등을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

18일 오전 9시 팬서(Panther)기의 정찰에 의해 원산 정유소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이후 오후 5시 밸리포지함에서 코르세어기 10대가 출격하여 원산정유소 상공에서 로켓 발사를 개시하였다. 곧 이어 스카이레이더기 10대의 폭격이 이어졌으며 함재기의 계속적인 폭격으로, 정유공장은 화염과 함께 폭발하였다. 정유공장의 화염은 공습하는 함재기가 비행하는 상공에서 시각으로 관찰될 정도였고, 폭격 후 4일 동안이나 함재기 조종사들의 비행에 참조가 되었다.

19일에는 밸리포지함의 함재기들이 평강과 함흥의 비행장, 철교, 공장을 폭격하여 파괴하였다. 특히 북한군 비행장의 항공기들은 이틀에 걸쳐 시행된 폭격으로 발견된 항공기 50대 가운데 절반이 파괴되고, 잔여 항공기도 손상되었다. 공습 중함재기 2대가 격추되었으나 조종사는 구조되었다. 또한 18일 이전 공군 비행기 폭격으로 큰 손상을 입히지 못한 정유공장을 해군 함재기의 폭격으로 파괴시켰다.

결과 및 영향

미군 밸리포지 항모 함재기들의 원산 정유공장 폭격으로 연간 170만 배럴을 생산하는 정유공장이 소실됨으로써 북한의 군사지원 기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비행장에 있었던 항공기 50대 가운데 절반이 파괴되었다. 그만큼 공산군 공군력이 약화되었고 북한군의 군사지원 시설의 기반이 파괴되었으며, 북한군과 정유공장 산업요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북한의 경제 가동력 및 군사 동력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4 (2008).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덕적도 · 영흥도 탈환작전

[德積島 · 靈興島 奪還作戰, 1950. 8. 18.~21.]

개요

한국해군 제1함대 승조원들이 1950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인근 도서 탈환의 일환으로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던 덕적도, 영흥도 등을 점령해 적정 수집과 치안을 확보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옹진군 덕적도는 서울의 관문인 인천의 남서쪽에 위치한 섬이고, 영흥도는 인천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인천을 탈환하기 위해 접근로를 확보하고 적정을 탐지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 제해권은 전쟁 초기부터 유엔 해군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북한군 육상포 사정권에 있는 도서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덕적도에는 북한군 1개 소대 규모와 좌익 청년으로 조직된 자위대가 활동하고 있었고, 영흥도에도 북한군 정규군 약 30명과 좌익 청년들이 소총으로 무장하면서, 서해 경비와 검색으로 아군 함정들의 위협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안 해상통제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지상작전 훈련을 받지 못했던 해군함정 승조원들이 덕적도 전투에서 1950년 8월 18일에서 19일까지 북한군 26명을 사살하고 포로 7명을 획득하였으며, 구금되어 있던 주민 9명을 구출하였다. 또한 313정 승조원들은 인근 도서인 이작도를 공격해 인민의용군 24명을 생포하고 저항하는 북한군 7명을 사살해 탈환하였다.

이어서 인천항 접근수로에 인접한 영흥도 탈환이 계속되었다. 해군함정 승조원들은 8월 20일 오전 6시 함정의 함포사격 지원 아래 영흥도에 상륙하였다. 90명으로 편성된 상륙 중대는 덕적도 작전 때와 같은 무장 수준이었으나, 화력 보강을 위해 영국함정 케냐(Kenya)함으로부터 기관단총 30여 정을 차용하고 탄약 500발을 지원받았다. 3개 소대는 영흥도 북쪽의 두 곳의 돌출 지점에 상륙한 후 좌우로 분산 돌격하였다.

이때 내리 1구를 아군 함정이 포격하자 북한군이 내리 3구로 이동하였고, 상륙대원들은 북한군의 큰 저항없이 오전 8시 20분 내리 1구를 점령하였다. 상륙 중대가 계속 진격해 오전 11시 무렵 내리 3구의 고지에 돌입하자, 북한군은 서쪽으로 도주하였다.

11시 30분에는 상륙대원들은 내리 3구를 완전 점령해 북한군 2명을 생포하고 감금되어 있던 국군 4명을 구출하였다. 상륙대원들은 중대본부를 내리 3구에 두고 계속적인 북

한군 추격을 실시하여 어성리 근처에 이르렀다.

잔적 20명이 반격을 가하였으나 상륙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도주하다 농가에 진을 치고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륙대원 2명이 전사하였으나, 상륙대원들이 북한군이 저항하던 농가를 전소시키자 그들은 사망자를 남긴 채 동쪽으로 도주하였다. 야간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피아간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후 제1소대는 북한군과 교전이 치열해지자 702함에서 증원된 12명과 함께 8월 21일 북한군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해군함정 승조원들은 덕적도와 영흥도를 탈환함으로써, 한국군의 후방이 북한군에 의해 교란되는 상황이 차단되었으며 이후 전개된 인천 상륙작전의 위협 요소가 사전에 제거되었다.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상륙대원 4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대원들은 북한군 6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중위를 비롯하여 33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무기 28정, 탄약 1,000여 발을 노획하였다. 24일 장병 20여 명이 영흥도 경비를 담당한 후 다른 대원들은 702함으로 돌아왔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 · 25전쟁사』 5 (2008).

임성채 외,『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충남 계룡: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장사동 상륙작전

[長沙洞 上陸作戰, 1950. 9. 14.~20.]

개요

한국 육군 제1독립유격대대가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에 혼돈을 주려는 의도 아래 한미해군의 지원을 받아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 영덕군 장사동에 상륙했으나, 악천후로 인해 수송선인 문산호가 좌초되어 구조 및 철수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작전이다.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덕군 장사동 상륙작전은 동해안에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아군의 반격작전 시 적의 퇴로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6 · 25전쟁의 전

환점이 된 서해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만책이자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장사동 상륙부대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제1독립유격대대였다. 부대원이 772명이라고 해서 제772부대 혹은 이명흠 부대장의 이름을 따라 명부대라고도 했다. 명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된 대대 규모의 병력이었으나, 대원의 사기 앙양과 적을 기만하기 위해 중대를 연대로 위장 편성했다.

1950년 9월 12일 육군본부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제1독립유격대대에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4시 해운공사 소속 LST 문산호가 대원을 태우고 부산을 출항하였다. 문산호가 미군 함정의 안내를 받으며 15일 새벽 5시 동해안 장사동 근해에 이르렀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거친 파도와 짙은 안개로 해안에 완전 접안하지 못한 채,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고지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으로부터 사격이 가해지는 가운데,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하여 상륙하였다. 상륙이 감행되는 동안 풍랑이 심해져서 15일 새벽 5시 30분 문산호는 선미에 투묘한 닻줄이 절단되며 선체가 기울어 오전 6시에 해안에 가로 놓이면서 좌초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아래에서 오전 9시경 상륙이 완료되었다.

제1차로 상륙한 제28연대가 적의 해안 토치카로 돌격하던 중 연대장이 전사하고 이어 제1대대장도 전사했으나, 제1대대원들은 돌격을 계속해 해안 토치카 3개소를 점령 파괴하였다. 뒤이어 상륙한 제29연대는 200고지 우측으로 우회하면서 장사동 일대의 적 해안 진지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한 부대장은 271고지를 공격해 확보하였다. 상륙작전에서 명부대는 39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했으며, 토치카 파괴 9개소 · 직사포 2문 및 포탄 450상자 · 지프 1대 · 기관총 45정 · 로켓포 1문 · 다발총 5정 등을 노획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17일 오전 6시 박격포와 전차로 선제 사격을 하면서 제32연대가 배치되어 있는 218고지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연대가 유리한 지형에서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접전 40분 만에 적이 후퇴했다. 후퇴한 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 포격을 한 다음 이번에는 제28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125고지 정면으로 공격을 해 왔으나, 즉각 저지사격으로 물리쳤다. 대원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일단 격퇴시켰으나 적의 계속적인 공세로 이날 일몰 후 부대장은 제28 · 제32연대 병력을 200고지로 철수시켜 재배치하고 지휘소를 200고지에서 좌초된 문산호로 이동시켰다.

다음 날인 9월 18일 오전 5시경 220고지에 잔류하고 있던 부대에 북한군이 공격해왔다. 부대장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실탄 및 보급품 부족으로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을 교란하면서 미 해군 함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사동 해안으로 대원을 철수시켰다.

한편, 상륙선인 문산호의 좌초로 인한 구출 시도와 대원들의 철수는 9월 19일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해군본부 요청에 의해 미국 해난구조함인 LT-1호가 부산에서 15일 오후 10시 급파되어 16일 오전 7시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에 들어갔으나 실패한 이후 부산으로 회항하였다. 304정도 문산호를 구출하기 위해 출항하였으나 시계 불량으로 인하여 문산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룡포로 귀항하였다. 문산호 구조가 불가하다는 LT-1호의 연락을 받고 상륙부대 철수를 위해, 해군본부는 조치원호를 급파하였고, 18일 오후 3시 구조 항공기를 급파하여 구조예정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하고 탄약과 의약품을 투하하였다. 19일 오전 6시 조치원호와 LT가 문산호 북방 400야드 해점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연락장교 1명이 북한군의 포탄에 부상을 입고 상륙대원 9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구조 작업을 지원하는 아군의 함포사격과 비행기 폭격으로 북한군의 화력이 견제되는 가운데 육지에서 조치원호까지 로프가 연결되어 구명벌에 아군 상륙대원들이 50여 명씩 태워져 LST 선내로 옮겨졌다. 하지만 구조 작업 중에 북한군의 사격에 의해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오후 1시 무렵 구조되지 못한 약 30명의 상륙대원들이 해안에 있었으나 LT 함장의 지휘를 받아 구조임무를 수행하던 아군이 북한군 사격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조하지 못한 채 조치원호는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결과 및 영향

장사동 상륙작전은 북한군에 국군 2개 연대 병력이 동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기만해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하였다. 상륙한 대원들은 북한군의 보급로인 포항과 영천 방면의 국도를 차단하여 북한군 후방 활동을 교란시켰으며, 포항과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2개 연대를 영덕 방면으로 유인하여 북한군 전선에 혼돈을 주었다. 상륙대원들은 북한군 270여 명을 사살하였고 단기간의 작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보급 창고와 후방 의무 시설을 불태우고 신흥동 보안대를 습격하여 청년 10명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북한군의 화력을 무력화하거나 병력을 제압하는 함포사격이나 공중폭격을 통한 공격없이 무리한 상륙작전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전사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해안에 남겨진 30명의 대원들이 포로가 되거나 일부는 개인적으로 탈출 또는 잔류하였다.

참고문헌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X-Ray 첩보수집작전

[X-Ray 諜報收集作戰, 1950. 8. 16.~9. 14.]

개요

한국해군 첩보대가 1950년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천상륙작전 실시에 앞서 인천 지역 정보를 미 극동군사령부 작전팀에 전달하기 위해 첩보활동을 실시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이전, 미군은 인천 전방의 도서, 인천, 수원, 서울 등지의 북한군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였다. 지형이 낯설고 언어가 달라, 미군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미 극동군사령부는 한국해군에 임무를 맡겼다.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1950년 8월 12일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수집 명령을 받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X-RAY작전'으로 명명된 영흥도 첩보작전은 해군정보국 첩보대가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영흥도를 거점으로 인천에 잠입하여 수원과 서울 등지에서 인천상륙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비밀 활동이었다. 첩보대는 1950년 8월 16일 출동 준비를 완료한 후 24일 영흥도에 상륙해 9월 14일까지 정보수집을 수행하였다.

총참모장으로부터 공작임무를 부여받은 함명수 해군 정보국장은 자신을 포함한 17명의 요원을 선발하였다. 여기에는 임병래, 김순기, 장정택 중위 등 정보 장교와 홍시욱, 김남규, 정성원 등 정보국 소속 사병 6명을 비롯해 민간인 7명이 포함되었다.

첩보대원들은 장비 및 물자 등 준비 사항의 점검을 끝내고 8월 18일 새벽 1시에 백구호에 승선하여 보조선 수양산호와 함께 영흥도로 향해, 24일 새벽 1시 30분 영흥도 북쪽 해안의 십리포에 상륙하였다. 당시 영흥도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나, 해군 소속의 육전중대가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8월 21일 탈환한 이후였다.

첩보대원들은 영흥도를 거점으로 첩보공작 임무에 착수하여 북한군 복장과 민간인 복장 등으로 위장하고 무기와 북한 화폐를 소지한 다음 덕적도에서 징발한 범선을 타고 어둠을 틈타 해안의 돌출 지점으로 상륙해 인천 시내로 잠입하였다. 인천 지방에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해안포대의 위치와 병력배치 상황, 인천 시내 주둔 병력의 규모와 화력 등을 파악하는 공작에 착수한 첩보팀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월미도의 해안방어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 인부로 가장하고 월미도에 접근하였다.

그들은 북한 군관 2명을 납치하여 월미도의 병력 규모와 해안포대의 위치 등을 확인하

였다. 활동 개시 1주일 후 첩보팀은 필요한 정보를 탐지한 다음, 9월 1일 영흥도에 상륙한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국 소속 클라크(Eugene F. Clark) 해군 대위에게 보고하였다. 한국인 켈로(KLO) 첩보대원과 함께 상륙한 클라크 팀은 맥아더 사령부에 정보를 송신할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클라크 대위는 동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중국어 및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발되었다. 클라크 대위는 9월 15일 새벽 0시에 팔미도 등대를 밝히고 성조기를 게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4일 첩보대가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새벽 2시 철수 준비를 하던 중 대부도에서 국군 및 미군 상륙정보를 늦게 입수한 북한군 1개 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군 첩보대가 먼저 탈출한 후, 영흥도에는 임병래 소위를 비롯한 해군 첩보대원 9명과 의용대원 30여 명이 남아 상륙 공격을 해오는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때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삼등병조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군의 공격을 차단함으로써 나머지 대원들은 십리포에 정박시킨 보트에 승선해 탈출할 수 있었으나, 두 대원은 탈출에 실패하고 북한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체포될 경우 첩보공작임무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임 소위와 홍 삼등병조는 끝까지 싸우다 포로가 될 경우 비밀 누설을 우려하여 자결하고 말았다. 이때가 인천상륙작전을 불과 24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결과 및 영향

한국해군 첩보대원들에 의해 영흥도, 인천과 월미도 해안의 북한군 진지, 병력배치, 해안 지형 등의 정보가 미 극동군사령부에 인천상륙작전 시행 전에 전해짐으로써 유엔군과 한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해군 첩보대원들과 작전 참가 요원들은 팔미도 등대 점등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영흥만 소해작전

[永興灣 掃海作戰, 1950. 10. 2.~31.]

개요

미 제7함대 기동부대가 1950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원산에서 미 제10군단의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뢰 제거 작전이다.

전개과정

유엔군이 원산상륙을 계획한 데에는 원산 동쪽에 해안평야가 있어 상륙이 용이하였고 원산 항만시설이 폭격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점과도 관련있었다. 또한 원산은 철도, 도로 등을 이용하여 평양과 서울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북한군은 전쟁 기간 줄곧 유엔해군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항만에 기뢰부설을 실시하였다. 유엔해군이 상륙작전에서 겪었던 애로는 북한군이 해안접근 방지책의 하나로서 부설한 기뢰의 제거작업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해상통제권을 유엔군이 가진 상태에서 북한군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함정이동 방지책인 기뢰부설을 실시하였다.

1950년 10월 2일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7함대 기동부대사령관이 소해전대에 소해 준비 완료와 영흥만 집결을 지시함에 따라, 소해전대의 미 해군함정 6척은 6일 새벽 일본 사세보를 출항하여 10일 영흥만에 도착하였다. 소해전대는 소해구축함(DMS), 철제 소해함(AM), 목제 연안소해함(AMS) 등 일본 소해정 12척의 참여로 세력이 증대되었다.

스트러블 기동부대사령관이 5일 원산상륙 예비계획을 시달하고 이서 9일에 최종계획을 내렸다. 스트러블 제독은 예하 부대에 동해안의 효과적인 봉쇄 유지, 상륙 및 동해안 작전 부대에대한 함포 및 항공지원, 폭격 수행, 교두보 확보, 군수지원 등을 지시하였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원산상륙작전이 강행되었으나, 이 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뢰제거였다.유엔군은 애초에 원산항 소해에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미군 대형 소해함 2척이 침몰하면서 7일을 더 소요하게 되었다. 소해작업은 한국군이 10일 원산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10일부터 소해함들은 경순양함 워체스터(Worchester)함 소속의 헬기와 함께 원산항 남쪽 항로 소해를 실시하였다. 연안소해함은 워체스터함이 헬기로부터 전파된 기뢰정보의 중계를 들으며 소해를 실시하였다. 기뢰전대장 스포포드(R. T. Spofford) 대령은 소해 시기를 맞추기 위해 소련 선박이 이용하던 소수의 기뢰가 부설된 북쪽 항로의 소해를 실시하여 11일부터 작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이전에 소해함 파이어리트(Pirate)함 및 채터러(Chatterer)함이 증강되어 소해작업에 탄력이 가해진 가운데, 기뢰전대장은 과거와 달리 제77기동부대 항공기의 폭탄투하에 의한 기뢰 폭파를 구상하였다.

12일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과 레이테(Leyte)함에서 스카이레이더기와 코르세어기가 출격하여 원산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항공기들은 1,000파운드 폭탄을 수심 25피트에서 폭파하도록 장치하고 200야드의 투하 간격을 유지하고 연막부표를 0.5야드

간격으로 투하하였다. 폭격편대는 2개 조로 나누어 한 편대가 스카이레이더기 14대, 코르세어기 8대로 구성하고, 다른 편대는 스카이레이더기 17대로 구성하였다.

구축함 3척이 소해함 엄호사격을 하는 가운데 파이어릿함이 2발의 기뢰를 제거하고, 플레지함이 기뢰 3발을 소해하였으며, 인크레더블(Incredible)함이 4발의 기뢰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소해함 파이어릿함 및 플레지(Pledge)함이 기뢰 접촉으로 침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파이어릿함이 기뢰 접촉으로 전복 파괴된 이후 플레지함이 3″ 포를 이용하여 북한군 해안포대에 집중사격을 가하는 가운데 함장은 항공지원 요청을 하며 교전하는 사이 플레지함도 피침으로 파괴되었다. 2척의 침몰함정에서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6일 오후 7시에는 한국군이 영흥만 북쪽 해안 창고에서 발견한 약 10kg짜리 기뢰 약 100발을 폭파하기 위하여 180m 거리에서 실시한 사격으로 인한 폭발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해작업 난항으로 인하여 스트러블 제독은 6일 동안의 상륙 연기를 요청하였고, 조이 제독과 맥아더 사령관은 건의를 수용하여 미 제10군단의 상륙을 10월 26일로 연기하였다. 소해는 최초 5일보다 긴 15일이 소요되고 원산항에 3,000발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225발의 기뢰가 제거되었다. 잔여 2,000여 발의 기뢰는 위험 요소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10월 25일 부분 소해가 완료되어 미 제10군단의 상륙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산이 아군에 의해 점령되자, 도일(J. H. Doyle) 제독이 상륙을 지시하였고 해병 2만 2,000명은 이후 북쪽으로 진군할 수 있었다. 원산 외에도 29일에는 이원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미군은 상륙을 실시하였고 미군 2만 7,000명은 이원에서 진군 준비를 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소해작전의 성공으로 해병사단의 동해안 상륙이 이루어지고 제77기동부대가 원산 상륙작전에 참가함으로써 기동부대는 원산 북쪽지역으로 진출한 미 제10군단을 비롯한 아군에 공중기동을 통한 지원 및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미 해병사단은 후퇴하던 북한군을 차단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

원산소해작전 이후 미 해군에서는 기뢰전에 의한 상륙작전 지연, 항행제한, 인명 손실, 함정피폭, 함정요원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하여 신 전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개발계획이 착수되었다. 원산 상륙작전에서 유엔해군이 경험한 소해의 어려움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기뢰부대 재창설 제의로 이어졌으며 미군 전술, 준비, 교육 등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Edward J. Morolda 편 (김주식, 정삼만, 조덕현 공역), 『한국전쟁과 미국 해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진남포 소해작전

[鎭南浦 掃海作戰, 1950. 10. 29.~11. 7.]

개요

한국해군 소해정 4척을 포함한 유엔해군 제95기동부대가 1950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남포항 수로 소해를 실시해 대함정 입항, 병력 및 군수품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작전이다.

전개과정

진남포는 북한 서해안의 남포의 옛 지명으로 대동강 하구에 있는 항구도시로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곳은 북한의 무역항이며 군항이다.

1950년 10월 22일 조이(C. Turner Joy) 제독으로부터 진남포항 소해 지시를 받은 스미스(Allan E. Smith) 제95기동부대사령관은 기뢰전문가인 아처(Stephien Morris Acher) 중령을 작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기뢰폭격항공기(PBM)와 헬기 1대도 보강했다. 아처 중령은 사세보에서 스미스 제독의 기함 딕시(Dixie)함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소해구축함 2척, 연안소해함 3척, 한국 소해정 4척, 헬기 1대, 고속 수송함 1척, 수중폭파대, 상륙선거함(LSD) 1척, 상륙정(LCVP) 12척, 작업 보트 2척, 구조함(ARS) 1척 등을 동원했다. 진남포항 입구는 다수의 섬, 퇴적물로 형성된 삼각주가 있었고, 조수간만의 차가 12피트가 되고 조류 속도가 5노트가 되어 소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소해작업은 진남포 외해부터 삼각주까지 진행해야 했다.

1950년 10월 28일부터 함정에서 출격한 기뢰 폭격항공기의 탐색을 시작하였고, 제42초계전대 및 제43초계전대 기뢰 폭격항공기의 탐색에 이어 영국 공군 항공전대 탐색기가 기뢰 340발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44발을 폭파시키고 9발은 기총소사로 파괴하였다. 29일 소해구축함 톰슨(Thomson)함과 카믹(Camic)함이 소해를 시작한 이후 연안소해함 3척, 한국 소해정 2척, 헬기를 탑재한 LST가 증강되었다.

소해단 정보장교가 북한인을 심문해 217발의 접촉기뢰와 25발의 자기기뢰가 혼합 부

설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기뢰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기뢰탐색은 항공기와 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중에서는 특수전 요원이 작업을 하였다. 28일에는 항공기에서 폭뢰 32발을 투하하여 1발의 기뢰를 폭파하였고 이어서 16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3발의 기뢰를 폭파하였다. 이외에도 영국 항모 테세우스(Theseus)함에서 이륙한 헬기가 탐색을 하고, 다른 항공기들은 북한군 항공기 및 해안포로부터 소해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초계비행을 했다.

진남포 소해작전은 기로부설 위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시되었다.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헬기가 집중 탐색을 하고, 아쳐 중령이 소해함 함장들에게 첩보와 계획을 전파하였다. 11월 2일 오후 2척의 소해구축함을 제외하고 전 소해함이 소해에 투입되었다. 이후 한국함정과 볼스터(Bolster)함이 기총소사를 가하여 기뢰를 파괴하기도 했다. 폭풍으로 인하여 기뢰 4발이 부상하여 항공기 폭격과 함정 사격으로 파괴하는 행운도 있었다. 이후 상륙선거함 카타마운트(Catamount)함이 진남포항 내로 입항하였다. 이 함정을 모함으로 한 상륙주정이 저수심 해역을 항해하며 소해를 하고 항해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한국소해정 YMS-503정이 입항하였다.

진남포 소해 종료 전에 일본 용역 소해정 13척이 도착하자 소해해역 점검 임무가 이 소해정들에 부여되었으며, 10일 동안의 소해 후 흘수가 낮은 상륙함 1척이 입항하여 군수품을 하역하였다. 수심이 깊은 항로는 11월 20일 개통되어 대형 병원선 리포우즈(Repose)가 입항하였다. 소해기간 중 상륙선거함은 소해구축함과 고속수송함에 유류를 지원하였다. 11월 말 진남포항 200마일이 소해되고 80발의 기뢰가 소해되는 동안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1척의 함정 손실도 입지 않았다.

결과 및 영향

진남포 소해를 통해 유엔해군의 대형 함정이 입항함으로써 북한 북단에서 미 제8군 진격을 위한 군수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진남포항 소해는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이 원활한 협조를 통해 1명의 인원과 1척의 함정 손실도 없이 작전을 완료하였다. 그렇지만 소해작전으로 유엔군의 작전이 지연되는 현상을 확인한 북한 해군은 해안에 계속 기뢰를 부설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원산 · 성진 철수작전

[元山 · 城津 撤收作戰, 1950. 12. 3.~12.]

개요

유엔해군 제90기동부대가 1950년 12월 3일 원산에서 미 제3사단 병력 상당수가 흥남으로 이동한 후 잔류한 병력이 승함을 실시하였고, 12월 7일부터 성진에서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 병력 일부와 피난민이 유엔해군 함정, 한국군 함정,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 수송선으로 철수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원산항 철수작전은 인접한 성진항, 흥남 철수작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원산과 함경북도 성진은 육상으로 400km 가까이 떨어져 있으나, 동해의 북한 해역은 전쟁 발발 후 미 해군함정의 봉쇄구간에 들어있어서 동시에 철수 작전이 가능했다. 미 제10군단과 한국군이 고속으로 북진함에 따라 이미 원산과 이원이 상륙지역으로 활용되고, 항구 접근 수로는 소해함과 지원함에 의해 소해되는 등 유엔해군이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공세로 인하여 후퇴하던 미 제10군단으로부터 흥남과 원산을 잇는 선이 중공군에 의해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

1950년 11월 말부터 북한 동부전선에서 중공군에 압박당하고 있었던 미 제10군단 및 미 해병 제1사단에 미군 지상군 지휘관들이 함흥과 흥남 방면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해상철수의 가능성도 열려있었다. 흥남과 원산을 잇는 선이 중공군에게 차단되었다는 급박한 상황이 도래하자 도일 제독은 제7함대사령관에게 순양함 세인트 폴(Saint Paul)함, 구축함 젤라스(Zellars)함을 급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두 함정이 원산항에 도착하였고, 이외에도 수송전대의 헨리코(Henrico)함 외 4척의 공격수송함(APA) 및 공격화물함(AKA) 2척이 대기하였다. 대부분의 병력은 함흥을 향해 이동하고, 원산에는 병력 4,000명과 장비 12,000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직 중공군의 위협이 미치지 않아 일부 함정이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 병력이 기다리고 있는 성진으로 향하였다.

12월 5일 공격수송함 노블(Noble)함에 승함한 플래허티(Michael F. D. Flaherty) 대령이 원산에서 수송선 2척을 지휘하여 성진으로 향했고, 미리 도착해 있던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 LST 1척, 한국 LST 1척도 수송 임무를 맡았다. 7일부터 9일 사이에 철수 부대는 승함 및 장비 탑재를 완료하였고, 수송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2척의 엄호 구축함이 성진에 대기 중 흥남항 기항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미군 및 한국군 철수는 성진항과

흥남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철수부대 병력을 태운 함정들은 항해를 계속해 12월 19일 구룡포에 도착하였다.

원산에서는 12월 3일부터 미 해병 크라운(Crown) 소령이 지휘하는 제1해안부대 엄호 아래 미 제3사단 잔류 병력 승함과 장비 탑재가 실시되고, 5일에는 미군 1개 대대와 한국 해병대 2개 대대가 교두보를 형성하고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 해상에서는 제90기동부대 함포지원전단 세인트 폴함, 젤라스함, 스페리(Sperry)함, 핸크함이 함포사격을 계속해 아군 철수를 지원하였다. 12월 7일에는 갈마반도에 있는 미 해병 제12항공전대의 이동 보호를 지시받고 대기 중인 한국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외하고 승함이 완료되었다. 이후 대기 상태에 있던 해병대는 항공기로 철수하였다.

인접지역에 집결했던 피난민들은 미국 수송선 레인 빅토리(Lane Victory)호에 의해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7,000여 명이 승선해, 12월 9일 세인트 폴함과 구축함의 호위 속에 수로를 벗어나 부산으로 향했다.

결과 및 영향

원산항으로부터 병력 3,834명과 함께 피난민 7,009명을 포함하였고 차량 1,146대, 화물 1만 13톤을 부산으로 이송하였다. 성진항에서는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이상 없이 철수하였다. 중공군의 공세와 압박으로 인한 병력 손실이 방지되었으며, 해상철수를 통하여 병력의 전장 재투입이 이루어졌고 많은 장비가 공산군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 · 25전쟁사』 7 (2009).
임성채 외,『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흥남 철수작전

[興南 撤收作戰, 1950. 12. 12.~24.]

개요

유엔 해군 제90기동부대가 중공군 남진으로 인한 미 제10군단 및 해병사단 병력의 원활한 철수를 위해 1950년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흥남항에서 수송선, 지원함정 등을

이용하여 철수작전을 수행해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구출하며 함께 철수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흥남은 미 제10군단 사령부가 있는 함흥으로부터 4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해병 항공전투단이 위치한 연포비행장도 불과 4마일 거리에 있었던 지리적 잇점이 있었다.

중공군 제9병단 병력이 미 제10군단의 진격을 저지한 이후 미군은 혹독한 추위와 육상 철수 어려움으로 미 해군 제90기동부대의 철수작전에 의해 흥남을 통해 철수하였다. 11월 27일 유엔군사령부는 중국군의 인해전술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철수지시를 내렸다. 이에 미 해병 제1사단이 장진호에서 중국군의 진출을 지연시키는 동안 흥남으로 집결한 국군과 유엔군이 해상철수를 개시하였다. 12월 24일 미 해병 제1사단 등 마지막 부대가 승선할 때까지 약 20일 동안에 걸쳐 철수가 이뤄졌다.

12월 9일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의 철수 건의가 미 합동참모부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미 제10군단 병력이 흥남으로 철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나 그 이전에 제90기동부대는 이미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90기동부대는 흥남 항만 내의 가용한 해역을 확장시키고 지원함정의 항해를 위한 소해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교두보 방어와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흥남철수를 위한 부대는 제90기동부대 도일(James H. Doyle) 소장 아래에 직할 기함을 비롯한 10척, 켈리(S. G. Kelly) 대령의 수송전단 예하에 상륙함, 수송함 등 21척과 일본 용역 선박 LST 27척 및 해상수송지원단 선박, 함포지원전단 예하에 순양함 등 9척, 봉쇄전단, 수송전단, 소해전단 소속 14척, 제7함대 고속항모부대 예하에 대형전투함 3척을 비롯하여 구축함 최대 22척, 항공모함 전단 3척, 호위항공모함전단에 최대 11척이 배속되고 군수지원전단이 구성되었다.

도일 제독은 유엔군 철수 계획수립 및 통제, 철수 시의 화력지원, 함정호송, 국군의 소규모 상륙작전 수행, 다른 지휘관과의 협조 등을 수행했다. 해상철수 결정 이후 유류 및 탄약저장고를 설치하고 구명대, 상륙장비 등을 준비시켰으며, 선박을 집결시켰다. 해상철수를 지휘하던 택그레이 소장에게 공격화물함, 공격수송함, 상륙선거함 각 1척을 흥남으로 회항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에게는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매일 10척의 화물선을 흥남에 대기시키라는 요구가 전해졌다. 12월 9일 성진 철수부대 일부가 부산으로 직항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어 흥남에 한국군 일부 병력이 하함하여 교두보 확보에 노력하는 등 흥남철수 준비가 진행되어 12월 10일에는 모든 분야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12월 11

일 알몬드 소장의 미 제10군단 작명에 의해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사단 제31연대 전투단 임시대대, 영국 제41특공대, 국군 제1군단, 미 제7사단, 미 제3사단의 순서로 승함하였다.

켈리 대령이 지휘하는 수송선단이 서해 철수작전 참가 이후 이 때 도착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수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도착한 미 해병대의 승선이 12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3일에는 제5연대 및 제7연대가 승선하고, 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오후 3시 진흥리에서 마지막 유해를 흥남에 매장하는 장례를 치른 후에 베이필드(Bayfield)함에 승함하여 함상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나머지 병력이 승선해 15일 10시 30분 철수단은 흥남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 총 2만 2,215명의 병력이 공격수송함(APA) 1척, 공격화물함(AKA) 1척, LST 13척, LSD 3척, 수송선(APO) 1척,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 LST 7척에 분승해 이동 엄호와 지원을 받았다.

이후 기동전단은 삼척 지역에 국군 제1군단의 투입 요청을 받고 삼척 해안의 소해를 하는 한편, 수송기동전대 사령관 자렐(A. E. Jarell) 대령이 헨리코함 등 2척의 공격수송함과 3척의 공격화물함, 일본선박통제국 소속 LST 12척을 지휘하여 부산에서 출항하였다. 12월 17일 오후 자렐 대령의 수송단은 국군 제1군단의 승선을 끝내고 흥남을 출발하여 삼척에 도착하였다. 12월 17일 기상 악화로 해상수송지원단 선박이 좌초되고, 일본 용선 센잔호(Senzan Maru)가 기뢰에 의해 파손을 입어 10일 동안의 구조 작업이 있었으며, 피난민 7,400명이 승선한 한국 LST가 로프에 프로펠러 추진축이 감기고 엔진과 자이로 고장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로프 제거 작업이 있었다. 이후 LST는 해안의 육군부대로부터 8톤의 식량, 빵과 식수를 공급받고 디아첸코(Diachenko)함과 한국해군의 다른 LST에 의해 삼척항으로 예인되었다.

20일에는 미 제7사단 병력의 승선을 완료하고 21일에는 알몬드 소장이 참모들과 함께 제90기동부대 기함 맥킨리(Mount Mckinley)함에 올라 탄 이후 흥남지역 방어 책임이 도일 소장에게 넘어가고, 소울(R. H. Soule) 소장의 미 제3사단은 독자적인 해안방어를 하면서 승선대기에 들어갔다. 제3사단 병력을 이송할 LST 7척에 24일 오후 2시 30분경 승함 및 탑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많은 병력과 장비가 이상 없이 철수되는 데에는 항공지원의 영향이 매우 컸다. 12월 1일 3개 전투기 대대가 원산에서 연포비행장으로 이동하고, 프린스턴함, 시실리(Sicily)함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항공전대의 장비를 탑재하고 13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밸리포지함이 미국 본토로부터 이동하여 제2항공대대를 탑재하여 철수를 지원하였다. 12월 12일에는 제7함대 작전계획 의거 제77기동부대 고속항공모함들이 우군을

엄호하였다. 흥남철수 작전에 연포비행장 비행대대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15개에서 22개가 운영되었다. 같은 기간에 해안기지 및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230대에서 398대에 이르렀다.

항공지원 외에도 흥남철수 작전에는 함포지원전단의 많은 함정들이 지원에 참가하였다. 전함 미주리함, 중순양함 세인트 폴함과 로체스터(Rochester)함, 구축함 포리스트 로열(Forest Royal)함, 핸크함, 매시(Massey)함, 노리스(Norris)함, 보운(Bone)함, 잉글리시(English)함 등 7척, 로켓포함(LSMR) 3척이 지원전단에 배치되어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12월 15일 야간에 세인트 폴함이 내륙 10마일까지 8″ 포 사격을 가하였으며, 철수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축소되는 교두보를 유지하기 위한 사격을 가하였다. 17일부터 24일까지 로체스터함, 3척의 포함의 사격, 미주리함의 흥남 외곽의 오도리와 흥남 사이의 도로에 중공군에 대한 사격, 항만 포격 등 철수지원전단 함정들은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16″ 포 128발, 8″ 포 2,900여 발, 5″ 포 1만 8,600여 발, 3″ 포 70여 발, 40밀리 포 185발, 로켓포탄 1,460여 발을 발사하였다. 이는 인천상륙작전 수행 시 아군이 소모하였던 발사탄 규모를 능가하였다

중공군 남하 이후 유엔군 후퇴와 함께 피난민들이 이동하였다. 애초에 미군은 피난민 수를 2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하였으나 피난민들의 수는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피난민들은 12월 19일부터 승선을 시작하였는데, LST 1척에 5,000명의 피난민이 승선했고, 피난민 1만여 명은 용선 빅토리(Meredith Victory)호 의해 수송되기도 했다. 12월 23일 함선의 여유가 있어 포니(Edward H. Forney) 대령이 상선 3척과 LST 2척을 보내 5만 명의 피난민을 추가로 승선시켰다. 이와 같은 피난민 철수지원과 함께 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완료하였다.

미 제3사단은 오전 11시부터 수송전단 지원 아래 일곱 군데에서 상륙장갑차(LVT) 등의 탑재를 시작하여 오후 2시에 완료하였으나 흥남항에서 탄약 저장소의 폭발로 인하여 해병 중위 포함 2명 사망, 34명 부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철수부대는 선박 부족으로 흥남 일대 400여 톤의 다이너마이트, 폭탄 227여 톤, 200여 드럼의 유류 사용불능 조치가 취해졌다.

미 제3사단 병력 해안 이탈 후에 도일 제독은 수중폭파대와 미 제10공병대대에 베고(Begor)함의 지원 아래 흥남항 시설과 탄약 등에 대해 공산군에 의한 사용거부 조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4일 흥남항의 시설, 남겨져 있는 탄약 및 장비를 철수단은 폭파하였다. 폭파 이후 미 제10군단장, 미 해군 제90기동부대장 도일 제독 일행이 맥킨리함 편으로 오후 4시 32분 흥남항을 출항하였다.

해상 철수 외에도 공군수송기 112대에 의해 병력 3,600명, 차량 196대, 화물 1,300톤과 일부 피난민이 이송되었다.

결과 및 영향

흥남 철수작전은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미 해군이 수행한 최대의 작전으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구출되었고, 미 육군 및 해병대 병력, 국군 수도사단, 제3사단 병력 등 10만 5,000여 명이 넘는 병력을 무사히 철수시켰다. 또한 흥남 철수를 통해 차량 1만 7,500대, 연료 2만 9,500드럼, 탄약 9,000톤 포함 화물 35만톤 등이 공산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했다. 무엇보다도 흥남 철수작전이 돋보인 것은 철수작전에 참가한 군인들이 인류애와 사명감으로 수많은 피난민을 구출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09).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진남포 및 인천 철수작전

[鎭南浦 및 仁川 撤收作戰, 1950. 12. 4.~31.]

개요

유엔해군 제90기동부대가 중공군 참전 이후 1950년 12월 5일 진남포항과 1951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항에서 유엔군 병력을 비롯한 장비, 피난민을 무사히 철수시킨 작전이다.

전개과정

진남포와 인천은 육상으로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으나, 서해상으로는 바로 연계되는 곳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쪽으로 진격할 때에는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통해 군수지원이 이루어졌고, 후퇴 시에는 역순으로 두 항구를 통해 인원 및 장비와 함께 피난민 철수가 함께 이루어졌다.

진남포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지역의 전진기지로 유류 · 탄약 · 차량 등 대량의 군수물자가 쌓여 있었다. 진남포항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았다.

중공군의 남진 이후 조이(C. Turner Joy) 극동해군사령관은 유엔군의 긴급 철수를 명시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3일 관련 부대에 배포했다. 작전지시를 수령한 제90기동부대장 참모들은 상륙군 세력의 절반을 태크레이(L. A. Thackrey) 제독 지휘 아래 서해안 지역에, 절반을 원산과 흥남 지역에 배치하는 예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8군 상당수의 병력이 중공군의 공세를 받지 않고 철수를 하고 있었으나, 미 제2사단은 병력의 약 40%와 대부분의 장비를 손실한 가운데 후퇴하고 있었다. 미 제2사단이 겪은 고초는 북한 동부지역에서 미 해병사단과 미 제10군단이 겪은 상황과 유사하였다. 이 때문에 진남포에서 유엔 해군 철수부대는 긴급 행동에 들어가야 했다.

지상군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11월 30일 도일(J. H. Doyle) 제독은 모든 함정을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공격수송함(APA) 4척과 상륙화물함(AKA) 2척은 인천으로 향하고, 비슷한 규모의 함정들이 원산 출동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서해가 안고 있는 대형 선박 수용하는 문제와 미 제8군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륙함정의 2/3를 태크레이 제독의 기동전대에 배치했다. 태크레이 제독은 워커(Walton H. Walker) 사령관과 인천으로 가서 항만을 점검한 뒤 30일에는 참모를 진남포로 파견하고 공격수송함 벡사(Bexar)함, 상륙선거함(LSD) 카타마운트함과 LST 2척을자신의 지휘 아래 두었다. 12월 1일 태크레이 제독은 도일 제독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흥남의 맥킨리함에서 기함인 엘도라도(Eldorado)함과 상륙선거함(LSD) 2척, 고속수송함 바스(Bass)함,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 LST를 서해로 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은 철수작전 참가 함정 이외의 선박 운행을 일절 금지시키는 해안 봉쇄를 실시하였다.

진남포 및 인천 철수작전에 참가한 주요 지휘관과 세력은 제90기동부대장 도일 소장, 기동전단장 태크레이 소장, 수송전단장 켈리(Kelly) 대령, 제95기동부대장 스미스 소장, 기동전단장 영국 앤드류스(W. G. Andrews) 소장, 기동부대전대장 캐나다의 브록(Jeffrey. V. Brock) 대령과 영국함정이었다.

수송전단장 켈리 대령에게 인천행 지시가 내려 진 가운데, 11월 30일 및 12월 1일 공격수송함 베이필드함, 벡사함, 오카노간(Okanogan)함, 공격화물함 알골(Algol)함과 몬차그(Montague)함이 일본에서 출항하였다. 켈리 대령은 한반도 서해로 향하던 중 수송함 진남포 파견과 관련된 미 제8군 긴급 전문으로 고민하다 오후 10시 무렵 함정들의 진남포 집결을 결심해 지시하였다.

켈리 대령이 서해 항진을 결심하고 함정들을 지휘하여 항진하는 동안 캐유가(Cayuga)함에 승함한 캐나다 해군 브록 대령이 지휘하는 구축함 6척이 출동하고, 영국 순양함 실론(Ceylon)함이 사세보를 출항하여 진남포 철수를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앤드루스 소

장 지휘 아래 항공모함 테세우스함 및 구축함 4척이 진남포 철수 지원 차 사세보를 출항하게 되었다. 켈리 대령의 과감한 조치에 의한 결정은 새벽 4시 25분 수송전대에 진남포 항진 지시가 내려짐으로써 항진을 6시간이나 단축하였다. 오전 9시 30분까지 미국 해군 공격수송함 벡사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이 진남포로부터 84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다.

켈리 대령은 주정들을 내려 탑재 명령을 전달하였고, 다른 함정들도 항로를 항진하였다. 켈리 대령의 과감한 조치로 수송전대는 항해 위험을 감수하고 입항하였다. 진남포항이 안고 있는 포위당하기 쉬운 지형 여건, 언덕 경사면에서 투묘지까지 박격포 사격권에 들어 있는 문제, 공산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진남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승선 및 탑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함정들이 출항하면서 사고도 발생하였다. 호주 구축함 와라문가(Waramunga)함이 좌초를 당하였으나 출항하였고 캐나다 구축함 시억스(Sioux)함의 추진기가 부표계류선에 감겨서 회항하였다. 12월 5일 새벽 2시 40분 캐나다 구축함 캐유가(Cayuga)함, 애서배스칸(Athabaskan)함, 호주 구축함 바탄(Bataan)함, 미국 구축함 포리스트 로열(Forrest Royal)함이 함포사격을 하며 진남포 내항에 투묘하였다. 한국 해군의 해안단 단원들이 부두를 지키는 동안 소주정들이 오가며 피난민을 수송하며 항내를 순찰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미 해군 호위구축함 포스(Foss)함이 전력을 시가지에 공급하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탑재가 완료된 함정들은 모두 출항하였다. 그러나 늦게 도착하여 부두에 남아 있던 약 3,000명에 이르는 피난민 수송문제가 다행스럽게 미 해군 해상수송지원단 선박이 들어와 해결되었다. 오후 5시 30분 벡사함이 최종적으로 포스함의 엄호를 받으며 수로 밖으로 항해하였고, 항만 군수요원들은 투묘 중인 LST에 대기하는 동안 구축함들이 유류저장소, 크레인, 철로 등을 포격하였다. 이후에 벡사함이 석도 북쪽에서 좌초되었으나 손상 없이 빠져나왔고, 아침에는 구축함과 LST들이 빠져나온 이후 해상 상태 악화로 초도 근처에 투묘하는 등 이동 지연도 있었으나 미 제8군 군수지원 요원 1,700명과 한국군 6,000여 명을 비롯한 피난민 철수는 아군 함정의 손상없이 완료되었다.

한편, 1950년 12월 28일 중공군 제40군이 개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향하자, 유엔군은 1951년 1월 4일 서울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남포항 철수에 이어 인천항 철수준비로 이어졌다.

극동해군사령관 예하의 진남포와 인천 철수 지휘관인 태크레이 제독이 기함인 엘도라도함을 비롯하여 AKA 1척, APA 2척, LSD 2척, APD 1척, LST 2척,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 LST 9척 외에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군 해상수송지원단 소속 15척의 상선을 예비로 확보

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LST 6척과 군 해상수송지원단 소속 15척의 상선이 증강되었다.

인천에서는 12월 7일부터 육군 군수물자의 탑재가 시작되어 31일까지 인원 3만 2,428명, 차량 1,103대, 화물 5만 4,741톤을 부산으로 수송하였다. 흥남 철수작전 이후 6척의 LST와 군 해상수송지원단 소속 선박이 인천 철수작전에 증강되었고 중공군의 압박이 증대되자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서울에 있던 한국 해군본부는 1951년 1월 3일 오후 3시 LST 홍주호편으로 인천을 떠났고, 4일에는 LST 10척 및 임대된 해운공사 소속 선박들의 도움을 받으며 인천경비부 요원이 철수하여 군산에 상륙하였다. LST-801함은 정부 요원과 물품을 수송하고, 미 수송선 로빈훗호는 제2국민병 3,117명을 편승시켜 5일 제주에 입항하였다.

인천 철수작전 지원을 위해 유엔 해군은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했다. 미 해군 순양함 로체스터함을 비롯한 함정 3척이 한강으로 진입하여 김포비행장에 사격을 가하는 등 후퇴하는 지상군과 인천 철수를 지원하였다. 서해에서는 호위항공모함 시실리함과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함의 전투기들이 남하하는 공산군을 폭격하고 김포에 남겨진 군수품에 대한 폭파를 실시하였다. 이후 미 제8군의 요청에 의해 미 해군 항공모함 바탄함이 서해전대에 합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태크레이 제독은 1951년 1월 5일 인천항만 시설을 의도적으로 폭파시킨 가운데, 중공군이 인천 시내로 진입하자 선박들을 출항시켰다. 1월 1일부터 5일 사이 함정들은 병력 3만 7,000명과 피난민 6만 4,200명을 비롯해 차량과 보급품을 싣고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그러나 이후 태크레이 제독은 부산항의 육상 군수수송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1950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대천의 주요 묘박지에 소해를 실시하여 인천에서 출항한 LST들이 대천항에 접안하여 병력과 장비를 하역하도록 했다.

1951년 1월 해군 현장지휘부는 소해함 카믹(Carmick)함과 스왈로우(Swallow)함으로 기뢰 제거를 실시해 인천항 이탈 함정들이 접안하여 병력을 내리고 장비를 하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 및 영향

유엔해군 제90기동부대는 중공군 남진 공세로 인하여 육상 철수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미 제8군의 대병력과 장비, 차량을 진남포와 인천을 통해 수송함으로써 미군 병력손실을 최소화하였고 미군 철수부대의 안전한 철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진남포 철수작전은 흥남 철수작전 못지않은 대작전으로 평가된다. 인천항에서도 지상군 및 군수물자, 피난민이 후방으로 이송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09).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황해도 피난민 철수작전

[黃海道 避亂民 撤收作戰, 1951. 1. 5.~31.]

개요

한국해군 제1함대가 1951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중공군 남진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황해도 서쪽과 남쪽에 집결하자 그들을 도서에 분산해 철수시키고, 유격전을 전개하던 반공청년들을 지원하고 구출한 지원 작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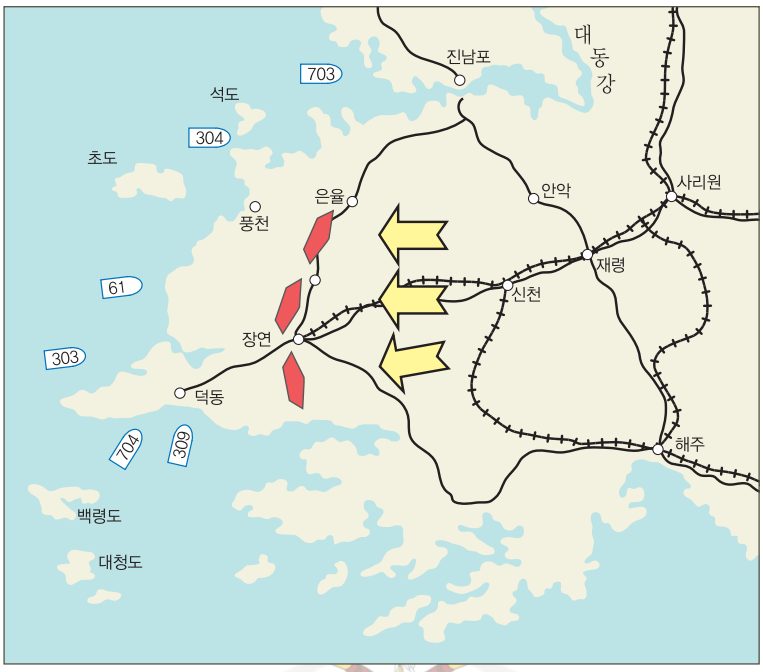
전개과정

황해도 연안은 경의선 방향 육로 이동이 어려움이 있자, 피란민들이 은율, 송화, 장연 지구로 몰리는 지역이었다. 중공군의 남진 공세로 1951년 1월 초부터 피난민들의 수송 지원 및 침공해 오는 공산군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청년의용대의 활동지원이 한국군에 대두되었다.

1951년 1월 5일 송화 군수가 인근해역에서 경비중인 호위함(PF-61)에 소형 발동선을 타고 방문하여 61함 함장에게 황해도에 집결한 피난민 구출 및 청년의용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61함 함장은 소해정 304정 및 305정을 출동시켜 청년들과 피란민을 엄호하고 지원하였다.

7일 61함 함장은 황해도의 3개 군수 및 경찰서 책임자와 피난민 구출을 협의하였다. 61함은 소해정 301정 및 304정과 함께 해안을 봉쇄하고 청년의용대가 활동하는 육상으로 함포 지원을 하였으며 발동선으로 피난민과 양곡 이송을 지원하였다. 이후 인근 해역의 구잠함 703함과 소해정 309정이 철수를 지원하였고, 이송된 피난민들은 백령도, 대청도, 초도 등으로 이동시켰다.

피난민 철수와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이 황해도 여러 지역으로 쇄도하자, 황해도 각 지역의 청년의용대는 자발적으로 결성해 대항하였다. 재령, 신천, 안악, 송화, 은율 등지에서 애국청년 약 9,000명이 청년의용군을 조직해 북한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9일 구잠함 704함이 부산에서 탄약 2만 발을 적재 후 출항하고, LST 단



양호가 피란민을 수송하기 위해 군의관 및 위생하사관을 태워 출동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26해안경비여단 중화기부대 약 800명이 송화를 공격한 후 덕동을 향해 남진하자 청년의용대가 한국해군 함정의 엄호사격을 받고 북한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10일 북한군이 병력을 증대해 은율, 송화, 장연 선까지 쇄도하자 함정의 엄호를 받지 못한 경찰과 청년의용대 350명은 월사리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함정들은 해안 7마일 선상에서 포격을 실시하며 양민 구출과 양곡 반출 수송을 지원하였다.

황해도 일대의 산악지역에서 의용대 약 4,000명이 유격활동을 하자, 초도와 백령도에 이송된 청년의용대는 훈련을 받고 다시 황해도 해안에 상륙하여 양민 구출과 양곡 반출을 도왔다. 1951년 1월 초에 703함 함장은 은율 해변가에 집결한 약 3,000명의 피난민을 LST를 이용하여 초도까지 이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해군본부의 회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난민 구출을 위한 지원을 주저하는 LST 함장을 강박하여 LST를 해안에 접안시켜 피난민을 구출하였다. 황해도의 피난민들은 혹한 속에서 현지의 목선을 타고 이동하거나, 육지와 함정 사이 로프를 이용하여 승선하기도 하며 탈출하였다.

결과 및 영향

수로와 도서, 연안의 실정에 밝은 한국해군은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로 이동한 약 6만 2000여 명의 피란민들에 대한 수송 지원을 통해 그들을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지역 반공청년들을 비롯한 청년의용대에 군수지원을 하였다. 또한 38도선 이북의 연안지역에서 유격부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인천 재탈환작전

[仁川 再奪還作戰, 1951. 2. 10.]

개요

한국해군 특공대원이 1951년 2월 10일 북진하던 유엔군과 한국군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유엔해군 함정들의 함포사격 지원을 받으며 소해정과 발동선 편으로 인천 기계제작소에 상륙하여 공산군을 인천 시내에서 격퇴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인천 재탈환작전은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공산군이 서울로 후퇴 중이며 인천 시내에서도 동요한다는 판단에서 시행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과 인천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인천 인근 해역의 해상통제권을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으므로, 한국해군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은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되었다. 그리고 인천해역을 봉쇄하고 경비 중이던 소해정 510정이 1951년 1월 11일 단독으로 인천항에 돌입하여 피난민 500여 명을 구출하여 덕적도로 이송하고 25일에도 인천항을 돌입하여 인천 기계제작소 일대를 포격하였으며 인근 도서를 왕래하는 북한군 범선 10척을 격침시켰다. 인천 재탈환작전 시행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한국 해군의 이러한 공세적 활동이 인천 인근해상에서 지속된 것에도 기인하였다.

1951년 2월 1일 부산을 출항한 백두산함(PC-701함)은 미국 및 영국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분대와의 연합작전 수행을 지시받고 3일 오전 11시 50분 인천항으로 진입하여 월미도 해안으로부터 1km 떨어진 해점에서 공산군의 포대와 초소에 함포사격을

가한 후 적정을 파악하였다. 701함 함장 노명호 소령은 이때 1개 중대의 해병대와 함께 주변 도서 확보와 육지의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덕적도 주둔부대장 김종기 소령과 미 순양함 헬레나(Helena)함에서 2월 8일 인천 상황과 상륙에 대해 협의하여 상륙 계획을 수립했고 유엔해군 함정은 함포지원 및 항공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해군 · 해병대는 적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 2월 10일 오후 6시를 공격 개시일로 잡았다. 310정은 해병대원을 이송하기 위해 덕적도에 도착했으나 기상 악화로 해병대의 탑승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히 701함 함장과 덕적도 부대장은 함정에서 약 40명을 선발하여 우선 조치로 해군 함정승조원 위주의 상륙부대를 편성하였다.

상륙대원들은 302정과 발동선 2척에 편승해 2월 10일 오후 4시 30분 701함을 비롯한 소해정 3척과 함께 인천 기계제작소로 향하였다. 저녁 6시 계획에 따라 유엔함정에서 지원사격이 실시되자 701함과 발동선이 기계제작소 앞에 접안하여 병력이 상륙하였다. 이후 덕적도 부대장으로부터 상륙대원들에게 오후 9시까지 인천기상대 고지로 개별 도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대원들은 대부대가 상륙한 것처럼 과장된 구호를 외치며 돌격하였고 북한군 진지에서 전차 1대를 발견해 수리하여 인천 시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상륙대원들은 인천 시민에게 포고령을 내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륙대원들의 허장성세의 효과가 있어 북한군은 대부대가 상륙한 것으로 오판하여 후퇴하였고, 기상대를 저녁 9시 점령하였다는 발광신호를 상륙대원들은 기함에 송신하고 오후 11시에는 시청에 부대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2월 11일 오전 7시 310정 편으로 상륙한 덕적도의 해병부대는 특공대로부터 점령지를 인계받아 시내의 잔적을 소탕하고 인천시를 장악하였다.

결과 및 영향

1개 중대 규모도 되지 않는 소규모 한국해군 기습 상륙부대에 의한 상륙작전은 대규모 부대 상륙작전 이상의 결과를 이루어내, 해군에서는 '제2차 인천상륙작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군 함정승조원 위주의 단독 상륙을 통해 해군은 공산군에게 점령된 인천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이 국군이나 유엔군의 대규모 부대가 상륙한 것으로 오판하여 후퇴하게 만들었다.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의 함포사격은 공산군에게 아군 상륙의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부천 소사까지 진출하여 반격 중인 유엔군과 인천에 상륙한 부대 사이에 포위될 위기에 빠진 공산군은 급히 퇴각하였다. 또한 인천항을 재탈환함으로써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1개월 동안 부산항에서 시행된 유엔군 지상군 군수지원 부담이 완화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충남 계룡 :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

[鴨綠江 橋梁 爆破作戰, 1950. 11. 9.~21.]

개요

미 항모 밸리포지함, 필리핀 시함, 레이테함 등의 함재기가 중공군이 참전 이후 남진을 계속하자, 1950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중공군의 보급품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압록강 교량을 폭파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압록강에 있는 철교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주 교통로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이 교량 가운데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 잇는 2개의 교량이 미군이 주목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1개의 교량은 차량용이었으며, 다른 1개의 철교가 차량용 교량으로부터 약 30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 다른 4개의 교량들은 신의주로부터 가까운 차례로 청성진, 만포진, 혜산진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참전 이후 계속 남진이 이어지자, 미 극동군사령부는 항공기에 의한 압록강 철교 폭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항모기동부대는 1950년 11월 9일부터 11월 말까지 항모 함재기들은 압록강 철교를 폭격하였다.

1950년 11월 8일 오전 미 제7함대사령관이 미 극동해군사령관으로부터 중국 쪽 교량을 파괴하지 않고 함재기들이 중국 쪽 상공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압록강 철교를 폭파하라는 전문을 접수하면서 압록강 철교 폭파작전은 시작되었다.

압록강 교량들을 파괴하는 작전에 동해에서 봉쇄작전을 펼치며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고 있었던 기동부대의 항모들이 참가하였다. 제77기동부대의 밸리포지함, 필리핀 시함, 지중해로부터 일본을 거쳐온 제6함대 레이테함의 함재기 조종사들은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교량 파괴를 수행하였다. 스카이레이더기(AD Skyraider)와 코르세어(Corsair)기들로 편성된 함재기들은 8대 또는 16대로 구성되어 팬서(F9F2 Panther)제트기의 엄호를 받고 출격하였다. 공격전대는 코르세어기 167대, 스카이레이더기 12대,

팬서기 8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11월 9일부터 21일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의 매일 함재기들은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1월 말까지 몇 회 더 출격을 하였다. 이 기간에 함재기들은 590여 회의 출격을 하였고, 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에 이르는 폭탄을 230여 톤 투하하였다. 11월 9일에는 최초 폭격에 참가한 날 처음 미그기를 격추한 이후 2대의 미그기를 추가로 격추하였다. 미군 함재기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가운데 신의주 차량용 교량과 혜산진의 2개의 교량을 전파하고 나머지 4개의 교량에 파손을 입혔다.

결과 및 영향

미 항모함재기에 의한 압록강 철교 폭파 작전은 중공군의 증원과 남진하는 중공군에 대한 보급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저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중공군이 계속적으로 증원됨에 따라 효과는 적은 편이었다. 이것은 동절기 혹한으로 인하여 압록강이 결빙된 것과 중공군의 야간 이동 등에 기인하였다. 또한 중국지역의 비행을 철저히 금지시킨 제한은 미군 전투기 및 폭격기 조종사들이 교량 폭격 작전에서 행동반경을 위축시켰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09).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도곡리 철교 폭파작전

[道谷里 鐵橋 爆破作戰, 1951. 3. 2.~4. 2.]

개요

유엔해군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가 1951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북한 동부로 유입되는 보급물자를 차단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 남쪽 도곡리 철교 교량에 타격을 입힌 작전이다.

전개과정

함경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길주 근방 도곡리 협곡에 있던 철교는 만주지역까지연결되어 북한군의 보급품 수송로 역할을 했다. 도곡리 철교폭파는 북한 동해안 북부해안과 연결되는 철도에 대한 유엔군의 항공 촬영을 통한 분석 이후 공산군의 수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유엔군의 목표 아래 이루어졌다.

1951년 3월 2일부터 4월 초까지 유엔군 함재기의 지속적인 폭격이 실행되었다. 유엔해군 함재기의 폭격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파괴된 교량에 대한 공산군의 복구 속도가 빨랐고 또한 복구 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졌던 것에 기인하였다.

도곡리 철교 폭파 작전은 1951년 3월 2일 제193비행대대의 크레익(Clement M. Craig) 소령이 길주 인근의 교량을 폭격한 후 귀환비행에서 도곡리 철교를 발견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가 프린스턴함 귀환해 도곡리 교량에 대해 보고하자, 도곡리 철교의 위치, 교통 연결망 상의 중요성 및 인근의 지형 등을 고려해 귀환 당일 오후 즉각적인 폭격을 실시했으나, 철교에 경미한 손상만 있었다. 다음 날 시행된 폭격에서는 제195전투비행대대 칼슨(Harold G. Calrson) 소령의 지휘 아래 스카이레이더기 8대가 1개 교량을 파괴하고 3개 교량에 손상을 입혔다. 7일 유엔해군 함재기에 의해 다른 교량 1개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3월 14일 항공촬영 결과 도곡리 철교가 북한의 신속한 보수 작업으로 철도 수송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15일 함재기에 의한 네이팜탄 공격으로 6개의 교량 가운데 2개 교량만 교폭을 유지한 채 남게 되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폭격으로 철도 교통망이 단절되었으나, 공산군은 2주 만에 교량을 복구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일 제77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은 두 번에 걸친 폭격을 통해 도곡리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한반도 북부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어진 교량과 같은 시설 파괴는 이후 중공의 타이완 침입 가능성과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로 인한 미 제8군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 등으로 제77기동부대에 의해 지속되지 못했다. 미군의 이러한 전략적 제한으로 인하여 북한군의 철교 복구가 부분적으로 가능하였다.

결과 및 영향

도곡리 철교 파괴로 인하여 북한군의 수송은 1951년 2월의 수송량에 비해 4월에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에 중국에서 지원되는 군수지원이 북한 동부가 아닌 서부로 변경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함재기에 의한 철교 공격효과가 부분 파손에 한정되어 적의 철교 복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화천댐 폭파작전

[華川堤堰 爆破作戰, 1951. 4. 30.~5. 1.]

개요

유엔군 제77기동부대 프린스턴함 함재기가 1951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중공군이 화천댐의 물을 수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댐을 공격해 파괴함으로써 물을 방류시켜 중공군의 수공작전 가능성을 차단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1944년 화천댐이 건설됨으로써 거대한 인공 호수가 생겼다. 화천은 동쪽으로는 양양, 서쪽으로는 연천을 있는 선상에 있어 화천지역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중공군 제9병단, 북한군 제3군단 및 제5군단이 철원과 양구 지역을 공격한 이후 중간에 위치한 화천과 화천댐은 김화 지역을 장악하려는 중공군 제39군과 유엔군과 한국군의 각축장이 되었다.

1951년 4월 화천댐이 중공군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중공군에 의해 장악된 댐이 아군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됨에 따라 미 제8군은 화천댐을 폭파해 중공군이 댐을 전술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작전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화천댐의 수문을 파괴하기로 결정하였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4월 공세와 미 제8군의 38도선 사수로 인하여 양측의 전황은 대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상군을 통한 화천댐 장악이 용이하지 않자 미 제8군에서는 애초에 B-29 폭격기를 이용하여 화천댐을 폭격하려 하였으나 파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군 제77기동부대에 댐 폭파를 요청하였다. 제77기동부대사령관 오프스티(Ralph A. Ofstie) 소장은 4월 30일 오후 1시 30분 화천댐 수문 폭파 요청 전문을 접수하고 항모 프린스턴함에 작전 수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프린스턴함의 함재기 스카이레이더기 6대가 2,000파운드의 폭탄을 적재하고 코르세어기 5대의 엄호를 받으며 댐을 폭격하였으나 한 개의 수문을 반파시키는 데에 그쳤다.

공중폭격이 실패하자, 어뢰를 이용해 파괴하기 위해 5월 1일 프린스턴함의 함재기 스카이레이더기 8대가 어뢰를 적재하고 출격하였으나 화천댐이 높은 언덕에 둘러싸여 있어 다수의 항공기가 동시 다발로 공격할 수 없었다.

댐 공격 시에는 최대 2대의 공격이 가능하여 오전 11시 30분에 도착한 스카이레이더기 12대가 공산군의 대공포 파괴를 위해 VT탄을 투하하는 가운데 어뢰를 탑재한 2대의

스카이레이더기가 어뢰를 투하하고 뒤이어 다른 6대의 어뢰탑재 스카이레이더기가 어뢰공격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댐 중간의 수문 1개가 완파되고 다른 수문에 10피트 정도의 구멍이 남으로써 화천댐의 물이 방류되어 중공군에 의한 댐 저수를 통한 수공은 저지되었다.

결과 및 영향

해상공격에 이용되는 어뢰를 함재기가 화천댐 수문을 파괴한 것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항공기에서 투하된 어뢰를 사용한 작전이었다. 함재기 조종사들이 어뢰공격을 통해 언덕에 둘러싸여 있는 댐 수문을 파괴하여 물을 방류시킴으로써 중공군에 의한 댐의 저수조절을 통한 시차적인 아군 행동저지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1951년 6월에 미 해병 제1사단의 진격이 가능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Edward J. Morolda 편 (김주식, 정삼만, 조덕현 공역), 『한국전쟁과 미국 해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신미도 전투

[身彌島 戰鬪, 1951. 4. 16.]

개요

서해에서 경비 중인 해군 압록강함(PF-62)이 1951년 4월 16일 평안북도 철산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신미도에 추락한 미그(MiG-15)기 후송을 위한 작전 중 북한군 야크기 4대와 전투를 벌인 전투이다.

전개과정

공산군 미그기의 신미도 추락은 이 전투기의 성능 파악이 필요했던 유엔군이 신미도에서 작전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은 공산군의 새로운 전투기인 미그기를 획득해 후송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해군으로부터 미그기가 추락하였다는 통보에 의해, 해군본부는 1951년 4월 11일 신미도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그기의 파악과 기체 운송 임무를 서해에서 경비 중인 한국해군 호위함 62함에 명령했다.

한국군은 신미도에 추락한 공산군의 미그기를 운송하기 위해 공산군의 공중 기습공격을 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해군 함정과 함정 승조원들에 한정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재송 62함 함장은 작전명령을 받고 4월 12일 오전 6시 백령도를 출항하여 오후 12시 5분 대청도에 이르러 호주 구축함 와라문가(Warramunga)함과 합류하여 작전을 협의한 후 영국해군 대위를 연락장교로 데리고 왔다. 62함은 오후 4시 다시 백령도로 귀항하여 소해정 4척과 함께 오후 5시 25분 신미도를 향하여 출동했으나, 하지만 풍랑이 심했으므로 13일 대화도와 소화도 근해에서 기상이 나빠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6시 25분 62함 갑판사관의 지휘 아래 장병 8명이 소화도에 상륙하여 적정을 탐지하였다.

14일 오전 6시 20분에는 함정들이 해상 묘박지를 출항하여 신미도 근해에 도착하여 기동경비에 임하는 가운데 함정 승조원들은 격추된 미그기를 탐색하였다. 오후 2시 15분에는 해군 승조원들은 미그기 기체를 확보하기 위해 신미도에 낙하산으로 투입하였으나, 기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의 공격을 받아 신미도 인근 나비섬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공군 공작대원 15명과 정보원 5명을 구출하였다. 한편 신미도 근해에서 기동경비를 하던 소해정 512정이 오후 5시 5분 신미도 북동쪽 해상에서 좌초되어 62함과 소해정 308정이 구조 작업에 나서기도 했으나, 512정이 다음 날 새벽 만조 시 자력으로 좌초지역을 이탈하였다.

62함 함장이 중국에 위치한 적 항공기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진하던 중 16일 오전 7시 58분 공산군 야크기 4대가 저공으로 산맥을 타고 해상으로 출현하여 62함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해왔다. 야크기에서 투하한 폭탄이 62함에 명중되지는 않았으나 좌현 근거리에 투하된 폭탄으로 함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함의 일부에 침수가 일어났다. 대공 전투태세에 소홀하였던 62함 승조원들은 야크기의 기습공격에 맞서 각자 포대로 뛰쳐나가는 와중에 당직포 요원인 20밀리 포 및 40밀리 포 요원들만이 대응사격을 가하였다.

1차 공격에서 공격에 실패한 적 야크기가 2차 공격을 가해오자, 각 포대에 배치된 62함 포 대원들은 화력을 집중해 기총소사 후 상승하던 야크기 1대를 격추시켰고, 나머지 3대가 2차, 3차 공격을 가해오자 다시 야크기 1대를 명중시켜 손상된 야크기와 잔여 2대도 도주하였다.

13분 동안 진행된 전투에서 62함이 야크기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파손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당시 실습 중이던 생도 2명을 포함해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중상자들은 구조를 위해 합류한 영국 벨파스트함으로 이송되고, 62함은 기관실, 사관실을 비롯해 곳곳에 파손과 균열이 발생하고 침수로 함이 기우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

렇지만 지원된 미국 함정 보수 요원들로부터 방수 및 배수작업을 적극 지원받아 침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후 62함은 일본 요코스카의 미 해군 기지에서 수리된 후 한국에 귀항하여 작전에 투입되었다.

결과 및 영향

62함은 북한 야크기의 기습공격을 받고 대공전을 벌여 야크기 1대를 격추시키고 1대를 파손시켰다. 이 전투는 6 · 25전쟁 시기 한국해군 함정과 공산군 야크기 사이에 최초로 공중전을 벌였던 함대공 전투로, 해군 호위함 승조원들은 공군의 지원없이 작전을 수행하였다. 당시 한국해군의 주력 전투함이었던 62함은 이후 일본 사세보항 미 해군기지에서 장기간의 수리로 작전 운용의 공백이 발생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 · 25전쟁사』 9 (2012).
임성채 외,『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한국해군 제1함대 동해안 경비작전

[韓國海軍 第1艦隊 東海岸 警備作戰, 1951. 10.~1953. 7.]

개요

한국해군 제1함대가 유엔해군의 지원을 받아 1951년 10월부터 1952년 2월까지 '28작전',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42작전', 1953년 1월부터 7월까지 '묘한작전'을 통해 한반도 동해 해역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및 방어진지 파괴, 소해 등을 실시해 한국 해군 함정의 안전과 효과적인 기동성 유지를 보장하였고 공세적 활동을 통해 해상 우세권을 이어나갔던 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된 후 지상전이 교착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해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동 · 서 · 남해에서 경비작전을 전개하였다. 동해경비 작전 어뢰정(PT)은 함경남도 여도 등에 정박하며 주로 야간에 작전을 전개하면서 북한군의 요새, 병력 집결지, 해안포대 등을 공격하였으며, 북한 동해안 해안의 열차선로를 따라 군수물자를 이동하는 기차를 공격하였다.

북한 연안의 도서 장악은 한국해군의 연안 봉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시행되었다. 1951년 10월 7일 이후 북한군이 해안포를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해안지대에 지뢰를 매설하여 유엔군 및 한국군의 상륙에 대비하였다. 북한군은 갈마반도에서 야포와 박격포를 이용하여 한국해병대가 장악하고 있었던 황토도, 신도, 소도 등에 위협사격을 가하였고 1일 평균 4발의 기뢰를 띄어 유엔해군 및 한국해군의 해상 활동을 방해하였다. 동해안에서 북한군의 대응 활동을 저지하고 유엔해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해군 함정들은 북한군 지상군의 동태 및 배치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했으며, 지상군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28작전' 기간에 1951년 12월 22일 호위함인 낙동강(PF-65)함, 구잠함 삼각산(PC-703)함, 소해정 518정이 동해 봉쇄구역 경비 중 갈마반도의 북한군으로부터 박격포 사격을 받고 응전하여 북한군 토치카 다수를 파괴하였다. 12월 23일에는 낙동강함과 삼각산함이 전일과 동일한 박격포 사격을 받고 응전하여 사격을 가한 북한군을 패퇴시켰으며, 12월 24에는 낙동강함, 삼각산함, 518정이 여도부근 해상에 출몰한 북한군 선박 2척을 격침시켰다. 28작전 중 한국해군의 가장 큰 피해는 1951년 12월 26일 원산항 봉쇄작전 수행 중 구잠함 704함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하여 승조원 57명 전원이 전사한 것이었다.

'42작전' 기간 중 한국해군은 북한군 후방 침투를 도모하며 해상봉쇄, 수송, 호송, 소해, 경비 등의 작전과 유엔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동해안 경비작전과 봉쇄작전 중 YMS-518정이 함내 부분 고장으로 침수되어 침몰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으나 미 순양함 세인트 폴(Saint Paul)함의 지원으로 방수작업을 마쳐 위기에서 벗어났다. 1952년 6월 1일 북한군이 원산 주변 해안포대에서 불시에 포격을 가하고 기뢰 부유를 시도하자 한국해군의 구잠함 701함이 투입되어 유엔해군의 소해작업을 지원하고 기습작전 시 북한군의 위협 제거에 협력하였다. 또한 1952년 10월 8일 구잠함 묘향산(PC-706)함이 흥남 근해 경비 중에 마양도 서쪽 500야드 전방의 소형선박 16척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하여 북한군에 손상을 가하였다. 어뢰정(PT-25정)과 27정은 1952년 5월 23일부터 10월 초순까지 영흥만 봉쇄, 호도반도 해안 및 신포 해안 포격, 북한군 선박 격침, 어대진 북동부에 이르는 해안 봉쇄, 성진, 마양도 북한군진지 포격 등을 수행하였다.

'묘한작전'은 한국해군이 수행한 동해의 여도와 난도 근해의 북한해군의 기뢰부설 대응 및 북한군의 기습상륙과 준동에 대비한 경비작전이었다. 한국해군은 묘한작전으로 유엔해군과 연합하여 적의 침투를 봉쇄하였다. 1953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피난민들이 남하하는 중계지로서 가치를 지닌 난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군의 구잠함 706함, 상륙정

110정, 109정, 소해정 504정, 514정, 518정 등이 북한군의 주둔 지점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또한 이 함정들은 유엔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해상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구잠함 한라산(PC-705)함이 원산 해역에서 경비 활동을 계속 하였다.

결과 및 영향

동해안 경비작전은 서해 및 남해 경비작전에 비하여 유엔해군의 지원이 가장 많았던 작전이었다. 미 제7함대 항공모함과 전투 함정들이 동해의 최북단까지 북상하여 활동하는 등 유엔해군이 해상주도권을 가진 가운데 한국해군은 공세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국해군 함정들은 함경북도 해안 인근까지 진출하여 해역을 봉쇄함으로써 북한군의 일부 병력을 해안방어에 임하도록 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분산시켰으며, 유엔해군에 각종 정보를 제공해 작전 수행에 기여하였다. 한국해군에 의해 수행된 북한군 도서상륙 분쇄, 한국해병대의 원산 인근 도서 확보를 위한 함포사격, 북한군에 의한 기뢰부설 방지 등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력에 손상이 가해졌으며 휴전 전까지 동해해역의 해상통제권 우위를 지켰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한국해군 제1함대 서해안 경비작전

[韓國海軍 第1艦隊 西海岸 警備作戰, 1951. 10.~1953. 3.]

개요

한국해군 제1함대가 서해 해상과 도서 장악을 목표로 1951년 10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9개월간 '탁수작전',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무작전', 1953년 1월부터 3월까지 '금각작전'을 실시해 북한군의 상륙저지, 기습상륙 지원사격, 서해안 봉쇄 등을 수행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10월 이후 한국해군은 유엔해군과 함께 봉쇄작전을 강화한 가운데 북한해군에 의한 기뢰부설 해역의 소해, 반공유격대 지원, 함포사격과 군수지원 등을 행하였다. 서해안 경비작전은 1951년 10월부터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탁수작전, 충무작전, 금각작전으로 실시되었다.

탁수작전 기간인 1951년 10월 29일 북한군 1개 소대가 한국 해군의 관할에 있었던 신도 점령을 위해 용호도 동북쪽의 7km 지점에 위치한 인평으로부터 상륙을 기도하자 소해정 303정이 포격을 실시하여 북한군을 섬멸하였다. 또한 11월 12일 아침 북한군 약 45명이 용호도에 박격포와 중화기로 위협사격을 가하자, 소해정 309정은 함포 사격으로 그들을 격퇴하였다. 12월 26일에는 구잠함 701함, 소해정 302정 및 303정 등이 유격대원이 분승한 범선 2척과 함께 진남포 입구 석도 근해로 향하여 청양도에 유격부대원의 기습상륙 시 지원포격을 하였다.

29일에는 소해정 315정이 석도 근해에서 경비 중 적정 수집차 기습상륙한 반공유격대를 위한 지원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석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해병대 석도부대는 영국 함대와 협력하여 석도 서쪽 2,000야드 해상에 출현한 북한군 선박 2척을 격침시켰다. 31일부로 한국해군이 서해전대를 편성한 가운데 1952년 1월 4일 소해정 304정이 교동도 근해 경비 중에 미 제8군 소속 유격대 기습 상륙작전을 위한 지원포격을 하였다.

195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무작전'은 유엔해군의 서해 봉쇄 아래 수행되었다. 이 기간 중 피아 간 서해안 전투 및 도서 전투는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북한군은 옹진반도 해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해안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7월 16일 북한군에 점령된 창린도 탈환이 서해를 봉쇄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해군 함정들은 1952년 1월부터 3월까지 '금각작전'으로 현재의 서해 5도로 불리는 섬들과 교동도, 무도, 기린도, 해주만 인근 해상 경비작전을 수행하며 적진에 대한 포격, 기습상륙, 북한군 침투저지를 위한 작전을 펼쳤다. 서해안 봉쇄작전과 함께 수행된 작전 중 소해정 514정은 1953년 1월 20일 연평도 서북쪽 근해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을 받고 약 20분 동안 교전한 후에 사정권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상륙정 107정은 주간에는 대청도, 야간에는 기린도 근해에서 경비 중 장산곶 남방 20마일 지점 북한군 진지에 2월 22일과 23일 함포사격을 가했다. 또한 구잠정 205정은 연평도 근해 경비 중 3월 9일 유격대 중환자 3명을 연평도에서 인천항에 후송하였다. 3월 11일에는 상륙정 109정, 소해정 507정 및 503정이 기린도와 대청도 사이와 백령도 근해에서 경비 중 구미포의 중공군 토치카와 북한군 포대 및 병사 파괴를 위한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은 해역봉쇄와 전투 행동으로 옹진반도 인근의 반공 유격부대 장악 도서에 대한 북한군의 상륙을 저지하였고, 북한군 제압을 위한 연안 함포사격, 유격대원 상륙 지원 등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민심을 위로하였으며, 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상

관문인 진남포 인근 해역까지 해상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군의 해상 전투 행동과 도발을 저지했고 서해 5도 확보의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수풍댐 폭파작전

[水豊堤堰 爆破作戰, 1952. 6. 23.~24.]

개요

미 해군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와 제5공군이 1952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풍댐을 공격해 댐 일부분을 파괴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동력 및 중공군 군수지원에 지장을 주었던 작전이다.

전개과정

수풍호는 압록강 중류의 신의주 상류 6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km에 이른 거대한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발전소 자체 크기는 길이 100m, 폭과 높이는 20m였다. 당시 동양 최대 수력발전소인 수풍댐에서 전력을 생산한 발전량은 북한 수요와 만주 중공업용 전력의 30%를 충당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물이 되었다. 이 발전소에 대한 대공방어는 중공군이 85mm 고사포 12문과 37mm 고사포 24문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1952년 3월 말 제95기동부대 사령관은 부임한 이후 수풍댐 폭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4월에 미 극동해군사령관과 제7함대사령관이 함께 수풍댐 공격이 결정되었다. 작전 배경은 휴전협상이 진척이 없고 북한지역을 유엔군이 재차 장악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수풍댐의 전력공급에 타격을 주어 공산군 측에 경제적, 군사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었다.

수풍댐 공격은 미 해군, 미 해병대와 미 제5공군에 의해 합동으로 수행되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비롯한 폭격기와 전투기가 수풍댐 파괴작전에 참가하였다.

이때 원산만 대도에서 탈출하여 유엔군이 북한의 발전시설에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이 압록강 주변에 공장을 다수 설립하였다는 북한 병기감의 진술로 작전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동부대사령관 다이어(D. C. Deyer) 소장에게 보고

한 이후 그링리치(J. E. Gringrich) 신임 기동부대사령관 부임으로 작전 실행은 구체화되었다.

1952년 6월 22일 공격편대의 조종사들이 기동부대 함상에서 사전 회의를 실시하였고, 무장, 비행시간 등의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졌다. 23일 아침 9시 30분 다우닝(A. L. Downing) 중령은 수풍댐뿐만 아니라 주위의 발전소, 변전소 등에 대한 동시 공격을 출격 조종사들에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격지침이 새겨진 가운데 수풍댐 주위의 대공포 등이 폭격조종사들에게 장애 요소가 되었지만 오후 2시 공격 편대가 출격하였다.

항공모함 3척의 항공기 35대 가운데 31대가 5,000파운드의 폭탄을 적재해 출격하였고, 나머지 항공기 4대도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대로서 출격하였다. 이어서 항모 3척으로부터 전폭기 35대가 출격하였다. 함재기 폭격편대가 수풍댐에 이르기 전 미 제5공군의 세이버(F-86E Sabre) 제트기 84대가 공산군 미그기의 출격에 대비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최초 출격한 편대장의 지시에 따라 제77기동부대 함재기들이 오후 3시 55분 폭격하기 전 미 공군 선더(F-84 Thunder)기가 공산군 고사포를 제압하는 공격을 시작한 데에 이어 항공모함 3척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일제히 폭격을 실시하였다. 공산군이 고사포와 기관포로 맹렬히 대응사격을 하는 가운데 공격기들은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최초 3분 동안의 공격에서 함재기는 90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고 이어서 미 제5공군의 폭격이 이어졌다.

이 공격에 의해 발전소와 다른 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공산군 대공포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렇지만 함재기 5대가 격추되고, 1대는 공산군의 대공포에 손상을 입고 김포 미 제5공군기지에 착륙하였다.

결과 및 영향

수풍댐에 대한 유엔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인하여 북한의 전 지역에 전력공급의 차질이 벌어졌고, 평양에서도 생산 능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생산 시설 및 압록강 연안의 지하 공장에도 손실을 입혔고, 만주지역의 송전이 정지되어 만주지역 시설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수풍댐 공격과 발전소 파괴는 유엔군의 사기를 높였으며 반대로 공산군에게는 큰 심리적 타격을 주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 보고서』 [3] (2001)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평양 공습작전

[平壤 空襲作戰, 1952. 7. 11.]

개요

미 제5공군, 해군 제77기동부대, 해병항공대를 비롯해 영국군 항모, 한국 공군기 등이 1952년 7월 11일 평양의 군수품 저장소, 기관차고, 철도공장, 탄약고 등을 폭격하여 북한에 타격을 입힌 작전이다.

전개과정

평양 및 평양 인근에는 북한군의 군사 시설이 산재해 있어서 유엔군이 공습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엔군은 국지적인 전투보다는 평양에 대한 공중폭격이 북한에 타격을 줄 것을 고려해 공세적인 작전을 계획하였다. 수풍댐 공격이 단 이틀에 걸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매우 컸던 점도 평양공습의 배경이기도 했다.

평양공습은 1952년 7월 9일부터 공격항모의 부대지휘관과 함재기 편대장들의 회의 이후 11일 항공모함 함재기가 출격하여 공산군의 고사포 대응사격 속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완료되었다.

9일 제77기동부대사령관 리건(H. E. Regan) 제독, 참모, 편대장들이 모여 평양 폭격 작전 회의를 시작한 후, 항공모함 프린스턴함과 봉 옴머 리샤함(Bon Homme Richard)의 선더(F-84 Thunder)기가 엄호하는 가운데 코르세어(F4U)기와 스카이레이더(AD)기가 폭격을 실시하였다.

7월 11일 오전 8시 31분 프린스턴함에서 45대, 리샤함에서 46대의 항공기가 동해 원산항 내의 여도 상공에서 합류하여 평양으로 비행하였다. 함재기들은 평양 남동쪽에 소재한 탄약보급소, 수송부대, 공장 시설, 기관차 정비소, 차고 등을 공격하였다. 이외에도 미 제5공군 항공기, 호주공군, 미 해병대, 제95기동부대 오우션(Ocean)함의 함재기들이 공격에 참가하였다.

미 제5공군기가 미그기 공격을 대비하는 가운데, 함재기들이 성천 상공을 지날 때 자동사격통제 장치에 의한 공산군 대공포의 공격을 받고 폭격하는 동안 스카이레이더기 1대가 격추되고, 코르세어기 1대가 경미한 파손을 입었다. 함재기 팬서(F9F-2)기 한 대가 고장으로 해상 불시착하여 조종사가 구출되었다.

함재기들은 기관차고, 열차수리소, 탄약고를 폭격하였는데 특히 탄약고에 집중 폭격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A-195편대의 스카이레이더기가 격추되고 VF-193 편대의

코르세어기 2대가 피격되었으나 K-14 김포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폭격작전 후에 기상 악화로 인하여 강릉과 수원비행장에 일부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 안착하였다.

결과 및 영향

유엔군에 의한 평양공습 후에 평양 방송이 이틀 동안이나 중단되었으며 함재기들이 폭격한 기관차고 및 철도공장이 60%나 파괴되었다. 또한 함재기가 11시간 폭격하는 동안 1,400톤의 폭탄과 2만 3,000갤론의 네이팜탄 대부분이 평양과 평양 인근의 목표물에 투하되어 1,500여 건물을 파괴하고, 900여 동의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방공호에도 폭탄이 명중되어 북한 고위 간부들을 살상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신덕 · 길주 공습작전

[新德 · 吉州 空襲作戰, 1952. 7. 27.~28.]

개요

미 항공모함 프린스턴 함재기가 1952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전쟁 동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함경북도 신덕과 길주의 광산 및 제련소 등을 파괴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평양공습과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수풍발전소 파괴 공습으로 북한의 군사동력에 타격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유엔군은 공중폭격이 주는 전투 결과에 고무되었다.

함경북도 신덕 및 길주 광산에서 생산되는 매월 3천 톤의 납과 아연이 중국을 거쳐 소련으로 수송된다는 점에서 신덕 및 길주 광산이 유엔군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황이 현재의 휴전선이 된 선상에서 지리한 소모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수지원에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시설과 경제 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은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유엔군의 전략 아래 진행되었다.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산업 시설을 폭격한 이후

1952년 7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 걸쳐 신덕과 길주에 있는 광산을 다시 폭격하였다. 유엔군 항모 선더 제트기가 북한의 대공포 제압 및 엄호를 하는 가운데 스카이레이더기와 코르세어기들이 폭탄을 투하하였다.

27일 선더기가 북한군의 대공포 대응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 후 리샤함의 함재기들이 공장, 발전소, 건물에 타격을 가하였으며, 28일 작전에서도 유엔 항공기들은 아무런 손상없이 모함으로 귀함하였다. 이어 항모 프린스턴함에서 출격한 코르세어 폭격기 25대와 스카이레이더기 13대가 2개 편대로 나뉘어 폭탄과 로켓탄 40톤을 길주에 투하하여 제련소의 60%를 파괴하였다. 또한 함재기들은 제련소에 전원을 공급하던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주위의 병사와 길주 남쪽으로 향해있는 철교의 약 60%를 절단하였다. 폭격작전에 참가한 함재기 가운데 코르세어기 1대가 적탄에 맞아 격추되어 조종사가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함재기들은 신덕 제련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결과 및 영향

기동성을 보유한 유엔군 함재기의 폭격에 의해 신덕의 납제련소를 파괴하고 아연제련소의 약 75%를 파괴하였으며, 길주의 마그네슘광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이틀 동안 함재기의 폭격을 통해 북한의 전력 공급원인 발전소, 장병 숙소, 철도교량 등을 파괴해 그들의 전쟁 동력에 타격을 입혀 항모를 보유한 유엔해군의 해양통제력의 효과가 잘 나타났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창린도 탈환작전

[昌麟島 奪還作戰, 1952. 7. 15.]

개요

동키 제11부대 유격대 140명이 1952년 7월 16일 발동선 1척과 범선 9척에 분승하여 한국해군 구잠함 702함의 호송을 받으며 창린도 남단에 상륙하여 702함, 영국해군 순양함 벨파스트함 등의 함포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격퇴하고 창린도를 탈환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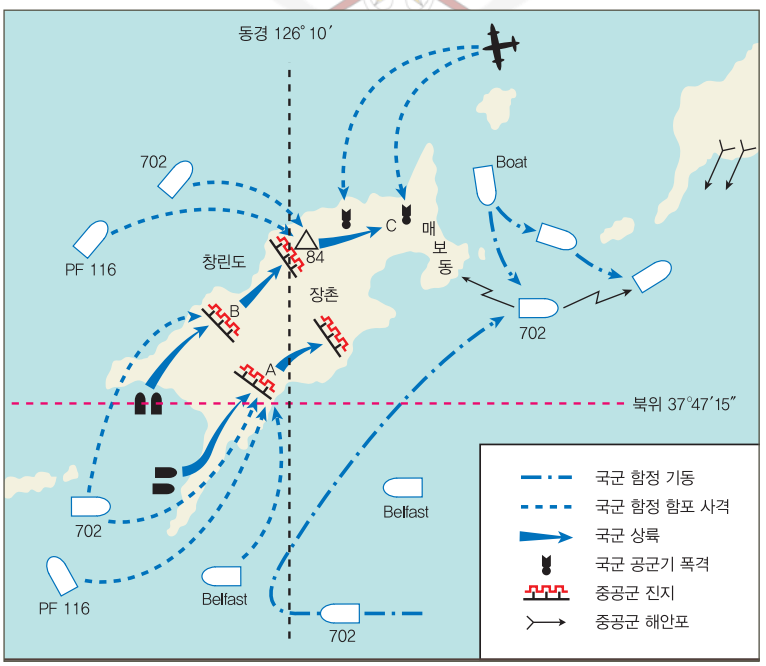
전개과정

창린도는 황해도 옹진군 옹진반도 남단에 있는 섬으로 중공군 남진 이후 1951년 2월 옹진에서 피난 나온 학생들로 조직된 옹진학도유격대가 이 섬과 인근 순위도, 용호도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었다. 옹진학도유격대는 미군 지원을 받아 동키 제11부대로 재편되었고, 대원들은 이 지역 출신이어서 지리에 익숙해 활발한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해안의 고지에 포대를 구축하고 방어를 강화하고 있던 옹진반도 일대의 북한군이 1952년 7월 15일 새벽 2시 병력 약 300명을 어둠을 틈타 상륙시켜 옹진반도 남쪽에 위치한 창린도를 점령하였다. 창린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동키부대는 북한군 정규군과 접전하면 불리하므로 일단 창린도에서 철수한 후 이를 기습하자는 방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어화도로 철수하였다.

백령도 유격대기지사령부에서는 반격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인근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 및 함재기의 근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7월 15일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함과 호위함, 한국해군 PC-702함이 창린도 근방으로 이동해 왔다.

7월 16일 새벽 4시 30분 유격대 140명은 상륙준비를 마치고 702함의 호위 아래 발동선 1척과 범선 9척에 분승하여 창린도 남쪽을 향하였고, 새벽 5시 30분 702함이 포



격을 실시할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702함, 영국해군 벨파스트함, 호위함이 북한군 진지에 포격을 개시한 후 오전 6시 30분 함재기의 공중폭격지원으로 오전 7시 15분 동키부대 상륙대원들이 북한군의 포화를 뚫고 상륙에 성공하였다. 이때 미 함재기 4대 가운데 1대가 격추되었으나 조종사는 구출되었다. 상륙부대는 2개 조로 나뉘어 적진으로 향했고, 북한군이 84고지로 퇴각하여 반격을 시도하자 양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후 오전 11시 15분부터 45분간 702함이 포격을 가하여 북한군 진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상륙부대는 오후 12시 35분에 84고지를 장악했다. 북한군은 해안포대의 지원 아래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유엔군 항공기의 폭격에 의해 반격이 좌절된 상태에서 상륙부대에 의해 대부분 사살되거나 생포되었다. 북한군의 일부가 창린도 북쪽 해상으로의 탈출을 도모하였으나, 702함은 탈출하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북한군 수비대 작전참모를 비롯한 4명을 생포하였다. 이렇게 한국해군, 유엔해군과 유격부대가 합동작전으로 창린도를 오후 저녁 7시에 완전히 탈환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및 유엔해군의 지원을 받은 옹진학도유격대는 창린도를 재탈환하여 이곳을 근거지로 휴전이 될 때까지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원 16명이 전사하고, 중경상자 11명이 발생했으나, 북한군 110명을 사살하고 38명을 생포하였으며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참고문헌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003).
임성채 외, 『6 · 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본부, 2010).

【배안석/조성훈】

아오지 정유공장 폭파작전

[阿吾地 精油工場 爆破作戰, 1952. 9. 1.]

개요

미 제7함대 항공모함 프린스턴함, 박서(Boxer)함, 에섹스(Essex)함 등의 함재기가 1952년 9월 1일 북한의 가장 큰 유류 공급원인 아오지뿐만 아니라 무산, 청진 일대의 북한군 전쟁 동원 관련 시설 폭격을 실시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아오지 정유공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곳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유연탄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발달해 있고, 인근에 북한 동북부 지역의 공업지대 무산에는 철광석 생산이 많아 제철공장, 청진 열전기 공장 등이 발달해 있었다.

평양공습, 신덕, 길주의 제련소 폭격, 수풍발전소 폭격과 파괴를 통해 발전소, 공장, 철도시설, 차량, 변전소, 교량 파괴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쟁 수행에 필요한 공산군의 직간접적인 군수지원 근원이 축소되었다는 점이 유엔군의 아오지 폭격의 배경이 되었다.

유엔군은 아오지 폭격을 통해 정유공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시설도 함께 파괴할 수 있어 1952년 9월 1일 하루 동안 미 제7함대의 항모 함재기들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북한의 산업시설과 공업기반을 파괴하고 경제의 기간 시설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산권 내의 수출산물 파괴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시행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 수행을 위해 동해에 출동한 항모 함재기들은 무산, 신덕, 길주 등의 공업 및 광산시설을 파괴하는 폭격에 이어 아오지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은 6 · 25전쟁 기간 한중국경과 소련국경을 월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유엔군의 이러한 전쟁 수행 방식에 북한군과 중공군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다. 이러한 전쟁 수행 양상은 유엔군이 최북단 아오지와 청진 등을 폭격하는 동안에 북한군이 대공포나 공중세력에 의한 방어를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아오지가 소련과 인접해 있어 공중공격 시 조종사들의 오류에 의한 소련국경 월경문제와 소련 공군기의 대응 등을 고려해 유엔군이 최북단 정유시설 등에 공중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방심한 북한군의 전투태세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동해상의 미 제7함대 항모함재기들이 평양 공습, 수풍댐 발전소 파괴 작전 등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공중공격의 가치를 확인한 후에 미 제7함대 사령관은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아오지 정유공장 폭격을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이후 참모회의를 거쳐 마크 클라크(Mark Clark)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아오지 폭격작전이 실행에 옮겨졌다.

1952년 9월 1일 미 제7함대 소속 프린스턴함, 박서함, 에섹스함에서 함재기 총 150여 대가 출격하여 아오지 공격에 들어갔고, 일부 함재기들은 무산 인근의 제철공장, 청진 인근의 열전기 공장, 변전소, 군수물 적재소 및 건물 등을 폭격하였다. 아오지 상공에서 정유공장 폭격을 수행한 폭격기들은 공산군의 저항을 받지 않으며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항모 함재기 폭격을 통해 정유공장뿐만 아니라 주위의 광범위한 지역이 화염에 휩싸인 것이 조종사들에게 목격될 정도로 아오지 폭격은 유엔군에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정유시설 파괴로 인해 북한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 시설에 손상이 가해짐으로써 북한군 군사동력에 직간접적인 형태의 지장을 야기시켰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배안석/조성훈】

Ⅳ

6·25 전쟁 주요 전투

전투 항목(공군편)

수도권 방어 항공지원작전

[首都圈 防禦 航空支援作戰, 1950. 6. 25.~27.]

개요

한국 공군비행단이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27까지 육군의 서울 방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산, 의정부, 동두천, 포천 지역에서 수행한 정찰비행 및 북한군 병력 · 장비에 대한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6월 25일 남침 당시 북한 공군은 2,800명의 병력과 YAK-9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 공군은 1,897명의 병력과 연락 및 훈련용으로 사용되던 L-4/5기 12대와 T-6기 10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은 과거 일본이 건설한 여의도 · 김포 · 수원 · 대전 · 군산 · 대구 · 진해 · 김해비행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항공기 운영부대는 여의도기지의 공군비행단이 유일하였다.

공군비행단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공군작전지휘소를 여의도기지에 설치하고 전선 상황을 검토한 후 대공사격반, 대공감시반, 비행반, 정비반, 연락반, 수송반, 구호반 등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더불어 공군비행단은 T-6와 L형 항공기로 북한군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날(25일) 오후부터 문산, 동두천, 포천, 춘천 방면으로 적정 파악을 위해 출격시켰다. 그리고 26일부터는 육군병기창에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30파운드(15kg) 폭탄 274발을 활용해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을 전개하였다. 폭탄걸이를 장착할 수 없었던 L형 항공기는 후방석 탑승자가 2개의 폭탄을 가슴에 안고 출격하여 육안으로 표적을 식별한 후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6월 26~27일 이틀 동안 L형 항공기는 문산, 동두천, 의정부, 포천, 미아리 방면으로 40회 출격하여 폭탄 95발을 투하해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켰다.

6월 27일에는 양 날개에 10개의 폭탄을 장착한 T-6기가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참가하였다. 당시 T-6기의 연습용 폭탄걸이에 병기창 제조 폭탄을 장착할 수 없었던 공군비행단은 이근석 단장의 지시에 따라 26일 철야 작업으로 T-6기 양 날개에 폭탄 10개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폭탄걸이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7일 오전부터 작전에 들어간 T-6기는 문산, 동두천, 의정부, 미아리 지역으로 이날 총 28회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과 전차 · 차량 등을 공격하였다. 이날 T-6기가 사용한 폭탄은 179발이었다.

그러나 공군비행단은 6월 27일 274개의 국산폭탄 전량을 소모하여 전투출격을 중단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공군비행단은 북한군 병력 130명을 사살하고 차량 6대, 전차 4대, 교량 4개소, 보급품집적소 1개소, 야포 2문, 선박 2척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결과 및 영향

공군비행단의 수도권 방어 항공지원작전은 북한군의 진격 속도에 영향을 주기에는 보유한 전력과 화력이 크게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3 ·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이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서울 방어라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군비행단은 정찰비행을 통해서 획득한 적정을 육군에 알림으로써 차후 육군 작전에 일조하였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 1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2], 2005.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이근석】

전쟁 초기 제공작전

[戰爭 初期 制空作戰, 1950. 6. 27.~30.]

개요

미 극동공군사령부 소속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1950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전투원의 일본 소개, 한국으로의 탄약 공수 항공기 엄호(방어제공), 북한 공군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북한 비행장 폭격(공세제공) 등을 전개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급작스런 6 · 25전쟁의 발발은 미국과 미군에게 사전에 어떠한 작전계획의 수립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전력 투입에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 · 공군을 우선 투입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을 참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첫 번째 조치는 6월 26일 오전 9시(미국시각 6월 25일 저녁 8시) 미국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날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는 '서울–김포–인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탄약과 장비의 안전한 수송, 미국인 가족과 주한미대사관이 승인한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소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본국으로부터 하달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6월 27일 오전 8시(미국시각 6월 26일 오후 7시)에

개최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38도선 이남에서 미 해 · 공군 작전을 허가하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일소하기 위해 38도선 이남의 모든 군사목표물에 대한 해 · 공군의 제한 없는 작전수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에게 남한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결정된 미 극동공군의 참전은 사전에 작전계획의 수립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초기 4일 동안 진행된 미 공군의 제공작전(Counter Air Operation)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미 극동공군 소속 전투기들이 최초로 한반도 공역에 출격한 것은 6월 26일이었다. 이들에게는 인천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인들이 탑승한 상선을 북한 공격기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제공(Defensive Counter Air) 임무가 부여되었다. 6월 27일 미국의 비전투원 소개가 상선을 통한 해상이동에서 전선 상황이 악화되어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작전으로 전환되자 미 극동공군은 인원 수송에 필요한 C-54수송기 13대를 확보하고 이날 오전 6시 40분에 첫 번째 수송기를 이다즈케(板付) 기지에서 이륙시켰다. 이날 미 극동공군은 김포기지에서 250명, 수원기지에서 313명, 부산기지에서 375명을 일본으로 공수하였다.

미 극동공군이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 공군은 미 공군수송기를 격추하기 위해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 27일 정오경 북한의 YAK전투기 5대가 김포기지 상공에 출현하여 수송기를 엄호하던 미 F-82전투기 5대와 교전하였다. 이 교전에서 미 공군조종사 허드슨(William G. Hudson) 중령, 리틀(James W. Little) 소령, 모란(Charles B. Moran) 중위는 북한군 전투기 1대씩을 격추시켰는데, 이는 6 · 25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공중전에서 북한 공군기를 격추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날 오후 두 번에 걸쳐 북한의 IL-10기 8대가 김포기지에서 공수작전 중이던 미 수송기를 공격하였다. 이때 미 공군의 제트전투기인 F-80전투기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IL-10기 4대를 격추시켰다. 이 전투는 미 공군 제트전투기가 6 · 25전쟁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로 제트전투기가 재래식 프롭(Prop) 전투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였다.

한편 극동공군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은 6월 27일 저녁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로부터 6월 28일 다찌가와(立川)기지에서 수원기지로 탄약 200톤을 공수하고, 7월 1일까지 매일 150톤씩을 공수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이 임무를 미 제5공군 예하 제374공수비행단에 부여하였다. 이 작전을 위해 미 제5공군에서

는 엄호전투기들을 배치하였다. 6월 28일 미 공군의 F-82전투기들이 11회에 걸쳐 출격하여 수원에 이착륙하는 수송기를 엄호하는 전투초계(Combat Patrol)를 실시하였다.

미 공군의 탄약수송 작전이 시작되자 북한 공군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었다. 28일 오후 1시 30분경 북한 YAK전투기 4대가 수원기지 상공에 출현하여 착륙 중이던 미 공군 B-26경폭격기와 제68전천후전투대대 소속 F-82전투기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피해를 주었다. 또 이날 저녁 6시 30분경에는 YAK전투기 6대가 2기 편대로 수원상공에 출현하여 미 제6공수대대와 제22공수대대의 C-54수송기들을 공격하였다. 6월 28일 하루 동안 북한군은 총 14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 제5공군 전술항공기 9대에 피해를 주었다.

6월 29일에도 북한 공군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이날 오전 8시경에 미 제19폭격전대 소속의 B-29중폭격기 8대가 김포기지와 서울역을 폭격할 때 북한의 YAK전투기 2대와 종류 미상의 전투기 1대가 공격해 왔으나 B-29폭격기의 사격수가 YAK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나머지 전투기를 연막으로 쫓아버렸다. 또한 이날 북한공군기가 수원비행장에 6회의 공습을 가하였으며, 그 중 한 번은 YAK기 6대가 출현한 적도 있었다. 이날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한국의 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원에 도착하여 상황보고를 받고 있을 때에도 북한의 YAK전투기 4대가 수원비행장을 공격하자 수원상공에서 전투초계 중인 F-51전투기들이 YAK전투기 4대를 격추시켰다.

6월 29일 맥아더 장군과 함께 전선시찰에 동행한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항공엄호는 공군력을 소모할 뿐이며, 38도선 이북의 북한 비행장 공격을 통해 적 공군력의 근원을 제거하여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 엄호 전력을 지상군 지원 등 다른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맥아더 장군에게 공세제공(Offensive Counter Air)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38도선 이북의 적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도 좋다고 극동공군사령관에게 구두로 승인하였다.

미 공군기의 북한 진입이 승인되자 미 제8전술정찰대대는 북한 내 모든 비행장에 대한 사진정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6월 29일 오후 늦게까지도 북한 지역 내 비행장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표에 대한 정보부족, 폭격에 필요한 제원부족에도 불구하고 미 제3폭격전대는 전쟁발발 이후 처음으로 38도선 이북의 평양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6월 29일 오후 4시 15분에 B-26경폭격기 18대를 일본 존슨(Jonson)기지에서 출격시켰다. 폭격기들은 평양비행장의 격납고와 활주로 등에 500파운드 폭탄 300발을 투하하여 적 항공기 25대와 무기고 등을 파괴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6월 30일 오키나와에 주둔한 제20공군의 B-29중폭격기를 출격시켜 원산비행장 폭격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이 한강철교 북안(北岸)에서 도강을 준비하던 대규모 북한 병력에 대한 폭격을 요청함에 따라 원산비행장 폭격 계획은 취소되었다.

결과 및 영향

전쟁 초기 미 극동공군은 급박한 전장 상황에 따라 수송기 엄호작전과 같은 방어제공(DCA)과 비행장 폭격과 같은 공세제공(OCA)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C-54수송기를 이용한 비전투원 소개작전은 수송기에 대한 엄호작전과 동시에 수행되어 6월 27일 하루 동안 김포 · 수원 · 부산기지를 통해 938명을 안전하게 소개시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미 공군은 수송기를 공격하기 위해 출현한 북한 공군의 YAK기 및 IL-10기와 공중전을 벌여 6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다찌가와(立川) 기지에서 수원기지로 탄약을 공수하는 작전과 이를 엄호하는 작전에서 미 극동공군은 적기 8대를 격추하고, 총 650톤의 탄약을 공수하였다. 또한 북한 공군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 단행된 평양비행장 폭격에서 미 극동공군은 적기 25대와 무기고를 폭파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미 공군의 평양비행장 폭격은 북한 수뇌부에게 전선 후방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 미 극동공군은 비전투원의 안전한 후방 소개와 지상군을 위한 탄약수송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전쟁 초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던 북한 공군의 기세를 크게 둔화시켜 이후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3, 2006.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한국 공군 F-51전투기 첫 출격

[韓國 空軍 F-51戰鬪機 첫 出擊, 1950. 7. 3.~11.]

개요

한국 공군비행단이 F-51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안양, 평택, 조치원, 문산 등지에서 북한군 병력을 살

상하고 전차, 차량, 연료집적소 등을 파괴한 공대지작전이다.

전개과정

김정렬 총참모장은 6월 25일 오전 북한군의 전차를 격파하고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무쵸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미 극동군사령부와 미 국무부에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관과 담당참모들은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로 6월 26일 오전 수원기지에 도착하여 전투기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10대의 F-51전투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정렬 총참모장은 이날(26일)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포함해 조종사 10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미 공군 C-47수송기 편으로 저녁 7시에 수원기지를 이륙해 9시에 일본 규슈(九州)에 위치한 이다즈케(板付)기지에 도착하여 미 제8전폭비행단의 제36전폭전대 훈련대에 배속되었다.

한편 미 제5공군은 6월 27일 한국 공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바우트-원(Bout-One)'이라는 한미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대구기지로 파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기상이 고르지 않은 가운데 지상교육을 계속하다가 6월 30일 오전에 정비가 끝난 F-51전투기가 도착하여 오후부터 한국 조종사들이 F-51전투기를 직접 조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상이 불순하여 이날은 일행 중 5명만이 30~60분 정도의 이착륙 및 공중조작을 하였을 뿐이었고, 나머지 5명도 7월 1일에 30~60분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

7월 1일 오후에 이근석 대령과 김영환 중령은 전황이 불리한 이때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만 받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 제36전폭전대장에게 귀국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이 미 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받아들여져 인수 조종사들은 7월 2일 오전 F-51전투기 10대를 조종하여 대구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이에 앞서 미 제5공군사령부는 6월 30일 한국 공군에 대한 지원과 조종사 훈련을 위하여 편성된 바우트-원 부대의 헤스(Dean E. Hess) 소령을 비롯한 미 공군 조종교관 9명을 대구로 이동시켰다.

대구기지에 도착한 이근석 대령 등 10명의 조종사들은 당시 북한군이 안양-시흥 부근에 이르는 등 전황이 긴박함에 따라 조종사의 전투훈련도 실시하지 못한 채 7월 3일 F-51전투기로 역사적인 첫 출격을 단행하였다. 이후 한국 공군의 F-51전투기들은 7월 11일까지 영등포, 시흥, 춘천, 원주, 수원, 문산, 이천, 평택, 천안, 오산, 조치원 등지로 총 61회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 180여명을 살상하고, 연료집적소 2개, 전차 3대, 차량 7대, 탄약저장소 1개소를 파괴하였다.

결과 및 영향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전투기의 도입이 시급했던 한국 공군 지휘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10대의 F-51전투기 도입은 한국 공군의 최초 전투기 운영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 전투과정에서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F-51전투기들은 북한군 전차 3대를 파괴하고 북한군 병력 18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얻었다. 또한 F-51전투기 도입과 함께 한국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에 파견된 미 공군 바우트-원 부대는 한국 조종사들의 기량제고와 전투경험 축적을 위해 미군 조종사가 편대장이 되고 한국 조종사들이 요기로 임무를 수행하는 편대구성으로 전환하여 이후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2],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미 제24사단 항공지원 작전

[美 第24師團 航空支援 作戰, 1950. 7. 1.~11.]

개요

미 제5공군 예하의 수송 · 전투 · 폭격기 부대들이 1950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미 지상군 최초 참전부대인 미 제24사단의 경부축선 지연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항공수송 및 근접항공지원 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6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이 미 지상군 참전을 재가하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7월 1일 제5공군에게 미 제24사단 병력의 한반도 공수를 지시하였다. 미 제24사단에서는 우선 사단본부와 보병 2개 대대를 한국에 공수하고, 나머지 병력을 후쿠오까(福岡)에서 선박을 통해 부산항으로 수송할 계획이었다.

미 제374공수비행단의 병력공수는 7월 2일 아침부터 시작되었는데, 수영비행장 활주로의 얇은 콘크리트 표면이 C-54수송기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에 미 제374공수비행단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C-54수송기보다 하

중이 가벼운 C-47수송기를 공수작전에 투입하여 7월 4일 해질 무렵에 미 제24사단 병력의 공수임무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미 제24사단은 이날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7월 1일 오후 부산에 공수된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 즉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트럭과 열차를 이용해 대전을 경유하여 북상하자 7월 3일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ost)이 항공지원을 위해 이들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7월 4일 수원을 점령하고, 다음날 평택, 천안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스미스특수임무부대는 7월 5일 수원 남방 14km 지점인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선두부대들과 첫 전투를 벌였으나 장비와 전력의 열세로 철수를 강요당했다.

오산 죽미령을 돌파한 북한군이 7월 6일 평택 부근까지 남진하자 미 제3폭격비행단의 B-26경폭격기 6대가 평택 북방에 집결한 북한군 전차와 차량들을 폭격하고, 이후 또 다른 B-26경폭격기 3대가 평택 북방의 북한군 차량집결지를 재차 공격하였다. 저고도에서 공격하던 경폭격기의 승무원 1명이 북한군의 대공포화로 사망하였으나 이 공격으로 북한군 전차 6~10대가 불타고 많은 차량과 마차, 대공포 등이 파괴되었다. 또한 미 제5공군 전술부대들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서울-평택 간 도로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며 목표를 색출하는 방식으로 북한군 차량 197대와 전차 44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7월 9일 미 제24사단이 천안을 포기했다는 보고를 접한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미 제24사단을 위협하는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최우선 임무로 하라는 긴급명령을 미 극동공군사령부에 하달하였다. 7월 10일 오후 늦게 F-80전투기 1개 편대가 평택 상공을 비행하던 중 구름사이로 파괴된 교량의 북단에 길게 늘어선 북한군 전차와 차량행렬을 발견하고 즉시 이다즈케(板付)기지에 보고하였다. 이들 북한군은 공주-논산 방면으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4사단 소속의 병력이었다. 미 제5공군은 이날 가동할 수 있는 F-80 · F-82 전투기와 B-26경폭격기를 모두 출격시켜 오후 8시경 북한군 이동 경로인 운궁리(공주 북방 14km) 지역을 강타하여 북한군 전차 38대와 차량 117대, 반궤도차량 7대 등을 파괴하고 다수의 병력을 살상하였다. 또한 이날 미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10대가 천안-수원 간 도로에서 이동 중인 북한군 기계화부대를 목표로 출격하였다. 그러나 전선에 있는 전술항공통제반과의 무선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격의 정확도가 떨어져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한편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7월 10일 북한군 제2사단이 안성-제천 축선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에게 미 지상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항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 제5공군에 적극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무렵 한국군

과 미 제24사단은 지연작전을 계속하면서 철수를 거듭하여 7월 11일 조치원과 공주의 금강 북안에 도달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중장은 미 제24사단에 대한 항공지원에 온 힘을 기울였다. 7월 11일 B-29중폭격기 8대가 미 제5공군 전술항공통제본부와 무선접촉을 유지하면서 원주, 진천, 평택 등지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결과 및 영향

미 제24사단의 신속한 한국 공수와 이후 미 제5공군 전폭기 부대의 북한군 병력 및 전차에 대한 공격은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크게 둔화시켰다. 7월 7일부터 4일 동안 미 제5공군의 집중적인 공중공격이 있은 후부터 북한군은 이동과 정지 간에 은닉과 위장전술, 모의(模擬) 기만전술을 사용하였고, 공습을 피해 주간에는 숨어 있다가 야음을 이용하여 행동하였다. 이것은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공습 위협을 회피하는 것이 북한군에게 전투 중 최우선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 공군의 제공권 장악은 북한군의 이동을 야간으로 제한시켜 그들의 남진 속도를 둔화시킨 반면에 아군에게는 전투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하여 보다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3, 2006.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북한군 전격전 저지작전

[北韓軍 電擊戰 沮止作戰, 1950. 7. 10.~24.]

개요

미 극동공군 예하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북한군의 급속한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 전선에 걸쳐 실시한 차단 및 근접항공지원 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7월 9일 미 제24사단의 천안 방어가 실패하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북한군 기갑부대를 지상군만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 미 극동공군 참모진의 건의를 반영하여 폭격기들을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적 후방에서 증원되는 북한군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된 폭격기들도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폭격전력 일부를 제외하고 극동공군 가용전력 대부분이 북한군 남진을 저지하는데 투입되었다. 미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전선에서 북한군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공격을 집중하라는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후방차단작전의 비중을 줄이고 지상군 지원을 위한 전선의 목표물 폭격에 집중하였다.

폭격사령부 소속 B-29중폭격기들은 7월 24일까지 서울에서 군산-포항에 이르는 지역의 교량 58개를 완전히 파괴하고 31개를 파손시켰으며, 북한군 전차와 보급차량의 전진도 제한하였다. 그중 특기할만한 것은 7월 11~12일 폭격사령부 소속의 B-29중폭격기 총 28대가 미 제24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5공군 전술항공통제본부와 무선접촉을 유지하면서 원주, 진천, 평택 등지의 북한군을 공격하고, 7월 13일에는 제22 · 92폭격전대 소속의 B-29중폭격기 55대가 원산지역의 정유공장, 철도조차장, 병력집결지 등을 공격한 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그리고 7월 14~15일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들이 청주 부근을 집중 폭격한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한편 미 제5공군 예하 전폭기들도 북한군의 남진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7월 중순부터 한국으로 전개하여 대구와 포항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제51전투비행대대와 제40전투요격대대의 F-51전투기들은 대전의 전술항공통제본부와 유선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공지원 요구 시 즉각 출격하였다. 특히 F-51전투기들은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네이팜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소련제 전차는 무한궤도에 양질의 고무가 붙어 있어 네이팜탄이 전차에 명중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져도 그 화염으로 쉽게 불붙어 파괴되었다. 또한 미 제5공군의 F-80전투기들은 충주, 조치원, 공주 등의 도로교차점과 철도 파괴를 위해 출격한 B-29중폭격기들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미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의 작전은 7월 16~17일에도 계속되었다. 7월 16일에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특별명령에 따라 F-80전투기들의 엄호 아래 폭격사령부 소속 제19 · 제2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47대가 서울 철도공작창과 철도차량, 병력집결지를 폭격하였고,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8대가 충주 지역의 북한군 병력집결지, 공주 부근의 도로교차점, 조치원의 조차장과 연료저장소 등을 폭격하였다. 7월 17일에는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6대가 제천 · 안성 · 원주철도조차장과 인근지역 교량 2개소를 파괴하였다.

이 무렵 금강 남안으로 도하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7월 17일 제4사단과 함께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들의 강력한 공격으로 유엔지상군의 방어선은 점차 남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조치원과 대전 사이의 금강을 따라 전차와 차량을 중점적으로 폭격하였다. 또한 중부전선의 북한군은 7월 18일 유엔지상군 통신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문경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또 다른 북한군은 단양-영주를 거쳐 예천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지점은 안동-함창 간 도로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략폭격이 주 임무인 B-29중폭격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목표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공격하는 것은 공군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를 비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극동공군 내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8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B-29중폭격기를 계속 지상군 근접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전력의 낭비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B-29중폭격기의 운용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월 19일 북한군 제6사단의 일부병력이 장항지역을 장악하였고, 이 지역에서 방어하던 한국군은 군산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이날 대전 공격을 앞두고 논산지역에 최대한의 병력을 집결시킴과 동시에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 등의 전열을 재정비하며 대전 공격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에 미 제5공군은 논산지역에 집결 중인 F-51전투기와 F-80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전 공격을 위해 집결하고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극동공군이 모든 항공역량을 전선에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새벽 북한군 제4사단은 대전 서쪽 방향에서, 제3사단은 북서쪽 방향에서, 제105전차사단은 북동쪽 및 북쪽에서 대전 공격을 개시하여 대전을 점령하였다. 이날 자정에 유엔지상군은 대전을 포기하고 대전 남동쪽으로 철수하였다. 같은 날 호남지역으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6사단이 온양과 장항을 경유하여 이리를 점령하였다. 미 제5공군은 이러한 북한군 움직임에 대해 7월 20일 F-51전투기 31대와 F-80전투기 79대를 출격시켜 서부와 중부전선의 국군과 미군을 지원하도록 했다.

북한군은 대전을 점령한 후 국군과 미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와해시키기 위한 제4차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공부대는 대전-김천-대구 방면으로 진출하고, 조공부대는 서부전선에서 마산-창녕-대구 방면으로,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함창-안동 일대에서 국군과 미군을 각개 격파한 후 서부전선에서 진출한 부대와 협동으로 영천-포항 선으로 진출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북한 해군에게는 해안방어강화와 국군과 미군의 상륙저지를 위해 기뢰를 해상에 부설하도록 하고, 미 극동공군 전술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주요 보

급수송로에 대공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북한군은 7월 22일 군산을 장악하여 서해안지역의 보급물자공급과 추가병력 증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미 제5공군은 7월 23일 풍기-안동 지역에서 북한군 제8 · 제12사단과 악전고투하고 있는 한국군 제8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F-80전투기 13대, F-51전투기 13대, B-26경폭격기 1대를 출격시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여 한국군 제8사단이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포항기지의 미 제40전투요격대대가 F-51전투기들을 매일 30~40회 출격시켜 한국군 제3사단을 근접항공지원 하였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공군 예하 제5공군과 1950년 7월 10일 창설된 폭격사령부는 북한군의 급속한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주력인 전차를 파괴하고, 북한군의 남진 경로로 이용될 수 있는 교량의 폭파, 이동 중이거나 집합 상태의 병력 살상 등과 같은 항공차단작전과 전투 중인 한국군과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에 가용 전력을 총동원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극동공군의 노력은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둔화시키고, 병력과 장비의 파괴를 통해 북한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이후 한국군과 미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2], 2005.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낙동강 방어작전시 후방차단작전

[洛東江 防禦作戰時 後方遮斷作戰, 1950. 8. 2.~9. 6.]

개요

극동공군의 폭격사령부와 제5공군, 극동 해군의 제77기동함대 함재기들이 1950년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북한군의 병력 · 장비 · 물자 · 탄약 등의 전선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철도 · 교량 · 수송차량 등을 파괴하고자 북위 39도선부터 낙동강선까지 세 구역(39도선~38도선, 38도선~서울, 서울~낙동강선)으로 분할하여 실시한 후방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낙동강 방어선 구축 이후 미 극동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은 예하 폭격사령부와 제5공군이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극동공군사령부는 정보 및 작전부서의 대표들로 구성된 표적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1950년 7월 27일까지 철도차단계획을 수립하여 7월 28일 폭격사령부에 하달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도로차단계획도 수립하였다. 이것은 극동공군이 6 · 25전쟁 발발 초기에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여 실시한 후방차단작전과는 달리 사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방차단작전 계획이었다.

폭격사령부에 하달된 차단작전 표적은 모두 44개였으며, 이중 13개가 남한지역에, 나머지 31개가 북한지역에 있었다. 폭격사령부는 표적목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8월 2일 표적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 표적, 2차 표적 및 예비표적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미 제5공군에는 8월 3일 극동공군사령관 명의로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차단표적과 함께 38도선 이남으로 진출하는 적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5공군사령관은 미 제8군의 낙동강 방어선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5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기의 3분의 1을 차단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작전지역이 겹치는 서울에서의 차단작전과 관련하여 제5공군사령관과 폭격사령관은 서울지역 표적차단을 위한 임무 분담 협의를 거쳐 폭격사령부 B-29기들이 서울의 철도조차장과 한강철교를, 제5공군 전술항공기들이 임시부교를 파괴하기로 합의하였다.

폭격사령관 오도넬(Emmett O'Donnell) 소장은 8월 2일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7함대사령관에게 동 · 서해안에서 15마일(24킬로미터) 이내의 교량차단과 서울의 한강철교와 인도교, 한강에 설치된 북한군 임시부교에 대한 차단작전을 제의하였다. 극동해군은 다음날인 8월 3일 공군과의 항공작전 통합조정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후방차단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해군 함재기의 임무우선순위를 첫째로는 합동작전본부 통제하의 근접지원, 둘째로는 제5공군과 협조 하에 38도선 이남의 차단작전수행, 셋째로는 폭격사령부와 협조 하에 38도선 이북 차단작전수행 등에 합의하였다.

맥아더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이때까지 극동공군의 후방차단작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8월 3일 저녁에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날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긴급 소환된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과 웨이랜드(Otto P. Weyland) 부사령관은 미 제8군으로부터 북한군의 열차와 트럭들이 전선으로 병참수송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맥아더 장군이 후방차단작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후방차단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중폭격기 3개 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폭격사령관은 서울조차장에 모이는 북한군의 보급품과 철도수송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8월 4일 제19폭격전대를, 8월 5일에 제22 · 제92폭격전대를 출격시켜 서울조차장을 폭격하였다. 폭격사령부는 이 두 차례의 폭격으로 서울의 수송시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폭격사령부에서는 8월 7일에도 제22 · 제92폭격전대와 미 본토에서 8월 2일 도착한 제98폭격전대를 출격시켜 평양 근교의 조병창과 철도조차장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극동에 추가로 도착한 제307폭격전대가 함흥조차장을, 8월 10일에는 제22 · 제92 · 제98폭격전대가 원산의 조차장과 정유소 등을 폭격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으로 북한 내 주요 교통 요충지에 집적된 대량의 보급물자를 파괴함으로써 폭격사령부는 요청된 주요 교량표적의 차단임무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고,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매일 B-29중폭격기 3개 전대를 교량차단임무에 투입하였다. B-29중폭격기 승무원들은 구름이 덮여서 교량 식별이 어려우면 2차 표적인 철도조차장을 폭격하였다. 그 결과 8월 중에 폭격사령부는 진남포 · 길주 · 고원 · 오노리 · 청진 · 신안주 · 사리원 · 천궁리 조차장에 비축된 병참물자와 철도차량을 파괴할 수 있었다.

폭격사령부에 부여된 교량표적은 거의가 일제강점기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축조된 것으로 파괴하기가 어려웠다. 1회 진입하여 1개의 폭탄으로 완전 파괴되는 교량도 있었으나 어떤 교량은 여러 개의 폭탄이 명중해야만 파괴되었다. 이와 같이 B-29중폭격기가 교량 한 곳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중복 진입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 13.3회의 진입을 요구하였다. B-29중폭격기 교량폭격에 주로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폭격기가 다른 무거운 폭탄을 적재하는 것보다 500파운드 폭탄을 적재하는 것이 총 적재량으로 볼 때 더 많이 적재할 수 있고, 평면 콘크리트 경간 파괴에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조교량을 파괴하는 데는 1,000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대형 폭탄이 필요하였다.

한편 극동공군이 8월 2일 마련한 차단작전계획은 북한군의 보급수송체계를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성된 것이었지만, 해군 함재기 조종사들은 8월 초 차단작전을 수행한 이후 교량표적 대부분이 징검다리이거나 오솔길에 놓인 나무다리여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해군 제77특별기동부대가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과 차단표적 공격에 불만을 표하자 조이(C. Turner Joy) 극동해군사령관은 8월 12일 항공모함을 서해로 이동시키고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북한 지역 내의 차단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폭격사령부에 부여된 교량표적 가운데 한강철교만큼 강한 교량은 없었다. 폭격기 승무

원들은 이 철교가 파괴되지 않고 완강히 버티고 있어 '오뚜기 철교'라는 별명을 붙였다. 당시 제19폭격전대만이 2,000파운드 폭탄을 적재할 수 있는 폭탄걸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철교 파괴임무를 부여 받아 약 4주 동안 매일 1,000파운드, 2,000파운드 및 4,000파운드 다목적 폭탄으로 철교를 폭격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았다.

8월 19일 폭격사령부 예하 제19폭격전대는 B-29중폭격기 9대를 출격시켜 한강철교에 1,000파운드 폭탄 54톤을 투하하였으나 파괴되지 않자, 미 해군 제77특별기동부대의 콜세어(Corsair)기와 스카이라이더(Sky raiders)기 37대가 이날 오후 3시경 항공모함 'Valley Forge'와 'Philippine Sea'호에서 출격하여 한강철교를 폭격하였다. 이들 함재기들은 경간 높이의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8번을 명중시켜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8월 20일 한강철교 폭격을 위해 제19폭격전대와 해군 제11항공전대가 폭격을 가하여 전날 공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간에 이어 세 번째 경간을 파괴함으로써 폭격사령부는 한강철교를 파괴했다는 보고를 맥아더 장군과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폭격사령부는 그동안 한강철교를 차단하기 위해 총 86회를 출격하여 643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8월 30일 부여받은 44개의 교량표적을 차단하였다고 초도보고 한 이후 9월 4일 제1차 차단작전 결과를 최종 판단하여 44개의 교량표적 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완전 파괴하였으며, 완파를 면한 7개의 교량도 심한 손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미 제5공군은 전선에 이르는 북한군 보급수송로상의 주요 교량 및 철교를 가능한 한 파괴함으로써 차단임무에 철저를 기하려 하였다. B-26경폭격기와 전폭기들은 서울 이남의 철도망을 계속 폭격하였는데, 8월에만 서울-대전 간 경부선상의 9개 지점을 포함하여 지선 등 모두 47개소를 차단하였다. 또한 제5공군은 B-29중폭격기와 해군 함재기가 이미 파괴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8월 말 기준 서울과 전선 사이에 있는 교량 147개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로 낙동강방어선 주변의 차량 통행용 교량 93개소가 파괴되었다고 집계하였다.

북한군은 야간이 되면 한강에 부교를 가설하고 보급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고 있어 미 제5공군은 이 부교를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군이 낮에는 유엔공군의 항공공격을 피해 부교를 은닉하기 때문에 제3폭격전대의 B-26경폭격기로 야간폭격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이 부교가 가연성 물질로 되어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네이팜탄 사용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네이팜탄을 사용해본 결과 부교는 불에 타지 않았다. 그 후 항공사진 판독요원들은 이 부

교가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부분적으로 경간(Ramp)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B-29조명기가 8월 30일 새벽에 서울 상공에서 조명탄을 투하하여 주위를 밝히는 동안 B-26경폭격기 8대가 부교 파괴를 위한 폭격을 시도하였으나, 북한군이 이미 부교를 철수한 후였다. 제5공군이 부교 파괴에 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에게 지연신관폭탄을 부교가 놓인 곳에 투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전술로 북한군이 방해를 받았으나 한강도하를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제5공군은 서울 이남의 철교와 교량에 대한 폭격으로 전차, 야포 등 중장비를 보충하려는 적의 기도를 방해하였으나, 교량파괴로는 부분적인 성과밖에는 없었다. 남한에는 지형 장애물이 너무 빈약했으며 작은 하천은 너무 얕아서 차량이나 짐꾼이 쉽게 건널 수 있었다.

북한군은 어떤 하천의 도하가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교량을 유지하는 데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공군이 교량을 파괴하면 북한군은 수송을 신속하게하기 위해 파괴된 다리를 모래주머니와 각목으로 떠받쳐 놓고 소련의 기술을 모방하여 수중교량을 가설하였다. 실제로 적은 왜관 근처에 약 2,500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징발하여 700개의 침목(枕木)과 2,800개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길이 160m, 폭 5m의 수중교 3개를 가설하였으며, 이 수중교는 수면 약 25cm 아래에 있어 공중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미 제5공군 장교들은 적이 파괴된 짧은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솜씨에 놀랐는데, 파괴된 철교나 절단된 철로 앞에서 노동자를 동원하여 화차에 실려 있는 보급품을 내려놓은 다음 맞은편에서 대기 중인 화차에 옮겨 실었으며, 낮에는 유엔공군의 항공공격을 피해 기관차와 화차를 터널 안에 숨겼다가 밤에만 운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군은 서울-전의 간 철도를 이용하여 보급물자를 수송하고 있었다. 유엔공군이 적의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교량을 파괴해도 계속 보급품 수송이 이루어지자 미 제5공군사령관은 철저한 무장정찰을 통하여 이를 소탕하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관은 F-5전투기에게 근접지원작전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북한군 보급수송망 공격임무에 대해서는 F-80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F-80전투기는 소화기 및 자동화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빠른 속도 때문에 대응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집결지를 공격할 수 있어 무장정찰임무에 적합하였다.

북한군은 항상 야간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병력과 장비를 위장 · 분산해 놓았으나 8월 초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위장도 자주 발견되었다. 미 제5공군 조종사들은 위장된 표적을 샅샅이 탐색하여 공격하였다. 제67전폭대대 대대장 세빌레(Louis J. Sebille) 소령은 8월 5일 F-51전투기 편대를 지휘하여 함창 부근 제방에 숨어있는 적 병력과 야포를 공

격하였다. 첫 번째 공격에서 세빌레 소령은 500파운드 폭탄 2발 중 1발이 투하장치 고장으로 투하할 수 없어 표적상공을 한 바퀴 선회비행 후 다른 F-51전투기와 함께 기총공격을 가하였다. 이때 적의 대공포화로 세빌레 소령이 피격되었는데, 그는 대구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다시 표적을 향하여 6문의 50mm 기관포를 발사하다가 끝내 적진에 추락하여 전사하였다.

극동공군은 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모든 조종사들은 비행 중 적의 이동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무장 정찰기를 호출하여 가장 먼저 응답한 무장 정찰기에게 표적의 위치를 알려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8월 25일 평양 동쪽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 지역 비행장을 공격하고 귀환 중이던 전투기 편대는 마침 터널로 대피하고 있는 열차를 발견하고, 이들 중 1대가 왼쪽 날개에 남겨두었던 네이팜탄으로 공격하여 터널 입구를 차단함과 동시에 급히 무장 정찰기를 호출하였다. 표적상공에 도착한 무장 정찰기는 기관차 2대가 끌고 있는 열차를 공격하여 기관차는 물론 전차 12대를 실은 무개화차 12량과 유개화차 13량을 파괴하였다.

미 제5공군은 9월 초에도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전투기 편대가 안동 북쪽 13km 지점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적의 트럭 1대를 발견하고 네이팜탄으로 공격하는 한편, 명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하하면서 터널 반대쪽에는 소이탄으로 공격하였다. 이 전투기 편대는 귀환 후 적의 트럭 1대를 파괴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진격 중인 유엔지상군 정찰대는 이 터널 안에서 북한군의 많은 장비가 불에 타버린 채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정찰대는 어림잡아 북한군 1개 포병대대와 1개 중박격포중대 규모의 장비에 해당하는 76mm 야포 10문, 120mm 박격포 8문, 트럭 5대 및 지프 4대가 파괴되었고, 네이팜탄의 화염으로 많은 적병이 살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미 제5공군 무장정찰기의 공격으로 적은 야간에만 파괴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급품을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기상정찰기 조종사로부터 밤중에 적의 트럭수송대가 라이트를 켠 채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제5공군에게는 야간공격기가 없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8월 8일 제5공군사령관에게 B-26경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매일 밤 50회 이상 출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제5공군은 야간공격작전을 위해 지난 7월 이래로 제68전천후전투기대대 F-82전투기 3대를 야간공격편대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F-82전투기가 북한 비행장이나 시가(市街)와 같은 잘 알려진 고정표적을 공격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야간공격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F-80전투기는 이미 야간공격임무에 투입하고 있지만 제트기의 속도로는 달이 밝은 밤일지라도 표적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망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51전투기도 야간에 표

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로켓과 기총공격 시 발생되는 섬광(閃光)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비행안전이 우려되었다. 제5공군사령관은 주간작전을 줄이면서까지 야간출격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으나 제3폭격전대 전력의 절반을 야간작전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미 제5공군은 7월 말 제3폭격전대 B-26경폭격기 몇 대를 야간에 시범적으로 운용하였다. 경폭격기에는 레이더고도계, 단거리항법레이더(Shoran) 및 AN/APQ-13 맹목폭격조준레이더 등이 장착되어 있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용해 본 결과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B-26경폭격기 승무원은 북한 수송대의 불빛을 볼 수 있으며, 폭격기가 표적에 접근할 때 수송차량들이 라이트를 소등하더라도 폭격기 승무원들은 수송대의 위치를 식별하고 제대로 공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3폭격전대의 제8 · 제13폭격대대는 1주일씩 교대로 야간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천후전투기대대와 경폭격기대대가 야간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제5공군은 8월 동안 매일 평균 35회의 야간출격기록을 유지하였다. 야간작전에 투입된 항공기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북한군 수송대를 위협하여 라이트를 켜지 못하게 하여 전선의 전투부대에 재보급을 방해하거나 차단시키는 것이었다. 야간작전을 수행하는 B-26경폭격기들이 8월 말부터 160파운드 파열폭탄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군 수송대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유엔공군의 야간작전 수행으로 북한군 수송대는 전선으로의 재보급이 늦어지게 되었고, 주간에 항공공격으로 시달린 북한군은 야간의 항공공격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딘(William F. Dean) 소장은 북한군 호송병들에 의해 북으로 가는 동안 야간에 항공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호송병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피신하였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야간작전 수행 중인 항공기가 북한군을 강력하게 공격한 적도 있었다. 8월 30일 밤 서울 북쪽의 철도조차장을 정찰하던 제68전천후전투기대대의 F-82전투기 편대가 기관차 3대와 많은 화차를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그러나 유엔공군의 강력한 항공공격으로 북한군 수송대의 주간 이동 봉쇄와 야간에 이동 속도를 둔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다.

결과 및 영향

6 · 25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된 극동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은 북한군의 보급에 지연과 결핍이라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첫 번째는 수송지연으로 인한 전선으로의 물자 이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간에는

유엔공군의 공격으로 이동이 불가하였고, 야간에도 제한적인 이동만이 허용되어 수송 속도는 1일 32~48km로 제한되었다. 실제로 철도 수송은 평양에서 영주까지는 1개월, 사리원에서 풍기까지는 2주가 소요되었다.

이러한 수송지연의 문제와 함께 수송 도중 항공공격으로 인한 손실은 탄약과 연료를 제외한 보급품 전반에서 50%를 상회하였고, 이로 인해 전선지역 북한군 1개 사단에 지급되는 1일 보급량이 7월 중순(18톤) 대비 8월 중순에는 식량은 50%(9톤), 9월 중순에는 14%(2.5톤)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투를 수행 중인 북한군에게 빈곤과 결핍으로 인한 심각한 사기저하 요인이 되었고, 사단장이 부대를 지휘 할 수 없는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유엔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이 북한군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인해 야간 이동의 완벽한 차단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유엔공군은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전선과 후방을 분리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차후 진행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낙동강 방어선 근접항공지원 작전

[洛東江 防禦線 近接航空支援 作戰, 1950. 8. 5.~9. 12.]

개요

미 극동공군 예하 폭격사령부 및 제5공군, 극동 해군 항모 함재기들이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된 국군과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 전 지역에서 수행한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이다.

전개과정

1950년 7월 20일 이후부터 유엔공군이 실질적인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유엔지상군은 두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공중 위협에 대한 위장이나 은폐를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부대를 이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동성과, 두 번째는 미 육군이 어떤 시기에도 받아보지 못한 많은 근접항공지원을 극동공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

다. 국군과 유엔지상군은 8월 중에 극동공군으로부터 7,397회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루 평균 238회의 근접지원을 받은 셈이다.

한편 이 무렵 미 제25사단장의 이름을 딴 킨(Kean) 특수임무부대가 경상남도 진주 동쪽에서 북한군 제6사단에 반격을 가하면서 지상전투가 격화되었다. 미 제5연대전투단과 해병 제1여단은 미 본토와 하와이에서 도착한 후 처음 겪는 격렬한 전투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포병지원의 부족을 극동공군, 해군 및 해병대의 강력한 항공지원으로 충당하면서 8월 7일 공격을 개시하여 8월 11일 진주 동쪽의 전략고지를 탈환하였다. 적시에 이루어진 이 역습으로 북한군 제6사단은 부산에 이르는 서부접근로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다.

진주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군 전투사령부는 한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대구 전면의 방어선에 대해 대공세를 펴기로 결정하였다. 북한군의 움직임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기간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왜관 근교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왜관 부근에 수중교량을 가설하여 교각을 세우는 한편 전차의 투입과 더불어 2개 이상의 사단을 종심배치하고 있었다.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소장은 북한군의 거점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였고, B-26경폭격기들은 야간에 중장비를 가지고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총공격이 예상되는 8월 15일 미 제5공군 전술항공기들은 미 제1기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새벽에 출격하여 북한군 전차 2대를 로켓으로 파괴하는 한편, 약 300명을 기총으로 살상하였다. 또한 대구 북방 15마일 지점에서 한국군 제1사단을 지원하여 방어선을 뚫고 침투하는 북한군을 타격하였다. 날이 저문 후에 미 제5공군사령관은 북한군의 공세가 더 이상 확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타전하였다.

8월 16일에는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로 북한군 집결지역에 대한 폭격사령부의 '융단폭격'이 실시되었다. 이 폭격은 8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낙동강 상공의 짙은 구름으로 인해 다음날로 연기 된 것이었다. 미 제8군이 요청한 표적지역은 낙동강에 연한 왜관 서북쪽 길이 7.5마일, 폭 3.5마일의 좁고 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 등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융단폭격에 투입 가능한 전력은 B-29중폭격기 2개 전대와 다른 3개 전대에서 차출한 6개 대대였다. 미 공군 폭격사령관 오도넬(Emmett O' Donnell) 소장은 이들 12개 대대 전력으로 27평방마일에 달하는 표적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융단폭격'은 적에게 심리적 효과에 불과할지라도 그런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폭격사령부 작전계획장교들은 27평방마일의 표적지역을 1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별로 폭격조준점을 설정하여 각 대대

에 한 구역씩 배당하였다. 모든 폭격기 승무원은 낙동강 동안에 배치된 유엔지상군에게 오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받았다.

8월 16일 폭격사령부의 선도 1개 대대가 11시 58분 왜관 상공에 도착하면서 '융단폭격'을 시작하였으며, 차례대로 B-29중폭격기 98대가 약 30분 동안 표적지역을 폭격하였다. 이들 폭격기는 5,000~1만 피트 상공에서 500파운드 다목적폭탄 3,084발과 1,000파운드 다목적폭탄 150발을 투하하였다. 이때 제307폭격전대만이 북한군의 경미한 대공포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표적지역에서 자유롭게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융단폭격은 지상군에 대한 직접지원으로써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래 최대의 공군력을 투입한 것으로, 투하된 폭탄의 위력은 야포의 중(重)포탄 3만발과 비슷한 파괴 효과를 가졌다.

왜관 지역 융단폭격 작전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 제8군의 수색대가 폭격지역에 대한 정찰을 할 수 없어 확인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폭격이 끝난 후 정찰기가 촬영해온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폭탄의 일부가 빗나가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폭격성과가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폭격사령관은 전세가 극히 위태로운 지역의 밀집된 표적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집중공격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건의하였다.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왜관 융단폭격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장차 B-29 중폭격기의 폭격 표적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맥아더 장군에게 건의하였다. 즉 북한군이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수단으로 B-29 중폭격기를 동원하는 방안과, 유엔군이 북한군 점령지역을 침투 · 돌파해야 할 경우 일정지역을 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B-29중폭격기는 북한 산업시설 파괴와 차단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제77특별기동대는 제8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전지역을 남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미 제8군 정보부는 북한군 주공이 왜관으로부터 대구를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군위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8월 18일 한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이 돌파되었다. 미 제5공군사령관은 대구 북쪽 12마일 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제5공군 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합동작전본부는 8월 20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군위-대구 회랑을 축으로 하는 북한군의 공격은 유엔지상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일본에서 출격한 미 제5공군 소속 F-51전투기들은 1차 공격이 끝나면 대구기지에 착륙하여 재급유와 무장을 한 다음 다시 출격하였다. 유엔공군의 강력한 항공지원으로

한국군은 방어선을 고수할 수 있었고, 제8군사령관은 진주 전선에서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빼내어 한국군을 지원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철저한 방어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8월 19일 대구가 북한군에게 함락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활동은 변함없이 활발하였으나 8월 중에 더 이상의 큰 공세는 취하지 못하였고 피아간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유엔지상군이 북한군 점령지에 반격해 들어갈 때 근접항공지원의 효과가 드러났다. 8월 26일 한국군 제27연대가 기계 부근까지 북한군을 격퇴하였는데, 그 곳에서 항공공격으로 몰살된 북한군 시체 600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미 제5공군 소속의 F-51전투기들이 8월 30일 포항 서북쪽 지역을 공격한 후, 그곳에 진출한 한국군은 북한군 시체 약 700구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근접항공지원작전의 성과를 지상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선이 비교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미 제5공군은 8월부터 며칠 동안 6 · 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근접항공지원작전보다 수송차단작전에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였다. 8월 말이 되자 북한군은 최후의 대규모병력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31일 자정 낙동강 교두보의 서남부로부터 5개 사단을 투입하여 미 제25사단과 미 제2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9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관련 회의에서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극동공군이 보유한 B-29중폭격기를 비롯한 모든 보유전력을 동원하여 미 제8군을 지원할 것과 극동해군 제77기동함대 항공전력도 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5공군 전술기들이 9월 1일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 방어지역에 167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는데, 그중에서 진주 남강 남쪽에서 전투 중인 미 제25사단에게만 108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 극동해군의 제77특별기동함대 함재기가 전투지역에 도착하자 합동작전본부는 미 제2사단을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날 제77특별기동함대의 함재기들은 85회를 출격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교두보 주변에 압박을 가하면서 9월 2일에도 공세를 계속하였다. 서남부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 제25사단은 반격에 성공하였고, 미 제2사단은 낙동강을 도강하여 영산을 장악하려는 북한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날 전투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5공군은 공군 전력과 예속된 해병 비행대대를 활용하여 미 제2사단에 201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폭격사령부 소속 제307폭격전대 B-29중폭격기 25대가 500파운드 폭탄 863개를 투하하여 김천, 고창, 진주의

북한군 보급소를 파괴하였다.

극동해군 제77특별기동함대는 9월 1일 저녁 합동작전본부에 해군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임무를 미 극동공군과 합동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한편, 미 제2사단 지역의 모스키토 공중통제기와 협조하기 위해 제77특별기동함대에 해군 공중통제관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동작전을 통해 제77특별기동함대의 함재기들은 9월 2일 127회의 근접항공지원을 미 제2사단에 제공하였다.

미 제5공군 전술기들은 9월 3일 미 제2사단과 미 해병 제1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249회를 출격하였고, 폭격사령부는 B-29중폭격기 35대를 투입하여 전선 배후의 9개 촌락에 집결된 북한군 병력과 장비 등을 폭격하였다. 이 때 미 해병 제1여단은 북한군의 영산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선에 투입된 직후였다. 북한군은 낙동강 서쪽의 여러 곳에서 도강하여 미 제8군의 방어선을 영산까지 밀어냈다. 미 제5공군의 전술기와 극동해군 함재기들은 9월 4일 미 제2사단 지역에 43회의 근접항공지원을 감행하여 영산 공격을 선도하는 북한군 전차 11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쏟아진 폭우는 항공작전에 지장을 주었지만 오히려 낙동강을 격류로 만들어 북한군의 도강기도를 무산시켰다. 다음날 미 제2사단은 전투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 해병 제1여단을 구출하게 되었고, 이후 미 해병 제1여단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남서부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 제8군 방어선 북부에 강력한 공세를 펼쳤다. 왜관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 2개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한국군 제1사단을 대구 7마일 지점까지 내몰았으며, 기계 쪽에서도 북한군 2개 사단이 한국군을 영천과 경주까지 밀어붙였다. 또한 동부에서는 재편성된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을 다시 장악하였다.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미 제5공군사령관과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이 9월 4일 전망한대로 북한군은 교두보 북쪽을 지탱하고 있는 철도지선과 도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경주와 영천을 돌파함으로써 대구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였다. 워커 사령관은 주요 참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부산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미 제5공군도 대구의 병력을 감축하여 최소한의 참모만을 남기고 철수시켰다.

9월 4일 동이 트자 대구 동부의 한국군 사단들은 미 제5공군으로부터 대량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았다. 이날 미 제5공군은 160회를 출격하였으며, 9월 5일에는 비행이 어려운 기상임에도 51회나 출격하였다. 그리고 9월 6일에도 183회의 근접항공지원을 하였다. 미 제5공군 전술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에 고무된 한국군 사단들은 전세를 만회하고 반격에 나섰다.

미 제5공군은 9월 10일 북한군 전차 10대, 차량 19대, 보급품집적소 3개소, 포대 4개소를 파괴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전차 7대, 차량 22대, 포대 17개소와 기타 전술표적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날 극동공군은 총 683회를 출격하여 전쟁 발발 이래 가장 많은 출격회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 제5공군은 유엔지상군 근접항공지원에 307회 출격하였다. 북한군의 공세는 9월 12일을 기해 종료되었다.

결과 및 영향

1950년 8월부터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한 상태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공군과 미 극동해군 항공세력은 합동으로 가용전력의 최대치를 지상군 지원을 위한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할당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이후 반격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한국 공군비행단의 낙동강전선 항공지원 작전

[韓國 空軍飛行團 洛東江戰線 航空支援 作戰, 1950. 8. 15.~9. 22.]

개요

한국 공군비행단(미 제6146기지부대 포함)이 진해기지 주둔 기간인 1950년 8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미 제25사단의 낙동강 서남부지역 방어전투와 한국 해병대의 통영탈환작전을 지원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이다.

전개과정

미 제25사단 낙동강 방어전투 지원

북한 김일성은 8월 2일 전선 시찰 차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있던 수안보를 방문하여 "우리는 미제 침략자를 모두 남해 바다에 쳐 넣고 조국 땅을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라며 전쟁을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한다는 목표 아

래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전투 지침에 따라 북한군 제6사단은 8월 10일부터 진동리 및 마산지구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한 후 병력과 장비를 보충 받아 8월 13일부터 미 제25사단 정면(마산 방면)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로 서북산(西北山), 전투산(戰鬪山), 필봉(筆峰)에서는 피아간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당시 한국 공군비행단은 1950년 7월 2일 F-51전투기 도입 이후 7월 4일 안양 전투에서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이 피탄 되어 전사하자, 조종사의 손실을 방지하고 전투력을 제고시키고자 모든 작전을 중지한 채 진해기지로 이동하여 조종사들에 대한 F-51전투기 전환 및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미 제25사단이 전격적으로 항공지원을 요청하자 8월 14일부로 훈련을 중지하고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조종사들과 함께 편조를 이루어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미 제25사단은 전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어서 하루에 6차례의 항공지원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 무렵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는 진해기지에 약 60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한국 공군비행단의 조종사 훈련 등 각종 군사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미 제25사단의 항공지원 요청을 받자 헤스(Dean H. Hess) 소령은 8월 13일 제6146기지부대 미 조종사들을 동원하여 남해 송문리 지역과 함안 지역으로 F-51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건물, 이동차량, 기관포 진지를 공격하여 파괴하였고, 8월 15일 부터는 한국 공군비행단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정영진 대위, 이상수 중위, 장동출 중위, 김성룡 중위 등 F-51전투기 조종사들도 유엔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을 개시하였다. 15일 전투작전에 돌입한 한국 공군비행단은 전투조종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T-6기 기종에서 선발된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김해기지에서 F-51 기종 전환훈련을 위해 F-51전투기 3대를 배정하고, 진해기지에서 나머지 6대로 지상군 지원 및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 공군비행단은 미 공군 F-51조종사들과 함께 주로 낙동강 방어선 후방에 있는 적 병력과 보급품집적소 등을 공격하였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하동, 광양, 함양, 순천, 통영, 장성 등을 공격하여 북한군 차량 5대, 야포진지 5개소를 파괴하고 병력 70여 명을 살상하였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영동, 옥천, 김천, 상주 등 주로 경부축선 지역에 출격하여 북한군 전차 9대, 차량 4대, 건물 5개동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에는 군산, 이리, 목포 방면에서 적 해안방어진지 5개소와 차량 4대를 파괴하고 적병 20여 명을 살상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거창과 진주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왜관, 김천, 선산, 청송, 안동 등지의 국군 제2군단 지역으로 출격하여 적의 보급차량 32대, 보급품집적소 2개소, 연료 창고 2개소, 전차 7대 등을 파괴하고, 북한군 70여 명을 살상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8월 31일 저녁 9시를 기해 함안과 부곡리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

하여 다음날 새벽에 낙동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어 북한군 제2군단이 포병사격과 함께 9월 2일 오후 6시에 미 제1기병사단과 한국군 제1 · 제6사단의 방어선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군비행단은 주로 북한군 후방에서 병참수송을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F-51전투기 편대가 9월 2일 의성, 함창, 상주 등의 지역에 출격하여 차량 18대, 보급품집적소 1개소 등을 파괴하고 적병 20여 명을 살상하였다. 9월 4일에는 무주와 대전 지역, 5일에는 논산, 6일에는 공주, 10일에는 청주와 온양, 11일에는 김천 등지로 출격하여 북한군의 차량, 보급품집적소 및 병력 등을 공격하였다. 9월 10일 오전 11시에는 장동출 중위, 이상수 중위, 윌슨(Harold Wilson) 대위가 청주지역으로 출격하기 위해 진해기지를 이륙하던 중 장동출 중위가 활주로를 이탈하여 진해 앞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나머지 편대원들이 청주지역으로 출격하여 건물 3동과 차량 6대 등을 파괴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김정렬 총참모장은 한국공군 F-51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진해기지에서의 출격을 중지하고 김해기지에서 출격하도록 명령하였다.

9월 15일 시작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는 한국 공군비행단은 북진하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F-51 전력을 대구기지로 전개하여 출격을 계속하였고, 9월 21일 대구기지를 이륙한 F-51전투기 4기 편대가 영천과 의성 간을 비행하던 중 화성동 근처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적 화물열차에 로켓탄과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한국 해병대 통영탈환작전 지원

북한군 제7사단 일부 병력이 점령하고 있는 통영을 탈환하기 위한 한국 공군비행단과 해병대의 합동작전이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북한군은 통영반도와 거제도를 점령한 후 주요 해상보급로인 마산과 부산 간의 해로를 차단하고, 진해를 위협하는 동시에 부산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이 8월 16일 마산 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면서 제7사단 병력 370여 명을 우회시켜 8월 17일 통영 시내에 진입하였다.

8월 16일 자정에 진해기지를 방문한 해군통제부 사령관 김성삼 대령은 8월 17일 전개할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공군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군비행단은 7.7mm 기관포 2문을 장착한 T-6기를 주축으로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해병대는 통영상륙을 위해 통영 동북쪽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공군비행단 신유협 소령은 8월 17일 T-6기 후방석에 김성삼 대령을 탑승시켜 해병대의 상륙지점을 정찰하였고, 다른 T-6 4기 편대는 오후 2시에 고성과 통영 일대를 정찰하였다. 이때 정찰기 편대는 야포를 앞세워 통영으로 진입하는 적을 발견하고 즉시 진해기지와 해군통제부에 연락하였다. 비행단은 F-51전투기 3기 편대를 출격시켜 T-6기 유도 아래 통영으로 진입하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갑작스런 항공공격에 혼비백산하여 망일봉(望日峯)과 남일봉(南日峯) 방면으로 후퇴하였으며, T-6기 편대는 퇴각하는 적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잔여 병력은 인근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공군의 항공지원을 받은 해병대는 8월 17일 오후 6시부터 통영에 상륙한 다음, 다음날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여 통영 시내를 탈환하였다. 통영 시내 탈환작전에 성공한 해병대는 8월 18일 오전 11시 북한군 후속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고성에서 통영으로 통하는 원문고개에 일부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주력부대는 동북쪽 고지를 공격하여 피아간에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이날 정호 12시에 해병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내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하였으며, 공군은 T-6기 4기 편대와 F-51전투기 3기 편대를 투입하여 북한군 주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큰 손상을 입은 북한군은 오후 2시 경에 서북방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날 T-6기 편대는 통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천비행장을 중심으로 마산, 진동리, 고성, 삼천포, 진주 등지에 있는 북한군 지원부대와 보급로 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삼천포 상공에서는 북한군이 4척의 범선에 보급품을 만재하고 통영 방면으로 항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격침시켰다.

비행단은 8월 19일 원문고개의 해병대 진지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T-6기 편대를 오전 9시 20분에 출격시켰다. T-6기 편대는 원문고개 서북방의 적진을 공격한 후 F-51전투기 지원을 요청하여 포병진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해병대는 통영시내 잔당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주변의 전술고지를 점령한 다음 원문고개 방어에 주력하였으나 북한군은 8월 20일 새벽에 다시 원문고개 남방 해안선을 따라 해병대 진지에 침투함으로써 양측 간 격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T-6기 편대가 출격하여 북한군 주력부대를 공격하는 등 해병대를 지원하여 북한군을 격멸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T-6기 편대는 선무공작의 일환으로 수천 매의 전단을 살포하여 북한군 다수가 귀순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통영상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최초의 해 · 공 · 해병대 간의 합동작전이었으며, 이 작전에서 적병 400여 명을 살상하고 북한군 야포 10문과 차량 5대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비행단(미 제6146기지부대 포함)은 미 제25사단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1950년 8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하면서 총 93소티를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 262명, 전차 24대, 차량 87대, 건물 및 교량 25개소, 보급품 및 연료 집적소 8개소, 포진지 및 조차장 12개소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미 제25사단은 북한군 제6사단의 방어선 낙동강방어선 돌파를 저지함은 물론, 이후 반격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한국 해병대의 통영탈환작전을 통해서는 북한군 병력 400여 명을 살상하고 야포 10문 등을 파괴하여 통영 탈환을 이끌었다. 그 결과 한국 해병대는 통영을 점령한 후 거제도까지 점령하여 마산과 부산 간 해상교통로를 차단해 국군과 유엔군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 제7사단의 작전기도를 좌절시켰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제1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인천상륙작전 항공지원

[仁川上陸作戰 航空支援, 1950. 9. 9.~30.]

개요

미 극동공군 예하 제5공군, 폭격사령부, 전투공수사령부가 1950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상륙작전의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한 항공정찰, 후방차단전, 공세제공(비행장 폭격), 공수지원 등의 작전이다.

전개과정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일인 9월 15일이 다가오자 극동공군 사령부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작전 소요가 발생하였다. 그 첫 번째 임무는 인천과 서울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형정보와 북한군 활동 상태를 일본 고베(神戶)에 위치한 인천상륙작전 수송부대인 제7합동기동함대사령부에 제공해야 하는 임무였다. 이를 위해 8월 하순과 9월 초순 수 주일간 극동공군 예하 제8전술정찰비행대대 소속 RF-80정찰기는 일일 4차례에 걸쳐 시차를 두고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주기적으로 저고

도 항공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항공사진은 촬영 후 2일 이내에 제7합동기동함대사령부에 전달되었고, 이는 북한군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륙부대 요원들이 상륙 지역에 대한 지형과 시설물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 하루 평균 2,100여 장의 항공사각사진을 지원하였다.

두 번째 임무는 38도선 이북에서의 북한군 전력 증원과 보급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후방차단 작전이었다. 이를 위해 폭격사령부는 서울 북쪽 철도를 절단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여 매일 1개 규모의 폭격전대를 철도조차장 공격에 투입하고 잔여 2개 전대는 철도차단에 투입하였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폭격사령부 B-29폭격기들은 서울-원산-평양을 연결하는 삼각형 지역 내의 철도와 교량,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출격하였고 인천으로 연결되는 46곳의 철도를 절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9월 13일 60대의 B-29폭격기들이 안주와 흥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위치에 있는 철도조차장을 폭격하여 파괴하였다.

세 번째 임무는 상륙작전 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 공군기 소탕을 위해 제5공군에게 부여된 북한 공군비행장 공격작전이었다. 이를 위해 제5공군 소속 전폭기들은 북한비행장에 대한 무장정찰을 통해 지상에 계류된 항공기를 찾아 공격하는 작전을 세워 9월 11일 신막비행장에서 YAK기 1대와 기종 미상 항공기 1대를 파괴하였고, 9월 12일 평양비행장에서 YAK기 3대를 완파하고 1대를 파손시켰다. 제5공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북한 공군비행장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여 북한공군 전투기의 이륙을 제한하였다.

제5공군은 9월 7일 제18전폭비행단을 부산 수영비행장으로 이동시켜 낙동강 방어선의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태풍 케지아(Kezia)가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어 일본에 주둔해 있던 모든 항공기들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9월 13일과 14일에도 대구로 이동 전개하여 지상군에 대한 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네 번째 임무는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하자 보급품 수송이 절실하게 되었는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화물선의 입항이 하루 6시간으로 한정됨에 따라 인천항의 일일 화물 하역 능력은 최대 6,000톤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기에 의한 긴급한 수송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 제10군단장은 미 공군 전투공수사령부에 공수지원을 요청하였고, 전투공수사령부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9월 18부터 9월 24일까지 주로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비행단 지원을 위해 1,445톤의 탄약과 유류를 공수하였다.

9월 19일 전투공수사령부 소속 C-54수송기 8대, C-119수송기 23대가 야간 조명장비와 수송기에서 화물 하역과 탑재를 담당할 미 공군 제1전투지원부대 병력 280명을 태우고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9월 20일에는 226톤의 화물을 일본으로부터 김포로 공수하였는데 화물 중에는 인천항을 통해 공급받기 어려운 미 해병 제33항공전대의 항공연료와 항공 탄약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들 수송기들은 일본으로 귀환 시에는 전투 중에 부상당한 병력을 후송하는 임무도 담당하였다.

인천항으로부터 작전지역이 점점 멀어지자 미 제10군단에 대한 공중보급지원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9월 21일에는 C-119수송기 9대가 지상탄약과 전투식량을 작전지역에 공중투하 하였고, 9월 24일에는 C-54수송기 8대가 65톤의 탄약과 전투식량을 수원비행장으로 공수하였다. 또한 미 제10군단장의 요청에 의해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병력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포기지로 공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공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상륙작전 상륙군인 미 제10군단의 안전한 상륙과 작전 성공을 위해 인천상륙작전 시행일인 9월 15일을 전후하여 제5공군, 폭격사령부, 전투공수사령부가 총동원되어 정찰, 후방차단, 근접지원, 공수지원, 북한 공군비행장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였고, 상륙작전 이후 미 제10군단의 작전선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긴급한 물자와 병력 공수작전을 통해 인천상륙 후 후속작전을 지원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미 제8군 낙동강선 반격작전 지원

[美 第8軍 洛東江線 反擊作戰 支援, 1950. 9. 16.~24.]

개요

미 극동공군 예하 제5공군 및 폭격사령부가 1950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위한 작전을 시작한 미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 전 지역에서 시행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이다.

전개과정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과 대치중인 미 제8군은 9월 16일부터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작전을 시작하였다. 미 제8군은 반격계획을 세우면서 공군력의 충격효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미 극동공군은 9월 16일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비행을 164회 실시하였다.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는 9월 16일 예하 5개 전대 소속 B-29중폭격기 82대를 동원하여 돌파구를 형성하기 위해 왜관 동부지역으로 출격하였으나, 표적지역 상공의 낮고 짙은 운무로 인해 정밀폭격이 불가능해지자 2차 표적인 평양 보급품집적소와 원산지역 항만지역에 대한 항공차단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는 짙은 구름으로 인해 당시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폭 시 목표지역에 근접해 있는 아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유엔공군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다음날인 9월 16일부터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에 대해 본격적인 공중공격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날 왜관 서부 지역 북한군 집결지역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고자 82대로 구성된 B-29폭격기가 왜관 상공으로 출동하였으나, 시계가 불량하고 폭격지역이 아군과 근접되어 있어 임무를 변경하였다.

기상예보는 9월 18일부터 항공작전에 적합한 기상조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은 9월 17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제8군의 작전에 협조해 줄 것과 왜관의 2개 지역, 즉 낙동강철교와 구인도교가 교차되는 지역의 양편에 각각 500×5,000야드 크기의 2개 지역을 폭격해 줄 것을 공군에 요청하였다. 이에 폭격사령부는 짧은 작전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 제92폭격전대와 98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 42대를 출격시켜 500파운드 폭탄 1,600발을 요청된 북한군 거점지역에 투하하였다. 이 공습은 매우 급하게 계획되어 실시되었으나,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의도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작전이었다.

미 제5공군도 낙동강 전선에서 미 제8군의 돌파구를 개척하기 위한 작전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9월 17일에도 오전 기상은 공군작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제5공군 소속 F-51 및 F-80전투기들은 미 제8군의 최남단 방어선인 마산, 창녕부터 동부 종단 지역인 포항에 이르는 전 방어선에 대해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날 하루 총 165회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한 미 제5공군 전투기들은 미 제2사단 정면인 영산 부근에서 도강하려는 약 2,000여 명의 북한군에 대해 약 110갤론 네이팜탄 260개를 투하하는 공습을 감행하여 약 1,2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9월 17일 전투기들은 미군들에게 '장벽의 도시(Walled City)'란 별칭을 가진 영천 지역에 대해서도 네이팜탄 공격을 집중적으로 가했다.

9월 18일 날씨가 호전되면서 제5공군의 공격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날 제5공군은 286회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고, 다부동에서 상주로 진격하는 미 제1기병사단 전방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에 대해 F-51전투기가 네이팜탄과 기총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 제1기병사단 선두기갑대대의 중대장들은 9월 19일 오후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덕분에 저항선을 분쇄하고 미 제1기병사단의 진출로를 확보 할 수 있었다는 감사서한을 극동공군사령부에 보냈다.

9월 19일에는 361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여 참전 이후 일일 최다 근접지원비행 기록을 수립했다. 한국군 제1사단 지역에 163회, 미 제25사단 정면에 76회, 미 제1기병사단 지역에 75회, 미 제2사단 접적 지역에 43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미 제2사단 정면에서는 북한군 병력 700여 명에 대해 네이팜 및 기총 공격이 실시되었다. 또한 미 제24사단이 왜관 남부 4마일 지점에서 낙동강을 도강하여 김천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F-80 및 B-26경폭격기가 북한군 1,500여 명에 대해 공습을 가하자 북한군이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당황한 북한군은 미 제24사단의 포사격과 F-80전투기와 B-26경폭격기의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9월 20일 미 극동공군은 총 317회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는데, 미 제8군의 작전성과를 토대로 세부 진격지점을 예측한 미 제5공군 사령관(소장 Earl E. Partridge)은 지상 진격부대 최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대에 특히 항공작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사전에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바로 모스키토기로 하여금 전진하는 수색대 상공에 비행하면서 8월부터 지급된 SCR-300 무전기를 통해 지상군 지휘관과 통화하며 지상부대의 전방과 양 측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스키토기를 이용한 지상부대의 엄호작전은 9월 21일 매우 높은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전진 중인 미 제24사단 전방에 약 30대의 전차로 구성된 전차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한 모스키토기가 F-51과 F-80전투기를 요청하여 출동한 이들 전투기가 북한군 전차 14대를 파괴하자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9월 22일 미 제24사단 소속 연대가 김천으로 이어진 철도에서 북한군과 교전 시 항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잔여 전차에 대한 항공공격으로 적은 궤멸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같은 날 미 제8군이 종대대형으로 북한군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강력한 근접항공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공격대형이었다. 제5공군 전투기들은 전차 5대를 완파하고 2대에 손상을 주었으며 자주포 2대를 파괴하였다. 또한 제5공군은 동해안을 따라 진격 중인 한국군 1, 2군단에 대한 공중지원도 실시하였는데, 9월 22일 하루 동안 216회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여 1,100명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9월 23일에는 F-80전투기가 패주하는 적군 430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극동공군의 강력한 항공지원과 함께 이루어진 미 제8군과 국군의 지상반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9월 22일 이후 전투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채 낙동강 방어선에서 급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9월 23일 이후 근접지원임무는 감소하게 되는데 9월 24일 267회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일일 200회 이하의 근접지원비행이 실시되었다.

결과 및 영향

이 작전 동안 미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북한군에 대한 선제 폭격을 통해 미 제8군 병력을 보호함은 물론, 병력을 살상하고 전차 등 전투 장비를 파괴하여 북한군 전력을 약화시켜 미 제8군의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돌파를 지원하였다.

미 제5공군 전투조종사들은 인천상륙작전 개시 이후 9월 23일까지 자신들이 사살한 적군을 6,500여 명으로, 그중 1,400여 명 이상이 그들의 기총, 폭탄, 로켓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극동공군의 강력한 항공지원과 함께 이루어진 미 제8군과 국군의 지상반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9월 22일 이후 전투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채 낙동강 방어선에서 급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흥남화학단지 폭격작전

[興南化學團地 爆擊作戰, 1950. 7. 30.~8. 3.]

개요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가 1950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선 질소비료공장, 조선 질소화약공장, 본궁화학공장이 위치한 흥남화학단지를 파괴하기 위해 수행한 전략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흥남 일대에는 극동 제일의 화학 및 경금속 생산 공장이 있었다. 흥남 교외에는 조선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하여 조선질소화약공장과 본궁(本宮)화학공장 등이 있었다. 북한의

산업은 냉전 당시 소련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는데, 이중 흥남화학공업단지에서는 소련의 원자력 계획에 사용될 토리움(Thorium)과 방사성물질의 주원료인 모나자이트(Monazite)를 가공 생산하여 소련에 제공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화약원료를 대량 생산 하는 시설이었다. 이러한 흥남화학공업단지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이 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특별공격을 승인하는 한편, 유엔지상군에 대한 B-29 중폭격기 지원을 병행할 것을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당부하였다.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21일 폭격사령부에 흥남의 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폭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질소비료공장, 조선질소화약공장, 본궁화학공장 대해 2개 중폭격기전대를 투입하여 3일 간격으로 육안폭격을 감행하여 북한군이 공장들을 보호할 틈이 없도록 신속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는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기상으로 당시 한반도의 여름철 우기에 대한 기상예보는 3일에 한 번 적중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두 번째는 불명확한 표적에 대한 정보였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폭격사령부는 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더 조준폭격과 육안폭격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과거 북한 표적 목록 사진과 함께 제31전략정찰대대가 레이더 영상사진을 촬영하고 제548정찰기술대대가 사진을 추려 레이더 표적목록에 대한 정보를 최신화 함으로써 작전준비를 진행시켰다.

이 폭격임무는 폭격사령부 예하 제22 · 제92폭격전대가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작전계획관들은 흥남지역의 지리조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폭격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폭격 대대가 종대대형으로 비행하면서 각 폭격기별로 육안 폭격하는 방법, 둘째는 대대전력이 일렬종대 편대대형으로 비행하면서 선도 대대장의 레이더 폭격 유도에 따라 폭격하는 방법, 셋째는 각 항공기가 개별적으로 레이도 유도로 폭격하는 방법이었다. 폭격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임무수행 직전에 목표지역을 사전 정찰하기로 한 공중지휘관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폭격사령부의 면밀한 계획과 폭격기 승무원들의 노련한 기술로 흥남지역의 조선질소화약공장에 대한 최초 출격이 7월 30일 오전 9시 54분에 개시되었다. 일명 'Nannie Able'작전이라 불리는 이 폭격작전에는 제22 ·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47대가 투입되었으며, 이들 중폭격기들이 출격하여 V자 대형으로 흥남의 목표지역 상공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목표상공에 검은 구름이 덮여 있었다.

따라서 B-29중폭격기의 선도대대가 APQ-13레이더로 조준폭격을 개시하자 공장 중

심부에서 큰 화염이 올라와 구름을 주변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구름이 일시적으로 걷힌 틈을 이용하여 후속대대들은 레이더폭격과 육안폭격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B-29중폭격기들이 북한 지역 산업 목표 중의 하나인 흥남질소화약공장에 약 500톤의 폭탄을 투하한 결과 이 공장의 30%를 완전 파괴하고 약 40% 정도에 심한 손상을 입혔다.

폭격사령부는 8월 1일 제22 · 제92폭격전대의 B-29기 46대를 출격시켜 흥남 조선질소비료공장에 대한 전략폭격(Nannie Baker)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날씨가 쾌청하여 선도 폭격전대는 'Norden 폭격조준기'를 사용하여 육안폭격을 수행하였지만 후속전대는 연기와 먼지 때문에 표적을 확인할 수 없어 레이다 조준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날 출격한 2개 폭격전대는 500파운드 폭탄을 표적지점에 집중 투하하였는데, 폭격의 규모가 커서 1만 6,000피트 상공에 있는 폭격기에 게도 충격이 전해질 정도였다.

폭격사령부는 이틀 후인 8월 3일에도 흥남 본궁화학공장을 표적으로 제22 · 제92폭격전대 B-29기 39대를 출격시켜 제3차 전략폭격(Nannie Charlie)을 수행하였다. 각 폭격대대는 표준고도 1만 6,000피트 상공에서 구름을 뚫고 폭격을 감행하였다.

결과 및 영향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화약 생산의 원천을 파괴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의지를 없애기 위한 흥남화학단지 전략폭격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이 아시아에서 큰 화약 공장이 전쟁에서 더 이상 큰 요소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할 만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흥남화학단지에 대한 전략폭격은 전쟁 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중단시켜 심리적으로는 북한 전쟁지휘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감소시킴과 아울러 전투 현장에서는 탄약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전력 열세를 불러왔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4~5, 2008.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북한 산업시설 전략폭격작전

[北韓 散業施設 戰略爆擊作戰, 1950. 8. 7.~9. 26.]

개요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가 1950년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보급물자, 탄약, 병기 등 모든 형태의 군수물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북한 5대 산업시설 밀집지역인 평양, 흥남, 원산, 청진, 나진과 기타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수행한 전략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미 공군참모총장이 7월 3일 미 전략공군사령부 예하의 제15공군 소속 제22폭격전대와 제92폭격전대를 미 극동공군에 파견 승인함으로써 2개 폭격전대가 극동으로 이동을 명령받자 전략공군사령부 정보부에서는 북한 내의 전략목표를 선정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는 평양, 원산, 흥남, 청진, 나진의 5개 주요 산업지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병참중심지로 평양 병기창은 중국 선양(瀋陽)의 병기창 다음가는 아시아 제2의 병기창으로 소총, 자동화기, 탄약, 포탄, 수류탄, 폭탄, 지뢰 및 군용차량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평양역은 철도조차장과 공작창이 있어서 차량수리 및 제작을 하고 있었고, 소화(昭和)항공기 공장과 조병창은 북한 공군기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화물집하장이 있는 평양은 보급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원산은 주요 항구이자 철도 중심지로 원산항 남단의 조선정유소는 연간 25만 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었고, 원산 북쪽 5마일 지점에 위치한 조선석유회사는 대형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원산항은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원산역은 한반도 3대 철도 중의 하나이자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차 공장이 있었다.

흥남 일대에는 극동 제일의 화학 및 경금속 생산 공장이 있었다. 흥남 교외에 는 조선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하여 조선질소화약공장 및 본궁(本宮)화학공장 등이 있었다. 또한 청진은 2개의 항구, 철도공작창, 일본철강공장, 삼릉(三菱)철강회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동해안 북단의 나진은 소련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60마일 거리에 있는 해군기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연료저장시설과 철도공작창이 있어 북한과 소련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북한에는 이 5개 산업단지 외에도 또 다른 전략목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다. 서해안 대동강 어귀에 있는 진남포는 항구도시로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조선이연(理硏)금속공장과 동, 아연을 생산하는 일본광산회사의 제련소와 진남포 강철공장이 있었다. 그리고 동해안의 성진 금속공장에서는 고급 철강재가 생산되고 있었다.

미 공군전략공군사령부는 곧 목표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통상적으로 목표

우선순위의 결정은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완제품공장이나 일반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세 번째는 기본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 공군전략공군사령부는 그러나 북한 내의 5개 주요 산업단지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표적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개별적 타격보다는 지역별 정밀폭격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역 내의 목표들을 몇 차례의 집중폭격으로 완전 파괴할 수 있었다.

1950년 7월 30일 흥남화학단지에 대한 1차 전략폭격 작전(Nannie Able Operation)이 성공적으로 평가 되자 7월 31일 미 함동참모본부는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북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규모 전략폭격이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에게 극동군 사령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B-29 중폭격기 2개 전대를 미 본토로부터 극동에 전개 · 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제307폭격전대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가데나(嘉手納)기지로, 제98폭격전대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요꼬다(横田)기지로 전개하였고, 이들이 도착하자 극동공군 사령관은 8월 8일 오도넬(Emmett O'onnel, Jr) 폭격사령관에게 2개 폭격전대를 최대로 활용하여 3일에 한 차례씩 북한의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폭격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미 합참은 8월 15일 북한지역의 전략표적에 청진의 철도조차장 및 철도공작창, 진남포의 동철주물공장 및 삼용산업공장, 성진의 철도창, 조선소 및 연료저장소, 흥남과 해주의 철도창을 추가로 선정하였고 결국 총 46개의 전략표적을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북한지역 산업시설 전략폭격을 위해 제31전략정찰대대 및 제548정찰기술대대와의 긴밀한 협조 표적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전략폭격을 위해 출격할 때마다 임무편대군에 앞서 출발하는 기상 관측기에 임무지휘관을 동승시키고, 그에게 임무지역의 기상상태에 따라 레이더 조준폭격을 할 것인지 또는 2차 표적으로 변경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모든 폭격대형은 레이더 폭격을 위해 적합한 축선을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대대단위의 대형일 경우에는 선도기가 육안폭격을 할 것인지 또는 레이더 폭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폭격고도에 구름이 덮여 있어 편대공격이 곤란할 경우는 임무지휘관이 각 폭격기를 종대대형으로 1분 간격으로 표적에 레이더 조준폭격을 하는 홈타운(Hometown) 공격을 명령하였다.

1950년 8월 7일 B-29중폭격기가 평양의 조병창과 평양역을 폭격하고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산-나진선과 경원선의 기점인 원산역과 연간 25만 톤의 석유를 생산하여 북한 소비량의 93%를 공급하는 원산정유공장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나진의 유류저장소 폭격은 북한과 소련의 국경에서 17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미 국무부는 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미 공군본부는 나진 폭격 시 소련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표적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육안폭격을 하도록 폭격사령부에 지시하였으나, 극동공군으로부터 이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폭격사령부는 8월 12일 나진 공격 시 레이더 조준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입각의 편차로 폭격이 표적을 벗어나 나진 외곽에 집중되어 표적에 아무런 손상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소련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미 공군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나진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육안폭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폭격사령부는 8월 22일 B-29기 64대를 출격시켜 나진 폭격에 나섰으나 표적상공의 기상악화로 2차 표적인 청진을 공격하였다. 8월 26일에는 성진제철소에 326톤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진남포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공장에 284톤의 폭탄을 투하하여 파괴하였다.

9월 1일 나진 폭격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무부의 입장 때문에 미 합참은 나진을 폭격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나진이 적의 보급중심지이기는 하지만 나진을 직접 폭격하지 않더라도 적이 보급품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든지 포착하여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북한 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작전을 시작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1개월 동안 소련 국경과 근접한 나진 지역 유류저장시설을 제외한 모든 표적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고, 이들 시설을 파괴하거나 가동 중지시켰다. 미 극동공군은 표적피해평가를 통해 표적의 55% 이상을 파괴하였다고 평가했으며, 극동공군사령관은 1950년 9월 15일 북한군의 전략상 중요하며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산업시설의 거의가 무력화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 산업시설의 파괴는 단기적으로 북한군 전선부대에 대한 유류, 연료, 보급물자의 감소로 이어졌고 장비 운용 및 기동에 제한을 가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보급지원이 재개되면서 완벽한 작전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숙천 · 순천지역 공수작전

[肅川 · 順川地域 空輸作戰, 1950. 10. 20.~23.]

개요

미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 소속 수송기(C-119, C-47)가 1950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 서북부 지역에서 북한군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북한 관리 포획과 미군 포로 구출 등을 목적으로 숙천과 순천지역에 공중 침투하는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병력과 장비, 물자를 수송한 공수작전이다.

전개과정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북한군 배후에 대한 공수투하는 인천상륙작전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한국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작전도 지연되었고 9월 27일 되어서야 미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 수송기에 의해 김포로 모든 병력이 이동하였다. 김포에 도착한 187공정연대전투단은 서울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예비 병력으로써 남아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 주력의 퇴로는 물론 증원을 차단하고, 병참선을 붕괴시키며, 아울러 북한 관리들을 포획하고, 후송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백 명의 미군포로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6 · 25전쟁 발발 후 한 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는 미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평양 북방에 투하시킬 계획이었다. 작전일시는 평양이 완전히 탈환되는 날로 결정하였으며, 투하지점은 평양 북방 약 56km지점의 숙천(주 투하지역)과 그 동쪽으로 17km 떨어진 순천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평양에서 숙천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철도와 평양에서 순천을 거쳐 만포진에 이르는 만포선 철도, 그리고 이들 철도와 병행하게 발달된 도로가 만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작전계획은 먼저 제1 · 제3대대 병력 1,500여 명이 순천 남동부 지역에 강하하여 순천시를 점령한 이후 평양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진 고속도로와 철도를 봉쇄하고, 약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제2대대와 지원부대가 순천 근처와 숙천 동부 15마일 지역에 강하하여 다른 고속도로와 철도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 제8군의 전진부대들이 평양으로부터 이동할 때까지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자신의 진지를 점령 후 대기하다가, 이틀 내에 두 개 부대가 합류하는 것이었다.

병력수송은 C-119 76대와 C-47 40대가 담당하며, C-119기에는 각기 강하요원 42명과 300파운드 화물낭 15개를 적재하고, 이보다 작은 C-47에는 각기 강하요원 18명

과 300파운드 화물낭 3개를 탑재하는 것이었다. 강하요원은 고도 700피트에서 강하하고 지프차 12대, 3/4톤 트럭 4대, 105mm 야포 12문을 포함한 중장비는 1,500피트 상공에서 투하하는 계획이었다. 작전 당일인 10월 20일 오전 6시에 김포를 이륙하려던 계획은 시정 불량으로 인해 정오까지 연기되었다.

10월 20일 정오가 되자 장비와 병력을 탑재한 수송기들이 이륙을 시작했고, 고도를 높이면서 밀집된 V자 대형을 형성하였다. 미 공군 전투공수사령관 터너(William H. Turner) 소장은 직접 C-54를 조종하면서 작전을 감독하였고, 맥아더 장군과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극동공군사령관, 그리고 연합국 사령부 인원들은 C-121을 탑승한 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에 처음 김포를 출발할 때 76대였던 C-119는 74대만이 강하지역 상공에서 도착하여 71대만이 적재 병력과 화물을 투하하였는데 이중 50대는 병력을 투하하였고, 21대는 장비를 투하하였다. 강하지역 상공에 도착한 C-47 40대는 병력과 장비를 투하하였다. 이날 숙천과 순천에 투하된 병력은 총 2,860명이였으며 이중 1명이 강하 중 사망하였고 장비 301.2톤이 지상으로 투하되었고 투하된 장비 중 야포 3문만이 유실되었으며 나머지 장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였다.

공수 투하 중 수송기들은 경미한 지상화망에 노출되었을 뿐이었다. C-119한 1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는데, 이는 제5공군의 공중엄호 덕분이었다. 이날 제 제5공군은 F-51, F-80전투기와 B-26경폭격기를 동원하여 강하지역 및 인근의 병력, 탄약저장소, 전차, 요새화된 건물 등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들 공격으로 차량 53대, 연료 및 탄약저장소 5개소, 전차 4대, 군수품 수송 중인 소달구지 23대, 야포 1문을 파괴하였다. 이날 작전에서 F-51 1대가 대공포에 의해 격추되었고 F-80 1대가 불상 원인으로 순천지역에서 추락하였다.

다음날인 10월 21일에도 공정작전은 계속되었다. 오전 10시를 기해 C-119 40대가 추가병력 1,093명과 보급품 106.8톤을 작전지역에 투하하였다. 10월 22일과 23일에는 C-119 22대와 10대가 각각 동원되어 장비와 보급품 184톤을 추가로 공수하였다. 이로써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작전은 종료되었고, 전투공수사령부는 병력 총 3,995명과 장비 및 보급품 총 592톤을 공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숙천 · 순천 지역에 대한 공수작전은 4일간 실시되었고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 46명이 강하 중 사망하고 약간의 장비의 손실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숙천

과 순천 지역에 투하된 187공정연대전투단은 사흘간의 전투에서 북한군 2,000명을 사살하고 3,818명을 포로로 잡았으나, 전투 중 65명이 전사하는 손실도 입었다. 그러나 10월 12일 평양이 함락되기 전 북한군 병력 대부분이 이 지역을 빠져 나감으로써 애초 맥아더 사령관이 북한군 잔존병력 3만 명 중 2만 5,000명이 이 작전에 걸릴 것이라던 예상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압록강 교량 폭격작전

[鴨綠江 橋梁 爆擊作戰, 1950. 11. 8.~30.]

개요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와 극동해군 제77기동함대 소속 항공기들이 1950년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중공군의 압록강 교량을 통한 북한 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압록강 상에 설치된 주요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실시한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11월 5일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장군에게 향후 2주간 공군 전력을 모두 투입하여 공중폭격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폭격의 목적은 중공군의 북한지역 진출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병력투입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록강에 있는 모든 교량의 북한 측 첫 번째 경간(徑間)을 파괴하고 압록강으로부터 북한지역 남부로 연결되는 모든 수송로, 각종시설, 공장, 도시, 촌락 등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나진과 수풍 댐을 포함한 수력발전시설은 폭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 · 소 '국경침범'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작전의 시행 시기는 극동시간 1950년 11월 7일 새벽 3시(미국동부시간 11월 6일 오후 1시)였다. 11월 5일 맥아더 장군이 중공군 개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미 합참에 보고하자 11월 6일 미 합참은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한 · 중, 한 · 소 국경 5마일 이내의 표적에 대한 폭격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시를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즉시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가 만주로부터 압록강을 넘어 유입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중공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압록강의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국제교량(International Bridge)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 회신을 접한 미 합참은 11월 6일 늦은 시각에 이전의 지시를 번복하여 압록강의 교량파괴에 맥아더 장군 예하의 공군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극동공군 및 해군에게 압록강 상의 교량에 대한 폭파임무를 하달하였다. 극동공군은 폭격사령부에 이 임무를 하달하였고, 극동해군은 제77기동함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작전은 11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미 극동공군은 폭격사령부의 압록강 교량 폭파임무와 더불어 제5공군에게는 북한 내 도로와 철도를 따라 이동 중인 모든 표적에 대해 주야로 무장정찰을 통해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압록강 상에는 12개의 국제교량이 가설되어 있었으며 이중 전술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교량은 6개로 신의주 복선철교와 차량인도교, 청성진(淸城鎭) 인도교, 만포진(滿浦鎭) 인도교와 철교, 남산리(南山里) 철교 등이었다. 그밖에 전술적 중요 교량으로는 중강진, 혜산진, 삼안고, 회령 등의 인도교가 있었다.

이 임무를 부여받은 B-29폭격기 조종사들은 이전에도 교량폭격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임무는 이전과는 4가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이유로는 첫 째 적의 대공포 위협이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 날아오는 대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폭격고도를 1만 8,000피트 이상으로 높여야 했고 이는 폭격의 정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비행경로와 폭격범위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이었다. 교량폭격 지점은 북한 측에 연결된 첫 번째 경간으로 한정되었고 비행경로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적의 대공포에게는 화망구성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반면, 우군 폭격기에 대해서는 기동에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는 시계비행 하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중국 지역에 대한 오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적과 비행경로 확인을 목측(目測)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시정이 불량한 때에는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는 국경침범금지령으로 정풍(正風)을 맞으며 폭격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높은 고도를 유지해야만 했으므로 120노트(kt) 이상의 강풍과 싸워야 했다.

폭격사령부는 11월 8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교량에 대해 폭격임무를 감행하였다.

제19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 7대가 신의주 교량 교각과 입구에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다른 두 대는 레이존(Razon)폭탄을 투하하였다. 신의주 교량폭격은 11월 13일 재개되었는데 제98폭격전대 소속 B-29 9대가 교량입구에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11월 14일에는 제19폭격전대와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21대가 신의주 교량에 1,000파운드와 2,000파운드 폭탄 111톤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임무 중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 2대가 적의 대공포와 MIG-15기의 공격에 의해 손상을 입고 김포에 비상착륙하였다.

11월 24일에는 제98폭격전대 B-29기 8대가 만포진 철교에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대부분은 철교에 명중하였으나 이중 8발이 만주지역에 떨어졌으며, 제 19폭격전대 B-29기 9대는 청성진 인도교에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다. 다음날인 11월 25일에는 제19폭격전대 B-29기 4대가 청성진 인도교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만포진 교량을 공격하여 최소 1개의 경간을 파괴하였다. 제307폭격전대는 소속 B-29기 각각 8대를 동원하여 11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청성진 인도교을 공격하였고, 11월 30일에는 제19폭격전대 소속 B-29기 8대가 청성진 인도교를 재차 공격하여 1개 경간을 파괴하였다.

한편 유엔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은 교량이 압록강 만곡부에 위치하여 폭격 시 국경침범이 불가피하여 폭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교량도 있었는데 그것은 남산리 철교였다. 미 해군 함재기조종사들은 처음부터 임무를 포기하였고, 11월 24일 폭격사령부 제19폭격전대 B-29 1개 편대(4대)가 1차례 폭격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로써 폭격사령부는 11월 말까지 압록강 교량 4개를 차단하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혔다. 해군 77기동함대 함재기들은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 압록강 교량폭파작전에서 총 593회 출격하여 폭탄 232톤을 투하하였고, 신의주 철교 및 인도교를 파괴하고 청성진과 혜산진 지역 교량 4개에 대해 손상을 입혔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 해 · 공군은 작전을 통해 남산리 철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록강 상의 교량들을 폭격하여 파괴나 손상을 입혔으나, 중공군의 북한 진입은 차단할 수 없었다. 이미 작전이 개시되기 전인 10월 말에 중공군의 병력 대부분이 압록강을 넘은 상태였고, 11월 19일부터 압록강의 결빙이 시작되었으며, 11월 마지막 주 공중정찰 결과 중공군은 이미 압록강 상에 3개의 부교와 1개의 목재교량을 새로이 건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극동공군과 해군은 투입된 전력과 화력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결론을 내렸고

11월 24일 재개된 유엔군 공세로 인해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이 시급한 임무로 대두됨에 따라 극동해군은 11월29일부터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으로 임무를 전환하였으며, 극동공군사령부는 12월 5일 정식으로 폭격사령부에 압록강 교량 폭파임무 중지를 하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10.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한국 공군비행단 여의도기지 출격작전

[韓國 空軍飛行團 汝矣島基地 出擊作戰, 1950. 9. 23.~10. 13.]

개요

한국 공군비행단(미 제6146기지부대 포함)이 1950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북한 서북지역의 국군과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기지에서 수행한 후방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은 1950년 9월 23일 공군비행단 소속의 모든 항공기를 9월 24일까지 진해기지에서 여의도기지로 이동시키고, 지원부대를 해군 LST편으로 진해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여 육로로 여의도기지까지 이동할 것을 지시(공본 작전명령 제51호)했다.

비행단 정지작업과 보수작업은 비행단장 장덕창(張德昌) 대령의 지휘 아래 정비사, 헌병대원 등 지원 병력 500여명과 여의도기지 인근 주민 1,000여 명의 지원자가 합세하여 9월 24일부터 시작되어 철야 작업을 하면서 5,000피트의 활주로를 포함하여 비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시설들을 1주일 만에 복구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비행단의 여의도기지 작전은 본격화 될 수 있었다.

공군비행단은 F-51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작전이 가능한 것은 10대였다. 비행단은 여의도기지로 전진하는 즉시 미 공군과 협조하여 북한 서북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북한군 이동 병력이나 군용건물과 보급품집적소, 조

차장, 기관차, 마차, 트럭, 교량 등이 공격목표였다. 9월 23일부터 작전을 개시한 비행단은 10월 13일까지 의주, 용암포, 곽산, 중화, 신안주, 평양, 박천, 겸이포, 남시, 강계, 만포진 등 지역으로 총 74소티를 출격시켜 군용건물 110동, 차량 3대, 교량 18개소, 보급품집적소 2개소, 군용 수송열차 7대, 조차장 3개소를 파괴하고 북한군 병력 5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여의도기지에서의 출격상황을 날짜 별로 살펴보면, 9월 23일, 박희동 대위와 김성룡 중위 및 미 공군 1명을 포함한 F-51 3기 편대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125kg 폭탄 2개와 로켓탄 18개, 기관포탄 2,500발을 사용하여 트럭 3대와 군용건물 5동을 격파하고 돌아왔다. 이어 이날 오후, 정영진 · 김성룡 중위는 미 공군 2명과 같이 F-51 4기 편대로써 역시 신의주 상공에서 로켓탄 24개와 기관포탄 3,900발을 적진에 퍼부어 교량 3개소를 파괴하고, 차량 3대와 군용건물 10동을 격파하였다.

9월 24일에는 박희동 대위, 정영진 · 김성룡 중위와 미 공군 1명이 편대로 구성된 F-51전투기 4기 편대는 이날 14:50분에 여의도를 이륙하여, 용암포 상공에 이르러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2개, 기관포탄 3,700발로 교량 3개소를 비롯한 군수품 수송용 마차 1대와 군용건물 2동을 파괴시켰다. 이날 기지로 돌아온 정영진 중위는 다시 미 공군 2명과 더불어 3기 편대로 선천 지역으로 출격하여, 로켓탄 18개와 네이팜탄 4개, 기관포탄 2,500발로 차량 6대와 보급품집적소 2개소를 분쇄하였다.

9월 27일에는 박희동 대위와 정영진 중위 그리고 미 공군 조종사 2명이 탑승한 F-51 전투기 4기 편대는 곽산 지역 상공에서 차량 1대와 교량 3개소를 폭파하였는데, 125kg 폭탄 4개와 로켓탄 24개, 네이팜탄 1개, 기관포탄 3,400발로 목표를 공격하였다. 이날 이들과 편대를 달리한 강호륜 대위와 김성룡 중위 및 미군 2명의 F-51 4기 편대는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 그리고 기관포탄 3,900발로 평양 근교에서 차량 2대와 군용건물 2동을 폭파하였다.

9월 29일에는 김성룡, 그리고 미군 2명으로 편성된 F-51 편대는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 기관포탄 3,100발로 중화 지역에 출격하여 차량 6대와 기관차 2대, 군용건물 3동을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박희동 대위와 정영진 중위 및 미군의 또 다른 조종사 2명을 포함한 F-51 4기 편대는 평양 상공에 이르러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 그리고 기관포탄 3,800발로 차량 4대와 군용건물 10동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9월 30일에는 강호륜 대위와 정영진 · 김성룡 중위 등 한국 공군 조종사 3명과 미 공군 조종사 1명으로 편성된 F-51 4기 편대는 이날 신안주에 출격하여 교량 2개를 파괴하였다.

10월 1일에는 박희동 대위와 김성룡 중위, 그리고 2명의 미군 조종사를 포함한 F-51

4기 편대는 진남포에 출격하여 로켓탄 24개, 네이팜탄 4개, 기관포탄 3,900발로 군용건물 15동을 차례로 불태워 버렸다. 이어 이날 정영진 · 김성룡 중위, 그리고 미군 2명의 4기 편대는 다시 평양 상공에서 작전상 중요한 교량 1개소를 절단하고, 군용건물 7동을 파괴하는 한편, 조차장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125kg 폭탄 4개와 로켓탄 4개, 기관포탄 3,600발을 사용하였다. 10월 2일에는 박희동 대위, 정영진 중위와 미 조종사 2명, 김성룡 · 이상수 중위와 미 조종사 2명, 전봉희 · 김두만 중위와 미군 등으로 구성된 F-51 4기 3개 편대는 신의주, 박천, 겸이포 등지에 출격하여, 차량 6대와 군용건물 11동을 격파하고 적병 35명을 사살하였다.

10월 5일에는 강호륜 대위와 김성룡 중위 그리고 미군 2명으로 편성된 F-51 4기 편대는 남시를 거쳐, 신의주 방면에 출격하여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6개, 기관포탄 3,200발로 남시의 교량 1개소를 폭파하고 신의주에서는 군용건물 6동과 조차장 2개소를 파괴시켰다. 이와 편대를 달리한 정영진 · 이상수 중위와 미군 2명의 F-51 4기 편대는 이날 강계 상공에서 군수품 수송용 기관차 5대와 군용건물 2동, 교량 1개소를 125kg 폭탄 4개와 로켓탄 24개, 기관포탄 3,800발로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10월 10일에는 강호륜 대위와 정영진 · 김성룡 중위, 그리고 미군 1명의 F-51 4기 편대는 강계 시가 상공에서 125kg 폭탄 2개와 로켓탄 24개, 기관포탄 4,000발로 군용건물 2동과 교량 2개소, 차량 1대를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10월 13일에는 정영진 · 김성룡 중위 그리고 2명의 미군들을 포함한 F-51 4기 편대는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로써 강계와 만포진 방면에 출격하여 교량 2개소와 차량 5대를 파괴하고 적병 20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이날 이상수 · 전봉희 중위 그리고 미군 2명으로 편성된 F-51 4기 편대는 250kg 폭탄 4개와 로켓탄 4개로 평양 상공에 이르러 작렬하는 대공 포화 속에서도 목표물을 향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이들이 북한군총사령부 건물과 인근의 김일성 가옥을 공격하던 중 이상수 중위가 지상포화에 피탄 되어 기체와 더불어 24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였다.

결과 및 영향

공군비행단은 여의도기지 작전기간 동안 총 74회 출격하여 병력 55명을 사살하고 건물 11동, 차량 40대, 교량 18개소, 기차 7대, 보급품집적소 2개소, 철도조차장 3개소를 파괴하는 전과를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공군비행단이 전쟁 발생 이후 처음으로 북한지역으로 출격하여 실시한 작전이었으며, 한국 공군은 신속한 기지 이동전개 능력을 숙달하고 조종사 전투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10.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한국 공군비행단 평양미림기지 출격작전

[韓國 空軍飛行團 平壤美林基地 出擊作戰, 1950. 10. 30.~11. 30.]

개요

한국 공군비행단(미 제6146기지부대 포함)이 북한 미림비행장으로 전개한 1950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 공군 T-6기가 수행한 정찰 및 연락 임무와 미 제6146기지부대가 중공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수행한 야간 근접항공지원 작전이다.

전개과정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국군 및 유엔 지상군의 근격작전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주둔 중이던 여의도기지가 미 제5공군의 전진기지가 되어 극동공군의 모스키토 전술항공통제기(T-6G)가 연료지원을 받고,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투하를 위해 C-46수송기 30여 대가 전개되는 등 기지가 혼잡해짐에 따라 공군총참모장 김정렬 장군과 미 제6146기지부대장 헤스(Dean H. Hess) 중령은 비행단의 북한 지역으로의 이동 문제를 놓고 사용 가능한 기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중 평양 동쪽 약 8마일 떨어져 있는 미림기지(동 평양비행장, K-24)를 발견하였다. 미림기지는 일본군이 건설한 기지로 활주로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배수시설이 양호하였으며 기타 비행지원시설이 양호한 편이었다.

미림기지로 이동 결론을 내린 김정렬 장군과 헤스 중령은 미 제5공군전방사령관인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장군에게 공군비행단이 미림기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기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미 제5공군은 병력과 장비 이동 시 미 공군수송기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전까지는 제5공군이 직접 한국공군의 작전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는 향후 미 제5공군사령부가 직접 한국 공군비행단의 작전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공군비행단은 미림기지 확보를 위해 1950년 10월 16일 10명의 공군헌병을 미림기지로 파견하였으며, 21일에는 15명의 헌병을 증파하여 미림기지를 확보하였다. 10월 24일에는 20명의 정비사가 미림기지에 도착하였고, 이어 10월 30일에는 김규철 대위 이하

74명의 비행단 잔여병력이 미림기지에 도착함으로써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동 완료 후 공군비행단의 F-51 전투 출격은 미 제6146기지부대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미 제6146기지부대가 순천, 박천, 삭주, 희천, 강계 등의 평양 서부지역과 원산, 함흥, 장진 등 동부지역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한국 공군비행단 소속 F-51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채 훈련에 전념하였다. 이는 당시 출격이 중공군의 야간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에 치중함으로써 야간 출격 경험이 없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향후 출격에 대비한 훈련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미 제6146기지부대 미군 조종사가 수행한 작전비행은 총 81소티였으며 전과는 차량 파괴 122대, 차량 및 선박 각각 10대 및 5척 손상, 물자집적소 10개소를 파괴하였고, 열차 15대, 전차 2대를 손상시켰다. 11월 중 소모한 탄약은 250파운드(lbs) 폭탄 100개, 5인치 로켓 300개, CAL-50기관총 20만발이었다.

한편 미림기지로 전개했던 한국 공군비행단 소속 T-6기는 연락 및 정찰, 전단 살포 등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기간에 정찰 136회, 연락업무 175회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영향

북한 지역인 미림기지에서 중공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F-51전투기의 야간 출격은 미 제6146기지부대에 의해 이루어졌고, 야간 전투 경험이 없는 한국 조종사들은 훈련에 치중하였다. 미 제6146기지부대는 F-51기의 출격을 통해 북한군 수송차량과 전차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고, 한국공군은 T-6기를 이용한 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유엔 지상군 북한지역 철수작전 항공지원

[UN地上軍 北韓地域 撤收作戰 航空支援, 1950. 11. 28.~12. 24.]

개요

유엔공군(미 제5공군, 폭격사령부, 전투공수사령부, 호주 제77전투비행대대,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그리스 공군 제13수송전대 파견대)이 1950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

일까지 철수하는 국군과 유엔 지상군의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근접항공지원작전, 무장정찰작전, 공수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갑작스런 참전과 이들의 1차 공세로 인해 북한지역 석권의 좌절과 함께 청천강으로의 철수를 감수해야 했던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시작된 유엔공군의 한 · 중 국경지역과 주요 거점도시 및 병참지원선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격으로 인해 숨통을 틀 수 있었다. 이에 11월 18일 맥아더 사령관은 "지난 10일 간의 공중공격으로 유엔군은 전장을 적의 추가적 증원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크게 성공하였으며, 적의 보급도 현저히 감소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고무된 맥아더 사령관은 11월 24일을 기해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하였으나,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의해 서부전선에서 11월 26일 미 제8군 예하 제1군단 및 제9군단이 패퇴하고 국군 제2군단이 11월 27일 붕괴되어 미 제8군 전체가 11월 28일 전선에서 퇴각하였다.

동부전선에서는 12월 3일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 제1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장진호 근처에서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한 채 심각한 병력손상을 입고 후퇴함에 따라 유엔 지상군은 전면적인 후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극동공군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첫째, 지상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공산군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엄호하고, 둘째, 포위되어 고립된 지상군에 대한 공중을 통한 보급지원과, 셋째, 철수하는 아군을 지원하여 장비와 병력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었다.

후퇴하는 국군과 유엔군 지상군에 대한 공중엄호는 기본적으로 임무계획과 실시간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첫째 임무계획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는데, 이유는 지상군의 제대별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 전력할당을 전적으로 지상군부대의 요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따라서 유엔공군은 전력할당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었다. 둘째 임무수행 간에는 아군과 적군이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아군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폭격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야간에 근접한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극동공군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상군 엄호임무를 무장정찰과 근접항공지원 형태로 운영하였다. 우선 임무지역만을 할당받고 구체적인 표적을 갖지 않은 채 출격한 무장정찰임무 항공기는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적의 병력이나 긴급한 지상군의 요

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계획 가능한 지상군 지원임무는 근접항공작전임무를 부여하여 출격시켰다.

또한 폭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선에 근접해 있는 제3903레이더폭격기록대대(RDR Bomb Scoring Squadron)는 MPQ-2레이더의 통제 아래 야간에 우군진지에서 1,000야드(약 910미터)이내 지역을 폭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11월 28일 B-26이 미 제1군단을 지원할 때 적용하였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극동공군은 12월 24일 10군단이 흥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아군 전면의 적을 분쇄하고 아군 배후에서 진출로를 봉쇄하고 있는 적을 소탕하는 등 임무수행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유엔공군의 지상군 엄호작전은 특히 아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1월 28일 새벽 1:30경 영변 서부 용산동 근처에서 중공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 제25보병사단의 킨(William B. Kean) 장군은 전방 아군초소를 지형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야간상황에서 전투정면에 대해 B-26경폭격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요청 30분 만에 임무지역에 도착한 B-26경폭격기는 아지상군이 박격포로 쏘아올린 조명탄에 의존하여 아군진지 약 45m 이내의 목표물에 기총소사를 가해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미 제25보병사단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11월 28일 군우리(개천) 북동쪽의 북원-와원(瓦院)방어를 위해 투입된 미 제2사단 예하 터키여단이 중공군에 의해 포위공격을 당하여 11월 29일 오전 11시경 사상자가 속출하고 궤멸직전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전폭기 8대를 동원하여 신립리 지역을 폭격하여 터키여단이 개천으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우리(개천)에서 중공군과 조우한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B-26을 포함한 총 72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여 중공군의 포격을 중지시켰고, 이틈을 이용하여 군우리(개천)를 빠져 나왔다.

미 제5공군이 미 제2사단의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행한 공중엄호 및 근접지원비행은 총 763회였으며 이에 대해 카이저 (Lawrence B. Keiser) 미 제2사단장은 "공중지원이 없었다면 우리사단은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공군의 지원을 평가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12월 4일 평양을 포기 후 후퇴를 거듭하여 12월 23일에는 문산과 서울 북방 임진강 부근의 축선을 거쳐 동해 양양에 이르는 선까지 철수하자 12월 23일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B-29폭격기의 2/3를 미 제8군의 전선 인근에 있는 적의 집결지에 집중 폭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웨이랜드(Otto P. Weyland) 소장은 B-29중폭격기의 새로운 후방차단작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B-29기의 1/4 또는 1/3을 적 후방의 철도차단에 전력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전선에 있는 적 지상군 병력과 보급품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야간폭격기들도 미 제8군의 주저항선에서 새로운 야간 폭격전술을 개발하여 보다 긴밀한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새로운 폭격전술이란 B-26경폭격기가 F-82전천후요격기나 전술항공통제반의 지시에 따라 폭격지역에 조명탄을 투하하면 폭격기가 표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조명탄 1회 투하 시 2~3회 표적에 진입하여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야간 접적지역에서 중공군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통해 폭격 정밀성을 높일 수 있어 항공공격을 피해 야음을 이용하려는 중공군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한편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 대한 항공지원은 기본적으로 미 제1해병비행단과 극동해군 함재기들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11월 28일 장진호에서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이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위협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 장군은 연포에 주둔하고 있던 제5공군 예하 제35전폭전대에게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악천후로 해병항공대와 항모 함재기가 출격을 중지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제5공군의 공중지원을 더욱 확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12월 3일 직접 흥남을 방문한 패트리지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야간폭격지원 요청에 대해 예하의 B-26경폭격기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제5공군 전술기의 미 제10군단에 대한 화력지원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미 제10군단이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화력지원보다도 장진호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미 해병 제1사단과 제7보병사단에 대한 전투물자를 포함한 보급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육상으로의 보급 방안이 완전히 차단당한 상태에서 유일한 보급방안은 공중을 통한 수송이었으며, 이는 고립된 이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원산에 주둔하고 있던 제21수송대대 C-47수송기 파견대는 11월 내내 제10군단의 선발부대들에게 보급품을 공중투하 해 왔는데, 11월 28일에는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유담리(由潭里)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 해병 제5 · 제7연대에 10톤의 탄약을 투하하였고, 진흥리에 있는 미 제7보병사단 제31연대에 16톤의 탄약을 투하하였다.

한편 미 해병대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공수지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갈우리와 고토리에 간이비행장을 건설하였는데, 제21공수대대는 12월 10일까지 이들 간이비행장을 통해 총 240회의 수송비행을 실시하여 273톤의 화물과 환자 및 부상병력 4,863명을 후송하였다. 또한 11월 11일 일본에 도착하여 제21공수대대에 편입된 그리스 공군 C-47 공

수파견대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 30회에 걸친 공수비행을 실시하였고, 미 공군 제801의무후송비행대대는 위급한 전상자들의 철수와 치료를 담당하였다.

미 공군 제21공수대대 파견대는 11월 29일 오전까지 차단 고립된 각 부대에 약 400톤 이상의 탄약과 보급품을 공수투하 해 달라는 알몬드(Edward M. Almond) 미 제10군단장의 요청이 있었으나 C-47파견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다. 사실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가 1일 가능한 공중 투하량은 70톤을 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화물 공수투하는 정상적인 화물공수와는 달리 포장과 적재 방법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다. 일본 아시야(蘆屋)기지에서 일본인 노무자를 증원시켜 포장과 적재능력을 강화하여야 했고 철야로 탄약 및 무기, 의류, 가솔린, 비상식량 등을 포장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전투공수사령관 터너(William H. Tunner) 소장은 C-119 3대를 연포비행장(K-27)에 파견하였으며 다음날인 12월 4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전투공수사령부 예하 C-46, C-47, C-119수송기를 미 제10군단 지원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극동공군의 기민한 조치로 11월 29일부터 미 해병 제1사단의 마지막 부대가 흥남으로 철수한 12월 10일까지 전투공수사령부는 약 1,268톤의 장비와 보급품을 해병 제1사단 작전지역에 공중 투하하여 미 해병 제1사단의 후퇴를 지원하였다.

특히 화물 공수투하작전의 백미는 12월 7일 시행되었다. 이 작전은 고토리 남부 4마일 지점 계곡을 연결하는 수문교의 파괴로 인해 미 해병 제1사단의 진흥리로의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미 해병 제1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M-2 임시교량 경간목(徑間木) 공중투하작전이었다. 이 수문교는 약 1,500피트 길이의 계곡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이 교량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미 해병사단은 차량, 전차, 야포 등 각종 전투 장비를 유기하고 후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복구를 위해서는 경간목(무게 2톤, 5×2×15피트) 최소 4개가 필요하였다.

이에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는 12월 6일 경간목 1개에 G-1 낙하산 6개를 달아 시험투하 하였으나 실패하자 12월 7일 오전 9시에 C-119 8대에 각기 크기가 큰 G-5 낙하산 2개를 부착한 경간목 1개씩을 싣고 5분 간격으로 연포비행장을 이륙하여 임무지역 상공에 도착, 고도 800피트에서 공중 투하하였다. 이중 1개는 중공군 주둔지역에 떨어졌고, 1개는 파손되었으나 6개는 안전하게 투하되어 교량을 가설할 수 있었다. 12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파괴된 수문교에 임시교량이 가설되자 미 해병 제1사단의 철수가 시작되었고 12월 11일 최종적으로 전차중대가 수문교를 통과하자 새벽 2시에 가교를 폭파하였다.

마침내 12월 8일 맥아더 사령관에 의해 미 해병 제1사단을 포함한 미 제10군단의 흥남을 통한 전면적인 철수 명령이 하달(작전명령 5호)되었으나,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중공군의 추격을 우려하여 철수 시 최대한 공수 전력을 활용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는 연포비행장을 활용하여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약 320톤의 화물을 먼저 수송하였고, 미 제10군단에 대한 본격적인 철수지원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어 공산군이 연포비행장에 근접한 12월 17일 오전 9시에 종료되었다. 미 제10군단 철수지원을 위해 4일간 전투공수사령부는 가용인원과 수송기를 총동원하여 약 5분 간격으로 1일 24시간 동안 수송기를 이륙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4일 동안 393회 출격하여 부상자 228명, 병력 3,891명, 화물 약 2,088톤을 부산, 대구 등 후방지역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12월 11일 연포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에게 제10군단의 해상을 통한 흥남 철수 계획이 보고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성진에서 서호진에 상륙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국군 3사단이 상륙을 취소한 채 서호진을 방어 중이던 수도사단 제18연대를 승선시킨 후 부산으로 제일 먼저 철수를 시작했으며, 연포비행장과 함흥에 집결한 미 해병 제1사단은 12월 12일 탐승과 선적을 시작하여 12월 15일 오전 9시 경에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흥남 철수 작전 간 제5공군 B-26경폭격기들이 공산군의 공격으로부터 국군과 유엔군을 보호하고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와 함께 탄막을 형성하여 엄호작전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영향

유엔공군은 중공군의 2차 공세에 밀려 후퇴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안전하고도 신속한 철수를 위해 중공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엄호(근접항공지원작전, 무장정찰작전), 병력(환자 포함)의 신속한 후방으로의 공중 철수와 전투지역으로의 물자, 장비의 공중 투하(공수작전)를 실시하였다. 이 작전을 통해 유엔공군은 지상군 병력을 보호 및 보존하여 후방으로의 안전한 철수를 도모하였고 국군과 유엔 지상군이 차후 재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2010.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백구부대 작전

[白鷗部隊 作戰, 1950. 12. 4.~1951. 4. 21.]

개요

미 제6146기지부대와 한국 공군비행단 소속 일부 병력으로 구성된 백구부대가 대전기지와 여의도기지에서 1950년 12월 4일부터 1951년 4월 21일까지 수행한 후방차단 작전이다.

전개과정

미림기지에서 1950년 12월 4일 대전기지로 철수한 한국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기지부대는 대전기지 활주로의 열악한 상황(활주로가 짧고 노면이 거칠고 주기장이 없음)으로 작전이 제한된 상황이었다.그러나 대전기지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미 제6146기지부대는 잔류하여 전투임무를 계속하고 한국공군은 시급한 조종사 양성문제와 차후 안정적인 작전역량 구비를 위해 제주기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한국 공군비행단은 미 제6146기지부대의 항공작전을 지원하기 김신 중령을 부대장으로 8명의 정비지원 병력과 당시 비행단이 보유하고 있던 F-51전투기 10대 중 4대를 대전기지에 잔류시켰는데 이 부대를 일명 '백구부대(白鷗部隊)'로 불렀다. 백구부대는 조종사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요원들이 미 제6146기지부대의 출격지원을 도왔다.

1950년 12월 24일 F-51D(제18호기)에 대한 출격지시가 제5공군으로부터 하달되었고 헤스(Dean E. Hess) 중령은 기관총과 로켓, 폭탄으로 무장하고 이날 해질 무렵 단독 출격을 실시하였다. 12월 중 미 제6146기지부대는 총 39회를 출격을 실시하였고, 2대의 F-51 항공기 손실이 있었다. 해가 바뀐 1951년 1월 미 제6146기지부대는 빈번한 항공기의 정비요구와 부대원의 분산배치로 작전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총 37회의 전투출격을 실시하였고, 2월에는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등의 임무를 총 65회 실시하였다. 2월 중에도 F-51 1대가 이륙 후 기지 근방에서 불시착하는 사고로 완파되었다.

백구부대가 대전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전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중공군의 신정공세(3차 공세)로 1951년 서울이 함락되었고 1월 24일에는 중공군이 오산남방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K-16), 김포(K-14), 수원(K-13) 비행장이 공산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이로써 대전기지는 전선에서 가장 인접한 비행기지가 되었다.

이에 패트리지 장군은 전방작전기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전 기지를 사수 할

것을 헤스 중령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3월 27일 백구부대 및 미 제6146기지부대가 여의도기지로 이동할 때까지 대전기지는 미 제6146기지부대 전투비행기지 및 미 공군의 전방 보급품 수송기지로 활용되었다.

유엔 지상군이 반격에 성공하고 3월 14일 서울이 재탈환되자 헤스중령은 미 제 5공군사령부에 여의도기지로의 이동을 요청하여 3월 22일 미 제6146기지부대의 여의도기지 전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자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동은 비행기는 공로로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였고, 병력과 장비, 탄약, 유류 등은 육상으로 이동하여 3월27일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때 대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백구부대도 여의도기지로 미 공군과 함께 전개하였다.

1951년 3월 31일 제주기지에서 F-51D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친 공군비행단 제11전투비행중대 조종사 4명(오춘목, 이강화, 이세영, 최종봉 대위)가 미 제6146기지부대 조종사들과 합동 출격을 위해 여의도기지에 도착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요원 23명이 4월 2일 도착하게 되자 4월 3일부터 출격을 시작하였다. 이들 백구부대 조종사들은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120회 출격하였다.

4월 3일 최종봉 대위와 헤스 중령이 편대로 출격하여 평강 북쪽 신대리 적 후방보급로를 차단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는 북한 서북부 지역 주요 보급로 차단작전에 주력하였고, 4월 11일부터 21일까지는 중부 및 서부전선의 보급로, 보급품집적소, 차량, 군용시설 등의 군사표적을 공격하였다.

1950년 12월 4일 미림기지에서 대전기지로 이동 후 1951년 3월 27일 여의도기지로 전개하여 4월 21일까지 백구부대와 미 제6146기지부대가 거둔 전과는 총 261소티를 출격하여 북한군 및 중공군 병력 181명을 사살하고 우마차 35대, 트럭 88대, 군용시설 104동, 보급품집적소 7개소, 연료보급소 5개소, 탄약 저장소 1개소를 파괴하였다.

결과 및 영향

대전기지와 여의도기지에서의 한국 공군 백구부대와 미 제6146기지부대의 작전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국군과 유엔지상군이 서울을 재점령 당하고 후퇴하는 상황과 비행기지의 열악한 환경과 작전 여건 속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을 통해 공산군의 병력과 장시, 시설을 파괴하는 전과를 수립함과 아울러, 한국 공군이 제주기지에서 차기 작전 수행을 위한 조종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패역할을 했으며, 또한 작은 규모의 작전이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 이동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 항공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북한 비행장 폭격

[北韓 飛行場 爆擊, 1951. 4. 17.~7. 9.]

개요

미 극동공군 소속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가 1951년 4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북한 및 중국 공군의 북한지역 내 비행장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복구와 작전화가 임박한 북한 비행장을 위주로 실시한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비행기지(Air Base, Airfield)는 항공작전의 시작이며 종결점이다. 즉 비행기지에서 항공기가 이륙하면공군작전은 시작되고 기지에 착륙하는 순간 작전은 종료되는 것이다. 임무지역에서의 작전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임무항공기가 비행기지로 돌아오지 못하면 작전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공군작전에서 비행기지의 존재와 생존능력은 항공작전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요소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공군은 개전 초 비행장 모두가 유엔공군의 폭격에 의해 운용 불능 상태가 됨으로써 와해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소련 공군은 지상 작전부대의 원활한 지원과 공군 작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내의 비행장 복구와 건설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중공군이 1, 2차 공세로 대부분 북한지역을 수복하자 1950년 12월 중순 북한지역 내 파괴된 비행장 복구를 결정하였고 우선적으로 1951년 1월부터 중국의 안둥(安東)기지에 인접하여 MiG-15기의 공중엄호가 가능한 청천강 이북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비행장부터 복구 및 건설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움직임에 대하여 1951년 2월부터 면밀할 감시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극동공군 정보 분석관들은 4월 초 공산측이 건설된 비행장에 항공기를 이동시킬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 보고를 접한 스트레이트마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 브릭스(James E. Briggs) 준장에게 이들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브릭스 준장은 공산군의 대규모 노동력 투입에 의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규모 병력 투입에 의한 보수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행장의 작전화가 최대한 진전된 시점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공격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있었다.

드디어 1951년 4월 16일 이들 비행장을 공격할 시기가 되었다는 보고가 정보 분석관으로부터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전달되었고, 극동공군사령관은 4월 17일부터 공격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MiG기의 공중공격이 염려되었지만, 다행히 4월 22일 수원기지로 제336요격비행대대 소속 F-86기가 이동전개함에 따라 기존 제334요격대대 F-86기와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고 미그회랑지역에서의 공중우세를 유엔공군이 장악하여 북한지역 비행장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일 평균 12대의 B-29기가 출격하여 평양비행장(K-23), 미림비행장(K-24), 안악, 사리원, 강동, 연포, 함흥, 신막, 순안 비행장 활주로에 지연신관 폭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폭파구를 형성하여 무력화하였다. 이 기간에 B-29중폭격기는 물론 제5공군 소속 전폭기들도 수차례 이들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반복하였고 B-26경폭기는 야간동안의 보수작업을 좌절시키고자 야간공습을 지속하였다.

중국 및 소련 공군기들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들 비행장 공격에 대해 유엔공군조종사들은'오리사냥(Shooting sitting ducks)'으로 비유하였고, 4월23일부터는 폭격사령부 B-29기를 병참선차단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안둥비행장에 주둔한 소련 MiG-15기의 완벽한 엄호 하에 있는 신의주 비행장에서는 북한공군의 지속적인 비행활동과 함께 기지 및 시설확장은 물론 YAK-9기 38대를 포함한 IL-10기, LA-5기 등의 항공기 추가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던 극동공군은 5월 9일 오후 2시경 제5공군과 제1해병비행단 소속 전폭기 총 312대를 출동시켜 신의주 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안둥비행장에서 MiG-15기 약 50여 대가 이륙하여 약 18대만이 압록강을 건너왔으나 전투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스쳐지나갔다.

이날 공격은 제5공군 소속 F-84기 및 F-86기와 미 제1해병비행단 소속 F-9F(Pander Jet)기가 선두에서 공중엄호를 제공하는 가운데 제5공군 예하 제8 · 제49 · 제51비행단 소속 F-80기가 공산군 지상 대공망을 지연신관폭탄과 로켓으로 무력화하면서 제1해병비행단 F-4U(Corsair)기와 제5공군 제18비행단 소속 F-51기가 비행장 중심 10평방마일 지역에 대해 폭탄과 로켓, 네이팜탄을 발사하여 비행장에 노출된 항공기 전부와 건

물 106동을 파괴하였으며 대규모 유류저장소 1개와 보급창고 및 탄약고 등 26개소를 전소시켰다.

미 공군 정보 분석관들은 평양 시내 도심지역에서 한 직선포장도로 주변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5월 초 이것이 길이 7,000피트 폭 375피트의 견고하게 포장된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미공군 정보분석관들은 이를 평양도심비행장(Pyongyang Downtown Airfield)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제5공군은 5월 24일과 25일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경폭격기를 출동시켜 야간 감시와 함께 공습을 감행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5월 28일에는 이전 야간임무시 영유비행장(평양 서북방 25마일)에서 기종불명의 항공기 이륙하는 것이 관측되자 평양도심비행장과 영유비행장에 대해 제19 · 제307폭격비행전대 B-29기가 출동하여 이들 두 개 비행장 활주로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6월 6일 항공사진 판독결과 북한 지역내 모든 비행장이 사용불능 상태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상황 하에서 북한 비행장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잔디나 흙으로 이루어진 활주로로 1주 사이에 복구되어 경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극동공군은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 6월 14일부터 PO-2기의 활동이 계속되자 7월 초에 이르기까지 유엔공군의 북한 비행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다.

불량한 기상 때문에 6월 17일 재개된 비행장폭격임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B-29기는 거의 매일 비행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폭격을 실시했고, 제5공군 전투기들과 B-26경폭격기는 주간에 활주로를 파괴했으며 B-26은 야간에 활동이 의심되는 비행장에 대해 5회 이상 공습을 가했다. 6월 24일에는 제51비행단 소속 F-80기가 신의주 비행장을 공격하였고, 6월 26일에는 B-29기가 영유비행장에 폭격을 가했다.

7월 3일에는 평양도심비행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이 재개되어 F-84기 32대가 평양 시내 대공포를 무력화하는 동안 F-86기 33대의 호위를 받으며 B-29기 6대가 활주로에 100파운드 폭탄 850발 이상을 투하하였다. 7월 9일에는 F-51편대가 강동비행장을 공격하였고, 7월 9일에는 제19폭격전대 B-29기 6대가 신안주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7월 12일이 되자 PO-2를 포함한 모든 비행활동이 일시 중지 되었고 비행장 복구활동도 중지되었다.

4월 이후 7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유엔공군의 북한비행장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집중적인 공격은 중국과 소련공군의 북한 내 진입을 좌절시켰고 결국 4월과 5월의 중공군의 춘계공세에도 북한군과 중국 지상군이 소련 및 중국공군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 및 영향

이 작전을 통해 미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어 작전화가 임박한 북한 비행장을 거의 매일 폭격하여 MIG-15와 같은 제트항공기는 물론 PO-2와 경비행기조차 작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중국, 소련 공군은 북한 지역 내에서의 진입과 작전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중국과 북한 지상군에 대한 공군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향후 공세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중공군 제3차~제5차 공세 시 병참선 차단작전

[中共軍 第3次~第5次 攻勢 時 兵站線 遮斷作戰, 1951. 1. 19.~5. 30.]

개요

미 극동공군 소속 제5공군 및 폭격사령부가 중공군의 제3차~제5차 공세 시기인 1951년 1월 19일부터 제5공군이 단독으로 교통로 차단작전인 스트랭글 작전(Operation Strangles)을 시작한 5월 31일 이전인 5월 30일까지 후방으로부터 전선으로 인원과 장비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1월 1일 새벽 38°선 돌파를 목표로 3차 공세(신정 공세)를 시작한 북한군과 중공군이 1월 4일에는 서울을 점령하자, 국군과 유엔 지상군은 1월 7일 예비방어선으로 설정하였던 37°선인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하여 그 곳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E.Stratemeyer)을 비롯한 지휘부는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을 맞아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서는 적 후방으로부터 전선으로 연결되는 병참지원선을 파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 극동공군은 1950년 12월 15일에 수립된 극동공군사령부의 항공차단작전계획 제4호에 기초하여 1951년 1월 둘째 주부터 항공차단작전을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북한전역을 11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모두 172개소의 파괴 대상목표를 선정,

식별부호를 부여하였는데, 통틀어 철교 45개소, 교량 12개소, 터널 13개소, 철도조차장 39개소, 보급소 63개소가 있었다.

스트레이트마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북한의 서북부와 중부 국경에 이르는 모든 철교와 철도조차장을 가용전력을 모두 동원하여 파괴할 것을 폭격사령부에 지시했고, 제5공군 전폭기들은 중부전선과 연결된 모든 주요 철도와 간선도로의 교량을 파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하여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북한 중부와 북서부의 모든 목표에 대해 6 · 25전쟁 기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차단작전을 실시하였고, 이 기간에 80개소 이상의 철도와 도로를 공격하여 파괴하였으며, 철도조차장, 보급소와 같은 기타 표적도 공격하였다.

이러한 미 극동공군의 북한 서북부의 주요 수송로에 대한 공격으로 이 지역으로의 수송이 불가능해지자 공산군은 동부지역 해안에 인접한 철도와 도로로 전환하여 보급품수송을 계속하였는데, 1월 24일 동해안의 길주와 청진 철도조차장에서 500량 이상의 철도화차가 발견되었고, 2월 초에는 회령에서 청진, 함흥, 원산에 이르는 함경선 철도를 따라 대규모 중공군이 이동이 식별되었다. 2월 1일 이 지역에 대한 폭격을 명령받은 제307폭격전대 B-29기는 주을-온천-홍원-단천에 이르는 9개 철교의 교량을 폭격하여 경간을 파괴하였다.

2월 6일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은 극동공군에게 북한 중부와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과 중공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고, 2월 7일 폭격사령부는 교량, 도로교차점, 터널입구를, 제5공군은 이동 혹은 정지 중인 철도화차에 대한 공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사령부 예하 B-29기는 강계와 장진사이의 표적을 공격하여 동해안 초리 근교의 철교를 파괴하였고 제5공군 B-26경폭기는 교량 4개소와 함경선의 유개화차를 공격하였다.

2월 8일에도 B-29기는 독실리-고무산-주을-온천 상의 철도 교량 및 철도와 병행하여 설치된 도로를 폭격하였고 제5공군 B-26기는 함흥 조차장에 계류된 화차를 공격하였으며, F-51과 F-80 전폭기는 길주 근교의 교량 7개소와 터널 11개소를 파괴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2월 9일에는 MPQ-2레이더에 의해 유도를 받는 B-29폭격기 단독으로 함흥조차장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2월 초 제5공군은 청천강 이북 신의주 지역에 대한 항공차단작전을 위해 폭격사령부의 B-29폭격기를 엄호하는 임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제5공군 전폭기로 직접 차단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 주 동안 제5

공군 전폭기로 차단작전을 실시한 결과 전폭기로는 MiG-15기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유용하였으나, 표적 파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2월 26일 극동공군사령부에 요청하여 B-29중폭격기 엄호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폭격사령부는 3월 1일부터 항공차단계획 4호(Air Interdiction Campaign No.4)의 최우선 순위인 신의주 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에 B-29기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되었던 해군 함재기들이 지상군 전세 호전에 따라 2월 16일부터 차단작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서부 및 동부에 이르는 전 지역의 차단목표에 대한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극동공군과 해군은 동시에 이들 전 지역 표적에 대한 차단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2월 20일에는 해군함재기와 해상 함포의 협동공격으로 동해안 공산군 철도선에 대한 대대적인 차단작전이 실시되었고, 해군은 3월 8일에 동해안지역 차단목표가 모두 파괴되었으며 차단작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폭격사령부는 미 해군이 차단작전을 담당하고 있던 동부 일부 지역 내에 교량 60개소, 조차장 39개소, 보급 및 수송본부 35개소에 대한 차단책임을 지고 있었고, 폭격사령부 예하 제98폭격전대에서 1일 24회, 제19, 307폭격전대가 각각 12회씩 하루씩 분담하여 도합 이틀간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차단 작전을 수행하였다.

폭격사령부의 만포진 이남의 주요 교량에 대한 파괴 작전은 3월 중에 주기적으로 지속 실시되었으나 3월 1일 고군영에서 MiG-15기의 공격으로 B-29기 10대가 손상을 입은 후에는 신의주 근방의 차단목표에 대한 B-29기의 공격을 중지하였다. 신의주 근방 표적에 대한 공격은 F-86기 전투기가 MiG-15기에 대해 공중우세를 확보하게 된 3월 23일 재개되어 제19 · 제307폭격전대 B-29기 3개 편대가 신의주와 신안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3대 요충인 고군영, 곽산, 정주의 주요 철교를 폭격하였다. 다음날에도 만포진 남쪽의 2개 철교와 희천, 군우리, 숙천의 교량을 폭격하여 만포진에서 신의주간을 연결하는 철도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차단작전에 맞선 공산군은 대단한 복구능력을 과시하였는데, 신안주에 청천강을 횡단하는 3,500피트의 철교의 경우, 1951년 1월에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이 철교의 경간 수개를 폭파하였는데, 공산군은 2월 4일 차량통행이 가능한 보조교량을 건설하였다. 또한 3월 1일 B-29기가 이 보조교량 경간 몇 개를 폭파하였으나 공산측은 3월 12일 이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3월 24일에는 보조교량 측면으로 또 다른 우회통로를 만들었으며, 3월 26일에는 보조교량으로 수송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보수능력은 차단작전을 지루한 양상으로 이끌었다.

1951년 3월 하순이 되면서 압록강이 해빙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3월 27일 폭격사령관에게 압록강상의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교량을 다시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5차례 실시된 B-29기의 신의주, 청성진, 만포진 등의 교량 공격에서 3월 30일에 청성진 인도교 교량 경간 2개를 파괴하고, 4월 7일에는 의주 인도교를 파괴하였으나, 신의주 철교는 4월 12일 재차 공격에도 불구하고 파괴할 수 없었다.

이후 스트레이트마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B-29기의 신의주 철교 공격을 다시 중지시켰는데, 이는 B-29기의 희생을 고려한 것이었다. 4월 9일까지 폭격사령부가 거둔 차단작전의 성과는 교량 목표 60개 중 48개, 철도조차장 39개소 중 27개를 사용불능 상태로 파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 4월 14일까지 B-29기 8대와 탑승 승무원 전원이 손실되었고, 전투 중 파손되어 임무 중지한 항공기를 제외하면 4월 14일 당시 작전가능 B-29기는 75대에 불과하였다. 이에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공군본부에 인가전력 99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미 공군 참모총창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1일 12회를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사령부의 B-29기 운영은 1일 1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시되었으나 4월 22일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가 시작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1일 18회로 B-29기의 출격횟수를 늘이면서 우선순위를 첫째 공산군비행장, 둘째 지상군 근접지원, 셋째 차단작전으로 정하였다. 4월과 5월의 폭격사령부의 차단작전은 1일 출격제한과 임무우선순위에 밀려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임무자체가 중지된 것은 아니었고 5월 중순 이후에는 철도, 교량, 도로 차단임무는 제5공군에게 이양하고 철도조차장, 보급소 및 수송 중심지역의 차단임무에만 전념하였다.

한편 제5공군은 2월 이래 수송로와 병참지원선 차단을 위해 보유 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몰두하여 제452폭격비행단 소속 B-26경폭격기들은 원산-평양선 이남의 경량급 철교에 대해 낙하산 부착 저고도 폭발 신관폭탄으로 공격하였고 잔여 전폭기들은 3월 중에 한반도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철도선 상의 많은 터널을 500파운드 및 1,000파운드 지연신관폭탄을 사용하여 공격하여 은닉된 장비와 인원을 살상하였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공군은 후방으로부터 전선으로의 장비와 병력의 증원을 차단하고자 철도, 교량, 터널, 보급품집적소 등을 공격,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및 북한 지상군은 병력 손실은 물론 장비, 물자의 보급에 직접적인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공군의 공세를 둔

화시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여건을 조성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중공군 제3차~제5차 공세 시 수송수단 폭격작전

[中共軍 第3次~第5次 攻勢 時 輸送手段 爆擊作戰, 1951. 1.~6.]

개요

미 극동공군 소속 제5공군과 미 제1해병비행단 소속 VMF-513 해병비행대대가 중공군의 제3~제5차 공세 시기인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송수단인 철도 화차 및 트럭을 파괴하여 전선으로 이동하는 인원, 장비, 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중공군과 북한군의 보급물자 수송수단은 철도 화차와 트럭(소련제 GAZ-51)이외에도 전근대적이지만 우마차, 손수레, 노새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주 수송수단은 철도 화차와 소련제 트럭을 이용하였는데 철도 화차 1대 화물적재량은 20톤이며, 트럭은 2톤가량 적재 가능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각 사단이 야전에 필요한 보급품은 1일 유류 8톤, 식량 10톤, 탄약 30톤과 기타 보급물자를 포함하여 총 48~50톤으로 추정되었고, 1950년 12월 말 기준 북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공군에 대한 1일 소요보급량은 총 2,000톤으로 화차로는 100대분, 트럭으로는 1,000대분에 달했다.

공산군의 재편성과 보급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참지원선의 차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송수단의 파괴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공중식별에서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이동을 하였고 주간에는 차량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공습이 용이하지 않았다.

물자보급차량에 대한 공격임무는 제5공군에게 부여되었다.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 장군은 주간에는 전폭기를 이용한 무장정찰임무를 통해, 야간에는 주로 B-26기의 야간정찰 및 공습 임무를 확대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1951년 1월 중 공산군수송차량에 대한 무장정찰 주 전력인 F-80기와 F-84기가 일본 이다즈케(板付) 기지에서 발진함으로써 임무지역 체공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는 상황에

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이동 차량 식별을 위해 먼저 적진에 T-6기를 침투시켰다. 그러나 공산군의 대공 포화에 노출됨으로써 공격성과가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2월 둘째 주에 제5공군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폭격선 이북 50마일 지역을 3개 무장정찰구역으로 나누어 제18 · 제35비행단과 미 제1해병비행단에 각각 1개 구역씩을 할당하였다. 이들 3개 비행단은 F-51과 F-4U(Corsair)전투기에 담당구역 상공을 초계하도록 하고 이동표적이 발견되면 이를 공격하게 했다.

이는 각 부대가 할당된 구역 및 도로에서 임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임무 조종사들이 지형숙지와 표적식별을 용이하게 하였고, 매일 아침 임무 전 야간정찰을 통해 식별된 이동표적목록을 배부하여 임무조종사에게 숙지하게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월 12일 새로운 무장정찰 및 이동표적 파괴 작전이 시작될 무렵, 공산군은 원주와 횡성을 있는 축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였고 이들 전선에 대한 보급품 조달을 위해 주간에도 필사적인 차량 수송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제5공군 F-51기들은 2월 13일 횡성 지역에서 차량 236대를 완파하고 83대를 파손시켰고 제49전대 소속 F-80기도 차량 40대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월 초 제5공군은 연료소모율로 인해 무장정찰구역에서 초계비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제트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45전술정찰대대 소속 RF-51 정찰기를 차량집결 예상지점에 미리 출격시켜 10마일 반경의 지역을 선회탐색 후 차량표적이 발견되면 F-80기와 F-84기를 이 지역으로 유도하여 차량을 공격하는 써클-10(Circle-10)작전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F-80기와 F-84기 조종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작전성과도 매우 좋았다.

이 기간 차량공격에 가장 높은 전과를 보인 것은 로저스(Turner C. Rogers) 대령이 지휘하는 제18전폭전대 소속 F-51기로 부대 조종사 전원에게는 제5공군사령관인 패트리지 장군이 '제5공군 트럭 파괴 영웅(Ace Truck Busters of the 5th Air Force)'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공산군이 2월 이후 유엔공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대공포를 현저히 증강하기 시작하자 유엔공군기 특히 F-51기에 대해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제5공군은 4월 15일부터 모든 작전에 RF-51 정찰기 2대를 발진시켜 1대가 지상을 정찰하는 동안 다른 한 대는 고공에서 공산군의 대공포진지를 감시하게 하였고 F-51기 무장정찰 편대는 4기 편대로 구성하여 1개조가 300피트 저공에서 표적을 확인하면 다른 1개조는 3,000피트 상공에서 공산군의 대공진지를 제압하고 공산군 전투기 내습에 대비하는 작

전을 구사하였다.

5월에 접어들면서 중공군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병참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수송망과 수송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대공화기를 증강시키고 있으며, 37mm M-1939 자동대공화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 제5공군은 5월 중에 공산군이 보유한 대공포 252문, 대공자동화기 673정의 위치와 함께 대공포가 주로 고정시설 주변에 배치되고 M-1939 자동대공화기는 트럭에 탑재하여 주보급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유엔공군기에 대해 사격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산군의 대공위협 증가는 6월까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제5공군은 무장정찰편대의 경우 전력을 증가하여 출격하였다. F-51기는 4월 이후 지속된 4기 편대를 계속 유지하였고, F-80기는 기만비행과 고고도 비행을 통해 대공 포화를 회피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공산군의 대공방어능력 증강은 유엔공군의 피해로 이어졌는데, 3월부터 6월까지 대공포에 의한 제5공군 항공기 손실은 81대에 이르렀고 저공에서 장시간 이동 차량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제5공군의 이동차량 파괴 작전 환경은 점차 악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5공군은 이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공산군의 수송차량 약 14,500여 대를 파괴 또는 손상시켜 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물자를 차단함으로써 공산군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주간 무장정찰에 의한 수송수단 차단작전과 병행하여 철도 화차와 트럭의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시간대 차단임무도 시행되었다. 야간시간대에 철도 화자와 수송차량 차단임무는 제5공군 소속 B-26경폭격기와 미 제1해병비행단 소속 VMF-513 해병비행대대 F-4U기와 F7F-3N(Tiger cat)기가 담당하였다. 제5공군 제3폭격비행전대는 1950년 8월 이래 수송차량 차단작전을 시행하고 있었고,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1950년 추계작전 기간에 F-4U기를 이용하여 일본 이다즈케(板付), 원산, 연포기지에서 야간 폭격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들 부대의 임무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1951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일본 이와쿠니(岩國)에 주둔하고 있던 제3폭격비행단은 야간공습, 지상군 지원 및 고정표적에 대한 레이더 유도공격 등 야간임무 수행을 위해 매일 38회의 출격을 지시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함에 따라 일본 주둔기지와의 통신문제가 발생하고 대구기지에서의 유류공급과 폭탄공급이 불충분하여 대구기지 활주로의 철제포장판(Pierced Steel Plank)에 B-26의 바퀴가 파열되는 등 만족할 만한 작전성과를 얻기는 곤란한 실정이었다.

지상의 전투 국면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제5공군은 제3폭격비행단에 4월 23일부터 일

일 야간 출격회수를 48회로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3비행단은 작전요구 충족을 위해 대구에서 야간에 1일 2회 출격하였다. 첫 번째 출격편조에는 차단작전을, 두 번째 출격편조에는 지상군 근접지원임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구형인 F-4U기를 F7F-3N기로 교체한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부산기지(K-1)에서 1일 24회(야간공습 18소티, 야간초계 6소티) 출격하였다.

야간 이동표적공격 성공의 관건은 표적의 식별(위치, 이동방향, 이동속도 등)과 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야간에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육안에 의한 식별이었다. 따라서 조종사의 시계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조명탄 투하만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제5공군은 C-47이 선도하여 조명탄을 투하하면 이를 이용해 B-26폭격기가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이전부터 진행해 왔는데, 1951년 1월 C-47기에서 야간 조명이 성공하자 제3폭격비행단은 조명탄 투하용 C-47기(Firefly) 6대를 마련하고 대구기지에 배치하였다.

2월부터 C-47기의 야간조명지원을 받는 B-26기의 야간 이동표적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야간 이동차량의 바퀴에 손상을 주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이튿날 아침에 공격할 목적으로 C-47기를 이용하여 도로상에 쇠못을 살포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저속이며 비무장인 C-47기가 공산군 후방 깊숙이 침투할 수 없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제3폭격비행단은 2월과 3월 두 달간에 걸쳐 B-26기에 MARK-VI 조명탄과 100파운드 폭탄을 운반하고 투하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B-26기들은 전에 없이 밝은 조명하에서 폭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명탄의 불발율은 감소되지 않았다.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경폭격기의 경우 평야지대가 많은 서부지역에서는 1,500~2,000피트 상공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산악지대인 동부지역에서는 대개 5,000~6,000피트에서 진입을 시작하여 1,500~2,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으나, 이러한 사격거리는 정확도를 기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제3폭격비행단의 B-26이 북한 북부지역에서 차단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해병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3월 1일부터 C-47기와 F-4U기 및 F-7F기 합동으로 전선에 인접한 주보급로에 대한 야간 차단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부산비행장에서 교대로 출격하여 약속된 도로 상공에서 대구에서 출격한 C-47(Firefly)기와 합류하여 공산군 차량을 탐색 후 급강하하여 로켓, 네이팜, 파열폭탄으로 차량을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공산군의 대공포진지 공격에는 목표 상공에서 1시간 30분 동안 체공하면서 500파운드 근접신관을 사용하여 공격 후 다음 임무 편조와 임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차단임무

를 수행하였다.

극동공군 제3폭격비행단과 미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5월까지의 차단작전을 지속 시행하였고 3폭격비행단은 4월에 기관차 16대, 차량 227대를, 5월에는 기관차 5대, 차량 629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며,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3개월 동안 차량 11,980대를 공격하여 그중 1,420대를 파괴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5공군은 야간 폭격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5월 23일 제452폭격비행단을 부산수영기지(K-9)로 이동하여 배치하여 6월부터 작전에 투입하였다. 6월에도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C-47기와 합동으로 평양 남쪽 4개 도로상의 이동표적을 공격하였으며 원산 남쪽 도로상의 이동표적을 공격할 때에는 PB-4Y기의 조명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6월 중에 제3폭격비행단은 작전을 통해 차량 403대를 파괴하고 1,048대에 손상을 주었고 제452폭격비행단은 차량 151대를 파괴하고 224대에 대해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결과 및 영향

이 작전을 통해 제5공군은 약 1만 5,500대 이상의 화차 및 차량을 파괴하거나 파손했으며, 미 제1해병비행단 예하 VMF-513 해병비행대대는 3월부터 5월까지 1,420대를 파괴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전선으로의 보급품과 장비, 병력의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투 여건을 악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켜 중공군의 공세를 둔화시켰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유엔군 재반격작전 시 근접항공지원작전

[유엔軍 再反擊作戰 時 近接航空支援作戰, 1951. 1. 25.~3. 17.]

개요

미 극동공군 소속 제5공군이 1951년 1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공군 개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유엔 지상군의 재반격 작전인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up), 킬러작전(Operation Killer), 리퍼작전(Operation Ripper)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 및 중동부 전선에서 시행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이다.

전개과정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전 전선에서 진격을 중지하고 중동부 전선으로 주공을 전환하여 중동부 전선의 전략 요충지인 원주를 점령하려는 기도를 1951년 1월 12일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5군단을 격퇴함으로서 좌절시켰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1951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에 지시하여 제한적인 위력수색작전인 울프하운드 작전(Operation Wolfhound)을 시행, 적정을 파악하였다. 작전 결과 서부전선인 수원-여주 이남 지역에는 소규모 중공군만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월 25일을 기해 미 제1 · 제9군단이 한강 이남지역에 대한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인 썬더볼트작전(Operation Thunderbolt)을 개시하자 제5공군은 이들 2개 군단에 근접항공지원역량을 집중시켰다.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의 썬더볼트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5공군은 대구동촌비행장(K-37)에 주둔 중이던 미 공군 제6147전술항공통제대대 소속 모스키토(T-6) 전술항공통제기를 대전기지로 전진 배치하였다. 이로써 모스키토기는 전방 작전지역에서 3시간 동안 체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합동작전본부(JOC) 및 제5공군 전술항공통제본부(TACC)와의 통신망 연결을 위해 전선과 대구기지 간에 1월 26일부터 고주파(VHF) 20개 채널을 중계할 수 있는 C-47 공중중계기를 체공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모스키토 항공통제기는 전선 20마일 후방에 체공하면서 이동하거나 은거 중인 공산군을 발견하여 SCR-300무전기로 지상군부대 및 전투비행부대와 연락하여 전폭기를 표적지역으로 유도하고 전술항공통제반(TACP), 전술항공통제소에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활약은 공산군의 공세 예봉을 꺾는데 대단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월 3일 래빈(Edwin W. Lavigne) 대위가 조종하는 모스키토기는 미 제25사단 진로상의 대규모 공산군 병력을 발견하고 약 2시간 동안 체공하면서 10개 전폭기 편대를 안양, 인천, 영등포 지역으로 유도하였고, 2월 6일에는 윌킨슨(Dorrence E. Wilkinson) 대위가 양평 인근에서 대규모 병력의 공산군을 발견하여 F-84기 4대, F-4U기 6대, B-26기 6대를 공산군 병력집결지점으로 유도, 공격을 감행하게 하여 약 3,000명 이상의 공산군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서부전선에서 강력한 유엔군의 반격을 맞은 공산군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동부 전선의 홍천을 점령하기로 결정하였고, 리지웨이 장군은 2월 5일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up)을 개시하여 미 제10군단에게 북한군 제2군단을 섬멸하고 북진하여 홍천-대관령-강릉 선을 회복할 것을 계획하고, 2월 10일 이후 리지웨이 장군은 미 극동공군에 근접항공지원의 최우선을 미 제10군단에 할당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 미 제1 · 제9군단을 지원했던 항공전력 대부분이 중동부 전선 지원으로 임무를 전환하게 되었다. 2월 12일 공산군이 횡성지역의 한국군을 공격하자 오전에는 에딘버그(Aubrey C. Edinburgh) 중위가 조종하는 모스키토기는 공산군 병력 약 400여 명을 발견하고 F-4U, F-80기, F-84기, F-51기 등 5개 편대의 네이팜탄 및 로켓공격을 유도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윌키스(Charles R. Wilkis) 중위가 조종하는 모스키토기가 공산군에게 봉쇄되어 있는 한국군 1개 대대를 발견하고 전폭기 3개 편대를 유도하여 포위망을 벗어나게 했다.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지평리 전투에서도 모스키토기는 매일 10회 이상 출격하여 모든 종류의 전폭기를 유도하여 미 제23보병연대와 프랑스 대대를 포위한 공산군을 격멸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투가 종료된 후, 미 제2사단장인 루프너(Ruffner) 장군은 지평리 방어진지에 연결된 경사면에서 네이팜탄에 의해 이제껏 보지 못한 많은 공산군 병력의 시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중공군의 4차 공세(1951. 2. 11.~18.)는 중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실패를 하였으나, 동부 산악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제천까지 내려왔다. 리지웨이 장군은 동부산악지역으로 침투하여 양평-횡성-평창선 이남에 배치된 공산군을 격멸시키기 위해 미 제9 · 제10군단을 동원한 킬러(Killer)작전을 전개하였다.

킬러작전 기간(1951. 2. 21.~3. 6.) 동안 유엔 지상군의 차량과 기동장비를 이용한 뛰어난 기동성과 유엔공군의 적시적인 공중공격으로 병참선과 통신선이 지나치게 확장된 공산군은 커다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2월 22일 서울 동북쪽에서 모스키토기는 전투기 11개 편대를 유도하여 공산군 약 1,000여 명을 살상하였고, 2월 25일에도 횡성 부근 참호 속에 매복한 채 국군 6사단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던 공산군 병력을 발견하고 전폭기 7개 편대를 유도하여 약 200여 명을 사살하고 약 300여 명을 부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2월 24일~26일에는 평창지역으로 진격하는 미 제7사단에 대해 15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킬러작전의 성공으로 한강선 이남에서의 공산군을 완전히 격멸한 유엔 지상군은 해빙으로 넓어진 서울 방향 한강 정면을 도강하기 보다는 중부지역에서 바로 북상하여 서울 동부지역으로 우회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공산군을 서울 이북으로 몰아내기 위해 3월 7일부터 미 제9 · 제10군단을 동원한 리퍼작전(Operation Ripper)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의 결정적 단계는 미 제9군단 예하의 제25보병사단이 공산군의 포화를 과감히 제치고 서울 동부 15마일상의 남 · 북한강의 합류지점에 교두보를 설치하는 초기작전단계로 3월 7일부터 1주일 동안 제5공군은 1일 평균 182소티를 근접항공지원에 할당하였

고, 미 제25사단의 도강 시에 집중적으로 575소티를 지원하였다.

3월 14일 공산군이 별 저항 없이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했고 미 제8군이 3월 15일 홍천을 점령하자 공산군은 전 전선에서 퇴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은 매일 1,000소티 이상의 출격을 감행하여 북상하는 공산군을 공략했다. 3월 16에는 홍천에서 북상 후퇴하는 공산군 병력 1,200명을 발견한 모스키토 2대가 전투기 6개 편대를 유도하여 600여 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에 대해서는 부상을 입혔다.

결과 및 영향

제5공군은 유엔군 재 반격작전 기간인 1951년 2월에 3,002소티, 3월에 5,405소티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국군과 유엔 지상군이 이를 극복함과 아울러 중공군의 4차 공세를 격퇴하고 서울을 재 수복하여 향후 작전을 통해 38°선을 확보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문산 지역 공정작전

[文山 地域 空征作戰, 1951. 3. 23.~27.]

개요

미 극동공군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 예하 제314공수비행전대 및 제437공수비행단이 1951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북한군 제1군단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배후 지역인 문산 지역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과 장비, 물자를 공중 강하시키기 위한 공수작전이다.

전개과정

미 제8군사령관은 임진강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는 북한군 제1군단의 3개 사단이 공격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북한군은 후퇴할 경우 반드시 임진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임진강의 도하지점만 차단하면 병력 대부분을 포위 섬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8군사령관은 리퍼 작전을 확대하여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3월 21일 이들의

후방지역에 공중 투하하고, 미 제1군단으로 적을 압박해 격멸한다는 개념의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이 작전을 '용기작전Operation Courageous)'으로 명명했다.

제8군사령관은 22일 오후 5시 30분에 제187공정연대전투단장, 공군 장성들, 제8군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작전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8군사령관은 작전참모 머제트(Gilman C. Mudgett) 대령의 건의에 따라 23일 오전 9시에 공정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토마호크작전Operation Tomahawk)'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문산 지역 공정작전 임무부부대인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투하를 위해 미 극동공군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 예하 제314공수비행전대 C-119기 80대와 제437공수비행단 C-46기 55대가 대구기지에 집결하였다.

3월 23일 6 · 25전쟁 중 두 번째 공정작전이며, 일일 최대 규모인 토마호크(Tomahawk)작전이 문산 지역에 시작되었다. 우선 오전 7시까지 제187공정연대전투단 공정요원들이 C-119기 78대와 48대의 C-46에 탑승을 완료하자오전 7시 30분 제315전투공수비행사단장 헤네브리(John P. Henebry) 준장이 탑승한 선도기가 이륙하였고 뒤를 이어 제5파로 나뉘어 수송기의 이륙이 시작되었다.

이 시각 일본 기지에서 출격한 제5공군 소속 제452폭격비행단 소속 B-26폭격기 32대와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기 24대는 각각 서울과 문산에 이르는 도로지역과 강하지역 주변의 공산군 병력과 대공진지 소탕에 나섰고 수송기가 공산군지역 상공에 도착하자 16대의 F-51기가 엄호를 시작하였다.

이날 일몰 전까지 C-119기 72대는 공정요원 2,011명과 보급품 204톤을 투하했고, C-46기 48대는 공정요원 1,436명과 탄약, 식량, 통신 장비 등 15.5톤을 공수투하 하였다. 이날 작전의 손실은 공정요원 강하 시 착지부상 84명, 전투 부상 18명, 강하 중 공산군의 사격에 의해 1명이 사망하였고, C-119기 5대가 공산군의 지상화기에 의해 경미한 손실을 입었으며 1대가 대공포에 의해 손실되어 정 · 부조종사 2명이 사망하였다.

3월 23일의 작전 후속조치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에 대한 보급품 공수가 실시되었는데, 3월 24일에는 C-119 36대가 병력 40명과 보급품 187.7톤을, 3월 26일에는 C-46기 4대가 보급품 10톤을, 3월 27일에는 C-119기 12대가 65.8톤을 공중투하 하였다.

결과 및 영향

문산지역 공정작전이 시행된 4일 동안 미 극동공군은 C-119 수송기 120대, C-46 수송기 52대를 동원하여 미 제 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 3,487명과 물자 482톤을 공수투하 하였고,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작전을 통해 공산군 136명을 사살하고, 149명

을 생포하였다. 그러나 공정작전이 시행되기 이전에 북한 제1군단 병력 대부분이 임진강을 건너 북쪽으로 이동한 상태로 계획된 대규모 병력 살상이라는 작전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중공군 춘계대공세 저지 항공작전

[中共軍 春季大攻勢 沮止 航空作戰, 1951. 4. 22.~5. 21.]

개요

미 극동공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제5차 공세) 기간인 1951년 4월 22일부터 5월 21까지 국군 및 유엔군 지상군을 지원하여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수행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된 킬러작전(Operation Killer)과 리퍼작전(Operation Ripper)의 성공으로 유엔지상군은 서울 수복은 물론 공산군을 38도선으로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월과 3월에 각기 북한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중공군 제2전략예비대인 제19병단과 제3병단이 4월이 되자 각기 전선에 도착하여 대규모 병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이즈음 중공군은 3개 병단 체제로 개편이 이루어져 제19병단(제63, 64, 65군)은 서부전선 배후에 포진시켰고, 제3병단(제12, 15, 60군)은 중부전선에 진출했다. 1950년 12월 전투에서의 손실을 보충한 제9병단(제20, 26, 27, 39, 40군)은 중동부 전선으로 증파 포진되어 증강되어 있었다.

증편을 마친 중공군은 1951년 4월 22일 해가 질 무렵 5차 공세를 감행하였는데 이들은 미 제1 · 제9군단을 이중 포위하여 섬멸하고 한반도를 가로질러 서울과 간성을 잇는 도로를 차단하여 서울을 재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중공군의 공격이 개시되자 B-29기는 철원 남방 및 문산 북방의 중공군 집결지에 대해 폭격을 가했으며 야간에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4, 65군이 임진강을 도하하자 지상

MPQ 레이더의 유도로 B-26기가 야간 공습을 가하였고 날이 밝아지면서 극동공군 전 가용전력을 총동원 4월 23일 하루 약 1,100여 회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4월 23일 제35전폭기대대 소속 F-80기 2대는 임진강 상공에서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갱도로 숨어들려는 공산군 200여 명을 발견하고 260파운드 폭탄 4발과 로켓과 50mm 기관총 3,600발을 발사하여 최소 17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다. 이날 하루 제5공군 조종사들은 약 2,000여 명의 공산군 병력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총력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의 강력한 공세로 인해 김화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붕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전세로 전환되자 미 제8군 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중장은 유엔 지상군에게 후퇴하면서 전투를 지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9군단 지역의 근접지원은 미 해군 제77특별기동함대 항모 탑재기가 전 전력을 동원한 근접항공지원으로 서울-간성간의 도로 확보를 위해 반격에 나섰고, 미 제1군단 지역은 극동공군이 폭격기와 전폭기를 동원하여 서울 북방 3마일까지 유엔군이 안전하게 후퇴할 때까지 엄호하였다. 이러한 해 · 공군의 공중엄호는 공산군의 주간 활동을 최대로 억제하여 야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효과를 주었다.

이 기간 중 여의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35전투비행전대 소속 F-51기의 활동이 주목할 만한데, 이 부대는 1일 100회 이상 출격하여 유엔 지상군을 지원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강우 중에 서울 북방에서 남진 중인 공산군을 발견하고 네이팜탄으로 공격을 가했고 한강도하를 시도하는 공산군 6,000여 명에게 재차 기총 소사를 가하여 사상을 입혔으며 도강에 성공한 일부 공산군들도 국군 해병대에 의해 가볍게 제압되었다. 중공군의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는 대단히 많은 손실을 입고 4월 29일에 종료되었다.

이 시기 유엔공군의 이전과 두드러지게 달라진 전술적 변화는 주간과 다름없는 대담한 야간 근접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상에 위치하여 폭격기를 표적에 근접 유도하여 폭탄을 투하시키는 임무를 수행한 MPQ-2 레이더 파견대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MPQ-2레이더 유도반은 미 제1, 9, 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이동반(Moving Post)을 구성하여 차량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 군단의 이동에 따라 전선 가까운 곳에 주둔하면서 야간 폭격기 유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유엔 지상군이 요청한 표적 425개소에 대해 450회의 폭격을 유도하여 공산군에게 막심한 인명피해를 입혔다. 야간 폭격 시 B-29기의 경우 500파운드 근접신관폭탄 40발을 투하하였는데, 1발 폭발 시 직경 150피트 넓이에 1만 5,000개의 철제 파편이 날아서 흩어져 인명살상에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4월 26일에는 미 제9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B-29기 1대가 공격 집결중인 공산군에 폭

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그날 밤 공산군의 공격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서 B-26기 2대가 260파운드 파열폭탄으로 공산군에 대해 폭격을 가했는데, 다음날 유엔군 지상수색대가 확인 결과 공산군 시체 약 400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야간 근접지원의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B-29기 1대가 야간 근접지원을 실시 한 다음 날 가평 근처에서 지상군 수색대는 600구 이상의 공산군 시체를 확인하였고, 동부 전선 인제 근처에 서는 B-29기 1대가 국군의 요청에 의해 야간근접지원을 실시하여 공산군 약 8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5월 공세)가 동부전선의 한국군 2~3개 사단과 미 제2, 7사단 일부를 섬멸하여 차후 작전의 유리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5월 15일까지 춘천-인제를 잇는 전선에 병력 약 125,000명을 집결시켜 다음날인 5월 16일 저녁 6시를 기해 잠깐의 공격준비포격을 실시한 후 서부 및 중동부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개시일인 5월 16일은 안개와 강우로 인해 유엔공군의 작전에 방해를 받았고 이러한 상황은 수일간 계속되었으나 어려운 작전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을 저지하고 초기 수세에 몰린 유엔지상군 지원을 위해 근접항공지원은 계속되었다.

극동공군은 수세에 있는 동부전선 미 제10군단 관할지역에 5월 17일부터 시간당 3~4회 근접지원 공격을 실시했으며, 5월 17일 하루 동안 미 제2사단 정면에서의 근접항공작전을 통해 최소한 공산군 약 5,000여 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5월 18일부터 미 해군 제77특별기동함대 항공모함 3척이 근접항공지원 준비가 완료되고 극동공군이 공산군의 공세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유엔지상군의 견고한 방어와 포병화력이 더해져 중공군의 제5차 2단계 공세는 초기 공산군이 일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이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공산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격을 가해옴에 따라 대규모 화력을 일시에 집중할 수 있는 MPQ-2레이더 유도에 의한 B-29기의 근접지원을 선호하였다. 5월 19일 공격준비를 하고 있던 공산군에게 B-29기 8대가 근접신관폭탄 80톤을 투하하였고 이로 인해 공산군의 공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5월 20일에도 B-29기 15대가 미 제2사단 정면에 집결 중인 병력에 대해 공격을 가해 약 1개 대대 병력을 사살하였고, 혼란 중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 공군 조종사 1명도 탈출할 수 있었다. 5월 21일에도 B-29기 8대와 5대가 한계와 춘천 지역에 집결 중인 공산군에 대해 각각 공격을 가하여 많은 병력을 살상하였다.

중공군이 공세작전을 펼친 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과 강력한 포

병 및 항공폭격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이번 공세의 주력부대였던 중국 제12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공세작전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중국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5월 21일을 기해 공격 중지를 결정하고 모든 예하부대에 신속하게 후퇴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공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제1, 9, 10군단은 공산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고 병력을 섬멸하기 위한 반격에 나섰고 극동공군은 지상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공격으로 일본에 주둔한 제19, 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22대와 제3폭격전대 소속 B-26경폭격기 11대를 동원하여 5월 22일과 23일 야간에 지상 MPQ-2레이더 이동반의 지원을 받아 전 전선에 걸쳐 공산군 병력 및 진지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폭격결과 중공군 2개 연대와 1개 대대 병력이 사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과 및 영향

극동공군은 이 작전을 통해 북한과 중공군 병력을 직접 살상하여 전력의 손실을 유도함은 물론 작전 시간과 장소를 야간과 산악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군과 유엔 지상군이 작전의 융통성을 기할 수 있게 하여 2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향후 공세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미 극동공군은 MPQ-2 레이더 활용한 적극적인 야간 지원 작전을 감행하여 북한과 중공군의 야간행동마저도 제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투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중공군 제5차 공세 기간 한국공군 작전

[中共軍 第5次 攻勢 期間 韓國空軍 作戰, 1951. 4. 22.~5. 31.]

개요

한국 공군비행단 예하 제11전투비행중대와 미 제6146기지부대가 중공군의 제5차 공세(춘계공세)가 시작된 1951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부 및 중동부 전선 후방지역에서 수행한 항공후방차단 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3월 당시 여의도기지는 미 공군이 중공군의 신정공세에 밀려 철수할 때 공산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B-26 경폭기로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활주로에 폭파구(爆破球)가 형성된 상태였다.

서울이 수복되고 미 제6146기지부대와 공군비행단 일부 병력이 여의도로 전개가 결정되자 공군 항공기지사령부는 예하 병력을 동원하여 3월 20일부터 활주로 복구공사를 시작하여 활주로에 형성된 폭파구(직경 5m, 깊이 2m) 32개를 트럭 25대 분량의 모래와 자갈로 메운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작업을 3월 31일에 종료하였다.

1951년 3월 22일부터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의 여의도기지로 전개가 이루어지자 공군비행단은 비행단 작명 제3호(1951. 4. 2.)를 통해 제주기지 제11전투비행중대 소속 조종사 4명을 3월 31일까지 여의도기지에 파견하여 미 제6146기지부대와 합류하여 작전을 실시할 것과 4월 19일에는 비행단 작명 제5호를 발령하여 제11전투비행중대 전 요원을 4월 20일 오전 9시까지 여의도기지에 전진배치 하였다.

1951년 4월 22일 중공군이 중부 및 중동부 전선에서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가 시작되자 유엔공군은 지상군의 반격작전을 지원하기 후방차단작전에 전력을 집중하였고, 제5공군은 한국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기지부대에 중부전선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한 및 중공군의 기동로와 보급품집적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국 제11전투비행중대와 미 제6146기지부대 F-51D 전폭기와 조종사들은 4월 22일부터 출격을 개시하였다. 4월 22일 F-51D 5대가 강원도 김화, 이천 지역에서 보급로 차단작전을 시작하여 4월 중 7일 동안 이천, 토산, 개성 등 지역에 총 53회 출격 하였다.

5월 1일에 신유협, 강호륜 소령과 함께 미 공군 조종사 2명과 F-51D 2대가 여의도기지로 증원 전개함으로써 한국 공군 조종사는 6명, 미 공군조종사는 6명으로 증가하였고 F-51 전폭기도 8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5월 들어 작전은 전선 후방지역에 대한 무장정찰 위주로 임무가 전환되었고 교량, 보급로 및 지상 증원전력 차단에 주력하였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에는 이천을 중심으로 법동-양덕-곡산 방면의 보급로와 교량, 대공포진지 등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였고, 5월 12일부터 31일까지는 김화-철원-화천-운산-사리원-수안-개성 등 중서부전선의 광범위한 지역에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951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군비행단 제11전투비행중대와 미 제6146기지부대는 총 156회의 전투출격을 시행하여 병력 131명을 사살하고 건물 18동, 차량 58대, 보급품집적소 19개소, 교량 18개소, 연료보급소 10개소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결과 및 영향

공군비행단 제11전투비행중대는 미 제6146기지부대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전과를 수립하였으며, 제주 기지에서 F-51D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치고 실전에 참가하였다. 이를 통해 조종사들은 전투기량을 향상시켜 향후 한국 공군 단독 출격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항공지원

[智異山 共匪討伐作戰 航空支援, 1951. 8. 17.~9. 18.]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1951. 8. 1일부로 공군비행단이 개편)이 1951년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리산 지역에 은거하여 활동하는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실시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1950년 9월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도주로가 차단되어 남한 내 산악지대로 잠입한 북한군 패잔병은 약 9,500여 명에 이르렀고 이들 대부분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에 걸친 국군 3개 사단(제2, 8, 11사단)의 토벌 작전으로 격멸되었으나, 분산 도주한 일부 공비 잔당들은 세력을 재정비하여 개기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약 4,000여 명이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속리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 약탈, 경찰지서 습격, 차량 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 납치 등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1951년 7월이 되자 산청경찰서 관내의 지서와 마산, 진주 등지의 공공건물을 습격하였고, 일부는 수차례에 걸쳐 사천기지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던 차에 영 · 호남지역의 공비토벌을 담당하고 있던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남원 소재)의 지원요청을 받게 되었고, 7월 23일 개최된 군 · 경 정보관계관회의 당시

공군비행단(1951. 8. 1.부로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참모장 김영환 대령과 작전정보처장 장지량 중령이 참석하여 공비활동에 관한 사항과 공비토벌작전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하였다.

7월 24일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장 윌슨(Harold H. Wilson) 소령을 통해 작전권을 관할하고 있던 미 제5공군사령관에게 전달된 서신에서 한국 공군은 북위 34°30′~35°30′과 동경 126°30′~ 128°30′지역에 대해 미 공군의 지원 없이 한국 공군 단독으로 전투훈련을 겸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미 제5공군사령부는 이를 승인함과 아울러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8월 2일 공본 작전명령 제34호를 통해 제1전투비행단과 제2정찰비행전대에 전투경찰부대의 공비소탕작전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본 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1전투비행단은 비행단 작전명령제8호(1951. 8. 18.)를 통해 제10전투비행전대로 하여금 경찰전투부대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비에 대한 섬멸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2정찰전대 소속 T-6및 L형 정찰기는 적정정찰 및 전과 확인 등의 F-51D 지원임무가 부여되었다.

공비토벌작전은 8월 17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10전투비행 전대장 김영환 대령이 지휘하는 F-51D 4기 1개 편대는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산청 남방 6km 지점의 지리산 웅석봉(熊石峰)에 위치한 공비 방어진지 3개소를 로켓과 기총으로 공격하여 완파하고 공비 57명을 살상하고 12시에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정영진 대위가 이끄는 F-51D 4기 편대가 지리산 덕동리 남방 4km 지점의 공비집결지를 공격하여 전소시켰고 오후 4시에는 김영환 대령이 F-51D 2기 편대로 달궁 지역에서 공비들을 공격하여 95명을 살상하고 방어진지 및 포진지, 엄체호 등을 파괴하였다.

8월 18일에도 김영환 대령과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라그로(Lewis Lagro) 중위 편대가 웅석봉 서남쪽 4km 지점인 평촌리 지역의 공비를 공격하였고 정영진 김두만 대위 편대는 반야봉 지구에서 공비를 타격하여 45명을 살상하였다.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공비소탕작전은 태풍 마지(Marge)가 사천기지로 접근하자 미 제5공군사령부로는 항공기 대피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F-51D가 대구(K-2)와 평택기지(K-6)로 분산 대피하였다가 8월 24일 오후에 사천기지로 귀환함으로써 공비토벌작전 출격은 8월 25일부터 재개하였다.

8월 25일 김영환 대령과 라그로 중위의 F-51D 전투기 2대가 덕동리 남방 1km 지점의 병력집결지를 공격하였고, 이어 김성룡, 윤응렬 대위의 F-51D 전투기는 웅석봉 지구를 공격하였다. 또한 오전 11시 30분에는 정영진 대위와 옥만호 중위의 F-51D 편대

가 해인사 동남방 1km 지점의 병력집결지를 공격하였다.

8월 26일 김영환 대령을 편대장으로 F-51D 4기 편대가 회문산(回文山)지구가 가마골 삼림지역 공비은신처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공비토벌 작전 시 처음으로 5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한 사례로 남았고, 공비 은신처와 건물을 파괴하고 공비들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공격 중 김영환 대령이 조종하는 F-51D의 엔진이 공비의 지상포화에 관통, 파손되어 곡성 지역 섬진강변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같은 편조의 김두만 대위가 공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고지역 상공에서 체공하며 엄호비행을 실시하며 사천기지로 구조요청을 하였다. 경찰에서 출동한 차량으로 김영환 대령을 구조하여 남원비행장으로 수송하였고, 사천비행장에서 급히 남원비행장으로 출동한 권성근 중위의 T-6기가 김영환 대령과 동승하여 사천비행장으로 귀환함으로써 구조 활동이 종료되었다.

8월 27일 오전은 기상이 불량하여 출격하지 못하였으나, 오후 들어 기상이 호전되면서 오후 3시에 김영환 대령이 지휘하는 F-51D 4기 편대가 회문산 지구 가마골을 공격하여 은신처와 건물 58동을 불태우고 차량 1대를 파괴하였으며, 공비 40명을 사살하였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 공비토벌 작전은 한국 공군이 미 제5공군에 요청한 작전준비태세검열과 병행하여 실시되었는데, 3일 동안 총 39회 출격하여 공비 118명을 사살하고 은신처 29개소, 건물 60동을 파괴하였다.

이후 공군비행단은 미 제5공군사령부의 작전준비태세검열 결과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차기작전 준비를 위한 일시 휴지기(1951. 9. 2.~9. 17)를 가진 후, 9월 18일 노고단, 마천지구에 대한 출격을 끝으로 공비 토벌작전을 종료하였다.

결과 및 영향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동안 공군비행단은 공비 558명을 사살하고 은신처 192개소와 건물 39동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공군비행단은 직접적으로 사천기지를 위협하는 공비 세력을 소탕하여 위험요소를 제거와 함께, 국군과 유엔 지상군의 배후를 안정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9,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서남지구 공비토벌작전 항공지원

[西南地區 共匪討伐作戰 航空支援, 1951. 12. 3.~6., 12. 19.~25.]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요청으로 1951년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사천과 진해기지에서 수행한 서남부 지역 공비토벌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임진강 하구–연천–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거진을 연결하는 선에서 접촉선을 형성한 가운데 대치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진지전 및 고지쟁탈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선 상황 하에서 1차 지리산 공비토벌작전(1951. 8. 17.~9. 18.)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공비들은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일대에 출몰하여 보급과 통신선을 공격하고 후방지역의 치안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비를 소탕하고자 한국 육군은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를 창설하였고, 이어 정부가 12월 1일부로 남한 서남부지역에 대한 계엄을 선포하자, 백야사는 공비소탕을 위한 4단계(기)작전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때 공군은 제 1기 작전(1951. 12.3 .~12. 15., 지리산 포위 섬멸작전)과 제2기 작전(1951. 12. 19.~12. 25.)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1기 작전은 지리산(智異山, △1,915)을 포위하여 공비주력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제2기 작전은 전라남 · 북도의 성수산(聖壽山, △1,059)–장안산(長安山, △1,239)–운장산(雲長山, △1,126) 일대의 잔적소탕을 위한 작전이었다.

당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는 9월 28일 강릉전진부대로 전력의 대부분을 이동시켜 동해안 지역의 보급로 차단작전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조종사의 피로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해소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김정렬 총참모장은 강릉전진부대의 동해안 차단작전을 중단하고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1. 12. 8.)를 하달하여 1951년 11월 28일까지 강릉전진부대장(김신 대령)지휘 하에 F–51D 전투기 12대를 사천기지로 전개시켰다. 12월 1일까지 작전준비를 완료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12월 3일부터 서남부지구 공비토벌 제1기 작전지원을 개시하여 12월 6일에 종료하였다. 이 기간에 출격은 총 21회였다.

12월 3일 옥만호 중위가 이끄는 4기 편대에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작전훈련장교 아

담스(Michael Adams) 소령이 가세한 총 5대의 F-51D 오후 1시 40분에 사천기지를 이륙하여 지리산 서남방 6km 지역의 암산(岩山, △923) 적진지에 폭탄 10발, 로켓 20발을 투하하였고 산개하는 공비에 대해 기총 5,000발을 소사하였다.

다음날인 12월 4일에는 김두만 대위를 편대장으로 4기 편대가 09:45에 이륙하여 공비와 접전을 벌이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던 아 군경 병력을 엄호하면서 지리산 남서쪽 5km 지점의 1,668고지에 위치한 적진지를 포착하고 폭탄과 로켓을 발사하여 건물 1동을 파괴하고 기총사격으로 공비 10명을 사살하였다.

12월 5일에는 이기협(李基浹)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4기편대가 지리산서 남방3km 지점의 공비진지를 폭격하였고 12월 6일 오전에는 신철수(辛鐵洙)중위가 이끄는 4기 편대가, 오후에는 정주량(鄭周良)중위가 이끄는 4기편대와 김두만(金斗萬)대위가 이끄는 8기편대가 작전에 참여하면서 공비토벌 제1기작전이 종료되었다.

공군의 제1기 작전 종료는 강릉기지로 복귀하여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원산 지역의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라는 공군본부 구두 작전명령에 의한 것이었으며, 공식문서(공본 작전명령 제39호)는 12월 12일에 하달되었다. 공비소탕작전을 일단락하고 강릉기지로 복귀했던 제10전투비행전대에게 12월 19일까지 진해기지(K-10)로 F-51D 전투기 12대와 작전요원 및 장비를 전개하여 공비토벌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로써 공군의 제2기 공비토벌작전은 진해기지에서 공군 제2정찰전대와 함께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운장산, 삼도봉, 신선봉, 덕태산, 천성산, 희수산, 장안산, 백암산, 덕유산 일대에서 전개되어 F-51D 전투기 총 51회를 지원하였다.

특기할 사항으로 진해기지에서의 제2기 공비토벌작전에서 한국 공군 F-51D 조종사들이 한국 공군 T-6기가 아닌 미 공군 모스키토(T-6G)기로부터 폭격지점 유도를 받았다는 점이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서남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통해 육군과 경찰을 지원하여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비의 주력을 와해시키고, 안정적인 병참선과 후방지역 치안을 확보하여 전선 배후를 안정화 시켰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9,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이근석】

스트랭글(Strangle) 작전

[絞殺作戰, 1951. 8. 18.~1952. 3.]

개요

미 극동공군사령부 예하 제5공군, 폭격사령부, 미 해군의 제77기동함대 함재기가 합동으로 1951년 8월 18일부터 1952년 3월까지 북한 중서 · 북부 및 중동부지역 철도 수송로(철도궤도, 철로교량, 노반 파괴)를 표적으로 한정하여 시행한 항공차단작전으로, 1951년 5월부터 7월까지 같은 이름으로 시행한 극동공군의 항공차단작전과 그 목표와 지향점은 같으나 표적선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전개과정

1951년의 5월부터 7월 초까지 제5공군은 스트랭글작전(Operations Strangle)으로 명명한 항공차단작전을 3개 표적군(標的群)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였다. 이들 3개 표적군은 첫째 평양, 나진 등 군사시설 밀집지역 및 비행장, 둘째는 철도 및 도로 등의 수송로, 셋째는 철도화차 및 차량 수송수단이었다. 제5공군은 이들 3개 표적군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이전의 스트랭글 작전(Operations Strangle)과는 달리, 철도 수송로(철도궤도, 철로교량, 노반 파괴)로 표적을 한정하여 재차 스트랭글 작전으로 명명하고, 1951년 8월 18일부터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는 전력의 분산으로 인한 화력 집중도의 저하와 이에 따라 공산군의 신속한 복구로 작전성과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던 이전 스트랭글 작전의 교훈을 반영하여 가장 높은 차단효과를 가진 표적에 전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작전은 극동해군 함재기가 동부지역을, 제5공군이 서부지역을 차단하는 것을 담당하였고, 폭격사령부에는 평양 주변 주요 철도 교량의 파괴임무가 할당되었다. 평양, 나진과 같은 군사시설 밀집지역 및 비행장 파괴 공격은 폭격사령부에 임무를 부여하였고, 폭격사령부는 10월 이후 신설 공사 중인 태천, 남시, 원리비행장 공격에서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2월에는 신의주를 제외한 비행장을 무력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7월 10일 시작된 휴전협상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고, 전선은 고착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산 측의 전력증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미 제8군은 공산측이 전선배후에 매일 최소 800톤 이상의 보급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정보판단은 공산군이 휴전협상을 또 다른 공세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유엔군 지휘부에 공군력을 이용하여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자지원을 단절하기 위해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웨이랜드(OttoP.Weyland) 극동공군사령관과 반덴버그(Hoyt S. Vanenberg) 미 공군참모총장도 이견은 없었으나, 휴전협상으로 지상군이 전선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항공력만으로 이루어진 수송로차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작전명(Operation Strangle)으로 1951년도 5월 31일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된 철도차단작전이 유엔 지상군이 압박과 함께 실시되었던 6월 초까지는 성공적이었던 반면, 지상군이 압박을 완화했던 6월 중순 이후 효과가 감소되었던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반데버그 총장은 수송로 차단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의 공세와 연계되어야 하고 당시 상황을 볼 때 지상군이 고착된 상황에서의 수송로 차단은 병력과 물자가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할 수 있을 뿐, 중공군의 전투력을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공산 측의 수송망에 대한 놀라운 응급 보수능력은 유엔공군 지휘부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당시 미 제8군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공산측은 사리원 이남지역에 각종 병종의 6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1일 보급품 소요는 각 사단별 소요를 40톤으로 예측하여 1일 총 2,4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2톤의 적재량을 가진 트럭의 경우에는 1일 약 1,200대,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 철도 화차의 경우 120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산측은 화물수송에 철도편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적재량이 많고,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보다는 연료(석탄)를 북한 내에서 구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철도수송은 노출이 크고 차량처럼 우회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운용상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약점에 착안하여 공군 작전계획관들은 철도를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철로를 통한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량, 열차(화차), 궤도 및 노반을 파괴하는 방안이 있었고, 극동공군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열차와 교량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철도궤도와 노반을 파괴하는 것이 공격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주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 7월말에 실시된 궤도 및 노반에 대한 시험 공격을 실시하였고,

제8, 제49전폭전대는 철로에 대한 도약, 강하, 활공 폭격에서 매우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100파운드 폭탄을 이용한 활공폭격은 명중률이 높아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시험공격 기간에 교량과 같이 대공포가 밀집된 지역을 회피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공군은 철도차단작전의 주목표를 궤도와 노반으로 선정하고, 철궤(鐵軌)보수를 위한 이동을 지연하기 위해 교량파괴를 보조목표로 선정하였다.

8월 초 철도차단 작전을 전담하게 된 제5공군은 철도궤도 파괴에 제5공군 자체보유전력만으로는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약 90일 정도로 단축하기 위해 극동해군에게는 한반도를 횡단하는 삼동리-고원의 철도지선과 길주-함흥-원산-평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폭격사령부에는 평양, 선천, 순천, 신안주, 희천 지역의 중요 철도교량 폭파를 요청했고, 폭격사령부는 MiG기의 공격이 예상되는 희천 지역의 교량을 제외하고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제5공군은 북한 서북부 있는 가장 중요한 복선철도의 파괴임무를 맡았다.

계획수립을 마친 제5공군은 작전 수행과 성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는데, 8월 14일 공식 평가에서 제5공군 전투작전부장 맥브라이드(William P. Mcbride) 대령은 "제5공군, 미 해군 항모항공부대, 폭격사령부는 북한지역의 철도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철로 통행량이 '0'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철도체계를 파괴할 것이다. 이 작전은 어렵지 않은 것이며 적은 압록강으로부터 100마일 떨어진 평양-고원선으로 철수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스트랭글 작전은 8월 18일 전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작전환경에 문제가 없는 한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제5공군은 동서를 연결하는 지선철로는 남북으로 연결된 간선철도가 파괴되면 무용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순천-사리원간의 복선철도의 파괴에 주력하는 한편, 희천-군우리-순천을 잇는 철도파괴에 관심을 가졌다.

제5공군은 일일 작전명령을 통해 각 전폭비행단에 15~30마일의 철도구간을 할당하고, F-86기의 엄호 하에 매일 두 차례씩 지정구간을 공격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전폭비행단은 각기 32~64대의 전폭기로 공격편대군을 구성하여 출격시켰으며, 적의 저항과 기상 상황에 따라 활공, 급강하폭격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였다. 활공폭격은 명중률은 높일 수 있었고 급강하폭격은 적의 대공포 위협을 감소할 수 있었다.

또한 8월 중에는 1,0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500파운드 폭탄 2발을 표준 무장으로 변경하였다. 폭 56인치의 철도궤도를 명중시켜 파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그러나 8월과 9월간의 폭격성과를 보면 투하된 폭탄의 12.9%가 철로 궤도

에 명중해 절단에 성공했고, 출격횟수의 25% 가량이 철도차단에 성공하였다.

폭격사령부의 B-29기 또한 평양, 신안주, 순천, 선천지역의 주요 철도교량에 차단에 주력하여, 정찰 결과 교량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공격을 실시하였다. 폭격사령부는 B-29 4기 2개편대로 임무편대를 구성하여 이들 편대에 2개 교량에 대한 파괴임무를 부여하였고, 구름이 많은 날에는 쇼란 유도폭격을 실시하였다.

극동해군 제77기동함대 소속 항모 3대(Bon Homme Richard호, Essex호, Antietam호)로부터 이륙한 함재기들은 동부지역 철도교량 10개, 육로 교량 17개소를 파괴하여 운용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8~9월간의 철도차단작전으로 9월 중순의 구간별 소통율은 신의주-신안주 구간은 70%, 신의주-평양 구간은 90%, 평양-사리원 구간은 40%로 감소하였다. 공산측은 단선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안둥-사리원 간의 117마일 복선철도를 단선만을 남긴 채 철거 하였고, 보수자재 확보를 위해 이제껏 공격을 받지 않은 사리원 이남 13마일 구간의 철로와 침목을 철거하는 다급함을 보였다.

10월과 11월의 유엔공군의 철도차단작전은 더욱 거세게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산측의 저항도 강도를 높여갔다. 공산 측의 대응은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는 MiG기를 대거 투입하여 유엔공군이 전폭기를 요격하려 하였고, 청천강 이남에서는 대공포와 자동화기를 집중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제5공군은 MiG기의 공격에 노출되는 선천-신안주 간 철도에 폭격을 중단시켰고, 전폭비행단 임무전력을 동시에 출격했던 것을 5분의 시차를 두고 대대별 전력을 출격시켜, 선발 편대가 대공화기를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공산측의 조직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단작전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10월 3일 이래 평양-사리원 간 철도가, 10월 25부터는 숙천-신안주 구간의 철도가 불통상태가 되었고, 공산측은 이에 대해 신안주-평양 간의 단선철도와 희천-군우리-순천-양덕에 이르는 철도의 복구에 전력(全力)을 다하였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극동공군은 철도차단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때, 공산측의 조직적인 저항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 북서부지역의 철도는 신의주-신안주, 신안주-군우리-순천을 잇는 우회철도가 살아있었고, 순천-삼등-양덕선도 운행이 가능하였다. 동부지역은 길주에서 원산까지의 통행은 불가능했으나 파괴된 구간을 제외한 연결된 철도를 이용한 수송활동이 진행 중에 있었다. 또한 10월 23일 남시비행장 폭격에서 B-29 대량손실을 입은 폭격사령부는 11월 말까지 철도차단작전에 전력을 할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공산측은 11월 초에 순천의 보조교량에 이동식 경간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었고, 11월 15일에는 신안주의 인도교를 완전 복구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평양의 보조철교를 완공함으로써 1950년 8월 이후 막혔던 삼등까지의 운행을 복구시켰다. 또한 11월이 되면서 공산측의 철도복구 능력은 더욱 신장되어 차단된 철도를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였고, 12월이 되면서 땅이 얼어붙자 지연신관폭탄은 지면에 충격 후 튀어나가고, 폭파되더라도 폭파구 형성이 작아지는 등 폭격의 효과가 감소되자 복구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에 반해 극동공군의 작전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우선 MiG기와 대공포의 공격으로 전력손실이 심대해졌다. 대공포로 인해 제5공군이 8월부터 11월까지 입은 피해는 항공기 손실 115대, 파손 750대였다. 대공포로 인해 손상을 입은 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비소요가 증가하고 전폭기의 작전 가동률도 급감하였다. 이러한 대공포 위협은 폭격 정확도도 감소시켰는데, 일례로 11월 중 철도차단에 참가한 F-84기의 표적 적중률은 7%에 지나지 않았다.

12월이 되면서 유엔공군의 차단능력이 감소하는 반면 공산군의 복구능력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주간에 피폭된 철도시설에 대해 야간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8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었고, 이는 유엔공군의 정찰사진 판독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대공포의 방호로 군우리-순천간의 철도가 더 이상의 보수가 필요 없게 되자 공산측은 다른 철도 복구에 노력을 배가하였다. 신안주-평양 간 철도 중 파괴된 숙천남부 철로를 우회할 수 있는 보조철도를 건설하였고, 군우리-순천 간에는 보조철도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평양-사리원간 파손이 심각한 지점에 대한 보수에 나서는 등 파괴된 철도 복구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2월 23일 제5공군사령부 정보부는 "공산군측 철로보수와 교량건설 인원이 평양과 간선철도 핵심지역에 대한 철도봉쇄를 해제시켰다."라고 공산측의 철도 복구 작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결국 작전계획단계에서 반덴버그와 웨이랜트 장군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났으나, 항공차단작전이 축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공산군이 단기간 내에 대공세를 전개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물자비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5공군은 스트랭글 작전을 1952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및 영향

스트랭글작전은 유엔공군이 1951년 5월 말부터 1952년 3월까지 공산 측의 수송망 차

단을 위해 유엔공군 전력의 40% 이상을 투입하여 실시한 일련의 항공차단작전이다. 총 10개월의 작전기간 중 1951년 후반기(7월~12월)의 작전경과는 이 작전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성과측면에서는 작전초기에 보여준 실질적인 보급물자와 인원의 차단효과였다. 최소한 1951년 10월 이전까지 공산군은 유엔공군의 차단작전으로 전선으로의 보급물자 이동에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이에 중공군 전선지휘관들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겪었던 것과 유사한 극심한 보급품 부족상태를 겪게 되었고, 베이징에 이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국은 철도복구병력 9,0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송 우선순위에서도 탄약 · 유류 · 무기등 장비에 우선하여 피복 · 식량을 먼저 수송하였고, 대공포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급기야 전력손실을 우려해 이제껏 참전을 미루어 왔던 중국공군을 동원해 반 교살작전(反絞殺作戰)수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유엔공군의 스트랭글작전에 대응하여 반 교살작전 수행에 전력을 투입하자, 스트랭글작전은 점차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었다. 공산공군 MiG기들은 스트랭글작전에 투입된 전폭기들을 집중적인 요격목표로 삼았고, 이에 따라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전폭기를 엄호하기 위한 F-86의 증강은 유엔군 측의 매우 긴급한 현안이 되었다.

또한 공산측 수송망 복구 인원들은 반복되는 유엔공군의 공격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내성(耐性)을 키워 신속한 복구능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결국 12월이 되자 제5공군사령부는 공산군 측의 '평양과 간선철도 핵심지역에 대한 봉쇄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스트랭글작전의 실효(失效)를 인정하였다.

스트랭글작전을 전개하면서 유엔공군이 가장 높은 전력할당을 통해 파상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공산측 방어선의 평양-고원선으로의 후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산측의 전면적인 반 교살작전 시행, 공산군 측의 스트랭글작전에 대한 내성 증가 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원인은 유엔공군의 작전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공격 목표 설정, 즉 제한된 공격목표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공군의 차단목표는 공산군 수송로상의 철도와 노반, 철교에 집중되었고 차단작전 초기 효과에 의해 수송이 집중된 야간 이동차량에 추가적인 공격이 취해졌다. 이로 인해 차단목표의 근원적인 표적인 대도시의 보급품 생산 공장, 병력 대량 집결지 등 물자와 인원의 공급 원천(源泉)에 대한 차단이 이루지지 않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인원과 물자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진입하는 압록강 상의 교량 등 차단목이 공격표

적에서 제외 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표적만을 공격하는 항공차단작전은 '수원(水源)을 놓아 둔 채 물길을 막는 차선의 선택'이었고, 결국 그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랭글 작전은 효율적으로 북한지역 비행장을 파괴하여, 소련 및 중국 공군 전력의 북한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유엔공군이 지속적으로 제공권을 확보한 가운데 작전의 융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9,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철도 집중폭격(Saturate) 작전

[鐵道 集中爆擊 作戰, 1952. 3. 3.~5. 초]

개요

유엔공군(제5공군, 폭격사령부)이 1952년 3월 3일부터 5월 초까지 북한 내 주요 철도에 대해 주야간 집중폭격을 통해 장비, 병력, 보급품의 이동을 저지하려 시행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극동공군의 북한 지역 내 철도를 통한 병력, 물자, 장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차단작전은 6 · 25전쟁 내내 강조되었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51년 8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시행된 제2차 스트랭글 작전(Operation Strangle)은 철도궤도, 철도교량, 철도 노반에 대한 파괴에 집중하여 공산군의 보급수송량을 감소시키고, 수천 명의 병력을 병참선 보호에 투입하게 하여 사실상의 전투력을 분산하거나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북한 지역의 진입과 남진은 물론 전선으로의 병력과 보급품의 이동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극동공군의 철도차단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1951년 11월 이후 증가한 대공화기와 MIG-15의 폭격기 요격은 극동공군의 희생을 증가시켰고,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한 제5공군의 전투기 전력 할당 증가를 강요하였다. 또한 공산군의 복구능력도 신장되어 철도는 2~6시간, 철도 교량은 4~7일 만에 복구할 수 있었다.

1952년 1월 제5공군은 이전의 스트랭글 작전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5공군은 1952년 2월 25일 철도궤도의 특정부위를 집중적으로 반복 공격하는 철도궤도 집중폭격 작전(Operation Saturate)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이 작전은 철도의 특정 부위를 주간에 전폭기들이 공격하면 야간에는 B-26폭격기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복구 작업을 방해하여 특정 구간을 불통상태로 유지하는 작전이었다.

이러한 목표아래 군우리(軍隅里)-희천(熙川), 순천(順川)-삼등리, 산안주(新安州)-남시(南市), 평양?남천점(南川店)을 잇는 4개의 철도가 공격 표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제5공군사령부는 폭격사령부에게 이전 스트랭글 작전에서 담당했던 철도교량과 함께 신안주-순천 간 철도교량을 폭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부는 1952년 3월 3일부터 대규모 전력을 투입하여 철도집중폭격작전(Operation Saturate)을 시작했다. 이 작전에서는 이전 차단작전 시 임무조종사들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표적을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미 제5군에서 임무 전 표적과 공격지점을 선정하고 표적접근절차, 진입지점, 이탈절차를 지정하는 등 임무를 직접 통제했다. 이는 공격시간을 단축하고 표적전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을 때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제5공군은 제67전술정찰비행단에게 사전 표적 정찰과 사후 폭격피해평가를 위해 항공사진 촬영을 지시하였고, 폭격 전 대규모 편대를 투입하여 대공화기를 제압하도록 조치하였다.

미 제5공군은 3월 3일 작전 개시 이래 3월 25일까지 중단 없이 매일 작전을 펼쳤으며, 매일 300회 이상의 전력을 투입하였고, 약 600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사용되었다. 3월 15일부터는 제3전폭비행단의 B-26폭격기 40대가 주간에 전폭기들이 공격한 표적에 대해 야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500파운드 폭탄으로 재차 공격하였다.

3월 25일 작전의 표적은 정주-신안주 간의 철도 구간과 철교로 선정되었다. 이날 제5공군 전폭기 307대가 1,000파운드 폭탄 530발, 500파운드 폭탄 84발을 투하하였고 야간에는 B-26 8대가 500파운드 폭탄 42발을 퍼부었다. 또한 3월 26일에도 동일 표적에 대해 전폭기 161대가 출격하여 1,000파운드 폭탄 322발을 투하하였다. 이틀 동안의 공격으로 정주-신안주선 철도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끊긴 상태로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날 제5공군은 정주-신안주 간 철도차단 작전을 포함하여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 작전 959회를 실시하여 142곳의 철도를 절단하였고 순천-평양 간 도로 27곳을 타격하였다.

한편 폭격사령부 소속 B-29중폭격기의 작전도 실시되었는데 3월 25일 41대가 출격하여 평양 철교를 폭격하여 교량 약 225피트 절단했으며, 3월 28일에는 47대가 출격하여

신안주 철교 교량 약 320피트를 절단했다. 또한 3월 31일과 13대가 신흥리 철교 상판을 파괴하였고, 4월 1일에는 16대가 출격하여 곽산 철도를 공격하였다.

극동공군은 4월에도 작전을 지속하여 4월 대부분 기간 동안 신의주-신안주 구간 철도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산군은 유엔공군의 철도차단작전에 대응하여 대공방어망을 대량 증가시켰고, 특히 신안주-평양 간 철도에 엄청난 대공방어망을 구축하였다.

이는 제5공군의 전력손실로 이어졌으며 1952년 4월이 되자 제5공군의 항공기 부족현상을 심각해졌다. 특히 제49, 136전폭비행단의 경우에는 인가량 75대 대비 각각 41대와 39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제5공군은 5월 초에 철도 집중폭격작전을 중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차단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공군은 이전의 철도차단작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철도 집중폭격작전을 시행하였다. 주요 철도의 수송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공산군 측의 신속한 보수능력으로 인해 이전 공격과 마찬가지로 철도수송망의 완전한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대공방어망 과 MiG-15의 요격 증가로 극동공군 항공기 손실은 점차 확대 되었고, 이러한 손실은 이 작전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이고도 제한적이지만 차단작전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공산군의 보급능력을 포함한 후방지원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게 하였음은 물론 공산군의 상당한 전력을 후방지역 시설 방어 에 매달리게 하여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한국공군 적 보급품집적소 폭격작전

[韓國空軍 敵 補給品集積所 爆擊作戰, 1952. 7. 19.~10. 27.]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가 강릉기지에서 1952년 7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원산과 신안주를 잇는 전선 배후지역의 보급품집적소를 중심 표적으

로 전선으로의 보급물자 축척과 이동을 차단하고자 수행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유엔공군은 정전협상에서 공산군측이 유엔군 측의 제안을 수락하도록 압박하고 정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항공 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일환으로 1952년 6월에는 수풍, 장진, 부전, 허천 수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가해졌고, 또한 7월과 8월에는 항공압박작전의 본 작전인 평양에 대한 대 공습작전을 감행하였다.

한국 공군은 이와 보조를 맞추어 7월 13일부터 원산에서 신안주로 연결되는 전선 후방 지역에 산재한 공산군 보급품집적소를 주요 공격 목표로 작전을 시행하였다. 강릉에 주둔하고 있던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는 7월 13일에 F-51D 4기 2개 편대로 평강 도수대(道修垈, 평강 북서 10km)지역과 하주리(下注里) 지역의 보급품집적소와 건물 등을 폭격하였다. 강우로 인해 작전은 7월 19일 재개되어 25일까지 7일간 80회 출격하여, 평강, 이천, 곡산, 현리와 원산, 장전지역 보급품집적소, 포진지, 건물 등을 타격하였다.

8월 들어서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39회 출격하여, 동부 전선의 금성 동북방 현리와 하신원리(현리 동북 4km), 순갑리(順甲里, 현리 동쪽 6km), 통천, 원산지역 보급품집적소와 대공포진지, 군용건물, 철도, 유류저장소 등을 공격하였다.

8월 12일부터 30일까지는 총 160회 출격하여 회양과 신고산, 창도리, 장연, 시변리, 평양, 금성 지역을 타격하였다. 이 지역은 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보급품집적소, 유류저장소, 탄약저장소가 곳곳에 산재하여 공중공격에 유리한 지역으로, 8월 20일 공격에서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총 16대 4기 편대가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 11개소와 탄약과 유류저장소 각 1개소, 건물 2동과 철도, 교량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9월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43회 출격하여, 중부전선 수안지구와 금천 인근의 용성, 온정리, 이천(伊川) 등 지역의 보급품집적소를 공격하였고, 11일부터 30일까지 이천, 금성, 현리, 회양 지역을 중심으로 283회 출격하였다.

10월 중에는 총 출격일수 20일 동안 고성, 현리, 승호리, 양덕, 중화, 이천, 온정, 남천, 고원, 원산, 옹진, 신계, 곡산, 해주, 재령, 창도, 지혜산 지역으로 총 580회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를 포함 건물, 철도, 벙커, 연료 집적소 등을 공격하였다.

한국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는 약 4개월간 진행된 보급품집적소 폭격 작전기간 동안 총 1,393회 출격하였고, 1951년 10월 이후 준비해 온 공지합동작전인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작전을 1952년 10월 28일부터 수행하게 되자 점차 보급품집적소

공격과 같은 후방차단임무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의 보급품집적소 폭격작전 기간 동안 보급품집적소 412개소, 군용건물 567동, 벙커 및 대공포 진지 72개소, 유류저장소 17개소 등을 파괴하고 병력 5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원산과 신안주를 잇는 전선지역으로 전선 후방에서의 보급품 지원을 차단하여 전투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기간 중 100회 출격 조종사 6명을 배출하는 등 한국 조종사들의 전투경험을 확대하여 높은 전투기량을 습득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한국공군 단독 출격작전

[韓國空軍 單獨 出擊作戰, 1951. 10. 11.~11. 28.]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제10전투비행전대(강릉전진부대) 최초로 미 제6146기지부대와 분리되어 원산 및 중동부 전선 후방지역에서 보급품과 인원, 장비의 전선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강릉기지(K-18)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건설하여 패전으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방치되었다가 1950년 7월부터 북한 공군이 점령하여 1개 항공대를 주둔시켰다. 그 후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 이루어지자 1950년 10월부터 우리 공군이 확보운영하기 위해 김진형 소위 이하 13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부대경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51년 6월부터는 동부전선의 유엔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1해병비행단 제12비행대대 F4U(Corsair) 전폭기가 주둔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의 강릉전진부대(F-51D 12대, T-6 정찰기 1대, 지원장비 14대, 병력 275

명)의 강릉기지 전개가 1951년 9월 28일 완료되자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인원도 이동하여 한국공군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로서 강릉기지는 미 공군과 해병대, 한국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공군 조종사들은 10월 1일부터 미 해병조종사들로부터 강릉기지에서의 이착륙 기본절차를 교육받았고 미 해병 제12비행대대 정보반에서 실시하는 일일브리핑에 참석하여 전선 상황과 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 해병 제12비행대대는 한국공군이 사용할 항공유와 탄약을 미 공군 제6405 KAMU(한국 항공군수부대)가 주문진항에 하역하면 강릉기지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해주었다. 또한 강릉지지 내외곽에 대한 경비는 육군 제7경비대대(2개 중대)가 담당하였다.

강릉기지의 작전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먼저 기상조건을 보면 동계에는 극심한 해무와 주위의 높은 산봉우리에 의해 발생하는 돌풍, 기온 급강하, 많은 강설로 작전에 제한을 받았고, 춘계에는 잦은 해무와 해빙기에 활주로 상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인해 이착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기상상태가 양호한 5월부터 10월에도 종종 발생하는 해무로 작전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전에 불리한 조건은 활주로 상태였다. F-51D 전투기가 정상적인 이착륙을 위해서는 최소한 길이 2,000m, 폭 50m정도는 되어야 했으나 당시 활주로는 길이 1,640m, 폭 80m였고, 노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PSP(Pierced Steel Plank)로 조립된 비상활주로였다. PSP조립 활주로는 이착륙 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결이 불완전할 경우 착륙장치에 큰 충격을 주고 타이어의 찢김 현상을 야기하여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지속적인 보수작업이 소요되는 등 유지 및 관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집중되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조종사를 괴롭힌 것은 활주로 동쪽 끝 200m 지점에 위치한 높이 100~150ft 모래언덕으로서 중무장한 후에 이륙했을 때 해당 위치의 항공기 고도가 200~300ft로 조종사 시각 상 매우 위협적이었고 기지서쪽 대관령으로부터 불어오는 하강난기류와 해안으로부터 불어오는 난류(暖流)가 합쳐져 만들어내는 난기류는 항공기를 추락 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어서 '마(魔)의계곡'이라 불렸다.

1951년 10월, 유엔지상군은 추계공세를 통해 중동부전선에의 방어선 개선을 이룩한 가운데 유엔공군은 8월 18일 시작된 적 후방에 보급로와 수송선에 대한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교살작전(Operations Strangle)을 진행 중에 있었다.

이에 따라 강릉전진부대는 유엔공군의 교살작전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원산-신고산-세포리-평강을 잇는 중동부 전선에 이르는 경원선 철도와 그와 연결되는 지선철도

및 신고산–회양–금성의 중동부 전선에 이르는 적의 수송로를 비롯하여 회양–통천 간의 이동로 등 북한군의 주요 보급수송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강릉전진부대의 10월 11일 역사적인 단독출격작전은 김영환 대령의 지휘 하의 F-51D 4기 편대에 의해 개시되었다. 오전 8시 55분 임무편대는 각 항공기 당 500파운드 폭탄 2발과 로켓 2발, Cal-50기관총 1,850발의 무장을 장착하고 편대장기를 선두로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표적인 중공군 제68군단과 북한군 제2군단 후방의 고저–통천–화천리–말휘리–마봉–양구에 이르는 주보급로에 대한 무장정찰과 공격을 통해 도로 2개소를 차단하고 말휘리 도로상에서 차량 2대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고 10시10분에 기지로 귀환하였다.

이어 9시 20분에 이륙한 김두만 대위의 4기 편대와 오후 1시 5분에 출격한 강호륜 소령이 지휘하는 4기 편대는 동일 지역에 출격하여 각각 가옥 1개소 및 마차 1대와 보급로 4개소를 각각 파괴하였다. 또한 오후 1시35분에 정영진 대위가 이끄는 4기 편대가 인제 북방 계곡으로 출격하여 도로 2개소와 철도 1개소를 차단하고 고사포 진지 등을 파괴하였다.

이후 10월 12일부터 3일간 중지했던 공격은 10월 15일부터 재개하여 10월 31일까지 이틀(10월 21, 22일)을 제외하고 15일간 지속되었다. 10월 중 238회 출격하여 인제, 연천, 통천, 회양, 안변, 원산, 신고산, 경원선 검불랑 회양, 금성 지역의 보급로 차단 작전을 실시하였다.

11월 작전은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8일까지 22일 동안 총 256회 출격하여 원산, 회양, 통천, 경원선 삼방리, 금성, 김화, 평남 양덕 지구 보급로 차단을 위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F-51D 8기와 7기 편대 15대가 출격하여 인제 북방 매봉산 남쪽 삼림지역의 적진지를 폭격하였으며, 16일에는 연천북방 대광리 지역에 2개 편대 15대가 출격하여 중공군 보급로를 공격하여 고사포 진지 4개소를 파괴하였다. 10월 17일에는 통천과 회양 지역에 4개 편대 18대가 출격하여 보급로 및 교량 등을 파괴하였다.

이 작전을 통해 거둔 전과는 병력 100명을 사살하고 개인호 78개소, 포진지 68개소, 철교 및 교량 24개소, 보급품집적소 59개소, 철도 차단 188개소, 도로 32개소 등을 파괴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 강릉전진부대(제10전투비행전대)가 수행한 이 작전(일명 '원산작전')은 한국 공군이 하나의 독립된 전투 단위부대로 유엔공군의 작전지역

일부를 담당하여 최초로 실시한 작전이었다. 또한 임무 중 모든 조종사가 모두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공군은 실전적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작전을 통해 한국 공군은 원산에서 중부 및 동부전선에 이르는 지역의 철도, 도로, 교량, 보급품집적소, 이동 차량 등을 파괴하여 공산군의 보급물자와 장비, 인원 등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후방지원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공산군의 전력운용에 곤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9,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한국공군 후방차단작전

[韓國空軍 後方遮斷作戰, 1951. 10. 11.~1952. 12.]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가 1951년 10월 11일부터 1952년 12월까지 강릉기지에서 전개한 항공후방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11월 26일 지상전선은 강원도 고성 남강(南江) 남방으로부터 덕산리(德山里)-신대리(新垈里)-사비리(沙飛里)-신탄리(薪炭里)-노루목-가바우골-송정(松亭)-금성(金城)-금곡(金谷)-관포동(寬浦洞)-산문리(山門里)-판문점(板門店)-임진강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의 지상전투는 소규모로 이루어진 반면, 공산군은 전선에 대한 전력증강을 위한 인원 및 보급품 수송을 지속하였고, 극동공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스트랭글 작전을 1951년 5월 이래 지속 실시해오고 있었다.

이에 강릉전진부대는 미 제5공군의 작전통제 하에 1951년 10월 11일부터 후방차단작전에 참가하였고 1951년 12월까지 637회(10월 : 238회, 11월: 256회, 12월: 143회)를 실시하였다. 1952년에도 제10전투비행전대는 후방차단작전을 지속 실시하여 연중

총 3,601회를 실시하였다.

1952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의 7일 동안의 작전은 황주, 토산(兎山), 신고산, 신변리, 이천(伊川),사리원, 창도리 지구에 총77회를 출격하여 건물, 철도, 포진지, 보급품집적소를 파괴하였다. 특히 1월 6일에는 황주 지역 철도 14km 구간을 공격하여 3개 구역을 절단하여 공산군의 전선보급을 지연시켰다. 또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총 55회를 실시하여 금성,원산, 이천(伊川),평강 회양 지역 표적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월 15일에 실시된 차단작전 11회는 승호리철교 폭파(차단)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강릉전진부대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비 및 전투기량 숙달을 위해 사천기지로 전개하였다가 1월 31일 강릉기지로 복귀하였다.

1월 31일 강릉기지로 복귀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2월 1일부터 후방차단작전을 계속하였다. 2월 1일에는 강릉기지로 신임조종사 7명(준위 임순혁, 박용만, 정중암, 권중화, 배상호, 백정현, 박두원)을 신규 배속하였는데, 이들은 사천기지에서 미제6146기지부대의 조종사들이 아닌 한국공군 교관 조종사의 훈련지도 아래 비행교육을 마친 조종사로서 기존 조종사와 합류하여 후방차단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2월 1일 날씨가 흐린 가운데 원산 남쪽 신리(新里)지역에 F-51D 8대가 출격하여 보급품을 적재한 열차 파괴를 시작으로 2월에는 출격일수 15일에 총 192회 출격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2월 중 작전지역은 서부전선지역인 개성, 신막, 황주, 재령, 사리원, 해주, 장연, 옹진 지역과 중부전선 지역인 이천(伊川), 곡산 등이 포함되었다.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동안 강릉기지의 폭설로 인해 출격이 늘어 작전 또한 중지되었다.

3월 중 출격일수는 기상호전으로 23일로 증가되어 작전활동도 총 290회로 증가하였다. 3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신막, 옹진 인근에 산재한 후방보급기지 및 포진지 등을 집중적으로 보급품집적소 27개소와 벙커 19개소를 파괴하였고, 황주-사리원-신막을 잇는 철도와 사리원-해주-옹진으로 이어지는 철로에 대한 차단공격을 실시하였다. 3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원산에서 서부전선의 해주, 황주, 신막, 사리원 지역의 철도와 기타 보급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전선지역의 물자와 인원의 증원 차단에 주력하다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송림 지역 산업시설 폭격임무에 전 가용 전력을 투입하였다.

4월에는 출격일수 19일 동안 208회를 출격하여 송림제철소를 포함한 송림지역 산업시설 폭격을 비롯하여 평양 이남의 진남포, 해주, 사리원, 재령 등지의 철도를 공격하였다. 4월 10일과 11일에는 해주 북쪽 신덕(新德)과 평양 남쪽 중화(中和)지역으로 13회를 출격하여 철로를 파괴하였고, 4월 18일과 20일에는 사리원을 중심으로 반경10km 이내

의 송산(松山),구룡(九龍),어수(御水)지역에 총 28회를 출격하여 신막-재령-황주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노선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평양 남쪽 10km 지점의 산음리(山陰里)지역과 황주 서남쪽 심촌(沈村), 대열(大悅) 등지로 출격하여 철도, 화물, 열차, 도로를 공격하였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해주 북쪽 신창리(新昌里)와 진남포 북쪽 정화리(亭花里), 원산 남쪽의 안변安邊) 지역으로 출격하여 철도 및 교량, 보급로를 공격하였다.

5월의 출격일수는 총 26일이었고 279회의 후방차단 출격을 실시하였다. 5월 1일과 2일에는 해주 북쪽 신원리와 신창리 지역으로 출격하여 사리원과 연결되는 철도를 차단하였으며, 5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사리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7회를 출격하여 철도차단에 주력하였다. 5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황주, 원산, 평강(平康), 사리원, 장전 등지의 우마차, 자동차, 연료집적소 등을 파괴하였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경원선 검불랑 지역에 56회를 출격하여 화차와 철도를 공격하였다.

6월의 출격일수는 총 24일이었고 282회의 출격하여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6월 1일부터 17일까지 146회의 작전을 실시하여 평양, 황주, 사리원과 중북부지역의 강동(江東), 성천成川)지역과 동부지역인 삼원리(三院里), 신고산, 삼덕(三德), 세포리(洗浦里), 안변, 통천지역의 철도, 교량, 차량을 파괴하였다. 6월19부터 28일까지는 강원도 평강과 안변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지나는 이목리(利木里)와 삼방리, 검불랑 지역에 철도차단작전 136회를 실시하였다. 6월 18일에는 사천기지에서 F-51D 전투기 비행훈련을 종료한 조종사 8명(소위 이창실, 이호영, 박희곤, 송재봉, 임종두, 임상섭, 현창건, 최순선)이 강릉기지로 전입되었다.

7월에는 작전일수 18일에 후방차단 작전 196회를 실시하였는데, 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산 남쪽 송산과 견산리(見山里), 검불랑, 신고산, 고성 지역을 공격하여 철도차단과 함께 적진지 파괴 작전을 수행하였다. 7월 13일에는 4기 2개 편대가 평강 도수대(道修垈)지역과 하주리(下注里)지역의 건물, 보급품집적소, 벙커, 자동화기 진지 등을 공격하였다. 7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중부전선의 평강, 이천, 곡산, 현리 지역과 동부지역인 원산, 장전(長箭)지구에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 포진지, 건물 등을 폭파하였다.

8월은 23일 동안 324회 작전을 펼쳤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동부전선의 금성 동북쪽 현리와 하신원리(下新院里), 순갑리(順甲里), 장연(長淵), 통천, 원산 지역으로 총 156회 출격시켜 보급품집적소, 대공포 진지, 군용건물, 철도 및 유류저장소 등을 공격하였다. 또한 12일부터 27일까지 회양과 신고산, 창도리, 장연, 시변리(市邊里) 지역으로 출격하였다.

이 지역은 공중공격에 용이한 표적인 보급품집적소 및 유류저장소, 탄약저장소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8월 20일에는 4개 편대 F-51D 16대가 출격하여 창도리 지역에 출격하여 폭탄과 로켓, 기총사격을 통해 보급품집적소 11개소와 탄약저장소 1개소, 유류집적소 1개소, 건물 2동 및 철교와 교량을 파괴하였다. 한편, 8월 19일에는 신임조종사 8명(소위 김필정, 이학선, 최성달, 신관식, 김만용, 조항식, 이찬권, 임병두)이 강릉기지로 전입하였다.

9월에는 22일 동안 총 426회 출격하여, 중부전선 수안(遂安), 금천 인근의 용성(龍城), 온정리(溫井里), 이천, 분지빙리(分池氷里, 현리 서남쪽 10km), 금성회양 지역의 보급품집적소, 군용건물, 유류저장소, 벙커, 포진지 등에 대해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출격일수 21일에 총 655회를 실시하여 고성, 현리, 승호리(勝湖里), 양덕(陽德), 중화, 이천, 온정리, 남천, 고원, 원산, 옹진, 신계(新溪), 곡산, 해주, 재령, 창도리, 지혜산 지역으로 출격하여 차단작전을 펼쳤다.

11월에는 18일간 총 352회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지역의 고성, 고원, 내금강, 현리 지역과 서부전선지역인 해주, 개성, 신천, 옹진, 사리원, 수안, 온정리, 신막, 재령 지구에 출격하여 벙커, 건물, 보급품집적소, 탄약저장소, 병력집결지, 철도, 포진지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2월 1일에는 공군사관학교 1기생 출신의 F-51D 전투조종사 13명(소위 김영환(金永煥),이배선, 김영민, 이주표, 윤자중, 고광수, 이관모, 최영창, 정해영, 김중보, 천영성, 김낙규, 이희근)이 강릉기지로 전입하였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중부 전선의 김화와 평강지역으로 86회 출격하여 벙커 및 건물, 보급품집적소를 공격하였다.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연천 북서쪽의 삭령(朔寧) 및 을목령(乙木嶺),원산, 현리, 이천, 신고산, 평강 지역 등으로 182회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 유류저장소를 파괴하고 철도 및 철교에 대한 차단작전을 수행하였다.

1952년이 들어 전투출격이 증가하면서 1952년 1월 11일 첫 100회 출격조종사가 탄생하기 시작하여 한 해 동안 22명의 100회 출격 조종사가 탄생하였고, 피탄 및 작전 중 사고로 인해 출격조종사 5명이 희생 되었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강릉기지로 전개하여 제5공군으로 받은 임무는 항공후방차단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1951년 10월 11일 기존 미 제6146기지부대 조종사들과 함께 수행하던 임무에서 탈피하여 한국 공군 단독으로 시작된 이래 휴전 시기까지 시행되

었다.

그러나 1952년 10월 28일 한국 공군이 공지합동작전, 즉 근접항공작전(CAS) 임무를 시작하면서 중요성과 수행 빈도에서 근접항공작전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었고, 1953년 들어서면서 그 격차를 더하게 되었다.

한국 공군이 1951년 10월 이래 시행한 중동부 전선에서의 후방차단작전은 승호리 철교 폭파, 평양대폭격 작전 참가, 송림 제철소 폭격 등 가시적 성과와 함께, 공산군의 병력을 살상하고, 장비, 물자 및 철도, 차량 등 수송수단 등을 파괴하여 공산군의 전투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勝湖里 鐵橋 遮斷作戰, 1952. 1. 12.~15.]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가 1952년 1월 12일과 15일에 평양 동부에 위치한 보급로 요충지인 승호리 철교를 폭파하기 위한 수행한 항공차단작전(철교 폭파작전)이다.

전개과정

북한과 중공군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군사물자와 장비를 경의선과 만포선을 통해 평양으로 수송하였고, 이를 다시 평양에서 중동부 전선으로 보급하고 있었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부 1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남 중앙선(일명 승호리선)이 지나는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설치된 철교로써 중국에서 평양까지 수송된 보급물자를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공산군 후방보급로의 요충지였다.

미 제5공군은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이미 기존 승호리 철교를 폭파하고 차단하였으나, 북한은 기존 철교 위치에서 하류 방향으로 북쪽 200미터 지점을 우회하여 새로운 철교를 가설한 후 주위에 밀집된 대공방어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10개의 교각은 침목을 우

물정(井)자 형으로 쌓아 올리고 그 공간에는 모래주머니를 채워 폭격이나 기총 공격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설되었다.

미 제5공군은 이 철교 폭파에 실패하게 되자 이 임무를 한국 공군에 이양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신(金信) 대령은 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 달성자인 김두만 소령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1952년 1월 12일 오전 7시 40분에 강릉기지를 이륙한 F-51전투기 6기 편대(편대장 김두만 소령, 2번기 장성태 대위, 3번기 김금성 대위, 4번기 이기협 대위, 5번기 전봉희 대위, 6번기 미 공군 중위 Lagro)는 편대장의 지휘아래 표적상공에 도착하였다. 우선 로켓탄과 기총으로 적 대공포진지를 무력화한 후 500파운드 폭탄 12발을 투하하였으나, 폭탄이 교각사이의 모래바닥과 물속에 떨어져 폭파에 실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 이륙한 윤응렬 대위가 지휘하는 3기 편대(2번기 주영복 대위, 3번기 정주량 대위)가 재차 임무를 시도하였으나 교각위의 철로만 손상을 입혔을 뿐 교량 폭파에는 실패하였다.

첫날 임무에 실패한 김신 대령은 참모들과 숙의 끝에 8,000피트 상공에서 강하하여 3,0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현재의 미군 전술로는 철교폭파가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고, 조종사에게 위험과 모험이 따르는 4,000피트 상공에서 강하하여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폭격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1952년 1월 15일 오전 8시 25분 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2번기 정주량 대위, 3번기 장성태 대위)와 제2편대장 옥만호 대위(2번기 유치곤 대위, 3번기 박재호 대위)가 이끄는 6대의 F-51 전폭기는 공산군의 대공포화가 작렬하는 표적 상공에 도착하였다. 먼저 제1편대가 공산군의 극심한 대공 포화를 피해가며 편대장기를 선두로 기수를 목표에 맞춰 진입하여 로켓탄을 발사하자 철교의 경간 2개에서 검붉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이어 제2편대가 표적을 향해 진입하자 1편대는 2편대를 엄호하기 위해 잔여 로켓탄과 기총을 대공포 진지를 향해 발사하였고, 2편대는 대공포화의 위협을 피해 정확한 조준하에 폭탄과 로켓탄을 표적에 투하하자 2개의 교각경간이 파괴되며 철교의 중앙에 2개의 큰 구멍이 생겼다. 이로서 한국공군은 출격 15소티 만에 승호리철교 파괴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오전에 출격한 편대의 전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기협 대위를 편대장으로 5대의 F-51 전폭기가 출격하여 목표지역 상공을 정찰하던 중, 오전 출격 편대에 의해 파괴된 다리의 중간에 교각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였다.

1월 15일 오전 출격하여 승호리 철교를 차단한 F-51D 6기는 500파운드 폭탄 12발과

로켓 20발, 기총 4,700발을 사용하여 경간 2개와 함께 포진지 6개소, 보급품집적소 1개소, 벙커 3개소, 건물 4동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날의 작전성과는 1952년 2월 21일 개최된 미 제5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소개 되었고, 당신 회의에 참석했던 김신 제10전투비행전대장은 참석한 유엔공군 비행지휘관의 치하와 박수를 받았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은 이전에 유엔공군의 공격에도 수차례 공격에도 일부 파괴와 복구를 반복한 채 주요 보급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승호리 철교를 미 제5군으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아 성공적으로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공산군은 압록강으로부터 유입된 물자와 병력, 장비를 평양을 거쳐 중동부전선으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병력과 장비, 인원을 재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유엔공군 수차례 실패를 겪었던 작전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공군 조종사들은 지상포화가 작렬하는 상황에서 저고도 폭격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임무완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⑩,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松林製鐵所 爆擊作戰, 1952. 3. 28.~4. 9.]

개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제10전투비행전대가 1952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의 출격을 통해 서부 전선 배후의 주요 공업시설 밀집 지역인 송림시에 위치한 제철소 및 기타 산업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실시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전개과정

한국 공군은 1952년 3월 말부터 유엔공군과 연계하여 북한군의 후방병참기지로 판단

한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는 서부전선으로 향하는 공산군의 주요 보급요충지인 송림(松林, 일제 강점기에는 '겸이포'로 불림) 등의 주요 산업시설 분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5공군사령부는 1952년 3월 28일부터 송림 공업도시를 폭격하라는 임무를 한국공군에 하달하였다.

송림은 경의선의 황주역에서부터 13km의 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동강 수로를 통해 약 5,000톤급 선박이 정박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1918년 일본이 제철소를 건설하여 한국 최초의 제철 도시가 조성된 곳이었다. 1952년 당시 송림제철소는 150톤급 용광로 3기와 200톤급 용광로 2기를 비롯하여 각종 제강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여 선철, 철관, 철도레일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2년 3월 28일 오전 9시와 9시 30분에 옥만호 대위와 김금성 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2개 편대 8대의 F-51D 전폭기를 출격시켜 송림의 공장지대 상공에서 500파운드 폭탄과 로켓, 기총으로 조차장과 유류 및 탄약 저장소를 공격 한 후에 귀환하였다. 이날 오후 4시 5분에는 이기협 대위와 나창준 대위를 편대장으로 8대의 F-51D가 출격하여 송림제철소를 폭격하였다. 이날 출격으로 송림제철소 용광로 2개, 건물 4동, 수송철로 1개 구간을 파괴하였다.

3월 29일에도 공격은 계속되어 오전 8시 30분과 8시 40분 2차례에 걸쳐 이기협 대위와 나창준 대위를 편대장으로 2개 편대 총 8대가 송림시 공장지대를 공격하였고, 오후 4시에도 F-51D 8대가 송림제철소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여 공장 건물을 파괴하였다. 3월 30일에는 총 11대의 F-51D가 출격하여 송림지역 산업시설과 철도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여 공장건물과 물자저장소를 파괴하였다.

4월에 들어서도 송림제철소를 포함한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어 4월 2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총55회 출격하여 제철소의 용광로, 부속시설과 설비를 파괴하였고, 송림시의 군수공장, 유류집적소, 연결 철도 및 철교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작전은 한국공군이 최초로 감행한 북한 산업시설에 대한 공중폭격이었다.

결과 및 영향

한국 공군은 작전을 위해 총 98회 출격하여 송림 제철소 건물 및 용광로, 물자 저장소, 연결 철도 등 제철 설비와 송림시내 위치한 군수공장, 유류 집적소, 철도 및 철교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송림 지역 산업시설에서 생산되어 서부전선으로 이동하는 각종 군수장비의 생산과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북한 산업시설을 폭격한 최초 사례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북한 발전시설 폭격작전

[北韓 發電施設 爆擊作戰, 1952. 6. 23.~26.]

개요

미 극동공군과 해군이 1952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고착된 정전협상과 지상전선 타개를 위한 항공압박작전의 일환으로, 수풍, 부전, 장진, 허천 수력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1951년 7월 시작된 정전회담이 포로송환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진전이 없게 되자 유엔군사령부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미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대장은 1952년 4월 28일 유엔군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클라크(MarkW.Clark) 대장에게 북한 수력발전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압록강의 수풍발전소를 제외한 수력발전시설을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클라크 장군은 이에 수력발전시설에 대한 공격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미 극동공군은 수풍발전소를 제외한 부전, 장진, 허천 수력발전소를 주 공격표적으로 하는 계획을 1952년 6월 11일 클라크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미 함참은 수풍발전소를 포함한 공격계획을 승인하였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해군에도 작전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작전 통제관으로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을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 극동공군과 해군이 작전을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수풍발전소는 미 제5공군과 미7함대 함재기 전력이 합동으로 공격을 담당하며, 제5공군은 장진 제3, 제4발전소와 부전 제3, 제4발전소를, 해군 함재기들은 부전 제1, 제2발전소와 허천 제4발전소를 공격하도록 했으며, 미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장진 제1, 제2발전소를 야간에 폭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웨이랜드 장군은 수풍발전소 지역 기상에 따라 공격일자와 시간을 정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참가전력에게 수풍댐 공격 이전에 다른 표적에 대한 공격을 금지시켰다. 1952

년 6월 23일 오후 수풍발전소 지역 기상상태가 양호해지자 오후 4시 웨이랜드 장군은 공격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수풍, 부전, 장진, 허천 발전소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먼저 수풍발전소에 대해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경까지 실시된 공격은 제5공군 소속 F-86 전투기 84대가 안둥(安東) 비행장에서 출격할 MIG-15를 방어하기 위해 수풍발전소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실시하는 가운데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3척에서 발진한 F9F(Panther) 제트 전투기 35대가 먼저 지상에 설치된 44문의 대공포와 37문의 대공화기를 제압하였고, 이어 스카이레이더(A-1, Skyraider) 35대가 수풍발전소를 폭격하였다.

이와 함께 제5공군 소속 F-84 전폭기 79대와 F-80 전폭기 45대가 총 145톤의 폭탄을 수풍발전소에 투하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2대의 RF-80 정찰기가 폭격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출격하였고 F-86 25대가 이를 엄호하였다.

한편 수풍발전소 공격이 시작된 후 제5공군 F-51 전폭기들은 부전 제3, 제4발전소를 공격했으며, 미 제1해병비행단 소속 전폭기들은 장진 제3, 제4발전소를 폭격하였다. 또한 미 제7함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은 부전 제1, 제2발전소와 허천 제4발전소와 장진 수력발전 복합시설을 폭격했고, 야간에는 폭격사령부 소속 B-29폭격기가 장진 제1, 제2 발전시설을 폭격하였다.

6월 24일에도 제5공군과 제1해병비행단과 극동해군 함재기들은 6월 23일의 공격 목표를 재차 공격하였으며, 제5공군은 전날 야간에 폭격사령부 B-29폭격기가 공격했으나 파괴되지 않은 장진 제1, 제2발전소를 추가로 공격하였다. 6월 25과 26일 공격은 폭격사령부 소속 B-29기가 야간에 15분 간격으로 이들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5공군(제1해병비행단 포함),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극동해군 항공 전력이 참가하여 시행된 이 작전에서 극동공군 소속 전폭기 730대가 폭격임무로 출격하였고,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F-86이 요격임무 238회를 실시했으며 미 해군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의 작전에 546회 출격하였다.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극동공군은 1대의 항공기 손실도 없었으나 해군 함재기 2대가 대공포에 의해 격추되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안둥 지역에 주둔한 중국과 소련공군의 MIG-15 출격은 없었다.

이 작전으로 북한지역의 발전능력이 90%이상 파괴되었고, 중국 만주지역 전력소요의 23% 가 손실되었으며, 4개 수력발전소의 15개 발전설비 중 13개가 사용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약 2주 이상 완전한 전력마비 상태에 빠졌고 중국의 뤼순(旅順), 다롄(大連), 훈춘(琿春), 안산(鞍山)에 있는 51개 주요공장 중 30개 공장이 중국 중앙정

부에서 할당한 연간 책임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결과 및 영향

북한지역 수력발전소 폭격은 김일성에게 심각한 우려와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후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당국에게 군수지원을 대폭 증가하고 중 · 소 공군이 소극적인 방어 작전에서 탈피하여 38°선 이남과 서울 폭격과 같은 공격적인 작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확전방지와 조속한 정전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던 양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는 중국과 북한간의 정치 · 군사적 갈등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상 타결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로 작용하진 못했는데, 이는 이후 영국 노동당의 비난과 미국 의회차원의 조사로 인해 작전의 정치적 효능이 감소되었고, 이를 통해 유엔군이 제한전(制限戰)을 계속 수행할 의도임을 공산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됨으로써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게 실질적인 위협과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유엔공군 평양폭격 작전

[UN空軍 平壤爆擊 作戰, 1952. 7. 11., 8. 29.]

개요

유엔공군과 미 제7함대 함재기들이 정전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1952년 7월 11일과 8월 29일 이틀에 걸쳐 평양지역에 대해 실시한 대량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1952년 지상전선이 고착되고 판문점에서의 휴전협상이 진전이 없게 되자 유엔공군은 대량공습을 통해 북한 내의 주요 군사목표를 선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공산군 측이 유엔군의 휴전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1952년 6월 이후 특정 목표에 대량 공중공격 작전의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표적으로, 전쟁 초기 중국과 소련과의 확전을 우려하여 미 국무부가 반대하여 폭격이 무산된 북한의 주요 수력 발전소와 지난 1년여간 공군의 폭격이 제한된 평양지역과 대규모 산업시설 밀집지역이 선정되었다.

1952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수력발전소에 대한 미 극동공군과 극동 해군 함재기의 대규모 공격이 실시된 이후인, 7월 5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이 평양에 대규모 폭격을 승인하자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장군은 이 작전을 '압박펌프 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으로 명명하였다.

당시 평양지역은 중국 안둥(安東)과 북한의 신의주 기지에 주둔한 MIG-15의 위협 안에 있었지만, 더욱 큰 위협은 평양 시내 곳곳에 위치한 48문의 고사포와 약 100문의 대공 자동화기였다.

7월 11일 극동공군은 총 1,532회 비행활동을 실시하여 월중 최대비행기록을 수립한 날이면서, 항공압박작전(Operation Pressure Pump)의 첫날이기도 한 이날 극동공군의 전폭기와 극동해군 함재기 총 1,254대가 3차례에 걸쳐 출격하여 평양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였는데, 평양지역 30개 표적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

MIG-15의 요격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제5공군의 F-86과 호주공군의 Meteor-8이 청천강 이북 상공에서 전투초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을 감행한 유엔공군은 북한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3개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였고 대부분의 표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항공사진판독결과 판명되었다. 이날 북한 산업부 지하 사무실이 파괴되었고, 다른 방공호는 직격탄을 맞아 400~500여 명의 북한 관리가 사망했다는 평양 주재 첩보원의 보고가 있었고. 이틀 후 평양 라디오 방송은 "유엔군의 잔인한 공습으로 1,500동의 건물이 파괴되고 7,000여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비난하였다.

평양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소련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인 8월 29일에도 실시되었다. 이는 소련이 중국에게 그들의 자원을 전쟁에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정전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 국무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공습에는 제5공군과 극동해군 함재기(216소티) 총 1,403대가 동원되어 7월 11일과 마찬가지로 3차례(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로 나누어 공격을 가했다. 미 공군의 F-86과 호주 공군의 Meteor-8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상공에 도착한 전폭기들이 공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철도국, 군수국, 평양방송국 등 31개의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나 공산군의 지상포화에 의해 3대가 손실을 입었다. 다

음 날인 8월30일 야간에는 잔여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제19폭격전대 B-29 11대가 출격하여 공습을 단행하였다.

결과 및 영향

1950년 6월 수풍발전소를 포함한 북한 주요 전력발전시설(수력발전소)에 대량폭격에 이어 시행된 평양대폭격 작전으로 공산군 전쟁 지휘부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고 폭격 작전 실시 전 위험지역에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전단 살포로 북한 주민의 유엔군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다.

평양 대폭격 작전은 밀집한 군사지휘 및 통시시설 및 북한 정부기관에 대한 인력과 시설을 파괴하여 북한 전쟁지도부, 정부 기관, 주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전쟁수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정전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정전회담 타결 목표 항공압박작전

[停戰會談 妥結 目標 航空壓迫作戰, 1952. 8. 29.~10. 1.]

개요

미 극동공군과 해군이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모스크바 방문기간(1952. 8. 17.~9. 16.) 동안 정전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한 중국 압박수단으로 1952년 8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행한 평양 정부 및 군사시설, 수풍수력발전소, 신의주 지역 군사시설, 아오지 및 회령지역 산업시설, 남산리 화학공장, 대규모 병력집결지에 가한 대규모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1952년 8월 8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조기 정전협상 타결을 위한 이전의 군사조치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에게 정전회담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지 말고 모든 공군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군사목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8월 17일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가 군사, 외교, 경제 각료를 대동하고

중 · 소 수뇌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고,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인 케넌(George F. Kennan)은 저우언라이가 모스크바에 머무르는 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중국이 소련에 대규모 군사 ·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게 하면, 소련이 손쉬운 대안으로 정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러한 정전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1952년 8월 21일 미 극동공군 표적선정위원회에 참석한 극동공군 작전참모부장은 유엔공군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 서북지역의 주요한 군사적 목표인 신의주 군사시설, 부분 가동 중인 수풍발전소, 남산리 화학 공장을 공격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른 표적선정위원들은 7월 11일 대규모 폭격 이후 평양에 남아 있는 45개 군사표적을 재차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폭격사령부와 제5공군 대표들도 동의하면서, 제5공군 대표들은 효과가 감소하는 산업시설 공격보다는 500명 이상의 병력 집결지를 공격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극동해군은 극동공군과는 다르게 동북지역의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공중공격을 받지 않은 아오지와 회령이었다. 소련 국경으로부터 8마일, 중국 국경으로는 4마일 떨어져 있는 아오지는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이 12개와 북한군에게 휘발유를 공급하는 정유공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국경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이를 승인하고, 미 합참에 이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들 목표 중 먼저 평양지역의 군사목표 공격을 지시하였고 8월 29일 지난 7월 11일에 이은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시행되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제1파 공격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3차례에 걸쳐 평양 시내 정부청사, 철도청, 탄약관리청, 라디오 방송국, 군수 공장 및 창고 등의 표적을 타격하였다. 이날 참가한 전력은 미 극동공군과 해군 소속 전폭기 1,403대로 45개 군사표적 중 31개를 파괴하였다.

9월 1일 극동해군 함재기 총 259대가 동원되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아오지 정유공장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6 · 25전쟁에서 극동 해군이 단일 표적 공격에 투입한 최대 규모의 기록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장기간 공중 공격을 받지 않아 방공망이 구축되지 않은 이유로 저항 없이 표적을 완파할 수 있었다. 9월 3일에 극동해군 함재기들은 회령지역 보급창과 병영시설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이러한 극동해군의 동북지역에서의 작전은 성공을 거두고 있던 반면, 극동공군의 서북지역 표적에 대한 공격은 안둥과 만포진 사이에 밀집된 대공화기(공산군 대공화기의

50% 배치)로 인해 공격은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중국 국경을 침범하지 않고 F-86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을 완벽하게 엄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바쿠스(Glenn O. Barcus) 제5공군사령관은 작전연기를 유엔군사령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폭격사령관 개니(Willy D. Ganey) 장군은 이러한 대공위협을 회피하고자 야간에 구름이 낀 상태에서 폭격을 계획하고 9월 3일과 4일 야간에 B-29기 50대를 동원하여 수풍발전소를 공격하려 했으나, 구름이 없어지자 장진수력발전소로 표적을 전환하여 공격하였다.

수풍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9월 12일과 13일 각기 B-29 25대가 출격하여 수풍발전소를 공격하였는데, 공격 이전과 공격동안 미 제5공군 B-26이 탐조등을 제압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파열폭탄을 투하하여 30개소 중 약 8개소를 무력화 했고 동시에 B-29 4대는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동부 상공에 머물렀다. 이 작전에서 MiG-15에 의해 B-26 1대가 격추 당했고 대공포에 의해 B-26이 손상을 입었으나, B-29는 표적에 폭탄을 투하하여 재차 발전소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극동공군은 탐조등 제압과 전자방해책(ECM)이 B-29의 대량손실을 방지했다고 결론지었다.

제5공군은 1952년 9월 초 MIG-15의 활동이 급증하자 신의주 지역 폭격을 중단하고 삭주에 위치한 북한군 군관학교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9일 삭주 군관학교 공격 시 F-84 전폭기가 175대에 달하는 MIG-15기의 공격을 받았는데, F-84를 엄호하던 F-86과 공중전을 벌였고, 이중 일부인 77대의 MIG-15가 F-84를 공격하여 3대를 격추하였고, F-86은 MIG-15 6대를 격추하였다.

9월초 증가하였던 MIG-15의 활동은 지속되었으나, 제5공군은 신의주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였는데, 9월 15일 제58전폭비행단 소속 F-84 24대가 신의주 항만과 보급창을 공격하였고, 9월 21일에는 F-86 전투기들이 신의주 상공에서 MIG-15와 공중전을 벌이는 사이 F-84 전폭기 41대가 북창에 위치한 병기공장을 폭격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제5공군은 9월 중 후방지역의 공산군 병력집결지 47곳을 폭격하여 병력을 살상하였고, 9월 19일 폭격사령부 B-29기 32대는 11개월 만에 F-86 엄호 아래 주간공습을 감행하여 함흥 남서부 지역 동해안 지역 병력집결지 및 숙영시설을 공격하여 병력을 살상하였다.

9월 30일과 10월 1에는 제19폭격전대, 제98, 제307폭격비행단은 예하 3대의 전자방해책(ECM)임무기와 대공제압기를 포함한 48대의 B-29를 출격시켜 압록강으로부터 1,300피트 이격되어 있고 수풍댐 근처에 위치한 북한의 마지막 남은 전략표적인 남산리 화학공장을 파괴하였다. 이 폭격 중에 제5공군 소속 7대의 B-26이 저공으로 비행하여

약 40개의 탐조등 중 8개를 파괴하였다.

결과 및 영향

정전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유엔공군과 해군의 중국에 대한 항공압박작전은 공산군 병력을 사살하고 평양의 군사목표와 수풍발전소 등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등 전술적 성공은 거두었지만 정전협상 타결이라는 전략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공산측은 포로송환 문제에 있어서 유엔군의 '자유의사 송환'에 맞서 공산측의 '강제 전원 송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이 문제로 인해 1952년 10월 8일 협상은 결렬되어 무기 휴회로 들어갔다. 이후 공산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유엔군측에 넘기려는 선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정전을 조기 타결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항공 전력을 통한 압박작전' 지침은 변화 없이 지속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351고지전투 항공지원 작전

[351高地戰鬪 航空支援 作戰, 1952. 10. 28.~1953. 7. 27.]

개요

한국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으로 승격)가 동부전선 351고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던 국군 제15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1952년 10월 28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 당일까지 수행한 근접항공작전 및 후방차단 작전이다.

전개과정

351고지는 고성 남쪽의 월비산으로부터 동쪽 2km에 위치한 곳으로 태백산맥이 동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동부전선의 최북단 돌출부에 있어 동해안지역으로 침투하는 북한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감제(瞰制) 고지였다. 또한 이 지역은 금강천을 기점으로 남강이 고성북방에서 동해로 흐르고 있어 작전상 천연장애물로 작용하

고 있었고 원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어 교통망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공군의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은 한국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으로 승격)가 단독으로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는 1952년 10월 28일부터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27일까지 수행된 국군의 351고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근접항공지원작전(CAS) 및 후방차단작전을 망라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한국 공군은 총 1,538소티를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 509개소, 벙커 736개소, 야포진지 158개소, 박격포 진지 179개소, 인명살상 287명 등의 전과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F-51D 전투기 8대가 손실되고, 최종성, 임택순, 장창갑, 서동규, 김현일, 고광수 등 6명의 조종사가 순직하였다.

작전기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3월 26일 작전을 꼽을 수 있는데, 1952년 1월부터 전개한 점령 공격이 국군 제15사단에 의해 저지 되자 북한군 7군단은 3월 중순 후방을 기습할 목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인접고지로부터 동굴을 뚫어 접근하였다. 이에 국군 제15사단은 자체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강릉기지에 주둔 중이던 제10전투비행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항공지원 요청을 받은 제10전투비행단은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술토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목표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점과 동굴 입구가 제15사단 진지와 불과 400야드(약 274m)거리에 있어 아군진지를 오폭할 가능성이 높고, 오폭이 발생할 경우 국군의 손실이 너무 커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시급성으로 인해 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 제15사단 포병부대, 미 제6148전술항공통제부대(T-6G 모스키토 운영부대), 육군 제15사단 파견 공군 전방항공통제관(FAC), 제10전투비행단 F-51D 전폭기로 구성된 한 · 미 공군과 한국 육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임무조종사를 100회 출격 이상 조종사 위주로 편성하였고 마침내 3월 26일 10:00정각에 강릉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편대장 소령 윤응렬)의 F-51 전투기 4대는 전투대형으로 목표를 향해 비행하여 약 20분이 지난 시각에 351고지 상공에 도착하였다.

이때 351고지 정면의 목표물 부근에서 T-6 모스키토가 목표상공 9,000피트 상공에 대기하고 있던 제1편대에게 351고지 서쪽의 경사면 골짜기에 연막탄을 발사하여 공격목표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 T-6 모스키토기는 육군 제1군단 화력지원본부에 3분간의 포사격을 요청하였고 포병의 포사격이 적의 화력진지를 제압하자 제1편대장기가 10

시 30분에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 하여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2번, 3번, 4번기 순으로 급강하 폭격을 실시하였다. 이후 제2편대(편대장 이기협 소령), 제3편대(편대장 옥만호 소령), 제4편대(편대장 김금성 소령)가 약 30분 간격으로 표적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날 4기 4개 F-51D 편대는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여 351고지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351고지 전투 지원은 휴전일인 7월 27일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날 15개 편대 60대가 월비산을 비롯한 351고지 인근 지역으로 출격하여 북한군의 벙커 및 야포진지를 공격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이 작전은 351고지 확보를 위해 분투한 한국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공군비행단뿐만 아니라 미 제5공군 및 미 7함대 함재기가 참가한 연합공지작전의 일환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적 수행으로 정전 협상 결과 38°선 이북의 설악산, 속초, 거진, 간성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제1집, 201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 참전 증언록』, 1996.

【이근석】

북한 저수지 폭격작전

[北韓 貯水池 爆擊作戰, 1953. 5. 13.~29.]

개요

미 극동공군(제5공군, 폭격사령부)이 1953년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북한 전쟁지휘부와 북한군을 압박하여 정전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실시한 덕산, 자산, 권가 저수지 제방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1952년 10월 8일 무기휴회에 들어갔던 휴전회담이 1953년 4월 26일 재개 되었으나 포로송환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6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장군은 휴전회담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5월 14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각 군 구성군사령관에게 공산군에 대한 더욱 강력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극동공군에게는 압록강 부근의 민감한 목표에 대한 공습과 더불어 당시 연간 약 38만톤의 쌀 생산량을 보유한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 내 저수지 20개를 파괴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러나 극동공군 참모들은 클라크 장군 지시 이전인 1953년 2월부터 북한에서 쌀이 전쟁물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수지 공격은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웨이랜드(Otto P. Weyland) 극동공군사령관은 저수지 폭격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클라크 장군의 저수지 폭격 이전에 제5공군에게 평양 북쪽 20마일에 위치한 덕산저수지 제방을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제 5공군 예하 제58비행단은 5월 13일에 F-84전폭기 59대를 4개조로 나누어 길이 2,300피트의 제방을 공격했다. 그러나 폭격 당시 육안관측으로는 1,000파운드 폭탄 여러 발이 명중했음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밤중에 저수지에 담겨 있던 물이 폭격으로 약해진 부위를 뚫고 쏟아져 다음날 전폭기들이 다시 공격하기 위해 가보니 물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댐이 파괴되면서 홍수가 일어나 공산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제방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홍수로 하류 6마일의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신안주에서 평양에 이르는 철로의 교량 5개가 파괴되었으며, 철도 옆 도로 2마일이 유실되었다. 또 건물 700동이 파괴되고 순안비행장이 물에 잠겼으며, 수만 에이커(Acre, 약 1,224평) 논이 물에 잠겼다. 클라크 대장은 미 합동참모본부에 덕산저수지 파괴 작전은 수 주간의 철도차단작전 효과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저수지 제방 폭파의 효과를 확인한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은 덕산저수지에 이어 2개의 저수지를 더 파괴하기 위한 폭격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자산저수지를 제5공군에 배당하고 권가저수지는 폭격사령부에 배당했다.

5월 15일 오후 제5공군 소속 제58비행단 F-84전폭기 36대가 자산저수지 폭파를 위해 출격했으나 저수지 제방을 파괴하지 못했다. 5월 16일 다시 제58비행단은 90대의 F-84전폭기를 3파로 나누어 재차 출격시켜 다시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저수지는 폭파되고, 저수지의 물이 일시에 쏟아져 제방 2,050피트가 무너졌으며, 평양-순천간 철도교량 3개가 유실되고 철도 옆 도로가 홍수에 휩쓸려 유실되었다. 무섭게 몰아닥친 홍수는 모내기를 마친 많은 논을 휩쓸었다.

또한 5월 21일 밤 폭격사령부 B-29폭격기 7대가 권가 저수지를 폭파하기 위해 출격했다. 쇼란(SHORAN) 유도를 받아 56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4발이 제방에

명중되었으나, 제방은 파괴되지 않았다. 5월 29일 밤 다시 14대의 B-29폭격기들이 재차 출격하여 5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제방에 명중시켰으나 저수지는 건재했다. 공산군은 미리 물을 방류하여 댐이 수압을 받지 않게 했고, 결과적으로 저수지는 파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권가 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해 물을 완전히 방류하여 홍수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으나, 저수지 물이 필요한 논농사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공산군은 항상 신속한 철도복구능력을 과시했으나, 저수지 공격으로 유실된 철교는 빠르게 복구하지 못했다. 또 무너진 덕산저수지 제방 복구를 위해 4,0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약 2개월간 작업했으며 공산군은 연인원 20만 명을 동원했다고 발표했다.

결과 및 영향

미 극동공군의 저수지 폭격작전은 북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작전이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북한군에게 쌀은 곧 전략 물자였고 춘계 저수지 파괴는 모내기를 막거나 모내기를 끝낸 논을 물에 잠기게 하여 쌀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저지시켰고, 북한군은 물론 북한주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저수지 파괴로 인한 홍수는 대규모 침수지역을 발생시켰고, 이는 장기간의 도로 차단효과와 함께 장기간의 복구시간을 강요함으로써 매우 높은 후방차단 효과도 발생시켰다. 이로써 북한 전쟁지도부가 정전협상 타결에 대한 심각한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조속한 포로교환 협상에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1, 2013.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북한 비행장 폭격작전

[北韓 飛行場 爆擊作戰, 1953. 6. 10.~7. 27.]

개요

미 극동공군과 해군 함재기들이 정전 이후 북한의 공군력 신장을 막기 위해 1953년 6월 10일부터 정전일인 7월 27일까지 북한 지역 공군비행장의 사용불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비행장 폭격작전이다.

전개과정

정전협정 타결이 임박해 오자 유엔군사령부는 정전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제공권 상실과 신형 전투기의 대량 유입으로 북한이 공군력을 증강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1951년 11월 이후 신의주, 의주, 평양 비행장에 대한 일상적인 피해 복구 작업 외에 특이한 비행장 복구활동을 벌이지 않던 북한군은 1953년 3월 이후 신막, 해주, 미림, 함흥, 남시, 태천, 평양 비행장에 대한 복구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미 제5공군 정찰기에 포착되면서 정전 이전에 많은 항공기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려는 북한의 의도가 인지되었다.

북한의 공군 전력 증강 의도를 간파한 미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 대장은 1953년 5월 3일 북한 비행장 35개를 공격목표로 선정하고 제5공군, 폭격사령부, 극동해군에 할당하여 파괴할 것과 파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불능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6월 8일 웨이랜드 장군은 신의주와 의주 비행장에 대한 공격과 남시와 태천 비행장을 수몰시키기 위해 덕산저수지와 구성저수지 파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0일 제98폭격비행단 B-29중폭격기 16대가 신의주와 의주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또한 이날 제5공군은 31대의 F-84를 출격시켜 강계비행장을 파괴하였다.

6월 11일 제5공군 소속 전폭기들이 한 · 중 국경 중간에 위치한 중강진 비행장을 공격하여 활주로를 파괴하였다. 6월 13일~18일, 남시와 태천비행장을 침수시키기 위해 제5공군 소속 F-84 , 폭격사령부 소속 B-29,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F4U 전폭기가 덕산과 구성에 있는 저수용 댐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은 공산군이 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수위를 낮추어 놓아 파괴에는 실패했다. 이후 기상불량으로 중단 됐던 비행장 폭격은 6월 16일 재개 되어 회령 비행장을 제외한 모든 비행장 폭격을 완료하고 6월 23일 일단 작전을 종료하였다

1953년 7월초에는 장마로 항공작전이 제한을 받았으나, 폭격사령부 B-29는 7월 4일과 9일 평양, 남시, 태천 비행장에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복구 작업을 지연시켰다. 장마전선이 걷히고 북한 지역을 정찰한 결과 비행장 복구상황은 놀라울 만큼 진전되어 있었다. 의주 비행장의 경우 활주로는 잔디로 덮어 놓은 상태였고 엄체호에 43대의 MIG-15기를 숨겨 놓고 있었다. 또한 남시 비행장 콘크리트 활주로는 완전히 복구되었으며 평리와 회령 비행장에는 3,000피트 이상 사용가능한 활주로가 있었으며, 중강진 비행장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되었다.

7월 19일 정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웨이랜드 장군은 극동공군 전 부대에 가용전력을 총동원하여 비행장 폭격을 감행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사령부 B-29폭격기는 7월 20일 야간에 의주, 신의주, 남시, 태천, 평리, 평양, 사암비행장 활주로를 500파운드 폭탄으로 폭격하였으며, 7월 21일 밤에는 의주 비행장을 확산탄과 소이탄으로 융단폭격했다. 이와 더불어 미 극동해군 제77기동함대 소속 함재기들이 선덕, 원산, 회령, 회문, 연포, 회산진, 함흥 비행장에 대해 3차례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제5공군 소속 제8, 18전폭비행단도 7월 18일 신의주와 의주 비행장에 분산 주기된 항공기 공격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할당된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또한 7월 22일에는 제5공군 제58전폭비행단의 F-84기가 평리비행장을 폭격하여 복구 작업을 방해했으며, 7월 27일에는 강계, 중강진, 순안 비행장을 폭격하였다. 7월 27일 제67전술정찰비행단의 사진 촬영 결과 모든 북한 비행장이 제트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비행장 무력화 계획은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및 영향

정전 이후 북한 공군력의 증강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우려했던 유엔군 지휘부는 가용한 극동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을 동원하여 북한 지역 모든 비행장에 대해 정전 당일인 7월 27일까지 폭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한 내 모든 비행장은 제트기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작전 성과는 정전 후 북한으로 하여금 비행기지 복구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과 함께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북한 공군 재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1, 2013.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 · 25전쟁 항공전사』, 20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이근석】

V

6·25 전쟁 주요 전투

전투 항목(해병대편)

고사리 전투

[姑舍里 戰鬪, 1950. 8. 1.~3.]

개요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1950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동리 서쪽 진전면 방면의 고사리 일대에서 마산을 향하여 동진하고 있는 북한군 제6사단 대대 병력을 저지시킨 전투이다.

전개과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일대는 마산과 진해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북한군이 마산과 진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을 저지하지 못하면 낙동강 서부전선의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1950년 7월 31일 진주를 점령한 북한군 제6사단은 아군을 계속 추격해 마산으로 향했다. 미 제8군사령관이 마산 방면에 전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이응준 서남지구전투사령관은 김성은부대를 진동리 서쪽으로 출동하도록 했다. 8월 1일 김성은부대가 군북에서 출동해 오후 10시 30분 고사리에 도착하여 지휘소를 지서에 설치했을 때, 북한군은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까지 진출했다. 해병대 제1중대는 2일 마산을 출발하여 고사리로 출동하던 중 진동리 서쪽 약 7km 지점에서 그들의 기습을 받아 9명이 부상을 입고 진동리로 후퇴하였다.

3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진주에서 야음을 이용해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진동리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제7중대가 개양리 뒷산에 포진하고 제3중대를 428고지 서쪽에 배치하여 기습공격하자, 북한군은 분산되어 대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장갑차를 비롯한 무기를 버린 채 도주하였다.

이후 오전 7시 고성 방면에서 북상한 북한군 80여 명이 제7중대가 방어하고 있는 400고지 정상을 공격하였으나, 김성은 부대장은 제7중대로 하여금 북한군을 포위하도록 하고 제3중대는 60mm 박격포 화력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해병대의 계속된 박격포 사격으로 공격개시 한 시간여 만에, 북한군은 진동리 방향으로 패주하였다.

제7중대가 고지 정상을 향해 공격하던 중 오전 8시경 북한군 70여 명이 해병대 진지로 전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제3중대는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했으나, 그들은 해병부대를 자기 부대로 오인하고 수건을 좌우로 흔들면서 여전히 전술종대로 행군을 계속해왔다. 해병대는 북한군이 사정거리에 도달하였을 무렵 일제히 재공격을 실시하였고, 때마침 출현한 미군 전투기 3대가 이를 포착하고 기총사격을 하였다. 한편, 제

7중대는 400고지를 90분 동안 계속 공격하여 완전히 점령하였다.

결과 및 영향

김성은부대가 고사리 지역의 400고지를 점령하고 잔적을 소탕하였으나, 북한군 일부 병력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전진하고 있었고 고성으로부터 진동리 방면에 걸쳐 아군을 포위하려는 형세여서 고사리를 사수하지 않고 함안으로 이동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109명을 사살하고 6명을 포로로 했으며, 전차 2대를 파괴하였고 장총 19정, 다발총 28정, 중기관총 5정 등을 노획하였다. 해병대의 피해는 전사 6명과 부상자 22명이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김현기/조성훈】

진동리지구 전투

[鎭東里地區 戰鬪, 1950. 8. 6.~12.]

개요

해병대 김성은부대가 1950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서쪽 관문인 마산 서측방에서 제19연대와 미 제 27연대의 중간 지점에서 연합으로 진동리 서측에서 북한군 제6사단 일부 병력을 저지시킨 전투이다.

전개과정

진동리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의 마을로 마산 진입의 서측 관문이며 부산과 진주로 향하는 도로망이 발달된 지역이다. 진동리-마산을 잇는 도로 북쪽 340고지는 보급로 통제 및 마산을 감제할 수 있어 중요한 고지이다.

북한군 제6사단은 진주-마산 접근로에서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김성은부대는 서부지구전투사령부로부터 미 육군 제25사단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함안초등학교를 출발, 마산을 경유하여 8월 5일 오후 3시 30분 진동리에 도착하였다. 해병대는 진동리지서에 지휘소를 정하고 제7중대를 예비대로 하고 중대배치를 완료하였다.

북한군의 포탄이 지서 부근 일대에 낙하하기 시작해 다음 날 6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북산을 점령한 후 6일 진동리와 마산을 통하는 도로 북쪽 340고지를 점령

하고 아군 전선에 침투해 마산과 진동리를 왕래하는 차량과 부대를 습격하여 이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해병대의 임무는 이 도로를 타개해 마산, 진동리 간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국군이 이 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마산, 진동리간의 보급로는 차단될 것은 물론 북한군 진내 깊숙이 있는 우군의 전선부대는 자연히 무력해 질뿐만 아니라 마산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선 북한군이 진출한 340고지를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비대인 제7중대는 수류탄 2개씩을 휴대하고 고지해서 일제히 수류탄으로 공격을 개시하면서, 진내에 돌입해 육박전을 감행하면서 돌진하여 8월 6일 오후 1시경 340고지를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해병대는 2명의 전사자와 5명의 부상자를 냈으나, 사기는 왕성하였으며 미군에 이 고지를 인계하고 진동리로 철수하였다.

8월 6일 처음으로 미 해병여단이 진동리에 도착하였다.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또다시 북한군의 포탄이 낙하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 7일 새벽 6시 미 해병여단은 서방으로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 공격부대가 한국 해병대 진지를 지나 전진하자 해병대는 미 제25사단의 명령에 의해 부대를 차량편으로 마산을 향하여 이동하여 7일 오전 9시 10분 집결 완료하였다. 이후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김성은부대는 제2차 진동리전투에서 진동리를 완전 확보하였다.

2차 진동리 작전은 김성은부대, 육군 민기식부대(미 제5사단 배속)와 경찰부대가 협력하였다. 김성은부대는 진해 통제부로부터 병력을 보충받아 마산에서 8월 7일 저녁 7시 진동리에 도착하였다. 9일 오전 11시부터 북한군은 아군진지에 포격을 가해왔으며, 이튿날 새벽 3시에 해병대 진지를 향해 공격하였다. 해병대는 북한군이 유효사정 내에 이르자 일제사격을 가하여 교전 끝에 10일 새벽 5시 30분 북한군을 격퇴한 후 현 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진동리에 집결하였다.

제3중대와 제7중대의 공격에 고배를 마신 북한군은 후속부대의 지원을 받고 재차 진동리 서방으로부터 우군 진지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김성은부대장은 사단의 공격명령에 따라 전진 중 제2중대가 209고지에서 북한군 약 60명과 조우하였으나 제2중대는 곧 전투배치하여 교전 끝에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제3중대는 야반산(夜半山)을 확보한 후 취봉(△557)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취봉 전방 50야드 지점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상호 치열한 수류탄전을 전개하였으나 북한군의 우세한 화력으로 인하여 공격이 일시 돈좌되었다.

한편 제7중대는 368고지를 점령하고 계속 50야드 더 진출하였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교전을 계속하던 중 일몰이 되자 공격을 중지하고 점령한 위치에서 야간경계에

임하였다. 제2중대는 계속 공격을 감행하여 435고지를 점령하였고 10일 오후 6시 20분에는 서북산을 점령하고 야간경계에 임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기동력이 약한 해병대는 후방과의 연락이 순조롭지 못하여 식량의 추진보급을 받지 못한 밤을 새웠다.

11일 오전 6시 공격을 재개하여 제3중대는 오후 1시에 공격목표인 취봉을 점령하였고, 제7중대는 368고지에서 우군의 지원 아래 40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서북산에서 남쪽을 직선으로 잇는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마산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오전 6시 해병대는 확보한 진지를 미 제25사단에 인계한 후 차기 작전을 위하여 중암리로 이동하였다.

결과 및 영향

진동리 전투는 해병대가 마산-진동리를 잇는 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켜 낙동강 방어선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전투의 종합 전과는 사살 109명, 포로 6명, 전차 2대, 트럭 4대, 지프차 2대, 기관총 8정, 장총 19정, 다발총 28정 등이며, 해병대의 손실은 부상자 6명 뿐이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김현기/조성훈】

통영 상륙작전

[統營 上陸作戰, 1950. 8. 16.~19.]

개요

해병대 김성은부대가 1950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북한군 제7사단 예하 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통영반도에 해군함정의 지원 아래 1개 중대를 원문고개로 진출시키는 한편 망일봉을 점령하여 통영 시가지를 탈환한 상륙작전이다.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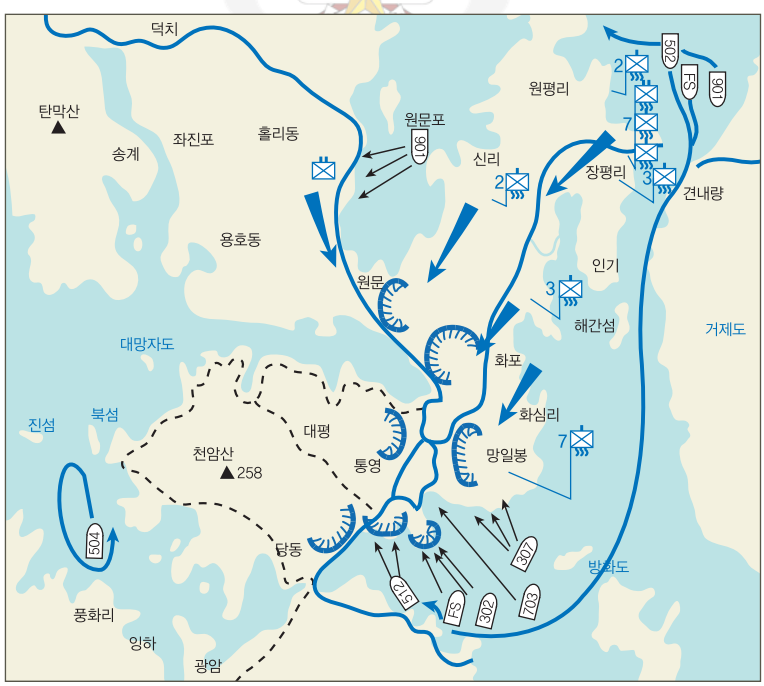
통영은 경상남도 서남부의 항구로서 견내량 해협(폭 300m)를 건너 거제와 연결되며, 진주와 마산, 진해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통영 북방 3km 지점에는 통영반도로 통하는 가장 좁은 지대의 원문고개가 있다.

아군은 1950년 8월 중순까지 진동리로부터 낙동강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구축하여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이 방어선 돌파가 불가능해지자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성 이남의 통역 지역을 목표로 하였다.

8월 16일 북한군 제7사단 소속 약 1개 대대의 병력이 통영읍에 침입하자, 해군총참모장은 킨 부대 작전에 참가한 후 진해에 집결해있던 해병대 김성은 부대장에게 통영의 북한군을 격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성은 부대장은 LST 2척에 병력을 분승시켜 오후 10시경 진해 군항을 떠나 17일 새벽 통영반도 동북방에 있는 지도(紙島) 동쪽 기슭에 도달했다. 그는 먼저 2개 조의 정찰대를 운용하여 통영 시가지 쪽과 거제도 서해안 쪽의 적정을 살펴본 후, 해군본부에 적은 병력으로 거제도의 긴 서해안을 수비하는 소극적인 방책보다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 통영읍 동북단의 장평리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으로 작전변경을 요구했다. 통영 시가지를 감제하는 망일봉(△148)을 선제 점령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통영읍의 진입 길목인 원문고개로 진출시켜 그들의 퇴로와 후속부대의 진입을 차단하는 가운데 총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을 포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변경된 작전계획에 따라 17일 오후 6시에 제2중대부터 상륙을 개시하였다. 이미 정찰



대의 정찰 결과로 장평리 부두는 수심이 얕아서 함선을 접근시키기 곤란하였으므로 발동선 2척에 분승하여 상륙하였다. 이때 적은 해병대가 통영항 정면에 상륙할 것으로 판단하고 야간에 고지에 배치된 병력을 철수하여 통영 남해안 일대에 집결시키고 해안선으로 배치를 변경하였던 것이다.

해군함정 901정이 원문고개 서방 통영만 내에 깊숙이 진출하여 통영 시내로 침입하려는 북한군 후속 부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성에서 원문고개로 통하는 도로에 포격 지원을 하였다. 상륙부대는 18일 새벽 5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중대는 원문고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제3중대는 본부를 망일봉 북방 1km 지점인 동대리 부근에 설치하였다. 제7중대가 매일봉 정상에 도착하였을 때, 북한군 약 100명이 산정 밑 100m 지점에서 산정을 향하여 기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북한군은 해병들의 사격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매일봉을 점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분산해 방향을 돌려 정양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통영전투에 이어 승패의 관건이 되는 망일봉을 점령한 해병대는 시내의 잔적을 소탕하기 시작하였다. 18일 낮 12시 20시 해군 703, 307, 302 정장들은 남망산 및 시내 일대에 있는 북한군 진지에 대하여 포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완전히 퇴로를 차단당하고 반수 이상의 병력의 손실을 보았다.

18일 오후 2시 20분경에 이르자 북한군의 저항은 거의 없어지고 시내에서는 저항보다 도망하기에 바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성은 부대장은 제3중대에 703정의 지원사격을 받아 178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 오후 6시 50분 지휘소를 망일봉으로 이동한 김성은 부대장은 통영반도 서쪽 끝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고성 방면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513정, 504정에 통영반도 서북방 해상에서 도주하는 북한군을 격멸하도록 명령하였다.

19일 새벽 1시 김석근 중위가 지휘하는 지원병 중대는 703정의 엄호 아래 남망산을 공격해 점령했고, 제2중대는 원문고개에 잔류해 북한군 증원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시내의 잔적을 소탕하였다. 또한 제3중대는 북한군의 경미한 저항을 받으면서 전진하여 새벽 3시 30분 178고지를 점령하였다.

통영 시내 소탕전에 있어 전술적 요지인 178고지를 점령한 후, 부대장은 제7중대와 수색소대 및 김석근 중대 등을 통영 시내 소탕전에 투입하였다. 통영시를 완전히 장악한 해병대는 북한군의 유일한 공격로인 전술상의 요지인 원문고개를 방어하는 것이 당면한 임무였다.

결과 및 영향

통영상륙작전은 전쟁 시기 해병대만의 독립적인 작전이며 첫 적전 상륙작전으로, 군사 요충지인 진해와 마산 등이 북한군의 위협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었다. 통영지구작전에서의 전과는 사살 274명, 포로 47명, 중기 5문, 경기 18정, 122mm 박격포 1문, 야포 3문, 다발총 100정 등이며, 해병대 피해는 전사 5명, 부상 17명 등이었다. 이후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9월 12일 부산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5 (2008).

【김현기/조성훈】

원문고개 방어전투

[轅門岭 防禦戰鬪, 1950. 8. 19.~9. 11.]

개요

해병대 김성은부대가 1950년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통영 원문 고개에서 북한군 제104치안연대의 진출을 저지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원문고개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통영의 관문으로 이곳을 방어하는데 유일한 전술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마산, 진해, 부산 등으로 침투를 저지시킬 수 있는 곳이다.

북한군은 진동리에서 마산과 진해를 위협했으나 저지되자, 통영을 통해 거제도를 점령함으로써 마산항과 진해항을 봉쇄하려 했다. 통영시를 완전히 장악한 해병대는 이곳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북한군의 유일한 공격로인 원문고개를 방어하는 것이 당면 임무였다.

1950년 8월 19일 오후 3시 40분경 북한군이 약 3시간 동안 야포 6문으로 간단없이 포격을 가한 후 1,000명의 병력으로 제2중대와 제7중대 진지를 공격해 오자, 해병대는 박격포와 한국 공군 T-6기와 해군 703정의 화력지원을 받아 응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아군 진지 안까지 침입했으나, 4시간여에 걸친 교전 끝에 그들은 많은 시체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첫날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이 다음날 20일 새벽 4시 무렵 재차 공격하자, 치열한 백병전까지 전개되었다. 정면공격에 실패한 그들은 진지 내 격전이 벌어진 사이에 약 80명을 원문고개 해안선을 따라 해병대 진지 후방으로 침투시켰으나, 해병부대는 협공을 받으면서 밤새도록 혼전을 계속하였지만 역으로 그들을 협공하여 격퇴시켰다. 이날 229명을 사살했고 6명을 생포했다.

김성은부대가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제3중대와 해군 통제부의 지원중대는 원문고개의 제2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진지 보강을 완료하고 경계 중이던 21일 오후 10시 경 북한군의 약 1개 대대 병력이 재차 공격하여 왔다. 밤새도록 쌍방간의 교전이 계속되었으나 북한군은 결국 22일 아침 원문고개 북방으로 도주하였다. 26일 해병대 수색대는 미 항공기 6대의 근접지원과 해병부대의 기습공격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한국 해군 303정은 망자도와 장구도를 연결하는 해상선을 봉쇄하고, 방위대가 발동선을 타고 해군 303정과 연락하면서 망자도에 상륙하여 북한군을 격멸하였다. 9월 6일 오전 10시 김성은 부대장은 PC 702함을 타고 통영 북쪽의 고성 동쪽 해안을 초계하면서 죽림리 해안과 거제면 해안 일대에 숨겨져 있는 북한군의 소형 선박을 모두 격침시키고 오후 3시쯤 통영만으로 귀항하였다.

북한군은 8일 새벽 5시에도 또 다시 약 1개 대대 병력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해병대가 매설해 놓은 지뢰와 함포의 집중사격, 그리고 박격포의 탄막사격으로 커다란 손실만 입고 오전 9시에 퇴각하고 말았다.

결과 및 영향

김성은부대는 북한군보다 병력이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원문고개를 탈환하려는 그들의 공격을 9차례 물리치고 통영 시가지를 완전 장악하였다. 원문고개를 사수함으로써 북한군의 부산으로 침투 기도를 막고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제2중대와 제3중대는 9월 11일 밤 12시 선박 편으로 부산을 거쳐 인천으로 향해 상륙작전에 참전하였다. 이어서 원문고개에서 방어임무를 수행 중인 김성은부대는 20일 제1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서울탈환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으로 향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 (2008).

【김현기/조성훈】

연희동 104고지 전투

[延禧洞 104高地 戰鬪, 1950. 9. 21.~22.]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0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수색-서울간 도로를 따라 서울을 향하여 진격 중이던 미 해병대 제5연대에서 서울 좌측방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동안, 북한군 1개 보병연대와 서울 치안연대 등이 방어하고 있는 104고지 정면을 맡아 점령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4고지는 북한군 서부방어선을 돌파하여 서울 탈환의 거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지 북쪽으로 불광천이 흐르고 백련산과 경의선을 감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공격이 시작되자, 북한군은 제9사단과 제18사단 등 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서울을 방어하였다. 그들은 서울 시가지 교차로마다 장애물을 설치해 시가전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면서, 104고지, 연희고지와 안산을 지키며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진입을 막으려 하였다.

9월 21일 오후 4시 15분 미 해병 제5연대장은 연대 기동계획 일부를 조정해 성산동의 68고지(성서초등학교 뒷산)를 향하여 전진하는 제1대대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으나 연대 좌측방에 있는 백련산(스위스 그랜드 호텔 뒷산)의 216고지를 제3대대의 이날 공격목표로 한정시켰다. 한편, 배속된 한국 해병 제1대대로 하여금 연대 중앙에서 모래내 건너편의 104고지(염산, 요즘엔 연희산이라 함)를 확보하고 그 일대에 야간 방어진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북한군의 저항 없이 불광천을 건넌 한국 해병 제1대대는 북가좌동 일대에 좌로부터 건제순으로 3개 소총 중대를 전개 시켜 모래내를 통과했다. 모래내 주변에는 전답들이 이어져 목표를 점령하려면 지형에 따라 100~300m 폭의 개활지를 통과해야만 했다.

개활지와 하천이라는 불리한 지형을 건너던 제1대대는 철로 가까운 쪽 기동로의 은폐물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돌격부대를 이끌고 우측의 철둑 너머로 우회 기동하여 104고지 앞에 구축된 북한군의 자동화기 진지를 제압하였다. 진지에 돌입하여 진내전(陣內戰)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북한군의 저항은 치열하였으나, 오후 6시 30분 목표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 8명과 부상자 20명 등이 발생하였다.

해병 제1대대는 104고지 일대를 방어하게 하고 제3중대는 사령부와 함께 북가좌동에 위치한 대대본부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경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한국 해병 제1대대 좌측의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도 이날 오후 6시 20분 백련산을 확보하였고 우측의 미 해병 제1대대는 오후 5시 30분 성산동의 68고지를 완전 장악하였다.

22일 새벽 4시 약 6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120mm 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며 역습을 감행해 왔으나, 제1대대는 3시간 동안 진내전까지 치루면서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 역습과 병행하여 그들은 한국 해병대의 바로 전방에 구축 중이던 그들의 주진지에 대한 마지막 보강작업과 병력배치를 강행하고 있었다. 한국 해병의 좌우측에 있었던 미 해병대대 전방에서는 밤사이 북한군의 활동이 대단치 않았던 만큼 미 해병 제1사단에서는 부대가 좀 더 진출해서 대현동이나 아현동쯤 이동하면 북한군의 주진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결과 및 영향

104고지의 탈환은 미 해병 제5연대의 백련산-68고지 확보와 함께 서울 수복의 발판을 제공했다. 한미 해병대는 104고지에서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하여 진지와 경계를 강화하고 다음 작전인 연희고지 공격을 준비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김현기/조성훈】

연희고지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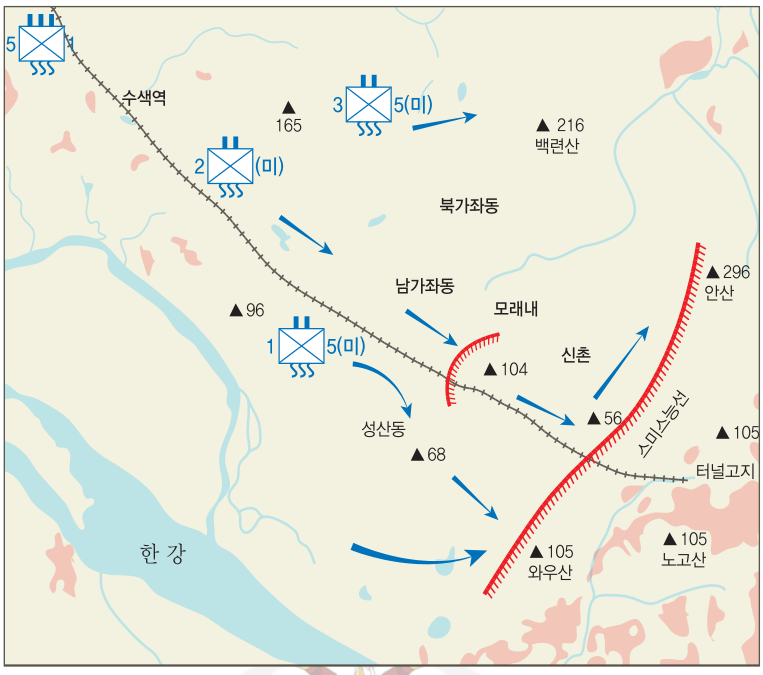
[延禧高地 戰鬪, 1950. 9. 22.~25.]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와 미 해병 제5연대가 연합작전으로 1950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함재기와 포병의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78독립연대, 제25교육여단 등이 점령하고 있는 연희고지를 확보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연희고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안산(△296), 와우산(△105) 세브란스병원 뒷산



88고지 등으로 이어져 있다. 이 고지는 북한군의 서측 방에서 서울 방어 최후 외곽 방어선으로, 104고지와 연희능선 사이의 저지대에 가로 놓인 300~500m의 논들이 해병대 기동에 최대 장애물이었다.

한국 해병대가 104고지를 점령하자, 북한군은 약 1만 6,000명의 2개 혼성 여단을 편성하여 연희고지를 확보 유지하려 하였다.1950년 9월 22일 오전 7시 미 해병 제5연대의 연희고지 공격은 개시되었다. 좌측방에 위치한 제3대대의 목표는 안산 296고지이고, 우측방 제1대대의 목표는 와우산(△105, 홍익대 뒷산),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는 한국 해병 제1대대의 목표는 의령터널고지 북쪽 105고지였다.

22일 오후 3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오전 7시 20분에 연희동 고지를 정면 공격하기 위해 제1, 제2중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북한군이 역습을 가해 왔다. 더욱이 해병 제1대대장과 중대의 통신이 두절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통신이 회복되고 전선을 수습하여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중간목표를 점령하고,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에게 임무를 교대했다.

오전 7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중대를 병진시키기로 하였다. 밤사이 북한군은 부서진 진지를 보수하고 2,000명의 손실 병력을 보충하여 해병

대대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군의 공격이 거세어 각 중대의 전진이 부진하고 진퇴양난의 힘든 상황이었다.

24일 날이 밝자, 56고지의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 D중대는 북한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정상을 탈환했다. 이날 오후 미 해병 제2대대장은 예비대인 E중대를 56고지 동쪽으로 이동시켰으나 최종 목표(북부 △105)에 대한 공격은 다음 날로 미루었다. 최종목표 공격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72고지인 풍산(창천동 4번지)에는 여전히 북한군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부 105고지를 비롯하여 주요 능선들이 점령된 것은 25일에 이르러서였다.

결국 연희고지 탈환은 스미스 중대장을 비롯해 희생을 무릅쓴 제5연대 제2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미 해병대는 한국 해병 제1대대가 미 해병대와 임무를 인계할 때 연락이 끊어졌던 한국 해병 제1대대 제3중대장이 지휘한 일부 병력이 치열한 전선을 뚫고 적진을 돌입해 이미 연희동 고지 일부를 점령하고 있어서 보다 쉽게 연희고지를 공격해 점령할 수 있었다.

결과 및 영향

북한군이 9월 23일까지 사흘 동안 끈질긴 저항을 계속했으나, 24일 한미 해병대는 함재기와 포병의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받아 최후의 돌격을 감행한 끝에 25일 마침내 연희고지 일대를 점령하여 서울 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서울 서측방의 적 방어선을 붕괴시킴으로써, 중앙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후의 관문을 통과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 6 (2009).

【김현기/조성훈】

영등포 탈환 전투

[永登浦 奪還 戰鬪, 1950. 9. 19.~22.]

개요

미 해병 제1연대가 1950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영등포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좌우로 나뉘어 방어를 하던 북한군 제9사단 제87연대와 제18사단 예하 병력을 공격해 탈환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영등포지구는 남쪽 서울 탈환하기 위한 요충지로 시가지의 서쪽에는 넓은 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에 118고지, 80고지, 85고지 등이 있었으며 갈천 냇물이 남에서 북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북한군은 시가지를 요새화하고 저지대의 넓은 개활지와 안양천 제방을 이용해 방어하고 있었다. 이곳을 방어하고 있는 북한군 병력은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하고 있던 제18사단의 일부, 낙동강 전선에서 북상한 제9사단 재87연대였다.

1950년 9월 19일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는 영등포 시가지를 바라보는 몇몇 고지들을 점령해 놓은 다음, 미 해병 제1연대에 인계하고 행주나루의 연대 주력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 해병 제1연대 제1대대의 선두병력이 도착하여 A와 C중대는 신속하게 118고지를 인수 받았으나, 80고지와 85고지를 물려받을 병력들의 수송이 늦어져서 오후 9시까지 인수인계가 없었다.

한편, 북한군은 19일 오전 미 해병대에 빼앗긴 고지를 되찾기 위해 야간에 역습을 개시했다. 북한군은 비어있던 80고지와 85고지에 손쉽게 올라선 다음 118고지를 공격했으나 미 해병대 2개 중대에 의해 격퇴 당했다. 이튿날인 20일 새벽 미 해병 제1연대 제1대대는 빼앗긴 두 개의 작은 고지를 다시 찾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여 전차 5대를 앞세운 북한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했다. 오전 9시 45분 미 해병 제1연대는 영등포의 서쪽 들판에 반달처럼 둘러서서 시가를 바라보는 고지들을 점령했다. 반달의 북쪽 끝과 남쪽 끝 두 군데가 시가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가운데 쪽은 들판이 넓었다.

21일 아침 날이 밝아지자, 미 해병 제1연대는 반달 모양의 양쪽 끝에서 시가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북쪽 끝의 제1대대는 85고지와 80고지를 내려와 영등포 시가의 북서쪽 모퉁이로 다가섰으나, 북한군은 냇둑과 논둑에 기대어 후퇴하지 않았다. 한편, 시가의 서남쪽의 제2대대는 이날 11명이 전사하고 24명을 부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연대의 예비로 있던 제3대대가 이날 오후 제2대대의 공격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섰다. 포병의 지원도 한층 더 맹렬해졌다. 그러나 북한군은 어느 쪽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교착상태에서 제1대대의 A중대는 118고지를 슬그머니 내려와 한 가운데의 들판을 조용히 가로질러 냇물을 건넜다. A중대는 아군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고립된 상태로 본대로 돌아가는 대신에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노력했다. A중대는 경인국도에서 갈라지는 도로 한줄기가 지세가 높고 약 10미터의 넓은 둑 위로 뻗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둑 위에 사주방어선을 폈다. 이날 오후에도 북한군은 시가지 서남쪽과 서북쪽에 정신이 팔려 그들 등 뒤에 들어와 있는 A중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어둠이 깔

리자 적은 전차 5대가 A중대를 공격해오자 미 해병은 바주카포로 맞서서 격파하고, 오후 9시가 되자 사주방어선의 북쪽 둘레에 자리 잡은 3소대 앞에 다시 북한군 보병부대가 나타나더니 다섯 차례에 걸쳐 파상 공격을 해왔다. 3소대가 이를 모두 물리치고 나니 자정이 되었다.

북한군은 그들의 등 뒤에 들어와 있던 미 해병대 1개 중대가 21일 자정을 넘기도록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자, 자정을 넘기면서 영등포 방어를 포기하기로 하고 날이 밝기에 앞서 주력을 철수시켰다.

결과 및 영향

미 해병 제1연대는 9월 22일 영등포 지역 일대를 확보하였고, 제3대대가 노량진으로 진출하여 한강 교량의 감제고지를 장악하여 서강 부근에서 한강을 도하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275명을 사살하고 50여 점의 자동화기를 획득했으나, 미 해병대는 85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Lynn Montross · Nicholas A.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HQ. U.S. Marine Corps, Washington, D.C.,1955).

【김현기/조성훈】

한강도하 작전

[漢江渡河 作戰, 1950. 9. 20.~21.]

개요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 제2대대 등이 1950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행주나루에서 북한군 제45사단 예하 제76연대와 제513포병연대의 일부와 대치하면서 서울 탈환을 위해 김포반도와 행주 지역에서 한강도하 작전을 수행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한강도하 작전은 현재의 신행주대교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으로 기동하여 서울 탈환의 발판을 확보한 것이다.

알몬드(Edward M. Almond) 미 제10군단장은 인천상륙작전 사흘 뒤인 1950년 9월

18일 미 해병 제1사단에 전과를 확대하여 서울을 공격해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스미스(Oliver P. Smith) 미 해병 제1사단장은 19일 김포반도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미 해병 제5연대로 하여금 적절한 도하 지점을 찾아내 한강을 건너가도록 하는 한편, 우일선의 미 해병 제1연대는 영등포 이남 지역에서의 작전에 관한 책임을 미 제7사단에 넘겨주는 대로 한강을 도하하도록 명령했다.

북한군은 '서울지구 방위사령부' 예하에 제25여단, 제9사단 87연대와 더불어 제18사단의 일부를 배치하는 한편, 시민을 강제로 동원해 곳곳에 모래주머니와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쳐놓고 아군을 기다렸다. 한국군의 작전 계획에는 20일에 한강을 건너기로 되어 있었다.

김책 북한군 전선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 앞에 서울을 쉽사리 포기한다는 것은 낙동강까지 남진한 주력 부대의 퇴로를 차단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우군이 서울을 탈환하면 한국군은 경춘가도로의 진출이 용이하게 되며, 적의 퇴로는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적은 가급적 한강 대안에서 필사적인 방어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서울에서 대대적인 항전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20일 미 해병 제1사단은 영등포까지, 한국 해병대도 때를 같이하여 한강 도하 준비를 위해 한강 대안 일대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행주대안 125고지 일대에는 북한군 제45사단 예하 약 1개 대대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 제2대대는 이날 야간에 행주 대안에 도착하여 도하 태세를 갖추고 우선 적정의 파악과 수색을 위해 미 해병 수색대가 적진을 향하여 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철수하였다. 이로 미루어 한강 대안에 포진한 적의 병력과 그 방비는 보다 강력함을 간파하고 도하하기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9월 20일 오전 6시 45분 맹렬한 포격에 이어 수륙양용차(LVT)를 이용해 적전 강습 도하를 감행했다. 우선 우군 야포대와 항공대에 연락하여 행주 일대에 포격 및 공중폭격을 한 후 30명을 1개 조로 편성한 미 해병대 도하부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수륙양용차를 선두로 도하를 계속하였다. 이어서 공병대는 고무보트를 연결하여 교량을 만들고 전차의 도하를 지원하였으며, 한국 해병 제2대대도 도하를 개시하였다.

한편 야포대가 포격을 계속하는 동안 주력 부대가 도하를 개시하자, 적은 능곡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한국 해병부대는 도하를 완료하여 행주지구를 경비하였으며, 제2대대는 행주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후속부대의 도하를 지원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미 해병대는 도주하는 적을 따라 간촌 부근을 거쳐 수색까지 진출할 태세를 갖추었다. 적이 이때 도하를 완료한 우군부대를 포위할 기세로 51고지에 약간의 패잔병을 이끌고 역습을 감행하여 왔으나 격퇴시켰다. 21일 한국 해병 제2대대는 계속 현지에 잔류해 경

비임무를 수행하며 후속 부대의 도하를 엄호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미해병대가 한강을 도하해 행주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북한군의 서울 방어선의 서쪽 측면을 돌파하고 서울 탈환의 발판을 이루었으며, 국군의 경춘가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200여 명을 사살했지만 해병대도 43명이 전사하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김현기/조성훈】

마전리지구 전투

[馬轉里地區 戰鬪, 1950. 11. 10.~17.]

개요

한국 해병 제3대대와 미 해병 제7연대 제3대대가 1950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법동군 북쪽에 위치한 마전리(馬轉里) 일대에서 수시로 원산을 위협하는 북한군 패잔병들을 연합작전으로 격퇴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원산 서쪽에 위치한 마전리 일대는 해발 600~800m의 고산지대이며 북쪽에 마식령 산줄기가 뻗어 있고 문천시로 넘어가는 갈골령(△753)이 있다. 또한 평양-원산간 도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남한에서 북상 퇴각하는 북한군은 그들의 정규군과 합세하고 평원가도의 우군진지를 습격하고 보급로의 차단을 꾀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마전리의 요충지를 방어하고, 나아가 이 보급로의 안전을 기하려는 유엔군 작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한미 해병대는 연합작전으로 방어진지를 구축, 북한군의 습격에 대비를 하였다.

1950년 11월 10일 마전리에 도착한 한국 해병 제3대대는 부대 정비와 화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미 해병 제7연대 제3대대와 같이 방어진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 마전리의 미 해병 제3대대는 1개 중대의 포병을 배속 받아 사주방어를 실시하는 한편, 보급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식령 정상에 별도의 1개 중대를 파견하여 경계를 하고 있었다.

11일 새벽 1시에 북한군 약 4,000~5,000명이 중화기를 소지하고 마전리 후방 후릉산(△992, 마전리 남서쪽 2.5km)고지 능선 일대에 출몰하였다. 한국 해병대 제3대대는 후릉산에 출동하여 이곳에 잠복한 북한군과 대치하게 되었고, 피아의 교전은 4시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북한군은 우세한 아군의 공격 앞에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12일 또 다시 북한군 약 2개 대대 병력이 마전리 남쪽 2km에 위치한 유동리 방면에 잠복하여, 제3대대 진지를 공격할 기세였기 때문에 대대는 오전 8시에 제9중대는 도로를 수색하며 남진하였다. 북한군은 아군의 추격을 눈치 채고 미리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나, 중대는 이들 북한군을 과감한 기동으로 추격하여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13일 유동리에서 격퇴당한 북한군 약 200명은 다시 마전리 남쪽 10km의 월산리에 집결하여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약탈할 목적으로 부근 마을을 습격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제10중대장은 제12중대 선임장교가 이끄는 기관총 2문, 81mm 박격포 2문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14일 오후 8시 대대 진지 전방에 약 2개 소대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출현하자, 제9중대장은 중대원 160명을 인솔하고 출동해 북한군과 약 1시간여에 걸쳐 전투를 벌인 끝에 격퇴시켰다. 15일 마전리에서 본대와 분리되어 제3대대가 분전하고 있을 때, 고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와 제1대대는 계속 잔류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었고, 일부 부대를 통천 방면에 출동시켜 통천 서방에 있는 발전소와 철로 등을 경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16일 평양-원산 대로에 출몰하는 북한군은 아호비령(원산 서방 20.5km)과 아호비령 서쪽 4km에 위치한 상자개동(上自開洞), 하자개동(상자개동 서방 2km), 토기리(아호비령 서방 15km) 등에서도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부근 일대에서 아군 진지를 공격해왔다. 제3대대는 양덕에 있는 유엔군과의 연계작전을 위해 또다시 마전리 서방까지 진출하고, 오후 1시에 마전리에서 전술종대로 이동하여 동양리로 향했다.

결과 및 영향

한국 해병 제3대대와 미 해병 제7연대 제3대대가 평원대로를 위협하면서 원산을 향하는 마전리 일대에서 북상 중인 북한군을 저지 격멸함으로써 유엔군의 흥남철수작전에 기여하였다. 이 전투의 전과는 사살 152명, 사상 154명, 포로 3명이며 해병대의 피해는 전사 2명과 부상 11명 등이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 (1971).

【김현기/조성훈】

동양리지구 전투

[東陽里地區 戰鬪, 1950. 11. 17.~12. 2.]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 3대대가 미 해병 제7연대의 지원을 받아 1950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안남도 양덕군 동양리 일대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용전리로 철수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평안남도 양덕군 남동쪽에 위치한 동양리 일대는 평양-원산간 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요충지이며, 해발 250m 정도이나 산림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북한군 패잔병들이 태백산맥을 북상하여 원산~평양 간 도로의 요충지인 동양리 일대의 보급로 차단을 위해 동양리 근방에서 정규병들과 연대하여 재편성한 후 평원대로를 위협해 원산을 공격할 태세를 취했다.

1950년 11월 17일 마전리에서 강행군으로 동양리에 도착한 해병 제1연대 제3대대는 도로 차단과 아군의 보급선을 위협하는 적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해, 진지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주변 4km에 대한 적정을 탐색하고 북한군의 기습에 대비하였다.

20일 마전리 남방 4km에 위치한 공진리 방면에 북한군 약 1개 대대가 출몰하고, 구룡리에 잠복한 1개 대대의 패잔병들이 부근 토기리(남양-구룡리 사이), 자개동(토기일리 북쪽 마을)에 출몰하여, 해병대는 제11중대를 출동시켰으나 중화기로 무장한 적에게 기습공격을 받아 이창환 분대장과 한규택 화기소대 기관총 사수 등의 희생으로 포위를 벗어났다. 원산과 동양리 가도에 출몰하던 북한군은 계속 증강되어, 동양리에 있는 제3대대에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미군 차량부대를 습격하는가 하면 사방을 둘러싼 산악 지대에 해병부대는 고립되어 전세는 크게 불리했다.

23일 원산에 본부를 둔 미 보급부대와 마전리 엄호부대는 수차에 걸쳐 마전리-동양간 보급로 타개에 진력을 다하였으나 실패하여 제3대대에 대한 보급물자 수송은 큰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3대대는 오전 11시에 중화기를 소지한 북한군 약 2,100명과 조우하게 됨으로써 수적으로 열세했으나 무려 7시간 결전 끝에 보급로를 타개하였다.

26일 새벽 3시에는 동양리에 있는 제3대대 진지에 약 1개 연대 병력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공격해 왔지만, 산성과 같은 유리한 지형지물을 최대로 이용한 사전에 계획된 방

어사격으로 약 10분간의 교전 끝에 북한군을 격퇴했다.

27일에는 제3대대에 탄약 보급을 위해 마전리에서 동양으로 향한 보급부대가 자개동 일대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미군 70여 명이 전사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박격포탄 1,800발을 빼앗겼다. 이에 김윤근 제3대대장은 피탈된 포탄이 북한군의 근거지인 공진리로 수송될 것을 예상하고 제9중대에 중기관총 부대를 제12중대로부터 배속시켜 출동시켰다. 제9중대는 미군에서 보내 온 보급부대 차량을 이용하여 토기리로 전진하던 중 적의 기습을 받아 약 1시간에 걸친 이 교전에서 우세한 병력으로 유리한 지형을 활용한 북한군의 저항으로 부득이 공격을 중단하고 되돌아왔다.

다음 날 29일 동양지구의 북한군이 맹산에서 양덕지구로 이동한 부대와 연계해 증강된 약 3,000명과 함께 동양리를 포위하고 박격포로 해병대 진지를 공격하자, 해병 제3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동양리를 탈출하기로 했다. 12월 2일 이동 준비를 완료한 제3대대는 새벽 5시 토기리에서 자개동까지 약 8km를 철수하는 동안 매복한 북한군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용전리까지 철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해병 제3대대는 대대장의 리더십과 장병들의 상호협력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이중 삼중의 중첩된 포위망을 돌파하고 약 8km를 철수하여 용전리에 도착했다. 12월 4일 미 해병대와 함께 원산으로 이동해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 (1971).

【김현기/조성훈】

원산 · 함흥지구 전투

[元山 · 咸興地區 戰鬪, 1950. 12. 3.~15.]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0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중공군의 공세로 동부전선의 미군과 한국군이 원산과 함흥을 통해 철수하려 할 때 최종 방어부대로서 아군을 방어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강원도 원산은 동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 원산항이 있다. 직선 거리로 평양에서 150km, 금강산이나 함흥에서 85km 떨어져 있다. 원산항은 영흥만 바깥에 있는 갈마반도(葛麻半島) 및 호도반도(虎島半島)와 20여 개의 섬이 자연적인 방파제를 이루어 동해의 거친 파도를 막아 주는 천연의 양항(良港)이다. 평원대로, 강원선 철도, 원산공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북한군 대부대가 마식령을 넘어 원산으로 지향하였고, 또 다른 약 3,000명은 덕원 지구에서 준동하고 있어 원산 시내에는 북한군의 유격대의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어서 불안했다. 1950년 11월 27일 간성 · 고성 · 통천지구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고 원산 남방 갈마로 이동한 제1대대와 동양리에서 철수한 제3대대는 미군과 연합하여 원산 방어에 임하였다.

12월 4일 아군은 전부 함흥으로 철수하였고 원산에는 해병 제1대대와 제3대대, 미 구축함 4척만 남아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1대대가 원산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강된 북한군 약 3,000명이 5일 문천 방면에서 덕원으로 침입하여 왔고, 마식령을 넘은 중공군은 덕원 지구에서 원산을 공격하려는 기세였다. 제3대대는 부두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제9중대 전면에 북한군 1천여 명의 공격을 받아 7일 오후 2시까지 교전하고 부두로 이동하여 곧 LST 845함에 승선하여 원산을 철수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 제1대대도 9일 오후 4시 LST 898함으로 부산으로 철수했다.

한편, 함흥시는 함경남도 동해안에 있는 도 소재지이다. 평양에 이은 제2의 도시이자, 관북 지방 최대 도시이다. 함흥은 북상한 혜산진부대와 미 해병 제1사단의 철수 지점이었기에 북한군의 공세가 있더라도 확보하여야 할 전략상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함흥 지구의 확보는 미 제7사단과 한국 해병 제2대대 및 제5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해병 제2대대는 원산에서 상륙했다가 곧 함흥으로 이동했고, 제5대대는 신고산 일대의 경계를 맡고 있다가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이미 중공군 주력부대가 함흥 주변 일대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유엔군의 치열한 함포사격과 공중폭격으로 인하여 대부대의 행동은 완전히 봉쇄당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행동도 제한되고 있었으나 소부대로 야간에 아군의 방어진지에 침투해 왔다.

12월 6일 한국 해병 제2대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제일선이 돌파당하고 말았다. 10일에도 북한군은 대부대가 해병대 진지를 공격해 와서 제2대대는 다시 돌파되고 말았다. 해병대는 제2선 진지를 보강하고 중공군의 계속적인 침입을 저지하고자 광포교에 철조망을 가설하고 진지를 고수할 것을 굳게 결의 했으나 북한군은 제

2선을 침투하지는 않았다.

14일에 이르자 북한군의 활동이 점차 격렬해져 작전상 방어선을 축소하여 제2대대와 제5대대는 미군과 연합하여 함흥 방어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계속 증강되는 중공군은 함흥을 수중에 넣기 위하여 전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여 왔다. 이날 장진호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과 제7사단이 흥남교두보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 이튿날 한국 해병 제2대대와 제5대대는 연포비행장에서 함흥을 철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해병대는 원산 및 함흥철수작전의 최종 방어부대로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수물자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진해로 철수한 한국 해병대는 이후 작전에 대비해 1개월 훈련을 거듭하면서 부대를 재편성해, 전투부대로 제1연대를 분리하고 따로 독립 제5대대와 해병학교를 창설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6 (2009).

【김현기/조성훈】

장진호 전투

[長津湖 戰鬪, 1950. 12. 6.~11.]

개요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합류하기 위해 험준한 낭림산맥을 넘어 진격한 미 해병 제1사단이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중공군 제9병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혹한 속에 장진호 계곡 일대의 포위망을 공격적으로 돌파해 함흥으로 철수한 작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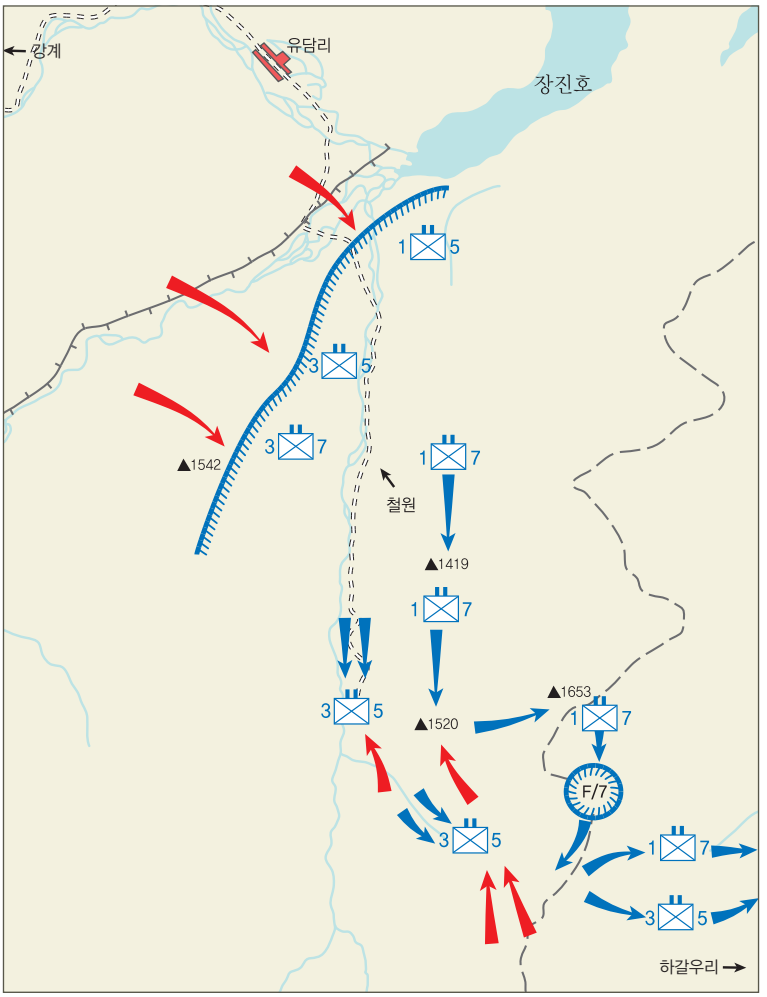
전개과정

장진호는 함경남도 서북부 장진군에 있는 인공호수로, 이 일대는 1,000m 이상의 험준한 개마고원 산악 지역이었다. 또 깊은 계곡에 도로는 단 하나만 있어 교량이 파괴되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무렵 날씨는 주간에도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으며, 야간에는 영하 28~45도까지 떨어졌다. 적설량은 많지 않았으나 곳에 따라 60cm 이상

눈이 쌓여 있었고, 눈보라가 칠 때는 15m 앞도 보이지 않았다.

미 제8군이 서부전선에서 중공군 제13병단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동부전선에서는 1950년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한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 제1사단이 서부전선 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장진호 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의 공격을 받아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야 했다.

진격 과정에서 11월 2일 함흥 북방 수동 일대에서 미 해병대 제1사단 제7연대 제1대대와 북한군 344전차대대 잔존 병력과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일부 중공군 포로가 발견되어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이 확인되었다. 제7연대는 이후 진흥리까지 진출하는데 5



일 이상이 걸렸으나, 별다른 전투 없이 7일 황초령 문턱에서부터 15일에는 장진호 남단 하갈우리를 거쳐, 25일에 장진호 서편 유담리에 진출하였다.

스미스(Oliver P. Smith) 사단장은 제7연대가 유담리를 확보하면 제5연대가 초월공격으로 무평리를 공격하고, 예비인 제1연대는 사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장진호-함흥간 계곡통로를 경비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 선봉에 나선 제5연대는 27일 오전 8시에 강계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했으나, 곧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의 포위망이 압축되고 있을 무렵 군단의 철수 명령이 하달되자, 스미스 사단장은 11월 30일 유담리로 진출한 제5연대 및 제7연대와 사단에 배속되어 풍류리로 진출 중인 제7사단 페이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Faith)를 하갈우리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9병단은 4개 사단으로 편성된 제26군을 장진호 북쪽에 예비로 확보한 가운데 제27군 4개 사단을 하갈우리 일대 해병사단의 주력을 포위 공격하도록 하고, 제20군 4개 사단은 우회 기동으로 제27군보다 남쪽으로 진출해 하갈우리-함흥간 도로를 분할 차단하고 일부는 함흥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적의 강력한 포위망을 돌파하고 함흥으로 철수하는 해병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은 처음부터 고전이 예상되었다.

이 때문에 미 극동공군 수송사령관이 '공수에 의한 철수'를 제안했으나 항공 철수 시 예상되는 엄호 병력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스미스 사단장은 그 동안 발생한 부상자를 항공기로 철수시킨 후 '육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1950년 12월 1일 시험비행을 거쳐, 2일부터 5일까지 하갈우리의 임시 활주로에서는 4,300명의 미 해병대와 육군 부상자들을 공수했다. 6일 하갈우리에서 고토리로 탈출이 시작되었다. 이때의 부대 배치는 하갈우리 북쪽에는 중공군 제79 · 제59 · 제58 · 제80사단이 있었고, 새롭게 하갈우리와 고토리 사이의 18km 구간에 중공군 제76 · 제77사단이 추가 투입되었다. 고토리에서 황초령을 지나 진흥리까지는 중공군 제60사단이 차단 중이었고, 진흥리 남쪽에서 수동을 지나 마전동까지는 유담리 북쪽에 있던 중공군 제89사단이 남하하여 차단해 이미 배치된 6개 사단 외에 새롭게 2개 사단이 추가되었다.

미 해병 제7연대 제2대대 F중대의 잔존 병력을 선두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제1대대는 도로 우측 능선을 따라 전진했다. 12월 2일부터 제7연대에 배속된 육군 제7사단 제31연대의 잔존 병력은 임시 대대를 만들어 도로 좌측 능선을 따라 전진했다. 그러나 몰아치는 눈보라와 중공군의 공격 때문에 주간에 단 5km밖에 행군하지 못했다.

한편, 미 해병 제5연대는 하갈우리에서 12월 6일 아침 8시 30분 이스트 힐(East Hill) 확보를 위해 D · F중대가 공격하여 포로 300명을 잡으며 고지를 탈환하였다. 제5연대가

방어하는 하갈우리로 3시간에 걸쳐 중공군이 대규모로 밀고 들어오자, 미 해병대는 모든 화기로 방어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1천구 이상의 중공군 시체더미가 하갈우리 A중대의 진지에서부터 철도 옆의 보급품 야적장에 널려 있었다. 이에 비해 방어의 주력이었던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는 전사자 10명, 부상자 43명이었다.

제7연대가 도로를 따라 순조롭게 진격하자, 제5연대도 하갈우리를 버리고 출발하였다.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고 길가에는 중공군 시체들이 쌓여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부대들이 하갈우리를 빠져나가자, 유담리에 이어 제5연대 제2대대는 후위부대의 맨 후위를 담당하기 위해 홀로 남아 후퇴하면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해체하거나 불태웠다.

그날 밤 사단의 마지막 부대가 고토리에 도착하였는데, 1만 명의 병력과 1천대 이상의 차량이 하갈우리에서 오는데 거의 40시간이 걸렸다. 드디어 유담리, 하갈우리, 고토리 일대에 분산되어 있던 미 해병 3개 연대가 집결하였다. 제1연대 제1대대가 황초령을 넘어 진흥리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황초령의 파괴된 교량을 감제하는 1081고지를 점령할 임무가 주어졌다. 제1대대는 1081고지 전투에서 중공군과의 교전에서도 피해를 입었지만 혹한으로 하루 밤 사이에 무려 67명이 동상을 입었고 그 가운데 7명이 발을 절단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지원에 힘입어 다음 날 정오쯤 1081고지를 탈취했다.

고토리에서 출발한 최선봉의 제7연대 B중대는 이날 전투를 포함하여 거듭된 전투로 180명의 병력 중 27명이 남았다. 진격이 순조롭지 않자, 연대장은 제7연대 제3대대에 예비대를 투입하라고 했지만 제3대대에는 완전편제 중 120명이 남아있었을 뿐이었고 이미 전부 전방에 투입된 상태였다. 제7연대 제2대대 D · E중대는 12월 1일에 인명 피해가 커서 제5연대에 3대대에 배속된 상태였다.

9일 황초령 고개마루의 도수장을 점령하기 위해 B중대는 1개 소대를 투입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중대 총원 가운데 남은 병력은 소대 절반 밖에 안되는 병력과 C중대 일부 병력과 함께 투입하여 도수장을 장악했다. 황초령 고개마루의 끊어진 다리 양쪽을 확보하고 교량을 보수하여 오후 3시 30분 교량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리가 완성되어 미 해병 제7연대가 막 건널 때 제1연대 제1대대의 1081고지 전투도 끝났다.

제1연대 수색중대원들이 전차 10대를 호위하며 후방을 지켰다. 11일 새벽 2시 30분 몇 시간 동안 홀로 남아 있던 미 해병 공병대는 그제야 안심하고 답교를 폭파시켰다. 같은 날 미 제10군단은 한반도 동북부에서 완전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재 남은 병력은 총원 10만 5,000 명에 전차 및 기타 차량 1만 7,500대였다. 병력은 중공군을 약간 상회하였고, 압도적인 기갑 및 항공 전력에 보급까지 완전했지만,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

한 상태였고 동부전선의 중공군도 병력 손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결과 및 영향

미 해병 제1사단은 중공군 8개 사단의 포위를 돌파하면서 중공군 2만 5,000명을 사살하는 타격을 줌으로써 함흥지역으로의 철수 작전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중공군 제9병단을 5일 동안 동부전선에 고착시키고 서부전선의 제13병단과의 협동작전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제9병단은 3차 공세에 참여할 수 없었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은 동북전선의 아군 부대의 철수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여 이후 전장에서 주도권을 갖게 됨으로써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고 휴전선 이북으로 적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해병대의 피해는 전사 604명, 후송 후 사망 114명, 실종 192명, 부상 3,508명 등 전투손실과 대부분 동상인 비전투손실 7,500명을 내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과 UN군』 (2015).
Lynn Montross · Nicholas A. Canzona, *The Chosin Reservoir Campaign* (HQ. U.S. Marine Corps, 1990).

【김현기/조성훈】

영덕지구 전투

[盈德地區 戰鬪, 1951. 1. 29.~2. 12.]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1년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안동과 영덕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안동-영덕 간의 도로를 확보해 북한군 제10사단의 낙오병과 게릴라들을 소탕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영덕은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하여 태백산맥이 동남쪽으로 뻗어 내리고 칠보산과 팔각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영해와 병곡평야를 이루고 오십천이 흐르고 있다. 이 일대에 출몰하는 패잔병을 소탕해 안동과 영덕간 교통로 확보가 이 작전의 목적이다. 안동은 낙동강 지류가 흐르는 지역으로서 영덕-안동-대구로 이어지는 양호한 교통의 요

지이다.

미 제10군단의 북한강 지역 차단으로 퇴로를 잃자, 북한군 제10사단은 태백산 줄기를 타고 북상 도주하다가, 일부 병력이 안동-영덕 지역에서 저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에 침투한 북한군 제10사단 병력은 제27연대 및 포병대대 약 3,000명으로서 박자동을 근거지로, 강릉에서 보급을 받으며 주로 촌락을 습격해 약탈을 일삼았다. 미 해병 제1연대에 배속된 독립 제5대대는 1950년 1월 하순 정자동에 본부를 두고 연대의 예비대로 안동-대구간 도로를 확보하였다.

1951년 1월 29일 영덕에 집결한 한국 해병 제1연대는 30일 제1대대를 영덕-안동 간의 34번 도로를 따라 원전리로, 제3대대를 청송으로 각각 진출시키고 제2대대를 예비로 영덕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미 해병 제1연대에서 수색을 담당한 길안천 계곡 일대인 삼거리 서남방 박자동에서 북한군의 패잔병 약 400명이 출몰하고 있었다. 한국 해병 제3대대는 우선 1개 소대에 81mm 박격포 2문과 중기관총 2정을 지원해 삼거리에서 수색한 결과, 길안천은 안동-영덕을 통하는 도로의 요충이며 또한 영덕 남방에 출몰하고 있는 북한군 패잔병들의 북상 도주로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박자동 일대의 북한군은 해병 제1연대의 수색대가 도착하기 전인 31일 현지로부터 이동하여 삼거리경찰지서를 습격해 삼거리 일대의 패잔병과 합세하였다.

2월 2일 해병 제1연대는 제3대대 부대대장을 박자동에 이미 출동하고 있는 수색소대에 1개 중대와 박격포 2문을 함께 파견하여 북한군의 준동을 미리 방지하려 하였다. 이미 현상동에서 경찰대와 약 500명의 적과 교전이 있었다.

해병 제1연대는 3일 청송에 주둔 중인 제3대대를 삼거리로 이동시키고 원전동에 주둔 중인 제1중대를 청송으로 이동시켜 적극적인 수색전을 전개하게 하였다. 5일 영덕에 주둔 중인 제2대대의 1개 소대가 덕산동 부근에서 북한군의 기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항동에 본부를 설치한 북한군 약 2천명이 북상하려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를 탐지한 해병 제1연대 본부에서는 북한군의 기습부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이를 포착 격멸하기 위해 제1대대를 신양동으로 이동시키고 제3대대의 제11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시켜 당면한 영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2대대 제6중대와 제3대대 제2중대가 덕산동을 공격해 점령하였다.

7일 북한군 귀순병이 항동에 집결하고 있던 북한군은 아군의 신속한 포진과 공격으로 북상을 단념하고 동대산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여, 제1연대는 즉시 동대산 공격을 결정하였다. 오전 12시 제1, 2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오후 5시 목표인 팔각산을 점령한

후 계속 전진하여 다음 날 오전 12시 신기를 확보하고 9일 오전 8시 최종 목표인 동대산을 공격하여 오후 4시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해병부대의 전격적인 공격에 당황한 북한군은 분산되어 향로봉으로 도주하였다.

해병 제1연대의 영덕지구 주둔으로 보급로가 확보되었으며 아울러 북한군 정보 탐지와 수색전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2일 해병 제1연대는 하저동에 집결하여, 새로운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묵호로 이동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해병 제1연대는 영덕지구에서 피해 없이 게릴라를 토벌해 혼란스럽던 치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선 부대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적정 탐지와 수색전에 성과를 거두었다. 해병대의 기습적인 공격에 당황한 북한군은 분산되어 항동 및 동대산을 경유하여 향로봉으로 잠입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김현기/조성훈】

원산봉쇄 도서작전

[元山封鎖 島嶼作戰, 1951. 2. 13.~25.]

개요

한국 해병 독립 제42중대는 흥남철수 작전이 완전히 끝난 후 동해안에서 전략도서 확보를 위해 1951년 2월 13일 여도에 상륙을 시도한 이후 25일까지 영흥만 일대의 도서를 점령한 작전이다.

전개과정

원산항 외곽에는 자연 방파제 구실을 하는 갈마반도 및 호도반도(虎島半島)와 여도, 신도(薪島), 대도(大島)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이 가운데 여도는 함경남도 원산시 여도동에 위치하여 면적은 약 2㎢로 최고봉은 여도산(△112)이며, 원산항을 제압하고 북한 해군 작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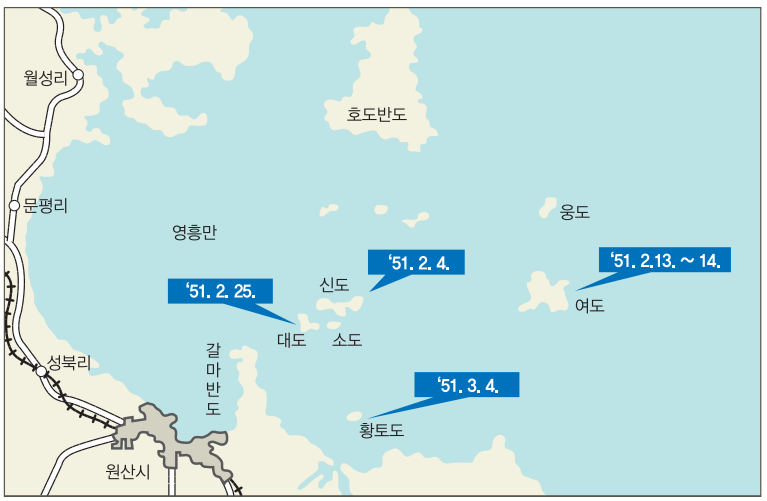
국군이 원산 주변의 영흥만 일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동해안에서 북한군의 가장 중

요한 항구인 원산항을 봉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흥만의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작전 중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원산항 입구에 이르기까지 북한군이 설치한 수많은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했다.

1951년 2월 초부터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미 해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합작전으로 원산 앞바다까지 침투한 다음, 영흥만 내의 여러 섬을 점령하였다. 영흥만 일대 도서들에 대한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됐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여도를 확보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는 여도와 원산항 사이의 주요 도서들을 상륙해 점령하는 작전이었다.

1951년 2월 6일 원산 앞 영흥만의 여도에 대한 상륙작전 지휘관에 임명된 LST-801 함장은 진해와 묵호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할 해병대원들을 승조시킨 후 영흥만 지역으로 이동했다.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해군 YMS-505함과 미 해군 함정들이 지원할 예정이었다. 부대 이동 지연과 소해작업 차질 등 어려움에도 상륙작전에 필요한 사전 정찰 및 기뢰제거 등 준비가 완료되었다.

13일 여도 정찰을 위해 수색대원 10명, 정보원 2명, 섬주민 1명으로 선발대를 편성하여 여도를 수색 정찰한 결과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4일 오전 7시 30분에 여도 상륙작전이 시작되어 해병대 독립 제42중대 제1소대가 섬 동쪽에 성공적으로 상륙했다. 약 5시간 후에는 LST-81함이 상륙부대의 주력인 해병 제2 · 제3소대를 여도 서쪽에 상륙시켰으며, 교두보가 확보되자 중화기 소대와 포병대, 중대본부까지 상륙을 마쳤다.



여도에 대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 섬을 중심으로 한 해군의 소해 작업, 함포사격 및 공중지원 등에 더욱 용이해졌다. 또한 원산항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여도와 원산항 사이에 위치한 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도보다 더 해안에 가까운 섬들은 육지의 적이 상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다. 95기 동부대사령관 스미스 제독이 미 해군 순양함 맨체스터함(USS Manchester CL-83)에서 지휘하는 가운데 16일부터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적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원산항의 주요 목표에 대한 함포 사격을 가했다.

신도 점령 작전은 2월 24일 개시됐다. 미 해군 구축함 2척과 호위함 2척은 5″ 함포 350발과 3″ 함포 259발을 사격했다. 압도적인 사격 지원을 받으며 한국 해병 독립 42중대 병력은 신도에 상륙했다. 제42중대는 이어 남쪽의 소도에 상륙, 잠복해 있던 소수의 적을 사살하고 76mm포 4문과 탄약과 화약 500상자를 노획했다. 독립 제42중대는 다음 날인 25일 인근 지역 북한군의 야포 사격을 뚫고 대도를 점령했다.

결과 및 영향

영흥만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도를 비롯한 근해 도서 상륙작전 성공으로 원산앞바다를 봉쇄했고 안정적으로 적 해안을 공격했다. 해군의 소해작업, 함포사격 및 공중지원 등이 유리하게 되었고, 한미 해군 함정들은 1951년 6개월간 5만발의 함포 사격으로 원산항 일대를 강타했다. 또한 전략도서를 기반으로 인근 섬을 확보해 동해안 여도에 해병대의 주둔은 북한군 해안에 막대한 병력을 고착시켰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김현기/조성훈】

영월지구 전투

[寧越地區 戰鬪, 1951. 2. 19.~3. 15.]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1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북한군 침투 병력이 험준한 중부 산악지대를 최대한 이용해 영월지역에서 국군 제3군단의 방어선을 뚫고 영월-춘양선을 위협하자 중요 거점인 봉래산을 점령하고 북한군을 격퇴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영월은 강원도의 남부에 위치하며 군의 동부에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고 남쪽에는 소백산맥이 여기서 갈려서 동서로 뻗는데 그 양 산맥의 여파가 군내 도처에 미쳐 산악이 중첩하고, 백운산 · 옥석산 · 백덕산 등이 솟아 있다.

국군 제3군단 소속 제7사단은 영월 북방 7~8km 지점에서, 제9사단은 우측에서 작전 중이었다. 북한군 제10사단은 아군의 해상으로부터 공격을 피해 중부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제7사단과 제9사단 사이의 전투지경선 사이로 침투함으로써 영월을 공격하려 하였다. 동해안을 따라 남하 중에 있던 북한군은 1950년 2월 14일 주문진에 침입하였다. 그들은 중부 산악지대가 해발 900m 이상으로 험준한 산악이 연속되어 있는 것과 해빙기의 불순한 일기로 짙게 끼는 농무를 이용하여 집요한 침투작전을 전개하면서, 육군 제3군단의 방어선을 뚫고 영월지구와 영월-춘양 간 도로를 위협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영덕 및 청송지구에서 소탕작전을 완료한 한국 해병 제1연대는 국군 제3군단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2월 15일 묵호를 상륙해 삼척으로 이동하였다. 삼척에 집결한 제1대대가 영월로 이동한 직후 19일 영월 북방 4km 지점인 속동(束洞)에 경계 배치하였다. 적 대대 병력이 신병산과 팔운산을 점령했다는 정보에 따라, 해병 제1대대는 제7사단의 우익을 지원하면서 신병산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21일 팔운산 일대를 공격하기 위해, 길운리에 진출한 해병대는 이곳을 거점으로 제3중대는 신병산 방향으로 전진할 때 737고지에서 적 약 100명과 조우해 제2중대의 지원을 받아 격전 끝에 격퇴시켰다. 제1중대는 팔운산을 점령하고 거산리, 거복리로 진출한 후 수갈령을 향해 전진하였다. 이에 호응한 제2, 제3중대는 문희리에 진출한 후, 두운리를 점령했으나 상부로부터 전진을 중단하고 덕천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북한군 병력들이 해병대의 계속된 공격에 의해 영월지구로 침투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산악 지대로 잠입했기 때문이었다.

그후 적 약 500명이 중동면 녹전리를 점령해 내덕-영월 간 보급로를 차단하고 영월을 재차 위협하자, 제2대대는 야간에 내덕리에서 시루리로 향해 3월 1일 새벽 5시에 녹전리를 공격해 격전 끝에 37명을 사살하고 녹전리를 점령하였다. 녹전리 경비를 단양에 대기 중이던 제3대대에 인계하고 불항리를 거쳐 창리로 진출해 적들을 계속 추적하였다.

수색범위를 확대 추적했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해 3월 2일 제1연대는 창리로부터 정선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제2대대는 유전동으로 향하고 제3대대는 토보동으로 향하였으므로, 제1대대만 정선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중동 일대에 침입한 적이 고비덕산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한 제1대대는 제1중대로 하여금 3월 8일 새벽 3시에 공격하도록

하여 5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점령하였다.

또한 6일 국군 제7사단의 우익이 봉산리 전방 참나무정에서 적의 습격을 받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병대는 제2대대를 유전동에서 용산리로 향하게 하고 제3대대는 봉산리에 진출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는 적의 병력이 박지산으로 남하했다는 첩보에 따라 산제동으로 이동해 박지산을 수색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봉산리에서 남하는 적을 저지하면서, 화기중대의 전 화력을 퍼부어 박지산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박지산 참나무정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적들은 야간에 북상 도주하였다. 해병대 제1연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봉산리–용산리 선에 집결해 제3대대를 예비대로 하고 제1대대를 우일선으로, 제2대대를 좌일선으로 북으로 전진을 시작하였다. 명령에 따라 17일 각 대대는 다시 차항리에 집결한 후 횡성으로 이동하였다.

결과 및 영향

속동, 녹전리, 봉산리 전투 등 영월지구 전투를 통해, 한국 해병 제1연대는 북한군 게릴라를 소탕하여 국군 주보급로와 후방 시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영월–춘양간 도로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135명을 사살하고 14명을 포로로 했으나, 해병대도 21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 · 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김현기/조성훈】

홍천 가리산 전투

[洪川 加里山 戰鬪, 1951. 3. 8.~4. 3.]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1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제와 춘천을 감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홍천 가리산(△1051)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 제6사단 주력 병력을 공격해 아군이 북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 전투이다.

전개과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은 홍천–춘천을 저변으로 하고 인제를 정점으로 잇는 직

삼각형의 사선이 되는 홍천-인제의 중간 지점인 홍천 북쪽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이다. 이때문에 북진하는 유엔군이 이 지점을 장악하게 되면 38도선 이북 인제와 요지인 춘천을 감제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북한군 제6사단 역시 이 고지의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6사단 병력은 대부분 38도선을 넘어 이북으로 도주하였으나 자은리에 있던 사령부는 가리산이 아군에 의해 점령당하면 우측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1,500명을 957고지 일대에 배치시켰다.

중부전선에서 국군 제7사단 우익을 지원하던 해병 제1연대는 차항리로 이동해 작전지역을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고, 1951년 3월 16일 미 제9군단의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되어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17일 차항리를 출발하여 방림리에서 숙영하고, 홍천을 거쳐 19일에 구성포리에 집결하였다.

해병 제1연대 임무는 가리산을 공격해 점령함으로써 아군이 북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해병 제1연대는 가리산을 공격하기 위해 19일 야간 물새터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대대를 우일선, 제3대대를 좌일선을 담당하게 하고 제1대대는 예비대로 후방을 경계하게 하였다.

해병 제1연대는 제2 ·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아군의 포병사격을 전방 적진 일대에 집중하고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22일 제2대대는 가리산 일대 봉우리 가운데 가장 난공지대인 우측의 M지구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M지대와의 중간 지점인 710고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를 유지하였으며, 제3대대는 좌측의 K지구 일대를 완전 점령함으로써 미 해병 제5연대와 연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해병부대의 총공격에 당황한 적은 22일 어둠을 틈타 975고지 일대로부터 제2대대의 진지인 710고지를 기습하여 왔으나 제6중대를 중심으로 약 30분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적에게 큰 손실을 입혀 격퇴시켰다. 그러나 제6중대도 8명이 전사하고 2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부상자도 6명이 발생하였다.

적의 기습에 대한 보복으로 제2대대장은 M지대를 점령할 결심으로 제6중대를 627고지를 공격하게 하고 제7중대는 975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627고지를 제압하지 않고 975고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975고지의 지형이 급사면이고 노출되어서 해병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 또한 공격부대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어서 제7중대의 공격은 돈좌되어 고지 5부 능선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2대대의 공격이 실패하자, 대대장은 24일 야간공격을 재개하였다. 627고지를 담당

한 제5중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에도 돌격하여 627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제7중대장은 적의 방어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되는 975고지 후사면으로 우회하여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제6중대와 합세하여 남북으로부터 협공하였다.

24일 M고지 일대를 완전히 점령한 제2대대는 대대 본부를 975고지로 이동하고 부근 일대를 경계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K지구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서, 적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약간의 병력만 부근 일대에 잠복하고 있었다.

최종 목표인 가리산의 공격은 제1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후방경계 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24일 오전 9시 판메리기에 집결하여 제1, 제2중대가 오전 9시 30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오전 11시 공격부대는 790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하여 가리산에 이르는 중간 무명고지를 야포로 집중 공격해 새벽 2시 점령하고 즉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25일 오후 8시에 최종 공격을 해 다음 날 오후 1시 마침내 가리산 최고봉인 1051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해병 제1연대가 가리산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진에 기여하고 914고지를 중심으로 레디라인(Ready line)까지 진출한 제1대대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해병 제3대대는 제2사단 제22연대에 각각 그 임무를 인계한 후 춘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 전투에서 전과는 사살 121명, 포로 39명, 부상 40명, 다발총 25정 등이며, 해병대 피해는 전사 31명, 부상 91명, 행방불명 2명 등이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 · 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김현기/조성훈】

도솔산 전투

[兜率山 戰鬪, 1951. 6. 4.~20.]

개요

중동부전선의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된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1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양구 북동방 25km에 위치한 도솔산(△1148)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

는 북한군 제12사단 및 제32사단에 타격을 입히고 24개의 공격목표(한국 해병대 22개 목표 탈취)를 점령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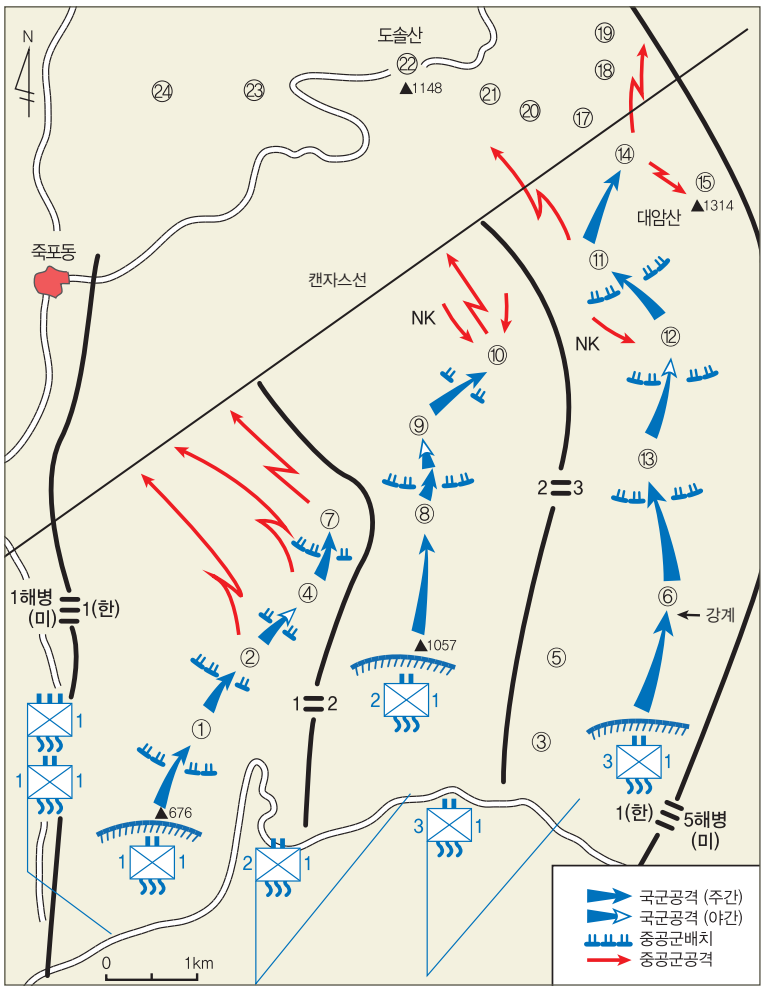
강원도 양구군 동면과 해안면 경계지역에 위치한 도솔산(△1178)은 양구와 인제를 관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고, 태백산맥에서 가장 험준한 곳으로 축봉(△1290), 가칠봉(△1142), 대암산(△1314)이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으며 평균 표고가 1,000m이다. 이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군 전선의 진격이 어려워지고 돌출 지역 때문에 북한군에 포위될 수 있는 전술상의 요충지이다. 또한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보급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해안분지(Punch Bowl)를 감제 관측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도솔산 전투는 1951년 6월 초 중동부의 산악 지역에서 중공군의 5월공세를 저지한 한국과 유엔군이 캔자스선 확보를 위한 전초 진지인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미 제10군단은 미 해병대 제1사단 제5연대를 전방에, 제8연대와 배속된 한국 해병 제1연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12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미 해병 제5연대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미 해병 제1사단장은 6월 3일부로 미 해병 제7연대를 한국 해병 제1연대의 좌측방에서 병진 공격하도록 하였다.

북한군은 제12사단의 병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 재편성한 후, 험준한 산악 능선상의 고지마다 교통호와 엄체호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지의 전방에는 무수한 지뢰와 부비트랩을 설치하여 난공불락의 방어태세를 구축하였다.

한국 해병 제1연대는 죽리에 집결하여 도솔산의 험준한 능선 상에 위치한 크고 작은 24개 고지를 공격목표로 할당받아, 좌전방 제1대대에 목표 #1, #2, #4, #7을, 우전방 제2대대에 목표 #8, #9, #10을 부여하고 제3대대를 예비대로 광치동에 배치했다. 1950년 6월 4일 오후2시 공격을 개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음 날 돌격중대를 교대시킨 후 재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지형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완강한 북한군의 저항으로 다수의 사상자만 내고 돈좌되었다.

미 해병 제1사단장은 사단 정면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 부진하자, 8일 사단 예비대인 미 해병 제7연대를 무명(31번)도로 축선 상에 투입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해병 제1연대의 공격은 고비 때마다 잦은 비와 산악 지대의 농무로 인하여 화력지원, 특히 항공지원이 제한되었고 또 유일한 능선 접근로를 통한 정면 돌파만 반복함으로써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 의지마저 약화되어 해병들의 사기는 몹시 저하되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 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격부대는 예상 외로 적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출하여 공격개시 3시간이 경과할 무렵에는 목표 #4에 이어서 목표 #9를 점령했다.

이때 북한군 제12사단은 그들의 주전술인 야간 공격을 한국 해병 제1연대가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일부 병력만 경계부대로 배치하고 주력은 후방 능선으로 철수 중에 불의의 일격을 받았던 것이다. 목표의 점령으로 해병 제1연대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 전과 확대를 위한 추격작전을 실시해 경미하게 저항하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목표 #7 및 #10을 점령하였다.

12일에는 우전방 제3대대는 공격을 재개해 목표 #12, #11 및 #14를 차례로 점령하였고, 제9중대 1개 소대는 목표 #15인 대암산으로 진출한 우인접 미 해병 제5연대와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캔자스 선 내의 16개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후 한국 해병 제1연대 제2대대는 15일 오전 8시 목표 #17, #18 및 #19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여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 후 적의 역습에 대비해 진지 강화와 정찰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도솔산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제3대대가 17일 오전 8시에 공격을 개시하자 북한군은 박격포로 응사하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두더지처럼 교통호를 파면서 적진에 접근한 후 야간 공격을 감행해 19일 새벽 도솔산을 점령하였다.

제3대대가 중앙에서 주변 고지를 감제할 수 있는 도솔산을 확보하자 맨 마지막으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명령만 기다리던 제1대대가 19일 오전 8시 제3대대의 엄호 속에 도솔산 좌측방으로 뻗은 능선상의 목표 #23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이미 목표 #24로 진출해 있는 미 해병 제7연대와 연결하고 이 고지를 인수함으로써 해병 제1연대는 작전 개시 16일 만에 해안분지를 남쪽에서 감제, 관측할 수 있는 도솔산 일대의 고지군을 확보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해병대는 1단계 작전에서 공격목표 #1~16을 점령했고, 13일부터 전개한 2단계 작전에서 공격목표 #17~24를 차례로 탈환, 도솔산과 대우산으로 연결되는 산악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의 활로를 개척했다. 펀치볼을 감제하는 도솔산 확보는 이후 공격작전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전투였으며, 해병대에 야간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병대에게 '무적해병'이라는 휘호를 내려 격려하였으며, 이는 이후 해병대를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 · 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군사연구소, 『도솔산전투』 (1993).

【김현기/조성훈】

대우산 전투

[大愚山 戰鬪, 1951. 7. 7.~30.]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도솔산을 점령한 후에 1951년 7월 7일부터 30일까지 북한군 제

27사단 제32연대가 장악하고 있는 양구군 동면 대우산을 공격해 백석산 간의 측방도로를 확보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대우산(△1178)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해안분지(일명 펀치볼)를 감제하고, 서쪽으로는 서천강 계곡까지 감제하는 부근 일대에 가장 높은 고지이다.

한국 해병 제1연대가 도솔산을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북한군은 동부 해안선에 북한군 1개 군단을 증원 투입하고 일선 부대를 서측방으로 이동시켜 늘어난 정면을 조정하였다. 해병연대 정면에는 북한군 제27사단 제32연대가 대우산을 거점으로 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면서 수시로 박격포 및 야포 사격을 실시하였고, 야음을 이용해 자주 기습공격을 하였다. 포로의 진술과 아군 정찰대의 보고에 의하면, 제32연대는 1951년 5월 설악산 부근에서 수도사단과 교전에서 큰 타격을 입고 후퇴한 후 병력과 장비를 보강하였다.

1951년 6월부터 휴전회담이 거론되면서, 미 제8군사령부는 전 전선의 작전을 공격태세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고 전방에 정찰기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 진지에서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해병 제1연대는 지휘소를 무학리(목표 23 남쪽 500m)에 설치하고 우일선에 배치된 미 해병 제5연대, 좌일선에 있는 미 해병 제7연대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측방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했다.

1951년 7월 7일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대우산 점령 명령을 받아, 이튿날 오전 8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김대식 연대장은 적의 세력이 약한 지역을 맡고 있는 제2대대에서 제5중대와 제7중대를, 제3대대에서는 제10중대를 차출해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제2대대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해병 제1연대 정면 3km 북방 대우산에 있는 북한군은 국군의 공격에 대비해 월운리 도로 부근과 1001고지 일대에 부비트랩과 지뢰를 매설해 진지를 강화하였다.

8일 새로 편성된 해병 제2대대가 공격하였으나 7월 초 이후 계속된 비로 땅이 질고 미끄러워 공격간 피해가 늘어나 사기가 저하되자, 미군과의 교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교대 1주일 전인 9일 다시 해병 제1연대는 연대공격으로 전환해 일진일퇴의 수류탄 공방전과 치열한 총격전 끝에 중간 목표인 1001고지를 점령하고 미군과 네덜란드 부대와 교대하였다. 이 작전은 군단의 작전 의도에 따라 실시되었으나, 전과가 미흡해서 당시 한국해병연대 수석고문의 작전 중단 요청으로 공격개시 3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7월 15

일부터 미 제2사단에 배속 되어있던 네덜란드 대대가 공격을 개시했으나 방어진지를 강화한 북한군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전과 및 영향

대우산 전투로 아군은 백석산과 대우산 간의 측방도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해병 제1연대는 홍천으로 이동하여 미 해병 제1사단과 함께 미 제10군단의 예비대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 사살 188명, 생포 3명, 다발총 2정, 자동소총 21정 등이며, 해병대 피해는 전사 24명, 부상 185명, 행방불명 1명 등이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군사연구소, 『도솔산전투』 (1993).

【김현기/조성훈】

924고지 및 1026고지 전투

[924-1026高地 戰鬪, 1951. 8. 31.~9. 3.]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1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양구 북방의 해안분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924고지 및 1026고지를 탈환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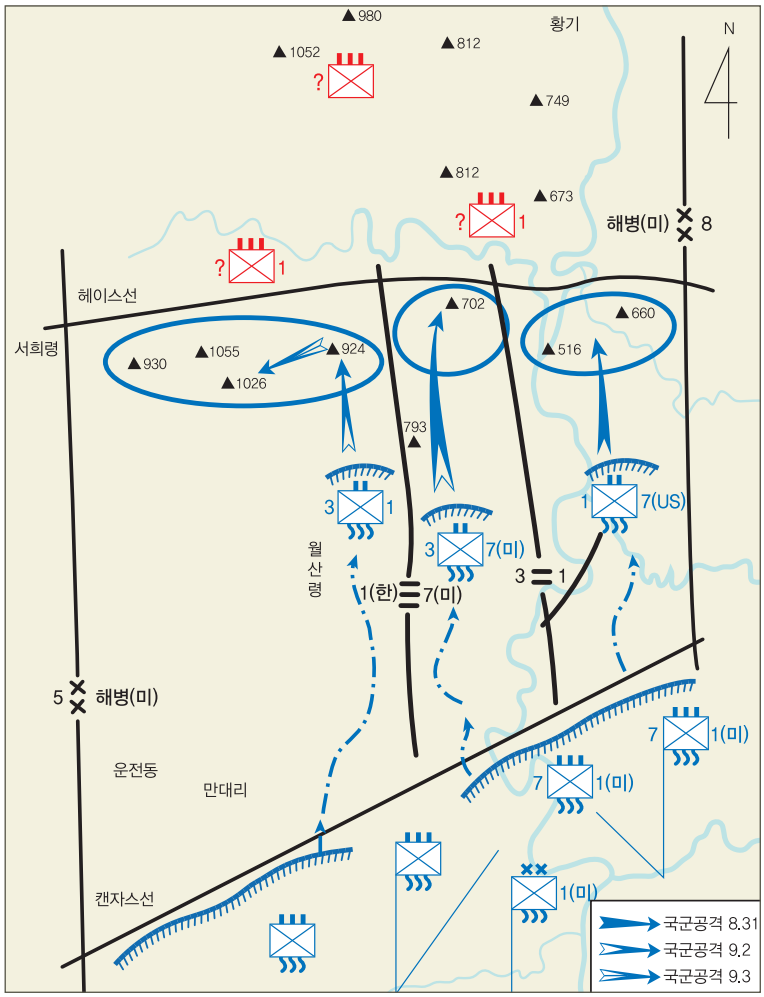
전개과정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북쪽에는 924고지와 1026고지가 있고, 서쪽에는 가칠봉(△1242)과 대우산(△1178), 남쪽에는 도솔산(△1304)과 월산령 등의 고지군이 있었다. 924고지와 1026고지를 점령할 경우, 해안분지를 완전 장악하여 북한군이 본거지로 하는 내금강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동부 전선을 북방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북한군은 한국 해병 제1연대의 공격 목표인 924고지를 '김일성고지'로, 1026고지를 '모택동고지'로 부르면서 사수 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는 아군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1,600여 명의 병력을 924고지와 1026고지 및 그 후방지역에 1

개 대대씩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82mm 박격포 8문과 중기 6정, 경기 20정, 대전차총 6정 등을 보유해 화기 진지를 종심 깊게 배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김대식 연대장은 기동로가 해안분지 동쪽의 가장자리 능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제3대대가 공격을 선도하여 924고지를 점령하고, 후속하는 제1대대가 1026고지를 공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1951년 8월 31일 공격 대기 지점인 월산령에 집결하여 중간고지를 점령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중 날씨가 불순하여 관측 착오로 미군 포탄이 해병대 주변에 낙하하고 또한 북한군 지뢰에 의한 부상자가 발생



해 공격을 중지하고 오후 4시 30분에 일단 철수하였다. 이날 연대장은 제3대대의 최전방 중대인 제11중대를 시찰하고 돌아가다 지뢰를 밟아 부상당하자 김동하 부연대장이 임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9월 1일 제3대대는 공격을 개시하고 전날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미 해병 제7연대 지역으로 측방 우회공격을 하였다. 그곳 역시 북한군이 포격과 집중사격으로 저항하자, 제11중대가 육박전을 감행하는 사이 제10중대는 적진 300미터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다. 오후 2시경 제1대대 제1중대는 제10중대를 초월전진하여 924고지 전방 100미터까지 전진하였다. 그러나 정상이 가파르고 많은 지뢰가 매설된 데다가 모택동고지로부터의 지원 사격으로 후퇴하였다.

2일 제3대대 제9중대와 제1대대 제3중대가 오전 9시 30분에 924고지에 대해 정면 공격을 개시할 때 항공기와 야포의 지원이 원활하였으므로 부대원의 사기도 높았다. 공격을 개시한 제3중대는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우일선 제9중대와 함께 적진을 계속 압박하여 오후 12시 30분 924고지에 돌격해 점령하였다. 이날 고지 점령은 효과적으로 지원한 항공 및 야포 사격 외에도 전날 제1중대의 공격전투로 적이 심한 타격을 입은 영향도 컸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한국 해병 제1연대에 해안분지 북쪽의 능선상에 위치한 924고지를 점령한 이후 곧이어 1026고지를 공격 목표로 부여하였다. 예비대로 있던 제2대대는 공격 명령을 받고 제5중대와 제6중대를 924고지에 진출시켜 제3대대 임무를 인수하는 즉시 1026고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1026고지에는 새로 장비를 보충한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 제2대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그 병력은 약 400명 정도였으며 견고한 유개호를 구축하였고 해병대의 공격 예상로에는 많은 지뢰를 매설하여 놓았다.

해병 제2대대는 3일 오후 3시에 1026고지 전방 1km에 위치한 980고지를 중간 목표로 선정하고 공격부대인 제5중대와 제6중대가 우군의 지원포격의 엄호를 받으면서좌우 협공으로 지뢰지대를 통해 오후 6시 35분 980고지를 점령 확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약 70명이 4일 새벽 4시에 기습하였다. 제2대대는 북한군이 최단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에 일제히 수류탄으로 공격하고 2시간에 걸쳐 백병전까지 벌여, 적이 30명의 시체를 유기하고 새벽 6시 쯤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는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제6중대 및 제7중대가 목표 1026고지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오전 10시 전진한 공격부대는 1026고지 전방 450미터까지 이르렀으나 북한군의 저항이 너무나 격렬하여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이에 항공기와 야포의 지원을 받아, 공격부대는 오전 11시 30분 북한군 진전 30m까지 접근하였다. 돌격부대는 일

단 전진을 중지하고 기다렸다가,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북한군 진내에 돌격하여 3일 오후 1시 45분 진내전 끝에 1026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1026고지를 점령한 제2대대는 북한군이 역습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1056고지까지 전진하여 점령하였다. 오후 3시 50분 1056고지를 완전히 점령한 해병대는 924고지, 1026고지, 1056고지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해병 제1연대는 김일성고지와 모택동고지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북한군의 주방어선을 격파하였고, 쌍방간 진공상태인 만대리 지역을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부전선의 전세가 국군과 유엔군에 유리하게 하였다. 이후 박달고개– 가칠봉–성내동을 잇는 헤이스선(Hays Line) 상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역내 수색과 정찰전을 수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북한군 382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했으며 체코식 경기관총 17문, 다발총 21정 등 노획했으나, 103명이 전사하고 3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 · 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9 (2012).

【김현기/조성훈】

월산령지구 방어작전

[月山嶺地區 防禦作戰, 1951. 9. 5.~18.]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1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 북쪽의 월산령지구 일대 고지군을 점령한 이후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의 역습에 대비해 진지를 강화하고 전방의 정찰과 수색을 강행한 방어전투이다.

전개과정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에 위치한 월산령은 그 서북방에 924고지, 1026고지, 1056고지 등이 있고, 만대리 해안분지를 감제할 수 있는 지형이다. 이 지역을 확보할 경우 북한군의 본거지인 내금강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동부전

선을 북방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한국 해병 제1연대는 월산령 고지 일대에 방어진을 치고 전방에 대한 정찰전을 실시하는 한편 월산령 남방의 만대리 분지의 북한군의 잔적을 소탕하면서 경계하고있었다.

해병대 정면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은 제3군단 제1사단 제3연대로 1951년 9월 초순경 제2사단 제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으며 아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해 방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924고지와 1026고지(김일성 및 모택동고지)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어 보충병을 받아 전투력이 증강되었다.

9월 6일 미 제2사단이 1052고지를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국군 제5사단 제27연대 제2대대 제1중대 및 제3중대가 적에게 포위당하였으며, 오후 6시 30분에 고지를 북한군에게 빼앗겼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국군 전선에서 해병대 정면만 남기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수개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7일 이후 지역 내에서 8차례 이상 북한군의 소규모 야간기습공격이 있었으나, 해병대는 경계를 강화해 거듭 격퇴하였다.

해병대는 현 진지를 보강하면서 적진 깊숙이 수색 정찰을 하는 한편,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장병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방어에 임하고 있는 해병대가 교육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적정의 수색 정찰로 적을 견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편으로 유엔군은 공산군과 휴전교섭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예하부대에 현 전선의 안정을 유지할 것과 진지를 강화하고 계속 방어에 주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응해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에서는 분대 혹은 소대 규모로 아군 진지 전방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였다. 해병 제1대대는 전날 9월 4일 오후 11시 제2중대와 제3중대의 진지 간격을 뚫고 침투한 2개 분대 규모의 적과 이튿날 오전 3시까지 교전한 결과 7명을 사살하고 소총 2정을 노획했으나, 2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동하 연대장은 적의 소부대 침투에 대비해 대대 상호간의 화력을 보강하고 지뢰 매설을 포함해 진지를 보강하도록 하였다. 8일에는 제2대대에서 1개 소대 규모의 적이 새벽 4시 30분에 제6중대 진지를 공격하자 30분간 교전 끝에 5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였다. 제5중대 1개 소대는 오전 8시에 전방을 정찰하면서 930고지 북쪽 1.5km 계곡에서 1명을 추가로 생포하였다. 9일에도 적의 야간 기습과 포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격과 사격이 심해지자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강력한 수색작전을 수행해 새로운 목표를 탈취하고, 18일에는 신 헤이스 선을 확보했다. 이 기간에 한국 해병대는 계속되는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받아 거의 매일 접전을 치렀다. 해병대 기습부대는 북한군의 침입 예상로에 잠복하여 북한군을 진전에서 포착, 격퇴하였고 포로를 획득하였다. 이후 1952년 3월 중순까지 적정파악 및 적진에 대한 기습과 정찰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한국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1사단의 좌익 부대로서 펀치볼 북쪽의 요충지를 담당하던 1952년 3월 17일까지 180일간 같은 지역에서 성공적인 방어작전을 실시했다.

이후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1사단과 함께 서울 방어와 판문점회담 지역을 둘러싼 수륙양면작전을 위해 중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이동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도솔산전투』 (1993).

【김현기/조성훈】

황토도 전투

[黃土島 戰鬪, 1951. 5. 23.~11. 29.]

개요

해병 독립 42중대가 한미 해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산 앞바다 영흥만 일대의 황토도에 상륙하여, 1951년 5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한군 제25여단 소속의 수차례 공격을 격퇴시킨 전투이다.

전개과정

황토도는 강원도 원산시 동쪽에 위치한 갈마반도의 앞 바다에 떠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육지에서 박격포 사거리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섬은 북한군의 해상활동을 저지하고 장차 여도, 신도, 대도 등의 도서 확보에 기여하고 아군의 해군작전과 첩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1951년 5월 23일 북한군 20명이 제1차로 황토도 점령을 시도한데 이어 다음 날 전마선 5척으로 100여 명의 북한군이 제2차 기습작전을 감행하였으나, 해병대 1개 분대의 반격과 포병지원 사격으로 격퇴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독립 제42중대는 10월 초부터 1개 소대를 황토도에 급파해 경비를 강화하였다.

황토도에 대한 북한군의 제3차 침공은 1951년 11월 29일 새벽 1시 30분 경, 안변군 낭성리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제25여단 소속의 일부 병력 150명 정도는 5척의 목선에 분승하여 황토도 동남 100m 연해까지 은밀하게 다가와 황토도 동남단쪽으로 상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황토도 파견소대는 북한군의 기습상륙을 발견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돌격상륙 신호인 청색 신호탄이 발사된 후 북한군의 침공이 시작된 것을 알아차리고, 제1분대장은 즉각 전 분대에 사격명령을 내리고 소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소대장은 새벽 1시 50분쯤 안개가 자욱하여 적정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북한군은 이미 상륙을 완료하고 포격지원을 기다리면서 전열을 정비 중에 있었다. 소대장은 진지 고수를 지시한 후 중대장에게 무전으로 긴급 보고하였다. 여도의 중대본부에서 북한군의 황토도 침공사실을 접한 중대장은 즉각 미 함대에 함포사격과 함께 상륙정의 지원을 요청해 함포로써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 · 견제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 제1소대와 제3소대에서 차출한 병력을 황토도 북안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격퇴하기로 결심하였다.

제1분대와 제2분대의 교신수단인 무전기마저 북한군 포탄에 파괴되어 본대와의 교신이 두절되었다. 본대와의 교신 불능과 북한군의 기습 침공에 대비한 진내 함포사격 등 화력협조가 결여된 탓으로 북한군을 해안에서 격멸하지 못하고 소대 전 병력은 얼마 후 고지 8부 능선을 따라 준비된 예비진지에 산개하고 북한군을 반격하기 위한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처럼 분전이 계속되는 동안 소대장은 대원들을 질타하면서 침체된 사기를 회복시키려 각 분대 전투지도를 하는 도중 진내에서 작렬한 75mm 포탄으로 제2분대장 등 3명과 더불어 전사하였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대원들은 제1 · 제3분대장의 공동 지휘 아래 새벽 2시 40분 무렵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제압하는 동시에 함성을 높이며 북한군 진영을 향해 돌격을 감행하자, 황토도를 기습 점령하려던 북한군은 패주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3시 15분 미리 배치해 두었던 목선을 타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황토도 기습 점령을 위한 직접적인 북한군에 의한 공격은 없었으나, 점차 영흥만 일대 해안방어에 병력을 증원하는 한편, 포대를 증설하고 도서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다.

결과 및 영향

해병대는 황토도 상륙작전과 방어 작전의 성공으로 원산항 주변 영흥만 일대의 주요 도서들을 모두 확보해 원산을 직접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원산항을 방어하기 위해 일선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전환해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 원산항에 설치돼 있던 상당량의 기뢰가 제거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국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8 (2011).

【김현기/조성훈】

호도 전투

[胡島 戰鬪, 1952. 3. 25.~29.]

개요

해병대 도서부대 제7대대가 1952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북한군 제6군단 소속 1개 중대 병력이 담당하고 있는 적 해안봉쇄를 위한 도서작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점령 도서의 경비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석도에 주둔한 제7대대 1개 소대를 호도에 상륙시켜 방어작전을 수행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호도는 진남포 서남방, 석도 동북방 1,800m에 위치한 무인도로 대안과의 거리는 450m이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거리의 섬이다. 이 섬은 동북방에 약간의 모래사장이 있을 뿐 암석으로 둘러싸인 폭 40m, 길이 90m 정도의 작은 섬으로 주식과 부식은 물론 음료수, 연료 등을 모두 석도부대에서 추진보급을 받고 있었다.

해병 독립 제41중대가 1951년 5월 7일 석도를 점령한 이후, 북한군 제6군단 예하 병력과 중공군이 예비 병력을 해안방어에 증원해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석도 대안인 월사리반도에는 2개 연대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적 방어를 취하였다. 적은 1952년 1월 30일 박격포 11발을 호도에 사격하는 한편, 약 30명의 병력으로 소총사격을 가하여 왔으나 해병부대는 이에 즉각 반격으로 격퇴하였다. 이러한 전투상황은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김두찬 해병대 도서부대장은 석도의 대안의 적을 견제하는 한편, 서해지구함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2월 13일 석도부대에서 증강된 1개 소총 소대를 제1차로 호도에 상륙시켰다. 호도에 해병들이 상륙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다른 도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안의 적으로서는 항상 불안에 쌓이게 하였다. 3월 25일 적은 직사포와 박격포로 호도에 무수한 포탄을 사격하는 동시에 석도에도 40여 발의 포탄을 사격하여 석도부대를 견제하면서 오후 8시 50시 4척에 분승한 1개 중대 약 160명이 호도를 향하여 공격하여 왔다. 호도의 해병소대는 집중화망을 구성하면서 석도와 연락을 유지하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해병대는 각개 분산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응전하였으나 고전하면서 고지 후방과 암석 사이에서 흩어져 잠복하여 우군의 지원을 기다렸다.

한편, 호도부대에서는 이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구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도서부대의 기동력 부족으로 전술기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속수무책으로 3월 25일을 넘기게 되었으며 다음 날 26일 백령도 도서부대장이 직접 석도에 출동하여 2개 소대 약 80명으로 구성된 전투정찰대는 발동선 3척에 분승하여 석도부대의 엄호사격과 미군 폭격기의 지원으로 3월 29일 오전 8시 호도에 상륙하여 호도 고지 및 암석 사이에 잠복하고 있던 전우들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미 대안인 육지로 도주한 후였다. 호도를 점령한 해병대는 오후 8시까지 석도로 철수명령을 내렸다.

결과 및 영향

진남포의 관문인 호도를 장악함으로써 서해의 주요 해상교통로인 백령도-석도를 통제하여 적 후방을 위협하며 첩보 수집 및 유엔군의 해군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얻은 전과는 북한군 사살 6명, 포로 2명이었고, 해병대 피해는 전사 3명을 비롯해 행방불명이 30명이 넘었다. 그러나 호도가 적지와 너무 근접해 간조 시에는 수영으로도 침투가 가능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952년 4월 초에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부대는 연평도-백령도-초도-석도 경비를 강화해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서해안 봉쇄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 · 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김현기/조성훈】

장단 사천강지구 전투

[長湍 泗川江地區 戰鬪, 1952. 3. 18.~1953. 7. 27.]

개요

한국 해병 제1전투단이 1952년 3월 18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파주시 장단면 사천강 일대에서 중공군 제65군 제195사단과 대치하여 그들의 계속된 기습 및 야간공격을 막아낸 전투이다.

전개과정

서울 북방 50km 지점의 경기도 북서부의 장단은 판문점에서 사천강에 이르는 11km에 이르는 주저항선 전방 지역으로 해병대가 8개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중공군은 덕물산(△288), 천덕산(△203), 군장산(△213) 등 고지군을 점유하여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

에서 아군의 전초진지와 주저항선 일대의 개활지를 감제하는 지형이다.

휴전협상이 전개되는 기간 중에 중공군은 서울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정전을 이끌기 위해 대병력으로 장단 사천강 일대에 포진했다. 한미해병대는 회담장인 판문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미 해병대가 맡고, 왼쪽을 한국 해병 제1연대가 맡았다. 임진강 하구로 흘러드는 사천강을 사이로 적과 대치한 일대에서는 도라산(△155)이 제일 높은 고지였고, 임진강이 배후에 있어 더욱 불리했다. 작전 형태는 해병대 전투단 진지에 대한 중공군의 기습과 야간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해병대의 방어전투, 적정 수집, 진지 및 시설물을 파괴할 목적으로 중공군 진지에 대한 해병대의 기습공격 등이 실시되었다.

1952년 4월 전투

해병 제1전투단이 중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이동해 1952년 3월 20일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한 이후, 중공군은 해병대 전력을 평가하기 위해 부단한 포격과 야간에 기습하였다. 그러던 중 1952년 4월 1일 오후 10시에 중공군 제195사단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2개 대대가 사천강을 건너 기습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방 소대가 돌파되어 일부 진지가 피탈되었으나, 해병대 전투단의 전방 대대는 역습과 105mm 및 4.2″ 포의 집중 포격과 역습으로 진지 전방에서 적을 격퇴시켰다. 이후 4월 5일과 15일에는 해병대에서 2개 소대, 혹은 2개 분대 규모로 적의 진지를 기습해 48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획득하며 적정을 탐지하였다.

1952년 10월초 전투

1952년 추석 전야에 중공군이 해병대 진지를 침탈하려는 공세에 맞서 4개의 전초진지에서 7일간의 치열하게 수행한 전투이다. 10월 2일 오후 6시 30분 중공군 제65군 예하 제194, 제195사단은 전 전선에 걸쳐 해병대 전 전진기지(36, 37, 924, 43)에 각종 포격을 집중하는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해병대는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격퇴하지 못하고 전진기지로부터 철수하게 되었고, 빼앗긴 전진기지를 재탈환 하고자 하는 역습이 연일 계속되었다. 제6차에 걸친 해병역습부대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아군의 실지(36진지, 37진지, 43진지) 회복을 노렸다.

1952년 10월말 전투

중공군은 10월 31일 31, 33, 39, 50전진진지와 주방어선을 탈취할 목적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11월 1일에도 그들이 집중포격을 가하면서 전진진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으나 분쇄되었다.

가) 39전진진지 전투로서, 31일 오후 10시 5분에 적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250~300발의 각종 포격을 가하면서 39진지를 공격하였다. 해병대는 중공군의 포격이 집중되는 동안 엄체호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적 포격이 잠잠해지자 곧바로 각 진지를 점령하고 적에게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이미 고지 8부 능선을 돌파하고 철조망까지 도달하였던 적을 수류탄 투척전과 사격전으로 격퇴시켰다.

나) 33전진진지 전투로서, 중공군은 오후 10시 5분에 400~600발의 각종 화기를 집중하면서 2개 중대의 병력으로 33진지를 공격하였다. 소대장은 적의 엄청난 포격으로 진지가 대파 혹은 반파되어 사상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에게 수류탄과 소총사격을 집중해 승리로 끝마쳤다. 그렇지만 잠시 후 적은 다시 포격을 재개하고 아군을 교란한 다음 사방에서 공격을 실시해 진내로 진입하였다. 소대장은 아군 진지 10m 상공에서 터지는 '박스 마인'(Box Mine) 포격을 요청한 후 적은 병력으로 진내전을 감행하였으나, 결국 중공군에 진지를 빼앗겼다.

다) 31전진진지 전투로서, 공산군은 3,000~5,000발에 이르는 각종 포격과 동시에 31진지를 공격하자 해병대는 중대장과 함께 적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집중해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이 다시 포격을 집중하면서 재공격하자 해병대는 박스 마인사격을 요청하여 대응하였다. 오후 11시 50분에 한때, 해병대 측의 진지가 무너져 중공군이 진내로 돌입하였으나 해병대는 중공군과 육박전을 감행해 적을 격퇴하였다.

라) 50전진진지 전투로서, 우일선 전진기지와 주저항선에서 적의 침공을 받고 있는 동안 좌일선 제2대대에도 중공군 2개 대대가 50진지를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포격과 동시에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해병대는 잠복부대를 철수 본대와 합류하여 계획된 화망을 구성해 일제사격을 개시하고 적의 주 공격로에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1차 공격을 좌절시켰다. 중공군의 2차 공격은 박스마인 사격을 요청하여 격퇴하였다.

1952년 11월~1953년 5월 기습작전

1952년 11월과 12월에 해병대 전투단은 중공군에 대해 수차례 중대급 규모의 기습공격으로 백병전까지 치르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복귀했다. 1953년이 되면서 5월까지 해병 제1전투단은 계속적인 중대급 규모의 기습작전으로 적이 강화하려는 추진진지

를 방해하고 적정을 수집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중공군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력수색과 정찰 그리고 매복활동을 강화하였다.

해병 제1전투단은 1953년 6월 26일 육군 제1사단을 증원하라는 명령에 따라 제11연대로부터 전선을 인계받고 연천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7월 8일 다시 장단지구로 복귀해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진지를 방어했다.

결과 및 영향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병 제1전투단은 장단지구에서 중공군 제195사단의 거듭된 기습과 야간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서울을 사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련의 전투에서 전과는 사살 8,215명, 포로 27명, 전차 4대, 박격포 13문, 대전차포 9문, 소련제 장총 199정, 비주카포 1문 등이다. 해병대의 피해는 전사 776명, 부상 1,938명, 실종 269명, 박격포 5문, 중기관총 5정, 경기관총 21정, BAR 101정, M1 406정, 카빈소총 258정 등이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0 (2012).

【김현기/조성훈】

사천강 혼비고지 전투

[泗川江 魂飛高地 戰鬪, 1952. 9. 5.~20.]

개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1952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장단 · 사천강 지구 일대에서 중공군 제65군 제195사단과 대치하여 전초진지를 둘러싸고 피아간 강력한 화력지원 아래 기습공격을 하거나 매복 및 수색 정찰을 연일 수행한 대표적인 공방전이다.

전개과정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장단지역은 판문점에서 사천강에 이르는 11km에 이르는 주저항진지 전방의 해병대 8개 전초진지 가운데 36 및 37전초진지를 둘러싸고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졌다. 중공군

은 제65군 예하 제195사단의 제582, 제584연대였다.

해병 제1연대는 파주군 임진면 벌판말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책임 지역의 경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9월 6일 오후 6시에 중공군 제584연대 제2대대에서 강력한 화력과 전차 및 자주포 지원 아래 증강된 1개 중대 규모로 사천강을 도하하여 연대 전진진지인 36, 37진지를 포위하였다. 이들 진지는 사천강 도하지점으로부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공군으로부터 1km 내에 있고 연대 주저항선으로부터는 2.5km 떨어진 고립된 고지이다.

중공군은 해병대를 교란할 목적으로 제10중대 지휘소가 위치한 31진지를 포격하고 사천강을 도하해 화력을 집중하면서 하천을 따라 36진지를 사면으로 포위하였다.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면서 교통호까지 돌입하자, 수류탄 투척에 이어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때 성광식 제2소대장은 근접전으로 중공군을 정상으로 유인한 다음 아군 진지 10m 상공에서 터지는 '박스 마인(Box Mine)' 포격을 요청하였다. 중공군이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해병대원들은 돌격하여 그들을 격퇴하였으나, 그들이 다시 포격을 가하며 재공격했지만 진지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중공군은 수차에 걸친 파상공격으로도 36진지를 점령하지 못하자 공격목표를 동북쪽에 있는 37진지로 향하였다. 37진지를 중공군이 공격하다가 다시 포격을 가하면서 36진지를 포위하려 하였으나, 소대장은 최후 방어 사격으로 물리치고 포지원 사격으로 중공군의 진입로를 차단하니 중공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였다.

중공군은 6일 기습전에서 많은 손실을 만회하고자 19일 오후 6시에 대대 규모 병력으로 재공격하였다. 36진지 철조망을 뚫고 진내로 진입한 제1파는 격퇴하였으나 36진지 앞 200m 지점에서 재편하여 200여 명이 진내로 들어와 해병대와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다. 중공군의 도하부대가 연대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원되어 36진지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진내를 점령하자, 이춘하 제1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박스 마인' 포격을 요청해 진지 위를 점령하고 있던 중공군에게 타격을 입혀 분산시켰다.

제11중대의 역습부대가 36진지를 탈환하여 파괴된 호 속에서 끝까지 버틴 해병대와 중공군에게 납치되었던 20여 명의 부상자를 구출하였다. 그러나 역습부대가 적은 병력으로 진지를 탈환하고 8시간 이상의 야간전투와 수차례의 백병전으로 실탄이 떨어져 또다시 백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치룰 수 있어서 부득이 36진지로부터 퇴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6진지를 재탈환하도록 연대의 명령을 받은 제3대대장은 제9중대로 재공격을 실시했다. 제9중대는 36진지 동남쪽 500m까지 진출하였으며 공격사격과 동시에 전

차 1개 소대를 선두로 한 보전협동으로 돌격을 개시하였다. 공격부대는 함성과 함께 중공군 진내에 들어가 수류탄전을 전개해 중공군을 물리치고 36진지를 재탈환하였다. 한국 해병대는 36고지의 전투가 치열해 혼마저 빠져 달아났다하여 고지명을 혼비고지(魂飛高地) 전투로 불렀다.

결과 및 영향

중공군에게 피탈당한 36전초진지를 재탈환하여 중공군의 제3차 공격을 막아 낸 전투이다. 중공군의 포격으로 진지 정비가 어려워 철조망과 지뢰매설로 엄체호를 구축했으며, 전투가 정찰전에서 기습전투로 변경되고 포병, 공병, 전차 등이 증강되었다. 이 전투의 전과는 중공군 사살 121명, 추정 사살 126명, 포로 1명, 공용화기 1정 수류탄 56발 대인지뢰 7발 등이었으며 해병대의 손실은 전사 53명, 부상 27명, 실종 4명 등이다.

참고문헌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전투사』 (경기 화성 : 해병대사령부,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 (2008).

【김현기/조성훈】

6 · 25전쟁 주요전투 2

발행일 | 2017년 12월 28일

저 자 | 조성훈 전쟁사부장, 손규석 책임연구원,
박종상 책임연구원, 박동찬 책임연구원, 이상호 선임연구원,
박동구 중국군사연구소 소장, 배안석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이근석 사)역사 향방 대표, 김현기 해병대 전략연구소 부소장

감 수 | 김광수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양영조 군사사부장

발행인 | 김철수

발행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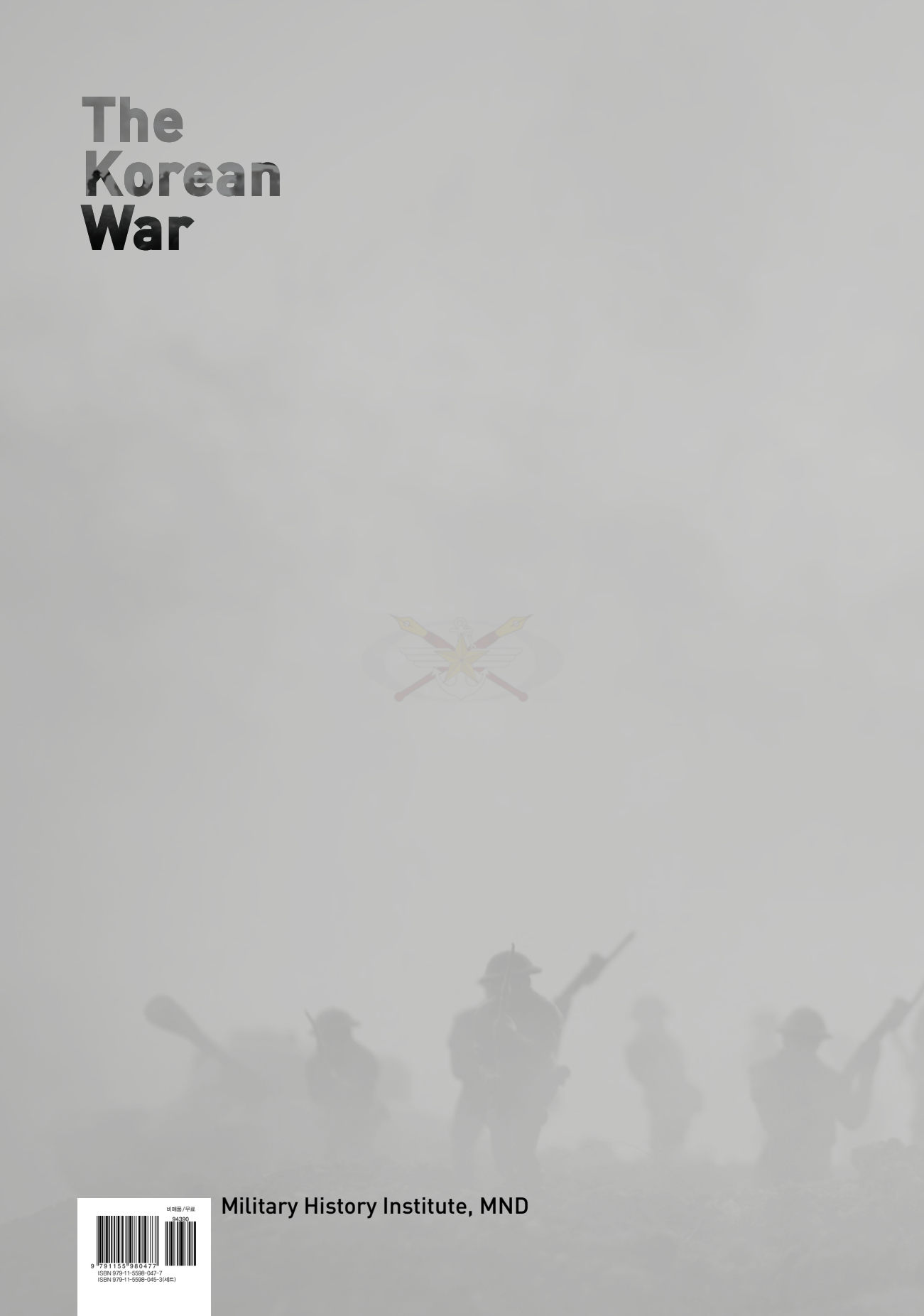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전 화 | 02-709-3175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꾼(02-521-4260)

인쇄처 | 국군인쇄창 M18020226

The Korean War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

비매품/무료
94390
9 791155 980477
ISBN 979-11-5598-047-7
ISBN 979-11-5598-045-3(세트)